차　례

제1장
고목의 뿌리

1

구질구질하던 장마가 걷히자 찌는듯한 무더위가 계속되였다.

서울은 온통 불도가니처럼 확확 달아올랐다. 습한 공기로 하여 그늘밑에 서있어도 삽시에 온몸이 끈적끈적해진다. 한강변으로 인파가 몰려들어 가지를 치렁치렁 드리운 수양버들숲은 어디를 보나 미역을 감느라 벌거벗은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유보도에 나선 사람들은 그늘에 얼굴이라도 가리우고싶어 듬성듬성 서있는 가로수의 좁은 그늘에 몰켜서 서로 부닥치고 발꿈치를 밟으며 야단들이다. 전차마저 헐떡거린다. 승객들도 꼭 한증탕에 들어앉은것처럼 땀을 뻘뻘 흘린다. 무더위에 헐떡거리다가 별찮은 일에 짜증을 내며 태각거리기 일쑤이다.

대자연을 살지우는 계절이건만 서울사람들에게는 너무도 고되고 지겨운 계절이다. 서울바닥을 온통 돌과 벽돌과 세멘트로 빚어놓았으니 그럴법도 하다.

인왕산마루에서 내려다보니 과연 서울은 더위를 막아내기에는 너무도 황량하다. 여기저기로 제멋대로 뿔뿔이 뻗어간 거리들과 골목에는 록지란 별반 보이지 않고 뻘건 벽돌집과 돌담을 둘러친 기와집들과 콩크리트건물들이 꽉 들어차 보기에도 답답하고 한산하기 그지없다.

고려왕조를 뒤집어엎은 리성계가 송도의 유생들이 무서워 한강변에 경복궁을 짓고 수도를 옮긴것은 550여년전의 일이다. 그사이 동서로, 남북으로 도시가 넓어지고 그때마다 수백년을 이어온 울창한 숲이 시퍼런 도끼날에 닥치는대로 결단이 나서 기둥이 되고 서까래가 되고 불아궁이에서 재로 날려 이즈막에 와서는 정말 시내에 나무라고 이름붙일만 한것이 없다.

해방이 되자마자 총독부를 타고앉은 려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가 서울시조림계획도를 만들어놓고 불볕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미군정

이 들어앉자 그것도 한장의 휴지로 되고말았다고 한다.

그러니 서울사람들의 머리우에서 지글지글 타는 폭양을 덜어내자고 하여도 미군을 몰아내고 이 나라의 주인을 정치중심에 올려놓아야만 한다.

지금 정시명은 인왕산마루에 있는 자그마한 정각에서 서울장안을 내려다보며 여러가지 생각에 묻혀있다가 엉뚱하게 더위를 막을데로 생각이 아지를 치자 저로서도 허거픈 웃음을 지었다.

이날 정시명은 마동열과 함께 아침일찍 여기 인왕산에 올랐다.

쏘미회담과 관련한 긴장한 사업이 이른 봄철에 시작되여 여름에 와서 결속되였는데 바람도 쏘이면서 새로운 싸움을 조용히 생각해보고싶었던것이다.

정시명은 다시 생각을 제곬으로 몰아가며 서울안의 여기저기를 휘둘러보다가 하지가 도사리고있는 미군사령부의 우중충한 건물에 눈길을 박았다. 그의 눈앞으로 하지와 브라운을 비롯한 점령군거물들의 얼굴이 하나둘 다가오다가는 천천히 물러갔다.

2차쏘미협상을 제놈들의 리해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결렬시키려고 그렇게도 파렴치하고 너절한 모략을 휘둘러대던 미국놈들과의 싸움이 되새겨졌다.

힘겨운 싸움이였다. 조직성원들이 하나가 되여 벌려온 싸움의 순간순간들이 두고두고 잊혀질것 같지 않다.

쏘미회담을 걸고 분렬을 고착시키려던 미국의 기도는 분쇄되였다.

이제는 미국놈들이 어떻게 나갈것인가?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이 지금도 귀전에 쟁쟁하다.

장군님께서는 미국놈들은 쏘미회담을 결렬시킨 후 분렬에로 더욱 파렴치하게 나갈것이라고 하시였다. 그것이 그놈들의 다음차례 선택이라고 명확하게 찍어주시였다.

바야흐로 남조선의 정치정세는 장군님께서 예견하신 그대로 소용돌이치고있다.

(그러면 정치의 맥을 어떻게 타야 할것인가?…)

그는 서울장안을 굽어보면서 벌써 몇시간째 줄창 이 하나의 물음을 걸어놓고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었다. 여러가지로 얽혀있는 정국을 이렇게저렇게 분석해보며 정치전망을 판단해보았으나 아직은 투명치 않다. 그는 하지의 립장에 자기를 세워보기도 하고 리승만이나 김구의 위치에 자기를 세워보기도 하면서 그들이 새로운 정치적국면을 어떻게 타개하려고 할것인가고 자문자답해보았다.

그리고는 객관적시점에서 그것을 재검토해보았다. 아직 석연치 않고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다.

하지를 빨리 만나고싶었다. 보다 큰 싸움을 위하여 반드시 밟고 넘어가야 할 대목으로 하지와의 면담을 계획한것이므로 놈과의 상면이 초조하게 기다려졌다.

그런데 그사이에 류동명한테서 두번 련락이 왔는데 기다리라는것이였다.

(무엇때문일가?…

아니, 여기에는 무엇인가 상서롭지 않은것이 있다.

나라는 사람이 정계에 전혀 얼굴을 보이지 않은 인물이니 하지가 류동명의 제의를 검토해볼수 있지 않을가?

십분 그럴 가능성이 있다. 분명 하지놈은 류동명이 추천한 미지의 사업대상을 두고 그의 사회적무게와 사업의 실리에 대하여 여러모로 검토해볼것이다. …)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펀뜻 뇌리를 스치는 하나의 불만이 있었다.

필요없이 적들앞에 자신을 로출시키거나 적들의 집중적인 신원조사대상으로 되는것은 어찌보면 지하투쟁에서 죽음이라는 생각이였다. 지하조직성원들은 막부득이한 경우에도 무대의 조명속에 나서지 말아야 하며 수많은 눈길을 받아야 하는 배우로는 되지 말아야 한다.

정시명은 다시는 이러한 놀음에 말려들지 말아야 하겠다고 자신을 엄격히 질책하였다. 《범을 잡으려면 위험은 해도 범의 굴에 찾

아가는거지…》 하고 자기 계획에 대하여 변명도 해보았으나 불안한 마음을 덜수 없었다.

정시명의 예측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는 류동명의 면담제의를 받자 자기의 비서실에 정시명의 정치적력량과 과거경력에 대하여 조사할데 대한 지시를 주었으며 그 집행을 노불에게 위임하였다.

노불은 명령을 받자 인차 난징으로 날아갔다.

쟝지에스의 비밀정보기관인 군통국을 발동하여 정시명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벌렸다.

시안시절에 정시명과 접촉이 잦은 쟝지에스다음에 가는 군벌인 염석산도 만났다.

정향에게 대령계급장을 수여한 인물이 쟝지에스라는것을 알아낸 노불은 쟝지에스의 군사고문단 단장 웨드모웨어를 통하여 쟝지에스를 직접 만나기까지 하였다.

쟝지에스는 여러가지 사실들을 상기시켜서야 자신이 김송일과 정향을 동북지역에 직접 파견하였고 파견전에 그들을 만났었다는 것을 상기하였다. 그리고는 정향처장은 김송일이 신임하는 사람이니 그를 만나보라는 말도 덧붙이였다.

노불은 서울에 돌아오자 경비대사관학교 교장인 김송일을 만났다.

김송일의 대답은 간단명료하였지만 매우 우호적이였다.

《하지중장이 그 어른을 이제야 가까이 하는건 실책입니다.》

이처럼 정시명에 대한 신원조사때문에 하지는 면담을 미루고 있었다.

그러나 정시명은 면담문제만 생각하고있을수 없었다. 쏘미공동위원회사업이 중단되자 내외의 정세는 바뀌여갔다.

쏘련대표단의 쏘미량군철수성명이 새로운 바람을 몰아왔다.

조선인민의 리익과 정치적성숙정도를 인정한 쏘련대표단의 주장은 북남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환영을 받았다. 예상밖으로 김구까지도 성명을 발표하여 이 제안을 지지하여나섰다.

그러나 미국대표단은 이 정당한 제안에 아무런 대답도 주지 않

을뿐아니라 어용보도계와 매국의 무리들이 이것을 반대하도록 부추기였다.

미제의 조종밑에 남조선반동들은 미군이 남조선에서 철수하는것을 결사적으로 반대하여나섰다. 한때는 《즉시독립》이요, 《자률적정부수립》이요, 《반탁》이요 하면서 《애국자》로 자처하던자들이 군정청의 문턱을 부리나케 드나들며 미군이 남조선에서 나가지 말아달라고 애걸하였다. 그리고 남조선도처에서 극우익적인 청년들과 깡패무리들을 동원하여 매일같이 집회와 시위를 벌려놓고 《철군반대》소동을 벌렸다. 한편으로는 어중이떠중이들을 무슨 대표요 대표단이요 하고 내세워가지고 미군정청과 미국대통령에게 《철군반대신청서》를 진정하는 놀음도 벌려놓았다.

이것은 물론 하지를 비롯한 미제의 현지사환군들의 각본에 따르는 망동이였다.

쏘미량군을 철수시키고 외국의 참가없이 조선사람자체의 손으로 자주적통일정부를 세우는것을 지지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문제는 점차 남조선정치무대에서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으로 명확히 떠올랐다.

문제의 심각성으로부터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익반동진영이 삐걱거리기 시작하였다. 처음부터 보조가 다른 파벌들이 다시 헤여지고 합쳐지는 정계의 재편성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다.

정시명은 쏘미량군철거제안을 자로 하여 남조선의 혼탁한 정계의 변화과정을 고찰하면서 새롭게 벗과 원쑤와 포섭대상에 대한 전일적인 구도를 완성하기로 결심하고 점심녘에 이르러서야 인왕산을 내렸다.

례영이 대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샤쯔가 화락하니 젖어있는 정시명을 보자 얼른 안방에 들어가 부들부채부터 찾아주면서 《흥국상회에서 김선생님이 여러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고 전하였다.

《그래?》

정시명이 의아해하면서 방으로 들어갔다. 김명호가 여러번 전화

를 걸어온것으로 보아 무슨 급한 일이 생긴 모양이다.
(무슨 일일가?)
정시명이 생각에 골똘해있는데 점심상이 나왔다.
《동열이 찾아오지.》
《네.》
례영이 사랑채에 나가 동열이를 찾아왔다.
그들이 자그마한 두리반에 둘러앉아 시원한 오이랭국부터 마시는데 다시 례영이 들어와 김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노라고 알렸다.
마동열이 《제가 받겠습니다.》 하고 엉치가 가볍게 일어나는것을 정시명이 어깨를 눌러앉히였다.
《내가 받겠으니 식사를 마저 하오. 무슨 긴한 일이 생겼나보군.》
정시명이 박정인이 살고있는 본채의 응접실격으로 쓰는 방으로 들어갔다.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 방에서는 박정인이 일을 보면서 전화통을 지킨다. 그러다가 정시명에게 전화가 걸려오면 례영에게 알려주고 방을 비우군 한다.
《박계동이 전화받습니다.》
정시명이 수화기를 들고 정중히 자기 소개부터 했다. 박계동은 김명호와 통하는 정시명의 또하나의 가명이였다.
《아, 그렇습니까. 회사일때문에 상의할 일이 생겨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요?》
《실은 양평 려씨가 오늘은 꼭 회계를 맞춰야겠다며 아침부터 아예 회사에 눌러앉아 사장님을 기다리고있습니다.》
《양평 려씨가?…》
정시명의 안색이 금시 밝아졌다.
양평 려씨라면 려운형이다. 려운형의 고향이 경기도 양평군 어디라고 했다. 그러니 려운형이 찾아온 모양이다.
《아뿔싸, 내가 잊고있었구려. 인차 간다고 전해주시오. 가만, 이렇게 합시다.

이 복더위에 모처럼 어려운 걸음을 하셨는데 회사에서 만날 멋이 있습니까. 이왕이면 한강변에 나갑시다. 어데로 갈가?… 그렇지, 뚝섬 버들숲이 좋겠군.》

《예, 그리로 모시겠습니다.》

정시명은 전화를 끊고 방으로 돌아가 마동열에게 려운형선생이 기다린다니 빨리 떠나야겠다고 서둘렀다.

《땀이나 들이고 떠나시는게 어떻습니까?》

《아니, 몽양선생이 벌써 여러번 만나겠다는걸 미루어왔는데 이제까지는 쏘미회담이 목에 걸려 그랬다치고 이제 또 소홀히 해서야 도리가 아니지.》

마동열이 그 소리에 두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점심식사를 서둘러 치르고는 집을 나섰다.

정시명은 려운형이 직접 찾아온것이 못내 반가왔다.

이미 통보했던대로 려운형에 대한 아홉번째의 암살기도가 그의 집에서 있었다. 반동놈들의 테로는 려운형집에 때마침 파견된 청년들에 의하여 좌절되였다.

이 일이 있은 후 신문마다 대서특필로 이 사건을 보도하였다.

려운형이 일이 터진 후 흥국상회에 비서를 보내여 정시명을 정중히 초대하였는데 쏘미회담때문에 자리를 뜰수 없어 지금까지 량해를 구해오던중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려운형이 직접 나타난 모양이다.

큰 도로에 나서자 마동열이 지나가는 택시를 잡았다.

(려운형이라…)

정시명은 택시에 몸을 싣고 려운형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김증원에게서 자세하게 들었던 려운형의 경력이 곰곰히 되새겨졌다.

민족의 기개를 떨쳐온 명망높은 인물이다. 일찌기 일본놈들까지 그 당당한 인격에 군침을 흘렸다 한다. 어느해에는 일본총리대신이 도꾜의 궁성에 초대하여 성대한 주연까지 베풀어놓고 여러 대신들앞에서 천황의 칙령으로 남작의 칭호를 주어 타이완총통으로 봉한다고 공포한 일도 있었다.

그자리에서 한 려운형의 대답이 지금도 이 나라의 뜻있는 지사들의 가슴에 의미심장한 여운을 남기고있다.

《나는 당신네가 남작이나 총통보다 더 높은 벼슬을 준다 해도 독립된 내 나라의 머슴으로 사는것이 더 낫다.》

한때는 공산주의사조에 매혹되여 동분서주하기도 했다.

사람들은 봉건가문출신에 독실한 그리스도교신자였던 려운형이 조선에서 처음으로 맑스의 《공산당선언》을 번역하여 공산주의선전에 이바지한 인물이라는것을 쉬이 믿지 않는다. 그는 중국의 마오쩌둥과도 자주 만났으며 원동피압박민족대회 주석단대표로 모스크바에 가서는 레닌과도 상봉하고 공산주의토요로동을 레닌과 함께 하기까지 하였다. 그래서 레닌파라는 소문도 자자했다. 상하이와 모스크바, 워싱톤과 도꾜일판에 숱한 화제거리를 휘뿌리며 다닌 려운형의 몸값을 계산한 일본총독부는 일본이 항복선언을 발표하기 직전에 일본이 인차 항복하게 되니 독립운동준비를 하라고 미리 통지하였다.

그리고 다음날에는 아베총독까지 찾아와 《일본은 패전하였다. 오늘래일중으로 발표된다. 당신이 치안을 맡으라.》며 권력이양을 제의하였다.

려운형을 내세워야 제놈들의 항복선언후 초래될수 있는 정국의 폭발적인 혼란을 막을수 있다고 판단하였던것이다.

미국놈들도 상륙후 려운형의 건국준비위원회를 해산시키기는 하였지만 그에 대해서는 눈독을 들여왔다.

정무담당 군정장관이였던 아놀드는 려운형을 몇번 만난 후 그 인간상에 반하여 트루맨에게 다음과 같이 인물평정보고를 하였다.

《조선의 독립운동가 려운형은 얼굴이 좋고 목소리가 좋고 비상한 웅변가이며 큰 지도력을 가진 서울의 첫째가는 위인이다.》

하지는 그를 자기곁에 고문으로 두어 미군정청의 영상을 밝게 하며 제놈들의 하수인으로 만들어보려고 무진애를 썼으나 어림도 없었다.

려운형은 미국놈들의 갖은 회유와 위협을 무릅쓰고 평양에 가서

김일성장군님을 뵙고 서울에 돌아오자바람으로 강연회를 열어 장군님의 위대한 사상과 풍모를 선전하였다.

하지가 그를 찾아와 평양행을 따지고들었을 때 려운형이 했다는 대답이 통쾌하다.

《중장, 내 집안에서 내가 다니는데 웃방에 가든 아래방에 가든 미국사람들이 상관할바가 아닌줄 아오.》

그런데 정시명에게 있어서 려운형의 영상은 밝기만 한것은 아니였다.

기개가 드높고 지조가 굳세다는 려운형에게 최근에는 무심코 스쳐보낼수 없는 추문이 무성해지고있는것이였다.

전번에 당자도 고뇌와 울분에 차서 고백하였지만 남로당창립에 제동을 걸고 해를 주었다. 근래에는 미국놈들의 침을 맞은 김규식이 주관하고있는 《좌우합작》에 관여하고있다. 려운형의 눈치를 보고있는 중간세력의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이 따라서고있다.

려운형이 그래서는 안될 사람이 아닌가.

전번에 만났을 때 호걸남아다운 기상에 흠뻑 취해들면서도 품을 들여야 되겠다고 생각하였는데 지금도 마음이 무거워진다.

그러나 려운형은 여러 허물을 젖혀놓고 나라의 독립과 존엄을 지키고저 불사신처럼 살아온 애국자다. 저렇듯 큰 인간이 끝까지 나라앞에서 큰뜻을 안고 의롭게 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의 육체적생명을 보호해주는것만으로는 우리가 자기 구실을 다했다고 할수 없다. 그의 정신을 보호해주고 다듬질해주어야 한다.

(다듬질이라…)

정시명은 생각을 가다듬었다.

2

《몽양선생님, 정선생님이 전해온 말씀이 날씨도 무더우니 서늘한 강변에 모시는것이 어떠냐고 합니다.》

정시명과 전화를 하고난 김명호가 이렇게 전하자 《내 집에 모시자고 했는데… 전일에 내가 대접을 허술히 한바도 있고…》 하며 려운형이 아쉬워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이였다.

려운형일행과 김명호를 태운 자동차는 이내 시의 복판을 벗어나서 한강변을 끼고 질주하였다.

려운형은 요즘도 빳빳하게 말려돌아가는 일정에 시달리면서도 정시명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해왔다.

(정향이 어떤 사람인가?)

고마운 사람이다. 서울장안에 몽양을 위해준다고 주변을 돌아치는 사람은 많지만 누가 그렇게 소리없이 조용히 흉변을 막아주고도 생색을 내는 일없이 잠자코 제볼장에 묻혀있는 사람이 있는가.

이것만 봐도 그 인간의 진가가 가늠이 된다. 장사치가 됐다는 풍문도 있어 어줍잖게 여겼는데 대면하고보니 더욱 범상치 않은 인물이다. 말 한마디도 범상치 않고 다 씨알이 꽉꽉 배겨있다. 행동거지가 기품이 어려있고 박력있고 자신만만하여 별수없이 끌려들게 된다. 거동이 가볍지 않고 무게가 실려있는가 하면 은근한 멋이 있어 헤여지고보니 그리움이 커진다.

그런데 수상쩍은데도 없지 않다.

흥국상회 사장자리를 차지하고있는것으로 보면 분명 저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수면밑에서 가리워 살기를 바라는 인물이다. 그러면서도 나에겐 **김일성**장군님의 뜻을 받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밝혀놓았다.

무엇을 노리여 가리운 자기의 신분을 내게는 서슴없이 드러내놓았을가? 믿음이라는것인데… 무엇을 위한 믿음인가?

신변을 걱정하여 직접 찾아와서 위험을 예고해주고 사람까지 붙여준 처사도 이를데없이 고마우면서도 짐작하기 힘든것도 있다. 통보해준대로 테로가 이틀후에 있었고 그가 붙여준 청년들에 의해 위험이 가셔졌다.

이 모든것이 정말로 우연한 일치이겠는가.

그렇다면 정향은 내가 믿을만한 인물이겠는가? 믿을만한 인물이

라면 이야말로 하늘이 점지해준 은인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대단히 유해로운 또하나의 암초일수 있다.

려운형은 며칠동안 이런 생각에 옴하여 직접 만나 인사도 하고 확인도 해보자고 별러왔었다.

지금 또 이런 생각이 머리를 집요하게 파고들자 천천히 도리질을 하였다. 그에게 남기고간 정향의 인상은 너무도 가식이 없이 진실하고 열렬한것이였다. 그에 대해 저울질부터 하는것이 사람의 법도를 벗어난 역스러운 일이다.

《이보우, 김선생. 하나 물읍시다.》

흥국상회에서 반나절 말상대가 되여준 김명호가 옛지기 대하듯 하는 려운형의 말에 고개를 돌렸다.

《예, 어서 말씀하십시오.》

《당신네 사장이 어느쪽 태생이라고?》

《글쎄요. 북쪽태생인것만은 사실인데 딱히는…》

《북쪽태생이라고?… 음… 그런데 항일전에 나섰던 사람이 어째서 서울에 왔는가?…》

《선생님도 그분이 평양정권에 뒤발질을 당했다는 소문을 들으신게 아닙니까?》

김명호가 빙긋 웃으며 묻자 려운형은 얼굴에 열적은 빛을 담고 말을 받았다.

《듣기는 했어도 난 원체 그러루한 험담을 믿지 않소. 만나보니 그 소문은 헛수작임이 틀림없거던.》

《아마 와야 할 사정이 있었나봅니다.》

《그렇겠지. …》

려운형은 김명호의 짤막한 대답을 음미하며 다시금 정시명과의 담화를 더듬었다.

잠시후 려운형은 김명호에게 직통 들이댔다.

《그런데 말이요, 김선생. 이건 실례되는 얘기같소만 당신은 어느쪽이요?》

김명호는 대답을 인차 못하고 고개를 돌려 려운형의 맑은 눈을 마주보았다.

려운형의 얼굴에서 가장 인상적인것은 우묵하게 패여든 눈확에서 언제나 불줄기같은 세찬 빛을 발산하며 이글거리는 눈이다.

그 눈이 지금은 석연치 않은 그 무슨 속말을 가리우고 고요히 빛나고있다.

려운형이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이야기이지만 거기에 그의 복잡한 심중이 실려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명호는 침착하게 되물었다.

《그건 어떻게 나뉘여지는쪽입니까?》

《당신도 김장군을 따르는 사람인가 묻는거요.》

려운형은 여전히 주저없이 직방으로 대답한다.

김명호도 자신을 밝히기로 하였다. 려운형의 물음에 벌써 그의 지향과 뜻과 은근한 기대가 깔려있으니 그를 구태여 실망시키고싶지 않았다.

《몽양선생님, 선생님께서 물으시는 취지가 딱히 가늠이 되지 않지만 대답드릴수 있는것은 저는 **김일성**장군님의 건국대업을 받들려는 애국심에서 정사장님과 손을 잡았다는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동지로 결합시킨 공통의 립장이고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몽양선생님한테서 우리들을 동지로, 벗으로 결합시킬수 있는 근본적인것을 확인하였기때문에 뜻을 합치고저 합니다.》

려운형은 승용차등받이에서 허리를 떼더니 김명호의 순해보이는 둥싯한 얼굴을 생각깊은 눈매로 지켜보다가 고개를 끄덕끄덕하였다. 그리고는 시창에 언뜻언뜻 스쳐가는 강반의 풍경에 다시 눈을 박은채 생각에 잠겼다.

이윽고 승용차는 멈춰섰다. 강물이 두 길로 갈라져흐르는 가운데 자리잡은 뚝섬에 들어가려면 허궁다리처럼 매달아놓은 널다리를 건너야 한다.

려운형은 따라온 비서에게 몇마디 일러 승용차를 돌려보내고 뒤뚱거리는 널다리를 천천히 걸어갔다.

정시명과 마동열이 섬기슭에 있는 아름드리 수양버들밑에 자리잡고있다가 려운형이 널다리에서 내려 버들숲에 들어서는것을 보자 마중을 나왔다.

《몽양선생님, 무사하신 선생님을 뵙게 되여 참으로 반갑습니다.》

《정사장덕인줄 아오. 실로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소. 내 그날 선생의 진속이 가늠이 되지 않아 인사불성이였는데 백배로 사죄를 합니다.》

려운형이 그 름름한 허리를 깊이 꺾어 사례를 표하자 정시명이 얼른 만류하였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몽양을 따르는 민심에 나도 성의를 더했을뿐입니다. 나는 그날 선생님이 우리의 성의를 사절할가봐 걱정이 컸습니다.》

《하, 아닌게 아니라 의심이 가기도 했지요. 지금도 뭐 의심이 다 풀린것은 아니고… 하하…》

려운형이 코날개를 인상적으로 벌름거리며 슬쩍 속내를 틔워보이고는 껄껄 웃었다.

《자, 우리 이 숲속에 묻혀 한바탕 말싸움을 벌려봅시다. 사실 나는 요즈음 누구하고라도 한번 멱살을 쥐고 속주머니를 활 내던지고싶어 못견디겠습니다. 어떻소, 정향선생. 내 상대역이 돼주시겠소?》

그러면서 려운형은 잘 울리는 목청으로 또 숲이 들썩하게 웃으며 두눈을 장난스럽게 쫑깃해보인다. 코대 높기로 세상에 뜨르르한 려운형이 이런 때는 아이들처럼 순진하고 티없이 맑아져서 재미있게 주위의 분위기를 이끌어간다.

《예, 그렇게 합시다. 누가 입심이 더 센지 한번 겨루어봅시다.》

정시명도 맞장구를 치며 덩달아 큰웃음을 터뜨려놓았다.

려운형은 정시명의 팔을 잡고 껄껄 웃다가 발을 옮겼다.

그들은 먼저 강가에 나가 웃옷을 벗고 시원히 몸을 씻은 다음 버드나무밑에 모여앉았다.

언제나처럼 마동열은 좌석에 끼우지 않고 가까이에 있는 다른 나무밑에 자리를 잡고 이따금 이쪽을 기웃거리기도 한다.

김명호도 일어서려고 하자 려운형이 그의 옷섶을 잡고 《이분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정시명에게 물었다.

《김선생은 우리 흥국상회의 두번째 되는 리사입니다.》
정시명이 웃음속에 선뜻 대답하였다.
《나는 오늘 처음 만났지만 마음에 푹 듭니다. 김선생, 우리 더 면목을 깊이 합시다.》
김명호가 자리에 눌러앉자 려운형이 먼저 《정선생, 무슨 얘기부터 할가요?》 하고 정시명의 동의를 구하듯 물었다.
그 소리에 정시명은 다소 얼떠름해졌다. 이 아름이 큰 거인에게 이렇게도 세심한데가 있다는것이 쉽게 믿음이 안갔던것이다.
그런데 려운형이 상대에게 말고삐를 그들이 눈치채지 않게 슬쩍 넘겨주는데는 딴 궁냥이 있었다. 그는 정시명과의 담화를 어떤 방향에서 끌고나가야 할지 아직도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있었다.
이 사람을 어느 정도 믿고 어느 정도까지의 속말을 꺼내야겠는가. 정말로 도움을 받을수 있는 재목감이 돼주겠는가. 그의 말대로 나를 따르는 민중의 한사람이겠는가 아니면 경계해야 할 인물이겠는가.
이걸 타진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나에게서 관심하는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데 대하여 먼저 아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였다.
정시명도 려운형의 물음이 단순히 순진한 구석에서 솟아난것이 아니라 보다 엉큼한 타산이 있는 물음이라는것을 간파하였다.
그는 려운형의 심중을 넘겨다보자 얼굴에 느긋하게 떠돌던 웃음발을 지웠다. 그리고는 저력있는 어조로 단도직입적으로 따지고들었다.
《나는 몽양선생님이 지난해 봄에 그리스도교회관에서 수천청년들을 울렸던 만세의 선창을 지금도 할수 있겠는가 하는데 대한 분명한 태도표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만세선창?!》
뜻밖의 소리에 려운형이 급소를 찔리운듯 흠칫거리였다.
그것은 지난해 3월에 있은 일이였다.
평양에 가서 두달동안이나 **김일성**장군님을 가까이에 모시고 가르치심을 받고온 려운형은 서울에 돌아오자 하지와 대결하고나

서 서울그리스도교회관에서 평양귀환강연회를 가지였다. 거기서 장군님의 위대한 인간상을 격조높이 칭송하고나서 이렇게 강연을 마치였다.

《동포여러분, 나는 60평생을 살아오면서 세상에 제노라 하는 명사들을 수없이 보아왔지만 어느 누구를 호칭하여 만세를 부르며 장수를 기원한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몽양은 이제 비로소 그렇게 부를수 있는 대영걸을 찾아냈습니다.

우리 다같이 부릅시다.

조선민족이 낳은 자랑스러운 희세의 영웅 **김일성**장군 만세!》

려운형의 선창에 따라 그리스도교회관이 떠나갈듯 폭풍같은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그날의 환호성이 이 순간 그의 흉벽을 울리기 시작하였다.

(이 사람이 단칼로 내 명치를 후벼대는구나.)

려운형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바로 그것이다. 그에 대하여 걱정해주는이가 많아졌다. 그게 제일 가슴아프다.

그러나 이 문제라면 누구의 공격을 받든지 당당하게 맞설수 있다.

지금도 려운형은 괴로움을 꾹 누르고 정중하게 대답했다.

《그에 대해서라면 어떤 이의도 있을수 없소. 당신들모두가 주시하는바와 같이 김장군은 나의 절대적인 숭배의 화신이요. 내가 일정때부터 우러러 경모한분이 그분이였고 지난해에 갈팡질팡 로심초사 거듭하다가 가르치심을 받고저 찾아간분도 바로 그이이시오. 장군님 만세를 죽으면서도 부를 이 몽양의 절개는 송죽같다는걸 믿어주시오.》

그의 목소리는 마디마디에 진정이 고여있었고 신념과 열정이 비껴있었다.

《그러나…》

려운형이 오른주먹을 불끈 쳐들었다가 앞으로 후려치며 말을 이었는데 말투가 순식간에 달라졌다. 왜놈재판정을 쩌렁쩌렁 울리던 그 목소리다. 노기가 서리고 원한이 맺혀있다.

그는 정시명과 김명호를 불이 펄펄 이는 눈으로 노려보다가 다

시 주먹을 흔들었다.

《당신네가 왜 그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 알겠소. 지금 좌익권이 날 량심법정에 내세우라고 고아대는데 내 얼마든지 응할 생각이요.

내 전일에 정선생한테 곱지 않은 소릴 하다가 말았는데… 오늘은 툭 터놓고 내 속말을 다 꺼내놓겠소.

박헌영이 8.15직후에 날 찾아와 인민공화국을 만들되 미국의 눈치를 봐가면서 리승만을 가급적으로 대통령으로 내세우자고 했소.

내가 리승만을 좋아하지 않는건 만인이 다 아는바요. 나는 상하이시절 리승만이 림정의 림시대통령으로 돼가지고 그곳에 왔을 때도 끝내 내가 맡아보던 거류민단은 한명도 환영행사에 내보내지 않았소. 그런데 바로 그 박헌영이 지난해에는 조선이 궁극적으로는 쏘련의 한개 가맹공화국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소. 이것은 일본총리대신놈이 나더러 조선을 일본의 자치국으로 만들자고 하던 소리나 같구같은 말이요. 그래 내가 쏘련의 가맹공화국이 되고저 하는 박헌영의 밑으로 기여들수 있는가. 내가 물러서니 인민당도 신민당도 과반수가 날 따라서겠다는거요. 공산당에서도 리영이하 숱한 사람들이 내밑에 모여들었소. 그런데 박헌영이 오금이 저려나니 모든 죄를 내게 씌우는구려.》

《선생님의 뜻이 헤아려집니다. 박헌영의 소리는 우리 장군님의 사상과는 어방도 안되는 수작입니다. 나도 최근에 와서 박헌영이 정말로 공산주의자인가 하는데 대해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몽양선생님, 제가 감히 말씀드려도 될가요?… 네, 그런… 개별적인간의 허튼소리에 악감을 가지고 시대와 인민의 요구를 외면하여 당을 분렬시켜서야 안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선생님도 로동당지붕아래에 들어가 옳은 로선을 세우도록 투쟁을 벌리고 애국세력의 분렬을 막는것이 현명한 방책이였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애국세력이 뿔뿔이 헤여져서 각축전을 벌려나가면 리득을 볼건 미국놈들이고 손해볼건 통일운동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근로인민당의 우경화에도 불만이 있습니다.》

《우경화?… 우경화라니?!》

《들려오는 소식이 좋지 않습니다. 지금 근로인민당이 김규식의 민족자주련맹과 함께 〈좌우합작〉에 나섰다고 하는데 〈좌우합작〉이란 미국놈들의 지휘봉밑에 벌어지고있는 놀음이라는걸 선생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보시오, 정선생 나는 왜정시기에도 조선의 독립에 도움이 되는것이라면 민족주의자로도 되였고 공산주의자로 되기도 했다오. 그뿐이겠소. 왜나라의 궁성문턱도 서슴지 않고 넘었단 말이요. 지금 시국이 건국을 위해 민심을 합쳐줄것을 요망하는데 미국놈들이 주도하는 합작이라면 어떻다는거요. 우선 뭉쳐가지고 나라를 세워놓는것이 초미의 과제가 아닐가. 그러느라면 미국놈들도 어차피 물러갈것이고 반동도배들도 국민적심판에 기가 눌리게 될게 아닌가. 이건 전술에 관한 문제요. 1보전진 2보후퇴라는 레닌선생의 훈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오.》

《몽양선생님, 미국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미국의 조선정책을 어떻게 접수하는가, 이것은 전술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건국대업의 기본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조선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미국이 우리 나라를 타고앉기 위해 백년간 집적거렸는데 그 야망을 실현하기 전에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것이라고 저에게 간곡히 가르쳐주시였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한다면 공산주의자이건 민족주의자이건 미국놈들이 하는짓에 북을 쳐주거나 그놈들의 북장단에 춤을 추지 말아야 합니다. 〈좌우합작〉이 괴뢰정권을 만들어내려는 미국놈의 고안품이라는거야 선생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음, 그건 그렇소. 그래, 확실히 문제가 있구만. 〈좌우합작〉이라… 좀 알쏭달쏭한게 있어. …》

려운형은 방금전의 그 도고하고 울분에 찼던게 언제이더냐싶게 눈에서 이글거리던 광채가 꺼지면서 침울하게 중얼거렸다. 그의 얼굴이 단박에 벌겋게 달아오르고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것이 측은하면서도 정이 푹 들게 한다.

김명호가 어깨가 푹 처진 려운형의 모습을 보기가 안되여서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 마동열에게로 갔다.

정시명은 려운형의 손목을 꽉 잡았다.

《몽양선생님, 장군님께서는 선생님을 푹 믿어마지않습니다. 장군님의 뜻을 변치 말고 따릅시다.》

《정선생, 고맙소. … 헌데 근로인민당이라는게 원래 갈래 많은 무리에서 삐여져나온 사람들이 모여든지라 코코에 집안싸움이고 바람 잘날 없소.

내 기미년에 상하이에 건너가 처음 거류민단이라는걸 무어가지고 독립운동을 시작한이래 서른해 넘기지만 지금처럼 앉은자리가 바늘방석같기는 처음이요. 그런즉 그릇이 크고 복잡하기 이를데 없는 당을 다스려가는게 내 체질에는 아마도 합당하지 않은것 같소. 선생도 잘 아시겠지만 나야 왜정때부터 단병접전에 습관된 사람이 아니우.

내 이젠 정선생께 집안허물을 다 내놓겠으니 용렬한 놈이라 탓하지 말고 들어주시오.》

려운형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자기의 고충을 털어놓으며 근로인민당이 부대끼고있는 여러가지 복잡한 내부사정을 개괄하기 시작했다.

…근로인민당에는 3개의 파벌이 있었다.

남로당창립시에 파편처럼 튀여나온 인민당과 신민당, 공산당계렬이였다. 인민당파는 려운형이 중심이였고 신민당파는 백남운이 선두에 있었다. 공산당계렬은 박헌영의 종파적책동에 반기를 들고 떨어져나온 리영을 중심으로 뭉쳐있었다.

그런데 이 파벌들은 서로간의 모순과 알륵으로 하여 행동의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있었으며 서로 당의 령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암투를 벌리고있다. 여기에 미국놈들이 당의 체질을 개량화하기 위하여 제놈들의 밀정들을 교묘하게 박아넣어가지고 책동하였다.

당은 좌익으로부터 우익으로 기울어지고있었다. 당론으로

이를 확정해야 한다는 우익분자들의 압력이 점점 거세차지고 있다.

려운형은 점차 당안에서 통솔력을 잃어가고있었고 기울어져가는 당세를 떠받칠 용단을 내리지 못하고있었다.

당이 지금껏 버티여오는것은 려운형의 명망과 당의 지도인물들로서 각 파벌의 수장들인 려운형, 백남운, 리영이 친분관계가 두터운데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파벌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을 리용하여 려운형을 중심으로 하는 당의 지도력을 가까스로 지키고 있었다.

《내가 집안단속을 잘못해서 소리를 낼 때마다 가슴을 치군 하오.

맑스주의를 신봉한다고 한 당이 우경화라니 어디 마땅한 소린가.

장군님앞에서 다진 뜻을 욕되게 하니 이 몽양의 배은망덕이 실로 크오. 내 그래서 시비곡절 많은 당을 깨버리고 옛날처럼 단병접전으로 도전해볼가 하는 생각도 해본다오.》

려운형이 이렇게 탄식을 하며 크게 한숨을 내쉬는데 그의 비서가 운전사와 함께 갈로 엮은 큰 광주리를 맞들고 버들숲에 나타났다.

《아, 이제야 나타났군.》

려운형이 제가 벌려놓은 숨가쁜 이야기에서 벗어나는게 다행이라는듯 크게 소리치며 일어섰다.

비서와 운전사가 가져온 광주리에는 깡통맥주와 마른 안주가 가득 차있었다.

《자, 김선생도 어서 이리 오시오. 시원히 적셔봅시다.》

려운형이 잔들에 맥주를 채워주며 좌석의 분위기를 즐겁게 바꾸어놓는다.

정시명은 맥주를 들면서 려운형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겠는가 하는 하나의 생각만 하였다.

돌아가는 말이 하도 많지만 려운형의 애국지조는 여전히 높다.

근로인민당도 잡음이 밖에까지 크게 새여나오지만 그래도 애국적인 정당들중에서 로동자와 농민의 권익을 표방하는 집단으로서는 로동당 다음에 가는 당이다. 아직도 리념으로서는 공산

주의를 표방하고 막연하고 추상적이지만 무산자의 정권수립을 표방하고있다.

앞으로 정당들과의 사업을 벌리는데서 어차피 기둥으로 내세워야 할것은 근로인민당과 려운형이다. 그러니 저들이 나라의 완전독립과 민족단합을 위하여 자기앞에 놓인 시대적사명을 다하도록 성심성의로 도와주어야 한다. 어떻게?…

바로 그 방도를 려운형이 튕겨주었다. 광주리에 담은 맥주깡통이 밑창이 날무렵에 김명호를 대상하여 한담을 늘어놓던 려운형이 마치 그에 대한 인물심사를 끝낸듯 정시명에게 다가앉으며 허물없이 무릎을 건드렸다.

《정선생, 이 맥주가 공짜가 아니우.》

《하하… 뭐 우리도 공짜로 마셔주는게 아닙니다.》

《정선생, 내게 이 사람 주실라우?》

려운형이 엉큼하게 눈을 슴벅거리며 늘어붙는다.

《김선생을요? 하하, 글쎄 날 돌려놓고 김선생보고만 해본다 했더니 딴 궁리가 계셨군요. 안됩니다. 그 사람 빼가면 우리 회사는 어쩔려구요.》

정시명은 딴전을 부려 딱 잘랐다.

《아, 날 좀 도와주오. 내 한달전부터 조직부장자리를 비워두고 있다오. 흥국상회에는 호두알같은 사람들이 많을것만 같구려. 우리한테 온 청년들만 보아도 내 탄복되는바가 크오. 우리 당을 장군님뜻대로 몰고가려면 정선생수하인물을 실권자리에 두고 도와주는게 여러모로 좋을게 아니요.》

《선생님의 의향이 정 그러하시다면 우리에 대한 신임으로 받아들이렵니다.》

《고맙소, 정선생!》

려운형은 정시명의 두주먹을 으스러지게 틀어잡았다.

정시명은 큰 고리가 풀려나가는듯싶었다. 근로인민당을 완전히 장악하면 려운형의 기맥을 짚어보려고 하는 중간정당들은 물론 우익민족주의세력들과도 련합을 이룩할수 있을것 같다.

려운형은 김구는 미워하지만 김규식과는 벌써 오래동안 가까

운 관계를 유지해오고있다.

려운형이 김규식의 《좌우합작》놀음에 발을 들이민것도 이러한 인간적뉴대가 적지 않게 작용한것이였다. 려운형과 그의 당을 내버려두면 종당에는 그들이 김규식에게 끌려가서 매국배족의 길에 굴러떨어질수 있다.

만약 려운형과 그의 당을 도와 애국의 궤도를 탈선하지 않도록 하면 김규식이도 점차 려운형에게 끌려오게 될것이다. 전망적으로 그밖의 중간세력도 려운형의 밑으로 모여들어 애국의 진을 확대해나갈것이다.

정시명의 머리에는 보다 거창하고 희망찬 작전이 서서히 륜곽을 드러내놓기 시작하였다.

정시명에게로 쏘미량군의 철거와 관련한 자료들이 속속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길철은 정치적분석과 판단이 정확하고 심도가 깊은 김증원과 함께 매일 보고되는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통보하였다.

쏘미량군의 철거문제와 관련한 각 당파들과 인물들의 동향자료는 그자체만으로도 가치있을뿐아니라 그들의 정치적체질을 평가하는데서 매우 귀중하였다.

미군철수를 지지하는가 반대하는가 이것은 애국과 매국을 가르는 시금석이였다.

첫 보고부터 정시명의 주의를 끌었다.

《리승만과 〈한민당〉의 우익반동들은 철병제안을 반대하고있다.

그들은 만일 미군이 철거하면 북에 조직되여있는 무력이 남진해올것이고 남조선전역에서 좌익의 전면적인 무장반격이 예정되므로 미군은 남조선에 최소한 군대를 양성해놓고 단독정부를 수립한 다음에 철병해야 한다고 떠들고있다.

려운형과 그의 당은 철병지지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김규식은 최근 하지와 좀 밀접해졌고 유엔에 대표로 갈것이 예정되여있어 반동화되는 경향이 깊어지고있다. 그는 철병제안에도 조심스럽게 반대의사를 표시하고있다.

그러나 김구는 철병제안을 지지찬동하고있다.

그는 비상국민회의가 주최한 〈마샬제안옹호시민대회〉에서 〈쏘련의 철병제안을 환영하며 감사히 생각한다.〉고 언명하였다.

철병제안지지는 김구의 정치생활에서 고무적인 변화이다.》

김구의 철병지지립장은 미군정청에 커다란 타격으로 되였다.

미국놈들은 저들의 지지기반으로 인정하고있는 남조선정치세력의 쌍두마차중의 하나인 김구세력의 로골적인 도전에 바빠맞았다.

이에 대한 종합보고가 제출되였다.

《거듭되는 모의끝에 하지는 쏘미협상대표 브라운을 다시 정계인물들에 대한 심리작전에 내세우기로 결정하였다.

또다시 정계거두들에 대한 순행공세가 예견된다.》

평양회담에 갔다가 실상 정시명조직의 덕으로 용케 목숨을 건진 브라운은 지금 이런 일에 나설만한 경황이 없었다.

그사이 하지가 몇번 호출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노불이 전화로 당면하여 서울정계인물들과의 사업에 착수할데 대한 하지의 지시를 전하자 《노불, 이 브라운이 다시는 중장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겠노라 한다고 전하시오. 난 사직서를 냈단 말이요.》 하고 퉁명스럽게 일축하였다.

하지는 하는수가 없었다. 지금은 명령불복이라는 딱지를 붙여 군사법정에 세울수도 없게 되였다.

그러나 눈앞의 불을 끄자면 어차피 브라운의 손을 빌리는수밖에 없었다.

바빠맞은 하지는 노불의 보고를 받자 이례적으로 술병을 차고 의정부로 내려갔다.

하지가 술잔을 내밀자 브라운은 팔걸이걸상에 두팔을 거느즉이 올린채 적의에 찬 눈초리로 쏘아보다가 이렇게 말했다.

《그건 고별주가 아닌가요?》

하지는 단박에 화로불을 뒤집어쓰기나 한듯 수수떡처럼 얼굴이 시뻘개졌으나 천연스럽게 받아넘겼다.

《화해잔으로 받아주오.》
《당신은 정말 나에 대한 암살작전이 모의된다는 자료를 입수한 것이 없었소?》
브라운은 여전히 하지가 내미는 잔은 거들떠보지 않고 칼끝처럼 서슬푸른 어조로 들이댔다.
《그건 사실이였소.》
《그런데?… 어째서, 어째서 당신은 내가 평양으로 떠날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소?》
브라운은 성이 머리끝까지 치받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꽥 소리질렀다. 그의 두눈에서는 류황불같은 새파란 불이 활활 이는 것 같았다. 참고참아왔던 분통이 터진것이다.
《말해보시오, 중장. 난 서울에 와서 당신의 시중군노릇을 충실하게 했소. 뭐가 부족하오? 그런데 동업자에 대한 대접이 고작 암살이요? 하필이면 어째서 부하 사단장을 제물로 제공하게 됐는가 말이요. 대답하시오, 중장!》
브라운은 두눈을 사납게 부릅뜨고 당장 그를 통채로 씹어버릴듯 맹수처럼 울부짖었다.
하지는 술잔을 거두지 못한채 그 맹수앞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양처럼 초췌한 꼴로 서있었다. 어쩌는수가 없다. 이젠 브라운에게서 상급대접을 받기는 어려워졌다. 한걸음 비켜서는수밖에 없었다.
《용서하오, 브라운. 난 사실 그걸 하나의 투서에 불과한것이라고 무시해버렸던거요. 설마 미국이 미쳐났기로 그런 일까지 할수 있겠느냐고 생각했단 말이요. 그래 평양으로 떠나는 당신에게 공연한 부담거리를 주지 말자고 생각했던거요. 내가 잘못했소, 브라운.》
하지는 상하간의 계률을 뛰여넘어 공손한 어조로 루루이 거짓변명을 늘어놓으며 용서를 빌었다.
브라운은 하지의 사죄의 말을 확인해보듯 여전히 찌르는듯한 눈초리로 그의 세모눈을 쏘아보았다. 그리고는 그의 손에서 잔을 받아 단숨에 꿀꺽 마셔버리고는 술잔을 방바닥에 힘

껏 팽개쳤다.

유리잔이 땅바닥에 부서져 산산쪼각이 났다.

브라운은 속는척 할수밖에 없었다. 역시 하지는 자기의 생사를 결정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있는 무서운 직속상관이다.

그러나 하지에 대한 환멸과 배신감은 속안에 차돌처럼 옹쳐졌다. 죽을 때까지 풀리지 않을것이다.

《자, 이젠 그만 투정을 하고 일을 합시다.》

하지는 브라운이 다소 눈빛이 달라지자 그의 어깨를 눌러앉히며 그제야 상관답게 너그러운 미소를 지어보였다. 그리고는 품에서 브라운이 제출한 사직서를 꺼내 찢어버렸다.

《미쏘협상의 결렬이 또다시 골치거리를 남겨놓았소. 미쏘량군철수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정계가 소란해지고있소. 군정청은 당신이 다시금 정계인물들에 대한 포섭공작을 맡아볼것을 위임하기로 하였소. 국무성과도 의견일치를 보았소.

날 도와주오. 이러니저러니해도 우린 서울감탕에 함께 다리를 묻고있지 않소.》

이리하여 브라운은 호미난방격이 되여 다시 군정업무에 복귀하였다. 하지만 브라운에게서 전과 같은 열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브라운은 김구와 정계거물들을 만나 미군철병문제를 당분간 보류해줄데 대한 미국의 립장을 전달하는 정도에 그쳤다.

내키지 않은 일이 제대로 될리 만무하지만 미군철병문제와 관련해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랭소적이였다.

리승만과 《한민당》인물들만이 예견했던대로 《미군철병이라니, 그게 될 말이냐.》고 껑충 뛸뿐이였다.

하지는 그에게 우익계의 련합을 유도할데 대한 임무도 다시 주었으나 이것은 애초에 화제에 올리지도 않았다. 현단계에서는 그들을 하나로 묶어세울만한 공동의 분모가 없는것이다.

브라운은 이에 대해 명확하게 리해하고있으나 하지에게는 꺼내놓지 않았다. 그는 개별방문을 마치고 하지에게 돌아와서 제기된 문제들이 대체로 부정적반응을 받았다고 간단히 보고하고는 자기 사단으로 내려가버렸다.

하지는 두고보자고 윽벼르기는 했으나 지은 죄가 있어 앞에서는 삿대질을 할수 없었다.

그런데 때마침 노불이 두툼한 문건을 들고와서 내밀었다. 한달전에 직접 포치했는데 깜빡 잊고있었던 자료였다. 그것은 류동명이 이 인물만 내세우면 정계 상류급인물들을 틀어쥘수 있노라 장담을 하던 정향에 대한 료해자료였다.

드디여 류동명이 승용차를 보내왔다. 류동명의 부관이 마동열의 차점에서 하지가 흥국상회 정향사장을 만나기 위해 저녁 첫 시간에 대기한다는것을 마동열에게 전달하였다. 점심식사를 거두자 정시명은 코수염을 밀어던지고 양복에 나비넥타이를 매고 집을 나섰다.

그의 차림새를 민순임과 례영이 깐깐히 봐주었다.

례영은 승용차에 오르는 정시명에게 잘 다녀오시라고 인사를 하고는 정시명을 따라 승용차에 오르는 마동열의 옷섶을 잡았다.

《미군사령부에 가신다지요?》

《그래…》

《하지를 만난다면서요?》

《그럼. …》

《조심해요.》

마동열이 례영의 당부를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였다.

승용차가 떠나자 례영이 민순임의 손목을 잡고 속삭이였다.

《어머니, 보기가 참 좋지요?》

《뭘?》

《아버님이 항상 저렇게 차려입으시면 좋겠어요.》

《왜?》

《십년은 더 젊어보이지 않나요.》

례영은 정시명이 항상 수염을 기르고 조선옷에 두루마기를 입고 촌늙은이처럼 변장하고 지내는것이 늘 불만이였다. 그러지 않아도 정시명이 나이에 비해 걸늙어보였는데 옷차림마저 그렇게 하고 지내니 영낙없는 할아버지였다. 간혹 동년배의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아바이》라고 불러댈 때는 그 당자가 미워지기도 하고 한

구석으로는 서글프기도 하였다.

《그렇지요, 어머니?》

민순임이 대답이 없자 례영은 안타깝다는듯 눈을 빨며 다그어물었다.

《애두 참, 아버지가 자꾸 젊어지면 난 어찌하고.》

《호호호…》

민순임이 짐짓 눈을 흘기자 례영은 까르르 웃었다.

민순임도 소리내여 웃었다.

《어머니가 질투하시네. 걱정마세요. 어머닌 20년은 더 젊어진것 같애. 호호호.》

《애두, 넌 정말 못하는 소리 없구나. 20년 더 젊어지다니.》

민순임이 어처구니없어 히죽이 웃으면서도 그 소리가 싫지 않았다.

하긴 이젠 그도 산골에 붙박혀 만시름 안고 속절없이 세월을 보내던 예전의 민순임이 아니였다. 그동안 촌티가 쭉 벗어졌다. 눈에 정기가 어리고 이마와 볼에 때일찍 잡혔던 주름발도 다림질이라도 한듯 멀쑥하게 지워졌다. 타고난 천성으로 옷치장이든지 머리단장이든지 맵시 가꾸기에는 관심이 없던 녀인이였으나 어차피 남편을 찾아오는 뜻이 높은 장정손님들을 겪게 되니 자연히 경대앞에 자주 앉게 되였다. 거기에 례영의 잔소리가 많았다. 오늘은 이러이러한 손님들이 오니 치마는 어떻게 입어라, 머리는 어떻게 틀어올리라는 식으로 따라다니며 성화다. 례영의 단속이 심해서 어떤 때는 짜증이 나기도 했지만 한발 내짚어 생각하면 그게 다 남편을 받드는 일이니 따르지 않을수가 없었다.

생활의 이러한 요구앞에서 그 녀인이 어찌 젊어지지 않을수가 있으랴.

하지만 그를 더욱 젊어지게 하는것은 그 녀자의 마음속에 언제나 부풀어있는 삶의 보람과 희열이였다.

그는 순간순간마다 남편과 여러 사람들에 대한 걱정을 덧쌓아가며 살아갔지만 그들과 더불어 지내는 매 순간이 그대로 행복이

고 기쁨이고 자랑이였다. 그것이 그 녀자를 젊게 해주는 삶의 귀중한 자양분이였다.

《례영아, 네 말이 옳다. 난 이제야 사는것 같구나. 날과 달이 바뀌는게 막 아까워 죽겠다.》

민순임이 불시에 눈언저리가 불그레해지며 목이 메여 중얼거린다.

《어머닌 또…》

민순임의 축축한 눈가에 례영이 손가락을 올려 물기를 가셔준다.

3

한대의 승용차가 방금 한강다리를 넘고있었다.

해질무렵이라 더위는 한풀 숙어들고 차창을 스치는 바람결이 신선하다. 땡볕에 시들었던 가로수의 넓은 잎새들이 저녁바람에 생기를 띠고 흐느적거린다.

승용차는 군정청청사의 앞길을 에돌아 북악산을 넘어 경무대가 자리잡은 세종로 1번지의 울창한 수림속에 들어섰다.

승용차의 앞좌석에는 하지의 부관이 앉아있고 뒤좌석에는 정시명과 류동명이 앉아있었다.

정시명은 흥국상회에서 차를 몰고온 하지의 부관과 대기하고 있던 류동명을 만나 하지의 관저인 경무대로 향하였다.

마동열이 자신을 정시명의 비서라고 소개했으나 하지의 부관은 《이분을 모시는것은 우리 미군사령부입니다.》 하고 동행하는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정시명은 달리는 차안에서 경무대의 연혁을 더듬어보느라니 자연히 의분의 피가 끓어올랐다.

6.10만세사건직후에 왜놈총독이 경복궁을 눌러버리고 백두산에서 뻗어내린 룡맥을 끊어버린다고 하면서 이렇게 경복궁 북쪽의 높

은 언덕인 경무대에 제놈의 관저를 지어놓았다.

일설에 의하면 당시 총독관저자리물색에 몰린 조선의 풍수쟁이들이 왜인들에게 이 나라의 명당을 고스란히 줄수 없다고 의합이 되여 룡맥에서 벗어난 위치에 자리를 잡아주었다고 한다. 그때문인지 조선총독을 지낸 왜인들은 물론 그후에 이곳에서 주인질한 놈들치고 불행한 말년을 보내지 않은 놈이 없다고들 한다.

하지만 이곳이 명소인것은 틀림없다. 북으로는 북악산이 서있고 앞에는 남산이 이마를 마주하고있으며 좌우로는 인왕산과 남산이 파수병처럼 서있는가 하면 청계천의 맑은 물과 한강이 감돌아흐른다.

그런데 벌써 서른해동안이나 이 땅을 깔고앉은 이방의 무리들이 이곳에 도사리고 서울을 굽어보며 떵떵거린다.

(언제면 저놈들을 들어내고 이 나라의 주인을 여기에 모시게 되려나.)

정시명은 이렇게 서글픈 생각을 안타까이 되풀이하느라고 차창밖의 경치구경도 미처 하지 못하였다.

어느덧 자동차는 경무대의 정문앞에서 멈춰섰다.

청기와를 씌운 3층짜리 건물이 우뚝 막아서고있다. 이 건물을 일본의 9대총독 아베가 쓰다가 지금은 하지가 틀고앉아있다. 건국준비위원회가 서울에서 권력기관의 업무를 맡았던 8.15직후에 어떤 사람들은 한사코 독립국의 체모를 세워야 한다면서 그 위원장이던 려운형더러 차지하라고 요청하였는데 당자가 자기는 이 나라의 옥좌를 바라는 사람은 아니라고 단마디로 사절했다고 한다.

정시명은 하지의 부관을 따라 경무대의 울타리안에 들어서자 통분한 심정을 더욱 금할수 없었다.

두개의 성조기가 파수병처럼 등뒤에 꽂혀있는 넓다란 집무실에서 하지는 군복상의를 벗은채 벌써 오랜 시간 조각상처럼 굳어져있었다.

책상우에는 장지에스의 국민당대령옷을 걸친 정시명의 사진과 신원조사문건, 그에 대한 한페지정도의 종합평정서가 놓여있었다.

이제 15분후이면 류동명이 정향을 앞세우고 들어올것이다..

그러나 지금 하지가 생각하고있는것은 그에 대한것이 아니였다. 최근에 들어와 더욱 몸처신이 거북해져가는 자신에 대하여 불편스럽게 돌이켜보고있었다.

일리노이주립대학 건축학부를 졸업하였을 때 그의 인생은 건축학과 군사복무라는 갈림길에서 머뭇거렸다. 그때 만약 건축기사증명서의 무게를 무겁게 인식하였더라면 지금처럼 고달픈 인생을 살지 않았을것이였다. 한발 잘못 내밟아 기사증은 트렁크속에 꾸겨넣고 미국의 1류급 군사학교인 웨스트포인트륙군사관학교에 들어갔다.

그때가 수십년전이다. 그 수십년 하지는 줄곧 군복을 걸치고 살아왔다. 명예와 무공으로 이어진 비교적 화려한 길이였다. 필리핀에서 바탄의 도주병으로 세상에 더러운 이름을 남긴 맥아더와 함께 치른 그 운명적비극을 제외한다면 대체로 눈부신 고속승진으로 3성장군까지의 행보를 순조롭게 달려온셈이다.

태평양전쟁에서 하지는 미군의 선견대를 이끌고 오끼나와에 처음으로 상륙하였다.

이로써 하지는 미국인들속에서 일약 사무라이땅에 앵글로색손족의 위세를 떨친 첫 미국장군으로, 영웅으로 전해졌다. 련이어 서부도이췰란드와 같은 비중이 실린 반공대결의 극동보루로 된 남조선을 타고앉음으로써 일약 일리노이주의 목수의 아들이 세계적인 인물로 되였다.

그러나 이즈음에 와서 자기에게로 쏠리는 내외의 여론은 어둡기만 하고 어깨에 올려놓은 장성별이 무겁기만 하다. 혁혁한 무공으로 수놓아진 인생이 이 조선땅에 들어서서부터는 끊임없는 좌절과 실패로 이어져 근래에는 걷잡을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였던것이다.

지금 하지는 워싱톤에서 겪었던 불쾌한 일들을 생각하고있었다.

…

몇해전까지만 하여도 직계상관이였던 국무장관 마샬은 이례적으로 자기의 저택에서 그를 만나주었다. 이야기는 저녁을 같이한 다

음 시작되였다. 그사이 몸이 펴그나도 축갔다고 걱정을 해주던 마샬은 느닷없이 서너페지짜리 얇다란 문서를 주면서 그걸 먼저 본 다음에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다.

미쏘공동위원회와 관련한 그 무슨 추궁이라도 받을듯싶어 사전에 막료진을 불러 적당한 변명거리를 만들어왔던 하지는 마샬의 례외적인 환대와 부드러운 인상에 어리둥절해졌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마샬이 된벼락을 들씌우기 위한 전주곡일수 있다고도 생각하면서 긴장된 마음으로 문서장을 번지였다.

그것은 뜻밖에도 하지의 본국호출에 앞서 워싱톤정가를 돌아친 리승만에 대한 자료였다.

리승만은 하지나 브라운이 후견인행세를 해온 구펠로를 쫓아보낸 뒤로 정치의 주패장을 이쪽저쪽으로 돌려가면서 자기와는 적당히 거리를 두기 시작하자 분통을 참을수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결연히 태평양을 넘었던것이다.

리승만일행에는 녀편네와 측근비서들 그리고 하지의 통역으로 들이민 자기의 이전 정부들인 《대한녀자국민당》위원장 임영신과 모윤옥을 비롯한 요염한 녀인들도 다수 끼여있었다.

리승만은 자기의 친미통로인 《한국위원회》의 구펠로와 올리브를 비롯한 미국동료들을 앞세우고 워싱톤정가로 뚫고들어갔다.

리승만은 마샬을 만난 후 트루맨대통령까지 만나려고 무진애를 다 썼지만 백악관대문만은 끝내 열수가 없었다.

리승만의 녀편네인 프란체스까와 녀인들은 치마자락을 휘저으며 상류급인물들의 침방에 슴새여들어가 리승만선전에 열을 올렸다.

리승만은 마샬을 비롯한 국무성과 국방성의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하지를 《미국의 리권을 공산권에 팔아먹는 국제공산당의 프락찌야》, 《한반도의 공산화를 획책하는 빨갱이》, 《미국의 외교력을 약화시키는 3류급외교관》이라고 이미 씌워놓았던 감투를 또다시 마구 씌워놓았으며 당장 소환하여달라고 성토를 했다.

하지는 빨간 밑줄을 쭉쭉 그어놓은 그런 대목들을 볼 때마다 주

먹을 꽉 틀어쥐고 몸을 부르르 떨었다.
《기분이 어떻소, 장군?》
마샬이 하지가 문건의 마지막페지를 넘기는것을 보고 물었다.
하지는 마샬의 찌르는듯한 눈길을 마주쏘아보다가 《허허허―》 하고 창자가 텅 빈듯한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하지가 어이없어하는 꼴을 주의깊게 응시하던 마샬도 빙긋 웃었다.
하지는 불쑥 자리에서 일어나며 문서장을 무례할 정도로 앞상에 던졌다.
《그래서?… 련방수사국에 넘기려고 호출했습니까?》
하지는 거친 어조로 반응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마샬이 어이없는듯 손을 내저으며 통쾌하게 웃었다. 그는 앞상을 에돌아 하지에게로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어차피 손잡고 일할 인물이니 더 깊이 그 인물됨을 알라는 거요.》
《손잡고 일할 인물이라니요?!… 그러니 그 늙은이의 워싱톤행각에 참모총장각하도 바람을 쐬인듯싶군요.》
하지는 여전히 랭담하게 말했으나 참모총장이라는 어제날의 호칭을 씀으로써 자기의 이야기를 부드럽게 윤색하였다.
《그래, 뭐 다른 선택이라도 있다는거요?》
《다른 선택이라니요. 난 아직도 그 누구를 선택한바가 없습니다.》
하지는 시치미를 떼고 고집을 부렸다. 속에서는 마샬에 대한 노여움이 고여올랐다. 리승만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고있는 미행정부의 주관에 불만이 컸다. 왜 미국의 고위층이 리승만을 선호하고있는가.
리승만이 군정청의 문턱을 넘어서서도 공공연히 주종관계를 혼돈하는듯한 방자한 언행을 의도적으로 퉁퉁 던지군 하는것도 리승만의 몸값을 잘못 계산한 미행정부 고위인물들의 한발 앞선 립장에 기인된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는 자기의 불만을 일부러 표현하면서 말을 이었다.

《난 리승만에 대한 국무성의 기성공론을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현지파견관들도 미국의 립장에서 자기 견해를 피력하고있다는것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미군사령부나 군정청에는 유감스럽게도 미국의 리권을 팔아먹는 국제공산당의 프락찌야는 없습니다.》

마샬은 하지의 로골적인 불평을 자기에 대한 믿음으로 너그럽게 받아들이며 크게 소리내여 또 한바탕 웃었다.

《중장, 너무 노엽을 쓸건 없소. 좋소, 그 문제와 관련하여선 시간을 주겠소. 그런데 멀지 않아 우린 남조선에서 자기의 무력을 철수시켜야 할것이요. 그러니 군정도 시한부적이라는것을 당신들도 알아야 하오. 시간이 없소. 그때까지 당신은 조선반도에서 미국의 리권을 지켜낼수 있는 현지인들의 통치집단을 만들어놓아야 하오. 현시점에서 당신이 준비한 남조선의 정치세력은 북조선의 공산집단에 대적이 되지 않는다는것을 다시한번 당신에게 상기시키오.

어디 한번 리승만보다 더 무게가 가는 미국적인 인물을 수완껏 선택해보시오.》

마샬의 마지막이야기들은 비꼬는 어조로 그러면서도 마지막 말미를 주는듯한 랭혹한 선고처럼 하지의 정치적력량에 대한 불만으로 들렸다. 마샬은 포도주를 잔에 부어주고 그의 성공을 빌었다.

하지는 마샬이 부어준 잔을 입술에 대는척 하다 말고 불쾌한 마음으로 그의 방을 나섰다.

대기실에서 뜻밖에도 자기의 통역으로 이따금씩 나타나는 임영신을 만났다. 며칠전부터 통역관들속에서 보이지 않는것을 범상하게 생각하고있었는데 결국 리승만의 워싱톤행에 합류한 모양이다.

임영신이 드문히 밀실에 나타날 때면 늙다리가 파먹던 몸뚱아리라는 느끼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대로 아직도 요염한 자태와 사내들의 간을 쉽사리 녹이는 포실포실한 봉사에 환락의 저녁시간을

보내온 하지는 여기서 그 녀자를 만나게 될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 녀자도 미국무장관의 대기실에서 하지를 만난것이 너무도 뜻밖이여서 얼굴이 활딱 붉어져가지고 자리에서 냉큼 일어났다.

그러나 사내들을 다루는데 이골이난 그는 쥐구멍이라도 기여들고싶은 심정을 감추고 그 요염한 눈길을 내리깔며 《저, 국무장관각하를 힐톤호텔에서 열리는 저녁파티에 모시게 되여 제가 초청장을 가지고왔습니다. 사령관각하도…》 하며 랑랑한 영어로 말하는데 마디마디에 애교가 찰랑인다.

순간 하지는 피끗 뇌리를 스치는 한 생각이 떠올랐다. 마샬도 리승만의 이러한 뒤공작에 걸려들어 그의 지지인물로 둔갑하고있는것이라는 생각이였다. 자기에게 섬기는 리승만의 막대한 돈과 주색이 이 워싱톤정계에도 골고루 흘러들고있는것이다. 결국 리승만은 제 나라의 리권을 팔아 모아들인 돈을 권력을 독점하기 위한 밑천으로 이렇게 뿌리고있는것이다.

《그렇군.》

하지는 자기의 정치적단순성과 무지를 절감하며 탄식과 같은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는 임영신에게 가시가 돋힌 말을 해주고싶었으나 여러 손님들이 있는 자리라 《즐거운 저녁을 보내주기 바랍니다.》 하고 점잖게 인사를 남기고는 얼른 마샬의 집을 나와버렸다.

불쾌한 려행이였다. 하지는 미국무성과 국방성의 실무진을 만날때에도 자기에게 와닿는 의혹과 불신, 지어는 모멸의 눈길들을 의식하군 하였다.

하지는 돌아오자바람으로 현지인들로 구성된 통역관실에 임영신의 출입을 정지시킬데 대한 명령부터 내렸다. …

지금도 하지는 미국에서 있은 그 불쾌한 일들이 련이어 떠올라 기분이 좋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리승만을 불러다가 그 늙다리를 방첩대의 애숭이 장교들한테 던져서 실컷 주리를 틀고싶었다.

그러나 하지의 고민거리는 어차피 마샬의 뜻을 따를수밖에 없게

된 자기의 궁한 처지였다. 그는 아직까지도 남조선의 정치인들 속에서 리승만이보다 더 친미적이고 반공적인 인물을 고를수가 없었다.

이제 나타나게 될 정향이라는 인물은 어떻겠는가.

류동명은 이 인물의 정치적중량을 상당하게 떠놓았었다.

류동명은 모든것으로 보아 리승만이나 김구가 지는 달이라면 정향은 솟는 별이라고 한마디로 그의 인간상을 명백하게 표현하였다.

하지는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면담시작시간이 이제 5분이 남아있었다.

그는 정향에 대한 문건철을 다시 뒤적거리기 시작하였다. 노불이 빨간 연필로 밑줄을 그어놓은 글줄들이 먼저 눈에 밟혀왔다.

《중국관내에서의 일부 활동에서 좌익에 기울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그는 이 글줄에 밑줄을 그어 상관의 주목을 끌게 한 노불의 속궁리에 쓰거운 웃음을 지으며 혼자소리로 중얼거리였다.

《리승만이도 쏘련에 기웃거린적은 없었나?…》

하지는 리승만에 대한 료해문건에서도 1930년대에 쏘련에 들어가자고 여러차례 시도했으나 끝내 쏘련측이 입국사증을 주지 않아 쏘련행을 포기했다는 글줄밑에 빨간줄을 그어놓은것을 보았던 생각이 났다. 그래서 리승만의 반공체질이 더 드팀이 없어졌는지도 모른다. 만약 그때 리승만이 크레믈리에 들어갔더라면 그의 인생행로가 달라질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하지가 이런 생각을 하고있는데 문이 열렸다.

부관이 들어와서 통위부장 류동명이 손님을 모시고 대기실에 도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1분후에 들여보내.》

부관이 나가자 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군복상의를 입고 거울앞에 다가가 흘러내린 머리를 빗어올렸다.

그들은 그리 크지 않은 원형탁상에 마주앉았다.

정시명은 하지와의 담화에서 일관하게 정치에 대한 관조적인 태

도를 취하였다.

두가지 원인이였다.

첫째로 정시명이 만약 정치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박식을 보여주면 장사에 나섰다는 그의 신분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게 될것이다.

둘째로 정치일선에 복귀할것을 강하게 권유할것이며 어떻게 하든지 밀접한 뉴대를 가지려고 할것이다.

하지의 관심인물이 되면 행동반경이 좁아질것이고 종당에는 그것이 자승자박이 되여 사업을 자유롭게 벌려나갈수가 없게 된다.

정시명은 어디까지나 쏘미공동위원회가 결렬된 현조건에서 미국의 정책적동향과 남조선의 정치세력들에 대한 하지의 평가를 유도하는데로 담화를 조심스럽게 끌고나갔다.

《통위부장은 당신이 나의 좋은 벗이 될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나라를 위해 나의 가까운 상담역이 될 의향이 없습니까?》

하지는 상대방에 대한 류동명의 평가를 확인하느라고 정시명의 언행에 대하여 주의를 집중하여 관찰하고있었다.

《당신의 신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 나라의 훌륭한 정치가들이 장군의 업무에 고견을 드리고있다고 들어왔습니다.》

《훌륭한 정치인?…》

하지의 얼굴에 언뜻 랭소가 스쳐갔다.

《그렇지요. 훌륭한 정치가들이지요. 이 나라가 배출한 민족의 명망높은 영웅들이지요. 하지만 정선생, 미국이 리승만이나 김구를 배제한 제3의 동반자를 찾는다면 당신은 누구를 제기할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김규식선생을 내세울수 있겠지요.

려운형이는 여러모로 보아 미국의 환영을 기대하기 어려울것이고…》

《그들도 이 시대가 요망하는 지도자가 될수 없다면?…》

하지의 눈빛이 예리해지는것 같았다. 그 우묵한 눈확에서 노

란 동자가 반짝 빛을 내며 정시명의 얼굴을 투시하는듯싶었다.
정시명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하지가 들리는 말대로 정치세력의 기둥으로 공인되고있는 리승만과 김구, 김규식에 대하여 환멸을 가지고있는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이자는 앞으로 어떻게 정치세력을 움직이려고 하는가?)
《글쎄요. 나는 미국이 이미 리승만에게 정권이양을 하게 될것이며 그밖의 인물들은 리승만의 둘러리격으로 내세우려고 할것이라고 들어왔습니다.》
정시명은 하지의 속심을 발가내기 위하여 슬쩍 문제를 던져보았다.
《둘러리격이라? 하하하… 옳습니다. 정선생의 판단이 명석합니다.
한데 나에게 지금 필요되는 인물은 그 개별적인물들이 아니라 그들 세 세력을 묶어세울수 있는 그런 인물이 필요합니다.… 리해가 됩니까? 우리는 이 나라의 통치권이 아니라 북조선세력에 맞세워놓을수 있는 그런 련합된 정치권이 필요합니다. 우린 남북총선거에 대처할 준비를 시급히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는 비로소 자기의 속심을 털어놓기 시작하였다. 미제의 대조선정책의 핵심적요소가 이제야 껍데기를 벗고 머리를 내민셈이다.
《남북총선거를 주장한 쏘미공동위원회가 이미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정시명은 하지의 이야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는 느슨하게 물었다.
《총선거는 현단계에서 우리가 바라는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면에서 거부할 리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총선거를 치르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남조선에서의 〈단독정부〉의 수립은 일부의 호응은 받고있지만 유일한 선택은 아닙니다.》
하지는 이렇게 정시명의 이야기에 딴전을 부리며 그의 얼굴을 쳐

다보았다.

정시명은 그의 세모진 눈가에 언뜻 어리는 야릇한 미소를 포착했으나 여전히 무표정한 낯빛을 한채 그의 심중을 파헤쳐 나갔다.

《그러니 중장각하는 〈단독정부〉수립에 대하여서는 현단계에서 고려하지 않는다는것입니까? 나는 남북간에 조성된 력량대비로 보아 총선은 가능한것이 아니라는 론조에 기울어져왔습니다.》

《두가지에 다 대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승산이 없는 전투는 피하는것이 군사적으로 보면 전술적으로 옳습니다.》

《피할수가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피할수 있도록 가능성을 찾아야지요.》

여기저기서 입수한 자료들이 일시에 하지의 이야기로 종합, 합축되는듯싶다.

지금까지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대조선정책은 금후 조선을 극동의 반공보루로 만든다는 전략적인 목표밑에 두단계의 전술적로정을 긋게 될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첫 단계는 전조선적인 판도에서 친미적인 반공정부를 조작하는것이며 둘째 단계는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남쪽에 단독적인 친미정부를 세우는것이다.

정시명은 여기에 다음의 문제를 보충하고싶었다. 미국놈들은 첫 단계의 목표에 대해서는 실망하고있다. 그러므로 남북총선거를 앞에서는 주장하면서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파탄시키게 될것이다.

어떤 구실을 들고나올것인가?

이미 한차례 작전은 실패하였다. 새로운 작전안은 하지도 아직은 모르고있는것 같다.

그러한 구실은 아마도 미국무성이 모색하고있을것이다.

하지는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내가 류부장의 소개에서 당신을 흥미있게 생각한것은 그들 세두령을 묶어세울수 있는 중심이 될수 있다는것입니다. 바로 그

것때문에 나는 당신에 대한 료해를 위해 전적으로 나의 고문을 한달이나 전담시켜 품을 들이게 했습니다.》

하지는 히죽이 웃으며 료해문건을 손에 들어보였다. 당신에 대한 신뢰도가 이 정도까지 된다는 하지의 엉큼한 속내가 정시명에게 대뜸 느껴졌다.

하지는 료해문건에 고개를 숙였다가 계속하였다.

《이 료해평정에 의하면 당신이 좌익으로 치우친 시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본이 아니지요. 나도 대학시절에는 공산당이 주도한 집회들에 참가하여 경찰들과 투석전까지 벌린 일도 있습니다.》

하지는 다시 히죽이 웃었다. 무인다운 솔직성과 정치가로서의 교활성이 묘하게 어울려든 웃음이였다.

《내가 당신에게 상담역으로 될수 있다면 파괴된 이 나라의 경제를 어떻게 복구발전시켜나가겠는가 하는 방향으로 할수 있을것입니다. 나는 귀국하여 정계은퇴를 선언한 후 큰 도매상회를 경영하면서 자신이 정치보다 경제분야에 더 가까운 적임자라는 자부를 가지게 되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나 나에게 지금 당장에 필요한것은 경제에 대한 자문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정치세력을 하나로 결집해내는 산파역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걸 기대합니다. 현재로서는 내가 당신의 정치전도에 대하여 명백한 담보를 주지 못하겠습니다. 역시 이 나라의 파도기를 이끌만한 인물은 유감스럽지만 미운대로 리승만과 김구, 김규식중에서 찾을수밖에 없다는것을 나는 당신에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류부장의 평가를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우리의 호의를 받아주기를 부탁합니다.》

하지는 정시명이 권력에 대한 요구를 드러내지 않는것이 마음에 들어 이렇게 자기의 진속을 말끔히 털어놓았다.

지금까지 하지가 만났던 현지의 정객들은 권력의 줄사다리에 발을 옮길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면 례외없이 흥분하고 그를 놓치게 될가봐 각방으로 접근해왔던것이다.

정시명은 그에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는 그의 사무실을 나섰다.

하지가 문밖에까지 나와서 대답을 기다리겠노라고 다시금 강조하였다.

대기실에서 정시명이 나오기를 기다리던 류동명이 문앞에까지 나와서 바래주는 하지의 흡족해하는 얼굴을 보자 대번에 입이 벙글써해졌다.

지금까지 하지는 자기 걸상에서 일어나서 바래주는 일이 매우 드물었다.

그래서 이따금 류동명은 양놈들의 례법이라는게 더럽기 그지없다고 돌아서서는 툴툴거려왔는데 정시명이 하지의 마음에 꼭 든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그래 어떻게 되였습니까?》

류동명이 길다란 복도에 나서자 성급히 물었다.

《선생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상담역이 되여달라고 하였습니다. 정객들이 다 제 갈래가 되여 아마도 속을 쓰는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예, 아무쪼록 잘 생각하여 조처하십시오. 무릇 정치에는 기회가 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류동명은 승용차에 오른 다음에도 정시명이 모처럼 이루어진 기회를 잘 타고올라 겨레앞에 더 큰 봉사를 해달라고 신신당부하였다.

4

정시명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리승만을 한번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김구와 김규식에 대하여 결심을 내리기에는 이제는 자신이 있

었다.

그러나 리승만은 아직은 돌아가는 풍문으로 그 인간상을 리해하고있을따름이였다. 여직까지 그 인간과는 한번도 마주서본 일이 없었다.

리승만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겠는가. 그와의 사업에 어떤 목표를 설정하며 어떻게 사업해야 하는가.

어쨌든 리승만은 미국이 우익세력의 중심에 내세우려는 두 거목중의 하나이다.

지금까지 미국은 확실히 리승만에게 정치적담보를 주고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서 그 인간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에 대한 조직의 립장과 태도를 결정지을수 없다. 거목의 뿌리를 제손으로 헤쳐보고싶었다. 만약 그에게도 우리 민족을 위한 참다운 애국의 싹을 찾을수 있다면 그들자신들을 위해서도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겠는가.

리승만이 청년시절에는 나라의 개혁을 위한 반정부운동에 가담하였다가 한성감옥에서 옥살이를 한적도 있으며 왜놈들의 감방에도 들락날락한바가 있다. 독립전에 바쳐진 50평생이라고, 겨레의 충복으로 살아온 인생이라고 야단스럽게 자랑하는데 거기에 다소라도 진실이 있다면 내세워야 도리가 아니겠는가.

만약 그렇다면 정말로 문제의 세 두령을 하나로 묶어 세상에 내놓을수 있는 산파역을 기꺼이 받아안을수 있다.

다만 그 목적에서 하지가 노리는것이 아닌 진정으로 애국적인 련합을 무어내게 될것이다.

돌아가는 풍문으로 고목의 뿌리를 다 알아낼수는 없다. 그것은 력사앞에서도 그리고 그 인간앞에서도 무책임한 일이다.

그러니 리승만의 체질이 듣던대로 매국의 구렁텅이에서 더는 구제할수 없을 정도로 변질되였다는것이 확인되면 아무런 미련도 후회도 없이 내 나라의 족보에서 썩둑 잘라던지는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되면 하지의 요청도 명분을 세워 사절할수 있다. 리승만을 만나보고 하지의 요망을 타진해보았는데 리승만의 광기를 눌러

놓고 3파련립을 무어낼 가능성을 찾을수 없으니 그 어려운 짐을 짊어질수 없는것이 유감스럽다고 하면 하지에게도 설득력이 있게 될것이고 류동명에게도 부담스럽지 않을것이다.

정시명은 리승만의 비서실에 있는 신정섭에게 면담을 주선하도록 임무를 주었다.

리승만은 정시명의 면담요청이 제기되자 비서진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였다. 그리고는 한번 만나보자고 시들하게 면담요청을 접수하였다.

리승만이 거처하는 남산기슭의 영악동은 일본놈때는 량반들이 거처하던 곳이였는데 일제말기에 공원의 나무들을 베내고 다층집들을 빼곡이 들이세워 바람기가 한점 없었다.

리승만은 한여름의 복더위에 확확 달아올라 마치 화독같은 방안에서 헐떡거리고있었다. 방문을 열것 같으면 밖에서는 오히려 더위를 머금은 열풍이 확 쓸어들어 더욱 숨쉬기가 가빴다.

리승만은 연신 부들부채를 흔들어 바람을 일구다가 그 노릇도 귀찮은듯 앞상에 내던지고는 쏘파에 등을 붙이고 두터운 눈시울을 붙이였다.

이따금 프란체스까가 들어와서 바질바질 땀을 흘리며 령감의 상판에 부채질을 하여주다가는 기운이 진하면 멀리 남산을 무표정한 눈으로 내다보군 한다.

윤치영이 정시명을 안내하여 들어온것은 리승만이 쏘파에서 헐떡거리다가 금방 쪽잠에 들무렵이였다.

《정향선생이 오셨습니다.》

윤치영이 크게 소리를 질러서야 리승만은 눈을 무겁게 떴다. 더위에 지칠대로 지친 리승만은 그리 반가와하는 기색은 없이 《어, 반갑소다. 정선생, 게 앉으시우.》 하며 부들부채를 흔들기 시작하였다.

《여보게, 구해온다는 선풍기는 어떻게 되였는가.》

리승만은 숨을 다시 헐떡거리며 짜증난 어조로 물었다.

《위원장선생, 인차 들여올겝니다.》

윤치영이 공손히 대답하였다.

측근들은 흔히 리승만을 림시정부의 유미지부 위원장을 하던 시절의 직함으로 부르군 하였다.

리승만에게서는 상하이《림정》의 지역책임자라는것이 마음에 차는것은 아니였다. 그러나 일제시기 왜놈순사에게 주먹질 한번 해본 사람도 영웅시되는 시절이라 상대방에게 자신의 항일경력을 군소리없이 상기시키는 정략적인 타산이 있어 《독촉》회장이라는 현재의 사회적직함보다 그렇게 불러주는것을 더 좋아했다.

제 나라 민심앞에서 리승만의 가장 큰 두통거리는 어떻게 하면 사대와 매국으로 일관되여온 한생 어지러운 력사를 애국으로 분식하겠는가 하는것이였다.

그는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수치스러운 죄악의 어제날을 애국으로 채색하는 일에 막대한 금전을 뿌리기도 하고 자기의 주변을 《항일경력》을 보여줄수 있게 꾸리는데 왼심을 쓰기도 하였다. 일제시기 군량미 3천석을 헌납한 친일분자이며 개성일판의 대지주의 족속인 윤치영이 일약 《애국자 리승만》의 비서실장으로 발탁된것도 이런 연고에서였다. 리승만이 감옥에서 풀려나온 후 일제관헌의 눈을 피해 그의 집에서 한해 여름을 보낸 일이 있었는데 윤치영이야말로 그의 감옥경력을 보증하고 내외에 선전할수 있는 산증인이였다.

리승만은 이런 타산에서 정향이 이름난 반일지사라는 윤치영의 소개말을 반갑게 받아들였던것이였다.

《빨리 들여와. 자네 솜씨가 그러하니 귀한 손님 받아놓고도 이렇게 인사불성이 아닌가. 정선생, 이거 안됐소다.》

리승만의 대인외교가 시작된셈이다. 그는 늙은이다운 변덕을 재치있게 활용할줄 아는 로회한 놈이였다.

리승만은 무시해서는 안되는 손님을 더위에 눌려 소홀히 했던 잠시전의 실수를 이런 방법으로 어벌쩡하게 넘기고는 프란체스까가 쟁반에 가져온 수정과를 정시명에게 권하고 자기도 한사발을 쭉 들이마시였다.

《내 선생의 명함을 익히 들어 알고있소. 그래 지금도 경교장

(김구가 거처하는 곳)을 위해 뛰고있는가?》
리승만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직선적이고 시비조였다.
《위원장선생, 내가 경교장을 위해 뛰여다닐 리유가 어데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 뛰는가는 나의 명함장에 다 적혀있습니다.》
《명함장?… 어떻다고 했드라?…》
리승만은 정시명의 명함장을 자기 눈밑에 두고도 아닌보살하고 윤치영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흥국상회 사장으로 계십니다.》
윤치영이 공손히 대답하였다.
《거 이름이 좋다! 그러니 나라를 흥하게 하는 장사를 한다는건데 장사는 잘 돼갑니까?》
여전히 리승만은 상대방을 자기의 세계에 끌어들이느라고 화제를 이리저리 굴려가며 딴전을 부렸다.
《네, 그럭저럭… 장사일이 워낙 밑지고 돌아가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딴은 그렇지요. … 우리 〈독촉〉을 좀 후원해주시구려.》
리승만은 지나가는 말투로 슬쩍 말을 던지고는 게슴츠레해진 눈언저리에 가느다란 미소를 담고 정시명의 표정을 일별하였다.
정시명은 그 눈빛에서 늙은이답지 않은 예민한 빛을 포착하고는 리승만이 늙었어도 정치적감각이 있고 사람을 후려내는 재기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정히 요구되신다면… 하지만 나는 미국이 리선생을 막강한 재력으로 후원해주고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정시명이 슬그머니 반격에로 넘어갔다.
《허허… 그건 옳소. 지금 항간에서 정치를 한다는 일부 녀석들이 이쪽저쪽으로 몰려다닌다는데 그게 다 현실을 곧바로 보지 못한탓이지. 미국이 누구한테 이 나라의 룡상을 맡기고저 하는가?… 이걸 알아야 한다 그 말이요. 난 올해초에 워싱톤에 있는 〈한국위원회〉로부터 받은 기부금이 1천만은 웃돌고있으니 정선생한테까지 손을 내밀지 않아도 되우. 아직은 이 나라에 정치자금규

제법은 없으니 뭐 미국사람들의 돈을 얻어쓴다고 쇠고랑찰 걱정은 없지.

그래 정선생, 한푼을 놓고도 결투까지 벌리는 양인들이 어째서 나에게 크게 도박을 걸고있을상싶소?》

리승만은 미국의 후원을 초면인 정시명에게 꺼리낌없이 뇌까리였다. 그러나 이것도 리승만의 타산된 공작의 한 고리인것 같다. 분명 리승만은 미국의 후원을 공개하는것으로 제놈의 몸값을 최대한 높이고 그 값으로 주변을 두터이 하려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민족의 존엄에 대한 무시이고 외세의존의 절정이다. 리승만의 친미도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 가히 짐작되였다.

정시명은 매국과 사대를 자랑스럽게 지껄이고있는 늙은 두상의 상통을 되게 후려갈겨주고싶은 심정을 가까스로 참았다.

늙다리의 체질에 대한 판단이 서자 담화를 빨리 끝내려고 다음문제를 꺼내놓았다.

《내 얼마전에 하지중장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는 리선생이 김구나 김규식세력과 합작할것을 강하게 희망하고있습니다. 하지중장은 리선생이 관용과 아량을 가지고 그네들을 포용할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허, 그 량반 양인치고는 고집이 세거든. 하긴 하지중장의 관상을 보면 건축기사노릇이 어울려. 쟁인바치가 그 상에 나타나있거든. 그 사람이 돌쫒는 석수쟁이나 집짓는 목공노릇을 한다면 재간있다는 말을 들을것 같애. …

이 사람, 당신도 북을 올려다보오. 백두산호랑이로 소문났던 김장군이 국민의 머리우에 우뚝 솟아 정사를 한손에 거머쥐고있소.

헌데 어찌하여 이 남한땅에는 아직도 주인이 없는고?

그건 김구나 김규식이 내 뒤다리를 잡아당기고있기때문이요.

도대체 하지 그 량반 김구와 나를 억지결혼시키고저 몸살인데 그게 될상싶은가.

김구가 세상에 대고 미국놈 물러가라고 저들의 뒤통수에 주먹질인데 이 소란스러운 남한땅에서 미군까지 빠져나간다면 38°선은 누가 지키고 당초에 미국사람들은 뭣하러 서울에 기여들었

나 말이요.

남북삼천리에 붉은기가 날리는걸 봐야 하지 그 량반 정신을 차릴가.

안되지, 절대로 안돼. 김구는 절대로 나의 짝이 될수 없어. 국민의 심리란 곬을 째는대로 흐르는 물과도 같은거야. 글쎄 룡상마련도 안되였는데 뭘 왈가불가하는지 답답들 하다니까.》

리승만은 더위에 지쳐 눈두덩이도 무거워하던게 언제였더냐싶게 기고만장해서 소리를 지르며 앞탁을 손가락으로 두드려댔다.

그는 제놈만 내세워놓으면 어중이떠중이들이 다 따라나선다는것이다. 그러니 지금에 련합이요 3파통일이요 하는것이 부질없다는 수작이다.

정시명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작별인사를 하였다.

《리선생, 선생의 앞길에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리승만은 자못 인자한 모습으로 변해져서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안녕히 가시우. 지금은 내가 도와달라고 이렇게 손을 주오.》

리승만은 석쉼한 어조로 부탁하며 비죽이 웃었다.

리승만은 대문까지 나와서 그를 바래주었다.

대문이 찌꾸덩소리를 야단스럽게 내며 닫기자 정시명은 이상스럽게 가슴속에 꽉 차있던 분노의 감정은 사라지고 어쩐지 서글퍼졌다.

저건 완전히 이 땅의 넋이라고는 찾아볼수 없는 늙다리다. 어떻게 아름다운 이 강산에 저렇게 역스러운 역적이 나타났는가. 선과 악을 가려보지 못하고 밝은것과 어두운것에 대한 감각이 없고 비렬한것과 고귀한것에 대한 판단력이 전혀 없는 저런 인간이 어떻게 이 나라의 옥좌에 군림하려고 저렇듯 버둥거리고있는가. 저런 인간의 주위에 모여있는것들이 과연 이 땅의 얼혼을 가진 놈들이냐. 저런 위인을 내세워 이 나라의 운명을 맡기려 하는것은 얼마나 큰 죄악이고 수치인가. 저 인간에게는 자나깨나 제 말대로 이 나라의 룡상만이 얼른거릴것이다. 겨레의 아픔이나 국운이 저 인간에게는 지나가는 바람새처럼 무심한것이다. 룡상마련을 위함이라면 무슨짓도 꺼릴게 없다는게 저 두상의 사상과 도덕과 생활의 전부일것만 같다.

결국 그렇게도 자화자찬하는 《50년독립전인생》도 오로지 이 나라의 룡상을 차지하려는 그 하나의 야심때문이였다.

그의 눈앞에 불현듯 려운형의 얼굴이 떠올랐다. 한생토록 백길폭포처럼 큰소리를 내며 조국의 비운을 맞받아 주저없이 심혼을 던져왔건만 권력에 대한 티끌만한 야심도 없이 여전히 동분서주하는 그 깨끗한 인간과는 얼마나 상반되는 더러운 추물인가.

아, 불행한 일이다. 저런 인간을 어떻게 정객이랍시고 용납한단말인가.

그런데 리승만의 허세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아니, 허세인것만 같지 않다. 전번 워싱톤정가를 휘젓고왔다고 하더니 거기서 다시금 그 무슨 농도가 진한 영양주사라도 맞고온 모양이다.

정시명은 불안해졌다. 서서히 엄습해오는 거대한 바다의 흔들림에서 자기가 자꾸만 가녁으로 밀리는것만 같다.

(이래서는 안된다. 내가 이래서는 안되지.… 저런 인간에게 룡상을 무난히 넘겨서는 안된다. 안되구말구. 나라와 겨레의 운명은 안중에 없는 저따위 인간은 민족이라는 대가정에서 철저히 격리시켜 추방해야 한다. 저놈의 넉두리처럼 저런 역적을 서울의 룡상에 올려놓으면 우리 민족은 또다시 민족수난을 당해야 한다. 쳐갈겨야 한다. 철저히!)

정시명은 실꾸레미처럼 연줄연줄 이어지는 생각에 잠겨 언제 집에 닿았는지도 몰랐다.

정시명은 인차 마동열에게 간단한 편지를 들려 류동명에게 보냈다. 편지에 리승만을 만나보니 하지의 요청을 따르는것이 힘에 부친다는것을 실감했다고 썼다.

류동명은 정시명을 크게 내세우려 했던 자기의 성의가 빛을 보이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었으나 그의 대답에 공감이 가서 군말없이 받아들였다.

정시명은 길철과 김명호에게도 긴급지시를 주었다. 조직들을 발동하여 3일안으로 남조선에 조직되여있는 각당, 각파들의 성격을 분석한 실태자료를 작성하여 보고할데 대한 지시였다.

이것은 정시명이 꾸준히 준비해온 대정치전의 서막이였다.

제2장
통일은 어디서 시작되나

1

집에서는 박정인이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정시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성격이 호방하여 만사를 웃음으로 넘기군 하는 박정인은 토방에 걸터앉아 민순임과 우스개소리를 하다가 정시명의 방으로 들어왔다. 실은 정시명이 일하는 방에 불쑥 뛰여들기가 뭣하여 일부러 기척을 낸것이다.

마침 정시명은 잠시 돗자리우에 비스듬히 누워 안정을 하면서 이날에 진행한 사업들을 곰곰히 돌이켜보고있었다.

리승만과의 담화는 구역질나게 하는 인상만 남겼다. 그러나 극우익의 왕초라고 할수 있는 리승만을 직접 만나 역적으로서의 체질을 눈으로 재확인한것만으로도 성과가 있었다.

《정선생, 시간이 좀 있겠습니까?》

《아, 어서 들어오십시오. 박선생이 나더러 시간이고 뭐고 물으실게 있습니까. 어서 여기 와서 앉으십시오.》

정시명이 자리에서 일어나앉으며 그에게 방석을 권했다.

례영이 얼른 재털이를 말끔히 가셔가지고 들어왔다.

《내 한가지 소청이 있어서 왔수다.》

《말씀하십시오.》

《다름이아니라 요즈음 정선생이 바쁘게 지내시는 동안 내나름에도 좀 사업을 했수다.》

박정인이 이렇게 말을 떼고는 사업이라는 말이 자기 생각에도 멋적은듯 가벼이 소리내여 웃었다.

《허허허… 박선생이 대단합니다. 그래 어떤 사업입니까? 어서 들어봅시다.》

박정인은 며칠전에 한 청년이 찾아왔기에 만났는데 첫눈에 사람이 아주 똑똑해보이더라는것이다. 그래 좀 교양을 했으니 한번 만

나는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정시명은 박정인이 조심스럽게 내비친 말을 듣자 어쩐지 얼음덩이라도 삼킨듯 선뜩한 느낌을 받았다. 놈들의 간계일수도 있지 않는가. 놈들이 박정인의 선량한 마음을 리용할수도 있다.

어느새 정시명의 표정에서 그의 속마음을 엿본 박정인이 진지하게 말을 이었다.

《신의주태생인데 이끌어주면 훌륭한 청년이 될것 같수다. 결패가 있어보이고 진짜배기인것 같은데…》

박정인이 제기한 김형서라는 청년은 신의주학생사건에 참가했던 스물셋에 나는 청년이였다.

박정인의 간청을 무시할수 없어 정시명은 다음날 점심무렵에 서울 장춘공원의 들메나무밑에서 그를 만났다.

보통키에 다부져보이는 젊은이였다.

《젊은이는 무엇을 요구하오?》

정시명은 청년의 활달한 성격과 침착하면서도 리지가 풍기는 거동이 어쩐지 호감이 들어 미소를 담고 짤막히 물었다.

《저를 믿으십니까?》

《아직은…》

정시명은 청년의 데설궂은 물음에 여전히 너그럽게 웃어보이며 도리질을 하였다.

《저를 믿지 않는분에게 어떻게 자기 속을 털어놓을수 있겠습니까?》

정시명은 상대가 박정인의 소개말대로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 한발 늦추어주었다.

《나는 박정인선생을 존경하오. 하지만 젊은이는 어떤 믿음도 아직 내게 주지 않았소. 그런데 아직 얼굴도 익히기 전에 그걸 요구하니 좀 무리가 아닐가. 목이 마르다고 우물을 들어마시지야 못하지 않는가. 모든것이 순차가 있는 법이거든.》

《좋습니다. 선생님을 믿고 제 속을 털어놓으렵니다. 까짓거… 이 남쪽에서 속히우며 두해를 살아왔는데 한번 더 속아본다고 크게 허물이 될것도 없습니다.》

정시명은 청년의 솔직하고 어떻게 보면 천진스러울 정도로 가식이 없는 마음씨와 사내다운 배짱이 마음에 들었다.

《말해보오. 사람이 사람을 믿는것보다 사실은 더 복스러운게 없소. 믿음을 얻는 가장 빠른 방법은 진실이요.》

《나는 북에 넘어갈걸 희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무엇때문에?》

《서울에 환멸을 느꼈습니다.》

정시명은 상대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눈길이 날카로와졌다. 최근에 입수한 자료들은 곳곳에 생겨난 우익계의 정탐, 테로집단들이 공화국에 제놈들의 첩자를 파견하여 살인, 방화, 파괴, 정보책동을 벌리고있다는것을 고발하고있다. 적들이 애국적인 조직들의 보증으로 침투하려고 시도할수도 있다.

정시명은 얼굴에서 웃음발을 지우고 엄숙히 물었다.

《그런데 어째서 신의주란동에 참가하였소? 무엇때문에 남으로 도망쳐왔소?》

《선생님은 평생을 옳게만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혹 후회되는 일은 없었습니까?》

《뭐?!… 이것 봐라…》

정시명은 자기도모르게 또다시 웃음이 나갔다.

당돌한 청년이였다. 더욱 구미가 동하고 사랑이 갔다.

(매워야 고추지. 여문 밤알일수록 까기는 힘들어도 맛은 더 있는 법이다.)

정시명은 이렇게 생각하며 그의 담기가 어린 물음에 허심하게 대답을 주었다.

《흠… 그렇지, 후회되는 일이 많지. 사람은 기계가 아니니깐. 아니, 기계도 고장이 생기는 법이거든.》

《우리 집은 부자집이였습니다. 나는 공산주의를 민족을 무시하는 주의로 알았고 공산당의 로선은 해방된 조국을 쏘련에 팔아먹는것이라는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신의주공설운동장에서 **김일성**장군님의 연설을 직접 들었습니다. 생각을 고쳐하게 된 저는 집에 박혀서 처음으로 맑스와 레

닌의 저작들을 읽었습니다. 공산당신문도 열심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기를 뉘우치기 시작할 때 동료들이 련이어 보안서에 붙잡혀갔습니다. 나는 리성을 잃었습니다. 분별없이 남으로 뛰여오고말았습니다.》

《이제 돌아가면 보안서가 회계를 치르자고 할텐데…》

《예, 각오합니다. 벌을 주면 받으렵니다.》

《벌을 주면 받는다?… 그건 좋은 품성이야. 사람이 살아가며 지은 죄를 감추고 살면 죄는 자꾸 커져서 나중에는 거기에 깔려서 일어날수가 없지. 더구나 나라앞에 죄를 지으면 제때에 벌을 받아서 깨끗이 허물을 지워야 하는거요. 그래 자넨 자기가 지은 죄를 어느 정도의 벌로 갚아야 할것 같은가?》

《난 주동인물이였으니 가볍지는 않을겁니다.》

《주동인물이였다면 이 남쪽땅에서는 환영 받을만 한데… 듣자니 신의주학생소요의 주동인물이였다는 장도영은 경비대사령부에 들어가 어깨에 무거운 별을 올려놓고 다닌다고 하던데…》

《나도 그런 권고를 받지 않은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산것만큼 더 살아야 합니다. 난 자기를 바쳐 아까울것이 없는 제도라면 죽기를 겁내지 않고 그걸 위해 바치렵니다. 청춘시절에 모르고 지은 죄때문에 일생을 마음에 없는 일에 던지고싶지 않습니다.

소식을 들으니 우리 형도 북조선의 중요기관에서 사업한답니다. 언젠가는 동생이 돌아올것이라고 보안서에 가서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박선생을 찾아왔소? 젊은이는 비행학교도 졸업하였겠다, 권투도 하고 유술도 꽤 한다는데 장사치들도 활개치며 다니는 38°선이야 뚫지 못하겠소?》

그 말에 김형서는 인차 대답을 하지 못한채 아지랑이에 가리워 아슴푸레하게 보이는 삼각산마루를 잠시도록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정시명의 묻는듯한 눈길에 다몰린듯 말을 이었다.

《사실 저에게는 처녀동무가 생겼습니다. 웃지 마십시오. 제주도태생인데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하던중에 려수항쟁이 터졌습

니다. 부모와 어린 동생들이 다 죽었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정신을 잃고 한강에 뛰여들었습니다. 마침 그때 저는 그 근방에서 하역작업을 하고있었습니다. 세상일이 왜 이리도 뒤죽박죽입니까?》

불찌같은것이 튀여나오는듯싶던 두눈에서 명민하고 어글어글한 빛이 삽시에 꺼지면서 눈귀에 맑은것이 맺혔다.

정시명은 저도모르게 정의감이 있고 의협심이 있는 사내의 두손을 꼭 잡아주었다.

《울지 마오. 울지 마오.》

정시명도 어쩐지 목구멍이 확 더워왔다.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패이는 이러한 마음의 상처를 말끔히 가셔주기 위하여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이 세상에 태여난것이 아니겠는가.

일찌기 집을 떠나 이국의 설한풍에 막막한 가슴을 적시던 이국살이가 떠올랐다. 물을 떠나 고기가 살수 없듯이 사람이란 나서 자라난 고장을 떠나서는 어차피 마음편히 살수 없게 돼먹은것 같다. 압록강을 건넜던 그 아득한 날부터 그 언제 한시인들 고향을 잊은적이 있었으며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그리지 않은 낮과 밤이 있었던가.

지금 이 젊은이가 그리는 고향에 대한 련민은 자기보다도 더 복잡하고 고통스럽고 절박한것이라고 생각되였다.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 자기도 기어코 함께 데리고 가달라고 합니다. 나를 기다리는게 부모형제들만이 아니라고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뭐 그렇다고 약속한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두고서야 어떻게 서울땅을 떠난단 말입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38°선을 넘을수 있는 길을 찾자고 박선생을 찾아오게 되였습니다. 돈도 좀 빌려쓰려고요.… 박선생이 서울장안에서 마음씀씀이 바른 부호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 처녀들이 다니기에는 38°선이 험하겠지.》

《좀 알아보았는데 요새 38°선문이 예전보다 썩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 생기면 일본에 갔다가 중국쪽을 우회하여 들어갈 생각입니다.》

정시명은 그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였다. 자기 생의 목표를 새

롭게 정립해보려는 그 리성적인 사고, 정의와 진리에 대한 불갈은 갈망과 결단성 있는 행동력, 불의에 대한 분노와 인간이 당하는 비극에 대한 깊은 동정, 슬픔과 환희, 비애와 기쁨을 간단명료하게 표현할줄 아는 지력 그리고 순결한 젊음이 내뿜는 열정과 매력이 정시명을 크게 흥분시키고 공감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정시명은 이날 김형서를 데리고 모나리자다방에 가서 간단한 점심식사까지 함께 하였다. 장시간에 걸쳐 남반부에서 혁명을 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남반부현실의 우경화가 가지는 파국적후과에 대하여, 미제의 조선강점이 노리는 식민지적야망에 대하여, 조국분렬의 위험에 대하여 이야기하여주었다.

마침내 김형서는 북상길을 도와달라던 고집을 버리고 남조선에 남아 조국의 완전독립과 미제와 반동들의 종국적멸망을 위하여 있는 힘껏 싸우겠노라고 맹세 다지였다.

그는 작별에 앞서 자기 이름을 고치겠다고 하였다.

정시명이 의아해하자 김형서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부르짖었다.

《김형서라는 이름은 반동들의 유혹에 춤을 춘 한 머저리를 뜻하는 이름입니다. 이제부터 김형서는 다시 나타나지 않을것입니다.

저를 김아성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이 남녘땅에서 통일조국을 받드는 성새가 되렵니다.》

정시명은 안지생을 통하여 그를 리청천이 조직한 《대동청년단》에 파견하였다. 그리고 안지생이 자주 만나 잘 이끌어주라고 당부하였다.

리청천은 안지생의 권고를 받아 리범석의 《족청》에 대치하는 대동청년단을 조직할 때 안지생을 자기의 비밀고문으로 임명하면서 좋은 청년들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한바가 있었다. 리청천은 안지생에게서 김아성의 경력을 듣고 그를 만나보자 여간 좋아하지 않았다.

정시명은 김아성에게 리청천의 신임을 얻어 점차 경찰상층기관에 들어가 리청천을 업고 권력자들의 가까이에 접근할데 대한 전망적인 과제를 주었다.

그것은 가능성이 있는 계획이였다.

리청천도 리범석이처럼 청년들을 자기 주위에 끌어당겨 장차 그들을 군부와 경찰, 기타 권력기관에 들이밀어 자기의 정치적지반을 다지려고 꾀하고있었다. 때문에 리청천은 김아성과 같이 대바르고 유망해보이는 청년에 대하여 크게 기대를 가지고 든든히 써먹으려고 시도할것이다. 그렇게 되면 리청천이라는 공인된 반공분자, 특권세력의 유력한 우두머리가 그의 비호자가 되여 그의 활동을 보장하여줄것이다.

정시명은 이것을 노리였다.

그의 예견대로 리청천은 김아성을 자기 주위에서 놓칠세라 자기의 돈을 내서 집도 마련해주고 장사밑천까지 대주면서 호의를 보였다. 자기 사람이 되였다는 확신이 생기자 대동청년단의 서북사무국에 자기의 대표격으로 앉혀놓았다.

대동청년단 서북사무국이란 리청천이 자기 세력을 북반부에까지 뻗치기 위해 만든 모략기관이였다.

놈들은 괴뢰경찰당국으로부터 38°선일대를 자유로이 드나들수 있는 특권을 받아 북반부에 드나들면서 후방사업을 구실로 모리간상행위를 벌리고있었다.

어느날 김아성은 처녀를 데리고왔다. 내친김에 자기의 녀동무도 만나달라고 정시명을 처음 만났을 때 떼를 써서 한번 데리고오라는 말을 들었던것이다.

살결이 눈같이 희고 몸매가 곱고 봄철의 버들가지처럼 나긋나긋해보이는 아름다운 처녀였다.

정시명이 이름을 묻자 수집음을 타서 귀밑이 발그레 물이 오르면서 고개만 깊이 숙이였다.

김아성이 옆에서 민망스러웠던지 《리순애라고 합니다.》 하고 얼른 대신하고는 《원체 그렇답니다.》 하고 덧붙이였다.

정시명은 그를 어데서 일을 시켰으면 좋겠는지 인차 가늠이 가지 않아 몸둘바를 몰라 옷고름만 매만지는 처녀를 앞에 세워둔채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결패있고 손탁도 드센 김아성이 어떻게 되여 봄싹처럼 차분해보이는 처녀를 사귀였을가, 참말로 사람들의

관계는 기기묘묘하다.

처녀가 너무 연해보여서 련락사업이나 거점사업에 적당할것 같지 못하였다. 그렇다고 차집이나 미용원 같은것을 맡겨서는 푼전을 놓고 싱갱이질이 벌어질 일을 감당하지 못할것이다.

정시명은 한 생각이 떠올랐다.

《우선 타자수강습소에 들어가 배우는게 어떨가? 차후 직업문제는 그때 가서 연구하기로 하고…》

《선생님이 하시라는대로…》

처녀는 도톰한 입술만 감빨다가 종시 대답을 여물지 못하고 고개만 떨군다.

김아성이도 그게 좋겠다고 하여 그렇게 락착이 되였다.

정시명은 그들과 함께 전차정류소에 가면서 김아성에게 물었다.

《어느 학교를 다녔다고 했더라?》

《연희전문입니다. 원래 저렇답니다.》

김아성은 정시명이 미덥지 못해할가봐 마음을 쓰면서 뒤덜미를 슬슬 긁었다.

《허허, 내가 어떻다고 했나… 그러니 김군도 부끄럼을 잘 타는 성미가 눈에 들었던 모양이군.》

《아니, 우린 뭐 특별히 약속한건 없습니다.》

《마음속에야 있겠지. 난 동무들이 사랑한다고 세상에 소리를 쳐도 반대하지 않겠소.》

정시명은 사랑에서는 숫접기 그지없는 총각의 어깨를 세판게 흔들어주며 기쁨에 넘쳐 크게 웃었다.

정시명은 항상 마음에 드는 동지들을 새로 찾아낼 때가 제일 기쁘고 즐거웠다. 그는 또다시 믿어 랑패가 없을듯한 젊고 믿음직한 동지를 사귄것으로 하여 만시름을 잊고있었다.

김아성이도 자기들의 진정을 알아주고 가까이에 받아주는 정시명이 고맙고 그 인품이 정이 들게 하여 티없이 맑게 웃었다.

김아성은 그후 대담하고도 기민한 활동으로 애국자들을 적들의 사찰책동으로부터 보위하는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전우들은 그를 《홍길동》이라고 불렀다. 김아성이 정시명과 그의 전우들이 위험한 고비에 처할 때면 번개같이 나타나 놈들을 답새기군 하였기때문이였다.

2

길철과 김명호는 3일만에 영향력을 가지고있는 정당, 단체, 파벌들과 주요 정객들에 대한 자료를 보고하여왔다.

정시명은 자료를 받아안자 일체 바깥출입을 하지 않고 자기 방에 들어박혀 시간을 보냈다. 자료연구를 심화시키면서 방대하면서도 상세하게 정계의 안팎을 파헤친 전우들의 일솜씨에 무척 놀라기도 하고 흡족하기 그지없었다.

한주일에 걸치는 자료연구를 마치자 남조선의 정치구도를 앞으로의 투쟁전망과 결부시켜 그려나가기 시작하였다.

김일성장군님의 뜻깊은 가르치심부터 먼저 떠올랐다.

《외세가 없고 평화롭고 자주적인 인민의 통일국가를 세워 삼천리강토우에 인민의 부강한 락원을 세우자.》

새겨갈수록 자자구구 뜻이 깊어지고 가슴이 뜨거워오군 한다.

정시명은 자신과 흥국상회의 존재가 바로 이 가르치심을 떠나서는 무익하다는것을 걸음마다 명심하고있었다. 바로 이 전략적인 구호로부터 모든것이 출발되고 총화되여야 한다. 당면임무도 전략도 전술도 여기로부터 흘러나와야 한다. 갈피를 잡기 힘든 혼탁한 정치판에서 적아를 식별하고 사업대상을 확정하는 작업도 이 구호에 따라 벌려야 했다. 이 구호를 그대로 받아물었다면 동지가 될것이고 이 구호에 도전해나선다면 원쑤의 진영으로 구분해놓고 징벌의 포화를 들씌워야 한다. 그리고 크나작으나 이 구호에 리해관계를 가지고있고 구호가 명시한 목표달성을 부분적이나마 자기 위업으로 받아들인다면 비록 정견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계급이 달라도 애국의 길에 끌어들여야 할 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인정

할뿐더러 힘에 부쳐도 손을 내밀고 새 조국건설에 함께 나서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정시명은 우선 하지와 미군정청을 첫째가는 대결대상으로 정해놓았다. 이제부터 벌려나가야 할 정치전의 기본대상은 하지를 대표로 하는 미군의 현지집행기관으로 설정하는것이 옳다고 결론하였다.

그렇게 생각하니 어쩐지 마음이 무거워졌다. 미국놈들과의 정면대결인것이다.

그다음에 떠오른것은 리승만의 몰골이다.

리승만은 두말할것없이 민족의 족보에서 지워버려야 할 매국노이다.

련이어 떠오른것이 김구와 김규식이다.

그의 생각은 더욱 무거워졌다.

김구의 얼굴이 불시에 그의 눈앞에 얼른거리면서 그를 두고 하시던 장군님의 간곡한 말씀이 떠올랐던것이다.

김구와 김규식을 끝내 하지의 품에 밀어붙여야 하겠는가.

지금도 김구나 김규식은 여전히 반동으로 규정되여있다. 좌익이 내놓은 구호에도 《김구, 리승만을 타도하라》고 될 정도로 김구, 김규식세력은 애국력량의 첫째가는 표적이 되여 규탄을 받고있다.

정시명은 차마 하지와 그들을 나란히 세울수가 없었다. 어느 정도로는 정시명에게 파악이 있는 인물들이였다.

사상과 정견을 제쳐놓고 보면 미우면서도 정이 가는 인물들이였다.

김구만 봐도 리승만과는 달리 벌써 10대의 홍안시절부터 의분에 불을 질러 화승총을 메고 압제자들을 징벌하는 싸움에 나선 사람이다. 20대에 들어서서는 부모처자 다 버리고 세상천지를 숨차게 뛰여다니며 왜놈의 정수리에 살을 날리고 폭탄을 던지고 또 옥살이는 얼마나 치르었는가. 고난에 찬 그의 인생행로를 반공이라는 리념때문에 매국으로 몰아붙이면 력사의 정의앞에서 매우 온당치 않고 무책임한것이 아니겠는가.

정시명은 종시 결심을 굳히지 못하고 그들에 대한 분석자료를 다시 들추기 시작하였다. 좋은 소리도 많지만 나쁜 소리가 더 많다.

그러니 거기에서는 김구나 김규식을 다르게 종합적으로 평가할수 있는 요소는 찾을수가 없었다.

답답한 생각에 눌려 담배를 피워물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방문을 열고 뒤뜰안에 있는 정자나무밑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생각을 가다듬어 적진을 다시 마음속으로 훑어보기 시작하였다.

당시 미군정청이 관심을 두고있는 반동상층은 주로 3개 파로 나뉘여져있었다.

남조선반동세력이 해방후 맨 처음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련합하여 등장한것은 한국민주당(《한민당》)세력이였다.

국내의 지주, 예속자본가, 친일파, 일제시기 관료배들로 무어진 이 당은 극우익반동집단으로서 세상에 삐여나오자마자 미제의 턱찌끼를 받아먹으면서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에 적극 추종하였다.

그러나 이 집단은 여러 계층과 계파들을 망라하고 대중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있으므로 자기의 세력을 크게 확장하지 못하고 리승만에게 추파를 던지고있었다.

리승만도 이 당에 장덕수를 비롯한 손때묻은 측근들을 지도적인 자리들에 많이 침투시켜놓고있다.

《한민당》은 내부를 분렬시켜 제절로 무너지게 하는것이 상책일것 같았다.

두번째 세력은 리승만이 남조선에 기여들어 조직한 《독립촉성중앙협의회》(《독촉》)세력이였다.

이 세력은 리승만처럼 대체로 미국에서 길들여진 친미적인 인물들이 핵심적역할을 하는 매국집단이였다.

이 무리는 미국의 힘을 떠나서는 생존할수 없고 제놈들의 리해관계를 철두철미 미국의 리권과 일치시키는 역적들의 집합체였다.

그러므로 정시명은 이 패거리는 정치권에서 철저히 고립, 박멸해나가야 한다고 다시금 결단을 내렸다.

세번째로 편성된 우익세력이 김구, 김규식을 비롯한 상하이림시정부(《림정》)세력이였다.

우익세력중에서 대중의 호응을 받고있는것은 이 《림정》이였다. 미군정청이 《림정》을 무시해버리고싶어도 주저하는것은 리승만이나 《한민당》세력이 인민들의 미움을 사고있는 반면에 《림정》은 조선의 독립정신의 맥을 이어왔다는것으로 하여 국민의 사랑을 받고있는것이였다.

이 세 집단은 다같이 《반공》을 부르짖으면서도 그 내부에 서로 융합되기 어려운 심각한 모순과 알륵이 있었다. 리승만과 《한민당》세력이 정권에 대한 야망과 일신의 부귀영화를 위한 일이라면 나라와 민족의 리익은 안중에도 없이 마구 덤벼들었다면 김구, 김규식세력은 미국에 은근히 기대를 걸면서도 나라의 존엄과 독립과 통일에 대하여 주장해나선것이다.

거기에다가 리승만과 《림정》사이의 뿌리깊은 알륵과 적대감이 권력쟁탈을 위한 호상간의 맹렬한 책동으로 날을 따라 커가기만 했던것이다.

이 모순을 리용하지 않고 김구, 김규식을 리승만과 나란히 세워 하지에게 달아놓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정시명은 하지를 만나던 일이 되살아났다. 친미세력권을 확대하기 위해 바재이던 하지의 몰골이 떠오르자 정시명은 자신이 기본문제에서 탈선되고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의 야망대로 그들을 하나의 링안에 몰아넣는다고 하자. 나라의 분렬을 고착시키려는 미제의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는격으로 된다.

분명한것은 그들속에서 최대한의 력량을 떼내여 매국의 집단을 최대한 약화시키는것이다.

그러면 어느 집단이 애국의 길에 가까운 세력인가?

두말할것없이 김구, 김규식의 세력이다. 공산주의에 칼을 물고 덤벼들기는 해도 자주의 넋이 있고 애국애민의 얼이 있다. 정치력도 리승만이나 《한민당》세력에 비할바가 아니다. 김구세력만 떼여낸다 해도 미제는 남조선에서 강력한 정치적지반을 잃게

될것이며 반공우익집단은 크게 약화될것이다.
이것은 현정세의 요구이며 애국의 요구이다.
정시명은 이렇게 사색이 정리되자 김구나 김규식은 손을 잡아야 할 대상으로 눌러놓고 《한민당》을 리승만의 곁에 세워놓았다.
김증원은 《한민당》은 미련을 가질만한 일고의 가치도 없노라고 단언하였다.
김증원은 《한민당》에 대한 평가자료에 이렇게 썼다.
…《〈한민당〉패거리들은 그 체질로 보아 일제시기부터 민중의 행복과 나라의 부강을 위해서는 민족의 족보에서 제거되여야 할 쓰레기들이다. 이놈들은 해방이 되자 음지에 쑥 기여들었다가 미국놈의 팔굽에 매달려 다시 양지로 기여나와 번성하기 시작한 놈들로서 외세의존이 생리로 된 놈들이다.
나의 사촌형인 김성수자체가 일제시기 군량미 삼천석을 헌납한 호남벌의 대지주다. 철저히 타도해야 할 무리이다. …》
다음으로 정시명은 개천땅에서 줄행랑을 놓아 서울에 온 문봉제놈이 조직한 《서북청년회》라는 얼간망둥이들의 조직도 하지나 리승만의 편에 세워놓았다.
《서북청년회》를 주저없이 하지의 쪽에다 밀어놓은것은 그놈들이 대체로 북반부의 정치에 반기를 들고 의식적으로 남으로 도주해온자들이기때문이였다. 어차피 그들의 생존방식도 친미, 매국밖에 달리는 될수 없는것이다. 손을 내밀어 돌려세울수 없는 무조건 고립, 와해, 타도해야 할 투쟁대상이다.
김구와 김규식의 얼굴이 다시 떠오르면서 자기 속이 어느 정도 시원해지는듯싶었다. 공산주의운동에 일관하게 맞서고 심술을 쓰기는 했어도 그네들은 수난많은 민족의 한을 언제나 가슴에 품고 살아오는 지사들임에는 틀림없다. 그들도 언젠가는 민족의 재생과 만년번영을 위한 **김일성**장군님의 웅지를 받들어나서게 될것이다.
만약 그들을 외세의 품에 밀어던져 먼 뒤날에 민족사의 한페지에 그들의 이름이 치욕으로 새겨진다면 그 책임을 어찌 그들에게만 씌울수 있으랴 하는 생각이 정시명의 심중을 강하게 때렸다.

정시명은 다음으로는 함께 손잡고나가야 할 협력자들을 그려보았다.

려운형의 집에서 3거두회의에 참가했던 일이 생각났다.

…그날의 회합은 김명호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되였다.

조직부장직을 차지한 김명호가 어느날 정시명에게 그동안 당내부사업을 료해한 정형을 이야기하고나서 정시명이 조직의 명의로 근로인민당의 거두들인 백남운과 리영을 만나줄것을 희망하였다.

《당의 목표가 명백치 않고 아직도 거두들부터 우경적인 경향이 농후한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강하게 규률을 세워나가자니 그동안 무정부주의적분위기에 습관된 적지 않은 세력들이 당내 민주화를 떠들면서 소란을 피우는데 여기에는 3거두들에게도 크게 책임이 있습니다.》

김명호는 실례를 들어가면서 자기가 겪고있는 고충을 털어놓으며 이렇게 분석하였다.

《지금은 토론구락부나 다름이 없습니다. 백남운선생은 제가 려운형선생의 단독결심으로 등용된데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곁을 주지 않습니다.

당이 최고강령은 있으나 당면과업이 없고 정책적문제들에서 3거두들부터 의견조정이 잘되지 않습니다. 쏘미량군철거지지가 겨우 당론으로 선포되기는 했지만 〈좌우합작〉탈퇴문제는 아직도 어정쩡합니다.》

김명호가 이렇게 저저이 렴설하는 바람에 정시명은 자기가 공개장소에 나타나는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응하였다.

그가 가는데 대해서는 마동열이도 반대해나섰으나 나중에는 따라나섰다.

모임에 앞서 려운형은 정향선생이 근로인민당지도부회합에 참가하게 되였다는것을 엄숙하게 선포하였다. 그리고는 첫 발언권을 정시명에게 주었다.

뜻밖의 소개말에 정시명은 당황하였지만 려운형의 이야기가 사뭇 장중하기까지 하여 내색은 보이지 않고 자리에서 조용히 일

어났다.

정시명은 근로인민당이 얻은 성과에 대해 평가해주고 이미 범한 과오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하였다. 정시명은 애국자라면 누구나 파쟁을 그만두고 나라가 맞다든 엄중한 재난을 극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근로인민당이 범한 결함에 대한 정시명의 예리한 분석과 신랄한 비판은 그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지금 근로인민당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들속에서 당의 변질에 대하여 우려하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정시명이 이렇게 무겁게 결론을 내리고 자리에 앉자 방안에는 한동안 괴로운 침묵이 흘렀다. 이에 대하여서는 회의참가자들이 다 뼈에 사무치게 통감하고있었는데 정시명이 엄숙히 선언해버리자 자책이 더욱 커졌다.

먼저 일어난것은 리영이였다.

리영은 일제시기 함남도일대의 로동자들속에 들어가 사업할 때 조선인민혁명군 지하공작원들과 련계를 가지고 투쟁한 사람이였다. 거듭되는 감옥살이에서 여러가지 병마에 시달려온 그는 3거두중에서 제일 체소한 사람이였으나 누구에게도 쉽게 굽어들지 않는 사람이다.

《정선생의 념려가 지당합니다. 비판을 듣고나니 속이 후련하기도 하고 우리들의 실책이 크다는걸 재삼 느끼게 됩니다.

나도 이분들과 함께 박헌영이 노는 꼴이 하도 아니꼬와 공산당에서 뛰쳐나오기는 했지만 이렇게 당의 체질이 달라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고쳐가겠습니다.》

백남운도 자리에서 일어났으나 정시명이 두손을 들어 만류하자 엉거주춤거리며 짧게 말했다.

《동감이요.》

모임에서는 당면하여 《좌우합작》에서 탈퇴할데 대한 문제가 토론되였다.

이 문제에서는 백남운이 고개를 기웃거리였다.

《그건 이미 당론으로 결정된 문제입니다. 또 〈좌우합작〉에서 탈퇴하면 우리 당의 합법성이 위태로와질수 있습니다.》

《아니, 당의 합법성은 미국의 비위에 맞추어 주장할 문제가 아니요. 투쟁으로 전취해야 할 문제란 말이요. 투쟁하는 맛이 없다면 당초에 당은 왜 무었나 말이요. 우리가 〈좌우합작〉이 미국놈들이 파놓은 함정이라는걸 똑똑히 인식한 지금에 와서도 이 문제를 놓고 이러쿵저러쿵해서는 안되오. 래일중으로 〈좌우합작〉에서 탈퇴한다는걸 공식 당론으로 선언합시다.》

려운형이 질책이 담긴 열변으로 백남운의 조심스러운 반론을 꾹 눌러버렸다.

정시명이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좌우합작》의 부당성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 그는 어깨가 축 처진 백남운을 보면서 이렇게 간곡한 이야기로 설명을 마무리하였다.

《〈좌우합작〉문제에서도 우리는 그 누구의 눈치를 볼게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신념에 따라 주견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을 타고앉으려고 100년토록 덤벼든 미국놈들의 침략의 력사와 그를 막아나선 우리 인민의 애국의 력사와의 대결이 첨예하게 벌어지는 시대에 살고있습니다. 근로인민당은 민족의 큰 불행을 막아내기 위한 대결의 선두에 나설것을 자기의 정강에 박아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력사의 대결에서 각자가 자기의 할바를 찾아낼 대신 미국놈들이 주관하는 놀음에 미련을 가져서야 어찌 당이 내세운 애국의 뜻을 받든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위험한 탈선입니다. 우리는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백남운은 훤칠한 이마에 송골송골 돋힌 땀발을 손수건으로 닦아내며 고개를 끄덕끄덕거렸다.

회의에서는 려운형의 제안으로 당내부사업의 실무지도체제를 개편하기로 하였다. 이 문제는 이미 려운형과 정시명사이에 합의가 되였던 문제였다.

그동안 실무급중진인물들중에서 김명호가 파악해서 추천한 4명의 일군들로 4인위원회를 조직하고 여기에서 일상적으로 당내부사업을 협의하여 주관해나가기로 하였다.

3거두모임은 우익으로 기울어졌던 근로인민당을 다시 좌익으로 돌려세우는데서 전환점으로 되였다.

정시명은 그 일이 있은 후부터 새로운 투쟁에서 려운형과 근로인민당이 매우 중요한 몫을 감당해내리라는것을 의심치 않았다. …

근로인민당의 옆에는 홍명희의 독립당과 리극로의 건민회도 나란히 세울수 있다.

홍명희는 신변안전문제로 정시명이 두번 만났다.

그는 해방직후 《**김일성**장군환영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장으로 활약한바가 있었다.

정시명은 마동열이 키워낸 청년들을 홍명희에게도 붙여주고 신변에 주의하라고 타일렀다. 당수가 량심을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니 그가 조직한 독립당의 체질도 달리는 될수 없는것이다.

리극로도 믿음이 갔다. 일생을 한길에서 탈선없이 살아온 깨끗한 문인이고 애국자이다.

박헌영만 아니였다면 이들은 다 로동당의 중진인물로 활동할 명인들이였다.

정시명은 그밖에 《혁명당》을 비롯한 여러 중간정당, 사회단체들도 더듬어보았다. 이들은 대체로 좌익에 기울어지고있는 중도세력으로서 미제의 식민지정책에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리승만과도 선명한 리념적계선을 긋고있었다. 이들을 결합시키고 이들세력권에 김구, 김규식이까지 밀어넣으면 하지가 의지하고있는 반동의 세력권을 얼마든지 압도할수 있을것으로 예상되였다.

오랜 시간에 걸쳐 적들과의 정치적대결의 구도를 검토한 정시명은 다시금 김구와 김규식에 대하여 심중히 생각하였다. 정치전에서의 승패의 열쇠는 그들을 누가 전취하는가에 달려있다. 미국놈들도 그것을 인식하고있기때문에 하지가 그렇게도 초조해하고 안달이 나 하는것이 아닌가.

어느덧 동이 터왔다.

아침식사를 일찌기 한 정시명은 김명호를 만나 미제의 식민지통

치집단을 분렬, 약화시키고 통일애국세력의 압도적우위를 보장하기 위한 대정치전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다.

김명호는 거창한 투쟁을 방불하게 그려나가는 정시명의 설명을 들으며 인차 흥분에 떴다. 그러나 김구, 김규식집단에 대한 평가와 그들과의 사업전망을 놓고는 머리를 기우뚱거리였다.

《나는 김구와의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호는 무겁게 말머리를 떼놓고 잠시 생각에 잠기였다.

그동안 김명호는 정시명으로부터 따끔하게 비판을 받은바가 있었다.

…왜 자기의 주장을 내놓기를 삼가하는가. 우리는 혁명가들이다. 우리는 자기의 신념에 이끌려 나선 사람들이 아닌가. 누구의 눈치에 따라 자기의 주장과 행동에 수정을 가한다면 그것은 혁명가의 기본적인 품성을 잃은것이 된다. …

정시명은 이런 내용으로 타이르고 엄하게 추궁도 하였다.

일후에 김명호는 회의나 전술토의에서 소심성을 버리기 시작하였다. 옳다고 생각한 문제는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빈틈없는 론리와 류창한 웅변으로 옹호하군 하였다.

정시명은 그것이 마음에 들었다. 그런 문제에서는 길철이 역시 비슷하였다. 다만 길철은 선뜻 주장을 내놓았다가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반론에 부닥치면 재빨리 자기의 주장을 재검토하고 아무런 미련도 없이 자기의 주장을 훌훌 털어버린다. 그러나 재검토하여도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인정될 때에는 머리가 열쪼각나도 물러서지 않는다.

김명호는 이렇게 말을 이었다.

《첫째로, 우리는 김구에 대한 좌익력량의 구호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김구, 리승만을 타도하라는 구호를 피해갈수야 없지 않습니까. 둘째로, 현실성문제입니다. 김구도 현단계에서 권력야심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진지한 론의가 벌어졌다.

정시명이 밤샘을 하며 생각하던 문제들을 가지고 오래동안 설명

을 하여서야 그들은 견해의 일치를 가지게 되였다.

3

콩알같이 굵은 비방울이 창을 후려치고있었다. 이따금 번개가 시뻘건 불줄기로 하늘을 가르고 뒤따라 우뢰가 무섭게 꽈르릉거린다. 그때마다 너렁청한 흥국상회 사장실의 창유리가 부르르 떨고 밟고 있는 마루바닥이 찡 울린다.

《가을장마가 걷힐 때가 되였는데…》

연기가 몰몰 오르고있는 곰방대를 입귀에 물고 시꺼먼 구름장들이 도망치듯 분주히 오가는 하늘을 쳐다보던 정시명이 혼자소리로 중얼거리였다.

그의 앞에는 방금 들어선 안지생이 수건으로 비에 함뿍 젖은 얼굴을 벅벅 닦으며 처음 들어선 사장실을 둘러보다가 흘끔 눈길을 돌려 정시명의 안색을 살피고있다. 어지간히 긴장한 표정이였다.

정시명은 그가 젖은 옷을 벗어 옷걸이에 걸어놓은 다음에야 곰방대를 재털이에 툭툭 털고는 그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서울에 와서 그동안 마동열을 통해서만 련계를 가졌는데 정시명이 직접 호출하기는 처음이였던것이다. 정시명은 김구, 김규식과의 사업은 자신이 맡기로 하고 이날 안지생을 찾았던것이다.

《비옷을 쓰고 앉지. 고뿔에 걸리겠소.》

《일없습니다. 한바탕 소낙비를 맞고보니 한강에 나가 자맥질을 한것만큼 시원합니다.》

안지생이 처녀처럼 생글거리면서도 어서 과업을 달라는듯 눈빛이 예리해진다.

《그럼 좋소. … 지생이는 김구와의 사업을 좀 생각해봤소?》

정시명은 롱기어린 눈을 반짝이며 자기를 쳐다보는 안지생을 사랑스럽게 지켜보며 이렇게 말을 떼였다.

《김구를 애국의 편으로 돌려세우는것이 최종목표요. 그냥 미국놈의 곁에 세워둘수야 없지 않소.》

《예? 김구를 돌려세운다구요?!》

안지생이 껑충 놀라 한길 뛴다. 당초에 말이 되지 않는 소리라는 심산이였다.

정시명은 그의 반응을 미리 짐작하였던지라 안지생의 놀라움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며 가볍게 웃었다.

타고난 반공투사로 자처하는 김구의 행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는 안지생이였다.

8.15직후에 김구가 남북조선의 혁명세력에 집요하게 도전해나설때 안지생이 거기에 제동을 걸어보려고 여러모로 마음을 썼으나 종시 김구의 고집을 꺾을수 없었다.

김구의 그러한 망동의 근저에는 물론 지난날 공산주의운동을 말아먹고 항일운동에 적지 않은 혼란과 장애를 주었으며 민족주의세력에 대한 무분별한 배척과 모해를 감행하여온 종파분자들에 대한 뿌리깊은 환멸과 원한이 놓여있었다.

거기에 새로운 시대적조류에 대한 무지와 편견이 김구의 력사적감각을 무디게 했다.

안지생도 이에 대하여 잘 알고있었지만 그가 우려하는것은 다른 문제였다.

김구가 혁명앞에 저지른 죄를 어떻게 타협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이였다.

《김구는 돌아서야 할 사람이요. 우리의 애국대업이 그것을 요구하오.》

정시명이 결론부터 내놓자 안지생은 눈을 가느스름히 내리감으면서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였다.

내키지 않는 대답이였다.

정시명은 감수성이 빠르고 언제나 진취적인 안지생이 선뜻 조직의 지시를 받아안지 못하는것을 보자 이 일의 어려움을 더욱 절감하였다.

우선 안지생이나 전우들의 사고방식부터 돌려세워야 할것 같다.

우리가 무엇때문에 통일운동에 나섰는가. 이것부터 깊이 깨달아야 한다.

정시명은 방도를 협의하려던 당초의 계획을 뒤로 미루고 필요성과 가능성문제를 가지고 이미 정리되여있는 생각들을 다 털어놓았다.

여러 시간이 지나서야 안지생이 《해보겠습니다.》하고 대답은 했으나 여전히 뜨아해하는 빛을 다 지우지는 못하였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게 쉽지 않지. 그건 하나의 예술이라고도 할수 있소. 그러나 순차를 뛰여넘어 받아물지 못할 요구를 처음부터 들이대지 말고 서서히 움직여야 하오. 나무뿌리로 말하면 김구는 해묵은 그루터기지. 썩어서 부스러질건 부스러져도 그 안에 있는 속대는 굳어질대로 굳어져있소. 그게 뭔가 하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여기에 불을 질러야 하오. 김구가 공산주의에 빚진것이 많지만 〈공산주의자〉들도 그들앞에서 빚진게 많소. 그러니 옛날 이야기로 시야비야하지 말고 그 인간의 나라걱정부터 귀하게 여겨주고 빛이 나게 해주자구.》

안지생은 여전히 말없이 고개만 끄덕거리였다. 정시명의 말이 다 리해되고 공감은 갔으나 아직도 심장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마음의 실토였다.

안지생이 이제 나이가 스물을 갓 벗었지만 말그대로 외유내강한 인간이다. 처녀처럼 귀여워보이고 생글거리는 웃음을 가볍게 판단하고 허투로 대하다가는 누구라도 경을 친다. 아마 맑스의 자본론을 가지고 론쟁을 벌리면 안지생을 당할 사람이 없을것이다. 안지생이 《림정》의 늙은 두령들을 내키는대로 휘동해내는것이 우연이 아니였다.

《잘해보자구. 이 사업은 내게 분담되였소.》

정시명이 이렇게 말해서야 안지생이 긴장을 풀며 일어났다.

이튿날부터 정시명에게 전해오는 안지생의 보고는 그전보다 내용이 달라졌다. 지난날의 보고자료들에는 자료마다에 고집스럽고 심술사나운 김구의 얼굴만이 그려져있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옆에 안지생의 대바르고 귀염성있는 얼굴도 그려져있었던것이다.

김구와의 담화.

《선생님은 어째 〈림정〉사람들을 뿔뿔이 헤쳐지게 합니까?》

《어떻게 하겠나. 각자 제 갈길을 가는걸.》

《리승만은 한사람이라도 자기편에 더 끌어들이기 위해 아득바득 애쓰고있는걸요.》

《리승만?… 난 그 량반처럼 자파확장을 떠들며 요사를 떠는 사람이 아니야. 하와이에서 꼬아리장사나 하면서 미국놈의 식객이나 한 주제에 일국수뇌가 되여보겠다구? 오죽했으면 우리 〈림정〉이 국무회의를 열어 그 좀스러운 돈벌레를 쫓아버렸겠나. 원체 리승만을 초대대통령으로 내세운것이 우리 〈림정〉의 최대의 수치였어.》

《리승만은 그렇다고 하고 〈한민당〉을 보십시오. 력량이 계속 늘어나고있답니다.》

《그 쪽발이들의 삽살개들이야 돈줄을 쥐고있으니 그럴수밖에. 하지만 백범은 명실공히 정통정부의 주석이야. 제 땅 잃고 떠살이하면서도 이 나라의 법통을 지켰는데 해방된 제 땅에 와서 그걸 내놓을가.》

《그러니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처럼 선생님의 주위에서 하나둘 떨어져나가면 장차 누가 선생님을 지지하여 주먹을 들어주겠습니까.

리범석이 얼마나 많은 〈림정〉식솔들을 걷어안고 나갔습니까. 리청천이 그렇지요.

더는 〈림정〉사람들을 놓아버려서는 안됩니다.

이제라도 김규식선생님과 손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규식이?… 좀 생각해보자. …》

어느날 안지생이 보내온 자료겉봉에 그려진 연필속사를 보고 폭소를 터뜨렸다. 성난 호랑이앞에 눈이 올롱한 다람쥐 한마리가 앞발을 쳐들고 열심히 종알거리는 그림이였다.

정시명은 안지생의 사업정형을 극명하게 묘사한 그림을 음미하며 홀로 배를 그러쥐고 웃었다.

안지생이만이 생각할수 있는 기발한 착상이였다.

그는 그림밑에 《호랑이를 움직이는 다람쥐》라고 써서 안지생에게 돌려보냈다.

김구와의 담화.

《선생님은 무엇때문에 지금까지도 탁치(신탁통치)를 반대하십니까?》

《자네같은 풋내기가 그 깊은 속내를 알수 있겠나. 탁치는 외세의존이야. 조선사람 못난게 뭐가 있다고 남의 손끝에서 춤을 추겠나.》

《그래도 신문에는 모스크바3상회의결정이 꼭 그렇게 된것은 아니라고 썼던데요.》

《그게 바로 공산당의 선전이야. 자네도 상하이에서 공산당패에게 적게 속아왔나.》

《장차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요즈음은 김규식선생님의 이름이 신문에 짜하구만요.》

《허, 지생이앞에서는 나도 속을 뽑아놓게 된다니. 이봐 신동이, 아직도 민의는 이 백범을 쳐다보고있네. 그리고 미국도 이걸 알고 있어. 하지가 리승만을 싫어하는게 까닭이 있는거야. 이 양인들이 김규식을 내세우는건 날 건드려보자는짓이야.》

김구와의 담화, 안우생도 함께 참가.

《북에서는 지금 강하게 쏘미량군 동시철거를 주장하고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여겨보면 속대굳은것이 많아. 친일파도 숙청하고 토지개혁도 하구 내인들도 골방에서 풀어놨어. 김장군이 나섰으니 쏘련사람들이 함부로 수작질은 못할거네. 외세가 없어도 우리가 해를 볼것은 없네. 그러니 우리도 정신을 바싹 차리고 정권인수준비를 다그쳐야 해.》

《우리도 의사표명을 해야지요. 민심도 미군철거쪽으로 기울어지고있습니다.》

《거야 내가 벌써 해놓은게 아닌가.》

《한마디로야 부족하지요.》

《허, 거참… 내 오늘아침에도 하지중장을 만났는데 미국사람들

이 문제거든. 당장은 어렵다는거야. … 그 말에도 일리가 있어. 자네 한번 궁리를 내놓아보게. …》

※ 요즈음 하지가 대령계급장을 단 미국놈을 보내오고있다.

김구는 그놈과 김신(김구의 아들)의 통역밑에 단독으로 만나는데 그와 헤여진 다음 매우 기분상태가 좋아지군 한다. 하지가 김구에게 추파를 던지는것이 틀림없다.

어느날 안지생이 《신탁》에 대한 립장을 바꾸도록 하는것이 김구로 하여금 자기의 정치적견해를 재검토하게 하는 하나의 파렬구로 될것이라고 전하여왔다. 그러면서 좌익계의 신문글을 통해서는 김구의 《반탁》견해를 바로잡을수 없다고 덧붙여왔다.

정시명은 길철과 이 문제를 상론하였다.

인차 미군정청 여론조사과에서 신탁통치와 관련한 미군정청의 극비문건이 입수되였다.

《반탁운동지도서》라는 표제를 단 그 문건은 다음과 같았다.

루즈벨트(트루맨전의 미국대통령)는 남조선에 대한 신탁통치구상을 오래전부터 하여왔다. 1943년 12월 1일 《까히라회담》이 있은 얼마후인 《테헤란회담》에서 루즈벨트는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후견정치를 모델로 조선에 대한 신탁통치문제를 제의하였다.

1945년 2월 《얄따회담》때 루즈벨트는 또다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조선에 대하여 20～50년의 신탁통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쓰딸린은 《조선사람이 자기 정부를 스스로 수립할수 있다면 신탁통치가 필요없다.》고 반론을 폈다.

모스크바에서 미국과 쏘련은 이러한 엇갈린 주장을 내놓다가 신탁기간을 5년안으로 설정하자는쪽으로 의견이 좁혀들었다.

결국 쏘련측의 결의안에 기울어지고말았는데 빠른 시간안에 외군의 군정제도를 종식시키고 민주주의림시정부를 수립하여 조선인민의 자결권을 존중히 하는 방향에서 정치일정표가 제시되였다.

지금 김구를 비롯한 남조선의 우익세력이 맹렬히 벌리고있는 《반탁》은 모스크바3상회의결정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미국의 정책적목표로부터 출발된것으로서 이에 찬물을 끼얹는 언동을 일체 하지 말아야 한다.

미군정청은 정치적으로 우매한 조선의 민족주의세력의 《반탁》운동을 계속 고무추동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안지생이 기쁨에 넘쳐 뛰여왔다.

김구가 그 자료를 보더니 한길 놀라 껑충 뛴다는것이였다. 그리고 측근들에게 그 자료의 신빙성을 검토하고 즉시 보고하라는 임무를 주었다고 한다.

정시명은 김구의 모습이 방불하게 느껴졌다.

정시명도 기뻤다.

《그러면 그럴테지!》

《반탁》운동의 최선두에서 미제의 장단에 맞춰 춤추어온 김구였다. 정시명이 예견했던대로 그것은 김구의 본의가 아니였다. 외곡된 정보에 따르는 정세판단에서의 심각한 실책이였다.

그런데 그 심각한 오유가 바로 미국놈들의 조작이였다는것을 드디여 깨닫게 된것이다.

안지생은 이렇게 보고하였다.

《백범은 으르렁거리고있다. 〈그 양놈들! 심통이 바르지 않는 양놈의 새끼들, 도대체 이 늙은것을 뭘로 아는거냐.〉

어제 백범은 또다시 찾아온 미군정청의 대령을 문전에서 쫓아보내게 했다.》

길철은 또 여러건의 자료를 보고하여왔다.

김구에게 전해졌다.

《맥아더사령부의 정치보좌관 애치슨은 미국무성에서 있은 한 회의에서 〈현재 남조선내의 분위기를 보면 리승만의 인기가 단연 으뜸이다. 리승만을 중심으로 핵심집단을 꾸릴데 대한 미국무성의 립장은 맥아더의 지지도 받고있다.〉고 하였다.

애치슨의 주장은 노불의 정황보고에 기초하고있다.

노불은 이렇게 평가하였다.

남조선에서 미국이 상대할 정치세력에서 유망한것은 〈한민당〉이다. 실업계와 유식층인 보수주의자들이 〈한민당〉의 중추를 이루고있다. 그들중 대부분은 일본과 협조한 사람들이기는 하나 그러한 락인은 궁극적으로 지워질것이다.

이들이 다수파는 아니지만 단일친미집단으로서는 아마도 가장 큰 집단이다.

그런데 특기할수 있는것은 이 정치세력이 리승만을 지지하고 그의 집권을 원하고있다는 사실이다.》

김구는 자료를 넘겨받을 때마다 일정한 회의심을 가지고 안지생이더러 출처와 진위를 깐깐히 따지고들었으나 부닥치는 현실을 통하여 그것이 진실을 담고있다는데 대하여 부정할수 없었다.

그는 뒤에서 다른 측근인물들을 내세워 재확인을 시키기도 했는데 대답은 같았다. 가슴속에 얼어붙은 응어리가 차츰 한꺼풀한꺼풀 녹아내리기 시작하였다.

안지생이 련속 들이미는 자료들은 김구의 심중에서 일고잦는 이 물리적반응을 더욱 촉진시키는 촉매가 되여 그의 굳어진 가슴을 끊임없이 뒤흔들었다.

마침내 정시명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찾게 되였다.

《김구와 리승만은 완전한 결렬도상에 있다. 김규식도 될수록 리승만에게서 멀어지려고 한다. 미국은 리승만에게 기대를 걸고있다. 김구는 미국에 차츰 반기를 들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는 리승만에게 집중공격을 가하는것이 필요하다.》

정시명의 제의는 모두의 지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좌익계의 출판물들은 일제히 김구에 대한 지명공격을 중지하였다.

공격의 화살은 리승만에게 집중되였다.

이것은 김구의 태도에서 눈에 뜨일 정도의 변화를 일으키게 했다.

어느날 김구는 안지생에게 희색이 만면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보게, 자네 한번 좌익계의 방송을 들어보게.》

《왜요?》
《그 사람들이 이제는 날 리승만과 한줄에 세워놓지 않는구만.》
《그게 그리도 좋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선생님을 욕하는게 어제오늘에 시작되였습니까.》
《그래도 리승만과 같은 치사스런 역적옆에 내 이름을 나란히 올리는게 난 정말 싫었다네. 그 사람들의 험담치고 제일 싫은게 매국노라는 말이였지. 이제는 날 그렇게 보지는 않는구만.》
《그게 민심이라는게 아닐가요?》
《옳거니. 그네들도 내가 미국사람들과 가까이 하는것이 싫었던 모양이지. 하긴 을사오적들도 매국노라는 말은 싫어했지. 정신을 바싹 차리고 민심을 제때에 파악해야 돼. 우리가 현하정세에서 고삐를 늦추면 50년 꿈이 나무아미타불이 될결세.》
이 자료를 보고난 정시명은 안지생과 안우생을 함께 만났다.
자료를 여러번 훑었으나 아직도 김구라는 인간의 체질이 석연치 않았다. 민족주의라는 토양우에 솟아난 뿌리깊은 독버섯으로 김구를 몰아붙이고있지만 정시명은 쉽게 공감할수 없었다.
김구를 그렇게만 보아야 하겠는가. 김구의 체질평가를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권력을 위해서만 인생의 수난을 이겨온 인간이란 말인가. 김구라는 인간이 리승만처럼 살아가는 인간이라면 그와의 사업이 필요하겠는가. 썩은 뿌리를 가진 거목은 제아무리 가지를 다듬어주고 바람막이를 해주어도 종내는 넘어져 썩고만다.
정시명은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괴로왔다. 어떤 날에는 너무도 안타까와 그가 써낸 책도 읽고 그의 인생의 토막일화들을 되살려보기도 하였다.
그래서 이날 김구와 오래 살아온 두 형제를 불렀던것이였다.
《어떻소?》
정시명은 누구라 대중없이 물었다.
안우생과 안지생은 모색도 성격도 한배속에서 나온 형제같지 않게 판판 다르다. 안지생이 언제나 상글거리고 해맑은 둥근 얼굴이라면 안우생은 좀체로 웃음을 보이지 않는 철빛의 과묵한 상이다.

《허참… 요즈음 백범이 과대망상증에 걸린것 같습니다.》
안우생이 묻는 취지를 인차 알아차리고 이렇게 대답한다.
《과대망상증이라니?》
무엇인가 그들에게서만은 가슴이 트이는 말을 듣고싶었는데 안우생의 대답이 처음부터 시뿌둥스러워 실망이 앞섰다.
안지생이 대답하였다.
《어느때는 자기 주위에서 다 떨어져나간다고 우는소리였는데 좌익의 지명비난이 중지되고 철병주장에 대한 지지여론이 커지자 이 하늘아래 저보다 더 잘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였습니다. 다시금 한바탕 집중포화를 들씌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건 신중한 문제지. 이제 다시 좌익이 공격을 들이댄다면 김구가 더욱 뿔이 나서 엇서나갈수도 있지. …》
안우생은 동생의 격한 주장이 념려스러운듯 조용히 반박하였다.
정시명은 안우생의 얼굴에 언뜻 비끼는 엷은 빛갈의 음영을 놓치지 않고 살피며 생각을 더듬었다. 그러니 안우생도 그 인간을 총체적으로는 사랑하고있는것이다. 김구에게 기울이는 념려는 그 어떤 리성적인 판단에 의해 생긴것이 아닌것 같다. 옆에서 관찰하고 체험한 감정의 표현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소?》
《좀더 지켜보면서 백범이 현실에 대한 정확한 견해를 가지도록 하는 사업을 계속했으면 합니다.》
정시명이 아직도 사업에서 답보를 주장하는 안우생의 말이 허전하여 안지생에게 고개를 돌리자 안지생은 딴소리를 하였다.
《제 잘난체 안하무인이 되여서는 집권도 애국애족도 할수 없다는것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게 하는것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그 역시 큰 전진이 못되는 얘기이다. 한바탕 때리자는것을 고집하는것이다.
그들을 돌려보낸 정시명은 여전히 김구에 대한 생각으로 시간을 보냈다.
정시명은 김구, 김규식이와의 사업에 보다 힘을 넣어야겠다고 결심하였다. 어차피 김구가 반공집단으로부터 갈라져나와 진보세

력권에 들어서게 해야 한다.

안지생의 말이 옳다고 긍정되였다.

자기의 정치적지반이 뒤흔들리고있다는것을 스스로 깨닫게 해야 한다. 사실상 김구의 지반은 크게 약화되고 위험수위에 이르렀으나 김구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있다.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 김구, 김규식이 정신을 차리고 저들의 주장을 재검토할것이며 종당에는 정치적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진보세력에 손을 내밀것이며 장차 반공으로부터 련공합작의 길에 돌아설수 있다.

정시명은 김명호를 만나 이 문제를 놓고 오래동안 협의하였다.

당면해서는 중간정당들을 하나의 진보적인 세력권으로 묶어세우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기로 하였다.

정시명은 의미심장한 어조로 덧붙이였다.

《말하자면 가장자리를 쳐서 보짱을 울리게 하는 방법이요. 정당들과의 사업을 다그칩시다. 중간정당들을 포섭하지 못하면 하지에게 지고마오. 가능성은 있소. 려운형선생을 내세웁시다. 그를 주축으로 중간정당들을 하나의 련합으로 묶어세우는것이 바람직하오. 몽양은 우리가 곁에서 뒤받침을 잘하면 반드시 이 일을 감당할거요.》

《옳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려운형선생이 요즈음 기세충천해서 일을 제낍니다. 당의 체모가 잡혀지고 기풍도 바로서갑니다. 전번에 당정치위원회에서 〈좌우합작〉문제를 놓고 반대파들이 들고일어났는데 려운형선생이 지금 맞받아 솜씨를 보이고있습니다.

지금 당전체가 움씰거리고있습니다. 〈좌우합작〉에서 탈퇴할데 대한 결정을 당수의 독단행위라고 하면서 집단탈당까지 운운하던 남도의 당지부들이 려운형선생의 정면돌파공세에 뒤걸음치다가 드디여 그의 립장에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오늘 낮차로 지방순회를 마치고 서울에 돌아옵니다. 오자바람으로 〈좌우합작〉에서 탈퇴할데 대한 공개선언을 하겠으니 기자회견을 준비해달라고 전화부탁을 해왔습니다. 참 정열이 대단합니다.》

김명호가 려운형을 버쩍 추켜올리는데 제 말은 한마디도 없다.

려운형을 만날 때면 김명호가 틀고앉아 당안에서 외부세력의 조종을 받는자들을 축출하고 뼈대있는 조직사업을 해주니 자기는 마음을 놓고 일한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얼마전부터 려운형은 《좌우합작》과 관련한 당상층부의 반대파들과 지방당들의 소요를 제압하기 위하여 남조선각지를 돌아다니며 류창한 열변으로 주의주장을 거리낌없이 내놓아 청중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고있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당내부가 순결해지기 시작한데서 힘을 얻은데 있다.

김명호의 공로가 크다.

정시명은 전우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을 담아 《하여간 김선생의 수고가 크오.》하고 짤막하게 치하하였다.

《참, 부산에서 열번째의 테로를 당했다는데 다친데는 없다오?》

《네, 다행히도 무사하다고 합니다.》

《어느 놈들이 한짓인것 같소?》

《뭐 뻔합니다. 려선생이 대바른 소리를 돌아가면서 하자 미국놈들이 겁을 주어 다시 〈좌우합작〉에 몰아넣으려고 그따위 짓을 벌렸겠지요.》

《겁을 준다, … 허허… 그렇게만 볼게 아니요. 하여튼 곁에서 잘 돌봐드리오.》

정시명은 신중한 어조로 부탁하고 헤여졌다.

4

밤 열시를 알리는 싸이렌소리가 서울의 밤하늘에 처량한 여운을 남기고 사라진무렵이였다.

마동열이 정시명의 방에 들어섰다. 금방 김명호의 전화를 받았는데 려운형선생이 꼭 만나줄것을 바란다는것이였다.

그 소리에 정시명은 두말없이 하던 일을 미루고 집을 나섰다.

그들은 전차를 타고 홍국상회로 갔다.

정문에 이르니 그들의 도착을 기다린듯 정문밖에 있던 승용차가 천천히 굴러왔다.

승용차에서는 김명호가 려운형의 비서와 함께 내려서 마주왔다.

《려운형선생이 어디에 계시오?》

《한강변에 계십니다.》

비서가 대답하였다.

《한강변에? 무슨 일이시오?》

《뭘 좀 좋지 않은 일이 생겼나봅니다.》

《좋지 않은 일이라니? 기자회견때문이요?》

정시명은 얼른 짚이우는바가 있어 물었다.

아까 서울신문 저녁호에 려운형의 기자회견소식이 실린것을 보았다. 거기에는 근로인민당이 김규식이 주도하는 《좌우합작》에서 탈퇴한다는것과 홍명희의 독립당과 리극로의 건민회도 립장을 같이하기로 했다는 려운형의 공개발표가 실려있었다.

《옳습니다. 그 일때문에 하지의 호출도 받고 김규식선생도 만났는데 거기서 충격을 크게 받은것 같습니다. 그냥 한강변에 계시다가 정선생을 미안한대로 모셔와달라고 했습니다.》

비서가 간단히 사유를 설명하자 정시명은 《그랬댔구만. 어서 갑시다.》하며 먼저 승용차에 올랐다.

김명호는 당사에 가야 할 일이 있다 해서 떨어지고 비서와 마동열이 따라섰다.

승용차는 어둠에 잠긴 서울의 밤거리를 쾌속으로 달려 인차 강변숲속에 들어섰다.

달빛어린 강변에서 그들은 려운형을 인차 찾아냈다.

려운형은 반가움에 홈싹 젖어 종종걸음으로 마주가서 그의 손부터 덥석 잡았다.

《정선생, 이거 야밤중에 정말 죄송하오.》

《아니, 일없습니다. 몽양선생님의 부름인데 야밤중이면 어떻습니까. 이번에 장한 일을 하셨습니다. 부산에서 또 변을 당했다는 소식에 걱정이 컸는데 몸 성한 선생님을 뵙게 되여 정말 기

뽑니다.》
《내 두루두루 심사가 뒤틀려서 정선생을 모셔오라고 했소. 자, 아서원에 갑시다.》
《지금쯤은 문을 닫을 때가 되였습니다.》
비서가 말했다.
《일없소. 아서원은 이 몽양에게 스물네시간 문을 열어주게 되여있는 곳이요. 자 정선생, 오늘 좀 선생과 함께 실컷 마시고 취하고싶소.》
정시명이 희미한 불빛에 어린 려운형의 모습이 례사스럽지 않아 불안해졌으나 응하는수밖에 없었다.
《몽양선생님의 뜻이라면 제 두말없이 술친구가 돼주렵니다.》
아서원의 나들문에서 비서가 뛰여내렸는데 늙은 수위가 단마디로 지금이 몇시냐며 이제는 손님을 받지 않는다고 딱 막아나섰다. 비서가 길게 설명해서야 수위가 두덜거리며 안으로 사라졌다.
이어 40대의 몸집이 풍만한 아서원의 녀주인이 끄리치마를 끌면서 문가에 나타났다.
《아유 몽양선생님, 오신다고 먼저 사람을 보내야지… 야밤에 문득 어찌된 일입니까?》
《허허… 아서원의 문턱이 높다더니 말그대로군. 이분은 내가 존경하여마지않는 벗이니 인사를 하게. 정선생, 이 마담이 왜정때 날 따라서겠노라 몸살을 앓던 내인이라오. 허허…》
녀주인이 곱게 눈을 씽긋거리는것으로 보아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러니 아서원이 자기에게 스물네시간 문을 열어주게 되여있다고 한 려운형의 말도 헛말이 아닌듯 하다.
그들은 유쾌히 웃으며 녀주인의 안내를 받아 2층의 잘 꾸려진 방으로 들어갔다.
아서원이란 중국료리점이다. 본점은 베이징에 두고 아시아각지에 료리점을 차려놓고 중국료리를 기본으로 하면서 식당봉사와 주문봉사를 배합하여 돈을 벌고있었다. 녀주인은 중국인책임자의 현지대리인자격으로 주로 봉사관계를 맡아보고있었다.

《우린 다 배가 부른 사람들이요. 그러니 좋은 술 몇병과 북어 몇쪼각이면 되겠소.》

《아유, 몽양선생님이 모처럼 오셨는데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허허, 그저 밤시간을 지체한다고 내쫓지나 말아주오.》

잠시후 접대원들이 줄을 서서 들여오는데 순식간에 상다리가 부러지게 산해진미가 차려졌다.

녀주인이 술을 칠양으로 정시명에게 다시한번 곱게 인사를 하고는 그들사이에 다소곳이 자리를 잡았다.

《허허, 참 이렇다구야. 마담, 내 이래서 마담 보고싶어 올려고 해도 발길이 쉽게 돌아서지 않아. 이건 저쪽 방의 젊은이들에게 갖다주라구. 우리는 조용히 시간을 보내겠소.》

《예, 그렇게 하시지요. 그런데 저쪽 방도 이렇게 차려드리니 편히 즐기세요.》

녀주인은 호젓한 자리를 가지고싶어하는 려운형의 속말을 알아차리고는 술잔에 술을 부어놓고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보이고 방에서 나갔다.

《자, 우선 마십시다.》

려운형이 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다.

《요즈음 조직부장이 걸싸게 해제낍니다. 사람이 순해보이는데 당을 다스리는걸 보니 웬걸 얼마나 손탁이 센지… 그 사람이 없었다면 이번에 〈좌우합작〉문제도 쉽사리 끄아내지 못했을거요.》

《아, 그래요? 그것 참 어려운 일을 일사천리로 해놓았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린 선생님께 지금 좌우를 살피며 가운데서 동요하는 여러 정당들과 단체들을 잘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 그게 헐치 않소. 내 방금 하지에게도 불리워갔고 만호와도 만나 절교선언까지 던지고 오는 길이요. 돌아서니 한순간에 막역지우를 버린것 같아 가슴이 답답한데 어디 비벼댈 곳이 있더라구. 그래 실은 화술이라도 들고싶어 정선생을 모셔왔던거요.》

《그런데 김규식선생님과 절교선언은 왜 하셨습니까?》

정시명이 려운형을 통해서 김규식을 움직이려고 생각해왔는데 왕청같은 절교선언소리가 나오니 랑패스러워 물었다.

《이렇게 된 일이요. 정선생도 이런 말씀 하신적 있잖소. 내가 김규식의 〈좌우합작〉에 끌려가 민족의 대의를 버리지 말고 김규식을 끌어와 애국의 길에 세우라고. 그래 내가 〈좌우합작〉에서 탈퇴하는걸 통고할겸 그 사람과 얘기를 했는데…》

하며 려운형은 김규식과 하지를 만났던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려주었다.

…

서울에 들어서는 길로 홍명희와 리극로를 찾아가 자기의 의거에 보조를 맞추기로 합의를 한 려운형은 그길로 김규식을 찾아갔다. 그앞에서 근로인민당의 탈퇴를 선언하고 김규식이도 《좌우합작》을 걷어치울것을 력설하였다.

이 놀음의 주창자인 김규식이 예상했던대로 삿대질을 하기 시작하였다.

말싸움은 점심상까지 차려가며 세시간이나 끌었다. 차분하게 자기 식의 구태의연한 론조를 빙빙 돌려가면서 들이대는 김규식의 반발이 점차 려운형을 아연하게 하였다.

《만호!(김규식의 호) 어째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하는가?》

《눈을 크게 뜨고도 앞뒤를 보지 못하는건 몽양 자넬세. 〈좌우합작〉이 뿔뿔이 흩어진 각당각파를 묶어세우는것이라는걸 그래 몽양이 모른단 말인가. 바로 누구도 아닌 자네가 탈퇴하다니, 그게 제정신 가지고 행한 일인가.》

《아, 만호! 누구를 위한 〈좌우합작〉인가? 누가 바라는 〈좌우합작〉인가?》

매사에 빈틈이 없고 사리가 정연한 김규식이 《좌우합작》의 부당성을 충분히 납득하면 기존의 립장을 훌훌 털어버릴줄 알았는데 그냥 고집을 부리고 심술을 쓰자 려운형은 지쳐버렸다. 끝내 려운형은 김규식과의 대화를 울화를 터뜨려놓는것으로 마무리짓고 말았다.

《만호! 어째 이리도 요지부동인가. 이 몽양은 일언이페지하

고 외세에 기생하려는 그 어리석음을 깨버리기 전에는 천추로 등을 돌릴것이요.》

김규식의 고집으로 화가 천둥같이 난 려운형은 솟구치는 울분을 어데다 비벼댈 곳이 없어 읏읏하다가 곧장 기자구락부로 차를 몰아갔다.

려운형은 행동적인 인간이였다. 일단 자기의 심장을 뛰게 하는 일거리가 생기면 끝장을 볼 때까지 주저없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몸을 적시였다. 그리고는 심혼을 깡그리 태워서라도 매듭을 짓고야 물러서는 투사다운 기질을 보여주군 한다.

려운형은 즉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인민당은 이 시각부터 《좌우합작》에서 탈퇴하며 쏘미량군의 즉시적인 동시철거를 요구한다는것을 다시금 선언하였다.

그렇게 해놓으니 속이 후련해지기는 했지만 돌아오는 길에 김규식과 절교까지 하고 온것이 떠올라 가슴이 알찌근하기 그지없었다.

그렇게까지 밀어던질것은 없지 않았는가?

그렇지만 김규식의 소행은 생각할수록 괘씸하기 그지없었다.

친구가 성심으로 내놓은 충언을 깊이 씹어보지도 않고 그렇게도 가벼이 뿌리칠수가 있느냐. 홍명희나 리극로는 군소리 크게 없이 받아주는데 그 사람은 어찌된 소갈머리기에 40년지기가 힘들게 내린 또하나의 운명적인 결단을 리해하여주지 못하는가.

(만호! 당신이 나한테 그럴수 있느냐?)

려운형은 이렇게 입속으로 부르짖으며 집안에 들어섰다.

그는 한달만에 만난 가족들의 인사도 받는둥마는둥하고 침실의 쏘파에 깊숙이 몸을 잠그고 앙앙불락하며 좀체로 마음을 다잡지 못하였다.

그런데 저녁이 가까와와서 비서가 조용히 들어와 하지중장의 부관이 왔다고 알렸다.

《헝! 또 불질을 해오는군. 들여보내오.》

려운형은 귀찮아서 시들하게 말하고는 응접실에 나가 팔걸이걸상에 방정하게 앉았다.

이미 면목이 있는 하지의 부관은 문가에서 손을 건듯 들어 깍듯

이 인사를 올리고는 하지중장이 저녁만찬에 각하를 초대한다고 전하였다.

려운형은 아무래도 또 하지와 맞서서 겨루어야 할 트집거리를 만들어놓은 이상 그와의 면담을 미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여 초대에 응하였다.

하지가 벌써 자기의 지방순행과 기자회견소식을 일일이 보고받았으리라는것은 뻔했다.

하지가 언제나처럼 경무대의 현관문에서 려운형을 정중하게 맞이했다. 그길로 려운형을 연회실로 쓰는 별관에 안내했다.

커다란 연회상에는 두사람의 자리만 마련되여있었다.

하지는 려운형을 맞을 때면 대체로 통역을 세우지 않고 단독으로 나서군 했다. 려운형의 영어화술이 류창하여 중간인물이 필요없는데도 있지만 주되는 원인은 딴데 있었다.

하지는 미군정의 력대 장관들은 물론 자기까지도 눈아래로 굽어보는 려운형의 기를 꽉 눌러버리려고 여러번 기회를 마련하고 수를 썼으나 매번 마주서면 자기도모르게 속이 졸아들고 위압이 되고만다.

자기스스로도 화나는 일이지만 어쩌는수 없다. 그래서 아예 려운형과 만날 때는 언제나 이렇게 다른 인물들을 옆자리에 두지 않는것이 마음이 편하였다.

그들은 조용히 접대원이 부어주는 술을 마시였다.

이윽고 려운형이 좋아하는 조선국수가 나오고 만찬이 끝나갔다.

젖은 수건으로 얼굴까지 씻고나자 하지는 말끔히 비운 려운형의 국수사발을 흡족하게 넘겨다보다가 뒤자리에 서있는 접대원을 눈짓으로 내보냈다.

드디여 초청용건을 내놓았다.

《립법의장한테서 말을 들었습니다. 〈좌우합작〉에서 탈퇴한다는게 당론으로 선언되였다는것이 사실입니까?》

하지는 언제나처럼 에돌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오늘에야 비로소 들은것처럼 얼굴에 놀라운 표정을 띄우며 정중하게 물었다.

《예.》

《김규식의장은 나에게 려선생의 립장을 돌려세워줄것을 친구로서 부탁하여왔습니다.》

《친구로서 부탁하여왔다구요?》

려운형의 얼굴이 대뜸 거칠어졌다. 만호가 그런 부탁을 하지에게 하다니?… 그래 이 몽양이 외세라면 사족을 못쓰는 반편같이 보이던가. 만호가 환장을 해도 크게 하는군. 그게 어디 뼈대있는 사람의짓인가. …

하지가 욱 끓어오르는 의분을 가까스로 누르고있는 려운형의 안색을 그 세모눈으로 핥다가 말을 이었다.

《실은 당신들, 정객들이 모여 좌우익이 합작하자고 합의한것을 당신이 이제 와서 파기하는것이 리해가 안되여 이렇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당신이 지방에 가서 한 강연내용들을 매일 통보받군 하였는데 리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때문인가요. 당내 일부 불순인물들의 압력때문인가요? 공산당세력이 〈좌우합작〉의 의미를 달리 해석하면서 지도부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고있다는 통보도 받았습니다.》

《중장, 이 몽양은 평생 제 주견으로 살지 그 누구의 눈치나 보면서 안팎 다른 말을 해본적이 없소. 난 지금껏 〈좌우합작〉이 당신들의 고안품이라는걸 딱히 몰랐소.》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미국의 고안품이라니?…》

하지는 벌레라도 깨문듯 상을 찡그리고 말꼬리를 높이였다. 그러나 인차 자기를 수습하고 역시 무인답게 반격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그래 우리의 고안품이라면 어떻단 말입니까. 우리는 당신들이 서로 물고뜯으면서 쓸데없는 싱갱이질로 세월을 보내지 말고 합작하여 우리가 권력을 이양할수 있는 정부를 세우도록 도와줄뿐입니다.》

론리에 앞서 힘의 무게가 느껴지는 하지의 직선적인 도전에 려운형은 대뜸 눈이 번쩍거렸으나 인차 낯빛을 풀고 《우릴 도와줄뿐이다… 허…》하며 쓰거운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는 고개를 몇번 끄덕거리다가 말을 이었다.

《중장의 솔직성이 마음에 드오. 그러니 나도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중장, 우리 조선속담에 고양이 쥐생각한다는 말이 있소. 당신이 애당초 이 나라 국민의 리권을 존중하였더라면 인민위원회를 해산하지 말아야 될것이고 군정이라는걸 펴지 말아야 할것이였소.》

《려운형선생, 당신은 인민위원회가 공산당의 정권이였다는것을 정말 모릅니까?》

《해산리유가 공산당정권이라는데 있다? 허… 그렇다면 이제 와서 당신들이 좌익에 손을 내미는 리유는 뭐요? 당신들은 좌익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했소? 외세의 풍에 놀아나는 그런 좌익을 념두에 두는거요? 아니면 미국에 끈이 달린 우익과 한동아줄에 얽어맬수 있는 그런 좌익을 말하는거요? 우리 근로인민당은 명실공히 근로하는 인민을 대변하는 당으로서 당신들이 요망하는 그런 좌익세력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두오.》

려운형은 말싸움에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안깐힘을 다 쓰는 상대방을 그냥 밀어붙이면서 여유작작하게 오금을 박았다.

《려운형선생, 당신은 이 나라의 정치적장래를 우리가 담보하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랭정하게 접수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가리켜 현실에 발을 붙이지 못한 리상형의 정치가라는 평가도 내리고있는데 참고해야 되지 않을가요.》

《하하하…》

려운형이 어깨를 들썩거리며 너렁청한 연회장이 떠나갈듯 호탕하게 웃었다. 하지의 세모눈이 점점 표독스러워졌다. 암팡지게 패여든 눈에서 뭇사람들이 전률을 느끼는 새파란 류황불빛같은것이 팔팔 일었다. 그러나 려운형은 상대방의 기분쯤은 내 상관할바 아니라는듯 한바탕 웃고는 그 시원스러운 목청을 높였다.

《리상형의 정치가라? … 옳소. 난 리상속에 살아왔고 앞으로도 리상을 위해 살아갈것이요. 나는 현실에 아부하면서 자기의 리상을 대세에 따라 바꾸는 그런 서푼짜리 정치인은 되지 않을거요.

그리고 중장, 이왕 말난김에 내 솔직히 말해둡시다. 툭 빠개

놓는다면 난 당신들, 대양건너온 이방인들이 이 나라의 정사에 이러쿵저러쿵하는 꼴 보는것이 골치가 아프오. 당신은 어째서 우리 집 식솔들의 마음가짐이 다른데 대하여 그렇게도 군소리가 많소? 뭐 미국의 정치라는것도 선거때 보니깐 저마다 제 소리로 고아대는게 악마구리 끓듯 소란스럽기만 하더구만. 그래놓구도 그게 자유민주주의모델이라 자랑하더구만.

어찌된 영문이요? 중장, 그래 이 나라의 국민은 당신들이 바란다면 군소리없이 생김새를 바꾸는 그런 미개족속으로 보이오? 천만에!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중장, 당신얘기를…》

려운형은 깍지낀 두손에 턱을 고이고 입가에 느긋한 웃음을 담은채 저력있게 들이댔다.

려운형을 돌려세우려던 하지는 또다시 수세에 몰려 허둥거리면서 이 인물과는 대적이 될수 없다는것을 다시금 통감하였다. 자신에 대한 모멸감이 굴뚝같이 뻗쳐오르고 분노로 하여 얼굴이 피빛이 되였다.

하지는 려운형을 독기가 번뜩이는 매눈으로 쏘아보다가 로골적으로 위협했다. 열한번째의 테로를 조심하라는것이였다.

려운형은 돌아오던 길에 다시 김규식의 집에 들렸다.

《그까짓 하지놈의 위협쯤은 례사로운 일이니 개의할바가 아니지만 만호일이 괘씸스럽기 그지없더란 말이요. 저를 믿고 한바탕 아픈 소리도 해봤는데 하지에게 선통을 하다니, 세상에 이럴수 있는가. 우린 지금껏 어려울 때 서로 지지하고 부축해주며 살아왔다오.》

려운형이 말끝에 또 술잔을 비우고 왼쪽가슴을 툭툭 쳤다.

《저도 알고있습니다. 빠리 만국평화회의에도 함께 갔고 모스크바에도 함께 갔다는것을요.》

《내가 일본총리대신 만나러갈 때에도 다른 사람은 다 눈총을 쐈지만 그 사람만은 나를 기대하고 지지하여주었소. 그런데 이 사람이 두번째로 문턱을 넘어선 나더러 또 삿대질이요.

만호가 확실히 〈립법의원〉의장자리를 타고앉아 미국놈들과 하루가 멀다하게 상종하더니 독립운동가의 얼과 혼은 다 거덜이 난

것 갈단 말이요.》

《그래 화해는 하셨는가요?》

정시명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궁금해서 물었다.

려운형이 행동형의 다혈질적인 기질이라면 김규식은 사색형의 점액질의 인간이다. 상반되는 두 기질의 인간이 오랜 세월 큰 충돌이 없이 친분을 두터이 해온것이 희한한 생각도 들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가 하나로 뭉쳐줄것을 요구하는 이때 사이가 버그러진다면 큰 랑패다.

려운형이 제손으로 술을 부어 들이키고는 말이 안된다는듯 팔을 내둘렀다.

《화해가 다 뭐요. 소리를 지르다가 이길로 달아빼고말았지요. 만호 저 사람이 확실히 제 빛을 잃고있소. 미국놈의 장단에 춤을 추는데 모르고 한짓이 돼도 안되겠는데 내 알만큼 말했는데도 고집이거든. 저 사람이 저래서는 안되지요.》

정시명은 려운형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의 사람됨에 깊이 머리가 숙어졌다. 세상만사를 굵게 받아들이며 살아오는 세상에 유명짜한 풍운아가 한 친구와의 우정을 두고 이렇게 가슴아파하고 울분을 새길길 없어 어쩔줄 몰라하는것이다.

정시명은 려운형의 술잔에 술을 채워주며 각근히 위로하였다.

《몽양선생님, 너무 괴로와마십시오. 김규식선생이 언젠가는 몽양선생의 진의를 깨닫고 뉘우칠 때가 반드시 있을것입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도 두분사이에 절교선언까지 내린것은 너무 과하신것 같습니다.》

《글쎄 그렇다니.… 옳은 비판이우. 내 이따금 인생길 돌아보며 그르친 일이 많아 자책이 크다오. 그게 다 내 성미가 너무 곧아 휘여져야 할 때도 있건만 휘여들줄 모르고 살아온데서 버릇되지 않았겠는가.》

《두분이 뒤날을 기다리지 말고 다시 손을 잡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나라의 재난을 가시기 위하여 만호선생과도 손잡고나가야 합니다.

통일을 먼곳에서 찾지 말아야 합니다. 통일은 우리의 마음속

에서부터 시작되는게 아니겠습니까.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이 나라걱정부터 하고 겨레가 당하는 수난을 아파하고 후손들을 념려하는 참다운 인생을 살 때 그리고 온 민족이 애국의 기발아래 하나로 뭉칠 때 비로소 통일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설사 회초리를 받아도, 욕을 당해도 참아내야 하며 사람들을 하나라도 더 깨우쳐서 미국놈들로부터 떼내야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야 애국자들이 아닙니까. 참고참고… 그리고 이겨내야지요. … 정말로 제가 선생님의 아프신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위로하여드렸으면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며 정시명이 다시 술잔을 채워 내밀자 려운형은 그걸 정히 받아들며 목이 메여했다.

《정선생, 고맙소. 난 참 자꾸 걱정끼칠 일만 하는구려. 내 그 높은 뜻 폐부에 새겨 받들리다. 허물이야 찾으면 빨리 도려내버려야지. 래일 서울에 온 재미교포를 만나게 되는데 돌아오는 길에 만호를 찾아가 사죄부터 하리다. 만호를 내게 맡겨주시오. 근본이야 어디 가겠소. 돌아보면 만호 그 사람도 허위단심 나라독립을 안아오겠노라 칠성판을 등에 지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아니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시명은 려운형이 그 틀진 거동을 허물어뜨리고 진심으로 속죄를 하자 고맙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였다. 그 어떤 세파속에서도 애국의 지조를 굳건히 지켜오는 불굴의 인간이 한점의 허물을 깨닫자 아이들처럼 얼굴을 붉히며 아무런 미련도 없이 깨끗이 잘라던지는 그 순진한 자세가 정이 푹 들게 하였다.

《그런데 몽양선생님, 내가 정말 선생님께 비판을 할 문제가 하나 있는데…》

《비판을?… 그건?… 하, 어서… 정선생이 주는 말씀이라면 내 달게 받을 각오가 돼있소.》

려운형이 비판이라는 소리에 당황해하다가 어줍게 웃었다.

《선생님, 어째서 오늘처럼 복잡할 때에도 이렇게 홀로 밤길을 다니십니까. 우리가 보낸 동무들을 어데다 두고 이렇게 다니십

니까?》
《엉? 허허… 난 또 무슨 큰일이 생겼는가 했지. 원…》
려운형이 정말 정시명의 거동으로 보아 심각한 문제가 생겼나부다 하고 마음을 조였는데 뜻밖의 이야기가 나오자 숨을 크게 내쉬며 껄껄 웃기부터 하였다.
《싸우는게 두렵고 죽는게 겁나서야 무슨 일을 치겠소. 그러면 이 몽양이 몽양구실 다한거라… 난 지금도 미국놈이 노는 꼴 보기가 하도 쑤악스러워질 때면 산에 들어가 빨찌산의 한 전사로 후련히 불질을 하다가 죽을 생각도 해본다오. 죽을 때면 죽는거지, 허허…》
려운형은 여전히 만사를 각오한듯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방안이 떠나갈듯 장쾌하게 웃는다.
그러나 정시명은 그 웃음이 더욱 불안스러웠다. 벌써 이 사람은 무엇인가 닥쳐올 불행을 예감하고 각오하고있는듯 하다.
정시명은 절절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몽양선생님, 물론 우리는 필요할 때는 목숨을 돌멩이처럼 던지기를 주저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점에서 몽양선생님이야말로 민족의 귀중한 재산이라는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감이 선생님의 어깨에 지워져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중간세력을 하나의 애국대오로 묶어내야 하며 통일대업에 관심이 있는 우익민주주의세력도 애국의 기치아래 단결하여 미국놈들과 반통일적인 매국집단에 맞세워놓아야 합니다.
그 기발을 몽양선생님이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런즉 선생님이 자리를 비우면 우리의 통일대오가 그만큼 약화되고 나라의 재난이 그만큼 커진다는것을 명심해주십시오.》
《허허허… 맡겨주시는 소임은 내 해내리다. 하지만 자꾸 날 그렇게 구름우로 몰아가지 말아주시오. 내 이젠 회갑을 지낸 몸이요. 늙마에 로환에 구차스레 죽느니 투사답게 전쟁터에서 절명하는게 소원인줄 아시오.》
려운형이 여전히 웃으며 장부답게 퉁퉁 대답을 한다.
정시명은 안타까운 눈매로 그를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일신의 위험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없는 이 열혈의 우국지사에게 더없는 믿음과 사랑과 존경이 갔다.

이렇듯 드높은 기개가 있고 나라에 대한 헌신이 있어 그를 사람들이 아끼고 따르는것이 아닐가. 그러나 그럴수록 그를 위해 가는 바람 오는 바람 다 막아주며 그에게로 날아드는 흉탄을 제 몸으로 막아주고싶은것이 정시명의 간절한 심정이였다.

정시명은 그에게로 다가가 손목을 잡았다.

《몽양선생님, 나는 걱정스럽습니다. 부디 신변에 류의하여주십시오. 선생님은 이미 로출된 몸이고 노리는 놈들도 많습니다. 나라위해 더 오래 사셔야 합니다. 민족이 사랑하는 몽양선생의 신상에 불상사라도 생기면 우리 **김일성**장군님께서 애통해하실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제가 전일에 장군님을 뵈왔을 때 선생님의 신변에 대해 무척 걱정하시였습니다. 나는 려선생님이 자기 한몸을 아끼지 않는데 대하여서는 참을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마디마디가 뜨겁고 간곡한 질책에 려운형은 그만 눈시울이 붉어지고 눈굽이 축축히 젖어들었다.

어느해 어느 시절 어느 누가 독립전에 바쳐진 자기 몸을 두고 이렇게도 다심하게 쓰다듬고 념려하였던가.

김일성장군님의 뜻을 받들자고 속삭이던 이야기가 새삼스럽게 가슴을 달군다.

려운형은 젖은 수건으로 눈굽을 닦아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눈귀에는 또 맑은것이 맺혀오른다.

그는 정시명의 따뜻한 손에서 두손을 뽑고 부들부들 떠는 두팔로 그를 꽉 그러안았다.

《정향동지!》

《려운형동지!》

《내 오래오래 살렵니다. 오래 살면서 장군님께 더는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렵니다.》

《민족의 결합을 볼 때까지 우리 절대로 죽지 맙시다.》

《오래오래!…》
두사람은 서로서로 굳게 껴안은채 오래동안 떨어질줄 몰랐다.

그것은 늦은 저녁을 치르고난 뒤였다.
비보를 안고 뛰여온것은 마동열이였다.
《정선생님! 이 일을 어찌합니까!》
마동열이 몸을 떨며 부르짖었다.
《웬일이요? 무슨 일이요?》
정시명은 아직은 영문을 모르면서도 억대우같은 마동열이 몸을 부르르 떠는 절통한 모습에서 가슴이 왈칵 무너져내리는 선뜩한것을 느끼며 다그쳐물었다.
《몽양선생님이… 몽양이 돌아가셨답니다.》
《뭐야?!… 그건 무슨 새빠진 소리! 어… 어제저녁에 헤여지지 않았는가. … 아… 니…》
정시명이 너무 뜻밖의 재변을 당하여 온몸이 굳어져서 말까지 더듬거렸다.
《몽양선생댁에 파견된 동무들이 흥국상회에 와있습니다. 성북동에 가서 재미교포를 만나고 오다가 대낮에 혜화동로타리에서 총탄에 맞았답니다.》
《이 무슨 청천벽력인가. 아— 몽양… 몽양이 잘못되다니… 가보기요. 청년들을 만나야겠소. 어째서 몽양을 쓰러지게 했는가. 마동열! 어느 놈이 감히 그따위짓을 했대? 도대체 그 사람들은 숨이 붙어있으면서 몽양을 떠나게 한단 말이야? 이게 어디 당한 일인가!》
정시명은 너무도 절통하여 두서없이 부르짖고 방을 나섰다.
…
경무대관저에서 려운형을 바래워준 하지는 그가 탄 승용차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즉시 노불을 불러 려운형을 처리하라고 명령하였다.
려운형을 처리할데 대한 비밀지령을 받은 노불이 서울경찰청장 장택상을 불러들인것은 자정이 썩 지나서였다.

장택상은 명령을 받자 겁부터 더럭 났다. 지금까지 려운형에 대한 테로를 여러번 직접 조직하고 지휘하였지만 매번 노불은 절대로 생명을 끊어놓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공산권에로의 지나친 접근을 경고하는 정도의 겁을 주라는것이였다.

그런데 그를 완전히 제거할데 대한 명령에 접하자 그 후과부터 생각되여 속이 후드득해졌다. 려운형이 비록 좌익에 기울어져있는것은 사실이지만 그 인간의 비범성에 대하여서는 좌우익이 다 탄복하고 사랑하고있다.

장택상도 려운형을 오래전부터 잘 알고있었다.

노불은 장택상의 입술이 바르르 떠는것을 보자 노랑눈알을 굴리며 거침없는 조선말로 쏘아붙였다.

《미스터 장, 당신이 뭐 이런 일을 한두번 치렀는가?》

손에 피칠을 한 주제에 이제 선인으로 남아있을것 같으냐 하는 뒤말이 깔려있다.

《글쎄요. …》

장택상이 천추만대에 저주받을 일을 맡아야 하는것이 기가 차서 우물쭈물하였다. 그러나 죄악의 수렁창에 발을 들여민 장택상이 제 마음대로 발을 뽑기는 힘들게 되였다. 발을 뽑는 길은 죄악의 비밀보따리를 둘러메고 황천으로 가는 길이다.

장택상은 랭소를 담고 반들거리는 노불의 노랑눈에서 그것을 느끼며 몸서리를 쳤다.

하는수없이 장택상은 《예.》하고 낯빛이 새까맣게 질려가지고 도망치듯 황황히 자리를 떴다.

려운형에 대한 테로는 이미 여러 깡패집단들에 조직되여있었다. 그들이 필요할 때면 《적당한 범위》에서 려운형의 신변을 위협하고서 비밀보조금을 받고 서약서에 지장을 찍고는 해체되군 하였다.

노불에게서 물러난 장택상은 이번 거사는 악질월남자들로 조직된 《백의사》두목 신동운에게 맡겼다.

신동운의 지휘밑에 암살단놈들은 이날 아침부터 려운형을 검질기게 따라다니기 시작하였다.

려운형은 이날 오전에 이미 정시명에게 말한대로 성북동에 있는

호텔에 가서 재미조선사정협의회 회장과 만나 미국인들속에 조선의 분렬위협성을 널리 선전해줄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점심까지 함께 치르고는 김규식에게 들리려고 인차 호텔을 나섰다.

승용차가 혜화동의 로타리에 이르러 속도를 죽일 때 대기하고있던 한 악당이 정면에서 권총사격을 가하였다. 세발의 총성이 연방 울렸다. 두발의 총탄이 가슴과 어깨를 관통하였다.

승용차는 경성대학병원으로 쏜살같이 달려갔다. 그러나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려운형은 절명하고말았다.

려운형은 소원대로 통일대업을 위한 전장터에서 투사로 쓰러졌다. …

근로인민당청사가 있는 광화문 앞광장으로부터 영결식장인 서울운동장으로 뻗어있는 큰 도로가 소복단장을 한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있었다.

려운형의 장례는 국민장으로 치러지고있었다. 서울시민들은 이날 슬픔에 잠겨 민족이 낳은 자랑스러운 영웅과 영결하였다.

앞에는 상복을 입은 가족친척들과 호상객들이 고개를 떨구고 무겁게 걸음을 옮기고있었다. 가족들의 곁에는 김명호와 근로인민당의 지도인물들인 백남운, 리영이 나란히 걸어갔다. 그뒤로 김구, 김규식의 얼굴도 보이고 홍명희, 리극로의 눈물어린 모습도 보였다.

베감투를 쓴 리승만도 묵묵히 걸어가고있다.

하지와 브라운의 상통도 보였다.

피끗 스쳐보면 모두가 비애에 젖어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그 슬픈 표정에 가리워있는 속통들은 한결같지 않다.

백남운, 리영은 지금 슬픔속에서도 고인의 뜻을 어떻게 받들어나가겠는가 하는 근심이 산같다. 려운형이 쓰러지자 벌써 당내부가 소란해지기 시작했다. 3거두지도체계를 없애고 당수제를 내오자거니 중앙기구를 재조직하자거니 《좌우합작》에 대한 전당적인 토론회를 조직하여 당론을 재확정하자거니 별별소리가 다 들린다.

이게 려운형의 사망으로 초래된 바람세다. 그 사람이 앉아있다면 어림도 없다. 백남운, 리영은 이런 생각만 해도 려운형의 급사가 애달프고 걸음이 무겁기만 하다.

조객들속에서 생각이 제일 복잡한 사람은 김규식이다.

김규식은 어느날 호상을 와서 밤샘을 하면서 김명호로부터 전날에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전해들었다. 자기가 하지에게 려운형의 탈퇴선언을 통보해준 후 려운형이 경무대에 불리워갔다는 소리도 들었다. 하지가 따지고들고 위협도 했다 한다.

려운형의 피살은 분명 하지의 작간이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충동질한것이 내가 아닌가. 하지에게 당초에 그 사람을 되게 다불려달라고 부탁했는데 저 오랑캐놈이 이토록 엄청난짓을 벌려놓다니… 아, 그러니 내가 저 몽양을 비명에 넘어뜨리지 않았느냐. 그는 만호를 찾아가 사죄를 하겠다며 그 사람은 자기가 말겠다고, 근본이야 어데 가겠느냐고 했다는 말도 전해들었다.

지금 려운형이 자기 손목을 꼭 잡고 그 얘기를 유언으로 넘겨주는것만 같다.

(에잇, 몽양, 이렇게 가다니. … 내 이제 저승에 간들 자넬 무슨 낯짝에 만난단 말이요. 이 만혼 천벌받아 급살할 놈이야. 아, 몽양!…)

지금 김규식은 반넋이 나가서 닭똥같은 눈물을 떨구며 열번, 스무번 사죄를 곱씹고있었다. 그저 이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을 하고싶다.

리승만의 속통은 가볍기 그지없다. 일찌기 상하이에서부터 죽기내기로 맞서던 려운형이 쓰러진게 꼭 쏘던 어금이뽑은것처럼 시원하다. 원래 이 행렬에 끼울 생각조차 없었는데 비서실장 윤치영이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꼭 나가야 한다고 건의해서 마지못해 나왔다. 그는 입을 쭉 내밀고 눈두덩이도 무거운듯 반쯤 내리감고 걷고있었는데 더위때문에 당장 숨이 막힐것 같다. 게다가 속은 후련한데 상통에 부러 지어내는 구슬픈 낯색으로 효창공원까지 이어진 10리구간을 내처 걷자니 그것 역시 베찬 일이다. 이따금 고개를 푹

떨구고 안면근육을 통쾌한 심정으로 활짝 펴보고는 다시 슬픔을 강짜로 지으며 얼굴을 들군 한다. 생각같아서는 려운형이 누워있는 상여를 딛고서서 한바탕 만세라도 부르고싶다.

하지는 하지대로 생각이 복잡하다.

그놈은 살인사건의 장본인으로서 그 수습을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생각에 골몰하고있었다.

서울장안은 물론 남조선전역이 려운형의 살인사건을 놓고 웅씰웅씰거리고있다. 여기저기서 한시바삐 사건진상을 공개하라는 소리가 비발치고있다.

미군병영들과 경찰서들이 청년들의 돌세례를 받는가 하면 야산대들은 《려운형추모주간》을 설정하고 복수전을 벌리고있다.

급해맞아 우선 살인자인 리섭동을 잡아들여 북에서 려운형을 암살할데 대한 임무를 받고 내려온 한지근이라고 발표해버리게 했으나 그게 통할리 만무하다.

(어떻게 해야 미국에 튀여오는 불티를 막을것인가?)

하지는 가뜩이나 더운날에 이 생각때문에 더욱 비지땀을 짜며 뚜벅뚜벅 걸음을 옮긴다.

하지만 10리 도로를 메운 수십만 장례행렬은 이 모든 눈물과 분노와 고민과 꿍꿍이를 걷어안은채 력사에 굵직한 자국을 찍고 장렬하게 쓰러진 이 나라의 영웅호걸을 앞세우고 서서히 흘러가고있다.

수많은 만장과 조기가 행렬우에 수풀처럼 솟아있다.

《몽양, 몽양, 우리의 몽양!》

《민족의 영웅 몽양선생님, 우릴 버리고 어데로 가시옵니까?》

《몽양! 그대는 삼천리강토와 더불어 영원하리.》

《몽양선생님, 민족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만장에 씌여있는 글발마다에 겨레의 한과 슬픔이 피방울처럼 맺혀 보는이들의 애간장을 태운다.

정시명은 이 시각 마동열과 함께 효창공원의 뒤산에 올라 도로를 꽉 메운 인파를 두툼한 입술을 꽉 물고 내려다보고있었다.

벌써 며칠동안 정시명은 그의 령구옆에 나선 심정으로 마음속에

려운형과 나란히 하고 울고웃으며 낮과 밤을 이어왔다. 손을 맞잡고 오래오래 살면서 나라에 충신으로 살자고 언약을 다졌던 밤이 바로 며칠전이다.

《정향동지!》하고 얼싸안고 더운숨을 얼굴가득히 끼얹어주던 그 정든 얼굴이 선하다. 그밤에 우리가 동지로, 벗으로 사귀지 않았던가. 삶의 희열을 함뿍 머금은 불덩이같은 눈이 지금도 가까이에서 번쩍거리는것 같다. 거짓과 허위를 모르는 그 흑진주같은 눈을 보면서 얼마나 커다란 환희속에 황홀한 꿈을 꾸었던가.

그것은 돌아서면 거품처럼 이내 잦아드는 환희가 아니요, 깨여나면 쉽사리 잊혀지는 꿈이 아니였다. 이 나라의 분렬을 막고 겨레의 머리우에 태양의 광휘로운 빛을 안아올 꿈이고 희망이고 환희였다. 그것은 피의 언덕에 함께 나설 꿈이였고 생사를 함께 하고 삶의 노래를 함께 부를 열렬한 사랑의 약속이였다.

그런데 그 대망의 꿈이 며칠도 지탱하지 못하고 이렇게도 무참히 짓밟히다니.

여러번 어울리지는 않았지만 만나볼수록 정이 가고 믿음이 가고 기대가 커지던 거인이 속세를 떠나 저렇게 고별의 슬픔에 묻혀 하늘나라에 가까이 가는게 그냥 믿어지지 않는다. 그가 들려주던 이야기들이 어느 마디도 잊혀지지 않고 그냥 고막을 흔들고 심장을 울린다. 마디마디가 나라와 겨레에 대한 헌신과 충정이 쇠물처럼 이글거리는 금언들이다. 자기의 인생에 대한 긍지와 앞날에 대한 자신감에 넘쳐있으면서도 사리사욕이란 한가닥도 보이지 않던 그 흰눈같은 인간이 또 있으랴.

번개를 안고 우뢰처럼 살아온 인생이다. 뒤를 돌아보며 울지 않고 앞을 내다보며 웃으며 살아온 영웅호걸이다. 불의앞에서는 천둥번개처럼 무섭게 노호하고 벗들앞에서는 자기 속마음을 비단결같이 곱게 해서 깡그리 넘겨주는 아름다운 인간이다. 이 남녘에 저처럼 강직하고 도량이 크고 아름다운 넋이 다시 나타나줄가. 저렇듯 나라앞에서 사심이 없이 일로 매진하는 참된 성인이 다시 이 남녘민중의 머리우에 혜성처럼 나타나줄가.

아, 어찌하여 이 나라는 저같이 충직하고 자랑스러운 아들을 지

켜내지 못했느냐.

민족이 당한 비극적수난이 다시금 심장을 마구 란도질하여 갈기갈기 찢어내는것 같다.

(내가 죄를 졌다!)

쓰라린 상실과 슬픔속에서 정시명은 지금 이렇게 속깊이 울부짖으며 터져나오는 오열을 참아내느라고 주먹으로 입을 꽉 누른다.

그의 신변에 닥쳐든 위험을 벌써 나는 오래전부터 알지 않았던가.

신변에 류의하라는 말을 듣고도 호걸장부답게 통쾌히 웃음을 터뜨리던 모습이 그냥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내가 그 웃음을 두고 제할바를 다해야 될것이 아니였더냐. 하지놈의 그 상서롭지 않은 위협이 가져올 이 엄청난 비극을 미리 막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될것이 아니였느냐.

몽양이 자리를 비우면 통일은 그만큼 멀어진다고 이야기해주면서도 내 속수무책이였으니 나라앞에서 나야말로 죄인이로구나. 저런 옥같은 인간을 끝내 지켜내지 못하고 이 정시명이 어찌하여 서울장안에 버티고있는것이냐.)

정시명은 려운형의 뜻밖의 죽음이 이 나라의 통일대업을 한걸음 크게 머뭇거리게 한것처럼 생각되였다. 그럴수록 살을 저며내는듯한 아픔을 금할수 없었다.

당장 펼쳐놓은 정치전이 좌절의 위험을 받게 되였다. 려운형의 패기와 담력과 실력을 누가 대신해주며 근로인민당을 이끌고 애국세력을 묶어세울만한 기둥감을 어디서 찾아낸단 말인가.

참으로 통일이란 저처럼 나라위해 살아가는 인간들이 많아질 때 이루어질것이 아니냐. 그래서 미국놈들이 민족의 머리우에 우뚝 솟아오른 저런 거목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악을 쓰고 덤비는것이 아닌가.

어제저녁 정시명은 평양방송을 통하여 **김일성**장군님께서 려운형의 서거에 즈음하여 손수 추도문을 발표하시고 고인의 유가족들에게 조의를 보내시였다는 소식을 들으며 다시한번 가슴을 두드렸다.

겨레가 당하는 슬픔을 다 그러안고계시는 그이께서 려운형의 비보에 접하시고 얼마나 절통해하시겠는가.

려운형에 대하여 그리도 따뜻한 추억을 들려주시던 그이의 자애에 겨운 모습이 삼삼히 떠올라 정시명은 더욱 가슴이 타들고 쓰려왔다.

그는 흙벽에 부딪치며 마구 태질하는 통곡을 누르고 입술을 아이들처럼 푸들푸들 떨며 입속으로 나직이 아뢰였다.

(장군님, 어쩌면 좋습니까.

제가 뜻을 받들지 못하여 장군님께서 총애하시는 통일대업의 귀중한 거인을 쓰러지게 했습니다.)

…

장의식이 있은 후 음모자들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는 날을 따라 거세여졌다.

이렇게 되자 장택상은 리섭동을 미국에 보낸다는 담보를 해주고 재판정에 나서게 했다.

노불의 각본에 따라 부랴부랴 《재판》이 열렸다.

살인자로 재판정에 나선 리섭동은 자기가 20일전에 월남하여 《백의사》에 가담한 올해 17살나는 한지근이라고 그냥 뻗치면서 북의 지령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앞뒤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짓말을 수없이 늘어놓아 사회계의 집중포화를 받게 되였다.

놈들은 리섭동을 미성년범죄자로 날조하여 무기징역형을 구형하고 소년기결수감방에 처넣음으로써 이 사건을 흑막속에 덮어버렸다.

제3장
거목의 뿌리

1

려운형의 피살은 정시명조직의 사업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근로인민당내부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려운형의 눈치를 보면서 언동을 삼가해온자들이 령도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여 날뛰기 시작하였다. 다시 파벌들이 움직이고 우경에로의 정책적선회를 요구하는 잡음이 울려나왔다.

정시명은 백남운과 리영을 김명호를 중심으로 한 조직에 참가시켜 당내 령도적지위를 노리는 우익적인물들을 단호하게 당밖으로 쫓아내는 사업부터 벌려나가게 하였다.

김명호는 정시명에게 당증과장으로 있는 최백근이 대가 바르고 리론도 있으며 수완도 있는 사람이므로 그를 조장으로 하는 새로운 선을 만들어 근로인민당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하는 사업을 벌리겠다고 제기하였다.

정시명이 종로책방에서 그를 만나보았다. 삼십안팎의 젊은 일군이였는데 마음에 들었다. 근로인민당안의 실태분석과 당의 전망을 두고 장시간 자기 견해를 이야기했는데 분석이 예리하고 대책이 혁명적이였다.

최백근은 이 시기부터 정시명의 일상적인 지시를 받으면서 당증과장의 직무를 리용하여 근로인민당간부들의 개별적동향을 상세히 장악하고 부정적요소에 대하여서는 시기적절한 당적대책을 세워나갔다. 그는 당원들의 사상동향에 대한 장악과 검열기능까지 맡아보는 당증과를 정시명의 사람들로 꾸리고 그들과 함께 당안의 좌우경적경향과 분렬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의 앞장에 서서 용감하게 싸웠다.

근로인민당이 인입되자 그를 발판으로 중간, 우익정당들에 대한 포섭사업이 줄기차게 진척되였다. 우익과 중간의 영향하에 있는 성원들이 이에 합세하였다.

이리하여 남조선정계의 우익과 중간세력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정당, 단체들이 애국의 대오에 서게 되였다.

정시명은 이들을 《정당협의회》라는 하나의 조직체로 결속시키고 이들의 영향력과 사회적지위를 높여나갔다.

《정당협의회》가 발족되자 첫 공동투쟁목표로 조선문제에 관한 쏘미공동위원회 재개를 내세웠다.

정시명은 미국의 본성이 달라지지 않는 한 쏘미공동위원회 재개가 현시점에서 가능성이 없으며 설사 재개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고 인정하고있었다.

그러나 이 목표는 당시 남조선의 진보적인 사회계의 한결같은 요구를 반영한것이였으며 극우익과 미국놈들의 탄압도 피할수 있는것이였다. 지나치게 앞서나간 구호는 이발도 나지 않은 아이에게 콩밥을 먹으라고 하는것과 같다. 모두가 접수할수 있는것으로부터 행동의 보조를 같이해나가며 점차적으로 투쟁의 강도와 요구를 높이는것이야말로 통일전선운동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본원칙이다.

《정당협의회》가 세상앞에 첫 선을 보이자 사회계의 각별한 관심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정시명은 《정당협의회》가 단합된 세력권을 유지강화하는데 주목을 돌리면서 한편으로는 이미 계획하였던 전망방향에 따라 김구와 김규식의 세력들을 애국의 길에 돌려세우기 위한 사업에 달라붙었다.

김구의 《한독당》에서 조소앙, 엄항섭, 권태석이 떨어져나왔다. 김규식의 《민족자주련맹》에 속해있던 홍명희의 독립당, 리극로의 건민회 등 8개의 정당, 단체도 《정당협의회》로 발길을 돌렸다.

홍명희나 리극로는 정시명이 제기하는 애국애족의 발기와 방략들을 쌍수를 들고 환영하였다.

김구, 김규식의 세력은 측근세력들까지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하자 불과 몇달사이에 일거에 약화되였다.

이렇게 되자 우익민족주의거두들은 자기들이 걷고있는 외통길을

검토해보고 심각한 동요를 일으키게 되였다.
정시명은 그들의 동향에 맞게 안지생에게 더욱 강한 공세를 들이대도록 하였다.
마침내 그들의 가슴속에 싸늘한 재만 남았던 민족적량심과 정의와 진리를 모색하여오던 의로운 넋이 다시 소생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이 시기 미제와 리승만괴뢰도당의 《단선단정》음모가 로골화되자 측근인물들의 말이 옳다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특히 려운형의 피살을 계기로 심각한 번민에 휩싸여있던 김규식은 《정당협의회》가 려운형의 유지를 받들고 나온것이라는 김명호의 말을 듣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중간세력을 배척하던 종래의 자세를 버리고 그들과 련합하여 자기 지반을 강화하는 길로 전환하였다.
어느날 안지생이 정시명을 찾아 흥국상회에 나타났다.
사전통보도 없이 나타난 안지생에게 정시명이 엄한 눈길을 해보이자 안지생은 여전히 싱긋이 웃으며 한통의 보고자료를 내밀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씌여있었다.

김구와의 담화
《자네 〈정당협의회〉라는 곳에 한번 찾아가보게.》
《거긴 왜 가랍니까?》
《우리도 그쪽에 발을 내밀어야 되지 않을가.》
《예, 저도 그 생각이였습니다. 좀 늦은감은 있지만.》
《걸음이 늦었다는것을 알면 빨리 걸으면 되지. 자네 형님을 앞세우고가서 김구가 〈정당협의회〉의 취지를 접수한다고 전해주게.》…

정시명은 자료에서 눈길을 떼자 안지생의 두손을 덥석 잡았다.
《지생이, 다람이가 끝내 호랑이를 움직여냈구만, 엉!》

정세가 미군철병문제를 가지고 또 한바퀴 급회전하자 하지는 브라운을 내세워 갑자기 남조선의 정당대표들을 군정청회의실에

불러들였다. 북반부에 들어갔다가 받은 충격을 가지고 좀 다불러놓으라는것이였다.

사실 브라운은 평양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하여도 리승만이나 《한민당》계렬의 상층인물들의 말만 듣고 전혀 비현실적인 환상을 가지고있었다. 그런데 평양에 체류하는 며칠간 브라운은 평양의 모습에서 커다란 자극을 받았다. 특히 북조선민주당 당수이던 조만식과의 담화가 충격적이였다. 조만식은 북조선을 과소평가하는 브라운에 대하여 《여보시오, 수석대표. 당신들은 눈을 크게 떠야겠소. 남북은 벌써 하늘땅차이로 벌어져가고있소.》하고 면박을 가했다.

제놈들이 내세우는 정권을 지지할것으로 믿고있었던 브라운은 정말 눈을 크게 떴다. 브라운은 이에 대하여 얼마전에 그대로 하지에게 보고하였다.

하지도 브라운의 솔직한 귀환보고를 듣고 크게 자극을 받았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브라운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를 연탁에 내세울 생각은 못하였다. 며칠전에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자기에게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서울의 정치인들에게 들려주면 효험이 클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다시 브라운을 불러들였는데 그는 쾌히 응해나섰다.

브라운이 정치인들과의 회합에서 공세를 벌릴것이라는 자료를 사전에 입수한 정시명은 이 모임에 사리에 밝고 언변이 좋은 김명호를 참가시켜 브라운과의 말싸움을 지휘하도록 하였다.

김명호는 곧 필요한 성원들을 선발하였다.

회합에는 하지까지 참가하였다.

회합의 제목은 브라운의 《평양방문보고회》라고 달았다. 제목이 그럴듯해서 정계인물들은 련락을 받자 너나없이 호기심을 가지고 모여들었다.

브라운은 연탁에 나서자 회의실을 빼곡이 채운 청중을 한동안 곱지 않은 눈길로 굽어보다가 첫마디부터 짜증투로 시작했다.

《여러분, 난 좀 불쾌한 얘길 하고싶어서 이자리에 나섰습니다.》

하지가 그렇게 할걸 요구했던것이다. 단단히 후려갈기라는 지시를 받은 브라운이였다.

《나는 지금까지 당신들에게 속았습니다. 북조선현실은 당신네가 말하는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당신들은 다 바보요. 북조선민주당 조만식은 현실을 똑바로 보라고 말했소. 그는 당신들에게 전하라면서 북조선국민은 **김일성**장군두리에 한사람같이 뭉쳐있다, 그런데 당신들은 시간이 있는껏 이마받이만 하고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정말 무엇때문에 아직까지도 서로 물고뜯으며 옥신각신하는가. 게다가 미군철병까지 제기하고있는데 당신들이 지금 북조선이 어떻게 돼가고있는지 알기나 하고 하는 수작인가. 이제라도 38°선을 열어놓으면 당신들은 하루새에 공산권에 들어가고말것이요.》

유화적인 군사외교관으로 소문났던 브라운이 례의를 줴버리고 공개장소에서 현지 정계거물들을 몰밀어 바보라고 고아대는것은 비정상이였다.

브라운은 30분간이나 줄소나기처럼 욕설을 퍼붓고나서야 자기의 무례함이 생각난듯 《나의 이야기를 인내성있게 들어준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량해를 비는바입니다.》 하고 김빠진 어조로 사죄하고 자리에 앉았다.

장내가 잠시 물뿌린듯 잠잠해졌다.

그때 김명호의 옆에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났다.

《각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소장각하도 철병문제에 대해 말했는데 미국측은 쏘미량군철수와 관련하여 어떤 립장을 취하려고 합니까?》

《당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브라운이 질문자를 쏘아보다가 따지듯이 되물었다.

《나는 미국측의 립장을 명백히 알아본 다음 립장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자는 배심있게 받아넘겼다.

《좋습니다. 나는 이 모임을 비공개로 한다는 사전량해를 받고 당신들과 마주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브라운은 자기 말을 확인하듯 자기를 수행한 미군정청의 공보관을 돌아보았다.

공보관이 브라운의 눈길을 받자 자리에서 일어나 《소장각하, 모임에서 협의된 내용을 보도하지 않기로 결정되였습니다.》하고 말했다.

그러자 브라운은 단호한 말투로 계속하였다.

《우리는 한걸음도 양보하지 않을테요. 미군이 만일 현시점에서 철병하면 당신네 나라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조선은 쏘련의 완전한 위성국이 되고말것이요. 당신들모두는 공산당의 머슴살이를 하게 될것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서라도 될수록 빨리 우리의 벗들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를 만들어내야 하오.》

브라운은 장내가 웅성거리기 시작하자 《이건 나의 사적견해요.》하고 급급히 부언하였다. 서울에 오자마자 소동을 벌려놓은이래 브라운은 언제나 정치인들앞에서 조심스럽게 자기의 보신책부터 세워왔다.

그러나 여전히 회의장 여기저기서 수군수군거리는 소리들이 그치지 않았다. 여러명의 박수소리도 울렸는데 리승만의 주위에 앉아있는자들이 기승을 부리는것이였다.

김명호는 얼른 쪽지에 글을 써서 앞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김명호의 쪽지를 받아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브라운에게 정면으로 도전하였다.

《당신의 견해에 나는 찬동할수 없소. 우리 조선이 왜 쏘련의 위성국으로 된단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게는 되지 않을거요. 수석대표각하, 납득이 될만한 근거를 대시오.》

《첫째, 당신들의 반공세력이 북조선의 공산세력을 이겨낼수 없소.》

《그건 두고봐야 할 일이요.》

《아니, 명백하오. 당신들은 무익한 정치싸움에 기운을 다 뽑아버렸소.》

《설사 공산세력이 이긴다 해도 그건 우리 집안일이요. 그렇다고 쏘련의 위성국으로 될리 만무하오.》

《당신은 어디 소속이요?》

《〈정당협의회〉소속이요.》

《그래 당신은 공산권에 흡수되는것을 바라는가?》

《다시 언명하는바이요. 그건 우리 집안문제요. 국민이 그걸 바란다면 하느님의 계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것이 우리의 량심이요. 우리는 국민이 희망하는 정치를 펴나가야 할줄로 믿소.》

《당신은 머저리, 정치적허재비요!》

브라운이 론쟁에서 궁지에 빠져 신사의 리성을 잃어버리고 악을 쓰자 여기저기서 조소와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회합은 그로써 끝났다. 브라운을 내세워 우익인물들을 각성시켜 초당파적인 련합을 시도했던 하지는 또다시 패배하였다.

하지가 신경질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자 브라운도 황황히 따라나섰다.

이날 김구는 그들의 론쟁에 귀를 기울이면서 미국놈의 진의도에 대하여 다시한번 생각을 굴려보기 시작했다.

미국놈들이 남조선을 기어이 타고앉으려고 시도하고있는것이 명백하다. 기어이 신탁통치를 하자는건가?…

그리고 브라운이 슬쩍 던진 말에서 리승만을 축으로 하여 우익을 묶어 《단독정부》를 시급히 조작하려 한다는것을 재확인하였다.

김구는 《정당협의회》의 정당한 목소리에서 뜨거운 공감을 받아안았다. 미국놈들과 도고히 맞서는 그 신념있는 목소리들이 후날에도 그의 마음속에 긴 여운을 남기였다. 회의에 참가한 김규식도 한마디 끼여들지는 않고 입만 쓰겁게 다시였다.

소회의실에서 나온 브라운은 이마에 흥건히 내밴 땀방울을 손수건으로 꾹꾹 문다지며 하지를 따라갔다. 또다시 나서지 말아야 할 자리에 나선것이 여간 후회스럽지 않았다.

둘은 하지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한동안 담배만 빨았다. 방안에는 연덩이처럼 무거운 침묵이 드리웠다. 한참후에야 브라운이 방

안에 서린 공기가 답답한듯 창문을 열어놓고 달아오른 몸을 식히다가 고개를 돌렸다.

《방향을 돌리는것이 어떻습니까?》

《?…》

《우리는 지금껏 남조선의 정치정세를 안정시킨 다음 행정부를 조직하는 작업에 착수하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전술적대책에서 대담하게 탈퇴하여 반대로 생각해봅시다. 정부를 조직하고 그에 기초하여 정세를 안정시키는 방향에서 말입니다.》

《말하자면…》

《선조각후 안정이라고도 이름지을수 있지요. 제 생각같아서는 정부조작이 늦어질수록 정치계의 파국상은 더 깊어만질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중심으로?》 하지가 물었다.

브라운은 그 물음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입안에서는 분명한 대답이 뱅뱅 돌아갔으나 하지의 심리상태에 대한 파악이 서지 않아 쉽게 대답이 나가지 않았다. 그는 지금 리승만을 생각하고있었다. 그가 리승만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된것은 방금전의 그 소회의실에서였다.

브라운은 연탁에서 미련을 부리는척 하면서도 청중의 심리적대응을 예리하게 관찰하였다. 여전히 자기의 주장에 열광적으로 호응을 하고있는것은 리승만이 앉아있는 우측 앞부분의 좌석에서였다. 그는 자기보다 더 미국적인 벗을 찾아냈느냐고 야유하던 리승만의 목소리가 새로운 의미에서 새겨졌다.

아무리 둘러봐야 남조선의 정치세력대표들이 거의다 모여든 회의실에서 오직 그들만이 박수를 치고 환호도 올리는것이다. 물론 그들은 소수이다.

거의 모든 세력이 자기에게 로골적인 적의와 조소를 보내고있었다. 그것은 자기의 어깨너머로 미국에 보내는 도전장이기도 하다.

그러니 미국이 이제 와서 어떤 결심을 내려야 하겠는가는 뻔

하다. 미국이 타고앉은 지역에서 내세워야 할 인물의 첫째가는 표징은 그가 주구가 되여야 한다는것이다. 똑똑한 정치가가 아니라 주구가 돼야 한다.

(그렇다, 미국무성의 의도가 십분 타당하다.)

브라운은 이제야 리해가 갔다.

(그런데 하지는 아직까지도 리승만을 경원시한다. 군인다운 단순성으로부터 달리는 생각하지 못할것이다.) 하고 브라운은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하지도 리승만을 생각하고있었다. 그도 역시 방금 회의실에서 자기의 눈길을 찾으면서 브라운의 말에 두손바닥을 아프도록 두드려대는 리승만을 띄여보았던것이다.

드디여 하지는 브라운의 제안을 선선히 찬동해나섰다.

《좋소! 당신의 이름으로 마샬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시오. 정부를 구성하는것이 우선 필요한바 그를 위한 조건마련을 조속히 해줄것. 그리고 정부의 중심에 리승만을 앉히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것.》

브라운은 하지의 생각이 자기와 일치한것이 놀랍고 만족스러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답하였다.

《알았습니다!》

브라운은 자기도 어쩔수없이 다시 하지의 군정에 말려들었다.

그날중으로 브라운이 작성한 문건 《북조선방문과 관련한 대책적인 문제》가 마샬에게 날아갔다.

거기에는 이렇게 씌여있었다.

《북조선은 지금 정치, 경제적으로 대단히 안정되여있다.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가 이 나라의 중심에 확고히 서있으며 그 수위에 항일전의 명장 **김일성**장군이 서있다. 그 두리에 모든 정치세력이 뭉쳐있고 그 정치세력들이 국민적인 호응밑에 사회의 변혁을 착실하게 주도하고있다.

나는 남조선에서도 리승만을 중심으로 한 정부를 시급히 구성함으로써 권력쟁탈을 둘러싼 정국의 혼란을 될수록 빨리 청산하고 북의 공산세력과의 력학적수평관계를 실현해야 한다고 인정한다.

이를 위한 필요한 실무적환경을 빠른 시일안으로 마련해야 할 결단이 필요하다. …》

브라운의 보고를 받은 마샬은 곧 서울에서 하지에게 쫓겨와 갓 발족된 미중앙정보국에 가서 돌아치는 구펠로를 불렀다.

구펠로는 브라운의 보고서를 여러번 곱씹어읽더니 희색이 만면해서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

《각하,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는 지금 서울에서 미군철병설이 돌아가고있는겁니다.

미군이 철거되면 리승만은 권력을 장악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서울에서 리승만정권이 발족되여 지반을 닦을 때까지 미군철병설을 잠재우는것이 선결과제라고 보아집니다.》

《좋소, 당신이 하지에게 내릴 지시문을 작성해주시오.》

마샬은 구펠로가 리승만의 철저한 후원자이면서도 국무성의 어느 관계인물들보다 서울정가에 밝은 인물이라고 인정하여왔다. 그래서 금후 남조선의 정치발전에 하나의 기폭제가 될 중요지시문을 선뜻 맡겨버렸다.

며칠후 구펠로가 작성한 지시문이 마샬의 책상우에 놓여있었다.

마샬은 관계자들을 불러 토론을 한 후 트루맨에게 제출하였다.

지시문은 마샬의 이름으로 하지에게 떨어졌다.

《당신들의 제안대로 리승만을 축으로 하는 정부구성에 곧 착수할것. 동시에 서울정계에서 미군철병설을 해소시키는데 주목을 돌릴것.》

2

리승만이 인차 불리워왔다.

하지의 사무실문턱을 넘어서던 리승만은 방안에서 마주쳐오는 하지와 브라운의 랭랭한 눈길을 받자 저도모르게 몸가짐이 꿋꿋해졌다.

두사람 다 자기와는 원이 맺혀진 사람들이다. 한사람은 빨갱이라고 고자질한 사람이고 또 한사람은 죽여버리라고 자객을 보낸 사람이다.

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채 문가에 어줍은 자세로 서있는 리승만에게 턱으로 창문밑에 있는 쏘파에 가서 앉으라고 가리켰다.

윤치영이 리승만을 부축하여 따라서자 하지는 《당신은 나가보시오.》하고 밖으로 내쫓았다.

하지는 얼음우에 자빠진 소처럼 멀뚱멀뚱해진 눈을 어데 건사할지 몰라 허둥거리는 리승만을 점도록 지켜보았다.

(이제 저 두상이 어떻게 하겠는가?)

미구에 이 나라의 권력을 틀어쥘 거물급정치인의 운명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마음 내키는대로 주무르는것이 더없이 재미있기도 하고 희한하기도 하다.

(손오공이 10만리를 달아나도 부처님의 손바닥에 있은걸 두상도 알테지.)

리승만은 리승만대로 어리숙하게 방안을 돌아보는척 하면서도 이제 또 하지가 무슨 날벼락을 내리겠나 하고 은근히 마음의 끈을 조이고있었다.

언제나 리승만은 저 하지가 부른다면 그 무슨 도살장초대를 받는것 같아 다리가 휘청거리군 한다. 그 세모난 눈이 한번 쩰 아래우를 훑고나면 10년 감수한다고 돌아서서는 개욕을 퍼부어왔다.

비서실장까지 내쫓은걸 보니 또 무슨 경을 단단히 칠 잡도리다.

《브라운소장!》

드디여 하지가 쇠소리나는 탁성으로 불렀다.

《리선생에게 국무성의 지시문을 보여드리시오.》

브라운이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한장의 작은 전보문을 들고 리승만에게로 다가갔다.

리승만이 사형판결문이나 받는듯이 부들부들 떠는 손으로 그것을 조심히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양복웃주머니에서 돋보기를 꺼내 코등에 걸고 입술을 움씰거리며 한자한자 읽어내려갔다.

다 읽자 그는 갑자기 둥그래진 눈을 브라운에게 보냈다.
브라운은 부러 무표정한 얼굴로 늙은 주구의 눈길을 받고는 전보문내용을 확인해주듯 고개를 주억거리였다.
리승만은 다시 종이장에 눈길을 굴리기 시작했다. 눈앞에서 전보문의 글자들이 마치도 춤을 추는것 같았다. 어쩐지 어질어질해오고 현훈증이라도 생긴듯 눈앞이 뽀얗다.
드디여 바라던 꿈이 손에 잡힐듯 성큼 다가온것이다. 그렇게 허구한 세월 속을 썩이고 기다려오던 대망의 꿈이 드디여 이 작은 종이장에 눈부신 무지개로 비껴든것이다.
《음!》
늙은 가슴에 꽉 뭉쳐 압착되여있던 체기가 후련히 씻겨내렸다.
리승만은 하지에게로 천천히 돌아섰다.
마주오는 눈빛이 부드럽게 빛난다. 아, 저 사람의 눈이 저렇게도 살뜰했던가. 리승만은 저으기 놀랐다.
리승만은 일흔넷의 늙은이로서 어디에 그런 힘과 패기가 있었더냐싶게 벌떡 일어나 하지앞으로 빠른 걸음으로 다가섰다.
로안에 팥죽같은것이 질쩍거리는것을 보는 순간 하지는 이 두상이 갑자기 실성한게 아닌가싶어 뒤로 몇걸음 물러섰다.
리승만은 또 쫓아가더니 갑자기 주단우에 그 둔한 몸을 넙적 엎드린다. 그리고는 목이 멘듯 꺼이꺼이 흐느끼다가 주절거리였다.
《중장, 내 절을 받아주소이다.》
너무도 돌발적인 늙다리의 행동거지에 떨떨해졌던 하지도 브라운도 그제야 리승만의 추한 꼴에 짐작이 갔다. 주단에 늘어붙어있는 꼴이 꼭 옴두꺼비 같다.
하지는 순간 맥아더의 소리가 귀전에 찡 울렸다.
《바지저고리!…》
브라운의 눈에는 주단우에 이마를 붙이고 아예 굳어져버린듯 움직이지 않는 리승만이 창경원의 동물원에 있는 하마처럼 보였다.
그게 희한해서 브라운은 《흐아—》 하고 폭소를 터뜨렸다.
하지도 끝내 터져오르는 웃음주머니를 탁 풀어놓고 실컷 웃어댔다.

《하하하!》

그러나 하지의 웃음은 하루도 넘기지 못하고 미칠듯한 분노로 바뀌였다.

이 일을 턱에 걸고 리승만이 또다시 벌집을 쑤셔놓아 서울장안이 법석 끓기 시작했던것이다.

일은 리승만이 영악동의 제 소굴로 기고만장해서 들어서기 바쁘게 터졌다.

리승만은 차에서 내리자바람으로 동행하여온 윤치영에게 당장 《독촉중앙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하라고 호통을 쳤다. 비서실이 리승만의 벼락지시를 받아들고 끓었다.

이날 저녁 리승만의 집에 《독촉》의 거물들이 다 모여들었다.

회의에서 리승만은 극비모임이라는것을 먼저 선포하고 이렇게 떠들었다.

《에, 미국은 나, 리승만을 드디여 선택하였소. 내 오늘 하지사령관의 집무실에서 미국무상 마샬의 지시문을 보고왔소.

정권인수는 눈앞에 박두했소. 미국은 마침내 우리에게 정권을 넘겨줄것을 하지중장에게 위임했단 말이요.

곧 민족대회를 소집하여 정부를 조직합시다. 북쪽에서 어떤 립장을 보이든지 이제는 눈치를 볼게 없소. 김구도 돌아볼게 없소. 그네들의 협력이 없이도 우린 능히 정부를 만들어낼수 있소.

이것은 백악관과 미국무성의 최종결심이요.》

하지만 극비를 전제로 했던 그의 발언은 다음날아침으로 서울의 일간신문들 1면상단에 주먹같은 제목을 걸고 실렸다.

실은 리승만비서실의 신정섭이 즉시로 김명호에게 보고하고 김명호가 권혜숙에게 수십장 복사시켜 서울보도계와 정계중진인물들에게 날렸던것이다.

또다시 리승만이 쑤셔놓은 벌집을 받아안은 하지는 성이 꼭뒤까지 치받쳐있었다.

그는 애매한 노불부터 불러다놓고 한바탕 줄소나기같은 욕질을 퍼부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함을 질렀다.

《망둥이새끼같은 두상, 저따위를 정상에 내세우다니. 북망산에 가서 묘지기나 할 늙다리가 정치가 뭐 말라빠진거야.》

하지의 부관실로는 정계의 여러 인물들의 분노가 서린 항의전화와 동향자료가 들이닥쳤다.

김구의 동향자료도 들어왔는데 기가 막혔다.

김구는 이 자료에 접하자 울안에 갇힌 표범처럼 으르렁거리다가 《안돼! 안될걸. 하지가 이렇게 표리부동한줄을 내 이제야 똑똑히 알았다.》하고 고함을 질렀다고 한다.

김구뿐아니라 통수권좌를 넘보며 은근히 접근해오던 정계인물들이 하루아침새에 싹 돌아서서 제멋대로 고아댄다.

하지는 노불이 허리를 구부정하고 들이미는 반영자료들을 대충 훑어내리다가 끝내 엉뎅이가 요글요글해서 앉아있을수 없었다.

《에잇! 번번히 개죽을 쒀놓는 저 두상은 안되겠어.》

하지는 바빠맞아 책상을 주먹으로 치며 일어났다. 그는 브라운을 불러들여 궤도수정을 해야겠다고 단호하게 말하고는 김구와 김규식을 만나 좀 진정시켜달라고 부탁조로 말했다.

그러나 브라운은 잠시 생각해보다가 《그런데…》하고 길게 대답을 끌다가 뭐라고 입속말로 중얼거리였다. 발을 뽑겠다는 심산인것 같다.

하지는 바쁜 대목에서 기름쥐처럼 쏙 빠지는 브라운을 그 세모눈으로 마뜩잖게 노려보다가 터지는 부아통을 겨우 참고 그를 남겨둔채 제먼저 방을 나섰다.

어쩌는수없이 하지는 또다시 정계인물들을 찾아 구차스러운 행각에 나서야 했다.

때를 늦잡으면 국무성이 또 비난을 들씌워댈것이다. 어째서 소란스러운가, 당신네 하는 일이 왜 그 모양인가… 이렇게 전화통에 대고 험담을 늘어놓을 마샬의 상판이 금시 보이는듯싶다.

하지는 부관에게 리승만을 당장 출두시키라고 호령을 내리고는 인차 돌아서서는 명령을 취소하였다.

리승만은 아무리 완고해도 미국에 끈이 달린 인물이니 여하튼 주무르는대로 빚어지는 메주덩이나 같다. 천천히 불러다 닥달질을 하

면 된다. 문제는 김구를 비롯한 민족주의세력이다.
더구나 김구세력은 매우 조심스러우면서도 까부시기도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하지는 부관앞에서 잠시 주밋거리다가 자기 방에 들어가야 그냥 골치아픈 일거리만 연방 밀려들것이라는 생각에 떠밀려 맞은편에 있는 응접실로 들어갔다.
그는 휑뎅그렁한 방에 들어서자 쏘파에 가서 맥없이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달아오른 머리를 식히고싶어 담배가치를 꺼내물었다.
정말 귀찮은 일이로군. 이거야 어디 자리를 지켜낼수 있는가. 마치도 고역살이하는것과 같지 않느냐.
그는 담배를 몇모금 빨고는 재털이에 신경질적으로 비벼끄고 쏘파에 허리를 붙이고 눈을 감았다.
《잘은 한다. 미국의 3성장군이 여론에 쫓겨 제 방에서 도망쳐다니다니…》 하지는 이렇게 두덜거리며 쓰거운 미소를 지었다.
어쩐지 고독하고 처량해졌다.
국무성의 삿대질을 당할 때마다 괜스레 군정을 맡아안고 사복쟁이들의 성화에 몸살을 앓는다고 후회막심이지만 이제는 호미난방격이라 물러서기도 어렵게 되였다. 그렇게 되면 맥아더는 면전에서 갓 쓴 량반들에게 패전했노라 희떱게 몰아댈것이고 백악관은 그들대로 군부의 무기력과 무능에 대하여 떠들것이다.
그래서 국무성이 남조선의 정치적공백을 추궁할 때마다 보좌인원들을 모아놓고 분통을 터뜨렸지만 아직까지도 어느 한놈 시원스러운 대답을 못내고있다.
생각같아서는 당장에 고집불통의 정객들을 불러놓고 총구를 들이대고 녹신녹신하게 휘여놓고싶지만 그러면 당장에 정치의 문외한이라고 또 여론이 비발칠것이다.
그래서 될 일이라면 그까짓 여론쯤은 무시해버릴수도 있겠지만 김구같은 인물의 가슴팍에 총구멍을 들이대야 그 담벽같은 인간은 오히려 가슴을 헤치고 덤벼들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김구라…)
두볼이 처지고 입술이 심술스럽게 삐져나온 얼굴이 떠오르자 다

시 식어지던 머리가 확 달아올랐다.

하지는 지금껏 《림정》계인물들이 우익에서 삐그러져나가지 않도록 하는데 크게 품을 들여왔다.

그가 요새 와서 더욱 큰 우려를 가지게 된것은 김구세력이 국토통일과 미쏘량군의 철수를 계속 강경히 들고나올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격이다. 그래서 마샬도 급기야 경종을 울려온것이다.

그런데 리승만이 또 망둥이뛰질을 해서 김구세력이 들고일어난 불에 키질을 해놓은것이다.

하지는 여러 시간 골을 싸쥐고 고달프게 앉아있다가 자기 방으로 사지가 나른해서 들어갔다.

보좌관들이 모여와 수습책을 모의하였다.

하지는 김규식이부터 자기 집에 초대하였다.

진수성찬이 차려진 식탁에 마주앉았다.

김규식에게 술잔을 권하며 이렇게 추파를 던졌다.

《리승만은 지금 광기를 보이고있습니다. 그에 대해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런걸 생각해보셨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에서 장지에스군은 태평양전역에서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공산군에 련전련패하고있습니다. 동북지역은 다시 마오쩌둥치하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철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의 공산권에 남조선이 병합되여버리면 당신들 반공투사들이 설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런데 당신들속에서 철병소리가 나오고있으니 도대체 자신들의 장래에 대해 생각이나 하고 내놓은 주장입니까. 우린 심사숙고하기를 바랍니다. 미국무성과 백악관은 이 나라의 통수권좌에 대한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고있지만 우리는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김규식은 보좌성원들과 의논해보겠다고 짤막히 대답했다.

하지는 다음날에는 김구를 술좌석에 초대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흥정을 벌리려 하였다.

하지는 리승만을 정치협잡군이라고 실례까지 들어가며 한참 욕질하였다.

《당신이 미쏘량군철거에 대하여 올해말까지만 침묵을 지켜준다면 모든것이 당신에게 유리해지리라는것을 담보합니다.》

김구는 두툼한 입술을 꾹 닫아붙이고 하지의 장광설에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하지는 김구의 표정이 폭풍전야의 바다처럼 생각되였다.

사실 김구는 하지의 그 어느 말도 귀등으로 흘리고있었다. 네놈에게 더는 속지 않는다는 배심이였다.

하지는 마지막에야 리승만을 만났다. 만나는 장소도 술좌석이 아니라 응접실이였다.

하지는 리승만의 경솔한 행동에 대하여 책상을 두드리며 욕설을 퍼부었다.

리승만은 사태의 후과가 그제야 실감이 된듯 상판이 벌개서 한마디 대꾸도 못했다.

《만약 당신이 김구와 김규식과 련합하지 못하면 나는 나의 생명을 걸고 당신을 남조선의 정치무대에서 제거하겠다는것을 엄숙히 선언하는바이요. 정치에는 영원한 벗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것을 명심하시오.》

하지는 이렇게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리승만과는 일관하게 고자세에서 명령투의 이야기로 점령군사령관의 위세를 마음껏 시위한다.

하지의 언행에서 상대방이 자기를 모살하는 극적인 사건도 연출할수 있다는것을 포착한 리승만은 입술을 바르르 떨며 고개를 끄덕거렸다.

어느 한 좌석에서 하지는 감히 이 나라 정객들이 미군정의 지도인물들의 목을 가지고 흥정한다고 제 목 건사나 잘하라고 슬쩍 비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분명 자기의 목에 대한 경종이였다.

리승만은 남조선의 우익계에서 명망인물로 활약하던 송진우가 암살되고 얼마전에는 장덕수가 백주에 너부러진 사건의 배후에도 또 려운형에 대한 저격에도 하지의 입김이 서려있다는것을 잘 알고있

었다.
울며 겨자먹기로 하지의 시녀노릇을 하는수밖에 없었다.
리승만은 노불의 《협조》를 받으며 우익과 중간파정객들을 매수하기 위한 놀음을 벌리였다.
리승만은 이 놀음판에 1억원이라는 거액의 공작자금을 군소리없이 내놓았다.
리승만의 비서실에서 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정시명은 그 내용이 리승만의 공작대상으로 선정된 인물들에게 흘러들어가게 했다.
김구도 리승만의 꿍꿍이를 사전에 통보받았다.
김구에게 파견되여온 리승만의 대표는 그놈의 비서실장 윤치영이였다.
김구는 리승만의 어리석은 짓거리가 틀림없이 하지의 계략이라는것을 간파하였다. 그러고보면 리승만이 제놈의 패당들을 모여놓고 했다는 소리가 종작없이 해댄 랑설이 아니다.
(어랍쇼, 궁지에 빠진 리승만에게 이젠 나를 접목시켜 두상의 힘을 더해주자는 수작인데 어디 두고보자. 《한독당》은 이제 정면으로 엇서나갈테다.)
김구는 이렇게 시퍼런 칼을 벼려놓고 윤치영을 기다렸다.
김구는 윤치영이 비서의 안내를 받아 응접실에 들어서자 턱으로 자리를 권하고는 대뜸 그 시퍼런 칼을 우직하게 내밀었다.
《이보게, 지부장!》
김구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리승만에 이어 상하이림시정부의 미국지부위원장을 한 그의 경력을 거들어 우정 이렇게 불렀다.
《자네 그 가방부터 헤쳐놓게. 내 몸값이 얼마로 흥정되였나?》
김구의 무례하면서도 단도직입적인 공박에 급소를 찔린 윤치영은 단박에 어기가 질려 얼굴이 새까매졌다.
《백범선생님!…》
《내놓으라니, 나도 뭐 돈맛은 과히 싫어하지는 않는다이.》
《선생님…》

윤치영은 초들초들 타드는 입술을 감빨며 허우적거리였다.

《그래, 이 김구의 몸뚱이가 그 가방안의 종이장만큼밖에 안되겠다, … 이놈들!》

김구가 발로 마루를 구르며 벌떡 일어났다. 이죽거리던 김구의 기상이 먹이를 노리는 범처럼 표표해졌다.

《그래, 백범의 평생을 돈으로 살수 있다더냐?》

김구는 리승만을 닦아세우듯 우뢰같은 노성으로 꾸짖기 시작했다.

《자네 상전께 전해. 분명코 미국의 단독탁치를 꾀하고있을진대 이 백범은 나라 파는 역적행위에는 억만금을 준대도 눈섭 한오리 보태주지 않을걸세. 경고하네. 그건 나라를 동강내서 외세에 맡기는 매국배족이야. 통일정부를 내놓으라고 아침저녁으로 떠드는 저 국민의 노성이 무섭지 않은가?》

김구는 또한번 발을 탕 굴렀다.

윤치영은 말도 떼보지 못하고 비지땀만 바질바질 흘리다가 돈뭉치가 가득 차있는 가방을 옆구리에 끼고 혼비백산해서 뺑소니를 쳤다.

김구는 마음을 진정할수 없어 윤치영이 줄행랑을 놓은 뒤에도 오랜 시간 응접실에 붙박혀있었다.

미국놈들이 끝내 리승만을 권력의 자리에 내세우기로 결심했다는 소식이 기정사실로 굳어질수록 걷잡을수 없는 분노와 불안과 허탈의 엇갈린 감정이 쇠물처럼 설설 끓어올랐다.

3

안지생이 또하나의 충격적인 자료를 보내왔다.

김구가 일체 외인출입을 금하였다는것이다. 자기 방에 비서들은 물론 아들, 며느리까지 얼씬 못하게 한다는것이다.

그 원인에 대하여 안지생은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김구가 대문에 단단히 빗장을 지르라고 엄명을 내리기 전에 송호정총사령관이 류동명통위부장과 함께 왔다. 내가 졸라서 왔다.
나는 그들에게 김구가 정신들게 될수록 강하게 공격하라고 사전에 부탁하였다.
그들은 처음에는 도리질을 하였지만 내가 여러 시간 김구선생이 분명 탈선되고있는데 저대로 둬서는 안된다고 부탁하자 함께 가보겠노라 응해나섰다.
그들의 담화가 무척 자극적이고 격렬하였다고 보아진다.
…
송호정—우리는 백범선생의 장래가 걱정되여 왔다.
김구—자네도 하지가 보내서 왔는가?
류동명—백범, 우리를 남의 풍에 놀 허재비로 생각하는가? 지금 정치의 외토리가 되여가는 백범이 측은하다. 찾아온 리유는 그게 전부다.
김구—고양이 쥐생각! 당신들이 애초에 날 걱정했드라면 나를 버리지 말아야 할것이 아니였는가? 겨울이 돼야 솔이 푸른줄 안다고 했다.
송호정—우리는 나름으로서 몫을 질머지고 국민에게 봉사하고저 했다. 그리고 국민을 이끌려는 백범을 외곽에서 옹위하려고 했다. 당신도 이에 대해 리해를 표시한 일이 있지 않는가.
김구—그건 요설이다. 난 자네들이 아니더라도 귀맛 좋은 소리를 많이 듣고있다. 충정을 보여야 할 때다.
송호정—백범이 충정을 줴던졌는데 누구에게서 충정을 바라는가?
김구—그건 무슨 소린가?
송호정—백범은 국민을 버리고있다. 참말로 충정을 가지고 얘기하자.
지금 백범에게 국민이 있는가? 백범의 마음속에 남아있는건 권력에 대한 욕심밖에 없다.
김구—뭣이?!
송호정—백범은 지금 권력을 타고앉기 위해 그 어떤짓도 불사한다는 국민의 지탄을 듣지 못하는가?

김구—그래, 난 지금 권력을 위함이라면 불속도 뛰여들 각오가 되여있다. 우리가 무엇때문에 항일 50년을 누벼왔느냐?

송호정—그것이 권력에 대한 야심이였다면 국민의 심판은 마땅하다. 당신은 지금 권력에 환장했다.

김구—뭐라구? 권력에 환장했다구? 내가? 내가? 이 백범이 권력에 환장했다구?… 류총장, 당신도?…

류동명—(말없이 고개만 끄덕했다.)

김구—나가라! 썩 물러들 가! 다시는 내 눈앞에 그림자도 보이지 말라! 이 백범과 함께 3.1의 정기를 이어 고락을 같이하며 장장 서른해를 보내온 당신들이…

권력에 대한 야심을 버린다면 상하이림정은 어째서 있었구 자네들은 뭣하려 그 상좌에 김구를 못박아 앉혔느냐. 나가라! 썩 물러가!…

류동명—백범, 자중하라. 당신이 물러가라고 물러갈 우리들이 아니다.

김구—가라, 물러가. 내 당신들의 옷소매를 물고 늘어지는걸 보고싶은가?

류동명—좋다. 우리는 물러간다. 당신의 주의주장의 밑뿌리를 안 이상 우리는 더는 당신의 벗으로 되지 않을것이다.

그들의 대화는 이렇게 끝났다.

지금 김구는 침묵을 지키고있다. 안미생누님의 말에 의하면 며칠전부터는 좁쌀미음 한보시기로 아침을 굶때고는 해종일 문을 안으로 걸고 우리가 들여보낸 자료들만 보고있다고 한다.

예감이 좋지 않다. 상서롭지 못한 느낌이 든다.》

정시명은 안지생의 보고문을 여러번 주의깊게 읽었다.

이야기가 잘 흐른것 같지 않다. 그렇지만 이 보고에는 김구의 체질평가에 필요한 긴요한 요소들이 간명하게 드러나있다.

착잡한 감정은 흉중에 더 두텁고 무겁게 서리였다. 류동명이 타매한것처럼 주의주장의 밑뿌리가 명확해진것이다. 밑뿌리라…

(백범! 당신이 정말 그런 인간이던가. 권력? 그래 정말 당신

이 그 더러운 권력야심에 미쳐나서 홍안의 시절부터 왜놈들과 피투성이싸움을 벌리며 그 무수한 경난을 헤쳐왔단 말이요? 당신이라는 인간의 밑뿌리가 정말 그게 전부였단 말이요?)

미워지면서도 정이 가던 인물이 창졸간에 넝마와 같은 하잘것 없는 존재로 비쳐졌다.

(아니, 그럴수 없다.) 정시명은 그래도 미련을 버릴수 없어 안타깝게 중얼거렸다. (이제는 내가 나설 때가 되였다.)고 정시명은 결심하였다.

그는 점심상을 물리고나서 잠간 벽에 기대고앉아 김구와 해야 할 일을 생각하였다.

이때 례영이 조용히 손기척을 내며 문을 방싯이 열었다.

《어서 들어오너라.》

《아버님, 시간을 좀 내실수 있겠습니까?》

례영은 전에없이 소심한 태를 보이며 물었다.

식후 30분은 정시명에게 제일 소중한 시간이여서 례영이도 청을 드리기 어려웠던것이다.

《그래?… 어째서?》

정시명은 례영의 신상에 무슨 심상치 않은게 제기되였는가싶어 흉중에 찬바람을 느끼며 물었다.

《저 혜숙언니가 아버님을 잠간 뵙고저 해서…》

례영은 혜숙이와 동갑나이이지만 생일이 다섯달 앞섰다고 해서 언니라고 내세우군 한다.

《나를?… 어서 들어오라고 해라.》

례영이 생긋 웃음을 남기고 나가자 이어 권혜숙이 조심스럽게 문지방을 넘어섰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처녀는 늘씬한 허리를 굽석 숙이며 귀밑이 발그레하게 물이 든다. 어줍은 어조로 죄송하다는 말부터 한다.

《자리에 앉지. …권동무, 무슨 일이요?》

《저 다른게 아니고…》

권혜숙이 여전히 말을 잇지 못하고 손톱여물만 썰고있는데 정시명이 그 모습에 어리둥절해졌다.
권혜숙이 이렇게 소심해서 나타나기는 처음이다. 안팎없이 시원스러워 괄량이라고 불리우는 처녀다. 이 집 담장안에서 웃음소리가 그중 큰것도 권혜숙이고 대답소리도 제일 큰게 권혜숙이다. 례영이 곱게 핀 방울꽃이라면 권혜숙은 싱싱한 대나무갈다고 언젠가 김명호가 말했는데 두 처녀에 대한 비슷한 평가라고 생각해온다.
그런데 지금 처녀의 얼굴에는 수심이 어리고 무엇인가 불안하다.
(아, 그렇지. 내가 아직도 길철을 다시 만나지 않았구나.)
정시명은 한강변의 오리나무숲에서 길철이와 아퀴를 짓지 못한 일이 떠올랐다. 인차 매듭을 본다는게 일에 묻혀 세월을 보내왔다.
혜숙이 그 일때문에 찾아온 모양인가.
《권동무, 어서 말하오. 뭘 도와주면 될가?》
그런데 처녀의 대답이 동문서답이였다.
《저… 저를 내보내주십시오. 하는 일은 다른 곳에 가서 할가 합니다.》
《내보내다니?… 어째 주인집에 노여운 일이라도 있었는가?》
《아니… 아닙니다. 그런게 아닙니다.》
뜻밖의 제기를 받자 정시명이 의아스러워 한동안 처녀의 얼굴을 지켜보았다.
그의 억실억실한 눈에 어려있는 수심이 여러가지 억측을 불러냈다.
《좋소, 토론해보지.》
정시명이 우선 이렇게 대답했다. 좀더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싶은데 김구에게로 떠날 시간이 된것이다.
권혜숙은 아래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다가 자리에서 소붓이 일어나 《고맙습니다.》하고는 돌아서는데 《흑-》하고 울음소리를 감씹으며 급히 방안에서 나갔다.
정시명은 처녀가 그러는게 더욱 의문스러웠다.

그는 고개를 기웃거리며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왜 저럴가. 김구선생이나 만나고는 좀 알아봐야겠군. 내가 너무 무심했군.)

서대문네거리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있는 경교장은 2층으로 되여있는데 주변은 높은 돌담으로 둘러있고 정문에는 수위를 서고있는 경찰이 걸상에 앉아 꺼떡꺼떡 졸고있었다. 인기척에 놀란 경찰이 옆구리에 손부터 가져가며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초인종이 울리자 곧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기고 땡별에도 아랑곳없이 양복차림을 한 안우생이 나왔다.

《이거 야단이 났습니다.》

안우생의 얼굴이 어둡다.

《왜? 누가 와있소?》

잠시후 안지생이 잰걸음으로 나왔다.

《미군정청의 노불과 프란체스까가 왔습니다.》

《리승만의 처까지?…》

정시명은 일순간 긴장해졌다.

《일체 방문자는 거절이라더니?》

《글쎄요. 대문앞에 와서 버티고있으니 문을 열어줬는데…》

노불과 리승만의 처까지 김구의 집으로 일시에 찾아든것은 모종의 막후흥정이 또 벌어지리라는것을 예고하는 불길한 전주곡이였다. 시간을 잘못 선택했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렇다고 돌아서고 싶지도 않았다.

그는 잠시 안지생이와 함께 정문대기실에 들어가 담배를 붙여물었다.

잠시후 노불과 프란체스까가 대문밖으로 나왔다.

프란체스까가 노불에게 아양을 떨며 수선을 부리는 꼴이 아마 김구와의 이야기가 순조로이 진행된 모양이다.

그들이 차를 타고 사라지자 안우생이 정시명이 내주는 명함장을 눈으로 훑어보고는 의아쩍어 하였다.

《이런 명함으로요? 차라리 시안판사처장으로…》

김구의 감회깊은 기억을 되살려보려는 안우생의 무언의 의향이 비쳐있었다.

《그게 어느때라고… 그렇게 해주오.》

정시명이 웃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안우생이 2층에 올라갔다가 인차 돌아왔다. 그는 고개를 설레설레 내저었다.

《만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정 만나고싶으면 한시간쯤 기다리게하라고 합니다.》

《그래?… 음… 그럼 한시간 기다려봅시다. 날 미안해할건 없소. 뭐 읽을만한 책이나 가져다주오.》

정시명이 대기실에서 책을 뒤적이고있는데 안우생이 다시 나타났다.

정시명은 그의 안내를 받으며 아래층에 있는 김구의 응접실에 들어섰다.

미닫이문이 열리자 바지저고리를 입고 쏘파에 앉아서 두툼한 자료를 보고있는 김구의 우람진 자태가 보였다. 볼이 옆으로 처지고 눈섭이 우로 치솟은게 누가 보아도 심술기가 첫눈에 뜨이는 늙은이다.

《게 앉으시우.》

김구는 돋보기우로 정시명을 흘끔 올려다보고는 다시 자료에 눈을 박았다.

김구는 한참후에야 보던 종이를 옆탁에 홱 내던지고는 말을 꺼냈다. 차탁에도 자료가 무드기 쌓여있다.

《용서하시오. 내 지금 신문에 꼭 긴요한게 있어서 마저 읽어보던 참이요. 나보고 마구 험담질을 갈겨댄건데 재미있게 썼거든. 요즈음에는 뭐가 뭔지 통 갈피가 잡히지 않아.》

김구는 흥분하고있었다. 김구는 상대방의 무게를 가늠하느라고 명함장을 다시 들여다보고는 돋보기를 벗고 흥심없이 정시명에게 눈길을 보냈다.

《그건 그렇고 어떻게 오셨소? 요즈음은 정치한다는 사람들도 내 집문턱 드나들기를 탐탁치 않아 하는것 같은데 장사하는 사람이 이

백범에게서 바랄게 뭐있소. … 가만!》

심술스럽게 불편한 속주머니를 털어놓던 김구가 문득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제야 정시명을 알아본 모양이다.

《아 이게 누구시오?… 시안판사처 정처장이 아니시오?》

《그렇습니다. 정향이올시다. 백범선생, 그동안 옥체만강하셨습니까?》

《아 참, 이거 내 또 큰 실수를 했군. 정처장이 오셨다면 진작 그렇게 알려야지 원, 이런… 정처장, 정말 오래간만이요. 여러 지기들의 념려로 이렇게 난 무고히 지내오.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소식없이 지내셨소. 관내에서 내 사람들이 처장선생신세를 이만저만 졌다구. 》

김구는 자못 감개무량해서 정시명의 손목을 각근히 잡아흔들며 인사를 정중히 차렸다.

이윽고 쏘파에 자리를 권한 김구는 서울에 들어와 지나온 일들을 간추려서 개괄하고는 정시명에게로 말머리를 옮겼다.

정시명도 중국에서 《한교사무처》일로 이국살이를 끝내고 서울에 와서 장사를 시작했노라고 그 기간에 있은 일들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였다.

《허, 처장선생이 이 란잡한 정국에 나서야지 장사일을 보다니… 그 일은 아무리 생각을 굴려야 잘된 일같지는 않은데…

우린 이젠 늙었거든. 대세에 따라서지 못하오. 바람결이 차지면 어차피 나무잎도 별보기를 그만두어야 하듯이 정치하는 사람도 자기 시대를 넘기면 물러나야 하는것이 세상리치인것 같소. 》

방안을 천천히 거닐던 김구가 느닷없이 물었다.

《처장은 방금 내 집에서 나가는 양인들을 보시였소?》

《예, 봤지요. 화제거리 인물들이니 경교장에 드나들만한 연고가 있겠지요. 》

김구가 속이 켕기여 먼저 말을 꺼내놓는데 정시명이 대범하게 무시해버리자 제풀에 무색해서 허허 하고 허구프게 웃었다.

그는 정시명의 반발을 예상했던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는 남의 눈치를 봐가며 누굴 만나보는 시러베의 아들이 아니라고 화

를 낼 심산이였다.
《담배나 태우시우. 처장선생이야 담배이상의 대접이 없는줄 내아오.》
김구는 다소 주눅이 들어 미국상표가 붙어있는 담배곽을 내밀었다.
《내게도 있습니다.》
정시명은 그가 권하는 양담배를 사양하고는 담배쌈지를 꺼내 곰방대에 잘게 썬 담배를 꽁꽁 다져넣었다.
김구는 정시명의 곰방대를 노려보다가 양담배를 책상서랍안에 휼쩍 집어넣고 소리나게 밀어닫았다. 그리고나서 밭고랑같은 주름이 세로 패인 볼을 풀떡거리며 심술스럽게 말을 이었다.
《처장은 뭣때문에 오랑캐계집과 어울리는 백범을 찾아오시였소?》
《백범선생, 자중하시오. 오늘은 나도 백범선생과 국사를 의논하고싶어 왔습니다.》
정시명은 주먹을 차대우에 올려놓으며 위엄있게 대꾸하였다.
호령기 많은 백범도 불빛같은 눈길로 상대방을 쏘아보며 쩌렁쩌렁 울리는 음성으로 마디마디에 무게를 담는 정시명의 위엄앞에서는 기가 눌리우고말았다.
《말해보시오.》
《나는 먼저 묻고싶습니다. 백범선생은 어찌하여 림정이 오늘 이 남쪽땅에서 응당히 차지해야 할 정통정부로서의 자기의 지위를 상실한것 같습니까?》
《…》
《리유가 많겠지만 나는 첫째 백범선생이 실책을 범했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때문에?》
김구는 두눈을 부릅뜨고 거친 숨을 내쉬며 반문하였다.
《그렇습니다. 어째서 난징, 상하이, 충칭에서는 세상을 진동하던 백범의 호령이 서울에서는 마이동풍이 되고말았습니까?》
《…》

《김규식, 류동명, 최동오, 리범석… 조소앙도 떨어져나갔지요. 김원봉의 혁명당도 제멋대로 놀고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와 함께 이 남쪽땅의 정사를 해보겠다는겁니까? 왜 그렇게 되는가. 김구선생의 뜻에 일관성이 부족한탓으로 우로좌로 기우뚱거릴때마다 파편쪼각처럼 하나둘 빠져나가는겁니다.》

《내 유다같은 무리가 제 둥지 버리는것을 크게 랑패라 생각지 않소. 봄에 달린 떡잎이 여름철에 가서 떨어지면 나쁠게 없소.

하지만 나한테 이제 찾아왔던 손님들의 방문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겠소?》

김구는 비위살이 두텁게 입가에 쓴웃음을 지으며 흰목을 뽑는다.

《그네들이 하는 수작을 들어보시겠소. 뭐 영국식의 정치방식이 바람직한데 김구 당신이 영국의 녀왕격이 되든지 총리가 되든지 내키는대로 골라잡으라는거요. 그네들이 하는 말이 감언리설이 헨둥하지만 여전히 김구를 친구로 사귀겠다는것이 아니겠소.》

《백범! 옷은 새것이 좋고 친구는 옛 지기가 좋다는 말이 있지요. 항차 선생이 사귀려는 새 친구가 이 나라의 명줄을 끊으려 하는 물건너온 도적의 무리일진대 그래도 선생은 그 뒤말이 두렵지 않습니까? 내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달다고 꿀떡을 삼키지 말고
쓰다고 삼수탕 뱉지를 말아

이방인을 믿어 덕본이 없고
역적과 손잡아 치욕을 던이 없거늘…》

김구는 소스라치듯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만, 그만하시우.》

그는 얼이 빠진 사람처럼 오른팔을 들고 허우적거리였다. 심기가 뒤틀려 심술기만 잔뜩 성해있던 안색이 삽시에 달라졌다.

그것은 김구가 충칭시절에 리승만이 당시의 미국대통령 윌슨에게 미국의 후견을 받는 방식으로 조선을 독립시켜달라는 청원서

를 제출했다는 소식에 접하여 어느 술상에서 울분을 토하며 읊은 시조였다. 그게 독립운동자들속에 퍼지고 리승만의 귀에까지 들어가 둘의 사이가 더 버그러졌다 한다.

정시명은 자리를 털고 일어서서 두루마기를 걸치였다.

그러자 김구가 숱많은 흰 눈섭을 푸드드 떨며 정시명을 노려보다가 그의 두루마기자락을 움켜잡았다.

《처장, 이야기를 좀 합세다. 나는 충칭시절에도 처장을 만나면 답답하던 가슴이 후련해지군 했소.》

《참으로 섭섭하외다. 배달동포가 경모하던 우국지사 백범은 어데가고 그 우상만 남아 감히 이방인의 장단에 흥이 나서 거들거리는겁니까?》

정시명은 미국을 등대고 자기의 존재를 과시하는 김구의 이야기에 분격이 터져올랐다. 그러나 인차 자신을 억제하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김구는 크게 흥분되여있었다. 정시명이 이렇게 나타난것이 그닥 반가운것은 아니였지만 훌쩍 자기를 버리고 갈가보아 걱정이 되였다. 그래 움켜쥔 정시명의 두루마기자락을 놓지 않고 말했다.

《정처장, 내 방으로 갑시다. 그자리엔 방금 리승만의 내인이 앉아있었다우.》

그 말투에 형언할수 없는 고독과 방황에서 벗어나보려는 그의 몸부림이 비치고있다.

정시명이 그게 헤아려져 가슴이 뭉클했다.

김구는 그의 팔을 잡은채 2층계단으로 올랐다.

《자, 여기가 내 방이요. 어서 들어가시오.》

김구는 2층복도의 한끝에 있는 자기 침실문을 열고 이렇게 들여보내고는 집안이 떠나갈듯 큰소리로 불렀다.

《여봐라, 게 누구 없느냐?》

그러자 아래방문들이 우당탕 열리면서 《예―》 하는 여러 목소리가 한꺼번에 들리는데 2층계단에 뛰여오르는것은 안미생뿐이였다.

김구는 사랑하고 존경해마지않던 렬사의 딸이라는데도 있지만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집안의 궂은일, 마른일 다 맡아안고 자

기와 함께 온갖 고난을 다 겪어오는 이 맏며느리를 제일 아끼고 믿고 사랑해준다.

《아버님, 분부하세요.》

《아가야, 문을 활짝 열어 바람갈이하거라. 양놈들의 향수냄새 지독도 하다.》

《알았습니다, 아버님.》

4

김구의 침실은 남향받이여서 아늑하였다.

방가운데 나무침대가 있고 머리맡에 상두대와 쏘파가 있을뿐이다. 상두대우에는 문건이 아름되게 쌓여있다. 안지생이 김구가 침실에서 나오지 않고 며칠동안 자료를 본다고 하던 말이 생각났다.

방안에 들어선 김구는 상두대에 가서 자료철을 뒤지기 시작했다. 한통의 얄팍한 문건을 찾아들자 정시명에게로 다가가 내밀었다.

《우선 이것 좀 봐주시오. 정처장, 내 저놈들의 말을 이젠 콩으로 메주쑨다 해도 곧이 듣지 않소. 저눔들이 이 백범을 어떤 머저리로 만들어놓았는지 기가 막히오. 내 이자 정처장 오신줄은 모르고 지체시킨것은 저눔들 보내놓고 이 문건을 다시 들춰보기 위함이였소.》

김구의 목소리는 전에없이 맥이 진하고 처량하였다.

그것은 길철이 보내왔던 《반탁》운동자료였다. 《반탁》의 실상이 김구에게 크게 충격을 주었다는 말이 옳은것 같다. 김구의 머리속에 폭풍전야와 같은 무겁고 침통한 기운이 드리운것 같았다.

《선생은 앞으로 어떻게 이 혼란된 정국을 수습하시렵니까?》

정시명은 자기앞이라 터져오르는 분통을 가까스로 참고있는 김구의 심정을 위로해주듯 인차 화제를 돌렸다.

《내게라고 무슨 방책이 있겠소.》

김구는 혼자소리처럼 시들하고 맥없이 내뱉았다. 그리고는 이내 울분을 토하기 시작했다.

《북에서는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제 할일을 해나가고있는데 이게 화단은 화단이 아닌가. 문을 닫고 돌아앉고말자니 그 한민당의 왜놈패거리들이나 리승만에게 나라를 빼앗길것 같고 좀 해보자니 저마끔 딴꿈을 꾸며 제멋대로 놀아나지 않나.… 처장 말한대로 김규식이, 최동오, 류동명이 다 달아났소. 리범석이, 리청천이 무슨 청년단이라는 망둥이패들을 무어가지고 자기 세력을 늘구어보겠다고 미쳐돌아가오. 그놈들은 내가 두번세번 살려주었는데도 내 등뒤에 돌아서서는 내 주머니를 야금야금 털어내거든. 거기다가 양놈들은 이렇게 이 늙은것을 살살 꼬이고 속여먹기를 식은죽먹기로 안단 말이요.》

김구는 제풀에 울화가 치밀어올라 쏘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방안을 오락가락하기 시작하였다.

정시명이 김구가 으르렁거리는것을 보자 안지생이 그려왔던 그림이 생각났다. 성난 호랑이… 정말로 신통한 비유다. 그앞에 귀엽게 앉아서 재롱스럽게 호랑이를 달래는 다람쥐… 안지생이 용타. 저런 인간과 마주앉아 자기 주장을 내놓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담력이 있는 일인가. 위험천만한 일이기도 하다. 다람쥐의 순간실수로 성난 호랑이가 앞발을 쳐들기만 하면 만사는 끝장이다. 김구가 안지생이쯤은 눈섭 한오리 까딱하지 않고 처리해버릴수도 있다.

나무쪽무이로 된 바닥이 이따금 김구의 무거운 몸을 떠이고 삐거덕거리였다.

방안을 무겁게 거닐던 김구는 정시명을 잊어버린듯 벽 한가운데에 걸려있는 족자앞에 서서 떠날줄 모른다. 그는 두눈을 부릅뜨고 족자에 박힌 시구절을 오르내리 훑다가 궁글은 목소리로 읊기 시작하였다.

《득수반지 무족기

현애철수 장부아… 허허허.

나무가지를 잡고 발붙일데 없으면 차라리 절벽에서 손을 놓아버리는것이 대장부라…

내 일찌기 모시였던 은사의 가르치심이였는데… 그래그래, 손을 놓아버리는것이 대장부야.

정처장, 70객이 혼란된 시국의 복판에서 어정거리니 될법이나 할 일인가.》

김구는 족자에서 눈을 떼지 않은채 허구픈 웃음을 터치다가 침울하게 중얼거렸다.

정시명도 김구의 옆으로 다가갔다. 족자의 글을 더듬었다.

김구가 이따금 마음이 심란해질 때면 곧잘 외우는 그의 좌우명이다. 김구가 19살되는 해에 신천군 청계동에서 안중근과 함께 당대의 명망높은 선비였던 고능선의 밑에서 학문을 닦고있을 때 고능선이 손수 지어서 그에게 준것이였다.

정시명은 김구의 동향이 심상치 않게 느껴졌다.

련이은 좌절과 실망에 모대기고있는 늙은 호랑이—백범… 무엇인가 운명적인것이 그에게 서서히 자리잡기 시작하는것 같았다.

그가 만약 정계에서 퇴진을 선언해버리면 가까스로 맥을 이어오는 《림정》집단은 녀왕벌을 잃은 벌떼처럼 흩어지고말것이다. 김구를 이러한 운명의 막바지에 몰아넣는것이 미국놈들의 마지막 선택일수 있다. 김구가 정치에서 손을 떼면 좋아할것은 미국놈들과 리승만세력이다.

정시명은 때마침 찾아왔다고 생각하였다. 자칫 늦잡았더라면 기회를 놓칠수도 있었다.

김구는 자존심이 강하고 과단성이 있는 반면에 자포자기에 빠져들면 헤여나오기 힘들어하는 성격이였다. 그래서 이따금 모든것을 체념하고 결패있게 마음을 훌훌 털어서 비워버리는 괴벽한 성미를 드러내서 주변사람들을 아연하게 만들군 한다.

정시명은 불현듯 《림정》이 중국의 창사에 쫓겨갔을 때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어느날 《림정》이 국무회의를 열어놓고 또 한차례의 언쟁을 벌려놓고있는데 한패거리의 조선청년들이 발길로 대문을 걷어차고 쳐들어왔다.

그들은 경비원들을 주먹으로 쳐눕히고는 다짜고짜 총을 휘둘러 김구쪽으로 총탄을 마구 란사하였다. 그 총탄에 옆에 앉아있던 심복인물인 현묵관이 즉사하고 김구도 부상을 당했다.

동족의 총탄을 받은 김구는 대경실색하였다.

그날저녁 김구는 부상당한 팔을 한손으로 받쳐들고 잡아들인 청년들앞에 나섰다.

《이눔들, 네놈들이 정히 조선씨를 받은 놈들이 맞느냐?》

김구는 발을 구르며 대청이 쩌렁쩌렁하게 고함을 질렀으나 청년들은 소영각소리라도 듣는듯 담벽같이 맞서기만 하였다.

《두상! 그래 어쨌단 말이요?》

《네놈들은 분명 고려공산당놈들이 보냈겠다. 이실직고해라.》

《공산당은 무슨 놈의 공산당?…》

청년들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우린 분명히 왜놈에게 쫓겨온 조선청년들이요. 당신들이 우리 백성들의 피땀이 서린 군자금을 모아가지고 밤낮으로 편싸움만 한다기에 징벌을 하려고 했소. 당신도 제명을 다 살고프면 이제라도 〈림정〉이라는 물건짝을 버리고 산골에 들어가 부대기나 일궈먹소.》

《뭣이?! 저눔을 그저…》

청년들의 추상같은 대답에 김구는 억이 막혀 자기 가슴만 텅텅 두드렸다.

《림정》을 하느님처럼 버티고 파란만장의 고난과 시련으로 엮어온 한생이 졸지에 허무하게 느껴져 이제까지 지켜낸 큰 성벽이 가슴에서 일시에 허물어져내렸다.

김구는 청년들앞에서 돌연 고개를 푹 꺾고 절통하게 부르짖었다.

《다 풀어주도록 하라. 마땅한 징벌을 받았으니 나도 이젠 너희들 소원대로 속세를 벗어나련다. 절간의 중노릇이나 할테니 이 백범은 세상에 다시 없는줄 알아라.》

그리고는 초연히 사라져버려서 측근들이 산지사방 그를 찾아다녔다. 일후에 그를 데려오느라고 정시명이까지 나서야 하였다.

(정말 발붙일데를 잃고 천길나락에 떨어져 정치행각의 파란만장을 끝내려는게 아닐가?…)

그때 일이 떠오르자 정시명은 분연히 벽에서 족자를 떼내였다. 이놈의 시구가 이따금 김구의 정신에 역설로 울리여 그로 하여금 정신적허탈에로 떠미는것만 같았다. 없어서 좋을것이면 일찌감

치 없애버리는것이 좋다.

그는 김구의 눈앞에서 족자를 벅벅 찢었다.

김구는 정시명의 돌발적인 행동에 기가 막힌듯 처음에는 눈이 둥그래졌다.

《저런!… 이 무슨 무엄한짓인고…》

족자로 말하면 수십년세월 마치도 호신부처럼 고이 보관해오며 그와 함께 다난한 세월의 풍파를 겪어왔다.

정시명은 상대가 이러거나저러거나 아랑곳없다는듯 쪼각난 족자를 창문을 열고 바깥에 던져버렸다.

김구는 입술을 꾹 닫아붙인채 사나운 눈길로 정시명을 노려볼뿐이다.

《백범답지 않습니다.》

정시명의 말투가 상대의 격노한 자세에 또 다른 일격을 가할듯 시퍼렇게 날이 섰다.

《그래 이 나라의 최하층막바지에서 신음하는 백성들과 고락을 같이하고저 백범이 되여 뜻을 펼쳐온 선생이 저따위 시구나 읊조리며 한숨을 토할수 있습니까. 왕년에 왜왕을 요정낼 칼을 벼르던 백범이 이럴수 있는가 말입니다. 이건 만백성의 기대를 저버리는것입니다.》

《그러니 날더러 어찌하란 말이요?》

김구는 처절하게 소리를 쳤다. 정시명의 맵짠 입침이 사그라져가던 의기를 예리하게 찌른것이였다.

《겨레앞에 평생을 바치겠노라 했으면 심사가 꼬인다고 초지를 놓아버려서는 안될줄로 압니다. 끝까지 인생을 다듬어야 합니다.》

《그래서?…》

《딴꿈을 꾸는 놈들이 달아나는것은 불행중 다행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선생은 자기 주위에 더 많은 사람을 뭉치게 해야 합니다. 고군약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리승만이 떠드는 대동단결인가?》

《아니올시다. 시국을 옳게 보고 알맞는 방략과 구호를 내

놓아 민심을 모으고 애국을 도모하는 각당, 각파와 손을 잡는것입니다.》

《무슨 말씀… 난 이젠 한물이 진 인간이요. 이 나라 국민이 이제는 백범이 쓸모없다고 등을 돌려버렸소. 나더러 뭐라고들 하는지 아시오. 권력야심에 환장이 된 두상이라 하오. 권력에 눈이 뒤집혀서 양놈들에게 추한 꼴을 보인다는거요. 권력에 미쳐서 백성들 숫보고 세상에 제밖에 없는것처럼 행동한다는거요.

정처장, 어디 당신이 좀 말해주오. 내 이 백범이 그래 일흔넷되는 이날이때까지 나라임금되고저 살아왔단 말이요? 엉, 정처장…

말 좀 해주오. 처장의 말이야 언제 그릇됨이 없지 않았소. 내가 정말 권력에 환장이 된 놈으로 보이는가 말이요?》

김구는 정시명의 팔을 쥐여흔들며 부르짖었다. 방안을 울리는 그 소리가 처절하다. 그것은 이야기라기보다 흐느낌이나 비명에 가까운것이였다.

정시명은 굳어진듯 움직이지 않고 김구의 처진 볼과 울기가 번쩍거리는 눈확을 유심히 지켜볼뿐이였다. 고민에 부대끼는 한 인간의 처절한 모습앞에서 정시명은 고즈넉이 차드는 련민과 동정의 정을 금할수 없었다. 그러나 여전히 김구의 다음말을 기다리며 조용히 그를 지켜볼뿐이였다.

정시명이 부동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자 김구는 더욱 격해져서 온몸을 와들와들 떨며 울부짖었다.

《내 요즘 홀로 앉아 70평생을 돌아보군 한다오. 아득한 창해에 물결은 사나운데 돛배 한척 아물거린단 말이요. 억만파도를 천신만고 이겨내고 드디여 가녁에 닿게 되였는데 이미 돛은 찢겨지고 배창은 갈라져 가라앉게 되지 않았겠소. 내 평생이 그렇게 조락이 되는데 그 슬픔을 알아주지 못할망정 협잡군이라는 락인이 찍혀지게 되다니… 아, 허무해, 허무하거든.

고생끝에 락이란 다 헛소리야. 고생만 있고 락은 없는 인생, 백범이 한만 가득 남겨놓고 떠나게 됐은즉 세상이 너무 야속하단 말이요.》

김구는 이렇게 소리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창문가로 비칠거리며 다가갔다.

정시명은 자기도 이름할수 없는 비분에 떠밀려 자리에서 성큼 일어났다. 그리고 비칠거리는 김구를 쫓아가 그의 한팔을 잡았다. 피줄이 동아줄처럼 굵은 그의 손목을 더듬어잡으니 가슴을 옥죄이는 아픔을 안고 툭탁거리는 심장의 박동이 피에 절은 절규마냥 정시명의 가슴에도 절절하게 전해졌다.

(이것이 백범이다. 그래 이것이 백범이다. 백범의 심장이 달리야 뛸수 있는가.)

정시명은 속이 일컥일컥 달아올랐다. 전생을 우국충정으로 살아오는 백범을 다시 찾아보는것이 기쁘고 행복스러웠다. 진정을 고여 쓰라린 상처를 애무해주고싶다.

《백범선생, 너무 흥분마십시오. 한생토록 나라와 백성을 위해 기울여온 백범의 공력을 어떻게 그처럼 가혹하게 단언하십니까. 들려오는 소리는 백성이 주는 회초리로 받아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범은 기어이 권력을 잡으려 한다,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그것만이 국민을 위함이라고 판단하였기때문이다, 권력을 잡아야 일본놈들로부터 빼앗아낸 이 나라의 국권을 다질수 있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펴서 국민이 복락을 누리는 나라를 세울수 있기때문이다, 백범은 바로 이것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것이다. … 어떻습니까?》

정시명의 이야기가 깊어지자 김구의 안색이 달라졌다. 어둑침침하던 낯빛이 밝아지고 눈이 커지고 입도 저절로 크게 벌어졌다. 울기가 돋혀있던 두눈에 환희의 불꽃이 확 피여올랐다.

《그게 참말이요?》

그것은 탄성이였다. 비명처럼 어쩔새없이 튀여오른 그런것이였다.

정시명은 빙그레 웃을뿐이였다.

《그게 참말이겠소?》

김구가 기어이 대답을 들어야 하겠다는듯 다시 물었다.

정시명은 고개를 끄덕이였다.

(이 사람이 정말 참말을 하는가?) 김구는 정시명의 눈길을 슬며시 외면하며 입안소리로 웅얼거리였다.

《음—》 김구는 이렇게 신음과도 같은 소리를 지르고는 방안을 젊은이들처럼 힘있게 오락가락하였다. 그러다가 걸음을 뚝 멈추고 정시명을 넋이 나간듯 바라본다.

넓게 벗어진 이마, 숱진 눈섭밑에서 불덩이처럼 이글거리는 눈망울, 크지도 작지도 않은 알맞는 체구지만 박달나무처럼 단단하고 억세여보이는 사나이다. 꾹 다문 입술은 다시는 열릴것 같지 않게 반석같이 무거워보인다. 안팎이 없는 진실을 그 입속에 묻어놓고있는듯싶다.

이제까지 이 사나이를 여러번 만났는데 그때마다 좋기는 해도 다른 인상을 주어서 잘 가늠이 안가던 사나이다. 어떤 때는 드팀이 없을것 같은 무쇠같은 인간으로, 어떤 때는 사나운 파도를 한몸으로 막아나선 거인같은 인간으로, 어떤 때는 절해고도에서도 길을 헤칠줄 아는 비범한 인간으로, 어떤 때는 지극히 선량하고 정직하고 아량있는 친구로 되여주던 사나이다.

그 인간이 지금 그 빛나는 눈에 류달리도 따뜻한것을 담고 자기의 아픈 마음속을 어루만져주며 헤아려주는것이다. 가물가물 사그라져가던 삶의 의미를 다시 등불처럼 빛나도록 해주는것이다.

아, 이 험한 세월에 누가 이처럼 내 진속을 알아주랴.

부지불식간에 김구가 그 큰 체통을 허물어뜨리며 마루우에 넙적 엎드린다. 그리고는 《정처장, 내 절을 받아주소.》 하고는 흑— 하고 오열을 터뜨려놓았다. 늙은이의 투실투실한 어깨가 마루우에서 세차게 오르내리기 시작하였다.

왕년에 눈에 쌍심지를 켜달고 왜놈을 족치고 사형수감방에서도 눈섭 한오리 까딱 흔들리지 않던 70객 늙은이의 몸부림과 오열을 당하자 정시명은 당황하기까지 하였다. 놀랍고 가슴이 아팠다. 김구의 마음속고통이 어느 정도에 와닿았는가 하는것이 헤아려져 머리가 깊이 숙어졌다.

정시명은 《백범선생, 고정하십시오.》 하며 무릎을 꿇고 그를 안아 일으켰다. 정시명은 그를 부축하여 쏘파에 앉히고 그옆에 나란히 앉았다.

《처장이 어째서 이제야 날 찾아왔소?…》

정시명이 웃결이에서 수건을 벗겨주자 김구는 그제야 눈물이 질벅한 얼굴을 꼼꼼히 닦아냈다.

《난 혼자 있고싶소. … 아니아니, 가지 말아주오. 내 좀 말합시다. 도대체 처장은 어떤 사람이시우?》

《저야 뭐… 허허허.》

정시명이 소리내여 웃었다.

《그래그래, 내 그걸 몰라서 묻는게 아니요. 당신이야 공산주의자가 아니지. 그럴 사람이 아니요. 그렇게 되여서는 안되오.》

《허허. …》

《처장, 날 대신해서 〈림정〉을 맡아주오. 내 처장이 우리 〈림정〉을 맡아주겠다면 오늘안으로 〈한독당〉회의를 열겠소.》

《원, 그러지 마십시오. 백범이자 〈림정〉이요, 〈림정〉이자 백범인데 그걸 제게 넘겨주다니요.》

《그 말은 옳소… 그렇소. 이 백범은 〈림정〉이요, 〈림정〉은 국민이요. 그래서 내 〈림정〉에 들이닥치는 오는 바람 가는 바람 다 막으며 버티고 선거요. 그런데 그 유다같은 무리들이 이걸 알아주는가. 그래 내 이제 룡상을 타고앉으면 묘자리에 끌고가겠소? 권력에 환장했다니 그게 무슨 당치않은 수작들인가. 내 이 나라의 주인자리에 올라앉는다면 그 이튿날로 젊은 사람에게 내 자리 이어주고 속세에 묻혀버릴 작정을 골백번 하고있소. 하지만 이 서울땅에 지금 누가 〈림정〉의 법통을 이어받아 국민을 다스려내겠소.

리승만은 미국이요, 미국은 외세요. 그놈들 하는짓이 어느 하나이 나라 위한게 있는가. 내가 물러나면 리승만이 쉽사리 정권을 가로챌거란 말이요. 북의 공산화를 용납하면 북이 또 쏘련의 위성국이 될거요. 그러면 북도 남도 다 외세에 붙어살겠으니 우린 다시 독립전을 벌려야 될게 아닌가.

수만 안중근의 선혈이 물로 흐르고 렬사들의 피가 강을 이룰것이란 말이요.

그러니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운명을 두고 이 김구가 미국놈들에게 추한 꼴 보이면 어떻고 내 하나의 지조요, 명예요 돌보게 됐나 말이요. 정치하는 사람 어찌 웃고싶다 웃을수 있고 울고싶다 울수

있소. 모든걸 흔연히 참고 견디는거요. 그런데 이젠… 나도 진했소, 진했거든. 사생결단하고 날 따라오던 동지들마저 날 알아주지 않으니 내 어찌 대사를 도모해나가겠소. 그러니 부디 곱씹는데 정처장이 나를 믿어 일하다가 나를 이어 상하이림정을 돌봐주오.》

《선생님, 나라와 인민을 위해 뜻이 일관한 선생님께 이 나라 백성의 한사람으로 다시금 감사를 드리고싶습니다.

나는 선생님의 솔직한 말씀에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의 높은 뜻이 빛나도록 나도 힘껏 돕겠습니다.》

정시명은 진심으로 그에게 고개를 숙여 사의를 표하였다. 정시명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정히 나의 대답을 바라신다면 우선 이런 의견을 드리고싶습니다.

민심에 역행말고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남북 삼천리에 분명한 국민의 웨침은 외군을 몰아내고 남북이 총선거를 하며 통일정부를 세우자는것입니다.

이 서울에서는 좌익세력은 물론 〈정당협의회〉에 소속된 애국적인 민족주의집단들이 다 이 구호를 들고 나섰습니다. 이에 도전하는 세력이 어떤 집단인가 하는것은 백범선생이 깊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백범선생도 〈정당협의회〉에 참여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방식이 매우 복잡하다는것은 저도 리해합니다. 그렇다 해서 일생을 지켜온 마음의 기둥을 허물어서는 안될줄로 압니다. 당파에 따라 뜻을 달지 말고 뜻에 따라 당파를 가려야 합니다. 나는 선생의 립장에 뜨거운 공감은 가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는데 대하여 숨기지 않으렵니다. 될수록 빨리 미국과 리승만파의 정책적차이를 선명하게 하는 정견이 선언되여야 합니다.

권력문제에서도 외세의존은 망국이고 사대주의는 치욕이라는것이 지난날의 공리공담으로 되여서는 안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주장을 더 높이 추켜들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선생의 리념과 주장에 가까운 세력이라면 모든것을 초월하는 아량을 보여

야 합니다.》
사리정연하고 애국의 열이 풍기는 정시명의 이야기에 김구는 한마디의 론박도 하지 못하였다. 다만 이따금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표시할따름이였다.
김구의 집에서 돌아오는 정시명의 걸음은 사뭇 가벼웠다. 그 인간의 뿌리, 아름답고 결바르고 아직도 싱싱한 그 뿌리를 확인한것이 흡족하기 그지없었다.
(그래, 백범은 백범이다. 그 인간이 이 나라의 통일력사에 아름답게 새겨지도록 최선을 다하자.)
며칠후 정시명은 김구에게 새로 족자를 마련하여 선물로 보냈다. 거기에는 다음의 시구가 정중한 필체로 새겨져있었다.

득민심 득천하
실민심 실천하

그것은 **김일성**장군님의 뜻이였다.
지난해 장군님께서는 정시명의 손목을 꼭 잡으시고 민심을 얻으면 천하를 얻고 민심을 잃으면 천하를 잃는다는것이 자신께서 지켜가는 평생의 좌우명이라시며 통일운동에서도 민심을 중시하라고 다심하게 일깨워주시였던것이다.

마침내 김구는 오래동안의 진통을 끝장내고 서울시안의 신문, 방송의 보도기자들을 경교장에 불러들였다.
그는 1층응접실에 발옮길 자리없이 꽉 들어찬 출입기자들앞에서 비장한 표정으로 쏘미량군동시철거와 남북총선거를 실시할데 대한 자기의 립장을 엄숙하게 선언한다고 웅글은 목소리로 선언하였다. 그리고는 안우생이 작성한 《남조선동포들에게 보내는 격문》을 자못 장중하게 발표하였다.
그는 자기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
미군주둔 연장을 자기네의 생명연장으로 인식한 몰지각한 도

배들은 국가와 민족의 리익은 념두에 두지 않고 박테리아가 태양을 싫어함이나 다름없이 통일정부수립을 두려워하고있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한몸의 구차한 안일과 권세를 추구하여 단독정권을 세우는데는 결사 반대한다. …》

정견발표가 끝나자 김구는 《한독당》의 이름으로 《정당협의회》의 취지를 승인하고 거기에 참가할것이라고 하였다.

그 다음날에는 김규식도 《민족자주련맹》이 정식으로 《정당협의회》에 망라되여 《단선단정》을 배척하여 투쟁할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렇게 되여 남조선정계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있는 13개의 정당이 하나의 세력으로 련합되였다.

정시명은 여기에 《13정당협의회》라는 이름을 붙이도록 하였다. 그리고 김구, 김규식의 방향전환을 환영하는 모임을 성대히 열어놓고 《단선단정》을 절대반대하며 쏘미량군의 동시철수와 남북총선거에 의한 통일정부수립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여 세상에 공개하였다.

이것은 《단선단정》음모에 박차를 가하고있던 미국놈들의 막후책동에 커다란 타격으로 되였다.

이에 대하여 남조선에서 출판된 《한국정당발달사》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있다.

《남조선단독선거에 대하여 〈한민당〉을 비롯한 우익진영의 각 단체는 열광적으로 환영하였으나 좌익계렬은 전적으로 반대하였다. 뿐만아니라 우익진영에서도 남조선에서 가장 규모가 큰 13개의 우익중간정당들의 모임인 〈13정당협의회〉가 〈단독선거〉반대를 결의한것이다. 이 모임에는 김구의 〈한독당〉과 김규식의 〈민족자주련맹〉도 늦게나마 참가하였다. 〈단선단정〉을 지지하는 세력은 약화되여 보잘것없는것으로 되였다. 〈단선단정〉의 합법성을 일관하게 추구하여온 미군정은 참으로 진퇴량난의 곤경에 빠지게 되였다.》

5

반동상층은 완전히 분렬와해되였다. 남조선의 우익세력을 하나의 매국분렬집단으로 재편성하여 제놈들의 영향권내에 규합하려던 미제의 야망은 분쇄되였다. 그러나 하지는 저들의 대조선정책이 만신창이 되였으나 물러서려 하지 않았다.

현지의 반동세력을 내세워 실현하려던 《단선단정》이 승산이 없게 되자 이번에는 미국의 독무대로 된 유엔의 힘을 리용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미국놈들은 비법적으로 조선문제를 유엔에 상정시키였다.

미국은 유엔의 감시밑에 인구비례에 따라 남북총선거를 실시할데 대한 결의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선거감시를 한다는 구실로 제놈들의 추종국을 기본으로 하여 구성된 《유엔조선림시위원단》이라는것을 파견할것을 제기하였다. 이리하여 1948년 1월에 미제어용도구인 《유엔조선림시위원단》이 남조선땅에 들어왔다.

이날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각지에서는 로동자들이 일제히 파업을 일으키고 학생들은 동맹휴학을 벌려 놈들의 입국을 반대하였다.

북조선은 성명을 발표하여 이 각설이무리들을 미국의 꼭두각시로 인정하고 그놈들이 38°선을 넘어서는것을 거부하였다.

미국놈들은 기다렸다는듯 즉각 유엔소총회를 열고 북조선이 유엔결정리행을 반대하므로 남조선에서라도 단독선거를 실시하고 거기에 전조선의 대표권을 줄데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여 《유엔조선림시위원단》은 남조선에서 단독정부수립과 관련한 유엔의 립장을 대변한다는 공식적인 사명을 띠고 서울에서 활동을 개시하였다.

미국의 단독선거강행계획이 유엔의 결정으로 채택되자 삼천리강산은 활화산처럼 타번지였다.

《유엔조선림시위원단은 물러가라!》 이 구호밑에 삼천만이

뭉쳤다. 남북인민이 분노하여 궐기하였다.

나라분렬의 위기를 의식한 남조선인민들은 드디여 2.7구국투쟁의 불길을 지펴올렸다.

이날 새벽을 기하여 남조선에서는 일제히 통신망이 마비되였다. 기관사들이 렬차에서 내려 렬차운행이 중지되였다. 봉우리마다 삼단같은 불길이 치솟아올랐다. 선조들이 외적과 싸울 때 사용한 봉화투쟁이였다.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하고 어깨겯고 거리를 누비였다. 농촌지역의 야산대들이 미군정기관들과 경찰서들에 대한 기습적인 공격을 들이댔다. 그들의 싸움은 마침내 빨찌산투쟁으로 장기전의 태세로 이전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지역적으로 자기 세력을 집결하면서 이름도 빨찌산으로 혹은 유격대로 고치였다.

《유엔조선림시위원단은 물러가라!》

남조선의 모든 애국력량이 이 구호를 들었다.

모든 애국자들이 이 구호에서 자기의 몫을 찾아냈다.

정시명조직에서도 결정을 내렸다.

…우리의 주되는 타격대상은 《유엔조선림시위원단》이다.

미제의 《단선단정》정책을 현지에서 명분을 세워주고 감독하는 이 어용기구에 직접적인 강타를 들이대자. …

정시명은 《유엔조선림시위원단》에 두명의 조직성원을 통역과 안내원으로 들이미는데 성공하였다.

그들은 정시명으로부터 위원단성원들에게 단독정부수립의 부당성을 납득시킬데 대한 과업을 받았다.

통역으로는 근로인민당의 4인조의 성원인 최성환이 나섰고 안내원으로는 김성수와 같은 《한민당》의 거물들도 눈아래로 보는 김증원이 나섰다.

최성환이 통역으로 된데는 《유엔조선림시위원단》의 인디아대표가 중간파인물도 저들의 사업에 망라시켜줄것을 요구한 사정이 있었다.

그들은 《유엔조선림시위원단》성원들을 집체적으로 대상하여 사업하기도 하고 개별적으로도 만나 공작을 벌리였다. 어떤 때는 그들을 《13정당협의회》가 조직한 시국토론회에도 끌고가서 이

나라 정계의 주의주장을 직접 듣게도 하고 어떤 날은 복덕방에까지 끌고가서 통일정부를 념원하는 일반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하게도 하였다. 그런 자리들에서는 이미 준비시킨 애국적인 민심을 대표하는 격렬한 론쟁을 벌려놓았다.

극비밀리에 남조선빨찌산대표와의 면담도 조직하였다.

박영수의 련락을 받고 나타난것은 백운산빨찌산의 유명한 녀대장 리점분이였다.

해방전에 남편과 함께 두살잡이 젖먹이를 시가에 맡겨두고 무장을 잡았던 그 녀자는 해방이 되자 산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충청남도일대에서 야산대를 조직하고 무장투쟁을 벌려온 녀성이였다.

남도에서 맨 처음으로 빨찌산투쟁의 기치를 든 부대의 대장인 그는 박영수의 련락을 받자 쾌히 응하고 서울에 단신으로 나타났던것이다. 리점분과의 상봉은 그들에게 매우 충격적이였다. 빨찌산대표가 온다고 하여 기골이 장대한 사나이를 그려보았는데 얼굴은 비록 볕에 타고 바람결에 거칠어졌어도 눈은 별처럼 빛나고 오똑 솟은 코마루며 선이 또렷한 입술이며 곱게 휘여든 반달눈섭이며 어느 하나 흠잡을데 없는 미인이였다.

정시명도 평범한 청중의 한사람으로 그 좌석에 참가했는데 세상에 소문난 남도의 녀걸이 이렇게도 아련한 미녀일줄은 생각밖이였다. 소문에 의하면 리점분은 자기의 정치위원이 실책을 범했을 때 사정없이 전사로 강직시켜 보총을 메고 다니게 했다가 직권을 회복시켜주었다 한다. 자기 남편과도 리혼했다는데 그것도 녀걸이라는 세평에 어울리는 희한하면서도 눈물겨운것이였다.

그의 남편은 부대의 작전참모로 용감하기로 이름난 사나이였다. 그런데 지휘부직속 소대의 녀동무와 몇차례 정찰에 나갔다오더니 정분을 나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어느날 리점분은 한 경찰서를 요정낸 끝에 승리를 축하하는 빨찌산식의 간소한 축하연을 차렸다.

축하연이 시작되였을 때 리점분이 불쑥 남편을 불러내여 자기 옆자리에 앉혔다. 그리고 직속소대의 녀동무도 불러내여 남편의 옆자리에 앉히였다. 당자들은 눈이 휘둥그래졌다. 좌석의 분위

기도 갑자기 팽팽해졌다. 규률위반에 대해서는 사정을 보지 않는 녀대장의 기질을 알고있는 참가자들은 그 무슨 벼락이 떨어지리라 생각하며 대장의 얼굴만 지켜보았다.

리점분이 좌중을 돌아보고는 큰소리로 말했다.

《동지들, 난 이자리에서 두가지를 선포하렵니다.

첫째, 나는 이 시각부터 리혼을 한다는것입니다. 난 사실 너무 바빠 벌써 오래전부터 안해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습니다. 웃지들 말아요. 그러니 동지들, 이분에게 책임을 묻지 말아주세요. 구실 못하는 녀편네이니 물러나는게 편한 일이지요.

둘째, 오늘부터 이 두분은 부부입니다. 난 이분들의 관계를 빨찌산식으로 처리하렵니다.

자 동지들, 우리의 승리와 두분의 행복을 위하여 축배를 듭시다!》

리점분은 자기가 먼저 잔을 들었다. …

이러루한 녀걸다운 일화를 수많이 휘뿌리고다니는 녀인이기에 정시명도 호기심을 가지고 그가 어떻게 처신하겠는가 기다려졌다.

그는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외국인들의 눈앞에 손가방에서 윤기가 알른거리는 장난감같은 작은 권총부터 내놓으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녀성입니다. 내게도 가정이 있고 애들도 있어요. 나는 총쏘기보다 떡빚기를 더 좋아한답니다. 그런데 노예살이를 더는 할수 없어 이 총을 잡았어요. 이 총은 우리에게 또다시 노예살이를 강요하는 미국놈들을 겨누고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협조하는 무리들도 겨누고있어요. 유감스럽지만 당신들도 우리의 과녁으로 되고있어요. 당신들이 만약 우리의 총탄을 받지 않으려면 총구앞에서 피하시는게 좋을것입니다.

그러자면 두가지 출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총구를 피해 물러가는것이고 둘째는 눌러있되 제 목소리를 내는것이라고 봐요. 원래 우리 조선사람들은 앞잡이노릇하는 놈을 제일 미워하지요.》

리점분은 그들에게 매력적인 미소를 남기고는 총총히 떠나갔다.

빨찌산녀대장과의 상봉은 외국인들에게 깊은 인상과 커다란 충

격을 주었다.

어느 한 대표는 뒤날에 쓴 회상록에서 자기는 리점분대장을 통하여 조선사람들을 비로소 잘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였으며 그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였다고 썼다.

정시명은 리점분과의 상봉에 참가한 그들의 동향을 관찰하면서 대표들과의 사업에 더 힘을 넣는것이 좋을듯싶었다.

하루는 김증원이 국일관에 쟝지에스의 대표 호세택, 인디아대표 메논, 오스트랄리아대표 잭슨, 수리아대표 까비를 안내하여왔다. 정시명이 직접 사업해보겠다고 불러낸것이였다.

술잔이 오가고 취흥이 오르자 정시명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우리 조선인민은 당신들이 이미 이 나라에 와서 체험하였겠지만 당신들의 입국을 환영하지 않으며 당신들에 대하여 좋아하지 않는다. 당신들이 이에 대하여 노여워할건 없다. 당신들은 마땅히 이 나라 인민의 민족적감정을 리해해주어야 한다.》

그러자 수리아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응대를 하였다.

《당신의 솔직한 이야기가 썩 마음에 든다. 우리는 당신의 주장을 듣고싶다. 나의 친구로 된 김선생은 당신의 견해가 이 나라 국민의 견해를 대변할수 있다고 하면서 오늘의 좌석으로 우리를 안내하여왔다.》

《조선은 당신들모두가 인식하고있는것처럼 약소국가이기는 하지만 조선사람들은 후진민족이 아니다. 우리는 벌써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항일전을 벌려왔고 대일전쟁에도 당당히 참가하였으며 일본의 항복을 선참으로 접수하고 자치권을 당당히 행사한 존엄이 있는 민족이다. 쏘련이나 미군의 대일참전이 없이도 우리 인민의 독립투쟁은 이미 승리하였을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쏘미량군이 동시에 즉시 철수할것을 요구하며 당신들이 바라는 남조선에서의 〈단독선거〉실시를 미국의 리해관계의 산물로 인정하고 견결히 반대한다.

당신들이 진실로 이 나라 인민의 친구로 되고 정의의 사도가 되고저 한다면 우리의 이 간절한 소망이 실현되도록 힘써주어야 한다.

당신들은 우리가 일치반대하는 〈단선단정〉을 돕지 말고 친일파를 숙청하고 민주주의를 보장하며 북조선과 같은 민주개혁들을 하도록 미군정과 교섭해주고 국제적인 여론을 이끌어내도록 해야 한다. 통일적이며 자주적인 독립정부는 우리자신이 만들어낼터이니 당신네들은 절대로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당신들에게서 바라는 최소한의 요구이다.

당신들은 남조선에서만 선거를 한 후 거기에 전조선적인 대표권을 주자고 하는데 이것이 초보적인 상식으로 봐도 정당화될수 있는가.》

정시명의 사리정연한 말에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런데 쟝지에스의 대표가 뚱딴지같은 의견을 제기하였다.

《며칠전에 우리는 〈서북청년회〉회장 문봉제라는 정치가를 만났다. 그들은 자기들이 북조선을 대표한다고 하면서 해방후 남으로 내려온 사람이 5백만이라고 하였다. 나는 그들이 선거에서 북조선국민의 의사를 대변할수 있다고 본다.

이것은 원칙적인 문제이다.》

이것은 미국과 리승만이 《단선단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들고나온 궤변이였다.

미군정청과 리승만은 남조선인구가 북조선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많으며 또 수백만이라는 월남자들이 북조선지역을 대표할수 있으므로 남조선에서의 《단선단정》이 전조선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떠들었다.

잠시 좌석은 잠잠해졌다. 외국인들의 호기심어린 눈길이 정시명에게 집중되였다.

정시명은 입가에 여유작작한 미소를 담고 그의 말을 받았다.

《당신은 무슨 근거로 남조선에 넘어온 북조선사람들의 수가 수백만이라고 하는가? 당신은 남조선에서 북조선으로 넘어간 사람의 수는 알고있는가?》

그러자 좌중이 술렁거리기 시작하였다.

정시명은 그에게로 다가가 술잔을 권하며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일본놈들이 패망한 후 북조선에서 일부 사람들이 도망쳐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수자는 남조선에서 〈단선단정〉을 감행하려고 날뛰는자들이 꾸며낸 허황한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꼭 알아야 할것은 이곳으로 도망쳐온 사람들의 절대다수가 친일파로서 숙청대상에 걸린 놈들이라는것이다.

당신이 만났다는 문봉제도 일제때 왜놈의 군대에 군량미를 삼천석이나 헌납한 친일지주로서 개천에서 해방후 〈서북청년단〉이라는 깡패무리를 거느리고 못된짓을 하다가 덜미가 잡히자 도망쳐나온 놈이다. 당신들 국민당도 마오쩌둥과 함께 항일전쟁을 한바가 있는데 당신들은 일본놈들의 앞잡이들을 어떻게 처리하였는가.

우리가 당신들의 일거일동을 지켜보면서 섭섭하게 생각하는것은 당신들이 우리 민족가운데서 한줌도 못되는 인간쓰레기들과 대상하면서 우리 민족의 장래를 론하고있는것이다.

친일파는 조선의 어느 지역에서도 대표권을 행사할수 없다. 이것은 당신들도 인정하는바가 아닌가.》

정시명이 엮어나가는 설득력있는 이야기는 대번에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제까지 미제의 장단에 춤을 추어온 그들은 신선한 충격을 느끼며 앞을 다투어 정시명에게 잔을 내밀어 사의를 표하였다.

오스트랄리아대표 잭슨은 정시명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까지 청하고 이렇게 동감을 표시하였다.

《남하한 사람들의 통계수자는 미군정청에서 보았지만 북조선으로 간 사람들의 수는 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당신말과 같이 남하한 사람들이 친일파들이라면 그들이 북조선지역을 대표할수 없다는것은 더 말할것이 없고 설사 그들의 가족이 북에 남아있다고 해도 그 가족들의 의사조차도 대표할수 없다.》

인디아대표 메논이 끼여들었다.

《당신은 〈립법의원〉에서 내놓은 〈선거법〉을 함께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립법의원〉?… 당신은 〈립법의원〉의 성격을 알고있는가?》

《당신들의 림시국회로 알고있다.》

《〈립법의원〉의 구성을 따져보라. 다수가 친일파로 지탄을 받

는 인물들이다. 원래 〈립법의원〉은 이 나라 민중의 의사가 아니라 미군정이 선택한 인물들로 조직된 기구로서 립법기능을 행사할수 없다. 여기에 미군정이 〈립법의원〉을 선출하는 놀음에 관여한 나의 벗들이 참석했는데 그의 합법성을 거론할 여지가 없다고 인정하고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군정이 〈립법의원〉의 이름으로 내놓은 〈선거법〉을 인정할수 없고 따라서 다시 론의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최근에 〈립법의원〉의장인 김규식선생마저 〈단선단정〉을 반대하여 〈13정당협의회〉에 정식 가입하였는데 이것이 이 나라의 량심이다.

나는 다시금 당신들에게 이 나라의 국민의 한사람으로 호소한다.

당신들은 독립국가의 당당한 대표들이다. 미국의 거수기가 되여 대표국의 존엄에 오점을 남기지 말고 이 나라 인민의 벗이 되여 좋은 추억을 남겨주기 바란다.》

정시명이 절절한 호소로 이야기를 끝내자 좌석에서는 우렁찬 박수가 오래동안 그치지 않았다.

이날의 술좌석은 미제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이던 대표들에게 남조선의 정국을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해보게 한 계기로 되였다.

물론 정시명은 《유엔조선림시위원단》의 구성으로 보아 미제의 어용도구로서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그 내부에 모순을 조장시켜 미국놈들의 정책적지휘에 혼란을 빚어놓으며 미제의 식민지적야망을 전세계에 폭로하려는데 사업의 목표를 두었다.

후날 정시명은 다음과 같이 썼다.

《그들속에서 좋은 결정이 나오거나 이미 채택된 유엔결정이 취소될수는 없다. 그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하였다.

한사람이라도 이 나라의 참목소리를 듣는다면 나쁠게 없다는것이 우리의 생각이였다.

우리의 판단에는 그들이 이 나라에도 미국에 저항하는 참다운 애국자들이 살아있으며 이 땅의 량심과 존엄을 지켜나선 지성이 억눌려만 있지 않다는것을 깨달은것 같았다.》

정시명의 판단은 정확하였다.

숙소로 돌아간 그들은 밤새도록 이날에 오고간 이야기들을 가지고 저희들끼리 론쟁을 다시 벌려놓았다.

오스트랄리아대표 잭슨은 김증원에게 이렇게 자기 심정을 토로하였다.

《우리는 결정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제기된 문제들을 유엔소총회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움직일뿐입니다.

짐작컨대 유엔으로부터 곧 단독선거를 촉구하여올것입니다.

우리가 금후 분별있게 처사를 하리라는데 대하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후부터 미국놈의 조종밑에 움직이던 꼭두각시들은 《동작》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삐걱거리기 시작하였다.

자기 대표들의 보고를 받은 카나다와 오스트랄리아는 유엔무대에서 공식적으로 《단독정부》계획을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며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극히 위험천만한것이라고 평가하고 반대의사를 표명하게까지 되였다.

그밖에 우크라이나는 물론 인디아, 수리아정부도 공식적인 반대립장을 표명하였다.

미국이 유엔무대의 막뒤에서 갖은 수를 다 꾸몄으나 이들의 목소리는 날을 따라 더 커가기만 하여 미국의 우방국들인 스웨리예, 노르웨이, 단마르크, 꼴롬비아, 사우디 아라비아, 에짚트 등 11개의 나라들도 기권으로써 미국의 정책에 도전하였다.

《유엔조선림시위원단》은 9개의 참가국중에서 5개의 참가국이 공식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나머지의 대표들도 유엔결정에 대해 량심적인 재평가를 내리기 시작했으므로 종전처럼 활기를 띠지 못하였다.

미국놈들은 하나의 모략문건을 채택하기 위하여서도 숱한 돈을 뿌려가면서 회유와 기만, 협박과 공갈 등 갖은 술책을 다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리하여 《유엔조선림시위원단》은 1월말까지 조선에서 총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세부일정을 현지에서 확정하여 유엔소총회에 보고할데 대한 자기 임무를 수행할수 없었다.

제4장
역풍을 누르고

1

하지는 당황하였다.

국무성과 국방성에서는 련일 급보가 날아왔다.

《불을 끄라.》

《반미구호를 바꾸게 하라.》

《게릴라전을 분쇄하라. 무조건 철저히!》

이미 료원의 불길이 된 무장항쟁은 미국을 겨냥하고있다. 미군을 반대하는 불길이고 미군정을 반대하는 불길이며 미국의 조선정책을 반대하는 불길이다. 아직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도 반미구호가 이처럼 열광적으로 환영받고있는 례가 없다. 아직 세계의 어느 지역에서도 반미항전이 이처럼 열화같이 타오른 례가 없다.

마샬이 껑충 뛰고 트루맨이 아연실색하였다. 남조선은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평화의 사도》로서, 《해방자》로서, 《구세주》로서의 미국의 가면을 세상의 면전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리고있는것이다.

현지를 답사하고난 맥아더의 정치모사군인 애치슨은 하지의 앞에서 쓴입만 다시다가 종내 신통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도망치듯 달아뺐다. 애치슨은 이렇게 생각했다.

(불은 네가 지르고 오라는 내가 질수야 없지.)

애치슨은 약바른 정치가이다. 아니, 현명하게 사고하는자라고 봐야 할것이다.

하지는 그 모든 치닥거리를 안고 계속 수세에 몰려돌아가자니 가뜩이나 작은 머리가 한줌만큼 졸아들었다.

그는 브라운과 측근들을 불러들여 밤가는줄 모르고 연방 커피잔을 갈아대며 모의를 벌렸다.

두가지 문제에서 락착을 보았다.

우선 정치적인 방법으로 치안을 확보하는것이다. 현단계에서 민

중의 분노를 달래는 방향에서 《단선단정》구호는 일시 뒤전에 밀어놓기로 하였다. 그리고 시간을 끌면서 명분을 만들어내도록 하였다. 다음으로는 남조선사회의 좌경화를 촉진시키게 될 야산대들의 장기전을 무자비하게 분쇄해버리는것이다.

정치적책략은 브라운의 몫으로 넘어갔다. 군정청업무에서 마지막과제라는 담보를 받고 이 과업을 맡았다. 하지는 군사적평정을 직접 맡았다.

하지는 곧 야산대에 대한 공세작전을 위한 관계기관장들의 회의를 소집하였다.

여기에는 남조선주둔 미군사단장들과 하지의 정보고문 노불이 참가했고 류동명과 송호정도 끼였다. 치안국과 사법기관의 우두머리들도 참가하였다.

하지가 첫 발언을 하였다.

《우린 남조선전역에서 벌어지고있는 야산대활동이 장기적인 게릴라전으로 이행하고있다는 명확한 정보를 쥐고있소. 치안국에서는 지난해 야산대활동을 봉쇄하기 위해 많은 희생을 내였지만 실패하였소. 더는 치안상의 문제로 방임할수 없소. 사태를 그냥 두면 남조선은 북에 의한 공산화가 아니라 자체의 좌익세력에 의한 공산화를 면할수 없소. 모조리 쳐갈겨야 하오. 무자비하게 철퇴로 짓뭉개버려야 하오. 그러므로 나는 주둔군사령관으로서 야산대에 대한 평정작전을 담당할 군경합동〈토벌〉사령부를 조직할것을 결심하였소.》

하지가 여기까지 말하자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던 방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는 좌중을 휘둘러보았다. 첫눈이 가는것은 송호정과 그옆에 나란히 앉아있는 류동명이였다. 군대파견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제일 불만을 품고있다는것을 알고있는 하지였다.

아니나다를세라 자기를 쳐다보는 그들의 눈길이 례사롭지 않다. 류동명은 헛기침을 몇번 캉캉거리더니 인차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는데 송호정은 사나운 눈초리로 자기를 그냥 쏘는듯이 바라본다. 한동안 그들사이에는 적의에 가까운 눈싸움이 벌어졌다.

하지는 네속 내 알고 하는 일이니 마음쓸바 아니라는듯 그에게서 먼저 눈길을 거두고는 보다 큰소리로 말을 이었다.

《〈토벌〉대사령관으로서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국방경비대 총사령관을 임명하며 참모장으로는 치안국장을 임명하기로 하였소.》

순간 송호정은 몸을 흠칫거리였다. 입술에 바르르 경련이 일었다.

《내가?!》 그는 목구멍까지 치미는 울부짖음을 참느라고 아래입술을 꾹 깨물었다. 속에서는 세찬 바람이 일어번졌다.

(내가 〈토벌〉대사령관이라니… 이런 치욕을 내가 받아안다니… 네놈들이 이 송호정을 어떻게 하자는거냐. 네놈이 나를 지금 어떤 일에 목을 매여 끌어넣었느냐. 안돼, 안돼. 백번 죽어도 이 송호정은 동포를 〈토벌〉하는 만고역적은 안될테다.)

송호정은 벌컥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소리치고싶었다.

그런데 옆에서 송호정의 눈치를 보고있던 치안국장이 그가 끝내 일어날 기색을 보이지 않자 일어났다.

그는 방안의 팽배해진 공기를 의식한듯 《신임에 보답하겠습니다.》 하고 재빨리 말해놓고는 자리에 도로 앉았다.

송호정은 그에게로 열기가 번득거리는 눈길을 보냈다.

(신임이라니?!… 저놈이 제정신 가지고 하는 소리냐. 그래도 독립군에서 일본놈을 향해 총탄을 날렸다는 놈이 민중도살지령을 신임이라니 저게 쓸개빠진 놈이 아닌가. 신임이란 뭐냐. 미국놈들이 믿어준다는것이냐. 보답이란 또 뭐냐. 저놈들이 부르는대로 동포들의 목을 베겠다는건가. …)

송호정은 여럿의 송곳끝같은 눈길이 자기의 얼굴에 와 박히는것을 느끼고는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속은 그냥 와글와글 끓기만 하였다.

(내가 고개를 숙이는구나. 이 못난이… 고개를 숙이는구나. 동포를 해치려는 이방무리들앞에서 왜 고개를 숙이느냐. 쟝지에스앞에서도 할 소리는 해대던 무사의 기개는 어느 시궁창에 처박고 쭈그러진 우상만 남았느냐.

아, 천하의 저주를 내가 몰아안게 되였으니 이 일이 장차 어

떻게 번져질가. 송호정, 너도 이젠 끝장이다.)
송호정은 그후 어떻게 하지의 방에서 나와 그놈의 《친절한》 바래움까지 받으며 사령부에 왔고 다시 집으로 들어섰는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앞을 막아서는 안해를 밀친 다음 위스키 한병을 제 손으로 찾아 단숨에 마셔버리고 어떻게 침대에 쓰러졌는지도 모른다.
《난 지금껏 겨레앞에 죄지은게 없어. 그러니 더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젠 더는 살아남을 의미가 없어졌다. 아니, 산다는것이 범죄로 되게 되였어.》
송호정은 이렇게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안해에게 권총을 가져오라고 호통을 쳤다. 안해가 총탄을 날쌔게 뽑아내고 가져다주자 서슴없이 이마에 대고 방아쇠를 당겼다. 그리고는 총을 던져버리고 미칠듯이 울기 시작하였다.
아이들이 달려와 울며불며 매달렸다. 안해는 영문을 모르면서도 그 어떤 비상한 사건이 벌어졌다는것을 짐작하고 정신없이 헤덤비며 남편을 진정시키느라고 했다.
살아오며 처음 보는 남편의 광기에 슬피 울며 매달렸으나 송호정은 그 눈물, 그 울음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였다.
《내가 〈토벌〉대사령관이야? 하하하… 젠장, 〈토벌〉대는 또 무슨 〈토벌〉대야. 쪽발이새끼들처럼 하하, 이름도 더럽지. 〈토벌〉대사령관이라…》
송호정은 아이들이 달라붙는 바람에 자리에 누웠다가는 다시 벌떡 상반신을 일으키고는 소리치고 울고 하였다. 그렇게 몇번 거듭하더니 기력이 진한듯 눈을 감고 중얼거리다가 잠들어버렸다. 새벽무렵에야 가슴에 불이 이는듯한 갈증에 깨여났다.
《아, 물! 여보, 나 물 좀!…》
안해가 물사발을 가지고 들어온다. 그런데 남자의 소리가 들린다.
《아주머니, 인주시오.》
(가만… 내가 지금 어데 와있나?…)
송호정이 그제야 눈을 떴다. 눈물이 자욱한 안해의 얼굴이 아슴푸레 보였다.

(젠장 울기는… 뭣때문에 눈물을 흘린담. 저 사람은 눈물이 너무 많다니깐… 물이나 빨리 주오. …)

송호정이 손을 내미는데 정작 다가오는것은 안해가 아니라 정시명이다.

(가만, 저 량반은 어떻게 내 방에 와있나?)

《마시게.》

정시명이 이마살을 찌프리고 물사발을 입술에 대준다.

송호정이 벌떡 상반신을 세워가지고 물을 받아 마시였다. 가슴이 시원하게 열리였다. 정신이 버쩍 들었다.

《이 사람, 이 무슨짓인가?》

정시명이 꾸짖었다. 밤중에 송호정의 처가 맏이를 데리고 달려왔었다. 그래서 야밤에 뛰여와서 지금껏 송호정의 머리맡에 앉아있었던것이다.

《내가 어쨌기에. 허허…》

송호정이 무슨 일이 있었냐는듯 정시명과 안해를 번갈아보다가 웃었다.

《여보, 당신 지금 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송호정의 처가 어이없어 눈살이 꼿꼿해가지고 짭짤하게 물었다.

《허허, 참.》

송호정이 또 싱거운듯 소리내여 웃었다.

《당신 그렇게도 생각나지 않으세요. 〈토벌〉대요, 사령관이요 했는데 그렇게 생각없이 하신 말씀인가요? 눈물까지 뚝뚝 떨구며… 원 참!》

《뭐?!》

그만에야 송호정은 술기운이 싹 지워졌다.

하지의 방에서 벌어진 일들이 언뜻 뇌리를 스쳤다.

안해의 눈빛도 깔끔해지고 정시명의 눈도 예민하게 번쩍거렸다.

송호정은 급기야 꺾어질듯 고개를 툭 떨구었다.

《정형, 자네가 옳았네. 끝내 이 송호정에게 국민전쟁의 지휘봉이 차례졌네. 날 좀 도와주게. 어쩌면 좋은가. 엉, 정형!》

《호정, 좀 차근차근 말해주게. 어찌된 감투끈인가?》

정시명이 이렇게 말하자 송호정의 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기가 더 앉아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것이다.

《아주머니도 나가지 마십시오. 함께 듣고 의논을 합시다. 주인 신상에 중대한 일이 벌어진것 같은데 아주머니도 아셔야 할 일이 아닙니까.》

정시명이 그 녀자도 자리를 같이하는게 좋을듯싶어 이렇게 말했다.

송호정이 어제 있었던 일들을 뜨직뜨직 이야기하였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제 나가서 당장 사직서를 내기는 하겠는데…》

송호정은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마치였다.

《그래도 자네휘하의 군대가 〈토벌〉에 나설게 아닌가. 그리고 첫번째 〈토벌〉대사령관이라는거야 면할수 없지 않나.》

《역적의 오명이야 피로써 씻어야지.》

《자네의 해결책은 너무 간단하구만. 옷은 벗어버리고 이마에 연덩이를 박아넣으면 자네의 명예는 깨끗해질수 있다 그 말인가? 자넨 언제부터 자기만을 생각하는 비렬한이 됐나?》

《뭐라구?… 제발 날 모욕하지 말게. 내 지금 제정신인줄 아는가.》

《그래서 하는 소리야. 제정신을 찾아야지. 우리가 나라잃고 집떠나 죽음도 겁내지 않고 뛰여다닌게 그래 제 한몸 향락이나 명예를 위함이였던가?》

《여보게, 날 자꾸 몰아대지 말게. 난 지금까지 내 할바를 하느라고 했어. 나라앞에서 나이상의것을 바쳐왔어. 그러나 이젠 대세는 내 손에서 벗어났네. 이 송호정이 더는 필요없게 되였단 말일세. 그러니 내가 구태여 제자리 지키느라고 어정거릴게 없지 않는가. 이제 내 필사의 몸부림을 해봐야 바위에 닭알던지기야.》

《이보게, 마음을 가라앉히게. 아주머니, 물 두사발 더 갖다주시오.》

두사람사이에 오가는 이야기를 가슴을 조이며 듣고있던 송호정의 안해가 얼른 일어나 물 두사발을 다반에 들고왔다.

《한사발은 주인께 드리시오.》

정시명도 송호정도 물 한사발씩 꿀꺽꿀꺽 마시였다.
《정신이 드나?》
《어서 말을 하게.》
《난 자네에게 길게 설명을 하지는 않겠네. 다만 자네가 자기 자리를 지켜줄것만 바라네. 객기는 부리지 말구.》
《뭐요, 〈토벌〉대두목자리를?!》
《그럼.》
《아니, 난 못하겠네. 객기가 아닐세. 어차피 내 자리에서는 미국놈들의 장단에 춤을 추게 되여있네. 지금까지는 그래도 도전해왔지. 난 이제야 그것이 하나의 망상이고 궤변이고 자기의 존재에 대한 보호술에 불과하다는걸 똑똑히 깨달았네.》
《난 바로 자네가 그걸 깨달았기에 계속 남아있기를 바라는걸세. 만약 자네가 물러나고 그런 량심조차도 없는 그야말로 미국놈개가 타고앉는다면 민족이 당하는 재난이 얼마나 더 크겠는가. 도대체 이 나라의 애국자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자네처럼 일신의 명예나 지켜 그렇게 보신하고 은둔해버리면 경각에 다달은 나라의 분렬은 누가 막으며 외세는 어떻게 쫓아낸단 말인가. 문제는 어디서 복무하는가가 아니라 어디에 복무하는가 하는것이야.
민중, 민중! 첫째도 둘째도 우리의 복무는 겨레에게 바쳐져야 할것이 아닌가.》
《그럼 북조선에 복무하라는건가?》
《그건 자네의 신념대로… 나는 강요하지 않겠네. 자네가 씹어보고 쓰면 뱉는것이요, 달면 삼키는것이지. …
하지만 내 진심으로 바라는건 자네도 **김일성**장군님을 따르는 길에 함께 나서주었으면 하는거야.》
《나도 이따금 북조선방송을 듣지. 김장군의 연설도 듣고… 물론 그분의 말씀은 다 지당해.》
《그렇다면 망설일것이 무언가. 난 이미 장군님을 만나뵙고 그분의 통일조국건설의 높은 뜻을 받들겠노라 맹세를 다진 사람이야. 뜻을 합쳐주게.》
《정형이?!》

송호정이 소스라치듯 놀라며 부르짖었다.

《장군님께서는 말씀하셨네. 강토의 분렬을 용인한다면 우리 동시대인들은 공산주의자이건 민족주의자이건 력사의 죄인으로 전해질것이라 하셨네. 장군님께서는 내 이 두손을 꼭 잡으시고 간곡히 말씀하셨네. 외세가 없고 평화롭고 자주적인 인민의 통일국가를 세워 삼천리강토우에 인민의 락원을 세우자, 겨레앞에 애국자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자… 이렇게 말일세.

난 장군님의 뜻을 선뜻 나의 리념으로, 한생의 목표로 받아안았네.》

《그렇다면?…》

《두 길이 있네. 장군님을 따르는 길은 애국애족의 길이고 다른 길은 매국배족의 길이야.

호정, 나와 함께 동지가 되여 애국의 길, 애족의 길을 함께 걸읍세. 난 이게 소원이야.》

《정형!》

송호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호정!》

정시명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송호정이 와락 정시명을 끌어안았다.

《진작… 진작 말해줄것이지. …》

송호정이 눈을 슴벅거리며 중얼거리였다.

두 친구들이 서로 얼싸안고 뜨겁게 달아오른 심장을 비비자 더욱 기뻐한것은 송호정의 안해였다. 그 녀자는 붉은감 한바구니를 들고와서 웃고름으로 연신 눈귀를 닦으며 말없이 그들앞에 내놓고 방에서 나갔다.

《나를 받아주게. 장부일언 중천금이라 어찌 일구이언을 하겠나. 내 열백번 형장의 이슬이 될지라도 겨레를 위하여 의롭게 죽겠네.》

《그래, 나도 이젠 자넬 놓아주지 않겠네. 절대로.》

정시명은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턱을 들고 큰소리로 웃었다.

송호정은 웃지 않았다. 놓으면 다시 잡아보지 못할가봐 걱정되여서인지 그저 힘을 주어 정시명의 손목을 그악스레 잡아쥘뿐이였다. 그러나 그의 눈만은 웃고있었다. 가느스름한 눈시울이 들리

고 그밑에서 맑은 눈이 고요히 빛나고있었다.

정시명은 그 눈에서 송호정의 마음을 재빨리 읽고있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보람을 잃은채 행복에 대한 막연한 갈망으로 하여 우수가 비껴있던 그 눈에 따뜻하고 청신한 봄기운이 약동하고있다. 래일에 대한 불안도 가슴을 지지리도 태우던 자기 운명에 대한 불만도 찾아볼수 없다. 정시명은 고뇌와 절망이 깨끗이 지워진 그 맑은 눈을 보는것이 더없이 반갑고 행복하였다.

서울에 온 때로부터 늘 마음 한구석에 송호정의 그림자가 무겁게 드리워 속을 태우게 했는데 비록 그사이에 두해 가까운 세월이 야속하게도 가로질러갔건만 한시름이 풀렸다.

이런 인간은 다른 길에 들어설수 없다. 벗들앞에서 보석같은 량심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은 나라앞에서도 곱게 살기마련이다.

친구의 진정을 끝내 믿어의심치 않고 이날을 기다려온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냐.

(아, 좋구나! 이같은 행복을 맛볼수만 있다면 내 열백밤을 패운들 무슨 고됨이 있고 백천번 쓰러진들 무슨 한됨이 있으랴.)

부지중 정시명은 사개가 풀린듯 열에 떠서 소리질렀다.

《이보게, 한바탕 겨루어보자나?》

《엉? 좋지!》

둘은 끌어안고 허리를 굽히더니 방안을 빙글빙글 돌아가기 시작하였다.

두사람은 다 씨름에 조예가 있다. 황포군관학교에서 정규적인 교련을 받은 송호정도 만만치 않고 마동열한테서 격술을 배워둔 정시명의 솜씨도 짝지지 않는다. 둘은 황포강기슭의 모래불에서 맞붙어본 일이 있다.

그러나 이제는 세월이 퍼그나 흘렀다. 서로 수를 써보려고 상대방의 약한 구석을 노리며 헛다리질도 해보고 바지끈을 지그시 당겨 상대를 무릎우로 들어보려고 하지만 생각처럼은 되지 않는다. 얼마 시간이 흐르지 않았는데도 두사람은 인차 맥이 진하고 숨이 차서 헐떡거리였다.

이때 송호정의 안해가 잣죽을 쒀가지고 들어왔다. 그는 귀밀

머리가 희슥해지는 사람들이 끌어안고 돌아가는것을 보자 《에그머니, 이 량반들이!…》 하고 비명을 내질렀다.

《그만둬요!》

기쁨과 념려가 압축된 그 새된소리에 두사람은 약속이나 한듯 《엉?!》 하며 화닥닥 놀라 손을 놓아버렸다. 그바람에 둘 다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하하하…》

방안에는 사나이들의 장쾌한 웃음소리가 우뢰처럼 터졌다.

《호호호…》

송호정의 안해도 허리를 꼬부리고 즐겁게 웃는데 눈귀에 쌀알만한것이 돋혀 반짝거린다.

셋은 노르무레한 잣죽을 맛나게 먹었다.

정시명은 곧 군부상층에 유력한 조직망을 구성하고 책임자로 송호정을 임명하였다.

송호정의 련락은 마동열이 하기로 하고 필요한 때는 그의 처도 나서기로 하였다.

며칠후 정시명은 마동열의 아지트인 을지로입구에 있는 크로바차점에서 그를 소개하였다.

송호정은 입술이 두툼하고 시커먼 눈섭이 왕붓처럼 굵고 뼈대가 실한 마동열을 보자 대바람에 마음에 쑥 들어하였다.

《아까운데…》

송호정이 마동열이 부어주는 잔을 받아들고 롱조로 말했다.

《뭘 말인가?》

《이 사람은 내밑에 와있었어야 할 큰 장수감인데…》

《허허… 욕심은 젠장… 지금은 뭐 장수질을 하지 않는줄 아나.》

정시명이 껄껄 웃는데 당자는 시치미를 떼고 천연스럽게 《하기는 제게도 송선생님의 장군복이 어울릴것 같습니다.》 한다.

《원 무슨 소리. 이건 개껍데기야. 부러워할만한 일고의 가치도 없는 물건짝이지.》

송호정이 정색하여 팔을 내젓는데 정시명이 몸을 흔들며 껄껄 웃었다.

《개껍데기라니요?》

마동열이 의아스러워 물었다.
《자네 어른께 물어보라구.》
송호정이 이렇게 능명스럽게 대답해놓고는 정시명을 따라 몸을 크게 흔들며 웃었다.
정시명이 한참 웃고나서 말을 이었다.
《그런데 서로의 관계를 명확히 가지고 일관시켜야 하겠네. 마동무가 앞으로도 자네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계속 찾아다닐수야 없거든.》
《딴은 그래.》
《자네들의 호상관계를 삼촌과 조카사이로 하게.》
《옳네, 그럴듯해. 음, 앉은자리에서 장수같은 조카를 얻었군. 그러면 정형과 우리 조카의 사이는 어떻게 하지?》
《우리 사이?… 그렇지. 자네앞에서 동열이와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한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정시명의 눈가에 언듯 미소가 어렸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던것이다.
《나와 동열이와의 관계는 장인과 사위관계로 두지.》
《네?!》
그 말에 마동열이 단박에 얼굴이 새빨개지며 당치않은 소리라는듯 고개를 흔들었다.
《안됩니다. 안됩니다. 아무리 위장이라 해도…》
송호정이 마동열의 행동이 이상스러워 《내 생각에는 좋을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우리 조카가 바빠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하고 물었다.
정시명이 마동열의 숫진 모습을 보며 즐겁게 웃었다.
《까닭이 있지.》
청높은 정시명의 웃음소리가 커갈수록 마동열은 더욱 어쩔줄 몰라한다.
얼마전에 민순임은 마동열과 혜영을 말이 난김에 결혼식을 차려주는것이 어떠냐고 박정인에게 말을 비친적이 있었다. 정시명에게 이야기하면 지휘부일에 참여한다고 당장 불호령을 내릴가봐 박

정인을 통해 말이 들어가도록 했던것이다.
박정인이 그 말을 제 소리처럼 정시명에게 전했으나 가타부타 대답이 없었다. 정시명은 이야기가 민순임에게서 나왔으리라는것을 짐작하고 그날 저녁상을 물리며 한마디 하였다.
《지금이 어느때라고… 변변한 싸움도 치르지 못했는데…》
그때 일이 생각나 여전히 웃는 얼굴로 속구구를 쳤다.
(그래 이제 벌어질 싸움은 해볼만 한것이렷다. 잘 치른 다음 너희들 문제도 락착을 짓자.)
《그럼 난 자연히 정형과 사돈간이 되겠네. 아, 생각나네, 생각나. 자네네 례영이가 있지. 례영이 서울장안에 보기 드문 처녀이기는 하지만 우리 조카야말로 서울장안에서 일등짜리 신랑감이지. … 아, 그렇군. 하하하…》
송호정이 그제야 정시명의 엉큼한 생각이 건너짚이여 또다시 큰 몸을 들썩거리며 폭소를 터뜨렸다.
뜻하지 않게 펼쳐진 웃음판에 어울려들었던 정시명은 문득 떠오른 생각에 가슴이 알찌근해왔다. 혜숙이네 문제였다.
며칠전에 박정인이 때없이 찾아왔다.
《이거 큰일이 났습니다.》
박정인이 이렇게 대포부터 한방 쏘아 상대방을 놀라게 해놓고 말을 꺼냈다.
《거, 혜숙이네 문제 있지 않습니까.》
《혜숙이네 문제?…》
정시명은 요란스럽게 시작된 박정인의 이야기에 저으기 긴장되였다가 그만 웃고말았다.
그러나 박정인의 낯색은 여전히 신중하다.
《아, 웃으실게 못됩니다. 전일에 선생님주신 공작을 냅다밀자니 그 사람이 지금… 야단났습니다.》
정시명이 또다시 소리내여 웃었다. 일전에 권혜숙의 제기를 정시명은 심중히 생각하였다. 권혜숙이 시원스러운 그 성미에 길철과의 관계를 놓고 두루 처신하기가 조심스러워 그런 제기를 하여온것 같았다. 그래서 거처지는 옮겨주되 우선 길철과 결혼시켜 살

림을 펴게 하자고 박정인과 상론하고 될수록 빨리 결혼식을 차려주자고 《공작》을 맡겼던것이다. 그런데 박정인의 거동을 보면 정말 야단스러운 문제가 생겨 《공작》이 난관에 부닥친 모양이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무슨 애로가 생겼습니까?》

《아, 글쎄 신랑쟁이가 신부를 멀리하는것 같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길동무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정시명이 깜짝 놀라 이렇게 큰소리로 박정인의 말을 가로챘다.

《하, 그럼 어디 정선생님이 만나보십시오. 어참, 로총각 견마잡히기 쉽지 않다더니…》

박정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물러가자 정시명은 하던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믿어지지 않았다. 길철이 혜숙이를 마다하다니 그게 말이 되는가. 권혜숙이 례영이와 세워놓으면 인물맵시야 따라가련만 혜숙은 그대로 아름답고 정이 가는 처녀다. 매사에 씨원씨원해서 우선 마음에 든다. 무슨 일이 차례져도 군말이 없다. 더구나 그가 부모까지 다 버리고 길철에게 몸과 마음을 의탁하고있는데 이게 무슨 괴이한짓이냐.

그래서 혜숙이 예서 내보내달라고 했구나. 도대체 길철이 어쩌자는건가. 처녀의 순정을 깡그리 앗아내고는 이제 와서 헌신짝버리듯 하면 혜숙은 어찌되고 저는 또 뭐가 된다는건가.

내가 집안단속을 너무도 소홀히 했구나. 어째 이제 와서야 이런 일이 내 귀에 들어오는가. …

정시명은 만사를 젖히고 이 문제부터 풀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길철을 찾아 떠났다.

두사람은 저녁노을 비낀 한강변을 천천히 걸었다.

《어찌된 일이요. 길동무?》

첫마디부터 정시명은 엄하게 따지고들었다.

길철은 처음에는 정시명의 엄한 표정과 추궁에 떨떨해진듯 그를 멍하니 쳐다보기만 하였다.

《말하오. 속이 짚이는게 있을게 아닌가. 혜숙이를 어떻게 한다구?》

정시명의 입에서 혜숙의 이야기가 나오자 길철은 피씩 웃기부터 하였다. 그리고는 뒤덜미에 손이 올라가더니 간단히 대답하였다.

《너무 개의치 마십시오.》

《무슨 소리요? 길동무, 저기 좀 앉았다 갑시다.》

정시명이 성이 나서 버드나무밑에 있는 나무걸상으로 먼저 씨엉씨엉 걸어갔다.

그들은 잠시 말없이 노을빛이 자글자글 끓고있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석양에 훈풍을 받아 잔물결이 춤추듯 아롱거리는데 물오리들이 한가롭게 떠돌고있다. 그것들은 물속에 곤두박히며 작은 물고기를 물고나오기도 하고 몸뚱이를 열심히 다듬기도 하다가는 물을 차고 하늘에 날아오르기도 한다. 그럴 때면 잔잔한 수면우에 비구름과도 같은 가느다란 은띠가 일매지게 뻗어간다.

그 아름다운 풍치가 지금 그들에게는 아무런 흥취도 주지 못하였다.

《혜숙이 집을 나가겠다고 제기해왔소. 이래도 개의치 말아야 할 일이요?》

정시명은 추궁조로 물었다.

《집에서 내보내도록 하십시오. 그 동문 이제 자기가 일생을 맡길 좋은 벗을 찾게 될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소?》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저 우린 피차에 갈라지는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을듯싶을뿐입니다.》

《그래 두사람이 합의를 본거요?》

《글쎄… 그렇다고 봐야지요.》

길철의 목소리는 젖어있다. 강물을 굽어보는 그 눈길에 형언할수 없는 애수가 어려있다.

정시명은 저도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갑자기 전신의 맥이 쭉 빠지는듯싶다.

필경 그들사이에 상당히 깊은 골이 패인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한해전에 자기가 데리고와서 애인이라고 서슴없이 소개를 하고 인사를 시키던 사람이 이렇게 딴소리를 할수 있는가. 내가 이들사이가 이

렇게 벌어질 때까지 너무도 무관심했구나. 이제는 정말 내가 개의할 문제가 아니라는건가. 이들의 사랑이 우리의 관심을 떠나갔는가?

정시명은 다시한번 길게 숨을 내쉬였다. 더 캐여묻지 않았다. 따져야 이 사람의 가슴만 허벼놓을듯싶다.

사랑이란 마음과 마음의 결합이라고 한다. 사랑이란 감정의 불꽃이다. 그건 리성에 앞서는 개념이다.

정시명은 돌아오자 인차 권혜숙의 거처를 옮기도록 하였다. 안지생이 자기 조직성원의 집을 알선하였다.

처녀는 떠나가며 몹시 울었다.

그런데 그 뒤소리가 정시명의 귀에 아프게 들려왔다.

―혜숙의 얼굴에 웃음이 사라졌다.

―길철이 무정하다. 그럴수 있느냐.

길철이도 요새 얼굴색이 컴컴해서 다닌다.

정시명은 지금 그들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질책하였다. 무엇인가 크고 중요한것을 놓쳐버린것 같다. 그들앞에서 미안하기 그지없다. 그래, 그래서는 안된다. 그 일은 마땅히 내가 끼여들어야 하는 일이다. 무관심… 무책임성… 동지의 신상에서 벌어진 일이 강건너 불구경이 되여서야 될법인가. 빨리 손을 써야겠다. 그것도 시기를 놓치면 그들에게 일생의 후회를 남기게 할수 있다.

정시명은 이렇게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이 박정인의 집 대문가에 이르렀을 때 정시명의 뒤에 한걸음 떨어져 말없이 따라온 마동열이 《선생님!》 하고 불렀다.

정시명이 구리로 만든 대문손잡이를 쥐다말고 돌아섰다.

《저 사실은…》

《왜?》

정시명은 여느때없이 소심해진 마동열의 태도가 의아쩍었다.

《말하라구. 뭘 동열이답지 않게 우물쭈물하는거야.》

《박영수동무말입니다.》

《박영수?…》

《예… 사실 그 동무가 빨찌산과의 련락을 담당하게 되였는데… 이제 송선생이 우리 일을 도와주면 박동무의 몫이 커지겠는데…》

그제야 정시명은 마동열이 힘들게 말머리를 떼놓고 가무리지 못하는것이 리해되였다.

박영수가 미덥지 않은 모양이다. 임무의 성격으로 보나 부담으로 보나 감당하기 어려우니 적임자를 찾아내자는것이다.

그런데 박영수로 말하면 정시명이 직접 추천한 인물이고 박정인의 아들이고 보니 혹평을 하기가 베차기마련이다.

정시명은 마동열의 속말을 다 듣고싶어 우정 말나가는대로 퉁퉁 응수하였다.

《난 박영수가 적당한 몫을 맡은것 같은데… 우선 지리적으로 적중하고 개체가 또 침착하고 말이 적고 조용하고…》

《그게 제 소견에는 흠인것 같습니다. 너무 샌님같이 얌전하기만 하니… 사실 박영수동무는 밤중에 산길을 걷는것도 무서워합니다.》

《밤길도 무서워한다?… 허허허.》

정시명은 마동열의 걱정이 실없는것이 아니라는 짐작이 가면서도 마동열의 말이 너무 자극적이여서 껄껄 웃었다.

《그래, 그렇지.》

정시명은 인차 정색해가지고 말을 이었다.

《밤길을 무서워해서야 그 어려운 임무를 감당할수 없지. …그럼 당장에 누굴 대신 내세웠으면 좋겠소? 마동무가 누굴 찍어보오.》

잠시 그들은 묵묵히 서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골라내지 못하겠다는 모양이군.》 정시명이 말했다.

《글쎄요.》

마동열은 여러 사람을 생각했으나 이모저모로 합당치 않아 미적지근하게 대답했다.

《나도 박영수보다 더 좋은 적임자를 골라내지 못했소. 그러니 어찌겠소. 키워내야지. 나나 마동무나 타고난 혁명가야 아니지 않소. 내 생각에도 박영수는 지내 만만하거든. 하지만 마음은 비단결이야. 그 비단결에 애국의 물을 들여줄 임무가 우리에게 있지 않을가. 마동무가 박영수에 비하면 일반지식은 비길바가 못되지만 지하사업에 들어가서는 반대로 천양지차거든. 배워주라구. 경험도 나누고 교훈도 들려주구. 그리고말이요. 우리가 장군님댁에서 들

어둔 이야기가 있지 않소. 그 소중한 이야기를 저만 알고 묻어두지 말고 다 들려주라구. 밤길을 함께 걷기도 하고… 사람은 생활속에서 다듬어지고 혁명가는 투쟁속에서 억세여지지.》

《알겠습니다. 저의 생각이 짧았습니다.》

마동열은 정시명의 말을 새기며 자신을 뉘우쳤다.

송호정과의 사업은 정시명에게 커다란 도움이 되였다.

《국방경비대사령부》위수보초병들도 사령관의 조카가 도착하면 인사까지 깍듯이 개올리면서 사령관의 으리으리한 사무실에 친절히 안내해주군 하였다.

이리하여 남조선군부의 모든 움직임이 제때에 정확히 지휘부에 보고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통위부장》 류동명을 비롯한 일부 인물들을 통하여 제공된 자료들을 합치면 그야말로 군부의 일체 움직임이 조직의 감시속에 들어온셈이였다.

특히 송호정이 넘겨준 빨찌산《토벌》자료들은 박영수를 통하여 제때에 통보되여 유격대의 작전에 크게 도움을 주었다.

마동열이 박영수를 곁에서 각근히 도와주었다. 장군님댁에서 들었던 소중한 지하투쟁경험담도 들려주고 자기가 중국에서 직접 체험한 가지가지 인상깊은 사건들도 생동하게 말해주었다. 어떤 날에는 밀림속의 밤길을 함께 헤치기도 했고 지하투쟁의 묘리를 실천에서 다져나가도록 왼심을 썼다.

박영수는 성장하였다. 사실 그가 맡은 일은 누구보다도 아슬아슬한 싸움이였다. 그는 빨찌산으로 통하는 어렵고 위험하고 책임적인 길을 쉬임없이 걸었다.

2

어느날 정시명은 마동열을 통하여 송호정이 만나줄것을 바란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얼마전에 하지가 그를 불러다놓고 사관학교에 가서 재직장교반교육을 받고 오라고 했다면서 투덜거리더니 아마 가게 된 모양이였다. 미국놈들이 송호정에 대한 재평가를 내린것 같다.

미국놈들의 식민지화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빨찌산투쟁의 불길이 남조선전역을 휩쓸면서 거세차게 벌어질 때 그가 자리를 뜨는것은 큰 손실이였다.

정시명이 송호정의 집에 이르니 경찰이 서있는 보초소에 그의 처가 나와 기다리다가 큰아주버님이 왔다고 반색을 하였다.

《없던게 생겼습니다?》

정시명이 권총을 엉뎅이에 덜렁거리며 대문앞을 오락가락하는 경찰을 보며 웃었다.

《주인이 그래서 신경을 쓰는것 같애요. 서울경찰청장을 불러놓고 따지니 미군정청의 지시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총사령관의 집을 지켜드리지 못한것이 저들의 실책이라고 사죄했다고 합니다. 감시겠지요.》

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는지 송호정이 마주나왔다.

《미국어른들이 호정의 몸값을 자꾸만 올리는구만.》

정시명이 이렇게 인사말을 하며 송호정의 손을 잡았다.

《그런가보네. 어서 들어가세.》

송호정이 쓰겁게 웃으며 그를 끌고 자기 방으로 향하였다.

정시명이 자리에 앉자 송호정은 《시국이야기나 해주게.》 하고 청하였다.

정시명은 그의 청을 기꺼이 받아들여 남조선의 정치정세의 현상황과 전망을 이야기해주었다. 그리고 자기네가 벌리고있는 정치전의 륜곽도 그려주었다.

송호정은 군부라는 페쇄된 직업에 종사하여서 그런지 언제 봐야 정치정세와 사회물정에는 밝지 못하였다. 그래서 정시명은 이렇게 만나게 될 때면 성의껏 이야기를 해주었고 송호정도 더 많은것을 알고싶어 신중히 귀를 기울이군 하였다.

정시명이 미제의 《단선단정》이 거의나 기정사실로 굳어지고있다는 말을 하자 송호정이 무릎을 쳤다.

《옳지, 그러니 그놈들도 나더러 경비대옷을 벗을 때가 왔다고 하는구만.》
《그건 무슨 소린가?》
《내가 재직장교반을 가지 않겠다고 다시 제기하니 하지가 그런 소리 하였네.》
《그렇다. …》
정시명은 잠시 생각에 잠기였다. 올 때는 그자리에 그냥 눌러앉아있으라고 하자 했는데 생각이 달라졌다.
《일리가 있네. 미국놈들이 정부를 조작하려면 경비대를 정식으로 정규무력으로 편성하려고 할걸세. 그러니 송형은 재직장교반으로 가야겠네.
내 김송일에게 부탁해놓을테니 껄렁껄렁 한두달만 보내다가 오게.》
《그럼 들어가볼가.》
《그래야 할것 같아. 정규무력이 나오면 어차피 류동명선생도 군부에서 빠져나갈수 있는데 호정까지 실력자리를 내주면 어찌하겠나.》
《그렇게 하자구. 내 가겠네. 그러니 이거 참 난 정말 고달픈 놈이야. 끝내 군대가 빨찌산《토벌》에 나서게 되였네.
내가 눈이 시퍼래가지고 동포들이 흘리는 피를 앉아서 보고만 있게 되였으니 이거야 살이 떨려 살수 있나 말일세. 차라리 이 송호정이 빨찌산대장으로 나서서 한바탕 불질을 하는게 속 편하겠네.》
송호정이 눈에 열이 올라 부르짖는데 정시명의 손목을 꽉 잡은 그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고있었다.
《이보게, 우린 그런 감상에 빠져있을 몸이 아니잖나. 난 한생을 그렇게 살아오네.》
정시명의 목소리도 침통하였다.
《정형, 용서해주게. 사실 오늘 정형을 만나자고 한건 미국놈들의 정탐기관에 우리 사람을 들여보낼 기회가 생겼기때문일세. 필요하지 않을가?》
《미국놈의 정탐소굴?!》

정시명의 얼굴표정이 일변하였다.

지금까지 그는 미국놈들이 미군정청의 여러 기구들과 미군첩보대를 통해서만 정보책동을 벌리고있는것으로 알아왔다.

미제의 정탐두목들은 남조선을 강점한 초기부터 미군첩보대를 중심으로 첩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조직하면서 일제와 미제의 주구노릇을 해온 인간쓰레기들과 북반부에서 월남도주한 반동들을 긁어모아 《서북청년회》, 《애국정탐사》, 《백의사》, 《협신정탐사》 등 각종 이름을 단 정탐특무기관을 조작하고 간첩테로분자들을 북반부에 들이밀고있었다.

정시명은 애국세력을 보위하기 위한 투쟁을 중요한 투쟁과제로 제기하고 적정탐기관들에 우수한 동지들을 파견하고 그들의 활동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왔다. 그리하여 이 사업을 맡은 길철이 적들이 정탐조직들을 도처에 대폭적으로 조직하고 확대하는 기회를 리용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단시일안에 거의 모든 정탐기관들에 자리잡게 하는데 성공하였던것이다.

정시명은 미륙군정보국과 《서북청년회》와 같이 규모가 크고 위험도가 큰 정보모략기구들에는 파악이 있는 조직성원들을 별도로 파견하여 자신과만 단선으로 련결되게 하였다.

그런데 별도의 정탐기관이 존재한다는것은 금시초문이였다.

《어느 갈래라고 하던가?》

《미중앙정보국소속이라고 하던가. … 아무튼 군정보집단은 아닐세.》

《그래?… 지난 9월달에 미국놈들이 중앙정보국을 정식 창설하였다는 소문이 돌아갔는데 날래구만.》

《아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전략정보국의 서울지부로 있다가 미중앙정보국이 나오면서 소속을 바꾸었나보네.》

《위치는 어디던가?》

《김포공항일세. 위장명칭은 항공출장소고 책임자는 레코라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단마르크계통의 미국놈이라고 하더구만. 거기 부책임자가 미국전략정보국의 충칭지부에서 일을 보던 놈인데 나와는 거기서 만난적이 있었네.

이번에 김포공항에 우연히 갔다가 만났는데 내가 경비대총사령관으로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믿을만한 통역관을 한명 선발해달라고 하더구만.》

《음, 그렇구만. 아주 흥미있는 일이네. 아, 생각이 나네, 생각이…》

그제야 정시명은 더듬어졌다. 쏘미회담때 막판에 김포항공출장소의 책임자인 레코라우스가 끼여들었던것이다.

그뒤로 련이어 몰려든 일거리에 묻혀 지금껏 까맣게 잊고있었다.

송호정의 말을 듣고보니 바싹 구미가 동했다.

송호정이 말을 이었다.

《그자가 자랑삼아 하는 말이 앞으로 제놈들이 남조선에 있는 여러 정보기관들을 통일적으로 지휘하게 될것 같다고 하더군.》

《고맙네. 아무튼 중요한 문제야. 미국놈들이 국가적인 유일정탐기관까지 조직했으니 이제부터 우리 나라에서도 더 소란을 피우자고 덤벼들것은 뻔해.》

정시명은 돌아오면서 레코라우스정탐소굴에 들여보낼 사람을 골라보았다. 기준은 무엇보다도 영어에 능해야 한다. 다음은 로숙한 인물이 되여야 한다. 상대방이 지역정탐기관의 총책임자이니 그를 다루자면 경험있고 수준있고 견결한 상대역을 맞세워야 한다.

적중한 인물이 떠오르지 않았다.

길철이를 만나 인물선발기준을 이야기해주었다.

그도 종시 마땅한 인물을 내놓지 못하였다.

정시명은 자기가 알고있는 사람들을 한명한명씩 이름을 불러가며 다시 곰곰히 인물평가를 해보았다.

그렇게 추려낸것이 《한민당》선전부장 김증원과 리범석의 《족청》조직부장으로 있는 조태준이였다.

그런데 김증원은 아직도 준비한 대정치전을 결속하지 못하고 승부를 다투는 싸움이 박두해오고있는 현시점에서 움직이게 할수 없었다.

조태준의 가무잡잡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만한 수단군이 조련치 않다. 대학시절에 영문과를 거쳤으니 통역관으로서는 손색이 없을

것이다. 상하이와 충칭에서 쟝지에스군대에 와있던 미군군사고문들과도 어울려다닌적이 있었다. 그러나 정작 조태준을 뽑아내자고 하니 그곳이 빈구석으로 남아있게 되는것이 문제였다. 이 시기에 이르러 리범석은 리청천의 《대동청년단》의 출현으로 지반이 크게 약화되기는 했으나 의연히 극우익청년집단으로서는 가장 큰 세력을 거느리고 권력의 상층을 노리고있었다.

리범석은 개인적으로 볼 때도 정시명에게 매우 위험한 인물이였다. 정시명의 귀국후에도 리범석은 은근히 그의 움직임을 지켜보고있었다.

그놈은 정향이 장사길에 나섰다는 소식에 다소 마음을 놓으면서도 조태준의 앞에서는 코방귀를 뀄다고 한다.

《그 사람이 돈구멍에 빠졌다구?

정향이 어떤 인간이기에 정치에서 돌아앉는단 말인가. 조직부장이 밑구멍을 쑤셔보라구.》

그래 조태준이 적지 않게 품을 들여왔다.

그는 정향에 대한 동향장악을 말아가지고 흥국상회의 상품반출입정형까지 따져가면서 리범석의 경계심을 너누룩하게 만들어놓았다.

최근에 리범석은 《족청》을 완전히 군사화하여 지역별훈련소까지 창설하였다.

여기서 제놈의 손때를 묻혀놓은 수많은 추종인물들을 경비대와 경찰에 야금야금 들이밀고있었다.

정시명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조직도 더 많은 전우들을 확보해놓아야 되겠다고 결심하였다.

정시명은 조태준을 만나보고 최종결심을 내리기로 하고 이날 중으로 조태준이 있는 을지로5가에 있는 《족청》청사에로 갔다.

출입문기둥에는 널판자로 《조선민족청년단중앙본부》라고 쓴 현판이 붙어있고 건물의 량옆에는 무게있는 한문글자로 쓴 《민족지상》, 《국가지상》이라는 구호판이 오가는 사람들을 위엄있게 굽어본다. 그리고 건물의 옥상에는 《비정치》, 《비군사》, 《비종파》라고 우리 말로 곱게 쓴 횡단막이 뭇사람들을 매혹하듯 바

람에 너울너울 춤추고있다. 건물은 3층짜리 벽돌집이였는데 중앙단부는 3층에 있다고 정문수위가 대주었다. 현관에 들어서니 량옆에 곤청색제복에 채양이 달린 둥근 모자를 쓰고 모자와 가슴에는 보라매표식을 붙인 두 청년이 꼿꼿이 서있다가 그의 앞을 엄숙하게 막아섰다.

《난 여기 조태준조직부장의 외삼촌인데 잠간 만나자고 왔소.》

《조직부장님은 방금전에 수원중앙훈련소에 나갔습니다.》

《음, 한발 늦었군. 그녀석 소식없이 싸다니니 어디 향방을 대중할수 있나.》

정시명은 맥풀린 어조로 중얼거리고는 《언제 돌아오나?》 하고 물었다.

《저녁전에는 올겁니다.》

《그렇게 늦게야…》

정시명은 한시가 새로왔다. 일단 설계가 된 사업은 일사천리로 내밀고나가야 직성이 풀린다.

《오늘 수원중앙훈련소에서 제5기생 입소식이 있답니다. 그러니 아마도 늦어질거라고 했습니다. 아, 얼마 있다가 그쪽으로 가는 차편이 있습니다. 중앙단간부들이 입소식에 참가하려고 또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정시명의 말투에서 영낙없는 조직부장의 외삼촌임을 확인하였는지 보초를 선 놈들이 인차 초친 부루잎처럼 나긋나긋해졌다.

《좀 알아봐주지. 긴히 만나고 가야겠는데.》

《예, 잠간 기다려주십시오.》

정시명은 내친김에 조태준도 만나고 중앙훈련소라는 곳도 직접 구경하고싶은 생각이 들었다.

보초를 섰던 녀석이 마당으로 씽하니 뛰여가더니 인차 돌아왔다.

《저와 같이 마당에 나갑시다. 차가 막 떠나자는걸 붙잡았는뎁쇼.》

정말 자동차가 발동을 걸어놓고있는데 여러명의 단복을 입은 녀석들이 자동차적재함우에서 왁자지껄 떠들고있었다. 그들은 조직부장의 외삼촌이 두루마기자락을 날리며 가까이 다가서자 일

제히 정숙하고는 그에게 인사를 올리는데 신통히도 히틀러청년단식이다.

운전사는 적재함에 오르려는 정시명을 만류하고 운전칸으로 모시였다.

자동차는 여러 시간을 달려서야 중앙단부청사에서처럼 각종 구호로 야단스럽게 장식을 한 수원중앙훈련소에 도착하였다.

8.15전에 왜놈륙군병원으로 쓰던 건물들을 미군으로부터 넘겨받아 사용하고있었다. 새 단복을 차려입은 입소생들이 마당의 여기저기서 패를 지어 대렬훈련을 하고있었다. 그앞에서 훈련소교관들이 저마끔 욕질을 하며 교련을 시킨다. 마당에 흰 천을 씌운 책상과 걸상을 주런이 내다놓은것으로 보아 인차 입소식을 하려고 하는 모양이였다.

같이 온 중앙의 간부라는자가 정시명을 훈련소장방으로 안내하려고 했다. 그래서 정시명은 그저 조직부장에게 선양외삼촌이 왔다고, 입소식이 끝난 다음에 만나자 한다고 전해만 달라고 부탁하였다.

잠시후에 환영곡이 울리더니 조태준이 맨앞에서 중앙단부간부들을 거느리고 책상앞에 나와 섰다.

마당에 정렬한 입소생은 어림짐작으로 2백명은 넘겠다. 녀자들도 스무나문명 제일 끝대렬에 서있었다.

조태준의 옆에 서있던 사람이 연탁에 나와서 《단기 올렷!》 하고 째진 소리로 구령을 내렸다. 그러자 악대가 풍짝거리는 속에서 보라매를 가운데 그려놓은 푸른색바탕의 기발이 서서히 올라갔다.

이어 나선 연사는 자기를 훈련소 소장이라고 소개하고나서 훈련소의 교관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 연탁가까이에 내세우고는 담당과목을 소개하였다.

정시명은 키꼴이 좋고 목대가 실한 연사를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다가 그가 중국땅에서 여러번 충돌한바가 있는 리범석의 심복부하 문진국임에 놀랐다.

(저녀석이 여기 와서 박혀있었군. … 그럴법도 한 일이지.)

정시명은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리범석이 미국놈들도 중시한다는 수원훈련소의 소장자리에 앉혀 놓은것으로 보아 확실히 문진국을 크게 신용하는것 같다.

희한한 생각도 들었다.

눈앞에 인상깊게 나타났다가도 다시 얼씬거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운명적으로 인연이 맺어졌는지 인생길에 자주 교차되기도 한다.

(언젠가는 저놈들과도 다시 맞붙어야 할가부다.)

정시명이 이렇게 입속말로 나직이 중얼거리는데 문진국이 중앙단부 조직부장님께서 단장님의 축사를 대독하시겠다고 소개하였다.

조태준이 박수속에 연탁에 나가서 훌륭한 건국일군이 돼달라는 말을 5분정도 하고는 물러났다.

이어 우렁찬 합창이 울려퍼졌다.

하늘은 맑고 할 일은 많다
백의민족 청년남아 떨쳐일어나
내 나라 부강위해 무공 떨치자
우리는 대한의 억센 보라매
두려울것 없다네 족청 족청 족청

제법 힘도 있고 기백도 있는 노래였다. 노래에 발맞추어 분렬행진이 진행되였다.

마당에 모여선 저 광기어린것들이 리범석의 손탁에서 규률을 배우고 반공을 배우면서 장차 이 나라를 망국의 길로 끌고나갈 무리들로 자라나고있는것이다.

정시명은 리범석의 야심만만한 상판을 그대로 보는듯싶었다.

조태준의 보고를 통하여 예상하고는 있었지만 이렇게도 정계의 막뒤에서 반동의 정예화된 후비가 질서정연한 조직체를 가지고 자라고있으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다.

조태준은 입소식을 마치고도 한참 지나서야 나타났다.

《과시 놀랍소.》

정시명은 진심으로 놀라와마지않았다.

《위험한짓입니다. 하지만 너무 놀라와하실건 없습니다. 리청천이 빼내간 인원이 15일전의 집계에 의하면 수십만입니다.》

《그렇게 많이?!》

그 역시 놀라운 소식이다.

《그런데 며칠전부터는 다시 돌아오는 녀석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

《리범석이 총리가 된다는 소문이 〈족청〉안에 짜합니다.》

《리범석이 만들어낸 소문인가?》

《예, 그렇기도 하지만 리범석의 고문으로 와있는 미국놈들이 그런 소문을 돌린것 같습니다.》

《하여튼 재미있소. 왔다갔다…》

잠시후 한대의 찦차가 그들옆에 와서 멎었다.

《타십시오. 이길로 선생님과 같이 서울에 올라가겠습니다.》

《아니, 일을 마저 보지. 난 일없소.》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저 운전사는 저의 련락원입니다. 마중위와 자주 만날것입니다.》

《아, 그런가? 수고를 하오.》

정시명이 운전사에게로 고개를 돌리자 운전사가 그에게 말없이 허리를 깊이 굽히였다.

정시명은 조태준과 함께 찦차에 올랐다. 찦차는 서울을 향하여 쏜살같이 달렸다. 임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찦차에서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조태준이도 정시명이 중요한 문제때문에 자기를 찾았다는것을 알고 긴장한 마음으로 말문을 열기만을 묵묵히 기다렸다.

서울에서도 번화가인 을지로에 들어서자 정시명이 차 한잔 하고 가자고 말했다.

그들은 찦차를 보내고 락엽이 진 가로수밑으로 천천히 걸었다.

《거, 수원훈련소 소장말이요. 낯이 익더라…》

정시명이 지나가는 말투로 넌지시 속생각을 내비치였다.

《문진국이라고 충칭에 있을 때부터 리범석의 손때가 묻은자입니다.》

《나도 띄여본적이 있었소. 가량이 없는 놈이더구만.》

《예… 저도 소문은 더럽게 듣기는 했는데… 여러번 마주쳐보니 속대는 서있는 놈입니다. 리범석의 졸개로만 생각했는데 이따금 술판에서 퉁퉁 내밷는 소리를 들으면 그렇지는 않은것 갈구…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미국놈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리범석에 대해서도 바른소리를 하군 합니다.》

《그래?… 그런 놈이 어째서 리범석의 손끝에서 놀아날가?》

《글쎄요. … 그래 제가 좀 뜸을 놓아보려고 궁리하는중입니다. 선생님께 한번 여쭈려고 하였습니다.》

《음… 좋소. 그렇게 생각을 굴려 자꾸 일거리를 찾아내야 하오. 그런데 조동무, 그건 당분간 덮어두고…》

정시명은 화제를 돌렸다.

《조동무, 〈족청〉사업을 인계맡을수 있는 동무가 있소?》

《글쎄요, … 그러면?》

《당장 동무가 담당해야 할 중한 자리가 나서서 이렇게 찾아왔소.》

《그렇다면 뭐… 리범석이도 날 다른데 옮겨놓을 궁리를 하는데 차라리 잘되였습니다.》

《리범석이는 어떤 곳에 보낼려고 하오?》

《그놈은 군부를 장차 틀어쥐려고 하니 측근인물들은 그쪽에 빼돌리는 방향입니다.》

《음, 그러면 좋소. 리범석이도 좋아할수 있는 자리요. 리범석의 보증까지 받으면 더욱 믿음직하오. 대상은 미중앙정보국의 남조선지부요. 고도의 비밀성과 수완을 요구하는 자리요.》

《처음 들어봅니다.》

《나도 그렇소. 일전에 쏘미회담때 브라운암살문제를 놓고 처음 들었는데 위험한 적이요. 동무가 발을 붙여야겠소. 송호정총사령관의 소개장으로 들어가 통역관으로 활동하게 되오. 놈들이 곧 남조선에 산만하게 조직되여있는 정탐기관들을 틀어쥘 계획이라고 하오. 그러니 동무의 새로운 위치가 얼마나 큰 문제들을 해

결하게 되리라는것이 명백하지 않소. 리범석에게 오늘중으로 제기해주오. 그놈도 동무와 같은 수하일군을 그런 곳에 박아넣고싶어할거요.》

《해보겠습니다.》

《매우 심중한 사업이요. 첫걸음부터 열번 재여보고 한발 옮기는 사업기풍을 세워나가야 하오. 그러나 매사에 지나치게 소심하거나 오물쪼물할건 없소. 공작에 인차 착수해야겠소. 그런 자리는 인차 메워질수도 있으니 어정거리다가는 틀어질수 있소.》

《알았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리범석을 만나겠습니다. 내가 송호정총사령관의 건의를 받았다는것을 밝히겠습니다.》

《그렇게 하오. 동무와 송호정은 이미부터 서로 안면이 있으니 무방할것이요.》

정시명은 인차 송호정에게 조태준을 선발했다고 알려주었다.

송호정은 조태준의 경력을 아는껏 레코라우스에게 전달하였다.

리범석은 조태준의 이야기를 듣자 처음에는 《통역관이란 말단자리야.》 하며 반신반의하였으나 송호정에게 전화로 문의하고나서는 매우 만족해하였다. 그는 조태준에게 자기가 신원보증서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면서 래일중으로 조직부장후임을 제기하라고 하였다.

레코라우스는 송호정의 전화를 받자 《족청》에 나가있는 리범석의 고문인 써젠트에게 조태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였다.

써젠트는 좋게 평가하면서 리범석의 심복부하라고 확언하였다.

이리하여 송호정의 제기가 있은지 열흘만에 조태준이 레코라우스의 통역관으로 임명되였다. 조태준의 후임으로는 문진국이 들어앉았다.

조태준에게 레코라우스기관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내며 점차 활동의 전모를 알아낼데 대한 첫 과업이 주어졌다.

조태준은 통역관으로 임명되자 짬짬이 첩보사업에 대한 미국놈들의 책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원래 무서운 독학가이고 박식한 조태준은 첩보물계가 상당한 수

준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따금 레코라우스에게 그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신통한 조언을 한마디씩 튕겨줌으로써 인차 그의 눈에 들었다.

레코라우스는 60에 이르도록 정탐계에서 늙어오는 오랜 정탐이였다. 그는 미전략정보국의 동경지국장대리로 오래동안 공작하다가 조선이 해방된 후 김포공항에 틀고앉아 남조선에 첩보활동기지를 꾸리는 사업을 다그쳐왔다.

레코라우스는 북조선의 지리와 경제형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있을뿐아니라 상당한 지식과 총명한 두뇌로 하여 첩보분야에서 전도가 유망해보이는 이 조선청년을 자기의 일상적인 협의대상으로 삼기 시작하였다.

그는 동양에서 오래동안 근무한 관계로 동방나라들의 력사와 풍습을 잘 알고있었고 지식수준도 높았다. 한담자리에서는 젊은시절 하버드대학에서 작가를 지망해서 당대의 이름난 문인들을 찾아다니던 일을 큰 자랑거리로 떠들군 하였다.

그러면 조태준도 와세다대학시절을 회상하면서 정계에 발을 들이민 자신을 탄식하기도 하였다.

레코라우스는 조태준의 일솜씨와 지식 그리고 일상적으로 풍기는 지적인 향기를 사랑하였다. 그를 조선인정보관으로 임명하고 자기의 심복부하로 만들려고 애를 썼다.

남조선의 다른 첩보기관들에 대한 현지료해검열에도 그를 망라시켰으며 어떤 때는 독자적인 임무를 주어 첩보기관들과 사업하도록 하였는데 그가 작성한 보고서들은 언제나 레코라우스를 크게 만족시키군 하였다.

레코라우스는 송호정과 리범석에게 전화로 훌륭한 청년을 보내준데 대하여 사의까지 표시하였다. 조태준은 자리를 옮긴지 보름후부터는 귀중한 자료들을 보내오기 시작하였다.

그는 레코라우스기관은 항공출장소를 위장간판으로 하고있는 미전략정보국의 남조선지부로 발족하여 최근에 미중앙정보국의 창설과 함께 그 대렬을 새로 정비보강하는중에 있다고 보고하였다.

미전략정보국은 1942년에 미국대통령 루즈벨트가 조직한 대외첩

보기관이였다. 미제는 태평양전쟁시기 이 조직을 가지고 해외정보활동을 벌렸다.

루즈벨트의 후임으로 백악관에 틀고앉은 트루맨은 신사는 남의 편지를 훔쳐보지 않는다고 부대통령시절의 고담을 되풀이하면서 정보사업자체를 탐탁하게 여겨오지 않다가 1945년 9월에는 전략정보국을 아예 해체해버렸다.

그러나 실지 미국의 정책을 진두에서 지휘하게 된 트루맨은 미구에 정보사업의 의의에 대하여 재평가를 내리게 되였으며 유력한 정보전이 없이는 단 한걸음도 움직일수 없다는것을 깨달았다. 미국무성과 국방관계성들에 정보기구가 있었지만 해당 분야의 업무처리를 위한 전술적인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2차세계대전이 종결된 그 시기로 말하면 점령지분할과 통치를 비롯한 많은 문제들이 쌓여있을 때였다.

어느때보다도 정보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여야 할 때에 정보기구를 주관적편견에 따라 성급히 해산시킨것은 트루맨의 커다란 실책이였다.

이리하여 트루맨은 1946년에 중앙정보그루빠를 만들어냈고 전략정보국지부들이 계속 활동하도록 명령하였다.

정치무대에서 달과 해를 보낼수록 정보의 의의와 위치를 더욱 절감하게 된 트루맨은 1947년 9월에는 중앙정보그루빠를 중앙정보국으로 승격시키고 해외지부들을 확대강화하여나갔다.

조태준은 보름사이에 리승만을 두번이나 레코라우스의 방에서 보았다고 하면서 백악관과 미국무성이 그처럼 리승만을 극성스럽게 두던하고 밀어주고있는것은 레코라우스의 평가보고서에 기초하고있는것으로 보아진다고 분석하였다.

그는 노불도 여러번 왔다갔는데 레코라우스가 노불을 세워놓고 하지의 정책적과오를 매섭게 비난하군 한다고 보고하여왔다.

조태준의 활동은 날을 따라 더욱 맹렬해졌다. 그는 레코라우스의 신임을 리용하여 자기의 영향밑에 있는 동지들을 영등포에 있는 미군첩보대(쥐투)와 미군대내 첩보대(씨아이씨)에서 사업하도록 하였으며 산하기관들로 넘어오기 시작한 경비사령부 정보

국, 《서북청년회》, 《애국정탐사》, 《백의사》의 주요인물들과 일상적으로 지시를 주고 보고를 받는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활동과 공작체계, 인사정형을 료해장악하였다.

놈들의 모략기관에 깊이 들어간 조직성원들의 투쟁은 첫 시기부터 조국을 보위하고 인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커다란 은을 내였다.

3

마동열이 자정무렵에 박정인의 집대문을 요란스럽게 두드렸다. 행랑채에서 사는 길봉례가 얼른 나가서 대문을 열었다.

대문이 찌꾸뚱— 요란한 소리를 지르며 열리자 마동열이 땀에 흠뻑 젖어 쑥 들어왔다.

《에이, 대문소리도 요란하다.》

마동열이 눈이 휘둥그래진 길봉례에게 웃어보이며 싱겁게 한마디했다.

대문소리는 정시명이 이곳에 거처를 잡은 후에 우정 더 크게 나도록 박정인이 품을 들여 고쳐놓았던것이다.

과연 대문소리는 이 울타리안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높은 각성을 가지고 정시명의 사업을 보호하도록 부단히 자극을 주었다.

《어째 이렇게 늦게 오나?》

길봉례가 대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물었다.

《그럴 일이 있수다.》

들어오던 때와는 달리 마동열의 대답은 가볍지 않았다.

때아닌 깊은 야밤에 울린 대문소리에 정시명이 있는 안채와 본채며 사랑채의 모든 사람들이 깨여나 바깥의 동정을 살피고있었다.

길봉례가 방울을 딸랑딸랑 두번씩 사이를 두고 울렸다. 모두 별일이 없으니 마음을 놓으라는 신호였다.

민순임이 그를 맞아들였다.

《무엇때문이요?》

정시명은 마동열의 손을 잡아 아래목으로 끌면서도 엄하게 물었다. 사업준칙에는 지휘부성원들이 밤늦게 드나드는것을 금하고 있었던것이다.

마동열은 정시명의 나무람섞인 어조에는 개의치 않고 괴나리보짐을 풀어놓고 서두름도 없이 개성에서 박정인이 보내온 긴급련락문을 꺼내놓았다. 박정인은 며칠전부터 대북장사군들을 통해 구해들인 출판물들과 돈을 받기 위해 개성에 가있었다. 출판물은 신문사들에 주기 위해 정시명이 특별히 부탁했던것이다.

박정인은 짐이 많기때문에 이밤중으로 사람들을 빨리 보내달라고 련락을 띄워왔다. 그리고 어제부터 개성근방에 적들의 경비력량이 강화되였는데 무슨 낌새를 맡은것 같다는 소리도 있었다.

《개성행 밤차가 몇시에 있소?》

《2시에 서울역에서 떠나는 차가 있습니다.》

정시명은 웃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냈다.

《시간이 없구만. 길차비를 하오. 이거 미안하구만.》

《그런데?…》

《함께 가자구.》

《안됩니다. 련락문에 다 적었다고 하던데요. 지금 개성시가 벌컥 뒤집혀있습니다. 개성시에 대한 출입을 봉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가자는것이요. 박선생이 지금 속이 새까맣게 타고있겠는데… 이런 일에야 깜깜이지. 빨리 떠납시다.》

《제가 혼자 가서 처리하겠습니다.》

《안돼, 박선생이 오죽하면 동무를 통해 내게 이렇게 손을 내밀가.

동무도 홀로 처리할수 없으니 이렇게 숨이 차서 뛰여온게 아닌가.》

마동열은 더 할 말이 없었다. 정시명의 말을 듣고보니 정말로 자기도 당황했던것 같다. 지휘부로 달려오지 말고 자기 계선에서 매듭을 봐야 할 일이 아닌가. 모처럼 얻은 귀한 출판물과 돈을 안전하게 빼내와야 한다는 생각에 다몰려 앞뒤를 재지 않고 달려온 자신의 소행이 안타깝도록 후회가 갔다.

정시명이 이 정도로 나오면 마동열이도 돌려세우는 재간이 없었다.
정시명은 박정인이 개성에 묶여서 꼼짝 못하고 조직의 방조를 기다리고있을것을 생각하니 한시도 지체할수 없었다.
까딱 잘못하면 출판물과 많은 돈을 적들에게 떼울수 있다. 그러면 이것이 단서가 되여 조직에 불티가 날아올수도 있는것이다. 더구나 출판물을 걸고 놈들이 묘하게 반북깜빠니야를 벌릴수도 있다.
정시명은 이러한 문제가 조직에 치명적인 타격의 시초로 되군 한다는것을 여러번 체험한바가 있었다. 그러니 어물거리지 말고 불찌는 제때에 비벼꺼야 한다.
정시명이 박정인이 마련해준 고급옷가지들을 떨쳐입는데 그때까지 방구석에 오도카니 앉아서 오가는 말을 듣기만 하던 민순임이 나섰다.
《이보세요. 제가 이 사람을 앞세우고 가면 안될가요?》
정시명이 그 말에 《원, 당신이 어떻게…》 하며 어이없는듯 씩 웃었다.
《제가 이 사람 장모되여 개성에 나들이간 령감한테 간다고 하고…》
《그래?!…》
정시명이 희한해서 두루마기팔소매에 오른팔을 넣다가 무춤거리며 그를 돌아보았다.
마동열이도 좋아하였다.
《아, 그거 멋있는 생각입니다. 개성쪽에 풍류객들이 좀 많이 모여듭니까. 내 해방전에 그쪽에 가보니 기생차고 놀아대는데… 옳지, 바람난 령감 찾으러 떠난 부자집마님으로 하면 개성에 들어가기도 좋고 나오기도 편하겠습니다.》
정시명이 그들의 이야기에 껄껄 웃었다.
《당신이 어떻게 그런 궁냥을 해냈소. 그게 좋을듯싶어.》
벌써 주씨가 마련해준 비단옷을 갈아입고나선 민순임이 눈을 흘기였다.

《저도 이젠 뭘 좀 해볼랍니다. 동열이 이 사람, 빨리 떠나자구요.》

정시명이 한순간에 부자집마나님이 돼버리고 제법 기세를 올리는 안해를 보다가 《허허…》 하고 소리내여 웃었다.

그들은 밤중으로 개성으로 내려갔다.

박정인의 말대로 역주변이 봉쇄되여있었다.

민순임이 바람난 령감 잡으러 왔다는 소리를 하자 경찰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통과시켰다.

박정인이 숨어있는 만월동출장소에 가니 그때까지도 박정인은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뜬눈으로 밤을 밝히고있었다.

만월동출장소는 고려상사에 소속되여 개성에 있는 대북장사군들로부터 밀수해온 물자를 넘겨받는 일을 담당하고있었다.

박정인은 마동열이 민순임이를 앞세우고 나타나니 눈부터 둥그래졌다.

《아니, 어찌된 일이요. 마중위?》

박정인이 책망조로 물었다.

마동열이 그의 귀에 대고 소곤거리였다.

《그래?… 어참, 사모님두 허허— 바람난 령감 잡으러 왔다?…》

박정인이 속이 풀려 껄껄 웃는데 민순임이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기여들듯 어쩔바를 몰라했다.

《하여튼 이거 정말 고맙습니다. 이젠 여기서 옴짝달싹 못하게 됐다 했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와주시다니…》

《고마운 인사야 제가 올려야지요.》

그들사이에 이런 말이 오가는데 마동열이 푸접없이 말을 막았다.

《어디 있습니까?》

《저 허청간에 있소. 공교롭게도 아래방에 주인의 매부되는이가 와있다오.》 하며 박정인은 그들을 허청간으로 안내했다.

박정인이 손가락으로 허청간의 판자문을 가볍게 때리자 빗장 벗겨지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출장소책임자는 짚우에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박정인을 확인한 다음에야 얼굴을 내밀었다. 옆에는 커다란 몽둥이가 있었는데 여차하면 까부실 잡도리다.

박정인이 긴급련락을 보내온 심정이 가히 리해되였다.
우선 날새기 전에 짐을 뒤뜰안에 파묻도록 하였다.
일을 끝내니 동녘이 희슥해왔다.
마동열이 놈들의 경계가 심해진 원인을 캐묻자 박정인은 별로 단서잡힌것은 생각나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당분간 여기에 뒀다가 놈들의 경계가 풀린 다음에 운반해 갑시다.》
출장소의 책임자가 책임적으로 지키겠다고 하였다. 날이 밝아 가까이에서 보니 책임자는 쉰에 가까와보이는 지숙한 나이의 농사군이였다.
그는 며칠전에 개성1중학교에서 교원들과 학생들이 여러명 붙잡혀간 일이 있는데 그때부터 경찰과 헌병의 수가 2～3배 늘어나고 여기저기 검문소가 설치되여 통행자들을 단속한다고 설명하였다.
마동열은 조성된 정황을 여러모로 따져보았다. 그러루한 일이라면 지금 남조선의 도처에서 드문히 일어나는것인데 놈들이 이렇게 소동을 피울게 없다고 생각되였다. 혹 이것이 박정인의 움직임을 내탐한 적들의 움직임이 아닌지?… 아니면 정말 그 어떤 다른 사건이 터져 색출소동을 벌리는것인지도 모른다.
만약 박정인과 관련된 정황이라면 서울까지 가는것은 고사하고 밖에 나다니는것부터 위험한것이다. 그렇다고 좁은 개성바닥에 그대로 있다가는 언제 적들의 수색에 걸려들지 모를 일이다. 한시바삐 박정인을 서울로 데리고가는것이 급선무일것 같았다.
그들은 허청간에서 아침요기를 대강하였다.
출장소책임자에게 시내에 나가서 적들의 동정을 알아보고오라고 부탁하였다.
책임자는 개성역전부터 돌아보았다. 여전히 삼엄한 경계망을 펴고있다. 가는 곳마다 경찰과 헌병들이 욱실거리고있었다. 역에서는 매표구와 개찰구에 경찰과 헌병이 갈라서서 개성에서 나가는 사람들을 일일이 검열하고있었다. 역구내에도 경찰들이 늘어서서 기차에 오르는 사람들을 다시금 조사하고있다.

기차로 개성을 떠나는것은 불가능할것 같았다.

뻐스정류소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경찰과 헌병들이 뻐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깐깐히 훑고있다.

놈들의 잡도리로 보아 수사책동이 인차 해제될것 같지는 않았다.

책임자로부터 정황을 보고받은 마동열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물었다.

《여기서 지체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방도를 찾읍시다.》

마동열이 한동안 이것저것 궁리해보고나서 몇가지안을 내놓았다.

이런 정황에 처음 당해보는 박정인은 그저 눈만 껌뻑거리면서 마동열의 얼굴만 지켜볼뿐이였다.

어물거리다가는 놈들의 수사에 걸려들수 있다는 예감이 마동열을 초조하게 하였다. 제 한몸이라면 자신이 있지만 귀중한 짐과 일행의 안전을 책임진 자신으로서 모험을 해서는 안되였다.

마동열이 우선 당황해하는 박정인의 심정을 늦춰주고싶어 말하였다.

《급해할건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게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배짱이 아닙니까. 적들을 리용하는게 상수일것 같습니다.

경찰이나 헌병놈들의 차를 리용하여봅시다. 만약 선생님이 로출되여 생긴 정황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감히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리라고까지는 생각도 못할겁니다. 이런 때는 상대방의 생각이 미칠수 없는 곳에서 돌파구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저 선생님과 사모님은 부자집 량주흉내만 잘 내주십시오.》

마동열은 한 생각이 떠올랐다. 외부에서 갑자기 막대한 력량이 투입되였으므로 그들의 왕래도 많을것이다. 잘만 하면 놈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서울로 가닿을수 있다. 마동열이 침착하면서도 자신만만하게 사태수습안을 내놓자 그제야 박정인도 마음이 가라앉아 마동열의 이야기에 주를 달았다.

《거참 마중위의 배짱이 여간만 아니구려. 옛 병서에도 가장 믿을만한 방어는 공격이라고 썼다우. 정황에 맞게 지혜를 낸 다음에는 필요한 대목에 목숨을 내대고 돌진하라는 뜻이지.

우리 걱정은 말고 마중위의 생각대로 해주게.》

마동열은 역전려관쪽으로 가다가 개성경찰서쪽으로 향했다. 려관에 가야 송사리들이나 만날수 있다고 생각하였던것이다. 자동차를 리용할바에는 화물차보다도 승용차가 낫고 승용차를 구해볼려면 경찰서에서 찾는것이 빠를것 같았다.

마침 개성경찰서 정문앞에 몇대의 승용차가 주런이 서있었다. 운전사들은 다들 려관에서 나오지 않았는지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에 세워놓은 승용차에서 쇠붙이가 덜거덩하는 소리가 났다. 경찰복을 입은 운전사가 차체밑에 들어가서 수리를 하다가 나오고 있었다.

마동열은 다짜고짜로 그에게 다가가 큰소리로 인사를 건네였다.

《수고합니다.》

《…》

《어데까지 가시오?》

그제야 운전사는 힐끔 눈을 돌리더니 《왜 그러오?》 하고 퉁명스럽게 되물었다. 경찰제복을 입은 값을 치르자는 심산이다.

《하, 그 량반 텁텁하기는 탁배기 한가지다.… 자, 담배 한대 피우소.》

마동열은 푸접좋게 말을 건네며 권연을 꺼내 내밀었다.

운전사는 천쪼각으로 손을 벅벅 문지르더니 담배를 받아 귀쪽우에 건사하면서 《인천까지요.》 하고 대답하였다.

《허, 신세를 질것 같군.》

《안되오. 경찰차에 잡인은 태우지 못하오.》

운전사는 마동열의 장수같은 체구를 아래우로 훑어보고는 눈을 빨았다.

《뭘 그러오. 사람이 살아가느라면 신세를 질 때도 있고 지우기도 하지. 공짜는 타지 않겠소.

사실은 서울에 있는 장인, 장모를 모시고 박연폭포구경을 하고 가는 길인데 밤차는 고생스럽고 화물차는 너무 들춰 늙은분들 모시기 어려워 그러오. 그렇다고 서울에 차 보내달라고 전화를 걸기도 힘들고… 신세져봅시다.》

마동열은 그에게 늘어지게 붙었다. 운전사는 호부자의 냄새를 물씬물씬 풍기는 마동열의 희떠운 수작질에 구미가 동한듯 다시한번 그의 차림새를 훑어보고는 《좋소. 데리고오시오.》 하고 말하였다.

마동열은 운전사가 한발 물러서자 《아, 이왕이면 수골해주오. 우리 장인 예까지 어떻게 걸어오시라고 하겠소? 내 체면 봐주시오.》 하고 장인의 금새를 잔뜩 높이였다.

《허, 그 량반 말타면 견마잡히고싶다 한다더니… 선죽교려관이겠지요?》

《그럼요.》

선죽교려관이란 예로부터 세도있는 서울량반들만 기생차고 묵어가던 개성에서 첫째가는 고급려관으로 전해온다. 운전사는 마동열의 《장인》을 고관대작이나 큰 실업가로 생각하였던것이였다.

마동열은 박정인이 호주머니에 찔러주던 지폐뭉치를 꺼내 그의 뒤주머니에 밀어넣었다.

기분이 좋아진 운전사는 이 차가 인천경찰서장차인데 얼른 수리하고 갈터이니 준비하고 대기해달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자기의 큰아버지라고 할테니 《장인》더러 그렇게 처신하라고 일렀다.

마동열이 돌아와서 승용차를 리용하게 된 이야기를 하자 박정인은 길게 숨을 내그으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들은 서둘러서 아지트를 떠나기로 하였다.

떠나기 전에 박정인이 돈뭉치를 들고 출장소책임자에게 넘겨주면서 집에 와있는 매부가 어제 피끗 허청간을 돌아보고갔는데 살림에 보태쓰도록 주라고 하였다.

출장소책임자가 마다하였으나 박정인은 뒤일이 걱정스러워 기어이 그의 손에 돈을 넘겨주고서야 집을 나섰다.

그들이 선죽교려관앞에서 잠시 담배 한모금씩 피우는데 승용차가 나타났다.

박정인은 승용차가 옆에 와 서자 팔자걸음을 느릿느릿 옮기며 다가갔다.

그뒤로 민순임이 따라서는데 마동열이 제법 그럴사 하게 부자집

마님행세를 하는 그 녀자의 거동과 행장에 어안이 벙벙해졌다.
부자집량주다운 거드름앞에 시경찰서장의 권위도 한순간에 무색해지고말았다.
이미 운전사의 말을 듣고온 서장은 너무도 틀지고 천연스러운 박정인과 민순임앞에서 앞자리까지 권하며 친절을 보이느라고 했다.
《에, 모처럼 떠난 개성재미 로친덕으로 다 깨졌다. 다 꿰진 령감 그리도 그리웠소?》
《말두 말아요. 령감, 늦바람나도 단단히 났지. 서울량반 개성기생을 정 붙였다가 수염까지 다 털어놓고왔다는 소릴 못들었수?》
박정인과 민순임의 횡설수설에 경찰서장은 《흐아－》 하고 허리를 젖히고 웃어댔다.
점심녘에 차는 문산에 이르렀다. 마동열은 네거리앞에 서있는 《문산면옥》이라고 쓴 정결해보이는 양옥집앞에 차를 세우게 하였다.
《아버님, 여기서 점심상을 받으시는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 그것도 좋지. 로친생각은 어떻소?》
《좋을대로 하시우.》
박정인이 민순임과 나란히 식당으로 앞서는데 마동열이 서장과 운전사의 등을 떠밀고 뒤따랐다.
일행은 푸짐하게 점심을 치르고는 다시 길을 떠났다. 검문소의 경찰들이 이따금 승용차를 세우기도 했지만 운전사의 습관된 위세에 눌려 감히 증명서를 보자고 손을 내밀지도 않았다.
차가 서울어귀에 들어서자 말 한마디없이 주눅이 들어있던 서장이 《댁이 어디십니까?》 하고 공손하게 물었다.
《영악동일세.》
박정인이 대답하자 서장은 《영악동까지 모시도록…》 하며 운전사에게 명령했다.
영악동은 옛날 일제의 《조선총독부》관리들이 살던 곳이였다.
리승만이 지금 거처하고있는 리화장도 그곳에 있다.
그러나 승용차가 서울 종로네거리에 들어서자 박정인이 승용

차를 세우게 했다.

《이보게, 난 내려서 회사에 들렸다가겠네. 신세가 너무 많은데 자네도 서울까지 와서도 폐 끼치지 말고 예서 내려 택시를 잡아타도록 하라구.》

박정인은 이렇게 분부를 내렸다.

《예.》

마동열이 얼른 대답하고 서장이 팔을 잡는것을 굳이 사양하고 차에서 내렸다.

《마중위!》

박정인이 서장일행이 인사를 개올리고 떠나가자 긴 숨을 내긋고는 가슴을 툭툭 쳤다. 그의 속옷은 땀으로 질벅히 젖어있었다.

《내 독립군시절에 이런 걸음 수태 했네만 원 이렇게 속이 떨려보기는 처음일세. 사모님, 정말 고맙수다.》

박정인이 그제야 민순임에게 인사를 했다.

박정인은 정시명의 앞에 와서도 마중위의 수가 여간이 아니라고 추어올리고 민순임이 그렇게도 도고한 마님일줄은 몰랐노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는 마동열이 어떻게 일행을 이끌고왔는가 하는데 대하여 손시늉까지 해가며 이야기하였다.

정시명은 아무렇지도 않은듯 히죽이 웃고만 있는 마동열을 돌아보며 생각이 깊어졌다.

앞으로 벌어질 싸움에 비하면 이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직 놈들의 수사는 조직에 닿지 못하고있지만 투쟁의 심도와 폭이 커갈수록 어차피 조직은 원쑤들과 끊임없는 조우전을 벌려야 할것이다. 그러자면 마땅히 우리는 어떤 정황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담대한 심장부터 가져야 한다.

그러나 지하투쟁에서 대담성은 기질의 어느 한 측면일뿐이다. 혁명가들의 가장 중요한 존재방식은 창발성이다. 지하투쟁에서 교조는 죽음이다. 창조적예지가 없는 일군은 지하공작이라는 거창한 예술의 무대에 오를 자격이 없다. 하기에 세상이 생겨나 지하투쟁이라는 투쟁방식이 수천년을 헤아려 전해지지만 그에 대하여 서술한 교범이나 행동세칙은 없다. 앞으로도 완성된 지하투쟁교범이란 세

상에 나타나지 못할것이다. 각자의 싸움교범은 부닥치는 환경에서 오직 그자신만이 행동으로 서술할수 있는것이며 부단한 창조적 사색과 실천으로 완성시켜나갈수 있는것이다. 창조— 창조적두뇌야말로 지하투사들의 생명력이다. …

마동열은 자기의 창조적두뇌로써 하나의 귀중한 경험을 조직의 투쟁사에 적어놓은것이다.

4

정시명은 그들이 사선을 넘어 구해놓은 출판물과 돈을 서울까지 운반해오는 문제에 대하여 각별한 의의를 두고 자신이 직접 이 사업을 맡아나섰다.

무엇보다 운반조에 동원된 사람들이 38°선지역을 자주 드나드는것과 관련하여 이들의 신분증을 믿음직하게 구비해주어야 하였다.

이 과업은 《대동청년단》 서북사무국에 리청천대표로 틀고앉은 김아성이 수행하였다.

김아성은 그들에게 개성지역에 마음대로 드나들수 있는 서북사무국의 신분증을 발급해주고 어느날에는 그들을 데리고 개성에 가서 그곳 지부장에게 소개까지 하였다.

김아성이 서북사무국의 유력자로서 리청천의 강력한 후원을 받고있다는것을 알고있는 개성지부장은 마동열일행을 각별히 대해주며 성의를 다하였다.

김아성은 어떤 때는 자신이 38°선일대를 래왕하면서 현지에서 그들의 활동을 믿음직하게 엄호하였다. 운반은 초기에는 손가방으로 하다가 그것이 위험하고 성차지도 않아 예비다이야에 넣어 서울까지 운반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정시명은 가져온 출판물은 곧 신문사에 넘겨주도록 하고 돈은 서울의 식산은행과 은행지점에 있는 성원들을 통하여 리수철(마동열

의 가명)과 림인석의 이름으로 저금을 시켜놓았다.
이 사업이 끝나자 부산에 있는 포경회사의 배편으로 밀무역한 막대한 액수의 자금이 도착했다는 련락이 왔다.
마카오장사군의 신분으로 부산에 내려간 마동열은 서울은행의 명의로 돈을 인수하여 부산은행에 예금을 시키였다.
이 사업을 마친 마동열은 부산시경찰서 수사과장을 마카오양복지로 매수하고 일부 자금은 서울로 무사히 보내였다.
마동열이 부산에서의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종로구 적산동에 있는 집에 들어설 때는 땅거미가 잦아들무렵이였다.
얼마전부터 마동열은 박정인의 집에서 나와 림인석의 동생인 림인준의 집에서 웃방살이를 하고있었다. 련락사업으로 많이 떠돌아다니는 관계로 지휘부에 계속 거처지를 잡고있는것이 사업상 불편하고 지휘부의 안전에도 불리하였기때문이였다.
물론 그가 정시명의 집을 떠난 리유에는 이미 무언의 약조가 되여있는 례영이와 아침저녁으로 머리를 맞대고 지내는것이 쑥스러운것도 있었다.
집을 가까이한 마동열은 습관적으로 양철굴뚝을 쳐다보았다.
순간 그는 가슴이 철렁하였다. 양철굴뚝을 처마와 련결시킨 빨간 합판쪼박이 거꾸로 매달려있고 굴뚝이 낮아졌던것이다. 마동열과 림인준부부와는 비상시에 밖에서 들여다보이는 양철굴뚝에서 연통 하나를 뽑아 굴뚝을 낮추어놓으며 처마와 굴뚝사이에 있는 빨간색합판을 반대로 돌려놓도록 약속이 되여있었다.
마동열은 벌어진 사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시명의 집으로 향하다가 인차 걸음을 돌려 자기가 경영하는 크로바차점으로 향하였다. 그러다가 그는 자기 집에 대한 감시가 있다면 크로바차점에 대한 감시조직도 되여있으리라고 추측하고 길가에서 잠시 주춤거리였다.
그런데 림인준의 처가 겨드랑이에 불룩한 꾸레미를 들고 먼발치에서 그를 따르고있었다.
마동열은 얼른 뒤골목으로 몸을 감추었다. 그 녀자는 마동열이 사라진 곳에서 두리번거리다가 그냥 역전쪽으로 걸어갔다.

마동열은 미행이 없다는것을 확인하자 얼른 그를 따라잡았다.

림인준의 처는 반가와하며 림인준이 벌써 며칠째 서울역에 나가 마삼촌을 기다리고있다고 말하였다. 집에는 경찰 두놈이 주야로 붙어있으면서 마삼촌을 찾는다고 하였다.

마동열은 저녁무렵에 역전대기실에 나타나겠으니 종로책방에 가서 례영이한테 소식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저녁무렵에 깜장치마에 초록빛뜨개옷을 가쯘히 받쳐입은 례영이가 근심어린 얼굴로 역전대기실에 나타났다. 그는 한손에는 민순임이 싸준 저녁밥을 싸들고왔다.

《어떻게 된 일이요?》

마동열은 례영이를 따라 역전공원에 들어서자 성급하게 물었다.

례영은 공원걸상에 들고온 저녁밥을 펴놓고 식사부터 하라고 하였다.

《어떻게 된 일이요? 밥먹을 경황이 됐소.》

마동열은 펴놓은 저녁밥은 거들떠도 보지 않고 다그어댔다.

《언제 봐야 오빠는 성미가 급하다니깐요. 별일 없어요.》

례영은 마동열이 속이 편해서 식사를 하게 하느라고 마음을 썼다. 그러나 서울에 와서 처음으로 당해보는 일이라 마동열은 정말 밥먹을 경황이 없었다.

《말해보오. 날 잡겠다고 벌써 며칠째 까마귀들이 설친다는데…》

《누가 그래요?… 어서 식사하세요. 별일 없어요.》

《별일 없다니?》

《어서 드세요. 어머님이 그 성미에 밥굶고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걱정이 커요.》

《원, 굶기는 뭘… 정말 별일 없어?》

《걱정두, 살얼음 밟고 서있는것 같네.》

례영은 총각이 숟가락을 들도록 생긋 웃어보이기까지 하였다.

과연 처녀의 정갈한 얼굴에 떠오른 꽃같은 미소가 이내 총각의 얼어든 가슴을 일시에 화락하게 덥혀주었다.

마동열은 《헤헤 참, 무슨 판인지 모르겠다. …》 하고 중얼거리며 숟가락을 들었다. 그리고는 볼이 미여지게 밥을 떠넣고 우적우

적 씹었다.
며칠간 객지밥을 설치며 돌아다니다가 례영이까지 옆에 앉혀 놓고 숟가락을 드니 밥맛이 꿀맛같았다.
《이거, 기장밥이구만! 밤알까지 타개넣고…》
한창 먹다가야 띄여본듯 마동열이 이렇게 중얼거리였다.
《정말 둔하다구야. 아이, 이제야 알았어요? 새우젓단지는 오빠가 와야만 어머니가 내놓군 해요. 새우젓은 왜 안들어요?》
례영은 마동열이 우정 미련을 부리는듯싶어 이렇게 핀잔을 주는데 마동열이 목이 메서 말을 받았다.
《정말 새우젓도 담았구만. … 에이참, 사모님은 언제나 이런다니깐… 선생님의 밥상에는 노상 조밥에 된장국만 올리면서…》
그 목소리가 례영이의 연한 가슴에 촉촉히 젖어들었다.
마동열의 고향은 두만강기슭이였다. 일찌기 부모를 여의고 류랑걸식하다가 맞다든것이 상하이뒤골목의 소매치기패였다. 소매치기패에 끼워 중국말도 익히고 나중에는 장지에스의 특무집단인 군통국에 걸려들었다.
갖은 천대속에서도 세상이 보란듯이 싱싱하게 자라난 이목구비가 준수하고 주먹이 드센 조선족청년은 군통국훈련소에서 중국격술도 배우고 정보교육도 받았다.
이렇게 되여 운명은 정시명과 상하이에서 만나게 하였다.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다. 그에게는 정시명이 형님이고 아버지였다. 그러나 엄한 아버지였다.
그는 지금 어머니의 인자한 모습을 다시 찾은듯싶었다.
마동열이 식사를 끝내자 례영은 그릇을 거두어 보자기에 다 싸놓고서야 이야기를 했다.
《아버님이 동열오빠더러 며칠 피해있으라고 하셨어요.》
마동열이 또다시 눈이 커졌다.
《그래? 그럼?…》
례영이 사려깊은 눈매로 그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젠장, 이야기해주오. 대관절 일이 어떻게 됐다는거요?》
마동열이 례영의 작은 손을 커다란 두손에 움켜쥐고 물었다.

례영은 《이런 얘기를 해주라고는 하지 않았는데…》 하고 짧은 숨을 호— 하고 내쉬고는 어쩔수 없는듯 사건의 전말을 아는껏 이야기하였다.

…사건의 단서는 개성에서 시작되였다.

만월동출장소책임자의 매부라는자가 처남이 준 돈을 가지고 배천온천에 가서 방탕하게 놀다가 그곳에 와서 료양을 하던 철도경찰청 경찰에게 체포되였던것이다.

경찰은 그자에게서 어울리지 않는 거액의 돈이 나오자 돈의 출처를 대라고 심문을 들이댔다.

이렇게 되자 그자는 만월동 처남집에서 보고들은 일을 그대로 실토하였다.

그곳에 경찰들이 달려들었을 때는 집은 다 처리된 후였다. 그런데 놈들은 수색놀음을 벌리다가 주인의 어느 책갈피에서 리수철의 집주소와 어느 운반조성원이 떨구고간 《대동청년단》 서북사무국의 증명서를 찾아냈다.

경찰은 즉시 림인준의 집을 기습하고 그집 안방에 틀고앉아 마동열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던중에 때마침 찾아온 림인석을 체포하였다.

놈들은 이어 림인석의 집을 습격하였는데 여기서 크로바차점 주인 리수철의 이름으로 된 1 500만원짜리 저금통장과 림인석의 이름으로 된 500만원짜리 저금통장을 발견하였다.

경찰놈들은 리수철이가 주동분자라고 하면서 림인준의 집주변에 있는 평화려관에 수사지휘부를 설치하고 대기상태에 있었다.

다음날에는 명목상 림인석이 경리부장으로 있는 조직이 주관하는 《우리 신문》 편집책임자가 체포되고 마동열을 찾아온 사람이 또 체포되였다.

사건은 단서를 잡은 철도경찰청 사찰계가 맡았는데 증거물로는 2 000만원의 예금통장과 운반조성원들이 리용하였던 《대동청년단》 서북사무국 증명서였다.

놈들은 작은 실머리에서 큰 사건을 들춰냈다고 떠들썩거리면서 크게 움직이고있었다. 얼마후에는 서북사무국의 증명서를 발급해주었다는 리유로 김아성이 체포되였다. 《대동청년단》에서는 철

도경찰청의 추궁에 대하여 그런 사실이 없다고 딱 잡아뗐으나 압수한 증명서에 의하여 사실이 확인되자 김아성을 내주는수밖에 없었다.

김아성은 돈을 좀 얻어먹느라고 그짓을 했다고 뻗대다가 끝내 놈들에게 끌리워 철도경찰청으로 압송되자 호송도중에 놈들을 맨주먹으로 쓸어눕히고 탈출하였다.

김아성은 그길로 리순애를 통하여 정시명에게 탈출경위를 보고하고 그의 하숙방에 은신하여 치료를 받았다. 김아성은 만약을 고려하여 리청천에게도 사실을 전화로 보고하였다.

리청천은 《돈이 필요하면 내게로 올게지 뭣때문에 그따위 좀스러운짓을 하느냐.》고 한바탕 욕설을 하더니 어데 가서 숨어있다가 찾아오라고 하였다.

놈들은 이른바 이 사건을 《화폐 2 000만원사건》이라고 부르면서 점점 확대시켜나갔다.

놈들은 이 사건을 지하조직과 련결시켜 조여들었다.

림인석은 돈의 출처를 대라는 검질긴 심문과 고문에도 신문사와 자기 처가 운영하는 미장원의 경영자금이라고 한소리로 뻗치였다.

…

《그렇구만.》

례영이 이야기를 마치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마동열을 쳐다보자 마동열은 시름겹게 말하였다.

《일이 너절하게는 됐는데…》

《어떻게 될가요?》

례영의 눈길이 여전히 마동열의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는데 속눈섭이 바르르 떨고있는것 같았다. 그 애절한 자태가 사내의 가슴을 찌르르하게 하였다.

마동열은 불시에 처녀의 어깨를 와락 끌어안았다.

《걱정마오.》

마동열은 자기를 걱정하여 가슴을 조이는 처녀를 무슨 말로 위로해줄지 갑자기 목구멍이 꺽 막혀 이 말만 곱씹었다.

《걱정마오.》

처녀는 말이 없었다. 사내의 품에 드니 가슴이 다소 진정되였다.

그들은 가슴깊이에서 솟아오르는 사랑과 련민과 래일에 대한 불안을 의식하며 쿵쿵거리는 심장의 박동에 귀를 기울인채 오래동안 한덩어리로 굳어져있었다. …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긴급모임이 여러 시간 진행되였다.

이날의 모임에는 처음으로 안지생과 김증원이도 참가하였다.

사태를 빨리 수습하지 못하면 조직의 재정에 커다란 손실과 혼란을 주는것은 물론 조직자체를 위험에 빠뜨릴수 있었다.

위험은 흥국상회의 대문을 두드리고있었다.

평소에 웬만한 일에 대해서는 끄떡도 하지 않던 정시명이 엄습해오는 위험앞에서 몹시 불안해하였다. 모두가 한목숨 바쳐서라도 사건을 좋게 마무리 지을것을 다짐했으나 신통한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였다.

정시명은 전우들이 내놓은 여러가지 대책들을 일일이 수첩에 적어가며 심중히 연구하였다.

회의는 련 이틀째 계속되였는데 정시명은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몇가지 수습방안을 제기하였다.

《첫째, 사건확대를 막으며 희생을 막기 위하여 로출된 동무들은 속한 시일안으로 출국시켜야겠소. 놈들이 현재로서는 출국통로를 엄격히 봉쇄하고 수배령까지 전국적으로 내렸으므로 당분간은 은밀히 행동해야겠소.

둘째, 체포된 동지들을 하루속히 석방시키기 위한 투쟁을 벌려야 하오. 이것은 동지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이며 사건을 무난히 결속할수 있는 초미의 과제요.

셋째, 적들의 수사에 혼란을 조성시키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적들을 매수하고 압력을 가하도록 해야겠소.》

마동열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는 이제부터 지하에 들어가며 필요하면 일본에 건너가서 정형수술이라도 하고 오겠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청원하였으나 그의 의견은 기각되였다.

수사의 목표는 마동열을 체포하는것이였다. 신문과 방송에 그에

대한 체포령이 공개되고 기차역과 뻐스정류소들에 그의 사진과 인상특기가 상세히 나붙어있었다.

모임에서는 안지생과 김증원을 지도부의 성원으로 받아들였다.

마동열은 이날저녁 자기 임무를 안지생에게 인계하였다.

그는 인계를 마치고 안지생의 손을 꽉 잡고 자못 절절하게 당부하였다.

《내 일을 잘못해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떠나오.

안동무가 어련하겠소만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부탁하오. 정향동지의 신변보위를 잘해주오.

정향동지는 건강도 좋지 못하오. 위장병도 있고 신경통도 심하다오. 20년세월을 이렇게 살아왔으니 어떻게 건강하겠소. 정말 떠나자니 걱정이 많고 걸음이 떨어질것 같지 않구만.》

마동열은 눈물을 뚝뚝 떨구며 안지생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마동무, 너무 속을 쓰지 마시오.》

안지생이 이렇게 위로했으나 마동열은 오래도록 눈물을 거두지 못하였다.

이날저녁 민순임은 정성껏 술상을 마련하였다.

평시에 아무리 권해도 《난 석잔이요.》 하며 잔을 상밑에 내려놓던 정시명이 아무말도 없이 마동열에게 연거퍼 술을 권하면서 자기도 부어주는 술잔을 다 비우군 하였다.

술상을 다 거둔 다음에야 정시명은 담배를 꺼내물며 말을 떼였다.

《내게 할 말이 없나? 노여운 일도 많고 섧은 일도 많았겠는데…》

《선생님!》

마동열은 그의 팔에 커다란 몸을 던지며 오열을 터뜨렸다.

《어데 가서나 애국충신으로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 살아가라구. 례영이는 자네가 터를 잡으면 보내주겠네.》

정시명은 근육이 툭툭 불거져나온 그의 실팍한 허리를 어루쓰다듬으며 갈린 목소리로 이야기하였다.

그는 이밤중으로 대전에 가서 도총무과장 박영수의 집에서 놈들

의 수배령이 해제될 때까지 숨어있다가 부산에 가서 부산경비려단장 최원기의 안내를 받아 밀선을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여있었다. 장차는 타국에 생활거점을 마련할데 대해서도 생각해보도록 하였다.

마동열은 민순임과 례영이를 만나 곡진한 어조로 이야기하였다.

《사모님, 모두들 선생님의 건강을 걱정하신다는걸 아시지요? 찬거리랑 좀 잘 차리도록 해야겠어요.》

《글쎄, 저 량반이 야단하는걸 어찌겠소.》

민순임은 얼굴을 붉히면서도 저으기 난감한듯 한숨섞인 어조로 말하였다.

정시명은 일상 식생활에서 쓸데없이 재정을 랑비하는데 대하여 엄격히 통제하고 솔선 모범을 보여온다.

《사모님,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선생님의 건강이나 신변안전을 위해서는 본인의 의사라고 무턱대고 받아들이지 말아주십시오. 어련하시겠지만… 꼭 부탁입니다.》

《예. 예…》

민순임은 그 어진 눈에 더운 물기가 그렁해서 고개를 끄덕이였다.

《례영이, 선생님이 례영이를 인차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해주오. …》

《제 걱정은 말아요.》

례영은 민순임의 앞이라 입술을 감빨기만 하다가 기여드는듯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통일이 되는 날 다시 만나요!》

5

길철이 료해한데 의하면 사건을 담당한 철도경찰청장 백형복은 8.15전에 일제경찰에 복무하면서 수많은 애국자들을 탄압학

살한 극악한 친일주구였다.

길철로부터 그놈의 경력을 듣고난 정시명은 맥살이 탁 풀렸다. 이놈을 포섭한다는것은 아무리 묘안을 내보아야 불가능한 일이라는 직감이 들었던것이다.

그러나 정시명은 사건에 대한 총체적지휘와 결론을 그놈이 하게 된 조건에서 어차피 그놈과의 대결은 피할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박달에도 못 들어갈 자리는 있소. 약한 고리를 들추어내시오. 거기에 불의타격을 가해봅시다.》

길철은 이튿날 례영을 통해 임무수행정형을 간단히 보고하여왔다.

《백형복은 술과 돈을 받아먹는데 이골이 난 놈이라 합니다. 그리고 계집이라면 오금을 못쓰는 호색광이라고 주변에서 평가하고있습니다.》

정시명은 그놈의 치명적인 약한 고리인 물욕을 사건해결의 돌파구로 하고 적임자를 찾아내라고 임무를 주었다.

길철이 추천한 인물은 이미 정시명이 여러번 정치전에 내세워본 일이 있는 근민당의 총무부장인 서울의 《3대재사》 최성환이였다.

그런데 이무렵에 새로운 정황이 조성되였다. 취조관들의 악형에도 조직의 비밀을 고수해온 림인석이 적의 마수로부터 용감하게 탈출한것이다.

림인석은 련루자를 대라고 강박하자 엉뚱한 이름을 대고 서울시안의 여러곳으로 이리저리 끌고다니다가 놈들이 해이된 틈을 타서 감쪽같이 빠져나왔다.

정시명은 림인석에 대한 수배령을 전국에 내리기 전에 진해에 있는 무역선 《금비라》호에 보내여 남조선을 빠져나가게 하였다.

수사선은 림인석의 탈출로 하여 중도반단되였다.

그러나 백형복은 더욱 발광적으로 수사의 폭을 넓혀나갔다.

림인석의 처도 철창에 끌려갔다.

감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불리하여졌다.

정시명은 최성환을 직접 만나 백형복과의 사업계획을 협의하였다.

최성환은 사람들과의 교제를 로숙하게 할줄 아는 수완가였다. 그는 백형복이와 풋낯이나 아는 사이라고 하면서 여러가지 복안을 내놓고 자신만만해 하였다.

어느날 백가가 드나드는 길목을 며칠째 지키고있던 최성환은 백가놈과 우연히 만난것처럼 하고 그를 서울에서도 이름난 중국료리집으로 끌고갔다.

조용한 방을 부탁하여 백형복과 마주앉은 최성환은 고급양주를 청해 우선 그놈을 녹초가 되게 술대접을 하였다.

우직하게 생겨먹은 백가는 주량도 컸다. 정신이 혼미해지자 그놈은 혀가 꼬부라진 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허허, 서울장안에서도 난다긴다하는 3대명물 최성환이 이렇게 술잔치에 제복쟁이를 청해 돈을 뿌림즉은 무슨 끈끈한 수작이 있겠다?…》

《허허, 바로 말했네. 이놈의 세상인심에 어데 공돈이 있고 공술이 있다던가.》

《내 그럴줄 알았네. 어서 말해보게. 그까짓, 이놈의 이마우에 금줄을 얹혀놓고 브란데 한병값이야 물지 못하겠나.》

그놈은 경찰제모를 손가락에 놓고 빙글빙글 돌리면서 객기를 부렸다.

《여보게, 사실인즉 자네들이 압수한 돈과 저금통장이 말일세. 그게 다 내것일세. 그 돈은 내가 무역상 박정인에게서 빌려다가 좀 빚놓이를 해달라고 맏긴건데 일이 참 묘하게 꼬이더구만.》

《뭐?…》

백가는 술기운이 깡그리 잦아내린듯 퉁방울눈을 둘둘 굴리였다.

박정인을 개입시킨것은 그가 사회에 소문난 고려상사의 사장이며 38°선을 넘나들며 장사를 하고있다는것을 백가도 알고있었기때문이였다. 또한 림인석이 고려상사의 전무로 있었다는것을 상사안의 여러 인물들이 다 인정하고있었기때문이였다.

《정말인가?…》

《정말 아니면… 내가 제 일이 아니면야 자네들이 사람까지 잡아가두며 하는 일에 무엇때문에 오금이 저리게 끼여들겠나.》

《모를 일인데… 2 000만원이 자네 돈이라니?… 그저께는 림인석이도 도망을 쳤어.》

최성환은 술상우에 뭉치돈을 내놓고 련속공세를 들이댔다.

《아, 그게 내 돈이 아니라 박정인의 돈이란 말일세. 내가 어데서 그 많은 돈을 긁어모을수가 있겠나. 그러니 난 그 돈 찾지 못하면 죽는 길밖에 없네. 좀 도와주게.》

《좋아. 알아보겠네.》

백가는 술상우의 뭉치돈을 바라보며 울대를 꿈틀거리였다.

《그런데 힘은 좀 들게 됐수다. 사건이 이미 검찰에 넘어가게 되였고 담당검사가 나서게 돼있거던. 이젠 내게서 사건은 떠나간거나 다름없으니 내가 나서서 이래라저래라 할 형편은 못되였네. 그러니 담당검사와도 줄을 놓아보라구. 그 녀석이 고집불통이라면 나도 달리 손을 써보지.》

《그놈은 어떤 놈인가?》

《어떤 놈이기는?… 그저 그런 놈이지. 자네 오늘 나를 나꿔채듯이 하면 엿먹듯 되는거지.》

《허, 롱담도… 자네를 믿고 찾아온거지 그까짓 돈이 대순가.》

그들은 자주 련계를 가지기로 하고 헤여졌다.

백가와의 사업정형을 들은 정시명은 길철에게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말고 사업을 끝까지 내밀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심중하게 말하였다.

《내가 이 문제에 대하여 마음을 놓지 못하는것은 이 사건이 개별적사람들의 운명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기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확대되여 단서가 드러나면 조직전체를 흔들수 있고 우리 혁명의 권위를 훼손시킬수 있기때문입니다.

지난 시기 남조선공산당을 지하에 밀어넣은 〈정판사위조화페사건〉을 잘 알것입니다.》

《정판사위조화페사건》이란 1946년 5월에 미제와 반동들이 남조선에서 공산당을 탄압하기 위하여 조작한 첫 모략이였다.

놈들은 당시 남조선공산당 기관지인 《해방일보》를 인쇄하던 《정판사》라는 인쇄공장에서 정치자금조달과 남조선경제를 혼

란시킬 목적으로 은행권 1 300만원을 위조했다는 얼토당토않은 사건을 날조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화로 전격적으로 《정판사》를 페쇄하고 《해방일보》를 페간시켰으며 남조선공산당을 지하에로 몰아넣고 좌익세력에 대한 일대 공세를 벌렸던것이다.

정시명의 이야기는 사건에 관계하고있는 사람들을 각성시키였다.

정시명은 길철에게 《그리고 우리는 이번 공작을 통하여 흥국상회의 힘을 키우고 원쑤들과 싸워 이기는 법을 체득하여야 하겠소.》하고 힘을 주어 강조하였다.

담당한 적대상들과의 공작을 심화시키는 한편 감방에 있는 동지들과의 사업도 벌렸다. 그들에게 사식차입을 구실로 밥그릇속에 쪽지를 들여보내 투쟁방향을 알려주군 하였다.

여기서 용기를 얻은 감방안의 조직원들은 자기들은 장사거래관계로 마동열과 림인석을 찾아갔을뿐이라고 모든 책임을 그들에게 넘겼다.

《우리 신문》의 편집책임자는 압수된 예금통장은 《우리 신문》의 경영자금으로서 박정인과 최성환이도 련결되여있는 돈이라고 주장하였다. 림인석이 탈출한것은 당신들이 마구 때리기까지 하니 겁을 먹었기때문이지 죄가 있어 도망간것은 아니라고 완강하게 맞섰다.

백가는 그들의 진술을 그대로 작성하여 《우리 신문》의 편집책임자를 제외한 사람들은 자기 권한으로 석방시키였다.

그의 석방과 저금통장을 찾는 문제는 상부에서 증거가 있는것으로 주장하기때문에 별도리가 없다고 최성환에게 우는소리를 하였다.

최성환은 그놈으로서는 할바를 다한것 같아서 백형복에게서는 일단 손을 떼고 담당검사에게 달라붙었다.

그를 만나보니 그도 면목이 있는 사이였다. 입술이 얄팍하고 동그란 얼굴에 기름기가 반질거리는 되박이마가 약아빠지기 그지없고 호락호락하게 넘어갈것 같지 않아보이는 사나이였다.

최성환이 마련한 술상에 끌려든 검사는 자기도 박정인선생을 안다고 하면서 그 사건이 자기에게 넘어오기는 하였으나 아직 문

건파악을 하지 못했노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자기도 힘써보겠노라고 대답했다.

최성환은 의외로 쾌히 받아들이는 수작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으나 그런대로 두고보는수밖에 없었다.

길철은 이들과는 별개로 복선을 치기도 하였다.

미군정청의 법무고문의 비서로 있는 권재수를 인입하였다.

권재수는 공정한 재판을 주장하는 량심적인 법관으로 소문나있었다.

그는 사건의 경위를 다 듣고나서 이 사건이 그 어떤 좌익조직의 움직임속에서 튀여나온것이라는것을 인차 판단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도 뒤에서 후원을 하겠는데 표면에 나서면 이미 진행되고있는 석방공작이 흐지부지될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뢰물을 먹이고 사건을 덮어버리는것을 당사자들만이 알아야지 옆에서 개입하면 담당검사가 겁을 먹고 외면한다는것이였다.

권재수는 담당검사가 눈치채지 못하게 살피다가 정 되지 않을 때는 자기가 나서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면서 경찰이나 검사는 로임에 묶여있으면서도 돈을 흔하게 쓰는 패들이라 돈 싫어하는 놈 없고 어떻게 하나 먹여만 놓으면 반드시 그 값을 치른다고 조언을 주었다.

옳은 의견이였다. 그리고 동정자만이 줄수 있는 량심적인 대답이였다.

길철이 그에게 사례금을 내놓자 자기의 몸값을 돈으로 회계하겠는가고 하며 펄쩍 뛰였다.

길철의 보고를 들은 정시명은 그와의 사업은 당분간 보류하고 앞으로 조직에 인입하여보라고 의견을 주었다.

며칠후 돈뭉치가 들어있는 손가방을 든 최성환이 다시 담당검사를 찾아갔다.

그의 집은 두간짜리 세방집인데 검사의 집치고는 살림살이가 궁해보였다.

그런데 검사는 예상밖으로 쌀쌀하게 그를 맞았다.

《그 돈이 정말 선생님의겁니까?》

그놈은 마치도 죄인을 심문하는양 때없이 표독스러운 눈초리로 최성환의 눈을 찌르듯이 쏘아보았다.

《물론이지요.》

《만일 그 돈이 최선생의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손을 떼는것이 좋습니다.》

그의 메마른 경고에 최성환은 가슴안이 써늘해왔다. 필경 사건이 복잡하다는것을 느끼고 하는 수작인것 같다. 그럴수록 바싹 들이대야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자가 자기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거나 아니면 흥정을 비싸게 해보려는 두가지 리유가 틀림없다.

《원, 검사님두. 거야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 허, 이거 난은 난이군. 단돈 한잎을 잃고도 속앓이하는판에 2 000만원을 앉은 자리에서 떼우다니…》

최성환의 탄식에 검사놈은 담배연기만 몰몰 피워올리며 아닌보살을 하였다.

검사의 수작도 교활하지만 사개가 딱딱 맞물려돌아가는 각본을 짜가지고 검사의 마음속을 이리저리 휘저어놓는 최성환을 당해내기는 만무하였다.

최성환은 이놈이 분명 돈줄을 노린다는것을 포착하자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에라, 술판에나 갑시다. 망조가 들라면 바닥까지 긁어가라지.》

최성환은 검사가 한사코 도리질을 하는것을 억지로 일궈세워 문밖에 나섰다.

《아, 가방을 두고갑니다.》

검사놈이 대문을 나서다가 생각난듯 돌아섰다.

《술마시러 가면서 뭣하러 가지고가겠소.》

《그럼 돌아갈 때 가져가도록 하시우.》

검사는 녀편네를 불러 《손님가방을 잘 건사하오.》 하고 이르고는 최성환을 따라나섰다.

그놈은 가방안에 뭣이 들어있겠는지 다 냄새를 맡고있었다.

술집에서 나오며 최성환은 그의 손목을 붙잡고 다시 부탁하였다.
《이왕 말이 난것이니 어떻게 도와주시오. 엎음갚음이라고 내 신세만 지고사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검사의 태도는 두고온 돈가방에 욕심이 가서 한결 누그러졌다.
《내 동정이 갑니다. 그런데 시간은 걸려야 합니다. 철도경찰청에서는 지금 큰 놈을 잡게 됐다고 어깨를 들썩거리며 사건처리를 주시하고있습니다.》
《철도경찰청장은 내 오랜 친구올시다.》
《아, 그건 잘 모르시는 말씀이시오. 이런 일에는 웃사람보다 취급자가 문제지요.》
자기를 내세우는 소리였다.
최성환은 개떡먹어라고 쓴웃음을 지으면서도 《그러믄요.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너스레를 부렸다.
헤여질 때 검사는 집에 가서 가방을 가져가라고 잊지 않고 일깨워주었다. 그 말투가 여간 곰상스럽지 않았다.
《가지고갈 가방이면 두고왔겠소.》
《하, 그러면 곤난한뎁쇼.》
《너무 그러지 마시우. 내 설사 일이 잘못되여도 횡설수설해 검사님 욕되게는 하지 않을테니 념려말고 살림에 보태쓰시오.
졸지에 2000만원을 하늘에 날려보내게 된 놈이 기왕 몇만원 더 털어버린다고 팔자가 달라지겠소.》
검사는 몇만원이라는 소리에 정신이 아찔해졌다. 아직 난생 그런 묵돈을 쥐여본적이 없었던것이다.
일은 계획대로 진척되였다.
최성환은 이따금씩 전화를 걸어 독촉이나 하는 정도로 검사를 움직여나갔다.
결국 검사와 백가놈이 짜고들어 예금통장은 고려상사의것이며 범인들은 협잡으로 그의 돈을 가로채려고 시도하다가 외국으로 도망친것으로 사건을 종결지어버렸다.
이리하여 《우리 신문》 편집책임자도 석방되고 예금통장도 박정인이 경찰서에 출두하여 정확히 인수받았다.

사건은 수습되였다.

그러나 마동열과 림인석에 대한 수배령만은 해제되지 않았다.

그때로부터 몇년이 지난 이야기다.

철도경찰청장 백형복의 운명을 여기에서 밝혀놓고 넘어가기로 하자.

1980년대 중반기의 어느 봄날이였다.

필자는 대동강반의 수양버들아래서 중앙기관의 책임일군으로 사업하던 어제날의 내무성 부상 김춘삼과 마주앉았다.

지금은 고인이 되여 애국렬사릉에 묻혀있는 나라의 충신이다.

《백형복이라?…》

70객을 눈앞에 보는 로인인 김춘삼은 이렇게 말을 떼고는 옛 추억에 잠기였다.

《아주 나쁜 놈이였다우. 참 교활한 놈이였지요.》

그는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백형복은 치안국 분실장으로 있다가 가족까지 데리고 북반부로 의거입북하였다.

몇명의 애국자들을 감옥에서 탈옥시키도록 도와주었다는것으로 하여 전국수배령이 내렸던것이다.

공화국은 그의 의거를 환영하였다. 지난날을 눈물로 뉘우치고 재생의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야 그를 마다할수 있는가.

그런데 두가지 문제가 김춘삼을 긴장하게 하였다. 첫째는 자기는 한생을 반탐에서 종사했으니 꼭 내무기관에 배치하여 실적을 보이게 해달라는것이다. 다른 좋은 일자리를 알선해도 그는 한사코 도리질이였다.

김춘삼이 설명을 하였다.

《여기에 당안에 기여든 미제의 고용간첩 리승엽이 지원포를 쏴왔지요. 그놈은 백형복이 과거를 깨끗이 참회했다면 그의 희망대로 반탐분야에서 종사하도록 재생과 복무의 기회를 주라고 정중하게 의견을 보내왔다우.

그 시기에 이르러 우리에게는 여러 통로에서 박헌영과 리승엽에 대한 미묘한 문제들이 제기되여왔었는데 리승엽의 의견이 좀 례사

롭지 못하다고 생각되더군. … 둘째로는…》
김춘삼은 생각을 더듬어나갔다.
둘째로, 결정적인것은 정시명의 전우들이 그에 대한 평정에서 그의 입북은 하나의 기만극이라고 단언한것이였다.
사실 백형복은 내무기관에 잠입할데 대한 미제의 특별지령을 받고 들어왔었다.
임무는 당과 정부의 요직에 잠입해있던 박헌영, 리승엽도당들의 련락관으로 움직이는것이였다.
김춘삼은 그를 깊은 산중에 보내였다. 융숭하게 대접하면서 글이나 써내라고 권고하였다.
산중에서 세월이 흘렀다. 여러해가 지났다. 그는 그사이 전쟁이 일어났고 조국이 포연속에 잠겨있는것도 몰랐다.
어느날 내무성 부상 김춘삼이 기별없이 불쑥 나타났다.
그동안 백형복이 박헌영과 리승엽에 대하여 여러차례 물으며 관심을 보여온 사실을 당시 그놈들의 심상치 않은 동향과 련결시켜본 김춘삼은 단통 들이댔다.
《백형복, 이젠 정체를 내놓지. 당신의 접선대상들은 이미 심판대에 올랐소.
어떻소, 그래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겠소? 때가 늦으면 죄과는 더 커진다는걸 알아야 해.》
그 소리에 백형복은 아연실색하였다.
《선생님!》
그는 김춘삼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놈의 진술에 의하여 그때까지 여러 선에서 의심스러운 행적을 남겨온 박헌영, 리승엽일당의 정체가 최종적으로 확증되였다. …

제5장
박달에도 못 들어갈 자리는 있다

1

며칠이 지나 정시명은 례영을 대전에 있는 박영수의 집으로 내려보냈다. 마동열에게 보내는 자금과 출국과 관련한 지시를 주기 위해서였다.

마동열이 오늘저녁에 부산을 떠나면 사건수습은 깨끗이 끝나는셈이였다. 송호정과의 련계는 앞으로 박영수와 직접 선을 이어놓았다.

부산에서는 최원기가 밀선을 준비해놓고 마동열을 기다리고있었다.

마음이 좀 가벼워졌다.

점심상을 물리고 잠시 자리에 누워 일간신문들을 보는데 민순임이 소리없이 방문을 열고 머리맡에 와서 앉았다.

《저 한가지 물을게 있는데…》

민순임이 신문에 눈길을 박고있는 남편을 방해하는게 미안쩍어 조심스럽게 말을 떼였다. 아직도 민순임은 둘이 있는 자리에서도 남편을 어려워한다.

정시명이 안해가 그럴 때마다 민망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오히려 자기를 책망해보기도 했지만 민순임의 소심한 태는 여전하였다.

《얘기하오.》

정시명은 신문에 여전히 눈길을 주며 대답했다.

《통일이 언제면 될가요?》

그 말에 정시명은 번쩍 고개를 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뭐요?》

정시명은 왕청같은 안해의 물음에 한순간 떨떨해졌다. 그는 한참이나 안해의 얼굴을 물끄러미 지켜보다가 껄껄 웃고말았다.

《남은 알고싶어 물어보는데…》

민순임이 작은 목소리로 핀잔을 주었다.

《그래 당신생각에는 언제 될것 같소?》

정시명이 여전히 미소를 담고 물었다.
《글쎄요. 래년이면 될가요?》
《글쎄… 나도 모르겠소. 정말 나도 모르겠소.》
정시명은 민순임의 눈에서 진지한 빛을 보자 정색을 하고 이렇게 대답했다. 정말 자기도 모를 일이다. 언제면 통일이 되려나, 언제면 국토가 다시 합쳐지고 38°선의 패말뚝들이 없어지려나.
자기도모르게 정시명의 입에서는 긴 한숨이 나왔다. 가슴이 답답해왔다.
민순임이 남편이 대답을 하지 못하자 한발 가까이 나앉았다.
《례영이 말이예요.》
《례영이가 어쨌다는거요?》
《그애를 이번에 동열이 그 사람한테 달려보내면 안될가요?》
《그건 왜? 동열이 자리잡은 다음에 보내자구 했는데…》
《그애가 그때 가서 혼자 갈려고 할가요?》
《그건 무슨 소리요?》
《그애 성미에 당신 남겨두고 따라갈것 같지 않아서요. 동열이 떠날 때 그애가 한 소리가 있어요.》
《어떻게?》
《동열이 그 사람이 기다리겠다구 하니 자긴 통일된 다음 가겠다고 합디다.》
《그건 무슨 소린가? 통일된 다음이라니. 그게 언제될지 누가 안다구…》
《그러니 내가 물어보는 소리가 그게 아닙니까.》
《음, 그렇구만…》
정시명이 시름겹게 대답하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사실 민순임은 례영의 말을 들은 다음에는 그 말이 명치에 맺혀 도무지 내려가지 않았다. 그래서 하루에도 예닐곱번씩 정시명에게 말을 꺼내고싶었는데 이제까지 모두 돈사건때문에 얼굴이 꺼칠해서 돌아가기에 얘기를 붙여볼 자신이 없어 참아왔었다.
정시명은 안해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뻐근해왔다. 정말 통일이 되기는 빨리 돼야겠는데 지금같아서는 대중할수가 없다. 그

렇다고 그날까지 례영을 옆에 끼고있는다는것은 말도 안된다.

정시명의 눈앞에 불쑥 수류탄을 안고 창문에서 뛰여내리던 김정필의 불사신같은 모습이 우렷이 떠올랐다.

《내가 애비구실을 제대로 못하고있소.》

정시명은 혼자소리로 마치 딸을 맡기고간 귀중한 전우에게 사죄를 하듯이 침울하게 웅얼거리였다.

《내 생각에는…》

민순임이 용기를 내여 말하다가 말끝을 이내 가무리지 못하는데 정시명이 생각을 내놓으라는듯 고개를 끄덕이였다.

《이제라도 대전에 따라가서 머리를 얹어주고오면 좋지 않을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한단 말이요?》

《동열에게 달려서 보내지요.》

민순임이 별생각없이 척척 대답하자 정시명은 무릎을 쳤다. 너무도 쉽게 해결되는 문제이다.

동열이와 함께 보내면 그들에게도 미안스럽지 않고 돌아간 그들 부모앞에서도 죄스럽지 않을것 같다.

《당신이 참 좋은 생각을 했소. 그걸 왜 이제야 통겨주오.》

《모두 내남없이 바쁘게 다니니 어디 그런 말 꺼내놓겠습디까.》

《차비를 하오. 택시를 불러 타고갔다오우.》

《당신은 가지 않고요?》

《내가?… 그래, 내가 가야 할 일이지.》

《내같은게 열스물이 간들 당신 가시는것만큼이야 하겠어요.》

《그건 그래.》

정시명은 이렇게 말하며 또 길게 한숨을 내쉬였다.

《오늘저녁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여있소. 당신 하루전에라도 귀띔을 해주었더라면…》

정시명은 락심천만해서 혀를 찼다.

《이렇게 합시다. 당신 영수 아버님을 모시고 갔다오오. 무슨 일이 생겨도 그렇고… 영수 아버님께 내 부탁하리다. 나를 대신하여 잔도 받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라고…

이거 정말 안되였소. 그러니 난 이젠 례영이를 보지 못하겠구만.》
정시명은 저도모르게 한숨을 길게 내쉬며 갈린 소리로 말했다.
《그애에게 뭘 기념으로 주었으면 좋겠는데…》
정시명이 책상을 뒤졌으나 알맞춤한것이 눈에 띄지 않았다.
《됐수다.》
민순임이 허둥거리는 남편의 모양을 생각깊은 눈으로 지켜보다가 《당신이 정히 소원이라면 우리 량주의 선물로 이걸 끼워주리다.》 하며 왼손을 정시명의 눈앞에 조심스럽게 내민다. 거기에는 정시명이 약혼기념으로 끼워준 반지가 반짝거리고있었다. 벌써 서른해가까이 민순임이 소중히 간직해온 사랑의 소중한 유물이였다.
《여보!》
정시명은 불시에 그가 내민 손을 덥석 움켜잡고 자기의 볼에 비비였다.
사람은 사람다운 구실을 해야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다는것이 정시명이 마음속으로 자주 외우는 삶의 신조이기도 하다.
사람다운 구실이란 여러가지로 풀이되겠지만 남을 위해 좋은 일만 하는것이 으뜸이라 하겠다. 그래서 누구나 생을 마무리할 때 량심에 후회되는 일이 적도록, 자신의 추억도 아름답고 남들의 추억에도 아름답게 간직되도록 그렇게 한생을 살기를 소원하는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생각이 부족한탓으로 가슴에 후회를 남기는 일이 적지 않다.
정시명도 지나간 자국을 돌이켜볼 때면 스스로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에 저리는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한발 옆으로 비켜서거나 한발 앞으로 내밟거나 한발 뒤로 물러났으면 될 일들이 용기가 부족했던탓으로, 힘이 모자랐던탓으로, 또 생각이 짧았던탓으로 지울수 없는 아픔이 되여 두고두고 가슴을 에이군 한다.
그는 지금도 례영의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그를 선양에서 만났던 그날저녁 조국으로 떠나보내려던 자기의 주장을 그냥 내밀었더라면 그 금쪽같은 인간의 절통한 희생이 없었을것이라고, 그를 죽

음에로 몰아간것은 자기의 우유부단이였다고 자신을 힐책한다.
이번에도 민순임이 이렇게 제때에 충고를 해주지 않았더라면 또 하나의 지울수 없는 아픔을 가슴에 새겨둘번 하였다.
정말 통일의 날을 기다리다가 이루어져야 할 그들의 행복이 자취없이 사라진다면 그 얼마나 통탄스러운 운명의 비극이겠는가.
항차 그들은 생명의 은인인 귀중한 동지가 남기고간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고 이날이때까지 자기에게 꿈도 희망도 다 맡기고 자식보다도 유별한 정을 두고 떠나는 귀중한 전우가 아닌가.
정시명은 다시 돌아올수 없는 전우앞에, 아름답게 꽃피고 열매맺어야 할 이 나라 청춘들앞에 자칫하면 죄를 지을번 했다고 생각하며 새삼스러운 눈으로 안해를 바라보았다.
자기가 미치지 못했던 생각의 구석을 메워주고 한생의 후회를 덜수 있게 한 안해가 진정 고맙고 소중하였다.
《여보,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난 당신을 미처 다 알지 못하고있었구려. 정말 고맙소.》
정시명은 애틋한 정과 깊은 신뢰를 담아 나직이 속삭이였다.
하지만 민순임은 자기가 무슨 큰일을 했기에 남편이 이렇게도 좋아하고 목이 메여 하는지 통 리해가 가지 않았다. 요 며칠새 옆에서 구시렁거리며 잠을 못이루군 하는 례영이를 보면서 이애가 나처럼 수십년을 청상과부로 살게 되지 않을가 하는 생각에 시달리다가 끝내는 이날에 자기 생각을 비쳐보았을뿐이다.
살아오면서 정시명이 이처럼 자기를 종잡을수 없게 하는적이 부지기수였지만 아무튼 자기 생각을 기꺼이 받아주고 칭찬해주는것이 그저 기쁘고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정시명이 이윽고 안해의 손을 놓아주며 말했다.
《빨리 떠나도록 하오. 늦잡다가는 동열이를 놓칠수 있소.》
그러면서 자기도 박정인을 만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순임은 박정인과 함께 서둘러 서울을 떠났다.
박정인이 대전에 5시전에 닿아야 한다면서 택시운전사를 연방 몰아댔으나 택시운전사는 이제는 승객들의 그런 성화에는 습관이 된듯 코노래만 흥얼거리며 여전히 무사태평이였다.

그러더니 공교롭게도 대전교외에 들어서면서 승용차가 푸르닥닥 거리다가 그만에야 재채기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거 야단이군.》
박정인은 택시가 끝내 서버리고 운전사가 김이 문문 나는 기관실을 헤쳐놓자 마음이 급해져 화를 냈다.
《부산가는 차가 꼭 여섯시에 역전을 떠난다고 했는데…》
《령감님, 너무 념려마시우다.》
《여보게, 념려 안하게 되였나. 여섯시차를 놓치면 대사가 망쳐질판이야.》
《그놈의 기차도 고장이 나서 제대로 대전에 오지 못할테니 념려마시래두요.》
《엥히, 배놈 배머리 돌리듯 둘러맞추기는… 기차두 고장이 날텐가, 자네 발바리처럼.》
평소에는 성이라곤 모르고 살아오는 박정인이 셈평좋게 퉁퉁하는 운전사의 말에 골이 나서 어성을 높였다.
《두고보시라요.》
운전사는 여전히 반죽좋게 대답질을 하며 하는 일을 다그친다.
민순임은 차에서 내려 운전사에게 다가가 기관실을 넌지시 보다가 근심스럽게 물었다.
《시간이 오래 걸릴가? 우린 정말 중한 일이 있어그러네.》 하며 손수건을 꺼내 운전사의 땀기 오른 목덜미를 자근자근 눌러주었다.
《오마니, 잠시잠간 좀 휴식하시소.》
차는 대문이 열려있는 박영수의 집에 다섯시가 거의 돼서야 닿았다.
운전사는 역까지 모셔주겠노라 하면서 돌아서지 않고 대문간에서 기다렸다.
《게 있느냐?》
박정인이 급해맞아 마당에 들어서기바쁘게 크게 소리를 질렀다.
방문이 빼써 열리더니 만삭이 된 며느리가 토방에 나섰다가 시아버지를 보자 뚱기적거리며 내려와 곱게 절을 올리였다.

그러나 박정인이 며느리인사를 정하게 받아들일 경황이 못되여 《객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마동열의 소식부터 물었다.

《역으로 나갔는데요. 서울아가씨랑 같이요.》

《영수도?》

《그인 렬차좌석을 봐주느라고 한발 먼저 나갔는데요.》

《허, 이거 랑패로군.》

박정인은 토방에 무너지듯 앉으며 탄식을 하였다. 내려오자바람으로 간단히 상이라도 차려놓고 술잔이라도 받자고 했는데 일이 비뚤어졌다.

박정인이 미처 궁리가 나지 않아 깨끗이 다듬어진 집마당을 두리번거리다가 성큼 자리에서 일어났다.

《얘야, 거 뭐 좀 자동차에 실어라. 잔치상이 되게.》

《예? 잔치상을요?!… 언제 말씀이신가요?》

《이제 당장… 그 사람들의 결혼상을 차려야겠다.》

《어디서 차리시겠습니까?》

《어딘 어디야. 기차칸에서라도 차려야지. 암, 차칸에서… 어서!》

박정인이 급한 생각에 며느리를 앞서 집안으로 들어갔다.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무슨 실성한 소리를 하느냐싶으면서도 박정인의 엄한 눈길에 몰려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가며 이것저것 꺼내놓았다. 박정인이 그중에서 술병과 당과류와 과일 몇가지만 챙겨서 보자기에 싸게 하였다. 그리고는 부르릉거리는 자동차에 오르면서 바래주려고 나온 며느리에게 한마디 했다.

《우릴 기다리지 말거라.》

《그럼 어디서 밤을 보내실려구…》

《내 잠자리는 따로 있다. 자, 떠나자구.》

박정인이 콩볶듯 다그어대는 바람에 민순임은 거의 한해만에 만나보는 박영수의 처와 말 한마디 건늬여보지 못하고말았다.

역사에 이르니 여섯시가 지났다. 박정인의 심정을 알고있는 운전사는 역개찰구로 곧바로 차를 몰고가서 서성거리고있는 한 청년에게 물었다.

《부산가는 차가 도착했소?》

《30분 연착이라오. 뭐 지금 렬차라는게 시간을 지켜 다닌답디까.》

운전사는 청년이 불평을 늘어지게 하자 《고맙수다.》 하고는 보따리를 들고서서 어디부터 가야 할지 망설이고있는 박정인에게로 벙글거리며 다가갔다.

《령감님, 제 말이 맞습지요? 기차가 연착이랍니다. 세상일이 한일자처럼 생겨먹어서야 무슨 사는 멋이 있겠습니까. 저는 갑니다.》

《고맙네.》

박정인이 운전사의 말이 정말 고마와 숨을 후― 내쉬고는 그가 떠나는것을 보고서야 민순임을 돌아보며 처음으로 빙그레 웃었다.

마동열은 례영이, 박영수와 함께 역사의 귀빈대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있다가 커다란 꾸레미를 하나씩 들고 들어서는 박정인과 민순임을 보자 깜짝 놀라서 마중하였다.

《아이쿠, 이젠 됐네. 자네 만나지 못할가봐 꼭 십년은 감수했네그려.》

박정인과 민순임은 젊은이들의 손에 이끌려 긴걸상에 털썩털썩 주저앉으며 길게 숨을 내쉬였다.

《언제 오시였습니까?》

박영수가 물었다.

《방금 도착하는 길이다. 얘, 얼른 가서 부산가는 차표 석장을 더 구해오너라.》

《석장이나… 그건 어째서요?》

《글쎄 그럴 일이 있다.》

박영수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어머니까지 웬일이세요?》

례영이 살틀하게 민순임의 손을 쥐고 묻는데 민순임이 목이 쉰소리로 《글쎄 그럴 일이 있다.》 하고 말하며 례영의 눈길을 피한다.

인차 역방송이 부산에 가는 렬차가 곧 도착하게 되였으니 손님들은 개찰하라고 알렸다.

박정인일행도 개찰구로 나갔다.
박영수가 차표를 구해가지고 뛰여왔다.
《박형, 이거 정말 미안하오.》
《원 그런 소릴 마오. 자, 어서 차에 올라 자리를 잡읍시다.》
기차에 올라 마동열의 자리를 찾아 우선 들고온 보따리부터 내려놓은 박정인은 박영수를 보며 《우린 이 사람을 부산까지 바래주고 와야겠으니 혼자 들어가봐라. 그런데 모두 함께 있도록 해주렴.》 하고 말했다.
《예.》
박영수가 또 려객전무를 만나느라고 바깥에 나갔다.
그가 자리를 뜨자 마동열이 아직까지도 무슨 영문인지 몰라
《선생님, 어찌되신 일입니까?》 하고 궁금해하였다.
《차차 알게 되네.》
박정인이 이렇게 대답하고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인차 박영수가 되돌아왔다.
《아버님말씀대로 함께 있도록 부탁하였습니다.》
《음, 됐다. 자, 어서 내려가거라. 그리고 네 처가 몸풀 때가 돼오는것 같은데 잘 돌봐주어라.》
《예, 예.》
박영수는 마동열과 례영의 앞에서 그런 소리를 듣는게 게면쩍은듯 이렇게 건성 대답하고는 바삐 침대칸에서 나갔다.
례영이가 상긋이 웃으며 부산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들리겠다며 손을 저었다.
마동열이 작별하려고 그를 따라 기차에서 내렸다.
《박형, 이렇게 홀로 떠나자니 발길이 쉬이 떨어지지 않는구려.》
《마형, 여기 일은 너무 걱정마오. 나도 맡은 일을 잘해내겠소.》
그들은 작별의 서러운 정을 금치 못해 손을 굳게 잡았다. 어제 마동열은 박영수와 송호정이 직접 련계를 가지도록 그들의 상면을 조직하였다. 마동열은 조직앞에서 박영수를 엄숙하게 보증하

고 이 임무를 맡겼던것이다.

《박형, 내 떠나기 전에 용서를 빌게 하나 있소.》

《원, 용서라니. 무슨 당치않은 소리요.》

박영수가 허여멀끔한 얼굴에 어울리는 크고 순하게 생긴 두눈을 껌뻑이며 나무랐다.

《아니요. 내 사실은 일전에 정선생님께 박형이 미덥지 않아 말씀드린 일이 있었다오. 사실은 박형의 이 만만한 손이 탐탁치 않았단 말이요.》

《됐소, 됐어.》

박영수는 그 선량한 마음으로 마동열의 가식없는 진정을 너그럽게 받아주며 손을 저었다.

《참,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게 말처럼 쉬운게 아니거든. 우리의 싸움이야 생사가 눈섭끝에 매달린 어려운 일이 아닌가. 난 그날 정선생님앞에서 심심하게 반성하였소. 그래서 우린 이렇게 동지가 되였지. 아,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건 행복이요. 날 용서하오.》

마동열이 천성그대로 솔직히 털어놓는데 박영수는 어쩐지 목구멍이 더워오고 눈뿌리가 화끈해왔다.

정말 이렇게 성실하고 뜻이 높은 인간들과 동지로, 벗으로 사귀게 된것은 얼마나 큰 행복이고 자랑인가. 자신의 운명을 선뜻 맡아주고 빛내도록 믿음을 준 동지들과 조직에 대한 고마움이 새삼스럽게 갈마들어 박영수는 잠시후에야 다소 갈린 어조로 말했다.

《아, 그런 일도 있었구만. 여하튼 고맙소. 나를 믿어준 조직과 마형의 정을 내 잊지 않으리다. 마형, 날 끝까지 믿어주오.》

박영수가 틀어쥔 주먹을 자기의 왼손바닥으로 감싸잡고 힘껏 흔들었다.

때마침 출발을 알리는 렬차의 기적소리가 역구내를 경쾌하게 흔들었다.

《자, 어서 오르시오.》

《박형!》

《마형!》

둘은 얼싸안았다. 그들은 툭—툭 세차게 뛰는 서로의 심장의 울림을 의식하며 한덩어리로 굳어졌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박영수가 그를 떠밀어서야 마동열은 포옹에서 풀려나와 렬차의 승강대에 뛰여올랐다.

마동열은 주먹을 머리우에 불끈 쳐들었다.

《박형, 잘 있소. 다시 만납시다.》

《마형, 기다리겠소. 통일되는 날 서울에서…》

《아니, 평양에서…》

《좋소, 평양에서!》

기차가 멀어져갔다. 박영수는 손을 들었다. 마동열이도 박영수가 작은 점으로 사라질 때까지 손을 높이 들어 흔들었다.

이것은 마동열이 새겨둔 박영수의 마지막모습이였다. 이 리별이 영원한 리별이 되리라고는 지금 그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통일의 그날을 믿었고 상봉의 그날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

마동열이 침대칸에 돌아오니 어느새 차칸에는 푸짐한 식탁이 차려져있었다.

민순임이 꿍져가지고온 음식과 방금 박영수의 안해가 마련해준 술과 과일등속을 펴놓으니 침대받침널을 가로질러놓고 차린 탁이 꽉 차서 제법 잔치상이 되였다.

《이보게, 자네 저쪽에 가앉게.》

박정인은 방금 들어선 마동열이 자기곁에 와서 앉으려고 하자 례영이쪽으로 밀어보냈다.

민순임이 얼른 일어나 박정인의 곁에 오고 마동열이 다소 열적은 빛으로 례영이와 나란히 앉았다. 례영이 괜스레 얼굴이 활딱 붉어져서 마동열의 옆에서 냉큼 비켜앉는다.

먹물로 꾹 찍은듯 시커먼 왕붓눈섭아래 코가 주먹같고 눈망울이 어글어글하고 기골이 장대한 마동열의 옆에 눈이며 코며 입이며 오밀조밀하게 박혀있는 례영이 수집게 앉아있는것을 보니 박정인

은 절로 흐뭇해지고 대견스러웠다. 신랑신부가 대조가 뚜렷하면서도 어울리는 한쌍이다. 정시명이 헌결차게 키워놓은 대장부에게 금지옥엽으로 키워낸 전우의 혈불이를 맡기는 그 심정이 헤아려져 새삼스러이 가슴이 뭉클해졌다.

마동열과 례영은 기차칸에서는 분수에 넘게 요란스러운 상이 차려지고 때없이 싱글벙글거리는 박정인이며 노상 흐뭇한 마음속을 감추지 못하고 웃고있는 민순임의 거동을 보고 괴이쩍기도 하고 불안스럽기도 해서 서로 어색하게 눈길을 주고받으며 얼굴을 붉혔다.

《아— 내가 을미년에 홍범도의 포수대에 발을 들여놓은이래 천으로만으로 경난을 겪으며 세상의 희로애락 다 보아왔네만 이런 희한한 일을 당해볼줄이야. 허허…

자, 동열이 이 사람, 뭘 그렇게 관청에 온 수닭처럼 멀뚱멀뚱해있나. 어서 술을 치게.》

박정인의 호걸스러운 분부에 마동열은 아직도 까닭을 모르고 엉거주춤 일어나 술을 부으려고 하였다. 민순임이 얼른 술잔을 례영에게 내밀며 《이렇게 하라구.》 하고 례영이더러 잔을 들고 마동열이 부어주는 술을 받으라는 시늉을 했다.

례영은 박정인이 정중하게 말문을 떼는 품이라든지 민순임의 일깨움이 의심스러웠으나 그런대로 소붓이 일어나 잔을 받쳐들었다.

《자네들의 어머님께 먼저 올리라구.》

박정인이 례영이 내미는 잔을 마다하고 민순임에게로 돌리였다.

《어이쿠, 선생님. 어서 받으세요.》

《그럴가?… 그래 정선생님이 나더러 대신해달라고 분부했으니 내가 먼저 받는게 법도대로겠구만. 고맙네.》

박정인이 잔을 받아들고 사뭇 감개가 서려 두 젊은이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번갈아보다가 정중하게 말을 이었다.

《어쩌겠나. 상은 초라하고 손님도 바이 없지만 자네들이 결혼상을 받는다고 생각해주면 고맙겠네.》

박정인이 목구멍이 뜨끈뜨끈해와서 가까스로 이 말을 번졌다.

《예?!…》

신랑신부가 동시에 고개를 번쩍들며 아연실색해서 외마디 탄성을 내질렀다.
너무도 뜻밖이였던것이였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가? 두 젊은이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에 부닥치자 어떻게 처신할지 몰라 그저 망연해진 눈으로 서로 쳐다볼뿐이였다.
박정인이 잔을 쭉 비우고나서 례영에게 내밀었다.
《너의 어머님에게도 올려라.》
드디여 마동열이 부르짖듯이 물었다.
《선생님! 사모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어머니!》
례영이가 가슴속의 격정을 더는 참을길 없어 민순임의 품에 와락 안기는데 마동열의 철색볼로 열탕같이 덥고 진한 눈물이 소나기처럼 흘러내리고있었다. 키가 6척이요, 몸통이 장독같은 사내가 어깨를 떨며 눈물을 쭈룩쭈룩 짜내는양을 차마 볼수 없어 박정인이 슬며시 옆으로 돌아서서는 자기도 연신 눈굽을 찍어냈다.
《례영아!》
민순임이 가슴을 파고드는 례영이를 끌어안고 볼을 맞비비였다.
《내 우리 집 나그네와 약속했다. 통일이 되는 날에 우리 평산집에 가서 정말 큰상을 차려주겠다. 정말이다. 원, 일생대사를 이렇게 치르다니. …》
《어머니! 어머니! 그런게 아니예요. 그런게 아니래두. …》
례영이 눈물을 삼키며 곱씹었다.
《동열이, 이 사람. 너무 섭섭히 생각말게. 이건 자네 장인되는 분이 서른해전에 내 손에 끼워준걸세. 우리 량주성의로 받아 색시 손에 끼워주라구.》
민순임이 손가락에서 금가락지를 뽑아내여 마동열에게 주었으나 마동열은 얼이 나간 사람처럼 박정인을 우두커니 쳐다보기만 하였다.
《어서 그렇게 하라구.》
박정인이 여전히 목이 메여 쉰 목소리로 중얼거리였다. 마동

열이 주먹코를 벌름거리다가 민순임이 내미는 가락지를 받아들었다. 례영의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는데 둘의 손목이 그냥 후들후들 떨리기만 하고 그우에 눈물만 락수처럼 자꾸 떨어져 가락지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다.

… …

기차는 새벽무렵에 부산역에 닿았다.

민순임이 이길로 자기들은 돌아서겠으니 이제부터 례영은 마동열과 함께 다니라고 일렀다.

이 역시 례영에게는 청천벽력이였다. 요새에 와서 마동열을 그려볼 때면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는 정시명의 슬하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리라 눈물속에 굳은 강심을 다져오던 그였다.

마동열이 차표를 떼려고 자리를 뜨자 례영은 야무지게 도리질을 하였다. 자기는 통일을 기다리겠다는것이다. 민순임이 그 기약없는 날을 어떻게 기다리는가고 타일렀으나 어머닌 아버님을 30년 기다리지 않았느냐고 그냥 고집을 부렸다. 박정인까지 나서서 이건 정선생님의 엄명이라고 되게 눌러놓았다.

그들은 역전공원에 나가서 작별의 애모쁜 시간을 서로 부둥켜안고 눈물속에 보내다가 서울행렬차가 역구내에 들어서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마동열과 례영이 마지막으로 하직인사를 고하려고 공원의 마른 잔디우에 엎드려 조선절을 드리였다.

그런데 마동열이 일어서다말고 《어머니!》 하고 목메여 부르며 그 커다란 몸을 휘우뚱거렸다. 마동열이 태여나서 처음으로 불러보는 그립고그립던 부름이였다.

《제가 글쎄 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선생님을 사지판에 남겨두고 저만 살겠다고 홀로 도망을 치다니… 장군님께서 이걸 아시면 저를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어머니! 어머니! 부디 선생님을 잘 모셔주십시오.》

《동열이, 이 사람아!》

민순임이 목이 메여 더 말을 잇지 못하고는 마동열을 와락 끌어안고 그의 실팍한 허리를 자꾸만 엇쓸었다.

민순임이도 례영이도 박정인도 모두가 흐르는 눈물을 걷잡지 못한채 작별을 하였다. …

서울에서는 불길한 소식이 그들을 기다리고있었다.

사건은 련이어 일어났다. 림인준이 아침녘에 화페운반에 리용하였던 다이야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두수리방에서 어물거리다가 경찰에게 단속되였다.

다이야는 통제품으로서 민간에서 매매하는것은 금지되고있었다. 림인준을 현장에서 심문한 경찰은 당장 법정에 내세울듯이 으르렁거리며 어데서 구했느냐고 따지였다.

그런데 림인준이 너무도 예상밖에 경찰들과 부닥치고보니 그만 겁에 질려있다가 얼결에 서울 통인동에 있는 어느 부자집에서 받았다고 실토하였다. 부자집이라는 말에 경찰들은 성수가 났다. 잘만 하면 공돈을 긁아먹을수 있다는 타산이 섰던것이다. 경찰놈들은 그를 앞세우고 박정인의 집으로 달려들었다.

대문이 여느때없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나자 길봉례가 얼른 비상사고를 알리는 종소리를 냈다. 지휘부가 박정인의 집에 자리를 잡은 후 처음으로 울린 비상종소리였다.

정시명과 집안사람들은 일시에 긴장되였다. 대문간에서 떠드는 고함소리가 안방까지 들렸다.

림인준이 경찰들의 강박에 떠밀려 대문까지 오기는 하였으나 막상 정시명이 거처하는 집마당에 경찰을 달고 들어서게 되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엄중한 규률위반이라는것을 깨달은것이였다.

그래서 대문가에서 멈짓멈짓거리면서 이 집이 비슷한것 같기도 하고 아닌것 같기도 하다면서 큰소리로 떠들었다. 이렇게 밖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이이면 집안사람들이 사태를 알아차리고 비상대책을 세울것이라고 타산한것이다.

이때 정시명은 길철과 마주앉아 마동열이 넘기고간 서류들을 정리하면서 사업토의를 하고있었다.

그들은 재빨리 서류를 걷어모아 벽장속에 밀어넣고 그우에 이불과 모포를 옮겨놓았다. 그리고 길철은 뒤울타리담벽에 박정인이 뚫어놓은 비상통로로 빠져나갔다.

정시명이 담배를 피워물고 신문을 들여다보며 바깥동정에 귀를 기울이는데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경찰들은 방에 들어서자 다짜고짜 정시명에게 달려들어 다이야가 어디서 났는가고 따지기 시작하였다.
《다이야라니?… 건 무슨 소리요?》
경찰들이 어떻게 되여 림인준을 끌고왔는지 영문을 모르고있던 정시명은 정황판단이 서지 않아 이런 정도로 대처하는수밖에 없었다.
더욱 의혹이 짙어진 경찰들은 집안을 뒤지기 시작하였다.
림인준은 얼굴이 흙빛이 되였다. 순간의 불찰로 정시명을 경찰들앞에 세우게 된것이다. 서류가 발각되는 경우에는 매우 엄중한 사태가 벌어질수 있었다.
림인준은 지휘부사업에 깊이 개입되지는 않았지만 자기 형 림인석을 통하여 정시명이 조직의 책임자이며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는것은 알고있었다.
그래서 림인준은 여차하면 세놈의 경찰을 까눕힐 심산으로 주먹을 불끈 틀어쥐고 주변에 있는 장작개비에 눈독을 들이고있었다. 그런데 경찰 한놈이 벽장문고리를 잡을 때였다.
박정인의 안해 주씨가 비단치마저고리를 흔들며 야단스럽게 문을 활짝 열어제끼고 들어섰다. 길봉례가 재빨리 그에게도 사태가 위급해진다고 알려주었던것이다.
《아니, 이건 도대체 어디서 해먹던 버릇들이야? 당신네는 서울장안 박씨집을 어떻게 알고 이 행패질이야! 어서 나가지 못할가!》
허리통이 한아름이 되는 녀인이 손세를 써가며 새된 소리로 꾸짖는 기상은 대번에 경찰들의 기를 꺾어놓았다.
그 마음씨 착하던 부인한테서 어데서 그렇게 비린 악청이 쏟아져나오는지 신기한 일이였다.
《그래, 무슨 일이 생겼으면 주인량반님께 아뢰고 그다음 따지든지 뒤간 뒤짐을 하든지 할법이지 어디서 배운 막 돼먹은 버릇을 함부로 해댄단 말이야! 어서 말들이나 해봐요. 갑자기 벙어

리들 됐나?》

세도있는 부자집 안주인의 사나운 지청구에 경찰들은 한동안 어안이 벙벙해서 자기들끼리 눈길만 마주치며 어쩔바를 몰라했다.

한놈이 헛기침을 연신 해가며 그에게 사건전말을 설명해주었다.

그러자 주씨는 림인준에게로 돌아서서 한바탕 욕설을 퍼부었다.

《이 쓸개빠진 녀석, 다이야는 우리 주인령감께서 사가지고는 왜 우리 오라버님께 행패질을 시키느냐. 어쩐지 아까 흥정을 붙일 때에도 모자라는 놈으로 보았더니 정말 바보로구나. 쭈이 화이티 쟈취!(고약한 놈)》

주씨는 진짜로 성이 독같이 나서 중국말까지 섞어 욕을 하다가 림인준에게 달려들어 따귀를 한대 철썩 붙이였다.

경찰들은 주씨가 행악을 부리는것을 보다가 저들끼리 중얼거리였다.

《되놈(중국사람)의 집이구만. 제기랄.》

《저놈의 자식 정말 민충이군.》

속이 한줌만 해졌던 림인준이 이때라고 얼른 불을 싸쥐고 머저리흉내를 내였다.

《정말 마님을 보니 사람을 헛갈린것 같은뎁쇼. …》

《그럼 다이야는 어데서 났습니까?》

뱁새눈을 한 경찰이 모를 일이라는듯 머리를 갸웃거리다가 물었다.

《그런걸 치마두른 내인이 어떻게 알겠나? 그럼 모두 우리 집에 들어가 주인 오기나 기다리라구. 우리 오라버님은 선양에서 갓 나오시여 아무것도 모른다네.》

주씨가 꾀바르게 내놓은 장단에 가락을 맞추자니 정시명이도 시골얼뜨기령감구실을 하는수밖에 없었다.

《허허, 난 좀 모를 일이다. 매부님더러 나 좀 다이야를 달라고 하였더니 그게 벌써 장사군에게 가있었군. 구두수리하는 애녀석들한테 넘겨주면 로자라도 보태쓸텐데. 쯧쯧…》

그들이 옥신각신하는 사이에 림인준은 슬그머니 달아나버렸다.

《다이야가 어데서 났는지 정말 모르십니까?》

뱁새눈이 다시 오금을 박아 물었다.

《그까짓 다이야 몇짝 있었다면 무슨 대수요. 그걸 기어이 알아야겠소?》

나라법을 알탁없는 부자집마누라에게 퉁만 맞고 더 따져볼 여지가 없게 된 경찰들은 눈이 떼꾼해서 어이없어 서로 마주보다가 결국 주씨가 벌금값이라며 내미는 청주 한사발씩 얻어마시고 달아나버렸다.

그놈들이 비칠거리며 대문밖을 나서자 주씨는 정시명에게 《어이구, 선생님. 용서해주세요.》 하며 새빨개진 얼굴을 두손으로 싸쥐고 몸둘바를 몰라하였다.

《영수 어머님, 정말 용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영수 어머님이 아니였더라면 큰일날번 했습니다. 정말 장하십니다.》

정시명은 고마운 생각도 컸지만 희한하기 그지없어 진심으로 이 슬기롭고 담이 큰 녀인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박정인과 민순임이 대문에 들어선것이 이때였다. 박정인에게서 결혼상을 차려준 이야기를 들은 정시명이 방금 벌어졌던 일을 이야기하자 주씨는 얼른 주인앞에서 몸을 피해 안방으로 달아났다.

박정인이 민순임과 한바탕 폭소를 터뜨리고나서 웃음을 거두고 진중하게 말했다.

《하, 일은 손끝에서 시작되고 큰 불도 불꽃 한점에서 시작된다더니…》

정시명은 박정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였다.

련이어 일어난 사건들은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조직의 활동에서 제기되는 사소한 부주의나 우발적인 사고가 결국은 조직의 안전을 크게 흔들어놓은것이 아닌가.

박정인의 말이 옳다. 높이 쌓인 제방도 개미구멍으로부터 시작되여 허물어진다고 일개 조직원의 부주의나 무규률적행동이 방대하게 일떠선 조직을 일거에 허물어버릴수 있다.

이번 사건들을 거슬러오르면 박정인이 개성 만월동 출장소책임자에게 뭉치돈을 떼준것부터 잘못되였고 지휘부의 거처지에 통제물품을 끌어들인것이 잘못되였다.

정시명은 조직의 확대에만 골몰하면서 아직 투쟁의 세례를 받지 못하고 지하활동경험이 없는 성원들을 교양하고 단련시키는 문제에 주의를 덜 돌려온 자신에 대하여 심각히 뉘우치였다. 림인준이 지하조직원으로서의 비밀관념이 바로 서있었더라면 얼마든지 무난히 넘길수 있는 단서에 기가 질려 지휘부의 거처지에까지 적들을 달고오는것 같은 위험천만한짓을 하지 않았을것이다. 그리고 림인준과 같은 일개 성원이 지휘부의 거처를 알고있는것도 규률이 없는 표현이였다.

정시명이 찾은 교훈은 이것만이 아니였다.

이 사건들은 놈들의 수사진도 졸지 않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미국놈들은 이 시기 남조선에서 경찰력량을 급속히 팽창시켜 중앙으로부터 면에 이르는 정연한 감시, 폭압체계를 세워놓았다.

얼마전에 하지는 미군정청안에 정식으로 정보국까지 내오고 그 국장으로 정보담당고문이던 노불을 앉혀놓았는데 이 기관은 전적으로 남조선의 대내정보수집을 담당하고있었다.

하지가 노불을 자기의 주변에서 군정청의 정보국장자리로 밀어낸것은 두가지 원인이였다.

첫째로는 노불이 미중앙정보국계통의 인물이라는데로부터의 마땅한 인사조치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노불의 위치를 자기의 측근보좌관의 위치로부터 상하부관계가 뚜렷하고 업무가 상대적으로 분주스러운 자리에 얽어매놓으려는 엉큼한 속계산이 깔려있었다. 하지는 평생 군무에 몸을 담아보지 못한 직업적인 탐정인 노불이 자기의 사업에 대하여 지나친 관심을 표시하는것을 미중앙정보국의 일종의 감시라고 의심하여왔던것이다.

둘째 원인은 구펠로와 다름없이 노불도 리승만의 비호자로 지나치게 나서고있는 사정이였다.

하지는 노불이 수하에 들어오기 전에 그들의 관계를 알고있었다.

그들의 정치적결탁의 뿌리는 조선에 건너온 미국장로교 선교사인 노불의 아버지 월리암 노불이 서울배재학교의 학생 리승만과

처음으로 만난 1890년대에 시작되였다고 들어왔다.

월리암 노불은 영어문자를 배워준것으로부터 리승만에게 미국을 안내해준 첫 미국인상전이였다.

그의 아들인 해놀드 노불은 1903년에 평양에서 태여나 거기서 소학교를 마쳤다. 노불은 그후 본국에 돌아가 캘리포니아대학에서 동양력사를 공부하고 리화녀자전문 교수를 하다가 2차세계대전시기 정보장교로 활약하였다.

뒤날에 노불은 자기의 회상록에 이렇게 썼다.

《나는 리승만내외와 오래동안 좋을 때나 궂을 때나 가까이 지내왔다.

리승만은 야심있는 정치가들속에서 벌어지고있는 권력장악의 암투를 잘 알고있지 못한것 같았다.

나는 경계해야 할 특정인물의 이름을 들춰가며 리승만에게 설명을 했고 그도 그런자들을 끌어내는것이 유익하다는것에 동의했다.》

하지는 구펠로에 못지 않은 리승만의 오랜 지기를 자기의 고문으로 파견한 마샬의 처사에 격분했으나 별도리가 없었다.

노불은 구펠로보다 고압적인 자세는 없었으나 짜증이 나도록 장황한 설명으로 리승만을 이 나라의 첫째가는 미국의 벗으로 개올리군 하였다. 그러나 리승만에 대한 역성은 하지를 언제나 불쾌하게 하였다.

이러한 원인으로 하지는 노불을 옮겨놓았지만 오히려 정보국장자리는 조직화된 체계와 방대한 인력을 가지고 노불의 영향권을 확대하게 된다는것을 미처 예견하지 못하였다.

노불은 새 자리에 들어앉자마자 산발적으로 활동하던 여러 폭력기구들과 반탐기구들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하기 시작하였다.

노불은 남조선에서 미국의 리권을 크게 위협하고있는 좌익세력에 대한 감시망을 재정비하고 그 고삐를 단단히 거머쥐였다.

노불은 특히 남조선경찰력을 강화할수 있도록 이 부문에 대한 예산을 곱으로 늘이게 하고 경찰의 절대적인 력량을 반미적이며 통일지향적인 정당, 단체인물들에게로 집중시켜나갔다.

정시명은 한시바삐 업호망을 적들의 심장부에 강력히 꾸려놓아야 하겠다는것을 절감하였다.

정시명은 박정인으로부터 부산에 갔다온 전말을 듣고난 후에도 이러한 생각에 묻혀있었다.

그는 지휘부모임을 열고 이 문제를 토의하기로 하고 남도에 나가있는 김명호와 38°선지역에 가있는 길철이까지 호출하도록 하였다.

새벽무렵, 명월미장원에서 전화가 왔다.

민순임이 받았다. 김명호의 처가 민순임의 목소리를 확인하자 주인과 바꾸겠다고 하더니 이어 김명호가 부산 김씨라고 하면서 사장령감을 바꾸어달라고 하였다.

《미장원 주인올시다. 아, 사장님이시군요. 다 무고합디다.》

김명호는 이미 약속된 은어로 전화하고있었다. 정시명은 며칠전에 부산에 있는 최원기로부터 김명호가 부산에서 일을 마치고 전라도로 갔다는 전화보고를 받았다. 그런데 벌써 서울에 나타나 새벽바람으로 전화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에, 이번 출장길이 시원치 못했수다. 기차칸에서 난데없는 고양이가 나타나서…》

《그래 다친데는 없소?》

《다친데는 없수다. 가지고오던 령수증은 그만 담배종이로 써버렸수다. 여기에도 고양이들이 있는것 같수다.》

《흠… 김씨가 고양이바람에 정신이 들락날락했군. 오늘은 집에서 좀 안정하시오. 래일 만납시다.》

다음날 김명호가 흥국상회에 나타나 광주에서 올라오다가 겪은 봉변을 이야기하였다.

…김명호는 남도에 있는 자기 관하의 조직들을 지도하고 서울행렬차에 올랐다.

렬차가 대전에 이를 때까지는 다른 징후가 없었다.

그런데 렬차가 대전역을 떠날 때였다.

방금 차에 오른듯한 젊은 녀석이 전라도말씨로 《손님, 좀 죄입시당께.》하면서 엉뎅이부터 들이대였다. 김명호는 자리를 조여주

고 녀석이 무례하다는 불쾌한 생각에 고개를 돌렸다. 어쩐지 낯이 익었다. 그의 뇌리에는 불길한 예감이 피뜩 스쳐갔다. 어데서 보아둔 얼굴일가?… 어수룩해보이면서도 날카롭게 번뜩이는 눈길…

그렇지! 김명호는 몇시간전에 광주역 매표구에서 자기옆에 붙어서서 표를 사던 사나이가 떠올랐다.

그러니 광주에서 오른 놈이구나. 김명호는 등받이에 허리를 붙이고 눈을 감았다. 어쩐지 심상치 않았다. 무엇때문에 이놈이 오늘 내옆에 두번이나 나타났는가.

김명호는 문득 기발한 생각이 떠올라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자 자기 옆자리에서 머리우에 모자를 가리우고 졸음을 청하는 시늉을 하고있던 사나이도 뒤따라 일어났다.

《젊은이는 어데서 올랐소?》

김명호는 돌발적으로 물었다.

《대전에서 올랐는께요. 와 그러시노?》

《아, 이거 야단이군. 대전역에서 여라문살되는 소녀애 보질 못했소? 데리고가야 하는건데…》

김명호는 이놈이 사복형사라는것을 알아차렸다. 광주에서 어물거리던 놈이 무엇때문에 대전에서 올랐다고 거짓말을 하겠는가. 분명 미행자라는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려는것이다. 김명호는 보따리를 놓아둔채 승강대로 나왔다. 저놈은 분명 서울까지 나를 무사히 데리고가려고 할것이다. 그런데 란간에서 담배를 빨고있던 한 녀석이 자기를 찬찬히 지켜보다가 시선이 마주치자 얼른 창밖으로 얼굴을 돌린다.

광주에서부터 자기를 계획적으로 추적하고있는것 같았다. 놈들을 꼬리에 달고 서울까지 갈수는 없었다.

김명호는 도로 자리에 와서 날이 저물기를 기다리며 다시 눈을 감았다.

도대체 내가 이놈들에게 감시당하게 된 리유가 무엇일가?

김명호는 이번의 출장길을 돌이켜보았다.

경상북도 대구에서 시작되여 제주도경찰청 부청장을 만나려 바

다를 건너갔다오고 진해에 가서 박룡문대령을 만났다. 부산에 와서 최원기를 만나고 포경회사 사장도 만났다. 그리고 다시 전라도 광주에까지 갔다. … 아무리 올리훑고 내리훑고 해야 놈들에게 꼬리밟힐 일은 없는것 같다.

무엇때문일가?… 혹 서울에서부터 따라온 놈들이 아닐가? 그렇다면 더욱 야단이다. 이번 출장길에서 지도한 조직들이 다 이놈들의 감시권에 포착되였을것이 아닌가.

아니, 그럴수가 없다. 우선 말씨가 전라도말씨다.

김명호는 이놈들이 어디 소속인지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며 도로 자리에 돌아와 도시락을 꺼냈다.

《여보, 식사 안할라오? 광주 명일관의 특산이요.》

조직성원인 명일관주인이 정성스레 싸준 도중식사를 꺼내며 말을 걸었다.

《나도 가지고왔당께요.》

그놈도 도시락을 꺼냈다.

《명일관의 김밥이요. 이것 좀 맛보시우.》

명일관의 명물은 김밥이다. 다른데서는 흔히 계란찜에 잘게 썬 고기를 두고 김밥을 말지만 광주 명일관의 김밥은 유별나게도 닭은 밤을 가루내여 넣어서 독특한 맛이 풍기게 한다.

이것은 명일관의 주인이 몇번이나 들려주던 자랑거리였다. 김명호가 저가락으로 김밥을 집어 내밀자 그놈도 자기 도시락을 보여주며 사양하였다.

《아, 아니… 내것도 명일관의 김밥이랑께요. 우린 서울출장 갈 땐 명일관에 부탁하지유.》

그놈은 저도모르게 광주소속을 토설해버리였다.

그제야 김명호는 자기가 광주경찰서의 미행을 당하고있다는것과 그놈들의 미행근거를 짐작하게 되였다.

8.15직후 광주일대에서 벌어진 활동자료에 자신의 이름이 두드러져 있으니 광주경찰서가 항시적으로 자기를 노리고있으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였다. 그놈들이 광주에서 체포하지 않고 미행하고있는 것은 분명히 자기의 활동무대를 찾아내려는 의도 같다.

김명호는 놈들의 미행을 따돌리기 위하여 자리가 비좁아 숨이 차다고 하면서 이리저리 차칸을 돌아다니다가 맨 뒤칸에 자리를 잡았다. 이번에는 아까 승강대에서 보았던 놈이 눈에 다시 띄였다. 놈들의 미행에서 벗어나자면 기차에서 탈출하는수밖에 없었다.

김명호는 기차가 차령고개에 잡아들자 담배를 붙여물고 승강대로 나왔다. 몸에 간수해왔던 서류는 위생실에 들어가 내용을 머리에 새겨넣고는 불살라버렸다. 고개에 올라서자 기차는 점점 가쁜 숨을 내쉬며 힘들게 달렸다.

기회를 노리던 김명호는 문을 벌컥 열었다. 그 순간 세관진 손탁이 우악스럽게 목덜미를 덮쳤다.

《손님, 왜 이러노. 그건 황천길이라는께요.》

돌아보니 어느결에 나타났는지 아까 옆에 앉아있던 놈이 느물거리며 비꼬는 어조로 뇌까리였다.

《이걸 놓지 못해?》

《당신을 놓치면 안된다는께. 우린 목이 뎅강… 아시겠수?》

놈은 로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내며 옆구리를 툭툭 쳤다. 거기에 무기까지 있다는 수작이였다.

김명호는 어처구니없다는듯 허허 웃다가 담배를 다시 꺼냈다.

《문은 열란 말이요. 머리가 뗑해서…》

김명호가 이렇게 한발 늦추어주었다가 그놈이 문고리를 잡는 순간 재빨리 그놈을 와락 끌어안고 기차에서 뛰여내렸다.

김명호는 매사에 침착하고 유연하면서도 일단 결심을 하고 몸을 날리면 무섭게 기운을 내고 날파람있게 상대방을 제낄줄 아는 사람이였다. 순간적으로 방심하였던 형사놈은 기차에서 떨어지자 그대로 뻐드러지고말았다.

김명호는 다시 광주행렬차를 타고 대전까지 갔다가 다음날 유유히 돌아왔다. …

정시명은 김명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앞으로는 그를 전라도 쪽으로 보내지 말며 서울에서도 비합법적으로 움직이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피동적인 수습책이다.

문제는 모든 전우들이 자기들이 사실상 원쑤의 감시속에 있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게 하는것이다. 지하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순간의 실수나 방심은 패배와 죽음과 잇닿아있다. 언제나 원쑤가 뒤따르고있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김명호처럼 림기응변하여 지혜를 내고 담력있게 돌진하여 위험을 제때에 제거해야 한다.

보다 중요한것은 매사에 적의 눈초리를 느낄줄 아는 예민한 감각과 투철한 예지이다. 아직은 지하사업의 문어귀에 서있는 우리의 순결무구한 동지들이 이 상식적이면서도 높은 지력을 요구하는 지하투쟁의 생리에 대하여 옳게 리해하고있을가.

정시명의 마음은 무겁기만 하였다. 그는 김명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엄호사업을 속한 시일내에 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게 하였다. 만약 광주일대의 적사찰기관들에 믿음직한 성원들이 들어가있었다면 김명호가 당한 봉변도 사전에 막아낼수 있었을것이 아닌가. …

남산의 늙은 소나무밑에서 지휘부모임이 열렸다.

화폐운반사업이 심각하게 총화되였다.

정시명은 자기 비판부터 허심하고 진지하게 하였다.

《이번 사업에서는 빈구석이 많았고 지하사업규률이 준수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업수행에 앞서 연구를 심화시키지 못하고 있을수 있는 정황들을 미리 타산하여 그에 맞게 지도를 옳게 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하활동규범을 명심하고 각성만 높였다면 이번에 련이어 벌어진 사건들은 애초에 생겨나지부터 않았을것입니다.》

정시명이 이렇게 자기를 심심히 뉘우치자 모두가 번갈아 일어나서 자기 사업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심각하게 검토하였다.

정시명은 모임참가자들이 자기비판으로 그치지 말고 이번 사업에서 발휘된 모범을 찾아내고 경험과 교훈을 배우도록 하는데 주의를 돌렸다.

이번 사업에서는 동지들을 적의 마수에서 구출해내는 방법을 배우게 되였고 반동들을 제마음대로 후려낼수 있는 첫 경험도 쌓았다. 누가 주씨부인이 그렇게도 담대하고 지혜롭게 행동할수 있으리라고 생각이나 했겠는가. 누가 백형복이나 검사같은 로회한 살인귀들을 마음대로 쥐고흔들 엄두를 내보았겠는가. 김명호도 그렇다.

정시명은 이렇게 렬거하면서 높이 평가해주었다.

교훈은 모두를 각성시켰고 경험은 조직을 일층 다져준듯싶다.

정시명은 전우들의 토론을 들으면서 조직이 다시는 이번 사건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것이며 자기 발전의 궤도에서 한계단 비약할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모임에서 엄호선을 강력하게 조직할데 대한 문제를 련이어 상정시켰다.

《우리의 활동에 대한 원쑤들의 감시와 탄압책동을 적진에서 사전에 알아내고 대책을 취할수 있는 엄호사업을 한시바삐 벌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엄호조직의 조치는 지금까지 우리가 꾸려온 방식으로써는 해결할수 없습니다.》

정시명은 엄호사업과 관련한 자기 의견을 제기하였다.

경찰기관에 애국적인 조직을 꾸리는것은 이제는 시기를 놓치였다. 미국놈들은 경찰기관만은 일본놈들이 만들어놓은 경찰기구와 체계, 인원을 거의 그대로 존속시켜왔으므로 지금 와서 폭압기구는 비교적 째여있다.

그러므로 준비된 사람들을 침투시키기에도 힘들고 설사 들어간다고 해도 요진통을 차지하자면 세월이 흘러야 할것이다. 가장 빠른 지름길은 놈들속에서 지지자, 동정자를 찾아 포섭하는 길이다.

정시명은 계속하였다.

《대상인물부터 정확히 선정해야 합니다. 그들의 정치사상동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인간의 속성을 정확히 타진해야 하며 그다음에는 침을 바로 놓아야 합니다. 설복과 교양도 할수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코를 꿰는 방법도 써야 합니다.

그러나 방법이 문제가 아니요. 문제는 적 폭압기관 복무자들을 한명이라도 더 우리의 편, 애국의 편에 돌려세워 나라와 겨레를 위한 참된 길을 걷게 하는것이요. 이 사업은 어렵고 복잡하오. 그러나 반드시 해내야 하는 혁명임무요.

내가 언젠가 이야기했는데 박달나무에도 못 들어갈 자리가 있는 법이요.》

적의 폭압기관에 통일을 념원하는 애국적인 조직이 뿌리를 박기 위한 투쟁이 박력있게 벌어졌다.

2

처음으로 정시명에게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달려온것은 길철이였다. 아무 일이나 말 떨어지기바쁘게 해제끼는 일군이다.

치안국의 수사지도과장과 문서계장이라는 요직을 겸직하고있다는 김창기라는 인물을 포섭해보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길철의 이야기를 듣자 그의 대담한 발기가 놀랍고 기쁘면서도 쉽게 대답이 나가지 않았다. 이모저모로 간단히 대답을 줄 문제가 아니였던것이다.

괴뢰경찰기관의 노란자위라고 볼수 있는 자리다. 군침이 돌지만 삼키기에는 뻐근한 자리다. 게다가 김창기의 경찰경력이 10년이나 되고 일제말기에는 국경지대의 어느 경찰서 서장까지 했다고 적혀있다.

경찰서들치고 국경지대의 경찰서라면 항일의 선각자들의 원한의 표적으로 되였던 반동의 소굴이다. 어제도 오늘도 반혁명의 핵심기관에서 복무하여오는 반동분자를 포섭대상으로 내놓는 배경은 무엇인가.

길철이 타산이 없을리는 없겠지만 대상포섭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듯싶어 그가 다시금 결심을 굴려보게 하였다. 길철은 이미 최남수와의 공작에서 실패한 일도 있는것이다.

《가능하겠소?》

길철은 예상했던 질문이라는듯 거침없이 대답했다.

《예.》

그러더니 《이건 그의 경력자료입니다.》 하며 사진까지 붙여놓은 김창기에 대한 료해자료를 꺼내놓았다.

길철이 최남수와의 공작이 실패된 후 주눅이 들지 않고 여전히 공격적인 패기와 정열을 보여주는것이 우선 마음에 들어 정시명은 료해자료를 깐깐히 훑기 시작하였다.

사진을 보니 퉁퉁하게 옆으로 부풀고 볼에 무엇인지 고민거리를 안은듯 우울한 빛을 담고있는 커다란 눈이 어리무던해보였다.

《왜 만년순사라고 불렀다오?》

정시명이 문건에서 눈을 떼지 않은채 물었다.

《10년 순사로 있으면서 무슨 큰 사건 하나 들춰낸것이 없고 한번도 출세한적이 없다 해서 고향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도 해방될 때에는 비록 한해동안이지만 경찰서장노릇까지 하지 않았소?》

《그게 문제가 있다는겁니다. 국경지대가 살벌하여 누가 쉽게 가겠다고 합니까. 그러니깐 10년 복무라는 경력에 도꾜법정대학물까지 먹었다는 그를 올려놓았지요. 결국 서울에서 쫓겨난것입니다.》

《쫓겨났다?…》

정시명이 뜨아해서 되물었다.

《누구소리요?》

《그의 처조카가 정진호라고 저의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 일제시기부터 저와 같이 일했는데 지금은 전국농민조합 선전부장입니다.》

정시명이 문건을 덮고 고개를 들자 길철은 거기에 설명을 더 붙이였다.

《들어보니 옛날에는 벌거무레한 색갈이 돌다가 만 사람이랍니다. 본래 삼척에서 가난한 농가에서 태여났는데 도꾜에 가서 고학으로 법정대학을 다니면서 적색독서회에 참가했답니다. 검거선풍에 놀

라서 조국에 도망쳐와서 일자리를 찾아다니다가 군청서기노릇도 하고 순사시험을 쳐서 경찰서에서 근무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고향사람들은 그 사람이 고약한데가 없다고 〈량반순사〉요, 〈허재비순사〉요 했다고 합니다.

국경연선에서 근무할 때도 그닥 못되게 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 얼마전에 그곳 경찰서에서 몽둥이찜질을 몇번 당하고 풀려나온 사람을 만났는데 김창기가 그 사람을 풀어놓으며 했다는 말이 걸작입니다.

〈이보라구, 당신은 그전같으면 사형감이야. 하지만 이 김창기가 해방연에 내놓을 제물이 없어 두루 찾다가 이제야 마련을 봤으니 그리 알라구. 그리구 사람의 정이라는게 품앗이라는 말 잊지 말라구.〉 하하…》

길철은 이렇게 김창기의 흉내를 그럴듯 하게 내고는 웃었다.

정시명도 미소를 지으며 호기심이 동해서 물었다.

《그래 품앗이는 했다오?》

《그 사람이 해방후 품을 갚았답니다. 김창기가 8.15직후에 붙들려 주구청산위원회에 끌려갔는데 그가 풀어놓은 사상범들이 련명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답니다.

그래 풀려나서 인차 고향인 삼척에 나갔다가 친구들의 주선으로 다시 치안국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정진호동무가 자기 이모부를 얼마든지 리용자로 만들겠노라 장담합니다. 제 생각에도 가능할것 같습니다.》

길철은 자신있는 어조로 설명을 마치였다.

정시명은 그의 설명에 공감이 갔다. 적과의 대결에서 기본타격대상이라 할수 있는 치안국의 요진통에 있는 김창기를 포섭하면 그야말로 치안국은 대문을 활짝 열어놓게 될것이다.

이튿날 길철은 다시 정진호를 만나 공작가능성을 물었다.

《하여튼 만납시다. 난 이모부가 우리를 도와줄것만 같습니다.》

정진호는 이렇게 대답하고 김창기를 찾아갔다. 해방후 북에서 내려와 서울에 와있을 때 김창기가 그의 집에 얹혀 여러날 있은 후

로는 피차에 제 일들이 바빠 만나보지 않고 지내왔다.

김창기의 집은 마포형무소에서 멀지 않은 둔덕에 있었는데 형무소 소장놈이 살던 집이라 했다. 붉은 벽돌로 지은 아담한 서양식 단층집이였다. 집안에 목욕탕과 위생실까지 붙어있는 현대적인 양옥이였다.

김창기는 정진호가 문턱을 넘어서자 싱글거리며 반기였다.

《이거 무슨 바람이 불어 조카가 우리 집을 찾아주나. 이젠 공산당을 그만두었나, 아니면 쫓겨났나?》

《그만두었수다. 그러니 서울에서도 반동중의 상반동인 이모부집에 올수 있었지요.》

《허허, 그 말 듣기 씨원하다. 여보, 우리 조카님이 모처럼 오셨으니 술맛 있겠소. 어서 차려오오.》

김창기가 너스레를 부리며 큰소리로 떠들었다. 그는 자기의 처조카가 일제시기부터 자기를 탐탁치 않게 보아온것을 알고있었다.

8.15전 어느날 정진호가 국경지대경찰서의 서장으로 이모부가 임명되여갔다는 소식을 듣고 기가 막혀 불원천리하고 그를 찾아갔던 일이 있었다. 그는 이모가 있는 자리에서 가지고간 조막도끼를 꺼내놓고 몰아댔다.

《이모부, 내 도끼를 받겠소, 아니면 서장자리 내놓고 이 길로 날따라 서울 가겠소?》

구들바닥에 내놓은 조막도끼는 날이 시퍼렇게 번뜩거렸다. 그보다 더 시퍼런것은 정진호였다. 이모가 도끼와 조카의 얼굴을 번갈아보다가 게거품을 물고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정진호는 지난 시기 수많은 혁명가들을 잡아넣은 이곳 국경지대의 경찰서를 민족의 철천지원쑤들이 둥지튼 악마의 소굴로 락인을 찍어놓은지라 정말 너죽고나죽고 할 판이였다.

김창기는 조막도끼만 물끄러미 지켜볼뿐 입이 얼어붙은듯 말이 없었다. 그는 정진호가 당장 달려들듯 거친 숨을 씩씩거려도, 안해가 너부러졌어도 낯색을 한본새로 한채 오래도록 한자세로 그렇게 굳어져있었다.

《왜 말못하오. 이모부, 도끼로 란장질을 해도 한마디라도 이모

부말을 듣고야말겠소.》
죽이겠다는 소리에도 대척이 없이 그저 덤덤히 앉아있자 정진호가 먼저 약이 올라 다시 소리를 질렀다.
잠시후 김창기가 무겁게 몸을 일으켜세우더니 웃방의 농짝에 들어있는 자그마한 자개함을 가지고 내려왔다. 그는 자개함을 그의 눈앞에서 열었다. 거기에서 초지로 쓴 한장의 문서장이 나왔다.
그는 말없이 조카에게 그걸 던지며 꽥 소리쳤다.
《읽어! 큰소리로!》
정진호가 영문을 몰라 받아들고 읽었다. 거기에는 스무나문명되는 사상범들의 이름과 그들의 《죄》가 루루이 렬거되여있었다.
《이건 뭐요? 어찌라는거요?》
정진호가 여전히 이모부의 속마음을 대중할수 없어 묻자 그는 와락 그의 손에서 문서장을 빼앗아 자개함에 넣고는 자물쇠를 덜컥 채워버렸다.
그리고는 《내가 여기에 내려와서 1년사이에 내놓은 사람들이야. 네가 적색에 미쳐 돌아간다지만 내 나라의 백성을 위해 해놓은 일 뭐냐? 어서 대봐!》 하고 버럭 소리질렀다.
일후로 그들은 여직까지 호젓이 마주앉은 일이 없었다.
갓 마흔을 넘긴듯한 그의 이모가 술상을 들고 들어왔는데 아마도 그때 일이 생각났던지 반가와는 하면서도 정진호의 눈치를 살피고있었다.
《이모, 내 오늘은 조막도끼없이 왔어요.》
정진호가 이모의 눈치가 짐작이 되여 이렇게 말을 꺼내며 히죽이 웃었다.
그제야 이모가 가볍게 소리내여 웃고 김창기도 어깨를 흔들며 소리내여 웃었다.
안해가 자리를 뜨자 김창기가 술잔을 권하며 정색해서 물었다.
《왜 공산당이 마음에 안드나?》
《글쎄요.》
《시작한바에야 끝장을 봐야지. 아이들의 장난인가. 나같은

사람이야 이제 받아주소 해도 도리질할테니 할수 없지만…》
김창기가 무심중 한 말이였지만 거기에는 그의 속심의 일단이 드러나있었다.
《이모부는 나를 떠보자는거요?》
《아니, 떠보자는게 아니라 욕을 하자는결세.》
《그건 또 무슨 소리요? 이모부가 공산당에서 물러났다고 날 욕질한다면 이모부는 대체 어찌된 사람이요? 난 칭찬받을줄 알았는데…》
《사람이 앞뒤를 잘 볼줄 알아야 하네. 내가 반생토록 공산당과 싸웠는데 이제 와서 뚝 부러지게 말한다면 공산당한테는 못견데.
내 국경에 나가있을 때 항일빨찌산을 한두번 접해보았다구. 그 사람들이 산속에서 고생할 때도 100만 관동군이 벼르기만 하다가 끝내는 패하고말았지? 그들이 이제는 이 반도의 절반땅을 차지하고 얼마전에는 자기 군대까지 가지게 되였는데 대한제국이 다 뭔가.
중국을 보게. 쟝지에스가 동북까지 타고앉아 허장성세했지만 말로가 어떻게 되고있나. 량심적으로 말해서 나는 북조선정치가 나쁘다고 생각지 않네. 자기에게 나쁘다고 해서 덮어놓고 나쁘다 할수야 없지.
그들은 일본을 반대해서 싸운 사람들이고 나같은 사람은 일본놈에게 붙어서 산 사람이니 그네들이 어찌 우리같은 사람을 좋다고 하겠나.
난 자네도 공산당을 한다고 해서 나쁘게 생각한 일은 없네. 우리 처가에 대세를 볼줄 아는 눈이 바로 박힌 인물도 있구나 했는데 이제와서는 또 물러나? 나야 어차피 깨진 인생이니 이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지만…》
《말같애서는 이모부가 제법 공산주의자같습니다.》
《내 옛날 대학시절에 적색독서회에 참가했던 사람인줄 자네도 알지.》
《그럼 이모부는 내가 다시 공산주의운동을 해도 잡아넣지 않

겠소?》

《허허… 직업이 직업이니만치 부닥치면 쇠고랑 내드는수밖에 없지만 일부러 찾아다니고싶지는 않네. 내 운명도 그리 길지는 못할테니.》

《그건 무슨 말씀이시오?》

《미군정청의 운명이자 내 운명일세. 미군이 있으니 말이지 미군만 나가보게. 그까짓 경비대가 다 뭔가. 듣자하니 인민군대는 **김일성**장군이 지도하던 수하대원들이 주력이라 하더군.》

김창기는 확실히 정세발전의 추세를 내다보고 공포에 질려있었다. 그만큼 자신의 죄과도 언제인가 반드시 회계를 치를 때가 오리라는것도 알고있었다.

정진호는 이모부의 동향으로 보아 그를 포섭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업계획을 뛰여넘어 진속을 털어놓기로 결심하였다.

원래 이날의 상봉은 다시한번 사업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는것으로 되여있었던것이다.

《이모부, 행동력이 없는 지성은 반송장이라는 말이 있소. 그렇게 대세에 밝은분이 왜 그에 따라서지 못하시오?》

《아까도 말했지. 난 깨여진 인생이야.》

《그 깨여진 인생을 부정해버리고 그우에 새 인생을 창조하면 안되겠소. 날 받아주소 할데가 없다 했는데 이모부를 환영하는 곳이면 찾아가시겠소?》

《그런데… 자넨 어떻게 되여 바르게 다듬어온 인생을 부등부등 깨칠려고 하나?》

《이모부, 이모부가 진심으로 내가 걸어온 인생을 바른 인생이라 불러준다면 무엇을 더 감추겠습니까. 난 이모부를 정말로 일생을 망가뜨렸다고 굳이 피해왔는데 우리 애국조직은 이모부를 다른 시각에서 보고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사실 나는 우리 조직으로부터 이모부를 반동의 편에서 떼내여 나라와 겨레를 위해 좋은 일을 하도록 도와주라는 지시를 받고 왔소.》

《애국조직?… 그럼 박헌영이 보냈다는건가?》
김창기의 말투가 거칠어졌다.
《아니… 내가 박헌영을 미워하고 박헌영의 줄을 버린지가 오래다는걸 이모부도 잘 알지 않소.》
《그럼?…》
《우리 대표가 일간 이모부를 만나고저 할겁니다. 그분은 이모부를 잘 알고있습니다. 그러니 잘 생각해보십시오. 절대로 무서워하지는 말아요. 이모부가 결심을 옳게 내리면 이모부의 고민도 덜어질것이고 나라를 위해서도 피차에 좋을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누구를 잡자고 그래. 썩 물러가!》
조카가 마음속을 훌 털어놓자 김창기는 당장이라도 자기를 그 누가 붙들러 오는듯 급해하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고 누가 문밖에서 저들의 이야기를 엿듣지 않나 돌아보기까지 하였다. 직업에서 오는 타성적인 공포심이였다.
《이모부, 나를 믿으시오. 나는 마음속으로 옳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이렇게 찾아와 감히 권하는바입니다. 난 이모부가 이제라도 애국의 길에 나서기를 부탁하고싶습니다. 솔직한 말로 예나 지금이나 이모부가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 복무하고있는건 아니잖소.
난 누구앞에 가서도 이모부의 말을 창피스러워서 내놓지 못하오.》
진심에 넘치는 부탁과 질책에 김창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였다. 다만 부어놓은 술잔만 매만지며 아래입술에 댈듯말듯하다가는 상우에 내려놓군 하였다. …
정시명은 사업정형을 보고받고보니 마음이 놓이였다. 김창기가 사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깊은 회오와 동요에 빠져있는것이 느껴졌다.
《잘해보오. 김창기와의 사업을 좀 목표를 높이 설정해보오. 우리 동지로 전취해볼수 없을가? 물에 빠진 사람에게야 손을 내미는것이 마땅하지 않겠소.》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용자가 아니라 우리 사람으로 만들

겠습니다.》

《왜놈들에게는 허재비였지만 우리 겨레앞에서 영웅으로 된다면 그자신을 위해서도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겠소.》

《알겠습니다.》

길철은 정시명의 말에서 새로운 신선한 충격을 받아안으며 대답하였다. 생각이 깊어졌다. 자기는 조직의 리해관계부터 앞세웠다. 정시명이처럼 인간의 재생에 대한 뜨거운 공감과 희열이 없었다.

언제나 느껴왔지만 정시명이 진심으로 기뻐하고 티없이 맑은 웃음을 짓는 때는 사람들의 인간적성장을 확인하는 순간들이였다. 그 어떤 사람이 동지로 되였다거나 어느 일군이 자기가 저지른 과오를 깨끗이 인정하거나 또는 여늬 사람의 기쁨과 슬픔을 자기의것으로 감수하는 일군들의 모습을 볼 때 이 철의 심장을 지닌 인간은 대뜸 다정다감한 표정을 짓고 함께 즐거워하고 웃고 떠드는것이다.

정시명이 언제인가 자기에게 해주던 말이 생각났다.

《사람을 아껴야 하오. 혁명이란 근본에 있어서 인간에 대한 인간의 사랑이요.》

그때는 생경하게 들리던 그 말이 정시명과 만날 때마다 그 진미가 되씹혀지고 새로와지군 한다.

길철은 김창기의 래일의 운명을 그려보았다.

그가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영웅으로 남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혁명의 공로이고 나라앞에 세운 우리 조직의 공헌이고 자랑이다. 외세에 기생하여 살아온 그의 생애에 외세에 저항하는 인생이 이어진다면 그리고 그와 같은 인생들이 이 땅에 더 많아진다면 내 나라는 얼마나 더 깨끗해지겠는가.

길철은 다시금 생각깊은 어조로 《꼭 김창기를 우리 동지로 만들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시명은 길철이 직접 찾아가되 날자를 약속하지 말고 불의에 나타나라고 하였다. 날자를 약속하면 김창기가 겁을 먹고 피할수 있다는데서였다.

애국조직의 위임으로 찾아왔다는 길철의 엄숙한 인사말에 김창기는 처음부터 몸가짐이 굳어졌다. 비록 괴뢰치안국 파장이라는 폭압기관의 벼슬자리에 높은 경찰직급을 가지고있었지만 저지른 죄과에서 오는 공포감과 래일에 대한 불안, 그속에서 안타까이 소용도는 량심앞에서는 그것도 하찮은것이였다.

정진호가 그의 태도를 예견했던지라 마련해온 술병을 내놓으며 술상을 차려달라고 이모에게 부탁하였다.

술상이 들어오자 다소 분위기가 부드러워져 처음에는 서로 속에 없는 겉치레이야기들을 주고받았다.

그러면서도 김창기는 길철에게서 이제 당장 폭탄같은 선언이 떨어지지 않겠나 마음속으로는 무척 초조하고 불안해하였다. 그는 상대방의 심중에 마음을 쓰느라고 길철이 묻는 말에 동문서답하는가하면 이야기도 조리없이 갈팡질팡하였다.

이윽고 길철이 그 잘 울리는 목청을 낮추어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나는 먼저 우리 조직을 대표하여 민족을 위한 참된 애국의 길에 나서도록 당신을 가능한껏 도와줄데 대한 우리의 결정을 알려드립니다.

지난날 엄중한 죄과를 범한 사람이더라도 인민의 편에 돌아선다면 관대히 용서하여 과거를 불문에 붙이고 완전독립된 조국건설에 함께 손잡고나가자는것이 우리의 립장입니다.

지금 당신은 이러한 뜻을 감사히 접수하고 애국의 길로 나서느냐 아니면 그 믿음을 저버리고 일제때부터 몸을 담아온 외세의존과 매국의 길을 걷느냐 하는 기로에 서있습니다.

우리는 구태여 당신에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길을 택해야 하는지 결심해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나라에 바친 공과 나라를 등진 죄는 력사의 어느 시점에 가서든 반드시 공정하게 계산된다는것은 이미 당신도 체험한 필연입니다. 누가 어떻게 책동하든 통일은 반드시 올것이며 그때에 가서 나라의 통일에 제동을 건 놈들은 인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것입니다.

난 당신이 나라의 통일에 지성을 고인 애국자로 후손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길철의 열변은 오래도록 계속되였다. 그의 말이 계속되자 굳어져있던 김창기의 얼굴에 점점 화색이 돌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김창기는 《당신들은 저의 과거를 정말로 불문에 붙일수 있겠습니까?》 하고 나직한 어조로 물었다.

그러자 길철은 그의 두손을 덥석 잡았다.

《그런 담보가 없다면 무엇때문에 우리와 정면으로 맞서고있는 당신을 찾아오게 되였겠습니까. 우리는 당신과 그 무슨 정치적흥정이나 도박놀이온것이 아닙니다. 나자신만 해도 목숨을 걸고 당신 집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진호가 비여있는 잔들에 술을 부었다.

그들은 기대와 사랑과 축복이 담긴 축배를 높이 들었다.

정시명은 그에게 임무를 주되 임무자체가 그의 운명적전환을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줄데 대하여 일깨워주었다.

며칠후 길철은 그를 만나 첫 과업을 전달하였다.

《우리는 당신이 현 위치를 계속 유지할것을 기대합니다. 직무수행과정에서 알게 되는 자료만 우리에게 넘겨주면 됩니다. 자료는 당신의 판단으로 반애국적이고 반통일적이라고 인정되는것이면 됩니다.》

《반애국적이고 반통일적인 자료?》

김창기는 길철의 이야기를 곱씹으며 그 의미를 되새기듯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마도 자기가 보고 들은 사건들을 훑어보며 거기에서 애국과 매국, 통일과 반통일적인것을 가려내는가싶었다.

《비밀이 새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주십시오. 꼭 해내겠습니다.》

《제가 부탁하고싶었던것입니다.》

김창기는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길철이 그의 두손을 받아잡고 세차게 흔들었다.

몇달후 김창기는 정식성원으로 되여 조국통일대업에 나서겠다고 서약을 하였다. 치안국의 핵심부서인 수사지도과와 문서계 계장으로서 경찰관계서류들을 책임진 김창기가 포섭되자 조직은 유력한 자료원천을 가지게 되였다. 그가 수집한 자료는 어느것 할것없이 다 긴요하고 가치있는것이였다.

김창기의 자료에는 경찰기관이 벌리고있는 좌익세력들에 대한 탄압책동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있었다.

그가 제공한 자료로 하여 수많은 애국자들이 아슬아슬한 위기에서 구원되였으며 대내에 마수를 뻗치려는 놈들의 음흉한 기도를 제때에 좌절시켰다.

김창기의 운명을 여기서 마무리짓고 넘어간다.

1950년 2월.

김창기는 체포되였다. 모진 고문과 회유가 시작되였다. 그가 입을 열면 지휘부에 직탄이 날아들 상황이였다.

그러나 김창기는 굴하지 않았다.

입을 철창처럼 닫아붙인 그에게서는 이 한마디만 자랑스럽게 똑똑하게 나왔다.

《난 김장군을 받드는 통일애국자이다!》

그 소리에 적들은 혼비백산해졌다.

놈들은 제놈들의 속비밀을 통채로 안고있는 그를 검찰에 넘기기전에 교수형에 처하였다.

어지러웠던 인생은 통일혁명의 품에서 아름다와졌다. 누가 그 이름앞에 《량반순사》요, 《만년순사》요 하는 옛 세월의 깨끗치 못한 딱지를 붙일수 있으랴.

김창기! 그 이름은 통일운동의 력사에 길이 전해질것이다.

제6장
눈물에 비낀 사랑과 증오

1

흥국상회에 양복차림에 비단넥타이를 매고 소가죽구두를 신은 멋쟁이총각이 나타났다.

보통키에 가슴이 쩍 버그러지고 옆으로 치째진 눈귀가 감때사나와보였지만 벙글써하게 벌린 입언저리가 유순해보여 전체적인 인상을 부드럽게 해주었다. 그는 대문을 마치도 전건을 때리듯 손가락으로 박자를 맞춰 두드리다가 거기서 민순임이 나타나자 갑자기 굳어지며 허리를 굽석하였다.

《아니, 사모님이 어떻게 여기 계십니까. 례영이는요?》

《아성이, 어서 들어오게. 례영이는 멀리 떠나갔네.》

《어디로요?》

《멀리에 갔지. 나도 모른다네.》

《그래요?…》

김아성이 이날에 흥국상회에 오겠다고 기별이 와서 민순임이 나와있었다.

정시명이 안방에서 일을 보다가 김아성이 들어서자 반갑게 맞았다. 여전히 탄력이 넘치고 투쟁의욕에 불타는 씩씩한 청년의 모습에서 정시명은 신선미를 느끼고 롱담을 하였다.

《역시 총각들은 처녀들에게 맡겨야 의젓해진다니깐.》

사실 여러날동안 애인의 다심한 정성으로 그는 부상자리도 말끔히 나았고 멀끔해졌다. 허드레옷을 걸치고왔던 그의 첫 모습이 생각나 정시명은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말씀 마십시오. 어찌나 잔소리가 많은지 속이 꿈틀거리군 했습니다.》

《어떻게 할 작정이요?》

《싸워야지요.》

《일없을가?…》

정시명은 김아성이 이미 로출된지라 걱정도 되고 한편으로는 그의 마음가짐을 엿보느라고 넌지시 물었다.

《제 다 궁리해두었습니다. 전 심문받을 때도 돈 얻어먹느라 한 짓이라 뻗대였으니 이제 또 따지면 돈욕심이라고 우겨대겠습니다. 리청천에게까지 말했으니 일없을겁니다.》

김아성이 정시명의 걱정도 이미 타산해둔듯 대수롭지 않게 받아넘긴다.

《계획이 있나?》

《경찰청에 들어갈가 합니다.》

《음— 어떻게?》

정시명은 엄호진을 꾸리는 사업이 한창 벌어지고있는 때라 반갑게 물었다. 그러지 않아도 김아성을 그의 기질에 맞게 경찰의 중추에 밀어넣었으면 해왔는데 당자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 한결 대견스러웠다.

《민주당의 리윤영이 리승만과 한짝이 되여 자기의 세력을 확장해보려고 돌아치고있습니다. 리윤영의 정치적지반은 실향민들, 이를테면 놈들의 말로는 〈해방피난민〉들이지요.》

《〈해방피난민〉? 허허…

… 그 말이 신통하다. 해방이 싫어 제 둥질 버린 놈들이지. … 좋소. 계속하오. 흥미있소.》

《그놈의 밑에 가서 일을 해서 신임을 얻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그의 보증으로 경찰에로 뻗을가 합니다.》

《찬성이요. 그대로 하오.》

정시명은 사뭇 만족해서 아무런 의견도 주지 않고 이야기를 끝냈다. 자기 행동에 대하여 구체적인 표상이 서고 그에 신심을 가진 사람에게 잔소리를 하거나 쓸데없는 말을 해줄 필요가 없는것이다.

과연 김아성은 창조적으로 사색하고 과단성있게 돌진하여 기어이 목표를 점령하는 사내다운 사내였다. 그날저녁으로 그는 리윤영의 집을 찾아갔다.

리윤영은 8.15후 평양에서 조만식, 문봉제 등과 같이 민주당

을 조직하고 그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북반부에서의 민주개혁과 사회발전에 악랄하게 도전해나섰던 극우익의 두목이였다. 이놈은 북반부에서 혁명력량의 거센 진출에 겁을 먹고 서울로 도주하여온 후에도 《민주당》간판을 내걸고 월남도주한 반동들 특히 서북출신의 졸개들을 긁어모아 사상루각과도 같은 이른바 정당의 위원장으로 행세하고있었다.

정치적지반이 보잘것 없었던 이놈은 리승만에게 전적으로 아부굴종하는것으로써 출세와 부귀의 길을 모색하고있었다.

리승만도 리윤영을 자기의 심복으로 내세우고 크게 신임하고 있었다.

이해 여름에 괴뢰정부를 조작할 때에도 리승만은 《이북동포들의 촉망이 높은 리윤영씨를 국무총리로 지명한다.》고 하면서 괴뢰국회의 인준승인을 요구하였으며 그것이 부결되자 무임소상이라는 한직의 벼슬을 주었다.

김아성을 만난 리윤영은 눈딱부리가 무섭게 쳐들린 눈으로 그의 미출한 몸매를 훑어보다가 처음에는 그리 내키지 않아 물었다.

《김형서라고 했지? 그래 몇살인가?》

《스물일곱입니다.》

그는 일부러 나이를 높이였다.

《어디서 뭘하다 서울에 왔다구?》

《신의주에서 청산된 부농의 셋째아들로서 학교는 일본비행학교를 졸업하였고 해방후에는 민주당의 지시로 신의주학생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체포령이 내려 도망쳐왔습니다.》

《신의주학생사건에?!…》

리윤영이 귀가 벌쭉해서 태도가 일변되였다.

당시 남조선반동들은 《신의주학생사건》을 그 무슨 굉장한 사변처럼 떠들면서 참가자들을 덮어놓고 영웅처럼 대하였다.

《예, 장도영군이랑 여러명이 함께 거사를 조직하였댔습니다.》

《그런데? 자네 나를 찾아오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나는 이북에서도 선생님을 민주당의 고명한 지도자로 존경하였고 여기 와서도 월남실향민의 최고지도자로 받들고싶습니다.》

《음, 나를… 무졸장수가 된 이 리윤영이를…》

리윤영이 오만상을 하고 벌떡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애숭이같은 젊은이의 이야기가 그의 흉중 어느 한 귀퉁이에서 꿈틀거리고 있던 자존심과 울화를 들쑤셔놓았던것이다.

《갔다가 래일 오게. 내 심기가 좋지 못해.》

리윤영은 김아성을 외면한채 이렇게 내뱉았다.

김아성이 문밖으로 나가자 그는 전화로 괴뢰치안국에 있는 장도영을 찾았다.

장도영은 《신의주학생사건》의 주모자였다. 그 이름을 월남한자들은 거의 다 알고있었다. 그놈은 치안국에 있다가 다음해인 1949년말부터는 괴뢰륙군정보국장자리에까지 벼락승진하였고 박정희가 1961년 5월 16일 군사쿠데타를 일으켰을 때는 괴뢰륙군참모총장으로 《군사혁명위원회》 의장노릇까지 하다가 박정희의 정치적 모살의 직격탄을 맞고 권력의 상층계에서 추방된자이다.

장도영이 인차 전화를 받았다.

《자네 혹 김형서라구 모르겠나?》

《김형서?… 예, 압니다. 알아도 잘 알지요. 신의주에서는 인물이였구요. 비행기도 잘 타고 권투도 하고 검도도 하고…》

《됐네, 됐어.》

상대방의 대답이 늘어지자 리윤영은 전화를 끊어버리였다. 리청천에게도 전화를 걸어 좋은 평가를 들었다.

다음날 김아성이 찾아가니 전날보다 곰살궂게 맞아주었다.

《그래, 나하고 일해보세. 그런데 난 신의를 배반하는 놈팽이는 사정을 보지 않는다는걸 미리 일러두네.》

리윤영은 김아성을 자기곁에 두고 하인처럼 부려먹었다.

어느날 김아성은 리윤영에게 자기는 권투도 하고 군사훈련도 받아보았으니 정치는 몸에 맞지 않고 경찰기관에 가서 일해보겠노라고 슬그머니 한마디 비치였다.

그러자 대뜸 리윤영은 우로 꼬리를 쳐든 눈섭을 떨며 《고약하다! 내 발밑에 엎드린지 언제라고 나를 벌써 배반해. 감히…》 하고 고함을 질렀다.

《아닙니다. 어디 가서도 선생님을 모시려는 저의 결심에는 변함이 없으니 저를 끝까지 돌봐주십시오.》

《안돼!》

리윤영은 김아성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려 하지 않고 단마디로 잘라버렸다.

그 이튿날 다시 말을 붙여볼 심산으로 리윤영의 방으로 찾아가니 금테를 두른 경찰모를 쓴 고관이 리윤영과 이야기를 하고있었다.

김아성이 도로 나가려고 하자 리윤영은 그를 불러세웠다.

《김군, 어서 들어와 인사를 하게. 이분은 치안국 과장으로 계시는 최운하씨네.》

리윤영은 어제 김아성을 돌려보낸 다음 자기의 심복을 몇놈 경찰기관에 박아넣는것도 나쁠게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측근자인 최운하를 불러왔던것이다.

김아성이 인사를 하자 최운하는 입가에 차거운 웃음을 지으며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김아성도 그를 살펴보았다. 코끝에 걸려있는 금테안경이 주름 하나없이 반질반질한 이마에 어울려 여간만 표독스러운 인상을 주는 놈이 아니였다.

최운하는 일제시기 혜산경찰서에 있으면서 반일운동을 탄압말살하기 위하여 피눈이 되여 날뛰던 악한 친일주구였다. 해방후 남조선에 도망쳐온 이놈은 경찰기관에 들어가 미국놈의 삽살개가 되여 벌써 악명을 떨치고있었다. 정판사사건을 날조하여 남조선공산당을 지하에 몰아넣은것도 이놈의 지휘밑에 벌어졌고 그후 련이어 벌어진 좌익탄압책동의 앞장에는 언제나 이놈이 날뛰고있었다.

리윤영이 소개를 잘하였던지 최운하는 처음부터 김아성을 전적으로 신임하였다. 놈은 장차 그를 심복부하로 만들기 위하여 아성을 치안국 감식과 발사계주임으로 등용하도록 하였다.

발사계주임이면 경위로서 경찰관등급에서 중견급에 속하였다.

정시명은 아성이 경찰에 깊숙이 잠입해들어가자 그의 신분위장에서 장애물로 되고있는 《대동청년단》 서북사무국부터 페쇄

할 임무를 주었다.

서북사무국놈들이 존재하는 한 김아성에게는 상시적으로 위험이 동반될수 있었다. 그놈들은 북반부에 대한 교란작전에서도 앞장에서 날뛰고있었다.

정시명은 길철을 통하여 서북사무국놈들의 비행자료를 조사하여 김아성에게 넘겨주었다. 서북사무국놈들은 대북공작을 구실로 38°선을 넘나들면서 집단적으로 공공연히 모리간상행위를 많이 하고있었다.

김아성이 제출한 자료를 받은 최운하는 기고만장해서 당장 서북사무국을 해체하고 범죄자들을 법에 걸어 모조리 제거해버리라고 호통을 쳤다.

대체로 당시 일제시기의 관료출신과 독립운동출신들은 감정적으로 상당히 대립되여있었는데 일제경찰관료배였던 최운하와 《광복군》 사령관이였던 리청천의 사이도 례외가 아니였다.

최운하는 직권을 리용하여 일상적으로 《림정》 계렬의 비행자료를 하나라도 더 손에 쥐지 못하여 안달복달해오던차라 서북사무국의 자료가 들어오자 리청천의 따귀를 때리는 통쾌한 심정이였다. 그는 일거에 서북사무국을 해산해버리게 하고 김아성이 특별히 이름을 박은 놈들을 대전형무소에 처넣어버렸다.

김아성의 활동은 본격화되여갔다.

서울경찰청의 부청장으로 된 최운하놈은 리승만에게 아첨하기 위하여 김아성을 자기가 귀해하는 경찰관이라는 소개말까지 붙여서 리승만의 저택근무경찰로 추천하였다. 이리하여 김아성은 그후 리승만역적의 경무대에 틀고앉게 되여 경무대경찰서에까지 순조롭게 직행하게 되였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리윤영과 리청천의 련명수표가 있는 신임장이 특효를 내였다.

지휘부에서는 김아성과의 련계를 안지생이만이 가지고있었다.

안지생은 정시명의 안전에 우려가 생긴다고 판단이 갈 때마다 리순애를 통하여 김아성을 불러내군 하였다.

지휘부에서는 공작활동의 폭이 커지자 고급승용차를 한대 마

련하였다. 승용차는 미군정청 공보국 여론조사과장인 연장성의 이름으로 등록하여놓고 필요할 때면 전화로 호출하여 리용하도록 하였다. 고급양복을 차려입은 정시명이 뒤좌석에 앉아있고 운전사옆에 모자에 금줄을 두르고 경무대경찰서 근무증명서를 소지한 김아성이까지 앉아있으면 어디서나 무사통과였다.

하루는 안지생이 찾아와서 정시명에게 거처를 옮겨야 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엄호조직들에서 보고하여온 자료들을 내놓았다. 마동열이 떠난 후 거점보위를 맡은 안지생은 지휘부의 안전에서 제기될수 있는 문제들을 꼼꼼히 재점검하여왔었다.

다이야사건이 있은 후 경찰들이 여러번 박정인의 집에 드나들며 청주대접을 받군 했는데 그게 심상치 않았다. 죄를 만들어내서 공짜를 처먹는데 이골이 난 경찰들의 상례적인짓이였지만 그래도 주의가 갔다. 게다가 박정인이 속해있는 《애국반》의 반장이라는 녀자가 사랑채의 길봉례를 여러번 만나 이 집에 거처하는 나그네가 정말 마님의 오라버님이 맞는가, 이따금 찾아오는 손님들은 누구들인가고 꼬치꼬치 캐묻고 돌아갔다는 소리도 심상치 않았다. 놈들이 최근에 와서는 고려상사의 수입거래도 재조사하고 사장인 박정인에 대해서도 여러차례 신원을 료해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들을 주목하게 된 안지생은 길철에게 이야기하여 치안국 수사지도과장 김창기에게 임무를 주어 그 《애국반》반장을 은밀히 료해하도록 하였다. 료해자료에 의하면 그 녀자는 일제시기 기생노릇을 하다가 나이들어 그 시절에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빚놓이를 해가며 살아가는 경찰의 끄나불이였다. 독신으로 살아가는 그 녀자에게 근래에 와서 《양아들》이 생겼다. 대낮에는 모자사이로 있다가는 밤에는 시들어가는 계집의 육체를 위로해주며 부부사이로 변하는 패륜의 가정이였다. 어떤 때는 그 양아들이 며칠씩 출장을 가군 했는데 그럴 때면 그 집에는 하루밤에도 두세놈의 경찰들이 번갈아 들이닥쳐 눅거리의 밤생활을 즐기군 하였다.

그 양아들이라는자가 경찰의 비밀요원이였다. 년놈들은 좌익인물들을 하나라도 잡아내여 상금이나 타먹어보려고 기회만 노

리고있었다.

이 시기에 와서 놈들의 폭압기관은 민간거주단위에도 촉수를 뻗치고 혁명세력에 도전하고있었다. 놈들은 주민거주단위들에 《애국반》이라는것을 조직하여 서로 감시하도록 하고 수십만의 경찰, 비밀경찰, 정보요원들을 주민들속에 박아넣어 일거일동을 감시하였다.

정시명은 안지생의 제의를 접수하였다. 우선 거처지부터 옮겨앉기로 하였다. 처음에는 권재수검사의 집으로 옮겼다가 김창기의 곁방살이도 해보았다.

다시 옮겨앉은 곳은 안지생이 자기의 련락거점으로 정해놓고 권혜숙을 거주하게 한 그의 조직성원인 서병남의 집이였다.

서병남은 전라남도 목포의 실업가출신이였는데 그의 두 형은 10월인민항쟁때 원쑤들에게 학살당하였다. 그의 안해와 아들딸, 형수와 조카, 사위들까지 다 지하활동에 참가하고있었다.

서병남은 해방전부터 목포의 화신백화점을 운영해왔는데 8.15후에도 거기서 나오는 리득금으로 살면서 혁명투쟁에 전적으로 투신하고있었다. 온 가정이 흠할데없이 순결한데다가 그의 집이 활동거점으로서는 매우 좋은 위치에 자리잡고있었다. 남산과 련결되여있는 상왕십리의 나지막한 언덕우에 독립적으로 서있기때문에 주위를 경계하는데도 좋았고 뒤마당은 울창한 수림과 접해있어서 유사시 피신하기에도 좋았다.

서병남은 권혜숙이 살수 있도록 자기 집과 처마를 같이하고있는 적산가옥 한채를 경찰청과 교섭하여 받아가지였다. 거점은 자기 집의 2층의 한 방을 내였는데 2중벽과 방음장치가 된 문을 다시 만들어 리용하도록 하였다. 신호장치도 만들고 언덕뒤로 빠지는 비상출입구도 만들었다. 권혜숙이 여기서 김창기가 가져오는 문건들을 복사했는데 그때마다 서병남이나 그의 안해에게 련락하여 주변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정시명은 꽃방을 보면서 김창기의 자료복사를 계속 맡아보는 권혜숙이 피로에 지쳐하는것을 여러번 목격하자 길봉례를 꽃방을 맡아보도록 하고 거처도 서병남의 곁채에 옮기게 하였다.

서병남과 그의 가정을 깊이 파악한 안지생은 정시명을 이쪽으로 옮겨오도록 지휘부모임에 제기하였다.

박정인과 주씨부인이 몹시 락심해하였다. 주씨가 특히 헤여지는 것을 여간 섭섭해하지 않았다.

2월도 다 지나간 어느날 김아성이 안지생을 찾았다.

《순애가 타자강습을 마쳤다고 전하여주십시오. 차후 순애동무의 거처를 선생님이 맡아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모나리자다방의 안방에서 래일저녁 7시경에 기다리겠습니다.》

그동안 안지생도 타자강습소에 간 리순애의 뒤바라지를 해왔던지라 여간 기뻐하지 않았다. 그동안 정시명은 몇번 졸업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고 묻군 하였다. 그의 졸업후의 일거리를 마련해두고있었던것이다.

안지생의 련락을 받은 정시명은 정해진 시간에 다방으로 갔다.

다방안에 들어서자 오색이 현란한 색등부터 쳐다보았다. 그중 연청색등만은 불이 꺼져있었다. 별일이 없다는 모나리자다방의 안전신호였다. 손님 몇이 조용히 차를 마시고있었다.

정시명이 안방에 들어서니 리순애가 혼자 락화생을 까다가 나붓이 일어나 인사를 하였다.

《아성군은 어데 갔소?》

《밖에 있습니다.》

그 소리에 창가림막을 들고 손님방을 내다보니 김아성이 차잔을 앞에 놓고 주위를 경계하고있었다. 어디 가있어도 《호위경관》의 임무를 잊지 않고있는 김아성이였다.

《어데 가서 일하면 좋겠소?》

《저…저는 선생님밑에서…》

리순애는 여전히 수집음을 잘 타는 그 성미대로 두볼이 앵두알처럼 물들면서 말끄리를 여물구지 못한다.

《군대에 들어가 일해볼가?》

《예?!》

처녀는 덴겁을 해서 고개를 들었다. 정시명의 눈길과 마주치자 인차 긴 속눈섭을 내리깔며 《저는 군대들속에서는 일을 못

합니다.》 하고 자기 의사를 밝히였다.

정시명은 처녀가 부모를 학살한 원쑤들과는 절대로 함께 어울릴수 없어한다는것을 기쁜 마음으로 헤아렸다. 처녀의 또릿또릿한 어조와 자기 결심을 단호하게 피력할줄 아는 태도가 마음에 들었다. 처녀의 애된 얼굴, 부드럽고 례절바른 품성 그리고 속으로 강하게 다져진 속대가 녀성조직성원으로서 나무랄데가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그저 애리애리하게만 보이던 첫인상과는 달리 처녀의 곱게 솟은 코마루며 상큼하게 내불린 입술에는 다기찬것이 풍긴다.

《어째 군대가 싫소? 아성군도 군대중에서도 금줄을 두른 군대인데… 아성이 그것때문에 싫어지는것은 아니겠지?》

처녀의 얼굴이 또 앵두빛으로 물든다. 처녀는 잠시후에야 다시 고개를 들고 《그거야 뭐… 아성씨는 선생님을 모시고…》 하고는 다시 손톱여물을 썬다.

정시명은 얼굴에서 미소를 거두고 정색해서 이야기했다.

《그래, 그것이 중요하지. 어떤 옷을 입었는가가 중요한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지. 아성동무는 반동의 옷을 입고 반동들과 싸우고있소. 나는 순애도 그렇게 해줄것을 바라오.》

정시명은 송호정으로부터 《경비대사령부》의 비밀이 집중되는 곳은 타자실이니 그곳에 눈썰미있는 처녀를 타자수로 들이밀자는 제기를 받아둔지가 오랬다. 그래서 순애가 강습을 마치기를 기다려왔던것이다.

송호정이 《국방경비대》 사령관자리에서 일시 물러나 《장교재훈련반》에 가게 되니 그곳에서 들어오던 자료가 질적으로나 량적으로나 현저히 줄어들었다. 앞으로도 송호정이 계속 자기 직무를 지켜낸다는 담보도 없다.

정시명은 리순애로부터 《경비대사령부》의 참모부에서 일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 위하여 오래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끝내 리순애는 힘자라는껏 혁명을 위하여, 부모들의 복수를 위하여 싸우겠다고 또박또박 맹세를 다지였다.

정시명은 김아성을 불러들였다.

《리순애동무는 〈경비대사령부〉에 가서 사업하기로 했소.》

《〈경비대사령부〉?… 하필이면… 그건 순애동무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김아성은 뒤에서 다소곳이 앉아있는 처녀를 힐끔 돌아보고는 시무룩해졌다.

정시명이 기분이 처진 김아성의 잔등을 손바닥으로 철썩 갈기며 호탕하게 웃었다.

《당자보다도 더 바빠하는군. 아니, 꼭 어울릴거요. 훌륭하게 싸울수 있소. 녀성이 강한것은 아름답고 부드럽기때문이요. 순애동무는 이 훌륭한 무기를 혁명을 위하여 옳게 사용하게 될거요. 동무가 곁에서 잘 도와주오. 난 동무들이 애국의 한길에서 혁명동지로 더 깊이 사귀고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바라오. 어떻소. 우리 호위경관, 난 동무도 순애도 다 마음에 들거든.》

《마치나…》

김아성이 말하다 말고 리순애를 다시 돌아보았다.

《마치나가 어쨌다는거요?》

《저… 주례사를 하시는것 같습니다.》

김아성이 이렇게 말해놓고는 제풀에 쑥스러운듯 히죽이 웃었다.

《허허… 좋소. 동무들의 결혼식에는 나도 꼭 참가하겠소. 그리고 저레 약속해놓기요. 그때면 주례사는 꼭 내게 맡겨주오. 그 행복한 권리를 누구한테도 넘겨주지 말아주오. 순애, 그렇게 하지?》

《아이, 선생님두…》

순애는 그만에야 온통 새빨개진 얼굴을 두손으로 싸쥐고 몸둘바를 몰라하였다.

그들과의 사업을 다 끝내고난 정시명은 창문가에 서서 희끄무레한 가로등불빛을 받으며 나란히 걸어가고있는 두 청년의 뒤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보았다. 그는 무등 가슴 가득히 희열이 넘쳐올라 중얼거리였다.

(아, 얼마나 다감하고 아름다운 청춘들인가! 저들의 밝은 앞날을 위해서도 더 많은 일을 해야겠구나. 너희들은 제발 자기 행

복을 망국의 통탄속에 빼앗기지 말아라. 잘 싸우라. 그리고 행복하라. 이것이 그네들의 사랑에 대한 우리 조국의 뜨거운 축복이다.)

순간 불시에 그들의 모습이 어둠속에 묻혀버리고 례영과 마동열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짜릿하였다. 아직 그들한테서는 아무 소식도 없었다. (지금쯤 어데 가있을가? 무사히 출국은 했는지?)

2

해뜰무렵의 남해는 조용히 굼니고있었다.

어둠이 실려 거무틱틱하던 바다는 밝아오는 려명속에 점차 희푸릿한 빛을 띠였고 시원히 열려지는 하늘은 재빛으로 바뀌여졌다. 가없이 망망한 바다와 하늘이 맞붙은 동쪽 한끝에서 불그레한 색조가 점점 퍼지기 시작하였다. 그 불깃불깃한 노을빛은 쉬임없이 일렁거리는 물결에도 비껴들었다. 아침노을까지 어울려 든 바다물결은 마치도 억만의 홍보석을 휘뿌려놓은듯 령롱하다.

노을은 자기의 고운 빛갈을 뽐내기라도 하듯 잠간사이에 동켠하늘을 장미빛으로 물들이고 하늘과 맞붙은 바다를 시뻘겋게 달아오르게 한다. 하늘과 바다가 맞붙은 사이를 헤집고 해님이 수집은듯 갸웃이 고개를 내밀었다.

노을은 생겨날 때처럼 서서히 스러져가고 바다에도 하늘에도 찬란한 해살이 넘친다. 새날을 거느리고 위엄있게 떠오르는 해님을 축복하듯 바다는 끓어번지는 쇠물인양 이글거리면서 끝없는 환희와 열정을 안고 춤을 춘다. 일단 세상에 선을 보인 해님은 이제는 부끄러울게 없다는듯 눈앞에서 쑥쑥 커지더니 드디여 수평선너머에서 쟁반같은 자태를 완연히 드러냈다. 하지만 바다는 제 품에서 안아올린 그 보배로운 불덩어리를 정작 놓아주자니 너무나 아쉬워 해를 끌어안은채 함께 솟구쳐오른다. 바다가 지꿏게 끌어안고 놓아주지 않자 마침내 무변광대한 시퍼런 하늘이 굽어보다 만

물의 보물을 독차지하겠다는 심보가 돼먹었느냐고 시샘을 한듯 뎅강 들어올린다. 드디여 바다는 하늘과의 힘겨루기에서 지친듯 주저앉고 수평선에서 태양이 둥실 떠올랐다.

《아! 이것이 해돋이구나! 남해의 해돋이구나!》

아까부터 모래불에 장대처럼 두다리를 뻗디고서서 그 장엄한 광경을 넋을 잃은듯 바라보고있던 마동열이 두팔을 건뜻 들어올리고 저도모르게 열에 떠서 《어— 바다여!—》 하고 소리를 내지른다. 그리고는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홱 돌아서서 바다가를 따라 냅다 뛰기 시작하였다. 초봄의 싸늘한 바다바람에 머리칼이 갈기처럼 일어서고 옷자락이 펄럭거렸다.

마동열은 자그마한 바위앞에서 멈춰섰다.

바위우에는 정각이 있고 거기서 얼마쯤 떨어진 곳에 아담한 벽돌집 한채가 보인다. 8.15전에는 부산시장하던 왜놈이 기생년들을 두고 별장 겸 귀빈접대용객실로 리용했다고 한다.

마동열은 바위우에 껑충 뛰여오르더니 벽돌집을 향해 큰소리로 불렀다.

《례영이— 어, 례영이—》

다급하게 불러대는 소리에 벽돌집 창문이 열리더니 행주치마를 두른 례영이 손에 밥주걱을 들고 내다보았다.

《왜요?》

《이리 내려오라구. 어서!》

《아이, 밥짓다말구 어디로 간다구…》

《아, 밥은 밥이구 어서!》

마동열은 여전히 무엇에 쫓기기라도 한듯 급하게 소리질렀다.

례영이 행주치마를 벗어놓고 마동열이 서있는 정각에 나왔다.

《왜요?》

《저리 가기요. 어서.》

마동열이 례영의 손목을 덥석 잡더니 오던 길로 되돌아서서 달리기 시작하였다.

례영이는 사내의 넉가래같은 손에 손목을 잡힌채 숨을 할딱거리며 따라섰다.

모래불에 나선 마동열이 발을 우뚝 세우더니 벌써 한발은 솟아오른 둥실한 해님을 가리키며 부르짖었다.

《자, 저걸 봐! 막 타는것 같다니깐. 불덩이야, 불덩어리! 얼마나 멋있어. 좀전에만 왔더라도 정말 희한했는데…》

마동열이 환희와 즐거움에 겨워 잠시전의 그 장엄한 해돋이를 례영에게 보이지 못한것을 못내 아쉬워한다.

그러나 례영은 마동열의 그 열정적인 부르짖음과 함께 저 아름다운 화폭을 함께 보며 기쁨을 나누고저 자기를 불러낸 사내의 정에 더욱 감동이 되여 백옥같이 희고 잔조롬한 이발을 드러내며 탄성을 올렸다.

《정말! 막 불타는것 같네. 바다는 또 얼마나 좋아! 붉은 비단이 너울너울 춤추는것 같네.》

수평선너머에서 솟구쳐오른 불덩이같은 태양과 그밑에서 쇠물처럼 이글거리는 바다를 바라보는 례영의 눈에 행복과 기쁨이 함뿍 어리였다.

마동열이도 례영이도 이렇듯 아름답고 장쾌한 해돋이를 난생처음 본다. 그들은 손에 손을 잡은채 오래도록 남해의 해돋이를 구경하였다.

젊은 부부가 부산에서 30리 떨어진 이 외진 도미섬에 온지가 꼭 한주일이 된다.

그런데 그새는 남해의 초봄날씨가 변덕스럽고 또 새벽시간이 꿀맛같이 소중한 신혼재미에 겨워 해돋이를 모르고 지내왔었다.

그들을 이리로 데리고온것은 《국방경비대》의 부산려단장인 최원기였다.

그들은 중국에서부터 서로 잘 아는 사이였다.

그는 정시명의 지시를 받고 마동열의 출국수속을 다 해두었는데 례영이 함께 나타나는 바람에 계획을 바꾸었다. 례영이까지 밀선으로 보내는것이 안심치 않고 미안하였던것이다. 새로 출국수속을 하자면 시일이 필요하였다. 더구나 그들이 렬차안에서 벼락같은 결혼식을 희한하게 하였다는것을 듣고는 차라리 잘되였다고 하면서 자기 집에서 며칠밤을 재운 다음 이 섬으로 데리고왔다.

지도에도 알려지지 않은 이 도미섬에는 최원기수하의 한개 경비소대가 있을뿐 일체 외인출입이 금지되여있었다.

최원기는 그들을 이 집에 안내해주고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 집은 서울고관들이 행차하면 모시는 우리 려단의 빈관일세.

자네들 아버님도 여기 몇번 모셨댔어.

식모로친과 접대원도 휴가를 주어 집을 비워두게 했으니 마중위 잡으려 예까지 올 놈은 없어.

그러니 아무 걱정 말고 내가 올 때까지 재미있게 지내라구. 아무래도 자네들을 둘다 안전하게 출국을 시킬려면 좀 날자가 걸릴걸세. 늦잡아서 한주일후에는 오겠네.》

그리고는 심심하면 낚시질이나 하라면서 이 아근에 흔한 도미낚는 법을 반나절 배워주고 돌아갔다.

그날부터 신혼부부는 생각지 않은 호강을 하면서 신혼밀월을 꿈속에서처럼 즐기여온다. 너무도 뜻밖에 찾아든 행복이여서 지금도 그들은 이루어진 사랑의 열매와 누리게 된 행복이 기연가미연가했다.

최원기가 떠나간 저녁부터 이 아름다운 섬의 아담한 귀빈실의 주인이 된 마동열은 갑자기 다사해졌다. 하긴 서울에서 한처마를 쓰고 지내면서도 언제한번 단둘이 마주앉아 정담을 나눈적이 없었던 그들이였다. 그저 마음과 마음으로 통하며 서로 끌리는 정을 나누고 입으로가 아니라 눈으로 사랑을 속삭여왔었다.

마동열은 천근같이 무겁기만 하던 입을 열고 자기가 걸어온 어제날의 이야기부터 쏟아놓았다. 어떤 때는 그 시원스럽고 부리부리한 눈망울을 둘둘 굴리며 눈물속에 더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주먹으로 허공을 냅다치며 울분을 터치기도 하였다.

그러면 큰 고생을 모르고 자라난 례영의 눈가에도 물기가 돋고 입술이 바르르 떨기도 하였다.

《아마 례영이를 이렇게 만나자고 그 고생살이 다 이겨내고 이렇게 살아난것 같애.》

마동열은 이렇게 곡절많은 한생을 추억하였다.

례영이도 살아온 이야기를 동열에게 처음으로 들려주었다.
그들의 오가는 말속에 언제나 떠나지 않는것은 정시명에 대한 이야기였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밥상을 마주하고도 잠자리에 함께 들어도 정시명에 대한 이야기는 끊어지지 않고 뜨거운 감사와 애정과 감동속에 그냥 비끼군 하였다.

《례영이, 우리 앞으로 절대로 헤여지지 말고 서로 아껴주며 오래오래 살아보자구. 비명에 돌아간 우리 부모님들의 몫까지 모두 합쳐서 말이요.》

마동열은 눈물에 젖는 안해를 넓은 품에 끌어안고 이렇게 더운 목소리로 웅얼거리군 하였다.… …

《야, 밥이 타겠네!》

동녘에 해가 서너발 솟아오를무렵에 례영이 새된 소리를 내질렀다.

《엉? 하하…》

마동열이 큰 웃음을 하늘에 날리며 제 먼저 주먹을 부르쥐고 바위를 향해 냅다 달려갔다.

새까맣게 탄 누렁지를 식탁에 올려놓고 젊은 부부는 한바탕 즐겁게 웃었다.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줄 모른다잖아요. 자, 이거라도 더 드세요.》

례영이 미안스러워 제앞에 있는 도미탕그릇을 그에게 밀어놓으며 살뜰히 권했다.

《뭘, 그래서 그 희한한 구경을 하지 않았어. 하마트면 그걸 놓쳐버리고 섬을 떠날번 했지.》

마동열이 례영이 내미는 도미탕그릇을 받아들며 벙긋 웃었다.

아침상을 물리자 마동열은 또다시 집안의 비품으로 되여있는 낚시대를 들고 집을 나섰다. 섬주변에 도미가 많이 서식하고있었다. 그래서 섬이름도 도미섬이라 한다.

어선들도 함부로 드나들지 않아 낚시질은 깜깜인 마동열이도 반나절만 앉아있으면 둘이 먹을 찬거리는 어렵지 않게 낚아냈다.

례영이는 설겆이를 마치고 마동열의 군인외투를 들고 바다가

로 나갔다. 발소리를 죽이고 등뒤에 다가갔으나 깜부기에 정신을 팔고있는 마동열이 인기척을 모르고있다가 제 등에 외투가 걸쳐져서야 돌아다본다.

《뭘, 제가 쓸게지. … 그런데 왜 나왔소? 한잠 푹 자기나 하지.》

마동열이 외투를 도로 례영에게 걸쳐주자 례영이 더 사양하지 않고 해죽이 웃으며 그의 옆에 무릎을 세우고 앉았다.

그는 깜부기를 눈여겨보다가 끝간데없이 펼쳐진 바다로 시선을 옮겼다.

해가 중천에 걸리자 바다는 수집게 살랑거리던게 언제였더냐싶게 크게 움씰움씰거리며 파도를 높이고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였다. 욱— 밀려든 물결이 바위를 들때릴 때마다 크고작은 물알갱이들이 길이 넘게 날아 흩어진다.

그들이 마주앉아있는 바위밑은 병풍처럼 파도를 막아선 암벽때문에 련못처럼 고요하였다.

출랑출랑거리던 깜부기가 물속에 쏙 들어갔다.

《이크…》

마동열이 환성을 지르며 번쩍 낚시대를 쳐들었다. 솥뚜껑같은 둥글넙적한 도미가 데룽데룽 매달려 바위우에 철썩 떨어져내렸다.

례영이 냉큼 자리에서 일어나 도미를 낚시에서 풀어내였다. 그는 푸들짝거리는 도미를 다래끼에 담고는 낚시에 미끼를 꿰는 마동열의 옆에 와서 다시 소곳이 앉아 먼바다로 시선을 보냈다.

《아저씨가 언제 오신다고 했던가요?》

례영이 문득 지나가는 어조로 물었다.

《늦어도 한주일이라 했으니 뭐 오늘에야 오겠지. 갑갑해졌소?》

마동열이 낚시를 다시 바다물에 던져넣으며 대수롭지 않게 대꾸하였다.

하기는 이제는 갑갑할만도 하다. 며칠새에 숱한 이야기를 줄소나기처럼 부어대고보니 이젠 흥이 날만한 이야기거리도 밀창

이 났다. 그렇다고 례영이와 더불어 재미를 나눌만한 오락물도 없고 책이나 신문도 없으니 워낙 집에 들어앉아있는것이 질색인 마동열이도 갑갑하기 그지없다. 그래도 자기에게는 낚시질이라는 소일거리가 있으니 그런대로 무료함을 덜수 있었다.

마동열은 례영의 다음말을 기다리며 여전히 깜부기만 지켜보았다.

요 며칠전부터 마동열은 례영의 마음속에 그 어떤 이름짓지 못할 이상야릇한 변화가 일고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였다. …사흘전에 있은 일이다. 잠자리에 나란히 누웠을 때 마동열이 평양에서 **김일성**장군님을 뵙던 이야기를 하였다. 장군님께서 특별히 자기에게 맡겨주신 특별임무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그걸 수행하지 못하고 떠나는 죄스러운 생각도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싸움들이 눈앞에 있는데 정시명의 신변이 자못 걱정스럽다고 한숨을 쉬였다.

그 말을 들은 례영이 《그래도 아버님은 언제한번 그런 걱정을 하시지 않던데요.》 하고 조용히 말을 받았다. 제딴으로 마동열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고싶었던것이다.

그 말을 듣자 마동열이 번열증이라도 나듯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그러니 더욱 문제요. 선생님이 언제 제 한몸 생각하시는분이요. 내 선생님슬하에서 꼭 10년을 지내왔소. 걸음걸음이 아슬아슬한게 지하전선이요. 참호에 엎드린 병사들은 날아오는 총탄을 볼수 있고 저를 노리는 상대를 알고 싸우오. 지하전선이란 언제 어디서 칼이 날아오고 포승줄이 덮쳐드는지 누구도 모른단 말이요. 선생님이 직접 당한 위험한 고비를 내가 지켜본것만 해두 헤아릴수 없소.

장군님께서 선생님의 신변을 지켜드리는것이 통일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중요한 일이라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는데 난 이렇게 제 한몸 편해서 물러나거든. 난 요새 자꾸 선생님을 꿈에서 보군 하오.》

《너무 념려말아요. 곁에 어머님두 계시구 지생오빠도 계시구.

다 든든한분들이 있지 않나요.》

《글쎄 내 안동무에게 부탁했으니 어련하겠소만 서울공기가 나날이 너무 험악해가거든. 중국에서도 우린 줄창 이러루한 일을 해왔지만 서울처럼 숨가쁘지는 않았어. 이번에 놈들이 날 쫓아다녔지만 언젠가는 선생님도 따라다니게 될것만 같애.》

《설마…》 례영은 이렇게 덴겁을 하듯 나직이 부르짖었다.

《설마가 뭐요. 저놈들이 인정사정 아는 놈들이요. 몽양선생이 돌아갔을 때 생각이 안나오. 그분을 지켜내지 못했다고 가슴을 두드리면서도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도 무심하단 말이요.》

잠시후 례영이 물었다.

《아버님은 언제면 서울을 뜨게 되는가요?》

《글쎄… 딱히는 몰라도 통일이 되는 날이지.》

《통일?… 통일이 언제면 될가요?… 한 5년은 걸릴가요?》

《5년?… 무슨 5년까지 간단 말이요. 온 나라가 들고일어나지 않았소. 미국놈들이 나라를 토막내려고 발광을 부리지만 어림두 없어. 쏘미협상때 봤지. 우리가 멋들어지게 이겼단 말이요. 남북 삼천리에 통일기운이 꽉 찼는데 뭘 5년까지 간단 말이요. 원래 모스크바3상회의라는데서 5년후에 보자고 했는데 그 5년이 벌써 절반은 지나갔거던. 글쎄 그건 그거구 내 생각에는 극상해야 이제 한해나 이태쯤 지나면 알도리가 있겠지. 두고보오. 우리가 이제 타국에 가서 자리를 잡느라면 아버님이 우릴 오라고 부를게요. 제발 그날까지는 무사하셔야 되겠는데… 자, 이젠 잡시다.》

그런데 이튿날 동틀무렵이였다.

마동열이 눈을 뜨니 례영이 경대앞에 그린듯이 앉아있었다. 턱을 고인 오른손에는 얼레빗이 들려있고 다른 손에는 분곽이 들려있었다. 례영이 이 벽돌집에서 신접살림을 시작한 후로 언제나 새벽무렵이면 제 먼저 이불속에서 빠져나와 화장까지 다하고 부엌에 나가군 하였다. 그런데 이날따라 거울앞에 앉아 생각에 옴해있는 그 모양새가 례사롭지 않다.

마동열이 그의 뒤모습에 눈길을 박은채 숨소리를 죽이고있는데 례영이 이따금 가느다란 한숨을 내쉰다.

(왜 저럴가?…)

마동열은 례영이에게서 처음으로 들어보는 그 한숨소리가 가슴을 쩌릿하게 하였다. 이제는 자기보다 아니 제 한몸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귀중한 사람이였다.

그날 식사끝에 새벽에 경대앞에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고 물으니 《오빠생각…》 하며 방긋 웃었다.

그러나 그날부터 마동열은 안해의 일거일동에 자연히 신경을 쓰게 되였다. 확실히 례영의 얼굴에 무엇인가 수심이 어리고 그 무슨 생각이 명치에 옥맺혀있는것 같았다.

(무엇일가? 례영이 후회하는것이 아닐가?)

마동열은 불안하고 두려워졌다. 곰곰히 돌이켜보면 크게 맺힌 정이 없이 사귀였고 결혼마저도 벼락치듯 성사되였다. 례영이를 위해 사내로서 특별히 해준것도 없다. 그렇다고 녀인들의 눈을 끌만한 매력있는 사내도 못된다. 례영이 서울판에서 나같은 사내를 골라잡으라면 그 무슨 품들일것도 없을것이다. 인물곱고 마음씨 착한 례영이 나서면 지나가던 총각들이 걸음을 멈춘다. 이건 여러번 체험했던 일이다. 그러나 례영이 없이는 이제는 한시도 살아갈수 없을것만 같다. 고 애된것이 심장을 깡그리 앗아낸것 같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을가? 어떤 때 보면 먼 허공에 초점없는 눈길을 보내다가는 눈길이 마주치면 화닥닥 놀라 언제나 다름없는 생기있고 살뜰한 모습을 되찾군 한다. 그럴 때면 마동열은 속안이 허우룩하였다.

지금도 수평선 멀리에 눈을 주고있는 례영의 모습에는 수심이 어려있다.

《동열오빠!》

문득 례영이가 조심스러운 어조로 불렀다. 그 은근하면서도 떨리는듯한 음조가 동열의 가슴에 싸늘하게 박혀들었다. 마동열은 그에게 고개를 돌리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으음―》 하고 짤막히 대꾸하였다.

례영이 그의 허벅다리를 꼬집으며 엉석을 부리듯 《나 좀 봐요.》 하고 말했다.

《왜?》
《글쎄요.》
례영이 가까이 다가드는데 동열이 지끚게 깜부기만 내려다본다. 도미란놈이 지느러미로 장난을 치는지 잔잔한 수면우에서 깜부기가 간들거렸다.
《아이, 뚝바우!》
례영이 그만에야 마동열의 앞에 마주앉으며 사내의 구리빛얼굴을 새침해서 쳐다보았다.
《허허… 말이야 귀로 듣는거니… 말해보라구.》
《음… 이런 말 한다고 달리 생각말아요. … 나 서울에 다시 가야 할가봐. …》
말소리가 떨리다가 잦아들고말았다. 례영은 입술을 더 오물거리였으나 말이 들리지 않았다.
《뭐야?!》
마동열이 그 큰 눈을 흡뜨고 소리질렀다.
례영이 대바람에 험상해진 사내의 얼굴과 큰소리에 깜짝 놀라 뒤로 주저앉았다.
《아이, 깜짝이야!》
례영이 또 뭐라고 하는데 마동열이 낚시대를 홱 들어올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는 바위에서 뛰여내려 모래불에 큼직큼직한 자국을 찍으며 씨엉씨엉 걸어갔다.
례영이 너무 급해맞아 《오빠―》 하고 소리치며 뒤따라갔다. 등뒤에서 애기들의 팔뚝처럼 소담한 쌍태머리가 춤을 추었다. 부산에서 하루를 보낼 때 최원기처가 머리를 얹어주겠노라 하는걸 마동열이 그만두게 하였다. 자기는 그게 더 보기 좋으니 애기엄마가 될 때까지 놔두라는것이였다. 그래서 례영은 마동열의 소원이 그렇다면 죽을 때까지 쌍태머리를 하고있겠노라 웃으면서 머리단장을 바꾸지 않았던것이다.
《내 말 들어봐요.》
《가오, 가오! 들어봐야 그 말이겠지. 넓으나 넓은 서울땅에 뭐 마동열과 같은 사내야 가을메뚜기처럼 흔해싸지.》

《뭐라구요?! 오빠가 어쩌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빠—》
《생각대로 하오. 난 발부리에 엎드려 구차스럽게 빌지는 않겠으니 물러가오. 우리 선생님이 뭘 보시고 내같은거한테 저런 공주같은걸 맡겨주시였을가. …》
마동열의 소리가 점점 거칠어만졌다.
순간 례영은 몸을 휘친거리며 내달려 그의 앞을 막아서며 야멸차게 불렀다.
《여보!—》
그 소리에 마동열은 말나가는대로 벌리던 입을 봉하고 걸음을 우뚝 세웠다.
례영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다. 이제까지 입에 붙어온 오빠라는 부름말이 그대로 굳어져 동열이를 다르게 부를수 없었는데 어떻게 되여 그 말이 그렇게도 쉽게 튕겨나왔는지 자기도 놀랐다.
더욱 놀란것은 마동열이였다. 그저 동생처럼 사랑스럽고 소중하게만 생각되여온 례영이 한순간에 자기와 당당히 인격을 같이하는 동반자로, 반려로 비로소 의젓이 나타난것이다.
례영이 입술을 자근자근 깨물며 마동열을 쳐다보다가 보짱처럼 모래불에 박고있는 그의 다리를 두팔로 부여안으며 무릎을 꿇고 앉는다. 동그란 두어깨가 들먹거리기 시작하였다.
마동열은 두다리를 례영에게 잡힌채 수평선으로 번쩍거리는 눈길을 망연히 보낼뿐이였다. 례영의 눈물이 발잔등에 똑—똑 떨어져내리자 마동열은 와락 그를 끌어안아 일으켜세웠다.
《여보, 이러지 마오.》
고개를 든 례영의 얼굴에 물기가 자오록하고 고운 속눈섭에 구슬같은 눈물이 매달려 파들파들 떨었다.
성미가 세찬 젊은이들이 항용 그러하듯 녀인의 반발에는 데설궂게 대응하던 마동열이 례영의 애절한 모습앞에서 그만 그 툭한것이 꺾어지고말았다.
그 곱고 청초한 눈으로 사내의 억세게 생긴 얼굴을 말끄러미 올려다보던 례영이 그의 팔에서 빠져나와 흑 하고 터지는 울음을 감씹으며 집을 향해 달려갔다.

마동열은 우두커니 서서 쌍태머리를 달랑거리는 그의 뒤모습을 바라보다가 급기야 《례영이! 례영이—》 하고 부르며 뒤쫓아갔다.

례영은 집으로 들어가자 안으로 문을 잠그었다. 그리고는 침대우에 엎드려 엉엉 슬프게 울었다.

마동열은 문을 잡아당기다가 방에서 새여나오는 울음소리를 듣자 안절부절 못하며 문을 당장 열라고 소리질렀다. 그러나 방안에서는 여전히 울음소리만이 들려올뿐이였다. 그 소리가 사내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다.

마동열은 어찌할바를 몰라 문앞을 오락가락하다가 례영이 끝내 열어주지 않자 문앞에 쭈그리고앉았다.

《례영이, 이 문 열고 속시원히 말이나 해주오.》

그는 사정하듯이 말했다.

《나 싫다고 한마디 하면 난 뭐 군소리없이 례영일 놓아줄테요. 사실 나야 뭐 볼게 있는 사내야? 아버님처럼 나라의 큰일 말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안지생이나 길철동지들처럼 대학물을 먹지도 못했지. 김명호동지처럼 속깊고 말 잘하는 재주도 없고 그저 주먹센 자랑밖에 없는 사내지.

례영에게 다 말했지만 난 부모님얼굴도 똑똑히 생각나지 않아. 일찌기 웃마을 외가집에 얹혀살다가 고향떠나 두만강을 넘었지. 좀도적질을 하며 정말 가랑잎처럼 만저우광야를 떠다녔어. 주린배 채워보려구 부자집대문을 열다가 사냥개한테 물린적도 열번은 넘어될거야.

그러니 뭐 공부 못한거야 내탓이 아니잖아. 악으로 살아가자니 주먹질밖에 남은게 없었어. 그러던 내가 아버님을 만나 사람구실을 배우기 시작했어. 먹고 살기 위해 휘두르던 내 주먹을 나라와 겨레를 위해 써먹어야 된다고 일깨워주셨지. 그래서 나도 나라걱정을 하게 되고 혁명이라는 거창한 바다에도 뛰여든거야. 그게 십년전이야. 그때로부터 난 한길밖에 몰랐어. 앞으로도 난 그 길밖에 모를거야.

이렇게 살아온 내앞에 례영이가 나타났어. 난 례영일 만날 때부터 누이동생처럼 정이 가고 사랑이 갔지만 사실 내게는 까마귀

에 백로처럼 생각되였어. 정말이야. 평생 곁에 두고 아껴주고싶어도 그쪽에서는 꼬물만치 생각도 안하는것 같아서 그런 말은 입밖에 꺼내놓지 못하겠더란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될줄이야. 난 지금도 꿈속에서 사는것만 같아.

사실말이지 나같이 잘린 무우밑둥같은 사내에게 선녀같은 례영이 당하는가. 그러니 뭐 이제라도 례영이 돌아가겠다면 붙잡지 않겠다는거야. 선생님께는 뭐 적당히 말씀을 드리면 되는거구. 그게 오히려 나라받드는 싸움에서 마음편할지도 모르지. 그러니 울지 말라구. 난 정말 례영의 울음소리 듣느니 죽어버리는것이 나을것 같애. 울지 말아. 응, 례영이!》

그런데 동열이 울지 말라구 사정하였지만 그의 말이 길어질수록 례영의 울음소리는 더 커지기만 하였다.

마동열은 더는 목이 메여오는 슬픔을 걷잡지 못하고 그도 굵다란 눈물을 뚝뚝 떨구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터벅터벅 모래불에 나갔다. 정오의 해볕이 재글재글 끓고있는 바다를 바라보다가 모래불에 네활개를 펴고 벌렁 누워버렸다. 파도처럼 밀려왔다가는 밀려가는 번거로운 생각에 잠기여 시간가는줄을 몰랐다.

한식경이 지나서 례영이 모래불에 나왔다. 건듯 들린 초록빛 하늘을 초점잃은 눈으로 쳐다보고있던 마동열은 사각—사각—모래밟히는 소리가 나자 눈을 감아버렸다.

례영은 그의 머리맡에 잠시 서있다가 《오빠, 점심드세요.》 하고 나직이 불렀다.

그러나 마동열은 눈을 감은채 대척을 하지 않았다. 례영이 짧은 한숨을 내쉬고는 자리에 앉아 그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다.

《오빠, 어서 일어나요. 배고프지 않아요?》

《안먹겠소.》

마동열이 여전히 눈을 감은채 푸접없이 대꾸하였다.

《오빠, 어서 일어나요. 오빠가 이렇게도 제 마음을 몰라줄줄은 몰랐어요. 일어나요. 정말 이러고계시겠어요? 이렇게 남의 속을 태우겠어요?》

례영이 안타까이 그의 어깨를 마구 흔들다가 억지로 앉혀놓았다.

하는수없이 일어나 앉은 마동열은 례영의 다기찬 눈길을 피하다가 그의 머리모양새가 달라진데 눈이 가자 의심쩍어 하였다. 어깨우에서 달랑거리던 쌍태가 없어지고 뒤통수가 불룩 솟아있었던것이다.

《왜 그러세요?》

《그 머리는 그… 그 쌍태머리는 왜?…》

《뭘 놀라세요. 벌써 그렇게 해야 될건데요. 어때요. 쌍태머리보다 보기 좋아요? 이제야 처녀꼴 벗은것 같지요?… 자, 가서 점심이나 하자요.》

례영이 상냥하고도 다심하게 사내의 속을 어루만져주자 마동열은 어쩌는수가 없어 《허 참.》 하고 일어섰다.

례영이가 무겁게 걸음을 옮기는 마동열의 팔을 끼고 살뜰하게 물었다.

《오빠, 그렇게도 제가 미덥지 못해요?》

《허ー》

《말 좀 해봐요. 제가 그렇게도 천하고 속된 계집같아요? 설마 오빠가 그리도 못난 사내라 한들 제가 부모님 맺어준 인연을 보름 못되여 희롱질하는 그런 계집같애요?》

그것은 롱이 아니였다. 여전히 상냥하고 귀엽성스러웠으나 씨가 박힌 꾸짖음이고 모진 비난이였다.

《오빠는 정말 어쩌문 그렇게도 속대가 만만할가? 혹 제가 그런 시시한 계집같으면 어째 한대 쥐박을 생각을 못해요? 그 쇠뭉치같은 주먹은 어데다 쓰냐말이예요.》

《례영이, 난 이런데는 통 둔한 사람이야. 나를 자꾸 머저리로 만들지 말구 속씨원히 진정을 밝혀줘. 난 지금 뗑한게 갈피잡을수 없어.》

《뭘 모를게 있구 진정이구 뭐구 까리까리한게 있어요? 좋아요. 점심상이나 받으시고요.》

《아니, 난 례영의 이야길 듣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먹겠소.》 마동열이 이렇게 선언하고는 《자, 앉았다 갑시다.》 하고 제먼저 모래우에 털썩 주저앉았다.

《내 아까 실없는 소릴 한건 잘못했어. 하지만 내 정말로 례영이를 의심해서 그런건 아니야. 내 밸머리 례영이도 잘 알지 않아. 하도 답답해서 씩둑거려본거지. 하지만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좀 알아야겠어.》

마동열이 정말 말듣기 전에는 아예 굳어져버릴 잡도리를 하자 례영이는 《호—》 하고 짧은 숨을 내쉬며 그옆에 나란히 앉았다.

례영은 며칠새 입속에서 맴돌던 이야기를 정작 꺼내놓자니 가슴부터 떨려왔다.

《오빠, 전 오빠가 서울을 떠나면서 무엇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똑똑히 알게 되였어요.》

《…》

《장군님께서 주신 그 특별임무를 두고 떠나는 오빠의 괴로움을 알아요. 며칠전에 오빤 자면서도 안지생오빠를 찾더군요. 꿈에서도 아버님의 신변걱정을 하며 다시 부탁의 말을 하더군요.》

《그건 옳아. 난 자나깨나 그 생각뿐이요. 우리는 여길 떠나면 서울처럼 조심할것까지는 없소. 그게 난 괴로워. 선생님을 사지판에 두고, 장군님께서 친히 맡겨주신 과업을 남겨놓고 떠나자니 발이 천근만근이야. 생각하면 여기 와서 호강하는것이 막 괴로워. 만약 선생님의 신상에 그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장군님께 무슨 면목이 서고 통일력사에 이 마동열이 무슨 죄를 남기는가. …》

《그렇지만 오빤 떠나야지요. 여기 계셔야 오히려 아버님께는 짐이 될거야요.》

마동열은 그만 크게 한숨을 내쉬며 말없이 고개만 끄덕거리였다.

《이제 저도 이렇게 훌렁 떠나지요. 글쎄 저같은거야 아버님곁에 있은들 무슨 도움이 크게 되겠어요. 그렇지만 오빠, 전 저마저 아버님곁을 떠나는게 너무 죄스러워요.》

《그러니 그때문에?… 글쎄…》

《오빠, 용서하세요. 제가 아버님곁에서 오빠마음을 대신한다면 오빠의 괴로움도 덜지 않을가요?》

《그건?… 그건 안돼. …》

마동열이 눈을 번쩍거리며 소리지르다가 맥이 진한듯 풀어진 어조로 중얼거리였다.

《날 막 벼랑턱으로 몰아가는구만. …》

《여보, 절 용서해요. … 절 용서해요. 우리는 앞길이 멀지 않나요. 량심에 후회를 남기지 말자요.》

《여보!》

마동열은 그만 목이 꺽 메고말았다.

《당신도 말씀하셨지요. 통일이 이태전에는 될거라구. 그러니 이태동안 기다려주세요. 전 일생에 한을 남길가봐… 난 참 어쩌면 좋을가. 이러기도 힘들구 저러기두 힘들구… 당신이야 어차피 떠나야 할 몸이니 어찌할 도리가 없지요. 하지만… 당신이 말씀해줘요. 전 어쩌면 좋아요? 저만이라도 남게 해줘요. 통일…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만…》

《여보!》

례영이는 북받치는 격정을 주체할수 없어 쓰러지듯 마동열의 품에 안겼다. 태질하는 례영을 끌어안은 마동열이 비칠거리였다. 그는 무슨 말을 하려다가 삼켜버리고 례영의 틀어올린 머리우에 고개를 묻으며 눈물어린 볼을 비비였다.

그들은 모래불우에 한덩어리로 엉켜서 한동안 형언할수 없는 쓰라린 심정으로 피가 뚝뚝 뛰는 심장과 심장을 끌어안고있었다.

최원기가 나타난것은 바로 이때였다.

자그마한 모타선을 타고 섬에 온 최원기는 소대부에 들렸다가 인차 이곳으로 왔다. 그는 방안에 먹지 않은 밥상이 차려있는것을 보자 그들을 찾아 바다로 나왔다.

《어이, 마중위. 게서 뭘 하는가?》

젊은이들은 최원기의 출현에 화닥닥 놀라 두쪽으로 갈라졌다.

그들은 재빨리 매무새를 수습하고 그를 마주향해 걸어갔다.

《오늘 다섯시엔 출발이야. 시모노세끼로 가는 정기려객선으로 떠나니 걸려들건 없을것 같애. 출국수속은 다 해놓았으니 이걸 건사하라구.》

최원기는 마동열에게 증명서와 문건과 배표가 들어있는 봉투를 내밀었다.

《거기에 다 있네. 일본지페도 좀 넣었으니 보태쓰라구.》

마동열은 고개를 끄덕일뿐 흥심없이 봉투를 받아들고 바지주머니에 찔러넣었다.

《점심전이더군. 마침 잘되였네. 우리 마누라가 뭐 제가 한상 차리겠다더군. 내 자네들 춘부장과는 꼭 다섯살 우이니 큰아버지벌이 되거던. 그러니 큰집에서 차린 반살기로 받으라는 거야.》

최원기는 젊은이들의 거동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였으나 대범하게 스쳐보내며 껄껄 웃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례영이가 허리를 굽혔다.

《자, 얼른 들어가 차비를 하게. 난 예서 바다바람이나 쐬일라네.》

《가만. 최선생님, 거 권총을 좀 빌려주십시오.》

《권총?… 갑자기 그건 왜? 이제 뭍으로 나가야겠는데.》

《저 사람에게 좀 가르쳐줄랍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에 가시면 저 사람이 건사할만한 작은걸로 한정 마련해주십시오.》

《무슨 소릴 하는거야? 앞뒤쪽 세관에서 남자녀자 갈라놓고 샅샅이 뒤지는 판인데 그걸 갖구 어떻게 여러 나라 지경을 벗어난단 말이야.》

《그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럴 일이라니?… 정말 무슨 일이 생긴것이 틀림없구만. 왜 둘다 우거지상인가. 올 때와는 달리 썩 기분이 좋아보이지 않아. 어찌된 일인가? 다투었나?》

최원기가 정색을 하고 년장자답게 따져물었다.

《다투긴요.》

《그럼 어찌된 일인가? 말해보게.》

《저 사람이 서울에 도로 가겠다고 합니다.》

《서울에? 그건 왜. 마중위가 떠날 때 함께 가는게 좋지. 출국수속

도 돼있는데 뿔뿔이 갈게 있나. 그럼 마중위도 동의했다는건가?》

《예.》

《리유는 뭔가? 이건 무슨 뚱딴지같은짓이야.》

《아버님곁을 누구 한사람 지켜드리자는겁니다.》

《원, 무슨 소린지… 쯔쯔쯔… 아, 정선생님곁에 사람들이 없다던가. 례영이, 다시 생각해보는게 어떤가. 선생님이 자네들 처신을 좋다고 할가. 동열의 생각도 해줘야지. 난 허락못해.》

《최선생님, 이건 저희들의 마음을 합쳐 어렵게 내린 결심입니다. 저 사람의 뜻이 옳습니다. 서로 기다리느라면 통일문제도 끝을 볼게구 그러면 인차 만나게 되겠지요. 최선생님은 제가 장군님으로부터 어떤 특별임무를 받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례영이 남아주면 그래도 가볍게 떠날것 같습니다.》

《음… 알지… 알구말구… 그런데…》

최원기도 목이 화끈해와서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례영이와 마동열의 손을 하나씩 끌어다가 두손으로 감싸쥐였다.

《아,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가?… 음… 어떻게 하든지 갈라지지 말아야겠는데…》

최원기는 권총을 가죽주머니채로 풀어주었다. 그는 두 젊은이를 번갈아보다가 그들의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고는 말없이 정각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정각의 나무기둥에 기대고서서 바다를 초점을 잃은듯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자기도모르게 두볼에 뜨거운 눈물이 얼찐거렸다.

(정도 품앗이라는 말도 있거늘 정선생이 저 젊은이들을 어떻게 키워냈으면 이리도 사람의 마음을 울리게 하는거냐. 자식이라한들 저렇게 처신을 할소냐.

아, 하지만 젊은이들에게 우리 세대는 너무도 큰 죄를 짓는게 아닐가.

참말로 통일이란 이리도 애간장을 녹이고 비싼 대가를 치러야 오려나. 저런 생리별이 이제 부지기수로 생겨나겠으니 장차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인가. …)

생각할수록 최원기는 가슴이 터지고 절통한 생각으로 흐르는 눈물을 걷잡을수 없었다.

잠시후 바다가에서는 야무진 총소리가 나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임무를 스스로 말아안은 례영이 난생처음 울리는 총성이였다.

총소리가 날 때마다 최원기도 몸을 흠칫거리였다. 그는 제발 례영이가 서울에 가서 저런 총소리를 내지 않기를 뜨거운 마음으로 빌었다.

최원기는 이날 일정을 바꾸어 섬에서 젊은이들과 함께 지내려고 하였다.

그는 젊은 부부와 함께 점심을 나누고는 낚시대를 들고 바위밑으로 내려갔다.

해가 뉘엿뉘엿해서야 최원기가 세마리의 도미를 꿰들고 올라왔다. 그는 방에 들어서다가 꿍져놓은 그들의 행장을 힐끔 보더니 탄식조로 말했다.

《내 나살이나 건사한게 자네들 풍에 놀았다가 선생님께 경치지 않겠는지 모르겠다.… 에, 나도 모르겠다. 자네들 뜻은 장한데 인륜에 어디 그렇게 돼있는가. 아— 모진 사람들이야. 모질거든.》

《선생님, 어서 떠납시다. 시간이 늦었습니다.》

《내 딴생각이 있어 늦잡은걸세. 자네들은 여기 며칠 더 묵게. 내 갔다가 열흘후에 배를 보내겠네.》

최원기는 이제 기약이 없는 리별을 하게 될 신혼부부가 다문 며칠이라도 정을 더 나누게 하고싶어 이렇게 결심을 바꾸었다. 이렇게라도 그들을 위해주고싶었던것이다.

《아, 그건 안됩니다. 출국을 열흘 미루려면 다시 수속도 하고 배표도 구해야 되겠는데 이제 떠나겠습니다. 지금이 어느때라고 어정거리고있겠습니까. 한주일 무사태평하게 지낸것만 해도 분수에 넘는걸요.》

《너무 그러지 말게. 마중위가 열흘 휴직을 한다고 하늘이 무너지겠는가. 십년세월을 분주하게 뛰여다니다가 이제 또 기막힌 부부생리별을 하게 될 자네들에게 열흘이 아니라 한해를 고이 호강을 시

킨들 누가 나무랄텐가.

이 일은 내 뜻을 따르라구… 그런데 이 사람 마중위, 례영이를 울리지 말고 재미나게 지내라구.》

최원기는 젊은 부부를 위해줄 일이 이것밖에 없는것이 유감스러워 고개를 가로젓다가 그들을 와락 끌어안고 목메여부르짖었다.

《통일을 해야지. 암 해야 하구말구. 이거 참, 세상에 이런 기가 찬 일이 어데 있단 말인가.》

3

정시명은 리순애를 송호정에게 보내여 참모부의 타자수로 취직시키였다. 례절바르고 용모가 깨끗한 처녀는 인차 참모부안의 장교들의 관심을 끌었다. 장교들은 처녀의 깨끗하고 얌전한 품성과 부지런한 일솜씨에 현혹되여 저마다 그와 사귀여보려고 접근하고 넘겨보았다. 특히 그가 소속된 타자실에서 함께 타자를 치는 장덕수중위는 첫날에 벌써 그에게 완전히 넋을 잃고말았다.

장덕수는 다른 처녀타자수들이 시샘을 하는것도 아랑곳없이 리순애에게 각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그와 가까이 해보려고 애를 썼다.

그는 처녀의 인격에 어울리게 몸치장도 언행도 품위있게 해보이느라고 하였는데 그게 오히려 처녀들의 조소거리가 되였다.

타자실에서는 극비에 속하는 작전계획이나 작전명령들을 장덕수가 타자하고 처녀들은 일반문건들을 맡아서 처리하였다. 그러나 리순애에게 홀딱 반해버린 장덕수는 때때로 극비문건타자를 리순애에게 맡기고 자기가 미군정의 높은 신임을 받고있다는것과 자신이 리순애를 믿는다는것을 은근히 암시하면서 유혹하려고 하였다. 그는 자기가 타자실에 들어올 때 미군정의 통위부장까지 직접 만나보았다고 자랑하였다.

처녀는 극비에 속하는 작전계획과 작전명령들의 사본을 제때에 김아성에게 넘겨주군 하였다. 그가 넘겨주는 모든 자료들은 정시명에게 고스란히 보고되였는데 그 가치가 상당하였다.

순애는 김아성을 만날 때마다 호소했다.

《난 어쩐지 불안해요. 장교놈들이 자꾸 곁눈질하는게 막 징그러워 죽겠어요.》

그러면 처녀앞에서 이죽거리기 좋아하는 김아성은 《어찌겠소, 인물값인걸.》 하고 씨물거리였다.

그러나 생각은 깊어 정시명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면서 은근히 다른 자리에 옮겨주었으면 하는 의향을 비치였다.

정시명은 리순애가 개인감정으로 장덕수와의 관계를 끊어버릴가봐 여러번 간곡하게 일깨워주었다.

투쟁속에서 점차 자기의 위치와 존재가치를 깨달은 리순애는 계속 장덕수의 추파를 받아주면서 호의적으로 대하였다.

김아성은 리순애와 장덕수의 관계를 《사랑놀이》라고 불렀다.

처녀가 던진 낚시에 단단히 걸려든 장덕수는 자기가 반드시 타자해야 할 중요문건들을 사랑의 표시로 그에게 계속 맡기였다. 그는 문건을 넘길 때마다 늘 이렇게 다짐을 두었다.

《이건 정말 극비야. 이 봉투에 찍힌 시뻘건 도장이 몇개인가. 어데 가서 절대로 말해서는 안돼. 순애만 알고있어.》

《알아요, 중위님.》

처녀는 속눈섭을 내리깔며 장덕수가 강조하는것이 민망스러운듯 새침해서 대답했다.

그러면 장덕수는 더욱 몸이 달아 처녀의 옆에서 맴돌다가 헤식은 웃음을 남기고 입을 삐죽거리는 뭇처녀들의 눈총을 받으며 사라지군 하였다.

어느날 장덕수는 《국방경비대》 려단장 백인엽이 작성한 작전계획사본을 리순애에게 넘겨주었다.

그리고 다른 타자수들이 들을가봐 처녀의 귀가에 입을 가까이 하고 《순애씨, 이건 하지밖에 모르는 비밀이요. 사실 참모장은 나외에는 누구도 알아서는 안된다고 했소.》 하고 나직이 주

의를 주었다.

《그런데 저에게 주면 되나요?》

《아, 순애씨야 례외지. 좀 수고해주. 잠간 볼 일이 있어서…》

《좋아요. 장교님, 인차 타자해놓을테니 빨리 와서 타자검토나 해요.》

리순애는 믿음이 고맙다는듯 외씨같이 희고 잔조롬한 이를 드러내보이며 야릇한 미소를 던지였다.

그 매력적인 미소에 장덕수는 뼈가 사르르 녹아드는듯싶었으나 감히 건드릴 생각은 못했다. 약간만 농도질은 낌새를 보이면 언제 알았던가싶게 새파래가지고 쏘아붙이는데 그 도고한 자세가 꼭 장미꽃가시같았다.

작전계획사본은 곧 김아성을 통하여 안지생에게 전달되였다. 하지가 직접 《봉화작전》이라고 명명한 옹진일대에 대한 대규모적인 방화작전은 이렇게 그 시작부터 패배의 운명을 면치 못하였다.

투쟁의 비바람속에서 온실의 연연하던 꽃망울은 들장미처럼 향기롭게, 억세게 피여났다.

정시명은 이 한쌍의 젊은이들을 만날 때마다 자기 사업에 대한 긍지를 새삼스럽게 자각하군 하였다.

다른것은 다 제쳐놓고 단지 인생의 막바지에서 절망과 고독속에 몸부림치던 김아성이나 리순애가 자기 삶에 대한 보람을 깨닫고 청춘과 사랑을 조국에 바쳐 빛내여가고있는 이 한가지만 놓고서도 자기가 사람들에게 유익한 존재로 된듯싶었다.

이 땅에는 삶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거나 스스로 저버리고 미래도 희망도 없이 목숨을 이어가는 사람들, 실존주의가 떠드는것처럼 죽음에로의 도상에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들의 가슴에도 인간의 존엄과 생의 보람과 희열을 심어주고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유익한 인간으로 되게 하며 세상에 태여나면서 너나없이 골고루 받아안은 행복에 대한 권리를 마음껏 누리게 하는것이 우리 혁명가들의 지향이고 의무가 아닌가. …

리순애의 《사랑놀이》는 계속되였다.

4

서울교외에 있는 궁술장에는 늘 구경군들이 많다.

궁술이란 일종의 전통무예여서 나이지긋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그중에는 민족의 전통에 대한 숭상이 몸에 배여있는 《림정》계의 로장들도 있고 서울경내의 고풍의 유지들이 있는가 하면 위엄을 중히 여기는 정가의 명사들도 있다.

돈벌이구멍을 만들줄 아는 장사군들이 궁술장주변에 빈자리없이 술집도 차려놓고 음식점도 내오고 장기판까지 여기저기 벌려놓았다.

근래에 와서는 일요일이나 명절날을 여기서 보내는 사람들이 퍽 줄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궁술장은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곳이였다.

정시명은 오래전부터 여기를 자기의 사업무대로 리용하려고 궁리해왔으나 덧쌓이기만 하는 일거리에 묻혀 좀체로 시간을 내지 못하였다. 그가 이곳에 눈길을 보내게 된것은 서울안에서는 대체로 정견에 따라 패가 이루어지지만 여기는 말그대로 초당파적인 서울유지들의 구락부로 되여있다는데 있었다.

각계각층이 모여드는 이 장소는 여러가지 소식들이 모여들고 교환되는 복덕방이기도 하였다.

이즈음에 와서 정시명은 정계의 각이한 인물들에게로 지면을 넓혀야 되겠다고 생각하였다. 입수되는 자료를 들추어보니 시야가 넓어지는것은 좋았지만 표상이 생동하지 못하고 현실감각은 무디여지는 느낌이 들었다. 남조선전역에 거미줄처럼 늘여놓은 조직들의 편성을 전일적으로 관찰해보면 약한 고리가 리승만의 세력권이였다.

원래 리승만의 세력권에서 중추는 그놈과 함께 미국의 빵껍데기를 씹으며 살아온자들로 구성되여있는데다가 남조선에서 형성된 추

종세력이 8.15직후부터 극우익반동들이므로 조직성원들이 그속에 발붙이기를 싫어하고 또 그것이 힘들기도 하였다.

고집이 세면서도 겁이 많은 리승만은 미군정이 알선해주는 인물들이나 제놈과 여러해 미국에서 지내온 놈들을 내놓고는 좀체로 측근에 두려 하지 않았다. 리승만의 비서진에 신정섭이만이 들어가는데 성공하였는데 그는 정치적후각이 예민하지 못하고 리승만의 상대역으로는 될수 없는 사람이였다.

정시명은 리승만의 주변인물들을 궁술장에서 자신이 직접 찾아내기로 결심하였다.

이날 정시명은 안지생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부유한 실업가차림으로 궁술장에 나타났다.

이날의 사업목표를 이미 설명받은 안지생은 궁술장의 여러 인물들을 살펴보다가 코수염을 기른 쉰살안팎의 기골이 후리후리한 장년을 가리켰다.

《조봉암이라고 합니다. 아직 영향력은 크지 않지만 리승만이 국내에 들어와서 제일 믿음성이 있는 유망인물이라 평가한 사람입니다. 리승만은 자기 비서들에게 〈이남땅에서 인물은 조봉암이야.〉 하고 말했답니다.》

《그러니 리승만의 측근인가?》

《아니 아직은 그런것 같지 않습니다. 리승만은 앞으로 선거유세를 한다면 저 사람을 자기의 선거위원회에 동원시키려고 명함장까지 보냈다는데 조봉암은 자기는 누구를 내세울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회답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도 내연관계는 있다고 합니다.》

《조봉암이라…》

듣던 이름이다. 안지생의 말까지 듣고나니 호기심이 부쩍 동해진다.

《그뿐인가?》

《예, 그 사람이 공산주의운동에서 전향하였다는것이야 세인이 다 아는바이고…》

《음…》

새까만 코수염을 짧게 기르고 목에 나비넥타이를 맨 품이 흡사 옛날 독립운동자들을 방불케 했다.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선이 굵은것이 어덴가 려운형의 모상과 비슷하다.

조봉암은 마침 궁술터에 들어서려고 안내를 하는 사람에게 표쪽지를 건네주고있었다.

정시명은 주변을 한바퀴 돌아보고나서 안지생에게 표를 사오라 이르고는 개화장을 점잖게 내두르며 궁술장으로 다가갔다. 그는 조봉암이 서투르게 활시위를 당기는것을 보다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아아, 좀더 팽팽하게 당기시오. 오른쪽어깨가 너무 뒤로 기울어졌습니다. … 좋습니다. 그렇지요. … 이젠 당기시오. 천천히…》

조봉암은 정시명의 조언을 공손히 따르며 살 한대 날리고는 난데없이 나타난 푸접좋고 의협심이 있어보이는 사람을 돌아보며 빙긋 웃었다. 정시명이 중절모를 벗어들고 인사를 보냈다.

조봉암은 다시 과녁을 향해 살을 날리였다. 이번에도 정시명이 몸자세와 숨조절을 바로 하게 하면서 《날렷!》 하고 구령까지 내리는데 조봉암이 고분고분 따랐다. 하지만 살은 두번 다 과녁원판밖에 나가 박히였다.

조봉암은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다가 돌아섰다.

그들은 마주보며 웃었다.

정시명의 차례였다. 그는 앞으로 나가다가 조봉암과 어기게 되자 《내 실언을 했나봅니다.》 하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조봉암도 깍듯이 고개를 숙여 답례를 표하고는 《로형께서 념려를 해주시였는데 그놈의 활이 게정을 부렸나봅니다.》 하고 소탈한 어조로 인사를 받으며 웃는다.

정시명은 명궁이였다. 시안시절에 중국의 이름난 궁술가들과 무술가들을 투쟁에 인입하기 위하여 배워둔 재간이였다. 정시명이 명중할 때마다 구경군들속에서는 환성이 터져올랐다. 더구나 조봉암은 자기가 살을 명중한것처럼 좋아하였다. 그는 《그 참 잘한다!》 하고 탄성을 올리다가 표를 한장 사들고와

서 나오지 말고 더 살을 날리라고 청하였다. 정시명이 그것마저 다 명중시키고 나오자 조봉암은 제 일처럼 좋아하며 그를 선술집으로 이끌었다.

《참 활다루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십니다. 내 마음이 다 후련해집니다.》

조봉암은 사뭇 통쾌해서 큰 목소리로 떠들었다.

《비결이 어데 있습니까? 나는 벌써 여기에 다섯번째로 왔는데 생각과는 다르거든요.》

《뭐 비결이라는게 다른게 있겠습니까. 첫째도 둘째도 활을 쏠때 온갖 잡념을 다 잊어버리는것이 중요합니다. 당겼던 활시위를 놓는다고 생각했다면 그 살은 벌써 물목에 가고맙니다. 그리고 오른팔과 왼팔의 균형을 보장하고 어깨의 힘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맥을 놓아 당기는 순간 뒤로 제쳐서도 안되고 너무 긴장하여 앞으로 밀어서도 안되지요. 궁을 자세히 보면 그게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게 만들어져있습니다. 안과 겉은 참대로 탄력이 보장되도록 되여있고 그 중간에 속대로 넣은 박달은 탄성을 제지하도록 되여있는데…》

정시명이 궁술을 지혜롭게 엮어내리자 세상인물들을 굽어보는 타성을 가지고 살아오는 조봉암이 자기도모르게 선망의 눈으로 정시명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부드러워보이면서도 예지와 지성이 빛을 뿌리는 상대의 눈매며 실꾸레미처럼 실실이 이야기가 풀려나오는 입술이 조봉암을 매혹시키였다.

《아참, 로형은 어디 계십니까? 로형같은분을 내 어째서 모르고 지냈을가…》

《선생이 나같은 한갖 장사군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장사군이라니요?》

조봉암은 다소 실망이 가는듯 반문하였다.

《나는 마카오에서 양복지를 가져다가 팔아먹고사는 무역쟁이입니다. 흥국상회의 사장노릇합니다.》

《그러니 정사에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글쎄 내 분수에 어울리지 않으니까요. 하긴 좀 무례한 말씀이

긴 하지만 우리 장사군들이 정사를 바라보는 눈도 정객들이 장사군을 보는 눈과 류사한데가 있답니다.》

《어떻게요?》

《우린 정치라면 남을 속여넘기고 속히우기도 하면서 일신의 권세와 부귀를 꾀하는 일종의 투전판으로 알고있습지요.》

《음… 따는 로형께서 하신 말씀이 지당한데가 있습니다. 자, 술잔을 냅시다.》

《정치일선에 몸을 두고계신 선생이시니 내 무엄한 말을 널리 량해해주시오.》

정시명은 진지하게 그의 말구멍을 열어놓았다.

정시명의 생각대로 조봉암은 술잔을 쭉 비우더니 기염을 토하기 시작하였다.

《아니아니, 옳습니다. 로형의 말씀이 옳습니다. 투전판이라… 허허허. 내 일찌기 공산주의운동에 나섰다가 박헌영이 파쟁놀음을 해방후에까지 벌려놓는데 신물이 나서 맑스도 레닌도 줴버린 놈입니다. 지금은 여러 지기들이 하두 보채서 리승만의 보수파에 몸을 담고있지만 실은 로씨야동방공산대학까지 다닌 레닌정통파입니다. 공산대학졸업생이 반공일선에 서있다! 허허허… 이거야말로 정치희비극이지요. 참 사람의 운명이란 천태만상이라니까요.》

조봉암은 대바람에 정시명을 푹 믿고 속을 털어놓았다. 옆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술을 마시다가 그에게 눈길을 돌리기도 했으나 조봉암은 그런 눈치에 할 말못하는 졸장부가 아니라는듯 계속 떠들었다.

정시명은 조봉암의 대범한 행동거지와 호방한 성미에 접하자 그가 앞으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될수 있다고 짐작되였다. 그리하여 그와의 친교를 더 깊이 하기 위하여 승용차에 태워가지고 모나리자다방으로 갔다.

그들은 따끈한 차를 들며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우리 실업가들도 정치의 보호속에 어차피 들어있는 사람이니 세상돌아가는데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냄새맡기를 좋아한답니다.

요즈음에는 리승만의 〈단선단정〉소리가 김이 빠진것 같습니다.》
정시명이 이렇게 넌지시 리승만의 정치전망에로 화제를 비틀어갔다.
사실 리승만은 최근에 와서 《단독선거》소리를 하지 않고있었다. 하지도 립장표명이 없었으며 김성수의 《한민당》도 조용하였다.
김증원이 알려온데 의하면 미군정청측으로부터 《한민당》에 《단선단정》주장을 당분간 보류하라는 강한 지령이 왔다 한다.
문봉제의 《서북청년회》깡패들만 여전히 피대를 돋구어 남조선에서의 단독정부선거를 고아대는데 망둥이들의 수작이라 새겨듣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정시명은 별스럽게 조용해진 보수진영이 심상치 않았다.
《그 령감이 입을 다문데는 다 쪼간이 있지요. 이제 사흘후 아니, 정확히는 이틀후… 다 알게 될겝니다.》
조봉암은 의미심장한 어조로 슬쩍 내비치고는 정시명의 눈치를 살폈다.
《알고싶습니까?》
《물론이지요. 나도 이 나라의 백성이니까요.》
《로형과는 참 맥이 통할것 같습니다. 지금 하지와 리승만은 단독선거를 하는가마는가가 아니라 어느 놈을 대통령으로 내세우고 누구를 국무총리로 내세우겠는가를 놓고 쑥덕공론을 펴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허허허… 그게 정치지요. 래일모레, 그 다음날 아침이면 다 알게 될겝니다. 내앞에서 하지가 리승만에게 묻기를 당신을 대통령으로 앉히면 누구를 국무총리로 내세우겠는가 합디다. 리승만의 대답인즉 첫째로는 리윤영이… 거 북에서 쫓긴 시라소니가 있지요.
촉망이 높은분이라지만 기가 막힌 궤변이지요. 두번째로는 리범석이를 꼽습디다. 사람잡이에 이골이 난 녀석이지요. 두놈 다 리

승만을 업고 제 속주머니를 채울 궁리를 하는 놈들이지요. 정치가 투전판이라… 참 사장님의 말씀 만냥입니다.》

《나는 조봉암선생도 리승만의 대단한 신임을 받고있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정시명은 조봉암의 자존심을 조심스럽게 흔들어보았다.

그러나 조봉암은 탓하는 기색이 없이 오히려 천연스럽게 벙긋 웃더니 흔연히 말을 받았다.

《글쎄, 그 말도 과히 틀리지는 않아요. 김구가 엇서기만 하지, 김규식이 앵돌아졌지, 안재홍, 홍명희… 유명인물들이 다 리승만을 윈눈으로도 안보니 이 이름없던 조봉암이도 졸지에 거인이 돼서 리승만의 눈에 든 모양입니다. 리승만에게는 내 머리가 아니라 이름이 필요한겁니다. 공산주의배신자 조봉암이 말입니다. 그러니 내 또한 민족주의자 리승만을 싫다고 돌아설수 없지요. 리승만은 내 이름을 팔아 제 몸값을 올리고 나는 리승만의 힘을 빌어 나를 쫓아낸 박헌영의 따귀를 후려치고… 정치란 그저 그런거랍니다.

정치가 투전이라… 그 말씀 참 마음에 듭니다. 허허…》

조봉암이 여전히 너털웃음을 터쳐놓지만 정시명은 따라웃을 여유가 없었다.

《대체 이틀후에는 뭐가 있다는겁니까?》

《하, 내가 말을 안했던가요? 단독선거일정발표지요.》

《단독선거일정발표라니요?》

정시명은 금시 가슴이 서늘해져 나직한 어조로 부르짖듯 반문하였다.

《선거는 뭐 5월 중순에 한다나요. 미국사람들이 엉큼하지요. 오늘아침 미군정의 보도를 들었습니까? 전국적인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는 수작을 말입니다.》

《예, 분명 그들은 전국적인 선거라 했는데…》

《허허… 그러니 엉큼하다는겁니다.》

조봉암은 엉큼하다는 말을 련발하면서 8월경에 《정부》를 조작할것이라는 리승만과 하지의 밀담내용을 자기도모르게 내놓았다.

그는 만취되여 정시명과 헤여지면서 앞으로 자기를 궁술의 제자로, 술친구로 사귀여달라고 부탁하였다.

× ×

그를 문밖까지 나가 바래워주고난 정시명은 한동안 구름장이 우중충하게 떠있는 서쪽하늘가에 눈길을 박은채 넋잃은 사람처럼 서있었다.

드디여 분렬고착이라는 민족적대비운이 육박해오고있는것이다.

아, 끝내 내 나라는 둘로 갈라져야 하는가.

불현듯 그의 눈앞에는 오매에도 잊을수 없는 숭엄한 영상이 우렷이 떠올랐다. 조국의 지도앞에 서시여 이 땅에 다가드는 민족의 대재난을 예고하시며 비분을 금치 못해하시던 민족의 위대한 태양 **김일성**장군님!

장군님의 가슴속에 맺힌 심려를 가셔드리지 못하고 조국이 둘로 갈라지는 과정을 망연히 바라만 보고 속수무책인 자신이 너무 죄스러웠다.

귀전에서 통탄의 절규가 우뢰처럼 울렸다.

(아, 나야말로 력사앞에, 민족앞에 죄인이구나. 천추만대에 씻지 못할 분렬의 비극을 막아내지 못한 죄인이 되였구나.)

안지생이 등뒤에 조심스럽게 나타나 여느때없이 흥분된 정시명의 옆모습을 살피였다.

《어떻습니까?》

안지생이 이렇게 물어서야 정시명은 자신을 되찾았다.

《괜찮구만.》

정시명은 가슴속에서 타번지는 불을, 절통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이렇게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조봉암과의 관계는 오늘과 같이 사귀는 정도로 유지하는것이 필요하였다. 공산주의에 대한 쓰디쓴 환멸을 가지고 살아온 그가 쉬이 돌아설리는 만무하다. 반공은 그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체내에 굳어지고 앙심으로 옹쳐있는듯싶었다. 이런 사람들의 마음 한

구석에 남아있는 량심과 지조를 진리의 길, 애국의 길에 되돌려세우려면 그들에게 또다시 심각한 인생의 굴절이 있어야 하며 세월이 흘러야 한다. 언젠가는 그도 그렇게 될수 있는 사람인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은 이르다. 설익은 과일은 익기를 기다리다가 따야 한다. 그러니 그의 말대로 술친구로 사귀여두자. 그가 암시한것처럼 앞으로 조작될 《정부》에 림하게 되면 리승만의 측근에 좋은 소식통을 묻어둘수 있고 효과적인 지원도 받을수 있다.

하지만 위협성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할것이다. 정시명은 새삼스럽게 박헌영의 소행에 대한 반발과 회의심을 금할수 없었다. 어쩐지 원쑤가 될수 없는 인물을 놈들에게 빼앗긴것 같아 분한 생각까지 들었다. 그는 아직도 공산주의사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있으며 공산주의대렬에서 뛰쳐나온 자신에 대하여 무엇인가 가책을 느끼고있다. 무엇때문에 이런 사람을 적의 진영으로 밀어버리는가. 무엇때문에 대가 바르거나 제 목소리로 자기 주장을 펼줄 아는 사람을 배척하지 못해 몸살을 앓는가.

정시명은 과거 남로당에서 싸우다가 박헌영에게 반기를 들고나온 량심적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물음에 맞다들군 하였다.

정시명은 이날밤 잠자리에 들어서도 쉽게 잠들수 없었다. 조봉암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이 그냥 귀전에서 맴돌면서 가슴을 설설 끓게 하였다.

《정부》가 선다는것은 이제는 기정사실로 굳어진것 같다. 이쪽에 《정부》가 서면 38°선은 국경으로 되고만다. 38°선이 국경이 되다니 그럴수 있느냐.

정시명은 자정무렵까지 잠자리에서 밀려드는 생각에 궁싯거리다가 끝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안해는 여전히 자고있다. 행복과 안식이 고요히 어려있는 모습이다.

이밤에 사람들은 다 저렇게 단잠에 들어있다. 자기의 운명에 불길한 먹구름이 밀려오고있다는것을 그 누가 상상이나 하겠는가. 민족의 대재난이 문앞에서 어슬렁거리고있다는것을 꿈결에서나마 의식한 사람이 몇이나 될것인가.

정시명은 나직이 한숨을 쉬며 웃방에 올라가 사이문을 꼭 닫았다.
담배를 피워물고 창문앞에 올방자를 틀고앉아 어둠이 깔린 밖을 내다보았다.
참을수 없는 비분이 가슴을 꺽 메운다.
《단선단정》이 강행되면 국토는 갈라진다.
백두에서 련련히 이어내린 지맥이 두토막으로 동강난다. 논밭이 갈라지고 부모형제가 갈라지고 마을이 갈라진다.
이 참극을 눈뜨고 보고만 있다니…
벌써 밖이 희붐해온다. 동이 트는가부다.
하염없는 생각에 잠겨있던 정시명은 별안간 주먹을 높이 쳐들었다.
《하지, 이놈! 네놈들이 끝내 이 땅을 란도질하는구나!》
당장 칼을 들고 내달리고싶다. 그 강도배들의 소굴에 뛰여들어 속시원히 결투라도 치르고싶다.
《네놈들이 종시 이렇게 하자고 기여들었지.》
정시명이 통탄에 이를 가는데 문밖에서 《딸랑딸랑》 방울종이 울린다. 정시명은 바깥동정에 귀를 기울였다. 새벽에 찾아올 사람이 없었다.
중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조용히 주고받는 소리와 함께 발자국소리가 가까와왔다.
문기척소리.
《동서, 나 좀 보자요.》
길봉례의 소리다.
이밤에 웬일인가? 민순임이 조용히 일어나 문을 연다. 이어 나직하면서도 부르짖음에 가까운 민순임의 말이 들려왔다.
《례영아, 네가 웬일이냐?! 동열이는 어데 두고 너만 왔느냐?》
례영이라니?!… 저건 무슨 소리냐. 례영이 다시 나타나다니…
뭐라고 아래방에서 저희들끼리 나직이 주고받는 소리가 났다.

방문이 열린다. 민순임이 나직이 불렀다.
《여보세요, 주무세요? 례영이가 왔어요.》
정시명은 불을 켰다.
문이 열리더니 《아버님!》 하고 례영이 달려와 팔을 부여잡는다.
정시명은 이른새벽에 뛰여든 례영이가 이상스러워 앉은자리에서 그를 올려다보았다. 첫눈에 보매 머리형태가 달라졌다. 뒤머리에서 달랑거리던 쌍태머리가 없어지고 요새 서울 젊은 부인들속에서 류행되는 트레머리로 바뀌였다. 민순임이 부산까지 갔다와서 시간이 없어 그애 머리를 얹어주지 못했노라 눈물속에 걱정이더니 제손으로 한 모양이다.
《어찌된 일이냐?》
정시명이 아직도 밤을 새운 그 흥분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나직이 물었다.
례영은 해죽이 웃기만 하는데 민순임이 큰소리로 떠들었다.
《이것아, 너희들 제정신 가지고 한짓들이냐. 먼길떠난 나그네를 홀로 보내고 저만 달랑 문턱을 넘어서면 어쩐다더냐.》
《어머니.》
례영이 곱게 눈을 흘긴다.
《거 무슨 괴이한 소리냐. 동열이는 어디 있구?》
정시명이 그제서야 그 무엇인가 속이 철렁해지면서 엄하게 물었다.
《그 사람을 혼자 떠나보냈답니다.》
정시명이 따져묻자 민순임이 옷고름을 눈에 가져가며 대신 대답했다.
《저것들이 글쎄 통일이 될 때까지는 아버지의 곁에서 시중들어야 한다구 저렇게 작정했다지 않아요. 아버지곁에… 이것아, 너밖에 없다더냐. 그래도 그 머리는 어디서 얹었느냐?》
《어머님, 걱정마세요. 통일이 되는 날까지 전 아버님곁에 있어야 돼요. 우리모두 그날엔 평산에 모이자고 했어요.》
《뭐라구?!… 네가 지금 뭐라고 했지?… 통일! 통일이 될 때까지?… 아하, 이 일을 장차 어떻게 하나. 으음…》

잦아내렸던 흥분이 다시금 온몸에 뻗쳐올랐다. 정시명의 입새로 신음소리가 새여나왔다. 울부짖음으로 터져올랐다.

(네가 어이 하필이면 이런 때 서울에 다시 온단 말이냐. 이 서울땅이 지금 무서운 재난을 안고 숨을 헐떡거리는줄 네 상상이나 하느냐. 분렬이다, 분렬이야. 나라가 갈라진단 말이야. … 에익, 자식두! …)

정시명은 가슴이 뻐개지는것 같다. 그 무슨 갈퀴같은것이 가슴팍을 뻑뻑 긁어내는듯싶다. 떠오르는 생각마다 한숨과 괴로움이 서리서리 엉켜 머리를 휘젓는다.

《떠나라! 떠나라! 떠나라!》

정시명은 이 말만 나직이 곱씹으며 팔을 들어 흔들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네, 아버지?》

례영이가 정시명의 앞에 무릎을 꿇고앉는다. 허우적거리는 정시명의 두팔을 잡았다.

민순임이 놀라서 그에게로 뛰여왔다. 그리고 그의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하였다.

《얘야, 너도 앉아있지만 말구 손발을 주물러드려라.》

민순임은 급해맞아 소리쳤다. 요 며칠째 계속 밤샘을 하더니 남편의 뭐가 잘못된것 같아 더럭 겁이 앞섰다. 꼭 실성한 사람같다.

《이보세요, 왜 이러세요? 정신차리세요. 네, 여보―》

민순임이 영문을 알지 못한채 눈물부터 앞세우며 부르짖는데 정시명이 허우적거리던 팔로 례영의 어깨를 감싸안고 한손으로는 그의 잔등을 자꾸 쓸어준다. 입도 닫아매고 눈도 꾹 감고있다. 련이어 들이닥친 충격에 정시명이 터지는 오열을 씹어삼키며 소리없이 울고있었다.

정시명이 좌절감에 휩싸여 비통하게 앉아있는것이 처음이다.

민순임은 자기 남편처럼 속대가 쇠불이같고 눈물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흔치 않을것이라고 늘 생각해온터였다. 남편은 이 하루새에 꼭 십년은 더 늙은것만 같다. 모든것을 체념하고 모든것을 일시에 다 버리고 허탈과 방황과 자포자기에 빠져버린것 같다.

《아버지, 제가 온것이 기쁘지 않으세요? 전 아버지축복을 받지

못하지 않았나요. 아버지, 절 축복해주세요. 네, 아버지!》
례영이 물기어린 목소리로 애절하게 부르짖었다.
《여보세요, 그만하세요. 이렇게 갈라져사는게 오래야 가겠나요.》
민순임이 여전히 정시명의 팔다리를 주물러주며 위로하느라 했다. 그 소리에 정시명이 고개를 번쩍 쳐든다.
《당신이 무슨 소릴 했소?》
《원참, 당신은… 이렇게 갈라져사는게 오래야 갈가 했지요.》
정시명의 눈이 다시 불덩이같이 번쩍거리기 시작하였다.
그 눈에서 예나 다름없이 섬광이 번쩍번쩍한다. 모든것을 불태워버릴듯 세차고 강렬한 불빛이였다.
그는 례영의 작고 동그란 어깨를 꽉 움켜잡았다. 례영의 머리우로 창밖을 노려본다.
바깥이 훤히 밝았다. 새들의 지저귐이 들려온다. 정시명의 눈빛이 차츰 부드럽게 빛나기 시작하였다.
《고맙다, 례영아. 그래, 이런 날이 오래야 가겠느냐. 안되지, 안되구말구!》
다시 온몸에 서늘한 빛이 어린다. 두툼한 입술을 다문다. 세상이 뒤집힌다 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다시 열리지 않을듯싶다.
두눈에서는 불이 철철 흐르고있다.
그는 지금 눈앞에 하지의 상통을 떠올려놓고있었다.

제7장
대결전야

1

이틀이 지났다.

정시명이 기다리던 3월 1일 동녘이 훤해왔다.

서울시민들은 두패로 갈라져 3.1운동을 기념하여 좌우익에서 조직한 민중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서울공설운동장과 고려대학교로 밀려갔다.

좌익은 고려대학교에서, 우익은 서울공설운동장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로동자, 농민, 녀성, 학생대표들이 연설하고 유명인물들도 열변을 토하였다. 군중은 두패로 갈라졌지만 조국의 완전독립이라는 하나의 숨결로 이어져있었다.

《만세! 만세!》

기념식을 마친 수십만군중은 대렬을 지어 서울의 거리를 물결쳐갔다.

《만세! 만세!》

도로우에 독립과 통일정부수립을 촉구하는 삐라가 눈꽃처럼 날렸다. 만세의 함성이 서울장안을 들었다놓았다.

그런데 낮 열두시 정각, 서울방송이 부풀어오른 민중의 열기를 짓누르듯 중대발표가 있겠다고 숨가쁜 소리를 연거퍼 내질렀다.

중대발표란 1948년 5월 10일전으로 남조선전역에서 《단독선거》를 한다는 《유엔조선림시위원단》의 성명이였다. 미국놈들이 《유엔조선림시위원단》의 9개의 성원국중에서 5개의 나라가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법규를 란폭하게 유린하고 일방적인 발표를 해버린것이였다.

이에 접한 삼천리강토는 국토분렬이라는 절박한 위기상황을 두고 분노의 활화산이 되여 타번지였다. 분노는 피의 항쟁을 불러냈다.

남조선의 도처에서는 이날저녁부터 일제히 각이한 형식의 대중적인 투쟁이 벌어졌다. 도시에서는 매일같이 기습적인 시위투쟁

과 삐라살포, 봉화투쟁이 간단없이 벌어졌다. 지방에 조직된 야산대들은 경찰지서들과 지방행정기관들, 악질적인 반동들을 무장으로 공격하는 적극적인 무장투쟁을 벌리였다. 경상남도 고성에서 600여명의 농민청년들이 5개의 경찰지서의 경비전화선을 절단하고 죽창과 돌, 폭약으로 공격전을 벌려 4명의 반항하는 경찰을 처단하였으며 건물과 공문서를 불태운 다음 무기를 로획하여가지고 태백산으로 들어간것은 그 대표적인 실례였다. 그들은 태백산에 들어가자바람으로 태백산빨찌산을 조직하고 미국놈들과의 결전을 세상에 선언하였다.

제주도의 30만 도민들은 손에 무장을 들고 력사적인 피의 항쟁에 떨쳐나섰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2차대전후에 처음으로 벌어진 대규모적인 반미무장항전이였다. 조국의 최남단섬은 순식간에 불타올랐다.

《단선단정》이냐 통일정부수립이냐 하는 문제가 전민족적인 절박한 과제로 나섰다. 이제는 총선거요, 민족통합이요 하는 탁상공론으로 세월을 보낼 때가 아니였다. 행동하여야 할 때다.

(그러면 무엇을 내걸고 어떻게 미국놈들의 흉계를 반격해야 할 것인가.)

정시명은 준엄한 력사의 분기점에서 자기 조직의 몫을 찾아 또다시 련일 낮과 밤을 이어가며 모대기였다. 때로는 조직성원들과도 낯을 익힌 진보적정치인들과도 진지하게 국난을 타개할 출로를 모색했으나 모두들 엄습해오는 민족의 위기를 두고 통분만 터뜨릴뿐 이렇다할 방략을 내놓지 못하였다.

날이 갈수록 정시명은 정국의 전환을 가져올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자책으로 초조해졌다. 거세차게 타번지는 빨찌산투쟁의 불길은 정시명을 더욱 흥분시키였다.

온 민족이 미국놈과 정면으로 맞서 력사적대결을 하고있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그 거창한 싸움에 이바지해야 할것인가.

그런데 어느날 흥국상회에는 귀한 손님이 안지생을 앞세우고 기별없이 나타났다.

진회색 양복에 자주빛 넥타이를 가쯘히 매고 중절모를 점잖게 눌

러쓴 그 손님은 뜻밖에도 은송이였다.
《무고하셨군요!》
장부책이 가득 쌓인 책상에 묻혀있던 정시명은 은근한 인사말에 고개를 들었다가 은송임을 알아보자 너무도 반가와 벌떡 일어났다.
《아니, 은송선생! 이 어찌된 일입니까? 은송선생이 우리 상회 문턱을 넘어서다니!…》
《허허!… 시안판사 처장이 흥국상회 사장이라… 어디 안아봅시다.》
《허허!…》
그들은 반가움에 겨워 기쁨의 웃음부터 크게 터뜨리며 서로서로 으스러지게 몸을 끌어안았다.
《고생이 많으셨지요?… 몹시 축갔군요.》
은송은 여전히 정시명의 몸을 안은채 걱정어린 어조로 그의 귀에 대고 나직이 말했다.
《아니, 일없습니다. 선생님은 무고하셨습니까?》
《그럼요. 나야 뭐 보시는대로… 이렇게 10년은 젊어졌는걸요. 장군님슬하에서 갱소년했나싶습니다.》
《정말 은송선생은 무척 젊어보입니다. 장군님께서는 건강하십니까?》
《예, 건강하십니다. 여전히 젊음이 넘치시여 천지개명을 이끄시고계십니다.》
《예,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곳에서 누굴 바라보며 사는것입니까. … 자, 좀 앉읍시다.》
정시명은 그제야 은송의 몸을 풀어주고 그를 쏘파에 자리를 잡게 하고는 초인종을 눌러 례영이를 찾았다.
례영이는 흥국상회 사장의 서기라는 명함장을 정식 받아가지고 정시명이 다니는 곳에 언제나 붙어다녔다. 사람들은 지어 마동열의 임무를 넘겨받은 안지생이까지도 례영의 소중한 곳에 손바닥보다 작은 어린이장난감같은 권총이 있다는것을 모르고있었다.
《례영이, 인사를 드려라. 내가 중국에 있을 때 친하게 지내

던분이다. 은송선생, 우리 딸이외다.》
《오, 이렇게 곱게 자란 따님이 있었군. 내 이름은 은송이라 부른다. 내 해방전에 세상천지를 향방없이 떠돌다가 너의 아버지를 만나 사람구실을 하게 된 사람이다.》
은송이 헌헌한 소리로 이렇게 례영의 인사를 받아서 정시명이 나무랐다.
《원참, 애들앞에서… 얘, 그 말은 다 실없는 말씀이니 새겨듣지 말고 차 한잔 덥혀오너라.》
《예.》
례영이 두 어른이 주고받는 이야기에 저도모르게 입가에 방그레 미소를 담고 방을 나서자 정시명이 정색을 했다.
《그런데 은송선생님이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가족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아, 그랬군요.》
《며칠전에 민전의장단회의가 장군님을 모시고 진행되였는데 회의뒤끝에 저를 따로 만나주시였습니다. 가족들이 서울에 그냥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를 크게 나무람하십디다. 아무리 일이 바쁘기로서니 평양에 온지 언제라고 그리도 무심하냐고 하시며 만사를 젖혀놓고 서울에 가서 가족들을 다 데려오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지요.》
《제가 제 일만 일이라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 북으로 다 들어갔겠거니 했는데… 참 미안합니다.》
정시명은 은송에게 돌려주신 장군님의 은정이 마치도 자기가 받아안은것처럼 기쁘고 감격스러우면서도 은송에게는 미안한 생각이 들어 진심으로 사과하였다.
그 소리에 은송이 펄쩍 뛰였다.
《원, 그러지 마시오. 정선생이 여기서 어떤 수고를 하고있는지 다 짐작이 됩니다. 사실은 서울에 오면 정선생부터 찾아 문안이라도 드리고 가자고 했는데 이 넓은 장안에서 통 찾을 길이 있어야지요. 헌데 일이 될라구 방금전에 저 안지생이를 만났지요. 안

지생이도 걱정이 큽디다. 아무쪼록 신변에 류의하십시오.
김일성장군님께서 저에게 평양에 찾아왔던 려운형선생이나 허헌 선생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회고하시면서 정선생의 신변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하셨습니다. 정선생이 속탈이 있는것 같은데 그때 며칠동안 눌러놓고 좀 치료를 해서 보낼것이였다고 후회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보시는것처럼 전 이렇게 건강합니다. 우리 장군님께서 건강하시다니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장군님 뵈오면 제 걱정은 하시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려주십시오.… 그래 언제 떠나시겠습니까? 오늘저녁은 저와 함께 밤을 보냅시다. 주인장이 좋은분이여서 손님대접을 잘합니다.》

《오늘저녁차로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빨리요?》

《빨리 가야지요. 모두가 바쁘게 뛰고있는데 한가로이 가족데리려 서울길에 오른것만 해도 죄송스러운 일인데… 그래 요즈음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 소리에 정시명은 인차 대답을 하지 못하고 괴롭게 긴숨을 내그었다.

례영이 차를 끓여가지고 들어왔다.

그들은 더운 차를 몇모금씩 마시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일이야 무척 힘들겠지요.》

은송이 정시명의 무거운 마음속을 가볍게 해주고싶어 이렇게 위로하였다.

《글쎄, 힘들다고 해야 할지… 지금 나라의 분렬위험을 두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는데 난 아직 똑똑한 일거리를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미국놈들의 〈단선단정〉을 짓부시고 통일정부를 세워 완전독립국을 일떠세워야 할게 아닙니까. 우리도 력사의 대세에 빨리 돛을 올려야 되겠는데 딱히 방책이 서지 않습니다.》

은송이 깊은 자책이 어린 정시명의 심중이 리해가 되는듯 고

개를 끄덕끄덕거리다가 《〈단선단정〉이라… 짓부셔야지요. 그걸 놔두면 국토는 동강나고말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지요.》 하고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심중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김일성**장군님께서도 이 문제로 해서 크게 심려하고계십니다.

이번에 열린 우리 민전의장단회의에서도 실은 그 문제가 토의되였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지난해에도 이와 관련하여 여러차례 가르치심을 주신바가 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이번 회의에서 미제의 〈단선단정〉책동을 결정적으로 분쇄하고 전조선적인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북남정치인들의 련석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력사적인 제안을 내놓으시였습니다.》

《북남정치인들의 련석회의요?!》

정시명은 귀가 번쩍 트이였다. 며칠토록 가슴을 지지누르던 납덩이가 금시 녹아버리였다.

정시명은 불현듯 장군님을 만나뵈옵던 일이 떠올라 뜨거운 감회가 뭉클 차올랐다. 그이께서는 벌써 그때에 북남정치인들의 대회합을 마련할데 대한 위대한 경륜과 웅지를 펼쳐주시지 않았던가. 지금이야말로 장군님의 그 숭고한 애국애족의 구상을 꽃피워야 할 시기이다.

(바로 이것이다!)

정시명의 속깊이에서 이런 찬탄의 부르짖음이 울렸다.

(바로 이것이다! 다른 대안이 없다. 이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정시명은 고패쳐오르는 격정을 누르며 이렇게 입속으로 부르짖었다.

(북남회담이야말로 미제의 분렬주의선언을 산산이 부서지게 할 벼락이다. 북남정치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앉는다는것부터 이 나라의 새 력사를 빛나게 장식할 장거이다. 미국놈들이 38°선에 늘여놓은 철조망을 통일회담사절들이 헤쳐넘나드는것부터 력사적의의를 가질것이다.

뚫려진 그 문으로 이제 남과 북의 형제들이 오가며 길을 넓히고

종당에는 철조망을 거두게 할것이다. 회담에서 울려퍼질 통일의 목소리야말로 미국놈들을 후려치는 벼락이다. 그 힘찬 목소리들이 겨레의 머리우에 드리운 분렬의 먹장구름을 활활 태워버릴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다! 분렬의 칠흑같은 밤은 가고 아, 동이 트는구나!)

정시명은 온몸에 뻗쳐오르는 왕성한 기운과 희열에 휩싸여 목멘소리로 부르짖었다.

《바로 그겁니다!》

은송은 감동과 흥분에 젖어있는 정시명의 얼굴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장군님께서는 이 력사적인 회합의 성패를 결정하는 관건적인 고리는 남조선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있는 우익민족주의세력을 참가시키는것이라고 하시였습니다. 그들이 참가하지 못하면 회의가 전조선적인 대표권을 행사하지 못할것이라고 간곡하게 가르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하여 크게 심려하시였습니다.》

《예, 장군님의 가르치심이 천만번 지당합니다. 우익민족주의세력이 서울에서는 커다란 영향력과 지위를 차지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북남정치인들의 모임에 선뜻 응해나서겠는지?…》

정시명이 자신없는 말투로 이야기하자 은송도 걱정스럽게 이야기를 받았다.

《옳습니다. 그게 제일 큰 걱정거리입니다. 장군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익민족주의세력을 회의에 참가시키는 문제는 반공대결속에 인생을 보내온 그들을 련공합작에로 전환시키는 문제이기때문에 매우 어렵고 복잡할것이라 하시였습니다.》

《예. …》

정시명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심려에 접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방안을 거닐기 시작하였다. 그이께서 심려하시는 문제를 떠맡아야 하겠다는 절절한 마음이 순식간에 가슴 한밑에서 괴여올랐으나 어떻게 된 영문인지 쉽게 말문이 열리지 않았다. 김

구를 비롯한 민족주의운동의 여러 두령들의 얼굴이 눈앞에 얼찐얼찐 떠올라서 여전히 마음의 대문에 무겁게 매달리는것만 같았다.

쉽게 결단을 내리고 가벼이 대답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민족의 중대사가 걸려있는 책임적인 과제이다. 하면 좋지만 하지 못하면 어찌할수 없는 그런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실책이나 패배가 용납되지 않는 사업이다.

그러나 정시명은 자기가 장군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를 두고 경중을 가리고 실패로부터 차례질 후과부터 생각하는 자기의 소심성이 느껴지자 스스로 얼굴이 붉어졌다.

(내가 맡자. 우리가 맡자. 장군님의 심려를 접하고도 그를 외면한다면 도대체 이 정시명이 왜 서울땅에서 어정거리고있는거냐.

장군님께서 안타까와하실 때 결사의 각오와 온몸의 힘을 다해 떨쳐나서는것이 그이의 전사된 도리가 아닌가.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도 그 봄날에 다진 약속을 지켜내지 못하는 의리없는 인간이 되였는가.)

예까지 생각이 이르자 정시명은 마치 장군님앞에 나서기라도 한듯 은송의 앞에 와서 엄숙한 자세로 《은송선생, 우리가 그 일을 맡겠습니다.》 하고 나직한 어조로 말하였다.

《그래요?!》

은송도 정시명의 저력있는 이야기가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해서 자리에서 충동적으로 일어나서 정시명에게로 한걸음 다가섰다.

《우리가 맡겠습니다!》

정시명은 다시금 나직이 그러면서도 천근의 무게가 실린 드팀없는 어조로 분명하게 자기의 결심을 밝히였다.

은송이 정시명의 두손을 덥석 틀어쥐였다.

《정향선생, 선생이 그 일을 맡아준다면 우리 장군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마 그이께서는 마음을 푹 놓으실것입니다.

이거 내가 서울에 왔다가 큰 기쁨을 안고 평양에 돌아가게 되였군요.》

《장군님께 그렇게 말씀드려주십시오. 장군님의 애국의 거룩한 뜻과 혁신적발기가 겨레앞에 알찬 열매로 주렁지도록 저희들도 땀과 피를 바쳐가겠습니다.

그런데 련석회의날자는 언제쯤으로 예견하시였습니까?》

《4월 중순으로 정하시였습니다. 일부 일군들이 회의준비사업때문에 걱정을 하였는데 그이께서는 지금 미국놈들이 유엔까지 업고 〈단선단정〉놀음을 벌리는 조건에서 더는 미룰수 없다고 하시였습니다.》

《4월 중순이라?… 옳습니다. 더는 미루어서는 안됩니다. 미국놈들의 〈단선단정〉놀음을 통일정부의 수립으로 짓눌러버려야 합니다.》

정시명은 다시금 또박또박 결의를 다지였다.

《우리가 꼭 해내겠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은송은 정시명의 두손을 뜨겁게 잡고 좋아 어쩔줄 몰라하다가 바쁜 사업일정을 더는 지체시키지 않겠다고 하면서 작별인사를 하였다.

정시명은 모처럼 만난 귀한 손님을 하루밤이라도 쉬우지 못하고 떠나보내는것이 미안하기 그지없었으나 그의 걸음을 굳이 막지는 않았다. 그는 길철에게 김아성과 권재수를 불러 은송선생과 가족들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할데 대하여 지시하였다.

그러자 은송이 펄쩍 뛰였다.

《정향선생, 그러지 마시오. 고생하는 동지들에게 그런 폐까지 끼치다니요. 저는 조용히 왔으니 조용히 물러가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은송선생의 신상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장군님앞에 무슨 면목이 서겠습니까.》

그러나 은송이 굳이 사양을 해서 김아성이만 개성까지 동행하도록 타협을 하였다.

그를 떠나보내자 정시명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곰곰히 되살리며 깊은 생각에 갈마들었다.

언뜻 떠오르는 모습이 있다. 수염을 짧게 기른 려운형이 흰구름에 실려 벙글거리며 다가온다. 오래오래 살겠다고, 동지라는 고귀

한 이름을 부르며 열정에 넘치던 사람이 지금 살아서 이 소식을 듣는다면 얼마나 기뻐하랴. 아마도 중간세력은 자기가 다 말아안을테니 걱정말라고, 그들을 다 데리고 평양에 가겠노라며 읏읏할것이다.

(아, 몽양!)

달이 바뀔수록 더욱 그리워지고 그의 무게가 얼마나 컸던가가 재인식이 된다.

정말로 아직까지 그가 비워놓은 큼직한 자리를 메워주는 사람이 없다.

근로인민당은 지금도 조용하지 않다. 인민당의 출신들과 그들의 두령으로 선출된 장건식이라는 사람이 자기들에게 려운형이 차지하였던 당수직과 령도권을 달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백남운과 리영은 그건 몽양의 몸값이지 인민당계렬의 세습물이 아니라고 드세게 반발하고있다.

이때문에 정시명도 근로인민당의 지도인물들을 만나 3인거두지도체제를 존속하고 4인조의 역할을 높여 당안의 분파적기도를 시급히 청산할것을 요구하였다.

이번 투쟁에 근로인민당이 중심이 된 《13정당협의회》를 선봉에 내세워야겠는데 려운형이 없으니 걱정스럽기만 하다.

다음으로 떠오른것은 김구와 김규식의 모습이였다. 반공을 필생의 리념으로 제창해온 그들이 공산주의자들과 무릎을 맞대고 분렬배격과 국토통일을 함께 론의한다면 장군님께서 가르치신것처럼 련석회의의 범국민적의의가 온 세계에 과시될것이다. 뿐더러 김구나 김규식의 영향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길이 근본적으로 달라질것이다.

정시명은 력량편성부터 하였다. 물론 그들의 측근자들속에는 안지생을 비롯한 조직성원들이 여러명 있었다. 그러나 그들만으로써는 단 시일내에 김구와 김규식세력을 련공합작에 돌려세우는 과업을 수행하기 어려울것 같았다.

그는 송호정도 인입시키기로 하였다.

김구나 김규식은 그가 자기의 손아귀에서 벗어난것에 대하여

서는 좋지 않게 생각하고있었지만 정치적인 대결대상으로 되지 않고있는 이상 담을 쌓아두고있는것은 아니였다.

정시명은 인차 관계자들을 만났다.

남북회담문제를 꺼내놓자 얼싸안고돌아갔다. 그러나 김구, 김규식문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굳어진 모습들이였다.

《김구, 김규식과의 사업에서 우리가 애초에 세웠던 목표는 이미 달성되였습니다. 오늘 나선 과업은 그들을 련공회담에로 이끄는 새로운 단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남북회담의 성패를 가르는 사업이며 그들의 평생의 리념을 전환시키는 운명적이고도 복잡한 사업이므로 쉽게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내야 하는 과제이므로 목숨을 내대는 각오와 용기를 가지고 해봅시다.》

정시명은 간곡하게 말하면서 좋은 안들을 내놓으라는 말로 그들과의 협의를 끝냈다.

며칠후에 통보하여온 안지생의 첫 보고는 정시명의 머리를 무겁게 하였다.

김규식과의 담화.

《선생님의 〈단선단정〉반대결의는 북의 호응을 받고있습니다. 북과 손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괴이한 소리. 내가 공산주의와 손을 잡아?》

김구와의 담화.

《북의 공산주의자들과 합작의 길로 나가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를테면 남북정치인들이 모여앉아 국토통일회합을 가지는것이 어떻겠습니까?》

《반공은 항일애국다음으로 내건 내 필생의 구호야. 공산당과 마주앉아야 얻어쥘건 아무것도 없어.》

4월을 한달앞둔 때의 김구, 김규식의 동향이 이 정도이니 정

시명이 답답하지 않을수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김명호를 근로인민당의 밀사격으로 파견하여 담판을 해보았다. 북반부와의 합작문제에 대하여 꺼내자 김구는 두툼한 입술을 돌문처럼 꾹 닫아붙이고 응대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북과의 련공합작을 쌍수들고 환영하는 리극로도 파견하였다. 《13정당협의회》에서 북과의 합작문제를 공식토의해보자고 제의하게 하였다. 김구는 즉석에서 그것이 《13정당협의회》의 공론으로 될것 같으면 《한독당》은 거기서 탈퇴하겠노라고 을러멨다.
안타까움속에 날자가 흘러가자 정시명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하루는 안지생이 자료를 가지고 흥국상회에 찾아왔다.
이날도 안지생이 들고온 자료에는 심술스러운 김구의 얼굴이 그대로 찍혀져있었다.
안지생은 인차 자리를 뜨지 않고 문건을 받아들고 페지를 넘기는 정시명의 옆에 조용히 앉아서 그가 마지막페지를 넘길 때를 기다리였다. 여전히 전진이 없는 자료보고만 제출하게 되여 미안하기 그지없었다. 그렇다고 구름이 낀 정시명의 기분을 밝게 해주려고 자료를 꾸며낼수도 없는노릇이여서 안타깝기는 정시명이 못지 않았다.
이윽고 정시명이 자료에서 눈을 떼고는 쏘파에 비스듬히 기대여앉아 눈을 감았다. 무거운 생각에 시달릴 때면 정시명이 항용 보여주는 몸가짐이여서 안지생은 그게 자신이 불민한탓인듯 더욱 죄스럽고 그럴수록 김구가 미워지는것이였다.
《70년 굳어진 담벽에 닭알던지는 격이군.》
정시명이 혼자소리로 나직이 내뱉고는 길게 숨을 내그었다.
《왜 가지 않소?》
잠시후 정시명이 물었다.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안지생이 영채가 유난한 두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정시명이 그냥 눈을 감은채 고개만 끄덕이였다.

《날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구나 김규식선생이 반일적인 민족주의세력에서 중심을 이루고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안지생이 거침없이 말을 꺼내다가 여기서 중단했다. 자기가 꺼내려는 말이 정시명에게 접수되겠는가 하는 우려에서였다.

《그래서?》

정시명은 벌써 안지생의 속생각을 알아차렸으나 그스스로 진속을 다 털어놓도록 뒤말을 재촉하였다.

《그러나 그건 결코 김구, 김규식선생들이 민족주의세력의 전부가 아니라는것입니다.》

안지생이 닭알침을 꿀꺽 삼키고는 또렷이 주장을 폈다.

《그건 그렇소.》

《해방된 오늘에 와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전 그를 돌려세울수 없을바에는 차라리 철저히 고립시켜 련석회의에서 배제하며 그들의 영향권에 있는 세력을 포섭하는것이 회의성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공작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립시킨다?…》

정시명이 그제야 눈을 뜨며 나직이 반문하였다. 안지생이 불만이 어린 정시명의 눈길을 받자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다.

《그들이 련석회의에까지 배제되면 영영 애국의 기회를 놓치게 되지 않을가?》

《어쩌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반공이 필생의 선택인데. 운명이라고 봐야지요.》

안지생은 이미 단단히 자기의 결심을 굳히고 이날의 상면에 나선듯 여느때없이 정시명의 앞에서 단호하게 고집을 부렸다.

《운명이라구? 음…》

정시명은 다소 놀란듯한 눈으로 아직도 애티가 있어보이면서도 주장이 있고 분석이 예리한 안지생의 모습을 응시하다가 다시 눈을 감아버리였다.

려운형의 모습이 또 앞을 가리운다.
김규식과 절교선언을 하고와서 그렇게도 자신을 모질게 타매하며 거친 숨을 씩씩거리던 몽양, 만호는 자기에게 맡기라고, 그 사람이 근본이야 버리겠느냐고 절절하게 주장하던 목소리가 쟁쟁하다. 지금도 그 비단같은 마음으로부터 그들을 버리지 말라고, 그들은 끝까지 데리고가야 할 우리 진의 사람들이라고 뜨겁게 속삭이는것만 같다.
(그래, 그들은 기어이 우리 사람이 돼야 한다. 그것은 몽양의 간곡한 유언이기도 하다. 몽양이 고인이 되여 세상을 하직할 때 우리는 민족의 거목을 쓰러뜨린 미국놈들을 저주하였다.
그를 지켜내지 못한 고민으로 잠들수 없었다.
그런데 이젠 우리 손으로 또 김구와 김규식이같은 거목들을 애국의 대오에서 찍어넘길수 있느냐.
거목들이 여전히 이 나라의 푸른 하늘에 높이 솟아 제모습을 잃지 않도록 해야지 밑둥에 구새가 먹고 잎새에 황이 들었기로 함부로 찍어버리면 숲은 쉽게 결단이 나지 않겠는가.
이건 외세가 바라는바다. 미국놈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의 기둥감이 될만한 거목들을 모조리 애국의 숲에서 뿌리채 들어내려고 갖은 오그랑수를 다 쓰고있다.
내가 지금 그 숲을 가려보지 못하고있다. 눈이 흐려지고있다. 이래서는 안된다. 통일이라는 위대한 창조물은 울울창창한 애국의 숲에서만 솟아오를수 있다.
우리의 싸움은 결국 그 숲을 보호하고 더욱 푸르싱싱하게 가꾸는 일이다.
몽양이 비워놓은 자리에 김구도 김규식이도 자랑스러운 이 나라의 거목으로 자리잡게 해야 한다.
이건 우리 장군님의 뜻이다.)
정시명이 뜨거운 추억과 자책을 안고 여전히 눈을 감고있자 안지생은 더 설명을 펴지 못하였다.
하기는 벌써 오래전부터 생각을 굴려왔던 문제를 다 토해놓은셈이였다.

그에게는 백년묵은 나무등결과도 같이 굳을대로 굳어지고 쉴대로 쇠진 김구나 김규식의 운명을 반공에서 련공으로 역전시킨다는것이 헛된 바람이고 무익한 노력랑비라고 판단되였다. 더구나 민족적중대사가 박두한 이 시점에 와서도 그들을 끌어안고 제자리걸음을 하는것이 황당하게만 생각되였다.

정시명이 잠시후에야 눈을 뜨며 자리에서 무겁게 일어났다. 그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그건… 아니, 그래서야 안되지. 나라위해 흘린 그네들의 피 한방울한방울을 귀하게 여기자구. … 이렇게 하세. 내가 다시금 이 문제를 가지고 김구선생을 만나러 가겠네.》

며칠후 정시명은 근로인민당의 백남운과 리영, 홍명희, 송호정, 《건민회》의 리극로며 인민공화당의 당수까지 데리고 김구의 집으로 갔다.

일행중에는 류동명의 얼굴도 보였다.

류동명은 송호정의 집에서 우연히 맞다들었다. 모험이 아닐가 하는 아니아니한 생각끝에 남북정치인들의 통일회합문제를 꺼내놓으니 뜻밖에 두말안팎에 환영하였다. 뿐더러 김구, 김규식도 차던질 생각말고 꼭 참가시키라고 하면서 쾌히 따라나섰다.

그들이 왔다는 전갈을 받자 김구는 맨버선바람으로 대문까지 황황히 마중을 나왔다.

정시명의 뒤에 정계와 군부의 실력자들이 수원처럼 주런이 들어서자 김구는 더구나 어기가 질려 그 우람한 몸을 가늠하기 힘들어하였다. 그들은 다 남쪽에서 화제의 인물로 받들리는 정계의 거물들이였다.

일행이 둥근상두리에 자리를 잡자 김구의 맏며느리 안미생이 커피를 끓여가지고와서 모두에게 인사를 하였다.

정시명은 김구가 자기의 눈치를 슬금슬금 살피는게 감촉되여 빙긋이 웃어보이며 커피잔을 입에 대였다.

《웃지들 마시오. 차보다 숭늉맛을 그리워하던 이 백범이 어느 사이에 바다건너에서 실려온 커피에 맛을 들였다오. 근본을 잊었다니. 허허…》

정시명의 거동에 마음을 쓰던 김구는 정시명이 웃는것이 반가운듯 자기도모르게 안도의 숨을 내쉬며 희색이 돌아 말을 꺼냈다.
좌중에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정시명은 한담이 지나가고 화제가 정치문제에로 바뀌여지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오늘 북의 형제들의 애국애족의 뜻을 지지하여 김구선생님과 국론을 나누게 된 영광을 누리게 되였습니다.》
정시명의 정중한 이야기는 일거에 방안의 공기를 엄숙하게 하였다.
정시명의 말에 김구가 당황해하며 앉은 자세부터 바꾸었다.
김구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일이였다.
한생을 공산주의와 대결했고 서울에 귀국한 후에도 북을 반대하는 여러가지 도발을 조직지휘한 자기가 북의 뜻을 지지하는 사람과 마주앉아 국론을 나누게 된다는것이 꿈같은 일이였다.
《그러면…》
김구는 정시명의 좌우에 앉아있는 일행을 둘러보며 아연해서 물었다.
《당신들은?…》
《김구선생, 이북의 형제들이 우리에게 통일건국대업에 뜻을 같이하고 힘을 합치자고 하는데 내 감히 마다할수 있겠습니까.》
리극로가 정중하게 대답했다.
김구가 다른 사람들에게로 고개를 돌리자 그들 역시 동감이라는듯 고개를 끄덕여보인다.
정시명은 이미 시작된 공세를 늦춤이 없이 여유작작한 자세로 말을 이었다.
《북은 리승만의 〈단선단정〉놀음을 지난날에도 반대했고 앞으로도 반대할것이라 합니다.》
《에… 거기에 관한 나의 견해로 말하면 이미 만인에게 공개된바입니다. 나는 이미 유엔이 채택한 〈단선단정〉제안을 끝까지 반대할것이라고 성명하였습니다.》

김구는 이것이 일종의 회담이라는것을 느끼고 정중하게 대답을 하였다.

《북조선은 외국군대를 다 철거시키고 전조선적인 선거를 통하여 단일정부를 선거하며 국토를 하나로 통일시키자고 주장합니다.》

《천만번 지당한 주장입니다. 선조들이 하나의 강토로 물려준 이 땅에 우리 대에 와서 분렬의 패말뚝을 박게 해서는 안될줄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뜻이 있을수 없습니다.》

김구는 연신 헛기침을 하면서 고자세를 잃지 않으려고 사뭇 엄숙한 어조로 응수하였다.

《북조선은 이러한 정견의 공통성과 애국애민의 리념으로부터 김구선생과도 만나 국사를 허심탄회하게 의논하여 기울어지는 국운을 바로잡을것을 희망합니다.》

《나와 손을 잡는다고?》

《예, 남북의 모든 인사들이 모여앉을것을 희망합니다.》

《안되오. 이 백범이 세상에 열두번 다시 솟아도 공산주의와는 손을 잡지 못해요. 그렇게 전하시오.》

김구는 애써 진정해오던 침착성과 아량을 잃고 주먹으로 허공을 내리찍었다.

정시명은 김구를 싸늘한 눈초리로 쏘아보다가 이렇게 말을 이었다.

《뭐라구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백범! 내 이자리에서 한가지만 묻고 넘어갈게 있습니다. 백범은 열두번 다시 솟아도 공산주의와 손을 잡지 못한다 하였는데 그러면 상하이에서 **김일성**장군님이 보천보를 들이친 소식을 듣고 〈림정〉이 이젠 장군님을 후원하자며 련락원까지 백두산에 파견하던 일은 한갖 민심을 우롱한 거짓이였습니까? 대답을 정히 듣고싶습니다.》

정시명의 엄숙한 물음에 김구는 예리한 칼날에 찔리우기라도 한듯 몸을 흠칫 떨었다. 정시명이 뜻하지 않게 상기시켜준 일이 순간 눈앞에서 번개처럼 령롱하게 떠올랐다.

1937년 초여름이다. **김일성**장군님께서 보천보를 들이쳤다는

소식이 림정에도 뢰성처럼 날아들었다. 너무도 통쾌하고 속이 후련해서 김구는 지기들을 끌어안았다. 그리고는 부르짖었다.

《배달민족은 살아있다! 배달의 얼은 살아있어. 이놈들! 배달민족의 숨이 꺼질상싶었더냐!… 이제부터 림정은 김장군을 후원해야겠다. 당장 백두산에 련락을 띄워야겠다.》

그후에도 김구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어제끼고 《배달이 살아있다!》고 소리치면서 두번이나 띄운 련락원들이 끝내 장군님을 찾지 못하고 돌아온데 대하여 여간 아쉬워하지 않았다. …

그게 거짓이라니?!… 백범이 그런 거짓도 마구 행할 사람인가. 김구는 대바람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러나 그는 태연자약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하였다.

《정처장, 김장군은 김장군이시오. 그분은 만백성이 우러르는 배달민족의 영웅호걸이시오. 그분의 존함을 어찌 공산당과 련결시킨단 말이요?》

《백범, 백범선생은 장군님을 잘 모르시오. 우리의 공산주의는 **김일성**장군님이십니다. 장군님은 우리의 공산주의입니다.》

《그런 소리마시오. 상하이림정에서 제일 못나게 논 놈은 공산당패였소.》

《백범, 심사숙고하시오. 공산당의 간판밑에 공산주의를 모독한 가짜 공산당을 어찌 우리 장군님의 공산주의와 동렬에 세워보십니까.

이것은 나의 개인적의사입니다. 나는 백범선생의 애국애족의 리념을 존경합니다. 선생님이 주장하고있는 정치적구호들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그 실현을 위한 구상에 있어서는 리해되지 않는것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북의 공산주의자들은 백범선생이 내놓은 외군철거와 총선거, 통일정부수립발기들을 지지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백범선생이 또다시 자기의 주의주장을 지지하는 당파를 고집과 편견으로 배척한다면 모처럼 내놓은 소중한 정치적발기들도 공리공담으로 됩니다.》

백남운이 자기도 한마디 하겠노라며 대화에 끼여들었다.

《백범선생, 나는 **김일성**장군님의 합작의 뜻을 큰뜻을 앞세운 그분의 웅대한 뜻이고 그분만이 내놓을수 있는 민족단합의 대경륜이라고 믿어마지않습니다. 우리 근로인민당은 그 높은 뜻을 흔쾌히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까놓고말해서 백범선생이 북의 공산주의자들과 만나지 않고 어떻게 국토를 통일할수 있으며 단일정부는 어떻게 무어낼수 있겠습니까? 미국이나 리승만과 손을 잡아서는 선생의 고견을 성취할수 없다는거야 불보듯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백범선생도 북반부형제들의 성의있는 호소와 도량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량심적으로 평가할것을 권고하고싶습니다.》

이날의 담화는 이것으로 끝났다.

정시명일행은 그길로 김규식이도 만났다. 김규식은 남북회담을 하는 문제에 대하여 김구처럼 완고하지는 않았지만 역시 뜨아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였다. 정시명은 이미 심장을 울려놓았으니 반응이 있을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기다려보자. 고목에 꽃을 피우려면 아직도 품을 더 들여야 한다.)

사흘이 초조하게 지나갔다. 안지생이 사흘째 되는 날 의기양양해서 흥국상회에 나타났다. 그는 김구와 김규식이 이틀동안 계속 밀담을 벌리다가 정시명에게 련명으로 편지를 보내여왔다고 하면서 《상하이림시정부》의 인장까지 찍혀진 편지를 내놓았다.

정향귀하.

우리는 귀하가 제기한 문제가 **김일성**장군님의 애민애족의 발기라는데 특별히 류의하면서 아래와 같이 회신을 보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① 유엔소총회결정으로 채택한 리승만의 망국제안인 《단선단정》을 반대한다.

② 남북총선거에 의하여 자주독립정권을 수립한다.

③ 《남북회담》을 지지한다.
※ 류의할 문제—우리가 이제 곧 남북회담을 제기하면 북에서 찬의를 표하겠는지?…
경의를 표하면서.
상하이림시정부 주석 김구
상하이림시정부 부주석 김규식

정시명은 그들의 태도전환이 반가웁기 그지없었으나 그들이 북반부와의 련공합작에 응하기로 한 배경이 무엇이겠는가에 대하여 심중히 검토하였다. 물론 나라의 장래를 우려하는 애국적인 감정에서 출발된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그들의 움직임으로 보아 여기에는 보다 미묘한 정치적타산도 작용한것으로 추리되였다. 정치적수지가 맞지 않을 때는 한걸음도 양보하지 않는 그들의 습벽을 너무도 잘 아는 정시명이였다.

그는 김구와 김규식의 속심을 계산해내느라고 오래동안 주의깊게 편지를 훑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래일아침이면 언제 그런 편지를 냈느냐고 생억지를 부릴겁니다.》

안지생이 정시명의 속내를 알아차리고 제딴으로의 평가를 내렸다.

《이렇게 인장까지 찍었는데도?…》

정시명은 안지생의 말에 수긍은 가면서도 다른 소리를 듣고싶어 이렇게 말했다.

《뭐, 그런 일을 한두번 당해왔습니까. 그런게 없다면 김구가 아니지요.》

김구의 정치적변신에 대하여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안지생의 말에 정시명은 더욱 마음이 개운치 못하였다. 안지생을 떠나보낸 그는 생각에 잠겼다.

점차 그들의 진의도를 가리웠던 허울이 한겹두겹 벗겨지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남북회담을 저들이 먼저 제안하였다고 내외에 선포하겠다는 의향을 넌지시 시사하고있다. 여기서 정치적실

점을 따보려고 하는것이 분명하였다. 통일의 일선에서 자기들이 활약하고있다는 전인민적인 인정을 얻어 자기들의 정치립지를 다져보려는것이다. 그러나 아무튼 반가왔다. 그들이 먼저 세상에 발기를 내놓는다면 어떻다는건가. 동기와 야심이 무엇이든지 그들이 협상의 길에 오르는것은 대견한 일이 아닐수 없다.

여기에서 정치적리익에 대하여 론하는 자체가 민족애라는 근본립장을 포기한 정치적사기행위이다. 나라의 분렬을 막는다면 이것이야말로 남북정치인들이 우리 겨레에게 내놓을수 있는 최상의 정치적열매이며 민족의 리익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것으로 끝낼수 있겠는가. 무엇인가 미덥지 않고 께름직한 느낌이 들었다. 안지생이 별생각없이 던지고간 말이 명치에 맺혀 내려가지 않았다.

정말로 그들이 래일이라도 이 무겁게 보내온 립장표명을 무효로 선언할수 있을가. 하긴 그들에게 있어서 그쯤의 일은 여반장일것이다.

그는 잠자리에 들어서도 여러가지 착잡하게 갈마드는 생각에 끝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2

정시명은 곰방대를 물고 뒤뜰안에 나섰다.

벌써 봄기운을 실은 바람이 숲을 흔들며 우수수 불어와 머리칼을 날렸다.

그는 담장을 에돌아 뒤뜰과 이어진 숲속으로 들어갔다. 소나무가 빽빽이 들어선 숲길을 천천히 걸었다.

늦보름달이 중천에 걸려 숲속에 정갈한 빛을 부채살처럼 뿌려주었다. 눈앞으로 김구의 우직한 얼굴이 나타났다. 김구… 과연 그와의 사업이 종장에 이르고있다고 볼수 있는가.

(나는 당신과 한판의 도박을 하고있는것이 아니다. 나는 당신의 인생을 다듬어주고저 한다. 당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이 나라 력사우에 새겨주려고 한다. 이걸 알아달라. …)

정시명은 김구가 만약 이자리에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었다.

어떻게 할것인가?… 정시명의 생각은 바닥없이 깊어갔다.

(…우선 김구, 김규식이 립장표명을 사회앞에 공개하면 어떻게 될가? 그러면 미국놈들과 리승만이 어떻게 나오겠는가? 적진에서는 분명 일대 혼란이 일어나고 미군정청이 벌컥 뒤집힐것이다.

이때 우리는 김구와 김규식의 회담제기에 일시 침묵을 지키자.

우리가 침묵을 지키면 적진은 또 어떤 양상을 띠게 되겠는가?

혼란은 역전되여 김구와 김규식은 당황망조할것이며 미제와 리승만은 그들을 독선적이라고 몰아대며 비웃어댈것이다.

그래도 반응은 보이지 말자. 미제와 리승만은 더욱 쾌재를 올릴것이다.

점차 김구, 김규식의 립장은 확고해질것이며 사회계도 이를 지지해나설것이다. 이렇게 되면 남조선의 민심은 또한번 급선회하게 될것이다.

정세의 비약은 미국놈들의 전술도 바꾸게 할것이다. 아니, 바꾸도록 해야 한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정시명의 눈앞에는 하지의 몰골이 떠올랐다.

딱 버그러진 가슴이며 세모가 진 주걱턱, 매눈처럼 날카롭게 반들거리는 오목한 눈, 건축기사의 자격증을 가진 쉰살나는 적수가 떠오른다. 과연 네놈이 우리와 겨룰만한 묘기를 가지고있는 놈이냐?… 정시명은 숲속에서 나와 뒤뜰에 들어섰다.

뜨락에는 노가지향나무가 들어차서 사시절 서늘하고 청신한 기운을 풍기였다.

그는 잘 다듬은 향나무사이를 거닐면서 생각을 무르익혀나갔다.

(미국놈들이 북남회담을 결사반대한다면 아무리 김구, 김규식이

동조해나서더라도 북남정치인들의 회합을 성사시킬수 없다. 미국놈들이 38°선을 봉쇄해버리면 한두명도 아니요, 작은 인물들도 아닌 남의 정객들을 어떻게 평양으로 보내며 그들의 차후활동을 어떻게 담보해줄수 있겠는가.

역시 북남회담문제에 있어서도 암초는 미국놈들의 도전이다. 대사를 성사시키려면 미국놈들까지 형식적이라도 회담을 지지하게 해야 한다. 그것도 단 한마디라 해도 하지의 입에서 나오도록 해야 한다. 미끼를 물게 하자. 덥석 물게 하자. 미끼라?… 어떤 미끼를 마련해야겠는가?…)

정시명의 생각은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갔다.

(김구로 하여금 북남협상주장에 더욱 열이 오르게 하자. 우리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자.

이 침묵은 미국놈들에게 우리가 북남협상에 응할 용의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수 있다. 미국놈들은 삼켜도 무방할 먹이로 판단이 가면 덥석 물자고 할것이다. 아니, 교활한 놈들이니 덥석 물수는 없다. 꼬리로 낌새를 보다가 물자고 할수 있지.)

만세를 부르는 득의양양한 하지의 낯짝이 떠오른다.

(드디여 미국놈들은 결정적인 방향전환에로 넘어가 김구, 김규식의 북남회담론에 목소리를 합치거나 막뒤에서 부추길수 있다. 김구, 김규식에게로 쏠리게 될 북남여론의 지지를 저희들이 헐값으로 사보자는것이다. 그리고는 북남회담은 미국과 남측이 계속 지지하고있으나 북측의 반대로 열리지 못한다, 그러니 통일정부수립은 북측의 방해로 가능성이 없다, 유엔이 결정한 《단독선거》는 유일한 선택이다 하고 세상에 대고 선포를 할것이다.

이제는 슬슬 낚시줄을 당겨보자, 따라올테지. 꼬리지느러미로 톡톡 쳐봐야 구미를 돋구는 미끼다. 이쯤 되면 하지는 득점하는셈이다. 헐값으로 사서 비싼 리윤을 얻어낸것이다.

좋다. 낚시를 단단히 삼켰다. 이제는 용빼는 수가 없다. 때가 됐으니 낚시는 들어올려야지.

이때 우리는 북남총선거를 다시 힘있게 주장할것이다.

미국놈들이 그쯤되면 버둥거릴테지. 그렇지만 목구멍을 넘어

간 낚시를 마음대로 뺄기는 어려울게지. 그렇구말구. 당기는대로 끌려오고야말것이다. …)

기절초풍해질 원쑤들의 몰골이 선히 보인다. 하지의 음험한 눈에 떠오를 경악이 보인다. 하지정도라면 이 정도로 손끝에 올려놓고 마음대로 휘둘러댈 자신이 있다. 정시명은 하지를 만나본 후부터 그와 같은 정치초년생을 이 나라의 통수권자로 내세워야 하는 미정치권의 무능과 지성의 결핍에 대하여 조소를 금치 못하군 하였다.

그러나 이번 거사는 미지배층의 대조선정책을 타격하는 공작이라는 의미에서 속안이 뻐근해져오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다.

하지의 뒤에는 백악관의 로회한 외교정책진이 있다. 현대문명이 도달한 최고의 높이에서 세계를 굽어본다는 미국의 유력한 두뇌진이 하지를 지원할것이다.

정시명은 어차피 미국놈들과 걸음걸음 부딪쳐야만 하는 공작의 특수성으로부터 미국의 정치방식에 대한 연구를 깊이있게 하여왔다.

이 과정에 그는 흥미있는것을 찾아냈다. 한마디로 미국의 정치란 정치인들의 몫이 아니라 박사팀의 몫이라는것이다. 미국의 도처에 있는 각이한 재단에 고급한 인력들이 틀고앉아 정치와 경제, 국방과 외교와 관련한 자기의 주의주장을 연구하여 내놓는다. 미국의 정치가들은 다만 그들이 내놓는 구상과 방안들을 선택하여 그 집행자로 될뿐이였다.

결국 미국을 움직이는것은 정치가들이 아니라 박사들인셈이다.

그러므로 정시명은 하지의 배후에 대하여 조심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정시명은 동녘이 희붐해올 때에야 불쑥불쑥 튀여오르는 하많은 걱정과 판단과 결심들을 덮어버리고 마음속에 단단히 그루를 박았다.

(좋다. 하지, 네가 이기느냐 내가 이기느냐. 아니, 미국이 이기느냐 조선사람들이 이기느냐 겨루어보자. 다시한번 실력을 견주어보자.)

× ×

정시명은 무르익힌 전술방안을 다음날 저녁에 지휘부모임에 제기하였다. 구체적인 세부까지 펼쳐보이느라니 시간이 길어졌다.

정시명의 말이 끝나자 좌중이 흥성거리였다. 기쁨과 찬탄의 목소리가 튀여나왔다.

《승산이 있는 싸움입니다. 고도의 책략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성입니다.》

안지생이 막혔던 숨구멍이 열린듯 기쁨에 겨워 환영해나섰다. 안지생은 젊음이 발산하는 기백과 용기도 있지만 어디서나 대상을 가림이 없이 자기의 주장을 꺼리낌없이 내놓는 성격이다.

《현실성도 있습니다. 저도 찬성입니다. 작전의 제 요소들이 과학적으로 제시되고 전술적세부들도 훌륭히 착상되였습니다. 그대로 밀고나갑시다.》

김명호도 선뜻 지지해나섰다. 그런데 생각에 골똘해있던 길철이만은 《전 좀 의견이 있습니다.》 하고 나섰다.

정시명이 기탄없이 말문을 활짝 열라고 고무해주듯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작전대상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지 않는가싶습니다. 상대가 김구나 김규식인 조건에서 그들이 만약 우리의 전술적의도를 포착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항차 그들과의 사업을 그런 방식으로 벌리는것이 도덕적인것이 되겠는가 이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상정되는가. 그건 우리가 공산주의자들인 까닭입니다.》

길철은 자기의 주장을 짤막한 설명으로 마치였다.

정시명은 그의 불만이 대뜸 리해가 되였다. 길철은 역시 머리회전이 빠른 지휘관이다. 문제포착도 빠르고 그에 대한 론거도 재빨리 세울줄 안다.

김구나 김규식은 애국자들이다. 그런 인간들에게 그 어떤 뒤공작을 들이댄다는것이 그 인간들에 대한 우롱일수 있다는것이다.

옳은 지적이다. 정시명도 생각해두었던바다. 길철의 말이 옳다.
정시명은 고개를 내저으며 새삼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길철은 깨끗한 인간이다. 공산주의자이기때문에 리념도 원칙도 도덕도 방법도 투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것이다.
그는 깨끗한 인간이다. 생활도 깨끗하다. 애인을 곁에 두고도 그는 그 깨끗한 마음때문에 고민이 크고 간격을 좀체로 좁히지 못하고있다. 그들의 문제는 이미 지휘부모임에도 상정되였다.
《길철동지는 옳지 않다. 혜숙동무가 돼가는 꼴 보라. 긴세월을 넘어온 애정을 버린다는게 사실인가?》
어느 회의뒤끝에 안지생이 이렇게 격렬하게 터쳐놓았다.
안지생은 권혜숙을 자기밑에 두고 사업하고있다. 그 녀자의 변해가는 모습에 마음을 쓰다가 끝내 그들의 사랑에 균렬이 생겼다는것을 알아냈던것이다. 그는 어느날 용기를 내여 길철을 만났다. 재결합을 호소했으나 길철은 요지부동이였다.
정의감이 강하고 속대가 야무진 안지생이 전우들의 사랑의 비극앞에서 침묵을 지킬리가 만무하였다. 그래서 이날 들고나선것이다.
김명호도 김증원도 그 소리가 금시초문이여서 벙벙해졌다. 안지생과 길철을 번갈아볼뿐이였다.
그게 안지생에게는 더욱 열을 오르게 했는지 인차 빠른 말씨로 총알같이 쏘아갈기기 시작했다.
《아니, 모두들 모르고계시였습니까? 이럴수가 있습니까. 혜숙동무는 말을 안합니다. 그러나 분명한것은 길철동지가 이 문제에서 책임이 있다는겁니다. 사랑의 파멸을 놓고 울고있는쪽에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까.
난 지휘부가 이 문제를 정식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난 길철동지를 물론 존경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놓고서는 단단한 착오가 있다고 봅니다.》
안지생의 열기오른 소리에 길철이 대척이 없이 창밖으로 꼿꼿이 눈길을 보내는데 그를 지켜보는 전우들의 눈길이 여느때없이 차거워졌다.
정시명은 안지생이 너무 서뿔리 불질을 했구나싶으면서도 이

왕 헤쳐놓은 일이라 잠자코있었다. 차라리 속에 맺혀 커만 가던 종처를 활 터쳐놓은게 시원스럽다.

《길철동무, 어찌된 일이시오? 뭐 동지간 륜리문제이니 간섭한다고 섭섭히 생각말고 함께 의논해봅시다.》

김명호가 자못 안타까운 어조로 권고하였다.

그러나 길철은 한번 그에게로 고개만 돌렸을뿐 여전히 창밖만 내다본다.

잠시 방안에는 무겁고도 침울한 분위기가 서려있었다.

김증원이도 침묵이 괴로운듯 《어험.》 하고 헛기침을 크게 한번 하고는 자기의 립장을 밝혔다.

《우린 사람들을 이끌어주어야 할 남다른 일감을 가지고있다고 봅니다. 사랑에 대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가 한 인간의 가슴에 설음을 주고 원한을 남겨놓는다면 어찌 자기들을 혁명가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기를 바라겠습니까.》

그 소리에 길철이 흠칫 놀라며 서서히 전우들을 일별하였다. 그 눈길이 정시명과 교차되였다. 정시명이 그를 격려하듯 고개를 끄덕여보였다.

《리유가 별거 아닙니다. 전 사실 녀자가 있는 사람입니다.》

《??》

그 소리에 다들 와뜰 놀랐다. 누구나 처음 듣는 소리다. 그렇다면?… 길철이라는 인간의 면모는 다 허위였는가?… 정시명도 놀랐다. 숨이 가빠왔다.

그러나 다시 안지생이 그 말이 떨어지기바쁘게 맵짜게 반박했다.

《길철동지! 왜 자신을 그렇게 낮추십니까? 해방전에 사귀였던 첫 애인이 대전감옥에서 옥사한걸 제가 모르는줄 아십니까. 그거야 혜숙동무도 잘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안지생의 소리에 정시명은 막혔던 숨이 후— 나갔다.

(그런 일도 있었군.)

오히려 가슴안이 달아올랐다.

생활에서나 사업에서나 구김살 하나없이 지내는 길철에게 그렇게 뼈가 저린 아픔이 있었다는것이 선뜻 믿어지지 않는다.

하긴 저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언젠가 길봉례가 하는 말이 왜놈법정이 1심에서 사형을 판결하고 3심에서 종신징역을 선고했을 때도 하루 세끼 게눈감추듯 해서 간수들의 눈이 떼꾼해지군 했다 한다.

그런 길철이기에 지금도 웬간한 사람이라면 주접이 들었을 화제거리에 오르고서도 의연한 자세를 잃지 않고있는것이다.

길철이 다시 말을 이었다.

《그리고 리유가 또 있소. … 좋습니다. 조직앞이라 제 생각을 솔직히 털어놓겠습니다. … 난 혜숙이와 열두살차이가 있는 아바이총각입니다. 이것이 기본리유이지요.》

그 소리에 갑자기 좌중에서는 웃음이 터졌다. 아바이총각이라는 소리가 모두의 긴장했던 마음의 끈을 탁 늦춰주고 웃음주머니를 흔들어놓았던것이다.

좌중의 웃음이 잦아들자 김명호가 말을 받았다.

《그게 무슨 리유란 말씀이시오? 혜숙이 좋고 나 좋으면 다지 어쨌다는거요?》

그 소리에 또다시 웃음이 넘실거렸다. 정시명도 즐거운 기분이다. 대수롭지 않게 길철의 맺혀있는 생각을 무시해버리려는 김명호의 스스럼없는 태도도 마음에 든다.

리론으로 말하면 어디에 내놓아도 견줄이가 없는 명석한 김명호가 사랑관에서는 상상밖으로 단순하고 통속적이다. 오히려 거기에 심오한것이 있는지 모른다.

김명호의 말에 방안의 분위기가 다시한번 크게 눅쳐들었다. 그 무슨 복잡하고 심각한 리유가 나설줄로 짐작하고 은근히 가슴을 조였는데 김명호가 그렇게 우스개소리처럼 풀어놓으니 얼마나 쉽고도 흥겨워졌는가.

그러나 다시 이어가는 길철의 주장은 단호하고도 열렬하였다.

《아니, 아닙니다. 사랑에서도 량심을 어겨서야 안되지요. 젊은 시절에는 이런 생각없이 친해졌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애초에 이성으로 사귀지는 말았어야 했지요. 나는 지금 숱한 조직성원들을 책임지고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이렇게나저렇게나 비웃음을 사

거나 말밥에 올라서는 안될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공산주의자란 아무데서나 어느모로 보나 선한 웃음을 사야지 않겠는가. 인간은 깨끗해야 합니다. 깨끗한 인간만이 공산주의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혁명에 뛰여들어 이날이때까지 목격했던 생활의 결론입니다.

도덕적인 저렬아가 혁명앞에 깨끗이 사는걸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정향동지나 김명호동지를 존경합니다. 다섯살이나 우인 녀인을 그지없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같으면 딸같은 녀성을 맞아들여서야 되겠습니까. 난 자기에게 어울리는 녀성을 선택하게 될것입니다. 혜숙이도 자기에게 어울리는 그런 남성을 선택하게 될것입니다.

나를 투쟁에서나 사랑에서나 깨끗한 인간으로 남게 해주십시오.》

단호한 그의 선언에 좌중에 설레던 웃음은 터졌던 그 본새로 삽시에 사라지고 정시명도 안지생도 목이 꺽 메고말았다. …

아직도 그들의 문제는 락착을 짓지 못하고있다.

권혜숙이를 만나보고온 사람들이 다 좋지 않게 말들을 한다.

…길철이 리유가 어쨌든지 무정하다. 권혜숙에게서 웃음이 사라졌다. 얼굴이 여위여간다. 대책을 세우자. …

아직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그러나 정시명은 저 인간의 깨끗함을 사랑한다.

그들의 사랑이 열매를 맺게 되리라는것도 의심하지 않는다. 길철이도 권혜숙이도 새로운 사랑을 찾지 못하리라고 믿는다. 사랑은 결코 론리로써는 해석될수 없다.

좀더 뜸을 두어보자. … 정시명은 이렇게 벼르고있다.

길철은 언제나 한본새다. 그에겐 한숨이 없다. 최남수 일이 그 실례다. 실패는 했지만 언제한번 의기소침하지 않고 여전히 공격정신으로 활동한다.

요즈음에 와서 최남수와의 사업을 재개하겠노라 하는걸 정시명이 당분간 좀더 지켜보자고 했다. 북남회담문제에 집중시키기 위해서였다. 지내볼수록 투사다운 기질이 물씬 풍기는 사나이이다.

그는 지금 이 순간도 길철의 인간의 진가를 재확인하면서 자기 방안의 허점을 곰곰히 따져보았다.

방안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런데 김명호가 반론을 제기하였다.

《길선생, 난 선생의 뜻이 일리가 있다고 보오. 그런데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농사군은 풍년을 마련하기 위하여 궂은일을 가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입니다. 국토가 쪼각이 나는 이 준엄한 상황에서 그 무슨 체면과 륜리로 해서 반통일적행위에 푸른 신호등을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최고도덕과 량심은 현시점에서 민족의 단합입니다.》

그때 똑똑 하는 기척소리가 가볍게 들렸다.

김명호는 말을 잠시 끊었다.

문앞에 앉아있던 안지생이 문을 여니 례영이 다반을 들고 방그레 웃는다.

《어서 들어와요. 에, 그러지 않아도 목구멍이 텁텁해서 누님 어디 가셨나 화내고있던 참이였는데…》

안지생이 방안의 탁한 공기를 눅쳐주듯 엉너리를 치며 반기였다. 안지생은 마동열을 생각하여 동생벌 되는 례영을 누님이라 깍듯이 공대해온다.

례영은 안지생의 익살을 가벼운 미소로 받아들이며 참가자들앞에 말없이 차잔을 놓아주고는 조용히 방안을 나갔다.

《자, 목을 추깁시다. 식기 전에.》

정시명이 먼저 더운 차를 훌훌 불며 마셨다.

모두가 그를 따라 차를 마시였다.

그런데 김명호만은 차잔을 들념을 하지 않고 방금 례영이 사라진 문쪽만 우두커니 지켜본다.

《계속하시오, 김선생.》

정시명이 독촉해서야 김명호가 눈길을 거두고 차잔을 잠간 입술에 대였다뗐다. 다시 잇는 그의 목소리는 보다 격조가 높아진듯 하다.

《동지들! 분렬의 비극은 벌써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몸가까이

에 현실로 다가와 눈물을 짜내고있소. 저 례영의 머리를 보시오. 제 손으로 틀어올린 저 머리를…》

왕청같은 이야기를 꺼내놓고는 고개를 푹 떨구는데 울대가 크게 움씰거렸다. 뜻하지 않게 터놓은 이야기가 순간 모두의 가슴에 비분의 모닥불을 확 지펴놓았다.

잠시 방안에는 엄숙하고도 다치면 터질듯한 팽배한 정적이 드리웠다. 모두의 숨소리만 크게 들릴뿐이였다.

김명호는 손수건을 꺼내여 이마에 돋은 땀발을 지우고는 안경을 벗어 닦았다. 평시에 그다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가슴에 깊숙이 묻어놓고사는 과묵한 사람이 격정을 터뜨리니 그 열도가 배가 되여 청중의 가슴속을 되게 달구어놓는다.

정시명도 가슴이 뭉클해왔다. 례영의 틀어올린 머리를 볼 때마다 눈뿌리가 뜨거워지군 하였지만 김명호의 입에서 그 얘기를 듣고보니 더욱 그 의미가 젖어든다. 도미섬에서 제 손으로 쌍태머리를 썩둑 자르고 동열을 떠나보낸 그 눈물겨운 정상이 눈에 밟혀왔다.

《그래, 우리가 이런 비극을 씻고저 하는 력사적인 대결의 상황에서 개개 인물들의 체면이나 봐주고 도덕과 륜리에 얽매인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승자박이 아닐가요.

더구나 정동지가 여러번 말씀하셨지만 그네들이 련공의 길에 올라 나라와 민족의 단합에 한몫을 할 때의 인간상을 그려봅시다. 그 자신들을 위하여서도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우리는 이 나라의 애국자동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다시금 정동지의 전술방안을 지지합니다.》

김명호는 마지막에는 한결 가라앉은 소리로 차분하게 강조하였다.

방안은 다시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통일을 우리 시대의 최고도덕이라고 서슴없이 선포한 그의 토론이 참가자들에게 깊은 공감과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그가 토해놓은 뜨거운 열풍이 모두의 심장과 심장에 세찬 격류가 되여 사품

치고있었다.

한동안이 지나서야 김증원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김증원은 이 좌석에서 제일 몸이 좋고 풍채가 있는 사람이다.

그는 지휘부회의에 이제까지 세번 참가하였다. 매번 묵묵히 듣기만 하고 발언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매번 새롭고도 후더운 충격과 수양과 지식을 받아안군 한다.

파쟁과 정권쟁탈과 친미매국으로 엮어지는 《한민당》의 수많은 밀회에 참가해오는 김증원에게서 여기 흥국상회의 모임은 너무도 대조적이였다. 애국으로 피가 뛰고 겨레와 나라의 장래에 대한 책임감으로 사무쳐있는 이 순결하고 깨끗한 인간들의 모임광경이 언제나 눈물겹게 새겨진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겨레의 운명에 대한 신성한 사명감을 부여안고 슬기롭게 작전을 펼쳐가는 정시명과 그의 전우들에게 열번백번 절을 올리고싶은 충동을 금할수 없었다.

그래서 《동지들! 난 력사앞에서 스스로 걸머진 사명을 위해 깨끗하고 헌신적인 좋은 말씀들을 해준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고 마치도 모임에 초대된 방청객처럼 서두를 뗐다.

그는 잠시 달아오른 마음을 식히려는듯 두손을 맞잡고 꾹꾹 주무르다가 토론을 계속하였다.

《나는 물론 정선생님의 작전방안이 훌륭하게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지지토론들도 원칙적으로 옳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역시 길선생의 견해도 무시할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전술적으로 타당성있게 착상되고 총적방향이 명확한 성공의 가능성을 주고있는 작전안이 무시하기 어려운 장애에 부닥치게 되였는가.

나는 여기에서 작전의 목표물, 사업의 대상선정이 새롭게 선택되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김증원은 여기서 말을 끊고 좌중을 한바퀴 둘러보고는 자리에 앉았다.

정시명은 그가 문제의 정통을 찌르다가 도중에서 입을 다물어버리는것이 이상스러워 그에게 토론을 계속하라는 눈짓을 해보였

으나 당자는 더는 일어설념을 하지 않는다.

정시명은 잠시 휴회하자고 하고는 곰방대에 담배를 다져물고 뒤뜰에 나왔다.

(옳다. 그들의 말이 다 옳다.)

정시명은 제기된 문제들에 이렇게 공감하며 달빛이 깔린 뜰안을 조용히 거닐었다.

사업대상선택을 달리한다?… 어떻게?… 그래… 가만, 그 말이 일리가 있다. 우리의 싸움은 미국놈들과의 대결이다. 그러니 마땅히 사업대상이나 목표가 김구나 김규식이 돼서야 안되지. 그들은 애국의 길에 함께 나선 우리의 린접이다.

가닥이 잡혀왔다. 그는 사색을 이어갔다.

(사업의 목표는 북남회담의 실현이다. 북남회담에서 최대의 걸림돌은 미국놈들이다. 그와 야합한 리승만세력이다. 그러므로 사업대상은 그놈들이 돼야 한다.

우리의 작전은 그놈들의 책동을 분쇄하는것으로 일관되여야 한다. 김구는 마땅히 우리와 같은 참호에 나서야 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모든것이 일순간에 단순해졌다. 이미 세워진 전술적대안들을 북남회담을 파탄시키기 위해 집요하게 도전해올 미국놈들과 반동들을 타격하는 방향으로 풀어나가면 된다.

정시명은 회의가 계속되자 이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제기하였다.

김구나 김규식이 북남회담에 응해나선 이상 회담성사와 관련한 전술적대책들을 일정한 시기에 가서 다 알려주자고 제안하였다.

초저녁에 시작된 모임은 새벽녘에야 끝났다.

정시명의 제안은 그대로 사업방안으로 결정되였다. 그런데 모임이 끝날무렵에 례영이 종이장처럼 해쓱해진 얼굴로 나타났다.

그가 전하는 소식은 너무도 불길한 소식이였다. 박정인의 아들 박영수가 체포되였다는것이였다.

충청남도의 도청총무과장인 박영수의 체포소식에 모임참가자들은 깜짝 놀랐다.

정시명은 아닌밤중 홍두깨에 뒤통수를 얻어맞은듯싶었다.

박영수는 송호정과 빨찌산과의 련락을 담당하는 제일 예민한 임무를 수행하고있었다. 정시명은 김명호와 길철이만 남도록 하였다.

3

이 소식을 가지고 박영수의 처가 만삭인 몸으로 시집의 큰 대문을 두드린것은 어뜩새벽이였다.

그가 들고온 소식은 삽시에 대궐집 높은 담장안을 무섭게 휩쓸어놓았다.

박영수가 잡히고 한무리의 경찰들이 박영수의 집을 습격하여 살살이 뒤지고 돌아갔다는 며느리의 말에 박정인도 주씨도 크게 놀랐다.

주씨는 엉엉 울기부터 하였다.

박정인은 흙빛이 되여 방바닥에 주저앉아있다가 부둥켜안고 울고있는 마누라와 며느리에게 꽥 소리질렀다.

《됐다! 청승맞게 울기는 왜 우는거야? 난 왜놈때 그놈들과 맞불질을 하다가 경찰서에 처가집나들듯 했어도 이렇게 눈이 시퍼래 살아오지 않았느냐. 영수가 죄졌으면 무슨 큰 죄를 지었겠느냐. … 그래 경찰놈들이 집에 와서 뭘 찾더냐?》

《모르겠습니다, 아버님. 그저 방을 수색하고… 책장이랑도 뒤지였습니다.》

며느리가 울음을 씹어삼키며 가까스로 대답하였다.

《그래서?》

《집에 손님들이 찾아오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뭐 손님이 온게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전에 왔던 마아저씨와 례영아가씨가 떠난 후에는 집에 누구도 온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애기는 꺼내지 않았느냐?》

《안요.》

《잘했다. 너무 소란을 피우지 말고 낮차로 내려가있거라. 나도 인차 따라가겠다.》

박정인은 이렇게 꾹 눌러놓고는 두루마기를 찾아 걸치고 집을 나섰다. 대문을 나서는데 마침 첫 전차가 정류소에 들어섰다.

박정인은 빠른 걸음으로 가서 무작정 전차에 올랐다. 당장은 지휘부에 소식을 전해야 할것 같다.

새벽차여서 전차안은 조용하였다.

박정인은 주먹에 턱을 고이고 생각에 잠겼다.

(어쩌다가 잡혔을가?… 그동안 그녀석이 무슨 일을 맡았을가? 정선생님이 소식을 들었을가?)

자기가 왜놈헌병대에 끌려가 체험했던 무서운 광경들이 주마등처럼 눈앞에 얼찐얼찐 비껴갔다.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뼈마디가 오싹오싹해진다.

《아ㅡ》

그는 저도모르게 신음소리를 냈다. 형틀에 오른 아들의 피투성이 된 광경이 련상되였던것이다.

(영수가 견디여낼가? 그앤 매 한번 맞지 않고 배고픈 고생도 모르고 고이 자라난 애다. 저놈들의 행패를 견뎌낼가?…)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속이 졸아들던 박정인은 부지불식간에 뇌리를 휘감는 또하나의 걱정에 소스라쳤다.

(그애가 고문을 이겨내지 못하면 큰일이다. 이럴 때는 나 죽었소 하고 입을 다물어버려야 죄도 덜고 피해도 적겠는데 이게 큰일이구나. 일찌감치 다짐을 두어야 되는건데 정말 큰 야단이구나.)

박정인은 두손으로 머리를 싸쥐고 또다시 크게 신음소리를 냈다.

(그애 입이 열리는 날이면 뭐니뭐니해도 지휘부가 야단이다. 정선생부터 걸려든다. 아니, 그래서는 안되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라구.

김장군님께서 알고계시는 그 사람들을 저 귀축같은 놈팽이들에게 넘겨줘서는 안돼.

영수야, 견뎌다오. 견뎌다오. … 아아, 이 일을 어쩌노. …)

줄곧 이런 생각에 잠겨 아들과 마음속으로 불같은 이야기를 나누고있던 박정인은 누가 어깨를 가볍게 치는 바람에 흠칫 몸을 떨며 고개를 들었다. 전차 차장처녀가 눈이 올롱해서 내려다본다.

《어째서?》

박정인은 화가 났다.

《종점에 다 왔습니다.》

처녀가 해시시 웃는다.

《벌써?…》

박정인은 두리번거렸다.

전차안은 텅 비여있었다. 승객들이 다 내린것이다. 희붐하게 밝아오는 새벽빛속에 서울역사가 번뜻 눈에 띄였다.

《아, 미안하구만. 내가 그만 깜빡 졸다가… 이거 미안한데 난 을지에 다시 가야 한다우. …》

《을지에요?… 호호… 그게 어디라구. 그럼 내리지 마시고 여기 계세요. 우리 전차가 인차 돌아섭니다.》

처녀가 싹싹하게 굴었다.

(차장처녀들의 입살이 드세기로 소힘줄같다더니 실없는 입방아질들이였군.)

박정인은 이렇게 고마와하며 고개를 끄덕여보이고 그냥 앉아있었다.

전차는 다시 덜커덩거리며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박정인은 을지에서 내려 곧장 서병남의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서병남의 집 솟을대문을 멀리서 띄여본 박정인은 문득 떠오른 생각에 발목을 잡히였다. 지난해 가을에 림인준이 경찰을 달고 집에 달려들어 지휘부를 곤경에 빠질번 하게 했던 일이 떠올랐던것이다.

(이거 내가 환장을 했나. 독립군노릇 헛했지. 지금쯤은 경찰놈들이 남몰래 뒤따르고있다는걸 생각해야지. 정신을 차려. 애녀석 잡힌게 무슨 큰일이라구 멍청해서 돌아가.)

박정인은 자기의 처사에 울컥 화를 내며 돌아섰다.

다시 전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나갔다.
역대기실에서 서병남의 집에 전화를 걸었다.
《박사장올시다. 식전에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저쪽에서는 서병남의 처가 전화를 받았다.
《사장님, 안녕하셨습니까? 주인을 바꾸어드리겠습니다. 밖에 나가계십니다.》
서병남은 온밤 계속된 지휘부의 모임을 지켜주느라고 대문간에 나가있었다.
《아니, 그만두십시오. 례영이를 깨워서 여기 보내주십시오. 곧 말입니다. 내 지금 역전에 와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차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한시간쯤 지나서 례영이가 역전앞마당에 나타났다. 박정인은 나들문옆에 서서 전차정류소쪽을 지켜보다가 례영이 나타나자 《례영아, 나 여기 있다.》 하고 큰소리로 부르며 마주걸어나갔다.
《큰아버님, 그동안 옥체건강하셨습니까.》
례영이 나부시 허리를 굽히는데 박정인이 지금 그 인사를 받아줄 계제가 못되였다.
박정인은 그의 손을 잡고 역전공원으로 끌고갔다.
《이거 야단이 났구나. 얼른 가서 아버님께 전해드려라. 우리 영수가 잡혔단다.》
《영수오빠가요?》
박정인이 전례없이 황황해하는 거동에서 그 어떤 심상치 않은것을 예감했던 례영이는 뜻밖의 소리에 화들짝 놀라 새된 소리를 냈다.
《저걸, 어쩌나?… 어째서 체포되였답니까?》
《글쎄, 크게 걱정할것 없다. 체포리유는 모르겠다. 나도 얼른 대전에 내려가겠다.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집에 계시더냐?》
《예, 밤을 새며 회의를 했습니다.》
《음, 전일에 미국놈들과 또 크게 붙어볼 일이 생겼다구 하시더니… 일은 참 맹랑해졌는데… 하여튼 전해라. 당분간 피해계시라구.》
《피해계시라구요?》

례영이 뜨아한 표정을 짓자 박정인이 목이 갈린 어조로 설명했다.

《너도 그애를 몇번 보지 않았느냐. 영수는 아귀가 세지 못해. 그러니 저놈들의 행패를 견디여낼상싶지 않구나. 어쩌겠니. 아버님께 다들 피해달라구 말씀드려라.》

《알겠습니다, 큰아버님.》

《어서 가봐라. 어서!》

례영이 먼저 돌아가자 박정인은 그제야 한가지 시름은 덜어놓은듯 저으기 속이 가벼워졌다.

그는 고려상사로 향하였다. 집에 돌아갔댔자 마누라의 눈물겨운 정상을 마주해야겠는데 그게 더 가슴에 저려드는 일이다.

사무실에 들어가 장부책을 꺼내놓았으나 도무지 생각을 가다듬을수가 없었다. 글줄을 조금 더듬느라면 인차 영수의 얼굴이 나타나 책장을 꽉 메운다. 눈을 감아버리면 아들의 살점을 물어뜯는 채찍소리가 귀청을 찢는다. 박정인이 한시간이 지나도록 종시 마음을 진정할수 없어 주전자를 들고 화분에 물을 주기 시작하는데 례영이 불쑥 나타났다.

《네가 어떻게?》

박정인은 방금 헤여진 례영이였으나 이렇게 다시 나타난것이 반가왔다.

《아버님이 선생님을 모셔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가자.》

박정인은 책상우에 펴놓은 장부책을 서류함에 넣고 두루마기에 팔을 꿰며 문지방을 넘어서려다가 돌아섰다.

《안되겠다. 선생님께 일러드려라. 어서 몸을 피하라구. 내가 괜히 이런 청을 드리는게 아니다. 어서 돌아가서 단단히 말씀드려라.》

례영이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종잡을수 없어 머뭇거리는데 박정인이 버럭 성을 냈다.

《어서! 너두 알지 않느냐? 영수 입이 터지면 그 파편이 어데부터 날아들것 같으냐. 이것부터 생각해서 너희들이 잘 조처해야지.

내 지금 가서 직접 말씀올리고싶지만 저놈들이 분명 날 따라다닐것 같아서 못가겠다. 어서 돌아서거라.》

이렇게 분연히 꾸짖은 박정인은 도로 두루마기를 옷걸이에 걸어놓고 장부책을 다시 꺼내놓았다.

례영은 그 소리에 쫓기듯 물러나다가 《그럼 큰아버님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고 물었다.

《나야 이제 숨는다고 솟아날데가 따로 있겠느냐. 여기 일을 정리해놓고 저녁차로 대전에 가보겠다. 내가 자리를 뜨면 저놈들이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릴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구 너도 다시는 여기 얼씬 말아라.》

박정인은 례영을 보낸 다음 해종일 사무실에 붙박혀있었다.

저녁시간이 가까와오자 사원 하나를 역에 보내서 대전행 차표를 끊어오도록 하였다.

그는 사무실을 깨끗이 정리해놓고는 조직성원인 부사장방에 가서 대전아들집에 가서 며칠 묵고오겠노라고 말했다.

그리고나서 문을 나서는데 언제 왔었는지 례영이 문밖에서 기다리고있었다.

《례영아, 웬일이냐?》

《아버님이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대전에 가시지 말고 집으로 오시랍니다.》

《그럼 정선생님이 여적 집에 계신다는거냐?》

《예. …》

《아침에 내 한 말 전해드렸니?》

《예.》

《그런데두?… 챠, 이거 정말 야단이구나. 좋아, 빨리 가자.》

박정인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례영이를 앞세우고 허둥지둥 큰길에 나섰다.

그는 전차를 여러번 갈아타면서 미행이 붙지 않았는가를 확인하군 하였다.

례영은 박정인의 각성에 크게 깨단는바가 있어 그를 서병남의 집 뒤뜰안에 있는 비상문으로 안내하였다.

정시명의 방에서는 길철과 김명호가 불길한 소식에 접하여 협의를 하고있었다.

박정인은 자기에게로 눈길을 보내는 정시명과 동지들을 보자 인사도 없이 책망조로 말했다.

《어째 다들 이러고계십니까? 그리고 나도 여기 들어서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섰습니다.》

정시명이 입가에 미소를 담으며 침착하게 말했다.

《박선생님, 례영이에게서 들었습니다. 너무 마음쓰지 마십시오. 영수가 어제 잡혀갔다니 아직은 서울까지는 눈돌리지 못할겁니다. 치안국에 아직 보고된게 없다고 합니다.

빨리 손을 써야겠습니다. 그래서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좀 생각해봅시다.》

《뭐 길게 생각하실게 있습니까. 우리 애는 내가 두루 뒤공작을 해보겠으니 선생은 이에 관여마시고 당분간 서울을 떠야 합니다. 난 길선생과 김선생에게 이걸 제기합니다.》

《서울을 뜨라고요?… 내가?…》

《정선생두 우리 애를 잘 아시지 않소. 그앤 며칠을 견디지 못합니다. 내 이런 일을 당하고보니 3대외독자라 손끝에서 기름발리워 키워온게 여간 후회되지 않습니다. 그앤 화분에서 자라난 봉선화처럼 여립니다. 찬바람 한번 불어도 흐무러져내릴 판인데… 애비가 제 새끼 됨됨이야 잘 알지요.》

박정인은 주런이 앉아있는 전우들을 번갈아보며 곡진한 어조로 부탁하였다.

김명호와 길철이 그의 눈길을 슬며시 외면하는데 박정인의 손목을 말없이 꼭 잡는 정시명의 눈에 뜨거운 신뢰와 감사의 정이 함뿍어린다.

웬만한 사람같으면 우리 애를 구원하여달라고 하소연해오련만 이 인간은 지휘부에 들이닥칠 위험부터 생각하고 정을 쏟고있다.

이런 고마운 인간의 저 고결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넋을 어찌 저버릴수 있으며 저런이의 슬하에서 몸과 마음을 키워온 혈붙이를 어찌 못미더워 할수 있겠는가. 그거야말로 인간에 대한 모욕이고 배신이다.

사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협의를 하면서 길철도 김명호도 정시명이만은 즉시 서울을 떠나있을것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정시명은 강하게 부정하여나섰다. 서울을 떠날수 없는것은 첫째로 금방 벌려놓은 대정치전을 놓고 한시도 투쟁무대에서 내릴수 없다는것이다. 둘째 리유는 전우에 대한 믿음을 그렇게 쉽사리 버리는것이 될 말이냐는것이다. 정시명은 박정인의 말을 들으면서도 자기의 결심을 더 단단히 굳히였다. 그는 침착한 어조로 물었다.

《그렇게 아드님을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아니, 아니올시다. 이건 제 아들녀석을 믿고 못믿고 하는게 아니지요. **김일성**장군님의 웅지를 받들어 통일대업을 밀고나가는 지휘부의 운명문제이지요.

그리고 내 재삼 말씀드리는데 그녀석 실언을 할가봐 그게 두렵습니다. 우리 가문이 나라를 합쳐가는 의로운 길에서 욕된 일을 남기지 않도록 해주시오. 정선생은 이래서는 안됩니다.》

《아니요. 나는 피신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영수를 믿습니다. 선생님은 영수의 어진 마음을 념려하는데 나는 그 어진 마음을 가진 영수동무에게 정이 갔습니다. 그리구 차라리 믿다가 피해를 보는게 맘편한 일이지 지금부터 영수의 속대를 저울질하는것은 내가 그애를 배신하는것입니다. 나는 동지들의 배신을 받으면 받았지 내 먼저 전우들을 배반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정선생님!…》

《박선생님, 나를 자꾸 막바지로 몰아대지 마십시오. 나는 영수때문에 자리를 옮기지는 않겠습니다. 자, 길철동무, 김창기동무더러 무조건 시급히 박영수구출작전에 착수하라고 하시오.》

정시명은 길철에게 돌아서며 단호하게 명령하였다.

《알았습니다.》

정시명의 새로운 면모앞에서 후더운 감명을 받고있던 길철은 침을 꿀꺽 삼키며 힘차게 대답하였다.

다가든 위험앞에서 정시명이 전투좌지를 옮기지 않겠다고 하는것은 단순한 객기나 모험이나 고집이 아니였다. 그것은 동지

에 대한 헌신적사랑이며 인간의 고귀함에 대한 무한한 신뢰였다.
그것은 혁명에 대한 투철한 자각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가진 혁명가들만이 엮을수 있는 심장의 찬가였다.
(내가 만약 잘못되는 경우에도 저 인간은 저렇게 철석같은 믿음을 가지고 바위처럼 버티고 설것이다. 저런 인간을 배반한다는것은 무서운 죄악이다.)
길철은 제가 금시 철창속에 있는듯이 느끼며 영수의 몫까지 합쳐 심심히 고마움을 표시하고싶었다.
《먼저 영수가 무엇때문에 잡혔고 어디에 갇혀있는지 알아내란 말이요. 그다음에는 기회를 잘 조성해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벼락처럼 해내란 말이요. 정 바쁘면 김창기조직을 통채로 3국에 탈출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영수를 빼내야 하오.
그까짓, 감옥을 통채로 날려도 좋소. 원래 대전형무소는 일정때부터 애국자들의 피로 젖어있는 곳이요. 감방을 들부셔도 좋소. 제일 좋기는 서울로 이송하도록 만들어놓고 길목을 지켰다가 해보오.》
정시명은 두눈에 불을 달고 분노를 금치 못하며 명령하였다.
《알겠습니다. 영수동무를 꼭 안전하게 구출하겠습니다. 박선생님, 너무 념려마십시오. 우리에겐 그럴 힘이 있습니다.》
길철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정인에게로 다가가 그의 손목을 잡았다.
《길선생, 이거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이 바쁜 대목에 여러분들께 큰 부담을 끼쳐서…》
《원, 그런 말씀 거두십시오. 이게 어디 박선생님네 집안에 한한 일입니까. 미국놈들과의 통일성전에 바쳐진 우리 동지의 생사에 관한 문제이고 우리의 량심에 관한 문제이지요. 사장님을 너무 괴롭히지 마십시오. 우리도 방금전에 정신이 들게 욕을 먹던 참이였습니다.》
길철은 다시금 그의 손목을 크게 흔들어주고는 벌씬 웃음까지 남기고 방에서 나갔다.

《김선생은 〈13정당협의회〉를 바싹 끌어당겨야 하겠소. 백범이 동요하지 않도록 측면지원을 강화해야 하오. 김구선생의 당지도부가 린접이 굳건하다는것을 알도록 소속된 정당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울려야겠소. 뭘 제기할건 없소?》

《없습니다. 토의된대로 하겠습니다.》

김명호도 박정인의 앞에 와서 너무 상심말라고 하고는 방에서 나갔다.

김명호까지 나가자 잠시 방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정시명이 곰방대에 담배를 다져넣고 연기를 피워올린다. 이윽고 박정인이 먼저 입을 뗐다.

《고맙습니다. 정선생, 그런데… 다시한번…》

《아, 아,… 그러지 마십시오. 방금 지휘부모임에서 결정되였습니다. 그러니 박선생님은 대전에 가시는걸 당분간 그만두십시오. 우리가 찾을 때까지 영수 어머님과 함께 동래온천에 가계십시오. 거기 온천주인이 우리 사람인데 길철동무가 인차 조직사업을 할겁니다. 이번 작전을 길철동무가 해낼겁니다. 선생님을 모셔온것은 지휘부의 결정과 지시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시명은 박정인이 또 다른 소리를 꺼낼가보아 실무적인 어조로 지휘부의 지시라는 말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반석같은 무게와 엄숙이 어린 정시명의 말에 박정인은 더는 어쩌지 못하고 자세를 바로 가지였다.

《그럼 전…》

박정인은 더 지체하다가는 정시명의 발부리에 엎드려 통곡이라도 터쳐놓을것 같아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정시명의 바래움을 받으며 서병남의 집뒤뜰을 나서자 그뒤에 있는 무성한 솔숲에 들어가 오래도록 꺽꺽 울다가 큰길에 나섰다.

그를 바래주고 방안에 들어선 정시명은 곧 새로운 일감에 달라붙었다. 북남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지휘부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첫 포성이였다.

그는 천천히 써내려갔다.

김구와 김규식에게서 받은 편지에 대한 회답이였다.

《고견을 높이 평가합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결심을 피력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바입니다. 경의를 표하면서.》

정시명은 회답을 례영에게 들려 안지생에게 보내도록 하고는 곰방대에 다시 담배를 다져넣고 밖으로 나갔다. 박영수의 해말쑥한 얼굴이 그냥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박정인의 이야기들이 귀전에 다시 들려온다.

그의 이야기가 맞다. 너무 고이 자라난 호부자자식이다. 단련도 되지 않은 너무 무른 사람이다. 화분에서 자란 봉선화라… 비바람을 한번 맞아도 꽃잎이 흩날리는 봉선화…

정말 그를 믿고 이렇게 자리를 지킬수 있을가? 이것이 조직책임자로서 옳은 처신일가? 내가 너무 주관에 빠져 모험하는것이 아닐가?

조직이 지금 시작한 싸움은 거창하다. 적어도 나라와 겨레의 운명과 직결되는 싸움이다. 이 엄숙한 시기에 조직책임자가 하나의 커다란 모험을 할 권리가 있는가? 모험이라?… 김명호가 말했지. … 아니, 아니 이것은 모험이 아니다.

인간에 대한 믿음이 없는, 동지에 대한 사랑이 없는 적구투쟁이야말로 모험이다. 이것은 혁명가를 혁명가라고 부르는 근본적인 품성과 징표에 관한 문제이다.

정시명은 박영수를 앞에 세워놓기라도 한듯 나직이 부르짖었다.

《영수, 난 너를 믿는다. 너의 어진 마음을 믿어. 방금 너의 아버지에게 내가 차라리 너의 배신을 받는게 낫지 내가 너를 배신하여 서울에서 도피하지는 않겠다고 하였다. 난 옳게 대답하고 옳게 처신을 한것 같다. 난 그렇게밖에 달리는 말할수 없었다. 동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이 어려운 싸움을 벌려나갈수 없어.

나는 너를 믿는다. 조금만 견디여다오. 조금만…》

제8장
사람이 사람이라 불리우는것은

1

박영수는 대전려관 제일 꼭대기층인 7층 10호실에 갇혀있었다.

문앞에는 충청남도 경찰청에서 나온 경찰 두놈이 걸상에 앉아서 방을 지키고있었다.

점심무렵에 도지사가 찾아왔다. 지금까지 일을 잘해왔는데 뭘 죄지은게 있으면 순순히 말하고 빨리 나와 업무에 나서라고 간지러운 소리를 하고 갔다.

그가 물러가자 박영수는 침대에 반듯이 누워 며칠새에 있었던 일들을 곰곰히 생각하였다.

일은 퇴근길에서 시작되였다.

박영수가 도청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집을 향해가는데 한대의 찦차가 천천히 따라오다가 옆에 와서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더니 《국방경비대》소위견장을 단 나이지긋해보이는 운전사가 얼굴을 반쯤 내밀고 《과장님!》 하고 나직이 불렀다. 그는 《국방경비대》총사령관 송호정의 운전사였다. 아마 도청맞은편 광장에서 그의 퇴근을 기다리다가 따라선 모양이였다.

박영수는 그가 불쑥 퇴근길에 나타난것으로 보아 송호정이 비상상면을 요구하는 모양이라고 판단했다.

송호정은 사관학교 재직반을 마친 후 요즘 남부도들에서 료원의 불길처럼 타번지고있는 빨찌산에 대한 《토벌》작전을 지휘할 과업을 받고 전주에 내려와있었다.

그는 한주일에 한번씩 운전사를 시켜 대전공원에 개설한 비밀함을 통해 박영수에게 《토벌》작전계획을 상세히 보내오군 하였다.

박영수는 그걸 받아가지고는 지리산빨찌산의 련락원인 보문산기슭에 있는 산전막로인에게 전달하여왔다.

송호정은 작전계획이 갑자기 변경되거나 불의의 정황이 제기되면 이렇게 운전사를 보내여 박영수를 각이한 방법으로 각이한 장

소에서 접선하여 직접 넘겨주도록 하였는데 이제까지 몇번 되지는 않았다.

운전사가 차의 뒤문을 열어주자 박영수는 얼른 차에 올랐다. 차는 쏜살같이 대전시내를 벗어났다. 운전사는 대전천을 벗어나자 차를 세웠다.

그리고 안주머니에서 자그마한 봉투를 내밀었다.

《그걸 읽어보십시오. 기억하고 불태워버리랍니다.》

박영수는 속지를 꺼내 몇번 훑어보고는 봉투채로 불태웠다.

《송선생님께 전하십시오. 이길로 보문산으로 간다고요.》

《그래요?… 날이 어두워지는데… 잠복이 있지 않을가요?》

운전사가 근심을 하였다.

최근에 반동들은 빨찌산과 인민들과의 련계를 차단하기 위하여 밤이 되면 산으로 통하는 길목마다 매복을 조직해놓고있었다. 거기에 걸려들어 벌써 여러명의 지방조직성원들과 빨찌산련락원들이 잘못되였다.

《그래도 가야지요. 나 권총이나 주시오. 걱정하지 마시오. 그저 수고스러운대로 날 보문산어귀까지만 태워다주시오.》

《예, 그럼 어서 떠납시다.》

차는 다시 보문산을 향해 질주하였다.

송호정이 보내온 자료는 한시도 지체할수 없는 긴급한 자료였다. 최근에 지리산빨찌산의 한 지대가 광서만으로 진출하게 된다는 정보가 《토벌대사령부》에 들어왔다. 이에 근거하여 송호정은 작전계획을 세운 다음 그에 대해 이미 빨찌산지휘부에 통보하였다. 그런데 오늘 점심무렵에 불의에 《토벌대사령부》에 도착한 하우스맨고문이 래일아침에 광주련대를 광서만으로 급파하도록 작전계획을 변경시켰다. 송호정의 련락을 받은 빨찌산지휘부는 이미 한주일후에 벌리기로 한 진출작전을 앞당겨 래일저녁에 하기로 하였다.

그러니 그대로 하면 빨찌산이 광주련대의 준비된 매복작전에 걸려들게 된다.

그래서 송호정은 광서만에 대한 진출을 포기하든가 작전을 뒤로

미룰것을 빨찌산지휘부에 제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빨찌산지휘부작전조의 부조장이 경비대정보국의 첩자라는것을 밝혔다. 지리산빨찌산지휘부는 박영수의 정보원천에 대해서는 모르고있었지만 그의 통보에 대하여 전적으로 믿고있었고 크게 도움을 받고있었다.

갓 창설된 빨찌산지휘부는 남부도들에 자연발생적으로 조직된 야산대를 비롯한 무장조직들을 집결하면서 끊임없는 애로와 난관속에서도 놈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을 안기고 좌익세력들의 통일운동을 크게 고무하고있었다.

그들은 박영수의 련락선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고 자기 련락원을 경험있고 견결한 사람으로 배치하고 이 선을 특별히 보호하고있었다.

지금 박영수는 새롭게 조성된 상황이 지리산빨찌산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수 있다는것을 인차 알아차렸다.

광서만은 벌판과 야산지대로 되여있어 매복에 걸려들면 빠져나가기 어렵다. 특히 바다가로 죄여넣는다면 사태는 절망적이다.

박영수는 산어귀에서 차를 세우게 하였다.

《어서 갔다오십시오. 내가 여기서 기다리지요.》

《아니, 여기서 기다리는건 위험합니다. 돌아가는건 천천히 혼자 가겠으니 어서 떠나십시오. 송선생님이 소식을 기다릴겁니다.》

박영수는 굳이 운전사를 돌려세웠다.

차가 떠나자 박영수는 잠시 풀숲에 앉아서 산전막에로 통하는 길을 눈더듬하여 보았다.

산전막까지 가자면 두개의 골짜기를 넘어야 했다. 산전막은 이 일대의 강냉이밭에 무시로 달려드는 메돼지를 쫓느라고 만들어놓은것인데 8.15전부터 혁명가들의 련락장소로 리용되여왔다.

8.15후에 지하조직에서는 이 일대에 약초밭을 일구고 사시장철 사람이 살도록 크게 지었다. 말이 산전막이지 규모도 크고 내부에 여러개의 방과 부엌까지 갖춰진 집이였다.

사위는 쥐죽은듯 고요한데 어데선가 밤새의 청아한 울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박영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밤새가 구성지게 뽑는 가락에 귀를 기울였다. 처음 밤길을 걸을 때는 저 소리도 무섭게만 들렸었다. 어느날엔가 머리우에서 들린 소쩍새의 울음소리에 화닥닥 놀랐던것이 생각나 박영수는 제풀에 볼이 달아오르고 미소가 피여났다.

이제는 호젓한 밤길에 밤새들도 유쾌한 길동무로 되였다.

박영수는 달뜨기 전에 산전막에서 돌아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부지런히 걸음을 옮겼다. 골짜기를 두개 꿰질러가자 동화속에서처럼 가느다란 불빛이 새여나오는 산전막이 나타났다.

그는 삽짝문앞에서 새끼줄을 찾아서 두번 잡아당겼다. 산전막안에서는 작은 매방울이 딸랑딸랑거리였다.

이때 문이 열리고 60대가 가까와보이는 늙은이가 조심스럽게 나왔다.

늙은이는 어둠속에서 나타난 손님을 확인하더니 말없이 삽짝문을 열어주었다.

산전막안에 들어서자 로인은 《이거 밤중에 웬일이시유?》 하며 놀라와하였다.

《저녁전이겠지요? 좀 맛 보려유?》

로인이 밀빵을 내밀었다.

박영수가 《그러지 않아도 출출합니다. 지휘부에 긴급통보할 일이 생겼습니다.》 하고 빵을 받아들며 말했다.

《인주시유.》

《아니, 말로 전하시오.》

박영수는 빵을 씹으며 송호정이 보내온 작전변동사항을 천천히 설명하였다.

《알겠시다. 참 고맙시다. 내 인차 떠나겠시다. 박선생도 인차 떠나지요.》

《예, 그럼 여기서 헤여집시다.》

박영수가 손을 툭툭 털고 일어서려는데 울타리밖에서 별안간 한방의 총성이 되알지게 울렸다. 이어 벼락치듯한 일제사격소리가 울리더니 《손들고 나오라!》 하는 호령이 들려왔다.

뜻밖의 사태에 당황한 박영수는 얼른 품속에 있는 총부터 꺼

내들었다.
《걱정마시유. 선생은 여기로 들어가서 뒤산에 올려붙으시유. 내가 뒤산에 있는 동굴까지 지하통로를 만들어놓았으니 얼른 빠져나가시유.》
로인이 그의 팔을 끌고 뒤방으로 들어갔다. 그 방은 약초창고였다. 상자를 옮겨놓으니 거기에 마루가 있는데 그걸 몇장 들어내니 지하통로입구가 나타났다.
《자, 빨리요. 내겐 렵총이 있으니 얼마간 산전막을 지켜낼수 있수다. 바쁘면 불질러놓고 나도 이 굴로 빠져나가겠수다. 뭐 동굴에 들어가면 산지사방 빠질 구멍이 있으니 걱정마시유.》
이런 일을 자주 당했는지 로인은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이야기하며 그의 등을 밀었다.
박영수는 다급한 마음에 쫓기여 허둥지둥 지하실에 내려섰다. 그러나 로인이 입구의 널마루를 덮어버리자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어 마루를 떠이고 올라왔다.
《안되겠습니다. 내가 막지요. 로인님이 먼저 떠나야겠습니다.》
《괜찮아요. 어서 떠나유. 내 걱정마시유.》
《안됩니다. 난 빨찌산지휘부로 통하는 줄을 모릅니다. 오늘 밤중으로 소식이 닿자면 로인님이 떠나야 합니다. 난 접선방법도 모릅니다. 그 무슨 위임장도 없습니다. 안되겠습니다.》
《선생, 다 해볼탓이지요. 난 래일모레 환갑을 바라보는 놈이니 이젠 죽을 때도 됐어유. 내 살아생전에 백성이 잘사는 세상을 끝내 보지 못하는건 한이 되지만 어쩌겠소. 이젠 때가 된것 갈시다.》
로인은 모든것을 각오한듯싶었다. 그러면서도 초연히 웃으며 박영수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주기까지 하였다.
《이 나라의 아까운 젊은이들이 자꾸 죽어가는게 난 가슴이 아프다우. 살아서 오래오래 싸워야지.》
밖에서 또다시 총소리가 몰방으로 터졌다. 그다음에는 돼지멱따는듯한 고함소리다.
《나오라! 너희들은 빠져나갈 길이 없다. 살겠으면 어서 나오라!》

박영수는 더는 어물거릴수가 없었다. 그는 자기도 놀라리만치 침착하고도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로인님, 여기에 나이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빨찌산의 운명을 생각해야지요. 로인님이 받은 정보는 수백명의 생명과 련결된것입니다.》

《거야 그렇지만…》

《그러니 지금 뭐 다른걸 생각하겠습니까. 젊다고 량심없이 내가 살아서 대사를 망치면 로인님의 죽음도 헛될게 아닙니까.》

박영수는 로인을 억지로 지하실에 밀어넣었다. 그리고 재빨리 마루를 덮고 그우에 약초상자를 쌓아놓았다.

그때 또다시 밖에서 총소리가 터졌다.

《나오지 않겠는가! 이제 열을 셀 때까지 나오지 않으면 통채로 불태워버릴테다.》

박영수는 부르르 몸을 떨었다. 그는 방가운데 우두커니 선채 이제 놈들의 심문에 어떻게 응해야 하겠는가 궁리해보았다. 평생을 거짓말을 모르고 고지식하게 살아온 박영수는 인차 둘러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도청과장이 밤중에 산전막에 나타나야 할 리유가 없다. 그는 권총을 버리기로 하였다. 저놈들과 접전을 벌려야 한알쌈으로 포위진을 헤쳐나갈수는 없다.

《랍치?》

뇌리에 피뜩 스치는 생각이다.

(옳다, 랍치되여왔다고 하자. 퇴근길에 올랐는데 어떤 괴한이 나를 끌어다 차에 실었다. 그리고 눈을 싸매고 이곳에 끌어왔다. 지금껏 빨찌산을 도우라는 공갈을 받았다. 그 사람은 방금 총소리가 나자 불질러놓고 사라졌다.)

박영수가 이렇게 생각하고는 얼른 약초상자에 있는 약초들을 방바닥에 쏟아놓고 불을 붙였다. 마른 약초에 불이 달려 순식간에 방안에는 연기가 꽉 찼다.

그찰나에 문이 홱 열리더니 일시에 여러놈이 달려들었다. 한놈이 그의 손목을 비틀어 수갑을 절컥 채웠다. 다른 놈이 그의 웃주머니에서 명함장을 꺼내보고 《어랍쇼, 뚝지였군. 도청과장님이

이 초라한 산전막에 왕림하시구…》 하더니 꽥 소리질렀다.
《이 집의 령감태기는 어데 있어?》
《말을 삼가하시오. 난 퇴근길에 랍치되여왔소.》
그때 삼단같은 불길이 부엌까지 쓸어들었다.
박영수는 그놈들에게 끌려 마당에 나섰다.
《우린 네놈이 큰 도로에서 제발로 걸어오는걸 다 보았다. 웃기는 수작 하지 말고 대답해. 이 집 두상은 어데 갔는가? 뭘 넘겨줬는가? 차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것부터 대라!》
이놈들은 초저녁에 이 주변에서 잠복을 서던 경찰들이였다. 놈들은 산어귀에서 난데없이 나타난 차의 전조등불빛을 보고 주목을 돌리기 시작하여 예까지 따라왔던것이다.
《난 랍치되여왔다. 지금까지 눈을 싸매고있어 잘 모르겠다.》
박영수는 그것이 제 생각에도 타당성이 부족하여 이놈들에게 통할리 만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뻗대는수밖에 없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러자 마주섰던 놈이 《웃기는 놈 봤네.》 하며 주먹으로 그의 면상을 쳤다. 그러자 옆에 서있던 놈들이 구두발로 배를 걷어차서 넘어뜨리고는 그의 온몸을 마구 때렸다.
순식간에 티 한점없이 맑고 멀끔하던 박영수의 얼굴이 피자박이 되여 퉁퉁 부어올랐다.
놈들은 까무러친 박영수를 차에 태워가지고 철수하였다.
그가 눈을 뜬것은 다음날 아침이였다.
그의 침대에는 의사와 간호원이 앉아있었고 그뒤로 여러놈의 경찰들이 주런이 앉아서 쏘아보고있었다.
《됐소. 나가봐요.》
박영수가 의식을 회복하자 한놈이 명령했다. 의사와 간호원이 물러가자 그놈이 말했다.
《여긴 대전려관이요. 당신이 도청총무과장이라는것을 고려하여 구류장에 넣지 않았소. 이제부터 우리 일을 도와줘야겠소. 첫째, 찦차의 주인을 대시오. 둘째, 당신의 상급과 하급을 내놓으시오. 셋째, 산전막에서 당신이 뭘 전했는가를 밝히시오. 이상이요.》

《난 어느 하나도 모르오. 난 랍치되였소.》
《허튼소리. … 생각할 기회를 주겠소. 자, 가자.》
그놈의 말에 앉아있던 놈들이 우르르 일어났다. …
(내가 찦차를 타고가지 말아야 하는건데…)
박영수는 바늘로 쑤시는듯한 아픔을 참으며 이렇게 락심천만해서 중얼거리였다. 그놈들에게 단서를 잡힌 이상 빠져나갈수는 없게 되였다.
(그래도 다르게 말해서는 안되지. 퇴근길에 랍치당하였다. … 그렇게만 말해야 한다.)
박영수는 이 생각만 곱씹었다. …
서울에서는 길철이 뛰고있었다. 치안국 수사지도과장인 김창기가 그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그는 즉시 충청남도 경찰청 수사과장에게 박영수의 체포에 대하여 확인하고 사건의 전말을 보고할것을 명령하였다.
도경찰청에서 인차 보고가 올라왔다. 빨찌산과의 접선현장에서 체포했는데 아직은 범인이 입을 다물고있어 그이상은 모르겠다는것이였다.
김창기는 그들에게 경비대정보국 3과가 눈독을 들일수 있으니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비밀관리를 잘하라고 엄하게 지시하였다.
당시 정보국 3과는 군부에서 방첩임무를 수행하고있었는데 3과장 김창룡은 북에서 도망쳐나온 친일정탐배로서 살인괴수로 벌써부터 악명을 떨치고있었다. 그놈은 자기의 첩자들을 경찰청의 요진통들에도 박아놓고 제놈들이 관여해야 할 대상이라면 닥치는대로 끌어갔다.
얼마후에 도에서 보고가 왔다. 비밀관리를 위하여 대전려관 7층에 구금하고 보초를 단단히 배치했다고 하였다.
김창기는 시간을 끌기 위하여 도수사과장에게 서뿔리 다치지 말고 우선 치료를 해주어 의식을 회복시키고 치안국에서 내려갈 때까지 대기하라고 지시하였다.

2

정시명의 회신을 받은 김구는 김규식과 함께 곧 《유엔조선림시위원단》을 찾아갔다. 거기서 련명으로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남북총선거를 통한 통일정부를 세우며 당면해서는 이를 위한 준비사업을 위해 남북회담을 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서는 그날 석간신문들에 긴급뉴스로 실리였다. 이것은 서울시민들의 첫째가는 화제거리가 되였다. 서울이 끓기 시작하고 뒤미처 남조선전역이 웅성거리였다. 인민들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반대로 적진영은 쑤셔놓은 벌둥지처럼 일대 혼란에 빠졌다.

이날 하지도 밤 11시경에 노불로부터 성명서가 실린 신문을 받아들었다.

성명서를 건성 훑어내리던 하지는 점점 눈이 퀭해졌다. 다 읽자 어찌나 급해맞았던지 걸상에서 솟구치듯 일어나서 막 구겨진 신문을 노불에게 던지기까지 하였다.

《노불국장! 도대체 당신은 뭐하는 사람이요? 사태가 이 지경 되도록 당신네는 뭘했느냐 말이요. 이건 분명히 우리의 정책적목표에 대한 도전이요. 아니, 이건 미국의 대조선정책을 정면강타한 것이요.》

하지는 악이 치받쳐서 울안에 갇힌 야수처럼 주단이 깔린 넓다란 방을 급하게 오락가락하며 노불의 정보국을 바보라거니, 천치들의 서식장이라거니 내키는대로 욕설을 퍼부어댔다.

하지는 말끝마다 《노불국장!》 하며 손가락으로 그의 이마를 찌를듯이 겨누군 하였는데 그때마다 노불은 몸을 흠칫거리며 떨었다.

노불은 자정이 퍼그나 지나서야 후줄근해져서 사무실을 나섰다.

하지가 성명서를 보고 아찔해진 대목은 남북회담대목이였다.

사태를 토의하기 위하여 하지는 브라운부터 찾았다. 요새 브라운은 사단지휘부에 들어박혀있었다. 여러가지 구실을 붙여가

며 미군정청에 얼씬거리지 않았다. 하지도 평양회담후부터 나날이 그와의 관계가 어성버성해져서 웬만한 일거리가 없으면 그에게 전화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너무도 엄청난 문제에 부닥치게 된 지금에 와서 찾게 되는것은 브라운이였다. 외교관들에 대한 선입감이 있어 브라운의 존재를 무시하여오군 했지만 그래도 협상에서는 소문대로 재능이 있는 인간이고 계책을 꾸며내는데서도 단수가 있었다. 하지는 브라운에게로 별수없이 내려갔다.

하지가 남북협상문제를 김구가 들고나왔다는것을 이야기하자 처음에 브라운은 시답지 않은 태도를 취하였다.

《어째서 우리가 현지정객들의 동향에 대하여 일일이 점검해야 합니까? 난 그 정도의 반응을 각하가 왜 중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정말 그걸 모른단 말이요?》

하지는 브라운이 너무 천진한 소리를 하는것 같아 놀랐다. 그러나 그는 고쳐 생각하였다.

브라운은 미국의 대조선정책이 어떻게 집행되여왔고 어떻게 좌절되여왔는가에 대하여 아직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있다.

자기로 말하면 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책의 정수를 파악하고있는 몇 안되는 사람들중의 하나이다.

하지는 품을 들이기로 생각하고 남북회담이 성사되는 경우 어떤 후과가 초래되겠는가 하는 문제를 미국의 대조선정책과 결부시켜 장황하게 설명하였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브라운에게는 역반응을 일으켰다.

브라운은 우여곡절로 빚어진 정치문제에서 완전히 발을 뽑을 심산이였다. 이 서울의 정계에 다시 뛰여드는것이 목숨까지 위태롭게 하는 일이라는 지긋지긋한 생각도 있었지만 하지의 말을 듣고보니 이제는 사태를 돌려세우기 어렵다는것을 판단하였던것이다.

이제 북측만 동조해나서면 동포끼리 만나겠다는걸 미국이 무슨 수로 막아낸단 말인가.

너무도 명백하고 단순한 문제다.

하지도 미쏘협상이 물건너갔으니 자기를 군정업무에 얽어매놓을 권한은 없다.… 예까지 생각이 이른 브라운은 요새 38°선에서 무장충돌기미가 보인다는 구실을 걸고 좀 생각할 기회를 달라고 하였다. 사절한다는 외교적발언인데 그런데도 말귀가 어두운 하지가 짜증난 어조로 달라붙었다.

《이보오, 브라운. 지체할 시간이 없소. 아직도 평양일이 풀리지 않는 모양이군.… 브라운, 술 좀 내놓소.》

하지는 이제는 이 친구와 마지막담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였다. 이렇게 노상 어성버성해져서는 아무일도 해낼수 없다. 그런데 복통을 터지게 하는것은 브라운을 더는 직속부하로만 볼수 없고 그앞에서 자기가 상관이라는 권능을 마음대로 휘두를수 없는것이다.

그래서 요즈음 이 사람과의 관계에 결단을 내리는것이 피차에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고 자주 생각하면서 전에 브라운이 제출한 사직서를 찢어버린것을 후회하였다.

브라운은 그에게 술잔을 내밀었다.

하지는 단숨에 마셔버리고 이야기를 폈다.

《브라운, 우린 미국의 운명에 자기나름으로의 큰 책임을 가지고있는 사람의 립장에서 지난날의 그 불행한 사건을 다시 생각하여봅시다. 만약 당신이 나의 처지에 있었다면 미국의 정책이 막바지에서 뒤흔들리고있을 때 속수무책인 지역장관으로서 어떻게 워싱톤이 결심한 문제에 개입할수 있겠소.》

하지는 평양에서 있은 암살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변명하였다.

《당신은 나에게 뭘 설교하자는겁니까?》

브라운이 그때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을 상기하자 아물어가던 상처가 덧쑤셔진듯 오만상을 찌프리고 불쾌하게 반문하였다.

《내 하와이 진주만이야기를 좀 하겠소.》

《진주만?…》

《당시 루즈벨트대통령은 태평양전쟁의 불꽃으로 되였던 진주만에 대한 일본의 불의공격작전을 스물네시간전에 알고있었소. 스물네시간이면 일본놈들이 불의성이라는 무기를 사용할수 없도록

하는데 필요한 군사적공간이요. 그런데 루즈벨트는 그 정보를 묵살해버렸소.

무엇때문이였는가? 하와이섬이 아니라 미국전체를 지켜내야 했기때문이며 장차 세계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한 기회를 얻어내야 했기때문이였소.

루즈벨트에게는 그때 2차 세계대전에 뛰여들기를 두려워하는 국민의 심리를 돌려세우고 국회가 걸어놓은 중립이라는 제도적올가미를 벗어던질 커다란 도박이 필요했던거요. 그래서 그는 태평양함대의 대부분의 함선과 유생력량을 버리는 길을 선택하였소. 도박치고는 엄청난 도박이였소.

이것이 미국이요. 리익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것이 미국의 정치철학이 아닌가. 그런즉 이제 와서 미국의 실존주의통치방식대로 움직인 루즈벨트에게 누가 책임을 물은바가 있소?

내가 당신앞에서 이 객적은 강의를 하는걸 용서하오.》

브라운은 하지가 전례없이 장광설을 늘어놓는것을 잠자코 듣기만 하였다. 하지의 빈 술잔에 말없이 술을 부어주었다. 자기도 잔을 내고는 다시 술을 부었다.

하지가 일어났다.

《브라운, 저녁에 전화를 하겠소. 난 올라가야겠소.》

브라운은 하지가 떠나가자 혼자서 병에 남은 술을 천천히 마시며 복잡한 생각에 얽혀들었다.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꺼낸 하지의 궤변에 실은 심오한것이 있다.

미국은 실리가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나라다. 나를 위하여 네가 죽을수 있게 돼먹은 나라다. 미국의 정치사를 거슬러 보면 정치적적수의 총탄에 제 명을 살지 못한 대통령들이 여럿이 된다. 나라의 대통령도 국익이라는 리유로 서슴없이 죽여버리고도 시치미를 떼는것이 미국의 체질로 되였다.

그래 립장을 바꾸어보자. 내가 만약 하지의 립장에 섰다면 어떻게 했을것인가?

하지의 생명과 국익을 표방하는 백악관의 지령을 두고 분명히 나도 후자를 선택할것이다. 그래야 내가 살아남을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니 국록에 살쪄온 내가 벌어진 사건을 놓고 분별을 잃는것은 안될 일인것만은 사실이다. …

이렇게 굴려가니 하지의 처지에 점차 리해가 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더는 이 나라의 정사에 깊숙이 관여하지 말아야 하겠다고 마음을 다졌다.

정치가 온통 모순투성이다. 정치인들은 다 제가끔이다. 여기에 미국의 정책은 근본적으로 이 나라 국민의 정치적리상과 대립되여있다. 게다가 이 나라 국민은 견줄바가 없이 똑똑한 민족이다. 어수룩하게 보고 달려든게 원체 미국의 정책적과오다. 그러니 단 한걸음도 생각대로 해나갈수 없다. 점점 헤여날길 없는 진창에 빠져들뿐이다. 내가 만약 워싱톤의 명령자라면 《노!》 하고 구령을 내릴것이다. 일찌감치 발을 빼는것이 상책이다. 이미 쓴맛만 보고 명예고 체면이고 땅바닥에 구겨박혔으니 내 구태여 나설 리유가 없다.

어느 놈이 또 이 브라운을 제상에 올려놓을 흉계를 꾸밀지 어떻게 알겠는가. 안다면 누가 막아주고 또 어떻게 막겠느냐. 남북회담문제에도 나설바가 아니다. 조용히 있다가 무난히 물러가는게 현명하다. 이제는 이 브라운이 섶을 지고 불에 뛰여드는 우둔한 놀음에는 관여안할테다. …

립장이 이렇게 굳혀지자 브라운은 제 먼저 하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중장각하, 최근 38°선에서 일련의 무장충돌이 예상됩니다.》

하지는 아까 들려주던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는것이 이상스러워 《그래서?》 하고 퉁명스럽게 물었다.

《아무래도 불안정지역인 개성, 옹진에 틀고앉은 사단의 지휘관이 자리를 뜨는것은 힘들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각하, 당신께서 걱정하는 문제들은 사실 매우 복잡하고 풀기 어려운 과제를 안고있습니다. 미쏘협상때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는 당신께서 그 어려운 문제를 혼자 끌어안고 속을 썩이지 말고 마샬장관에게 그대로 보고하여 국무성의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싶습니다.》

《그래서?…》

하지는 브라운이 둘사이에 오간 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하면서 말재간을 부리는듯싶어 신경질적으로 외마디로 몰아갔다.

브라운도 약이 올랐다. 자기는 정통 앵글로색슨족후예로서 참는데 습관되여왔다고 자부해왔는데 서울에 와서는 걸핏하면 흥분되고 성을 내군 한다.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래지는가고 자기를 질책해보기도 하지만 흥분주기가 짧아지기만 한다.

지금도 그는 마른 섶에 불달리듯 확 달아올랐다. 그쯤 되면 자기의 의사표명이 리해되고도 남겠는데 뭘 계속 《그래서》인가. 그는 끝내 자기를 걷잡지 못하고 가시같은 대답을 하고야말았다.

《사령관각하, 나를 더는 이 나라 정치의 제물로 만들지 않도록 도와주시오.》

그러자 수화기에서는 인차 대답이 없고 씨근덕거리는 하지의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다.

하지는 순식간에 두눈에 쌍심지를 켜달고 마치 브라운을 면전에서 노려보듯 창밖의 한점만 뚫어지라 응시하였다.

불손하기 그지없다. 당장 호출하여 한방 먹이고싶었다. 저런 안하무인을 그대로 두다니… 저게 옥스포드출신의 례절인가. 저게 정통 앵글로색슨족의 말본샌가.

하지는 마구 태질을 하는 밸머리를 참아내자니 심장이 파렬될것만 같았다.

그러나 상대는 브라운이다. 하는수가 없다. 브라운앞에서 이제는 빚진 종이 되고만 하지는 그가 어떻게 나오든지 할 말이 없다. 하는수가 없다. 브라운, 너는 내가 준 마지막기회마저 놓치고 말았다. 나를 원망말라.

하지는 인사도 없이 수화기를 던져버리고는 담배를 붙여물었다.

《빌어먹을 자식!》

그는 울화를 어데다 비벼댈데가 없어 주단우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눈앞에 레코라우스의 얼굴을 세워놓고 귀먹은 욕질을 퍼붓기 시작하였다.

《죽은 네놈이 쒀놓구 거두매는 나더러 시키는거냐. 목대를 분질러놓을 놈! 네따위도 정탐이냐. 일을 꾸밀바에는 똑똑히 꾸며야지.》

하지는 잠시후 다시 책상에 가서 맥아더에게 보내는 긴급건의서를 만들었다. 브라운과의 줄당기기를 더는 끌고나갈수 없으므로 결단을 내린것이다.

하지는 전화로도 맥아더에게 간단히 미쏘협상이 끝났으므로 브라운을 교체하여달라는 건의를 하였다. 그리고 문건을 곧 발송하겠으니 여기의 상황을 참작하여 시급히 결론을 달라고 하였다.

맥아더는 정치보좌관 애치슨을 통하여 그들의 관계를 보고받은바가 있었다.

맥아더는 《하지의 지휘권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는 리유불문하고 문제를 세우라.》고 애치슨에게 강조하였다.

맥아더는 하지의 제의를 심중히 듣더니 즉시에 명령을 내렸다.

《오래 끌게 없소. 래일중으로 도꾜에 도착시키시오. 후임은 우리 사람들중에서 보내주겠소.》

하지는 다음날 김포공항에 나가서 떠나는 브라운을 조용히 배웅하였다.

《미안하게 되였소. 브라운.》

하지는 쫓겨가는 그를 보며 한마디 하였다.

《중장각하, 미안할것은 없습니다.》

브라운이 일부러 무례하게 하지의 작별인사를 일축하며 싸늘하게 웃었다.

《그래 더 할 말이 없소?》

하지는 분을 참으면서도 떠나는 인간의 심정을 고려하여 너그럽게 처신하느라고 애썼다.

《우리는 슬프게도 국익이라는 구실밑에 인간이 파멸되고있는것을 목격하고있습니다. 인간성이 유린된 국민은 전도가 없습니다.》

브라운은 하지의 손을 잡고 몇번 흔들고는 승강대를 뚜벅뚜벅 발

소리를 무겁게 내며 올라갔다.

그는 비행기문앞에 이르러 돌아섰다. 그리고는 이 나라의 하늘과 땅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형언할수 없는 감회가 어려올랐다. 부푸는 희망과 야심과 힘을 안고 찾아왔던 땅이였다. 그 땅에서 후회와 한숨을 안고 이제 떠나간다.

이 나라는 아름다운 땅이다. 신선한 공기, 맑은 물, 수려한 산발… 그리고 이 땅의 인간들은 몽매한 사람들이 아니라 뜻에 사는 사람들이다. 권세에 아부를 모르고 힘을 두려워 안한다. 정의에 살고저 하며 불의를 미워하는 강직한 국민이다.

이제 언젠가는 이 나라를 미국이 두려워하고 허리굽히며 아부하는 그런 시대가 올것이다. 백악관은 미국이 마치도 이 나라를 정복한듯이 자부하고있지만 천만이다. 미국민의 인간성이 이 나라 국민의 인간성에 비할나위도 없이 낮을진대 어찌 정복자라고 부를수 있으랴.

온다, 꼭 온다. 이 나라 국민이 미국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내키는대로 흔들어댈 때가 온다. 력사는 순환과 역순환의 회오리다. 때가 올것이다. …

구름낀 저 지평선에 낯익은 얼굴들이 얼찐얼찐 비껴든다.

려운형, 김구, 송호정, 류동명 그리고 평양보안서장의 얼굴도 다가든다.

브라운은 은근히 두려워지는 마음을 의식하며 한해반동안 신선한 공기와 맑은 물을 주던 이 나라의 땅을 향해 손을 이마우에 올려갔다. 그리고는 환송객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비행기안에 쑥 들어가버렸다.

하지는 넓다란 비행장안에 오래도록 우두커니 서있었다. 브라운이 탄 비행기가 땅을 흔들며 하늘에 떠올라 시야에서 사라지자 쏘던 이를 뽑은것처럼 시원할것 같았는데 오히려 마음은 더 무겁기만 하다. 때없이 우수와 고독감이 욱 쓸어들었다.

(아놀드도 갔다, 브라운도 간다. 이제는 내 차례다. …)

브라운이 작별인사로 남긴 말들이 다시 귀전에 울려왔다. 인간성이 유린된 국민은 전도가 없다고?… 무슨 얼빠진 수작이냐. …

3

자기 방에 들어선 다음에도 하지는 오랜 시간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다. 자기도 알지 못할 그 어떤 불안이 서서히 자기 주위를 배회하면서 죄여들고있는것 같다.

아니, 일을 하자. 내가 감상에 빠져있을 때가 아니지. 하지는 곧 브라운의 권고대로 마샬을 찾았다.

마샬은 마침 자기 방에서 전화를 받았다. 마샬은 남북회담과 관련한 하지의 보고를 다 듣고나서 짤막히 지시하였다.

《철회시키시오. 그래야 하오. 그러되 불똥이 튀기 전에, 속히!…》

마샬이 걱정한 《불똥》은 그 이튿날부터 사처로 튀여나갔다.

《13정당협의회》에 망라된 정당들이 먼저 호응해나섰다.

이어 《한민당》을 제외한 남조선의 거의 모든 정당, 단체들이 따라섰다.

정시명은 서울과 지방조직들에서 수많은 대표단들을 김구와 김규식에게 보내여 그의 발기를 지지하고 격려하도록 하였다. 그를 지지하는 시위와 집회도 도처에서 련일 진행되였다. 김구와 김규식은 여기에서 힘을 얻어 꺼떡하지 않고 버티였다.

그런데 북반부에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것이 그들에게는 매우 념려스러웠다. 시간을 다투며 평양방송에 귀를 기울이였으나 평양은 자신들의 제의에 대하여 침묵으로 일관하고있었다.

이렇게 되자 미국과 리승만은 더욱 기가 뻗쳐 덤벼들었다.

하지의 고문들이 련이어 김구, 김규식을 방문하여 《보라, 당신들의 남북회담론은 하나의 웃음거리가 되였다. 당신들은 대세를 분별할줄도 모르는 정치적문맹자들이다. 둥지털어 알 얻어먹자던 노릇이 당신들을 정치적고아로 되게 하였다.》고 야유와 조소를 퍼부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남북회담주장을 취소하라고 공갈하였다.

미군정청은 《한민당》정치부장이였던 리승만의 심복 장덕수의 피살사건에 김구를 관련시켜 법정에까지 호출하면서 그를 회유하고 강박하였다.

김구와 김규식은 미국놈들이 이처럼 무례하게 나오자 북반부에서 아무런 반응도 없지만 민심의 열화같은 지지에 편승하여 더욱 강력히 남북회담을 주장해나섰다. 그찰나에 그들이 배심을 가지도록 안지생이 정시명의 지시밑에 필요한 전술적문제들을 통보해주었다.

… 미국놈들이 차후에 어찌할수 없도록 더 깊숙이 함정을 파자. 더 소리를 높이고 미국의 손발을 얽어매자. …

《그러면 그렇지!》

김구는 무릎을 쳤다. 그는 자신심을 가지고 더욱 소리를 높였다.

3월 23일, 김규식과 안재홍은 《민족자주련맹》의 이름으로 다시금 남북협상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 다음날 김구도 《한독당》의 이름으로 자기의 주장을 거듭 제창해나섰다. 그러면서 이를 각방으로 훼방하고 압력을 가해오고있는 미군정청을 은근히 공격하였다.

그들은 서울시내와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련일 강연회에 출연하기도 하고 신문지상에 담화도 발표하면서 자기들의 뜻을 끝까지 관철해나갈것이라고 결의해나섰다.

사태가 고조되여가자 정시명은 그들의 측근에 남북회담의 성사를 위해서는 쏘미량군을 최단기간내에 철수시키며 정치범들을 전원석방시키고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며 《유엔조선림시위원단》을 즉각 몰아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제기하였다. 이것이 선행되여야 남북회담이 성사될수 있으니 우선 이 문제에 대한 대책부터 세우라는것이다.

측근세력들중에서 미국과 련결되여있는자들은 기다린듯이 이것이 좌익세력이 남북회담을 접수하지 않으려는 의사표명이라고 김구에게 들이댔다.

김구는 그에 대하여 동의를 표시하고 출판물들에 공개하도록 하

였다. 이것은 이미 김구가 안지생을 통하여 정시명과 약조가 되여 있는 문제였다.

정황은 빠른 속도로 급변하였다. 이것은 남조선정계뿐아니라 미국놈들에게도 협상상대방이 남조선의 좌익세력을 통해 남북회담을 원치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온것으로 해석되게 하였던것이다.

이렇게 되자 하지는 조성된 정세를 유리하게 리용하기 위하여 재빨리 태도를 바꾸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김구와 김규식을 방문하여 남북협상론을 반대한 제놈들의 행동을 《사죄》하였다. 그리고 출판보도기관들을 통하여 제놈들도 남북협상에 관심이 큰것처럼 떠들기 시작하였다. 한수 더 떠서 《유엔조선림시위원단》을 통하여 남북회담을 북에 정식 제안하도록 하였다. 정시명이 짜놓은 각본대로 미국놈들은 정시명조직이 파놓은 함정에 마구 덤벼들었다.

놈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남북회담을 위해 할수 있는 모든 편의를 보장할것이며 38°선으로의 대표들의 무사송환과 귀환을 담보할것이라고 성명까지 내놓았다. 그리고는 북측이 남북회담에 성의가 없다고 공격하여 나섰다.

정시명은 미국놈들이 실컷 떠들도록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대세의 흐름만 묵묵히 지켜보았다.

김구, 김규식도 회심의 미소를 짓고있었다.

사태는 예측대로 모든것이 맞물려돌아갔다. 날자가 바뀌여가자 미국놈들이 새로운 립장표명을 준비하고있다는 자료가 들어왔다.

그놈들은 김구를 계속 찾아와서는 남북회담주장을 더 높이라고 충동질을 하였다. 한편으로는 가까운 시일안에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협상에 대한 북측의 무성의로 하여 《단선단정》을 지지할수밖에 없게 되였다는 취지의 성명을 준비하도록 설득시키느라 열을 올렸다.

드디여 낚시는 든든히 물린것 같았다. 미끼는 목구멍을 넘어갔다. 밷아버리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

그러나 아무일에서나 기회가 있는 법이니 미끼를 문 고기는 제

때에 들어내야 한다. 제아무리 요사스러운 미국놈들이라 할지라도 이미 엎지른 물은 퍼담을수 없을것이며 깊숙이 빠져든 함정에서 솟아나지 못할것이다.

드디여 평양에서는 력사적인 북조선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제26차회의가 열렸다.

회의에서는 **김일성**장군님의 제의에 의하여 북남조선정당, 사회단체대표자련석회의를 평양에서 열며 회의에 남조선의 정치인들을 초대할데 대한 결정이 회의참가자들의 우뢰같은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그 우뢰같은 박수소리는 남북삼천리에 메아리쳐갔다.

삽시에 강토는 불도가니처럼 통일열기로 끓어번졌다. 완전독립의 감격스러운 서광은 산천에도 비껴들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비껴들었다. 남조선전역 그 어디에서도 그 희망찬 소식으로 술렁거리고 모여앉으면 바야흐로 눈앞에 성큼 다가선 통일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이제 평양에서 정치인들이 모여앉아 민족분렬을 막을 방책을 론하고 통일정부를 세운다. 그러면 국토는 다시 합쳐지고 겨레는 다시 모여살게 된다.》

그것은 참으로 민족이 일일천추로 바라던 꿈이요, 애국의 지사들이 피의 결전장에서 쓰러지면서도 부르짖던 한이였다.

《됐다!》

정시명도 그 소식에 접하자 환성을 올렸다. 반공세에로 넘어갈수 있게 된것이다. …

남북회담이 열린다는 소식은 외계와 완전히 격폐되여있는 대전려관의 7층 10호실에도 날아들었다.

이날 점심에 밥을 날라온 려관접대원처녀가 지금 거리에 남북회담이 열리게 되고 통일이 인차 된다는 소문이 짜하게 돌고있다며 기뻐 어쩔줄 몰라하였던것이다.

그 소식에 접한 박영수는 대뜸 두눈굽에 물기가 핑 돌았다.

(아, 드디여 남과 북이 하나로 합쳐지는구나. 삼천만의 소원이 풀리게 되였구나!)

박영수는 아직도 시큰거리는 다리를 끌며 부풀어오르는 감격을 안고 방안을 거닐었다. 소리쳐 만세라도 한바탕 웨치고싶었다.
그의 눈앞에는 통일의 날을 믿어 기약없는 리별의 길에 오른 마동열이와 례영의 얼굴부터 떠올랐다.
(아, 얼마나 좋아할가. 이젠 그들도 다시 모여 새살림을 펴겠구나.)
얼마전에 산전막에서 헤여졌던 로인의 얼굴도 그려졌다.
(아바이, 드디여 아바이 한도 풀리게 되였습니다. 백성이 잘사는 통일의 그날이 오고있습니다.)
이제 그도 산에서 듣고 내려올 차비를 하고있을것이다. 이제 더는 불타버린 산전막을 다시 지으려고 하지 않을것이다.
빨찌산녀대장 리점분의 고운 얼굴도 그려졌다. 일제시기부터 산에서 무장을 들고 싸워온 슬기롭고 담찬 그 빨찌산의 녀걸도 이 소식을 들었을것이다. 아, 그도 평생의 소원을 풀고 자식들과 단란한 보금자리를 펴겠구나. 자기는 아직도 총쏘는 재주보다 떡빚는 재주가 더 좋고 더 재미있다며 곱게 웃던 그 얼굴이 그립다.
정선생님도 돌아가시겠구나. 나도 아버님을 모시고 안주로 돌아가야겠다.
아, 청천강, 청천강아, 네가 보고싶구나. 이제 너를 찾아가련다. 네 맑은 물에 잠겨 물장구치던 그 시절의 친구들과 함께 고기도 낚으며 실컷 헤염부터 치련다.
아, 통일! 통일이 온다! 드디여 오는구나!…
박영수는 창문틀을 으스러지게 틀어잡고 두볼에 이랑을 지어 줄줄 내리는 눈물을 의식하지 못하며 열에 떠서 나직이 부르짖었다.
그의 혼자소리는 려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끊어졌다. 세명의 경찰놈들이 들어왔다.
《과장님, 이젠 일어나셨군요. 그동안 좀 생각하셨습니까? 이젠 좀 말해볼가요. 제가 도경찰청의 수사과장이올시다.》
레스링선수처럼 목이 밭고 이마가 좁으며 몸통이 항아리처럼 가로 퍼진 놈이 이렇게 빈정거리듯 자기 소개를 하며 걸상에 앉았다.

다른 두놈도 걸상을 끌어다가 그놈의 뒤에 앉았다.
《난 뭐 더 생각할게 없어요. … 난 사실…》
《랍치되였다, 그 말씀인가요? 그러지 마시오. 당신 두루 알아보니 부자집에서 쌀알도 골라먹으며 자라난 책상물림의 선비라는데 뻗치면 얼마나 뻗치겠소. … 좋아요. 이제 우리 함께 동물원구경이나 해봅시다. 좀 머리통에 열이 나게 한 다음 이야기를 나눠요. 어때요?》 하며 그놈은 졸개들에게 턱질을 하였다.
한놈이 바깥에 나가 세수물을 떠오고 또 한놈은 그의 양복을 가지고왔다.
박영수는 얼굴을 씻은 다음 옷을 입었다. 그놈들의 부추김을 받으며 천천히 려관계단을 내렸다.
《동물원에 간다고요? 대전에 무슨 동물원이 있소?》
《아, 있습죠. 희한한 동물원입죠.》
졸개놈이 히물거리였다.
그들을 태운 차는 대전시내를 벗어나서 교외를 한참 달리다가 담장을 높이 두른 우중충한 건물앞에서 멈춰섰다. 여기저기에 경찰보초들이 서있다. 자세히 보니 담장우에는 고압전기선까지 둘러쳤다.
《여긴 일본고등계형사들이 광복운동자들을 취급하던 곳이요. 지금은 통일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을 모셔다가 노래가락을 달리 부르게 하는 〈별장마을〉이지요.》
수사과장놈이 앙바틈한 목우에 붙어있는 땅호박같은 상통을 흔들며 웃지도 않고 주절거리였다.
《당신을 아직은 여기까지 모시고싶지 않소. 그저 당신에게 이집 손님들이 어떤 대접을 받는지 구경시키고싶어 데려왔소. 이제 자기 노래를 바꾸겠는가, 아니면 기어이 지옥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겠는가, 이건 이제 구경을 한 다음 당신의 선택권에 맡겨두려고 하오. 자, 들어갑시다.》
그놈은 앞장에 서서 척 문을 열고 지하실로 내려갔다.
지하실의 복도문앞에 서있던 경찰놈이 부동의 자세로 경례를 하

고는 문을 열어주었다.

그러자 기다린듯 호령소리, 비명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는데 순식간에 박영수의 가슴을 얼어붙게 하였다. 박영수는 귀를 막고싶었으나 이발을 사려물고 참아냈다. 첫 방에 들어섰다. 거기서는 그 어느 영화에서나 보았던 무서운 광경이 펼쳐져있었다.

공중에 허리를 묶인 사람이 나무토막처럼 매달려있는데 형리가 그의 턱에 가스등불을 갖다대고있었다. 방안에는 살이 타는 냄새가 꽉 차며 코를 찔렀다. 박영수는 당장에 속이 메슥메슥해오고 아래다리가 후들거리였다.

《빨찌산의 공작원이요. 아마 불고기냄새를 더 맡고나면 정신이 들거요.》

수사과장의 소리다.

《대라! 어서 대라! 누구와 만났는가?》

형리가 소리를 질렀다.

《몰라. 모른다.》

그 사람이 몸을 꿈틀거리며 악에 치받쳐 부르짖었다.

《자, 다음방으로 갈가요.》

수사과장이 입가에 야굿은 웃음을 띄우고 방을 나섰다. 박영수는 눈을 감고있다가 그 말이 떨어지기바쁘게 도망치듯 방을 나섰다. 잠시 사이에 온몸이 비지땀에 질벅하게 젖었다.

수사과장을 따라 다음방에 들어서니 거기서는 한 사나이를 가운데 세워놓고 여러놈이 웃통을 벗고 마구 란타질을 한다. 그들이 들어서자 행패질을 멈추고 보고한다.

《어제 잡았습니다. 부산데모때 악질로 나섰던 놈입니다.》

《계속해!》

수사과장이 턱질을 하자 또 그놈들은 사나이에게 달려들었다. 놈들은 주먹과 발로 사타구니와 배허벅을 차고 면상을 갈겨댔다. 한놈은 악악 소리를 내지르며 가죽채찍으로 목만 후려친다. 그때마다 피와 살점이 물어뜯기우는것만 같았다.

박영수의 부어오른 얼굴은 삽시에 죽은듯 새하얗게 질리였다. 그가 고개를 돌리자 수사과장놈이 그 눈앞에 바싹 상통을 갖다대

고 느물거리였다.

《뭘 그러시오. 눈을 크게 뜨고 잘 봐두시오. 저쯤한걸 가지고 심장이 콩알만 해져서야 그게 무슨 사내요.》

그 웃는 흉물이 어디선가 보았던것 같다.

괴물… 악마…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살았다는 그 악마가 저렇게 웃었지. … 악마가 아니고서야 저 무서운 참경앞에서 웃을수 있는가. 악마다!

《좋아. 다음방으로…》

박영수는 더는 발을 옮길 힘이 없었다. 창졸간에 기운이 다 빠져버렸다. 그는 자기를 지탱할 기력마저 없어져 그자리에 풀썩 주저앉고싶었다. 그가 비틀거리자 수사과장이 또 히물거리며 그의 팔을 잡고 끌고갔다.

다음 방문이 열리자 녀자의 새된 비명이 튀여나왔다.

그 방에는 전신을 실오리 하나없이 홀딱 벗기운 녀인이 서너놈의 경찰놈들에게 폭행을 당하고있었다.

야만들은 그 녀자의 음부에 두홉들이 술병을 틀어박으며 시시닥거린다. 멍이 들고 피가 흐르는 녀인의 젖가슴을 보는 순간 박영수는 피가 꺼꾸로 솟구쳐 부르짖었다.

《이 야만의 무리들아! 너희들은 사람이냐, 짐승이냐?》

《과장님, 말씀 삼가하세요. 저년은 대구에서 온 체네인데 공로가 큰 우리 친구들을 넷이나 술집에 유혹하여다가 제꼈단 말이유. 저쯤이야 살인에 비하면 너무 재미나는 유희가 아닐가요.》

수사과장놈이 다시 히물거린다. 정말 그것은 웃음이 아니라 야만의 발광이다.

《자, 다음방에… 유쾌한 오락물은 그만 봅시다.》

《안가겠소. 더는 안가겠소!》

박영수는 자리에 무너져내리며 숨을 헐떡거리였다. 이제 또 저런 미치광이들의 란무를 본다면 정말 자기도 미칠것만 같았다.

《가야 합니다, 과장님.》

수사과장의 조폭해보이던 얼굴이 더 험악해졌다.

그러나 박영수는 고개를 떨군채 덜덜떨면서 애원하듯 말했다.
《차라리 날 여기서 죽여주오. 난 더는 못가겠소, 못가겠소.》
《여, 이 어른을 5호실로 안내해. 너따위 골방샌님주제에 통일이야? 어랍쇼! 야, 뭘해?》
수사과장이 이기죽거리다가 꽥 소리지르자 녀자앞에서 너털거리던 패당들중에서 한놈이 달려와서 박영수의 허리를 두팔로 우악스럽게 감아안고 다음방으로 질질 끌고갔다.
그 방에서는 몸집이 좋은 한 사나이가 커다란 안락걸상에 앉아있었는데 이마와 가슴, 팔다리에 문어의 흡반과도 같은것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다.
《저 어른은 남로당계의 대전지구 케이대두목이요.》
케이대란 남로당이 우익계의 테로에 대처하여 조직한 반테로무장조직이였다. 그들은 좌익인물들을 마구잡이로 끌어다가 고문하고 학살하는 우익악질반동들을 폭력으로 제압하는 임무를 수행하고있었다. 남로당안에는 《인민해방군》을 비롯한 여러갈래의 군사조직들이 활동하고있었다.
《저 사람이 입에 한근짜리 추를 매달아놓은것 같지만 저 걸상에 오르면 쉽게 열릴거요. 뭐 묵비권을 쓴다나. 안될걸.
저건 전기고문걸상이라는거요. 현대문명이 창조한 첨단기계이지. 저 사람은 이제 정신착란에 빠지게 되고 몇초만 지나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술술 풀어놓을거요. 어, 시작!》
호령이 떨어지자 안락걸상앞에 마주앉은 놈이 《하나!》 하고 구령을 쳤다. 그러자 붕— 하고 전류가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 형틀에 꽁꽁 묶이운 사나이가 몸을 떨었다.
《둘!》
전류의 소리가 더 커졌다. 사나이가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셋!》
그러자 사나이는 몸을 벌떡벌떡거리며 악— 악— 소리를 냈다. 온 방안이 떠나갈듯한 아우성이였다. 그때마다 박영수도 몸을 흠칫흠칫거리였다. 온몸이 완전히 녹초가 되고말았다.

《어때, 셋이야 셋…》

또다시 빈정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박영수는 더는 견디여내지 못하고 뒤로 벌렁 넘어졌다.

한놈이 까무러친 그를 보고나서 《졸도했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흥, 일은 끝났어. 차에 내다실어!》

4

저녁무렵에야 박영수는 깨여났다.

박영수가 깨여났다는 보고를 받자 인차 수사과장이 나타났다. 그놈은 낮에 받은 정신적타격으로 흐리마리해있는 박영수의 기색을 살피다가 조롱하듯 씨벌이였다.

《이봐요, 과장님. 우리가 당신을 잘 모시자고 했는데 서울어른들이 모시겠다고 하는구만. 하지만 기뻐할 까닭은 전혀없어. 승냥이를 피하니 이리를 만났다는 말 들어봤소? 당신 김창룡일 알아요? 경비대 총사령부 김창룡방첩과장 말이요. 좌익에서는 울던 애도 그 사람 온다면 그친다고 해요.》

《왜 내가 군방첩으로 간단 말이요. 난 랍치당한 사람이 아니요?》

박영수는 새 소식에 오금이 저려 물었다.

《랍치? 하하… 아직도… 좋소, 좋아. 당신 이제 김창룡의 따귀를 몇개 건사해보면 그따위 수작을 집어던질거요. 당신을 이관하는건 치안국의 결심이요.

빨찌산과 내통하였으므로 군의 관할에 넘기라는거요. 래일 낮에 치안국에 호송되여 김창룡에게 넘겨질거요. 자, 행운이 있기를…》

그놈은 실상 그를 서울에 보내는것이 싫었다. 다 익혀놓은 감을 도적맞히는 기분이였다. 더구나 그를 려관에 가두어놓고 서울의 일

등부자라는 그의 아버지의 돈을 몇달동안 갉아먹자던노릇이 틀어지고말았다.

그놈이 일어나서 문쪽으로 걸어가자 박영수는 이제껏 입속에서 맴돌기만 하던 말을 꺼내놓았다.

《가만, 수사과장. 한마디만… 당신은 평양에서 통일회담이 열린다는 소식을 못들었소?》

《통일회담?》

과장놈이 흠칫 놀라며 홱 돌아섰다.

그러나 그놈은 눈을 몇번 꺼벅거리고나서 다시 히물거리며 뇌까렸다.

《그게 어쨌다는거요? 통일회담을 할 사람들은 하라지. 우린 그따윈 몰라.》

그놈은 꽥 소리지르고는 신경질적으로 문을 걷어차며 나가버렸다.

박영수는 문쪽을 노려보다가 나직이 중얼거리였다.

《그걸 모른다구?… 그래도 네놈이 조선사람이냐?… 그래, 네놈들에겐 통일회담이 안중에 없겠지. 네놈들은 애당초 나라걱정을 할 놈들이 아니지. 네놈들도 무슨 사람인가. 어리석구나, 야만들더러 사람다운 흉내를 내보라고 했으니… 이 땅이 다시 합쳐지자면 사람구실 못하는 저런 놈들부터 솎아내야 할가부다. …》

그놈이 돌아가자 박영수는 새로운 공포에 빠져들었다. 그도 김창룡이라는 이름을 들은바가 있었다. 그는 완전히 무아몽중에 휘말려들었다. 속안에서는 큰 방아질이 시작되고 무시로 공포의 전률이 등줄기를 오싹오싹 죄여놓았다.

박영수는 몸도 마음도 파김치처럼 후줄근해지고말았다. 그는 침대우에서 딩굴며 《김창룡… 김창룡…》 하고 얼이 빠져 중얼거리였다. 《뱀과 같은 놈》, 《주린 이리같은 놈.》, 《여우같은 놈》, … 그놈의 이름뒤에는 세상의 못된 이름이 다 붙어다닌다.

낮에 보고온 그 피비린내나는 끔찍한 광경들이 떠올라 그는 머리끝까지 모포를 뒤집어썼다.

(내가?… 내가 그런짓에 견디여낼수 있을가. 그래 견디여내야지.

처녀들도 견디여내는데 사내라는게 견디여내지 못할가.)

그 흉측한 광경이 떠오르자 이발이 덜덜 맞쫏는다. 전기걸상에서 꿈틀꿈틀거리며 악을 쓰던 사나이의 처절한 모습도 생각났다.

(아, 난 견디지 못할것 같애. 난 자신이 없어. … 정신착란도 된다는데 난 견디지 못할거야. …)

이처럼 자기 아픔과 닥쳐올 고통에 대해서만 생각하며 치를 떨고있던 박영수는 문득 갈마드는 한 생각에 소스라치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앉았다.

(내가 견디지 못하고 입을 열면 우선 송선생님이 잘못된다. 그 다음차례는 정선생님이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무사치 못할것이다. 례영이도 그리고 집안에 드나들던 여러 선생들이 걸려든다. 그래 그렇지. 내가 지금껏 이걸 잊고있었구나. … 어떻게 하면 좋을가? 말 안하는 재간이 없을가? 혀를 꽉 깨물어 끊어버릴가?…)

이렇게 생각하는 박영수의 이마에 식은땀이 돋았다. 그는 앞이발로 혀바닥을 지긋이 씹어보았다. … 아픔이 느껴지자 그는 흠칫거리며 뒤로 넘어졌다.

한참후에야 다시 정신을 가다듬은 박영수는 혀바닥의 알알한 감촉을 느끼며 고개를 내저었다.

(내겐 혀바닥을 물어끊을 용기도 없구나. 하지만 부질없는짓일것 같다. 펜을 가져다가 강박을 하면 그것도 허사다.

아, 그러니 어쩌면 좋단 말인가. 통일의 날도 가까와오는데 내가 그 위대한 대업에 몸바친 애국자로 남아야지 그길에 나선 의로운 사람들을 물어메칠수야 없지 않느냐. … 그건 사람이 할짓이 아니다. …)

정시명을 처음 만났던 일들이 떠올랐다.

…

《선생님, 애국자로 되는데도 어머니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까?》

그건 분명 나의 말이였지.

그래, 그때 나는 결심을 했다. 나는 애국자라는 말이 부러웠다.

애국자로 살아가리라 맹세를 하였다.

《얘가 경성제국대학을 나왔다고 그러시오? 아니면 외아들이라고 마음쓰시는게 아니시오?》

그건 아버지의 목소리다. 아, 아버지, 불쌍한 나의 아버지, 독립군에서 물러난것을 일생의 치욕으로 두고두고 후회하던 아버지! 그래서 자기를 대신하여 이 아들을 애국하는 길에 내세우고저 하였지.

《그런 생각도 바이없는게 아닙니다. 아드님까지 우리 일을 하면 결국 선생님의 집안은 3대가 다 어려운 길에 나서게 됩니다.》

《원, 3대가 다 나라통일을 위해 나선다면 그보다 영광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직도 두분의 대화가 쟁쟁하다.

《난 영수한테 아무런 약속도 해줄수 없소.》

정선생님의 말씀이였지.

《알고있습니다.》

《좋아. 다만 내가 믿고싶은것은 우리가 나라의 운명을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이고 겨레의 고통을 덜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나간다면 후손들이 우리를 애국자로 불러주리라는것이요.》

《더 바랄것이 없습니다.》

…

(그래, 그래, 그래… 후손들이 애국충신으로 불러준다면 난 더 바랄것이 없어. 통일의 날도 멀지 않았는데 내가 구차하게 제 목숨 건지겠다고 한다면 뒤날에 후손들이 날더러 나라분렬을 고집하던 저 악마의 족속들을 도와준 역적이라 부를거다. 그건 너무나도 엄청난 치욕이다.

3대를 내려가는 애국의 우리 가문족보에 영원한 치욕을 남기는 용렬한짓이다. 사람은 사람다와야 한다. 사람을 사람이라 부르는 리유가 바로 그게 아닌가.

옳다, 내 생각이 옳다. 동지들을 배신하는 덕으로 내가 얻을건 역적의 오명밖에 없다. …)

박영수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는 모포를 개여서 베개우에 얹어놓고 방구석에 밀어놓았던 저녁밥을 먹기 시작하였다. 여러날 먹는둥마는둥 설때여왔는데 이번에도 깔깔한게 꼭 모래알 씹는것 같다. 그래도 박영수는 꽁꽁 씹으며 밥사발을 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나니 창밖이 푸릿푸릿해왔다. 그는 나들문을 쾅쾅 때렸다. 문을 지키던 경찰들이 들어왔다.

《펜과 종이를 가져와!》

박영수는 처음으로 경찰들을 쏘아보며 화난 어조로 꽥 소리쳤다.

이른새벽에 내린 박영수의 호령에 경찰들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공손히 대답했다.

박영수는 경찰들이 펜과 종이를 들여보내주자 옷을 입고 상두대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보내는 유서를 쓰기 시작했다.

《아버님께 올립니다.

불초한 자식은 이렇게 슬하를 떠나가니 용서를 비나이다.

이제 새날이 밝으면 저는 악귀들의 소굴이라 불리우는 김창룡의 손아귀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아무리 고쳐생각해야 이 불민한 자식은 그놈들의 행패에 견뎌내지 못할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본의아니게 저놈들의 행패에 못이겨 있는 소리 없는 소리 다 한다면 목숨이 붙어있다한들 무슨 살아있는 목숨이고 어이 고개들고 밝은 해를 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깨끗이 부모님께서 마련해주신 생을 마감짓는것이 편하리라는 결심을 하게 되였습니다. 저도 사람답게 살렵니다.

저를 아껴주신 여러분들에게 소인은 애국자로 후회가 없이 살았노라고 자랑스럽게 전하여주십시오. 부탁은 이제 세상에 나올 자식을 애국의 혈통을 바르게 이어나가도록 해주십시오.

아버님! 어머님! 저도 여기서 북남회담에 대한 꿈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멀지 않아 맞게 될 통일 내 나라에서 저의 몫까지 부디 만복을 누리며 만년장수하시소.》

또 한통의 편지를 썼다. 도지사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죄 지은것없이 행패만 당하니 너무도 분하고 억울해서 마지막길을 간다는 짤막한 유서였다. 그는 아버지에게 보내는 유서를 나직이 소리내여 읽고는 차곡차곡 접어서 밥사발안에 넣었다. 거기에 아버지의 주소를 적어넣고 방에 드나들던 접대원더러 전해달라는 부탁도 써넣었다.

도지사에게 보내는 편지는 상두대우에 펴놓았다.

그는 창가에로 다가갔다. 창문이 열렸다.

(이놈들! 내가 여기서 뛰여내리리라고는 감히 생각을 못했겠지. 뭐 골방샌님이라고? 그래 난 속이 모진 놈은 못된다. 이제 봐라! 그 골방샌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박영수는 이렇게 나직이 중얼거리며 동터오는 새벽하늘을 바라보았다. 구름 한점 없는 봄날의 하늘은 티없이 맑고 높다. 그는 아침공기를 탐스럽게 들이마셨다. 가슴이 시원히 열린다.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가볍고 평온해졌다. 지금까지 온몸을 쑤시던 아픔도 가뭇없이 사라지고 온 심혼을 무겁게 짓누르던 공포도 불안도 깨끗이 지워졌다.

(아버님! 저는 갑니다. 어머님, 울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던 박영수는 고개를 홱 저었다.

(엥이, 뭘 자꾸 지체할가.)

그는 이미 세워놓은 결심이 흔들릴가봐 걱정스러운듯 다시금 고개를 저었다. 생각이 복잡해지면 뛰여내리지 못한다.

그는 두눈을 무섭게 부릅떴다. 그의 입에서 별안간 대전시내를 들었다놓을듯 굵고 우렁찬 웨침이 튀여나왔다.

《조국통일 만세!》

그는 창밖으로 몸을 날렸다.

새벽무렵이라 그의 심장의 터침을 그 누구도 들어준이는 없었다. 려관나들문에서 꺼떡꺼떡 졸고있던 문지기령감만이 꿈속에 오락가락하다가 때없이 울린 만세소리에 화닥닥 깨여났을뿐이였다.

그러나 만년토록 억년토록 이 땅을 부드럽게 안아온 깨끗한 대

기와 이 땅의 뭇생명들을 번성시켜온 대지는 이 나라의 충직한 아들의 그 피에 젖은 절규와 불사신의 모습을 묵묵히 새겨넣었다.

…

이제까지 내려온 우리의 이야기에서 그리 큰 흔적을 남기지 않고 조용히 묻혀있던 한 주인공은 이렇게 떠나갔다.

박영수!

평소에는 말이 없고 조용하고 소심하여 정시명조차 념려가 앞서던 청년!

그는 스물일곱해라는 짧은 인생을 이렇게 순결하게, 장렬하게 마치였다. 자기의 고결한 량심에 티 한점 남기지 않고 그는 이렇게 순국하였다.

원컨대 나의 책이 통일된 조국에 전해진다면 사랑하는 독자들이여, 삼가 이 젊은 애국자를 잊지 마시라.

통일된 조국에서 애국충신으로 불리워지기를 한생의 소원으로 남긴 젊은 투사를 부디 추억하시라.

그리고 그가 남긴 웨침을, 그의 심장의 노래를 함께 불러다오. 《조국통일 만세!》

삼가 바라노니 그 노래와 더불어 다시는 헤여지지 마시라. 만년을, 억만년을 하나로 뭉쳐 이 나라 애국자들의 그 소원을 빛내여가시라. 조선을 만방에 떨쳐가시라.

…

치안국 수사지도과장 김창기가 파견한 호송차가 려관에 도착한것은 그가 투신자결한 때로부터 두시간후였다. 김창기는 자기의 조직성원들로 호송조를 무어서 파견한 동시에 서울로 오는 로상에도 조직성원들을 파견하여 《탈환공격》을 하도록 하여놓았다. 탈환한 후에는 즉시로 부산으로 빠져나가도록 하였다.

그러나 박영수의 자결로 하여 계획은 틀어졌다.

김창기는 박영수의 투신자결을 경찰의 지나친 폭력에 의한 결과로 눌러놓았다. 그래서 사건은 마무리되고 그 여파가 서울쪽에 몰

려올 위험은 제거되였다.

박영수의 처가 려관접대원에게서 넘겨받은 유서를 가지고 그 날중으로 시집으로 올라왔다.

동래온천에 가있던 박정인내외도 급보를 받고 돌아왔다.

너무도 아쉽고도 돌발적인 박영수의 자결에 지휘부는 비장하고도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박영수를 평소에 알고있는 사람들은, 지어 박정인까지도 그가 그렇게도 단호하고 영웅적으로 자기 목숨을 끊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던터라 그 충격은 더욱 컸다.

박정인이 큰 싸움을 벌려놓은 때에 부담이 된다고 간곡히 막았으나 정시명은 기어이 서병남의 집에서 추모모임을 조직하였다.

여기에는 지휘부성원들과 함께 집주인인 서병남과 박정인내외 그리고 민순임과 례영, 권혜숙도 참가하였다.

정시명이 먼저 추도사를 하였다. 모두가 눈물을 머금고 고인의 뜻을 받들어 통일성전을 힘차게 벌려나갈것을 맹세하였다. 그들은 당면하여 북남회담을 기어이 성사시켜 박영수가 애타게 그리던 통일의 날을 당겨올 불같은 맹세를 다지였다.

추모회가 끝난 다음 정시명은 박정인에게 그동안 아들이 벌려온 책임적이고도 위험한 공작에 대하여 다 이야기하여주었다.

《영수가 잘못된데는 저한테 큰 책임이 있습니다. 너무 힘에 겨운 임무였지요. 그리고 여기 일에 다몰려 뒤를 각근히 봐주지 못했습니다.

날 욕해주십시오.》

정시명이 너무 절통하여 비분을 금치 못했다.

《아니, 그러지 마시우다. 그길은 자기가 선택한 길이지요. 장한 길이지요. 그앤 소원대로 애국자가 되였습니다. 그앤 애비처럼 한생에 티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너무 마음을 쓰지 마시우다.

정선생이 마음 쓸 일이 오죽 많소.》

박정인이 오히려 절통해하는 정시명을 위로하느라고 여러말을 하였다.

박정인은 대문밖에 바래워주러 나온 정시명에게 자기는 고향에 가지 않겠노라고 말하였다.

《그건 지휘부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따로 부탁드리는겁니다. 난 남과 북이 영수의 소원대로 합쳐지기 전에는 서울을 뜨지 않겠습니다. 내 집이 되지 않겠으니 저를 쫓아보낼 생각은 마시우다.… 내게 더 중한 일을 주시우.》

《고맙습니다.… 그러나 가셔야 합니다.》

《영수가 어째서 제 목숨을 통일제단에 초불이 되여 불태웠겠습니까. 그래 내가 아들이 못이룬 일을 뒤에 두고 전장터를 떠나야 하겠습니까.

우리 애가 땅속에서라도 애비가 이 통일성업을 피해갔다는것을 알면 바른 처사라 하겠습니까?》

《박선생님, 선생님의 제기를 다시 토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부탁할게 있습니다.》

《예, 어서 말씀하십시오.》

《우리 며늘애를 북에 보내주시오.》

《며느리를?》

《예, 손주가 되겠는지 손녀가 되겠는지 이제 태여날 애만은 나서부터 밝은 세상에서 키워보고싶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평양으로 보냅시다.

장군님의 품으로 보냅시다. 아마 통일렬사의 자식이라고 중히 여겨 키워줄것입니다. 이제 3일제를 치르고 인차 조직하겠습니다.》

박정인이 허리를 깊이 숙여 감사를 표시하고 큰길에 나서다가 다시 돌아섰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요? 어서 얘기하십시오.》

《저 다름이 아니고… 나도 지금 우리 지휘부가 벌려놓은 싸움을 대강은 짐작이 됩니다. 어디 다른데 헛눈 팔고있을 때가 되였습니까. 지금 서울장안이 북남회담문제로 얼마나 론난이 일고있습니까.

그러니 이젠 영수의 일은 지휘부에서 더는 론하지 말아주십시오. 그애때문에 부지깽이도 뛰여야 할 판에 여러분네들이 얼마나 크게 힘을 뽑았습니까. … 3일제도 그만둘렵니다.》

뼈아픈 상실과 슬픔을 안고서도 박정인은 지휘부사업에 폐를 끼치는것이 자못 념려스러웠던것이다.

정시명은 그 웅심깊고도 세심한 정에 못내 감심이 되여 그에게로 다가가 두팔을 부여잡았다.

《박선생님, 영수의 죽음이 우리들을 지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힘은 백배해지고 우리의 싸움은 더욱 기세충천할것입니다. 우린 기어이 남북회담을 성사시킬것입니다. 아드님의 유지를 가슴마다에 새기고 통일의 대문을 열어나갈것입니다.》

정시명의 이야기는 고인의 령전에서 다지듯 비장하고도 엄숙하였다.

정시명은 박정인과 주씨부인을 바래워주고나서 오래도록 집에 들어서지 못하였다. 그저 박영수의 얼굴이 눈에 선하다. 중천에 덩실하게 떠있는 늦보름달을 쳐다보아도 박영수의 희멀쑥한 얼굴만이 보였다.

길지 않은 생을 너무도 조용히 살아온 박영수다. 등뼈가 휘도록 삯짐 한번 져본 일도 없고 불의에 도전하여 피 한방울 흘려본 일도 없는 영수다.

그 영수가 투사답게 최후를 장식하였다.

무엇일가?… 무엇이 단아한 가정의 울타리안에서 호의호식하며 자라온 영수를 투사로, 애국자로 이 나라의 력사와 후손들앞에 우뚝 솟아오르게 하였는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를 낳아키워온 부모들마저 믿지 못하던 그 인간이 어떻게 제 한몸을 서슴없이 자결이라는 헐치 않은 인생의 극한점에 던지게 하였을가?

내가 그 아름다운 넋을 소중히 받아들이지 못하였더라면 얼마나 뼈저린 후회를 남기게 되였을것인가. 그렇다, 우리가 그를 철석같이 믿어의심치 않았던것은 잘한중에서도 잘한 일인것 같다.

그의 진정을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저울질하였더라면 나는 한

생에 씻을수 없는 오점과 수치를 남기게 되였을것이다.

문득 지난해 초에 장워이화에 대한 뜻깊은 추억을 들려주시던 **김일성**장군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장군님께서는 그때 인간이란 태여난 출신이나 자라난 환경에 관계없이 진리를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이고 사람답게 살려는 아름다운 지향을 간직하게 된다면 그처럼 고결해진다고 말씀하시였다. 그것은 우리 장군님의 인간사랑의 출발점이며 인간중심사상의 정수이며 애국애민의 최고의 정화이다.

박영수의 빛나는 최후는 겨레의 운명을 한품에 안아주시는 장군님의 그 위대한 덕망과 도량의 승리이며 그 고귀한 사상이 펼쳐놓은 고결한 화폭이다.

정시명은 은하수가 뻗어간 북쪽하늘을 우러러 고개를 들었다.

그는 나직한 어조로 그러나 한없는 고마움과 감사의 정을 안고 아뢰였다.

《장군님! 당신의 위대한 인간중심의 사상은 또 한명의 애국렬사를 이 나라의 민족사에 세워주시였습니다.》

제9장
하지의 고백

1

박정인의 걱정은 괜한것이 아니였다.

사실 정시명과 그의 전우들은 헛눈을 팔수가 없었다.

북남회담문제로 하여 서울은 물론 워싱톤도 벌컥 뒤집혀져있었다. 온 세계에 울려퍼진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력사적제안은 미제와 반동들에게는 청천벽력이였다.

그러지 않아도 쏘미회담후 련속 수세에 몰려온 미국놈들은 북남회담이 현실로 되여가자 제놈들의 대조선정책이 위태롭게 되였다고 비명을 질렀다.

사태의 심각성을 간파한 마샬은 그를 수습하기 위하여 지원팀을 조직하여 서울에 급파하였다.

지원팀은 미국무성과 국방성에서 제노라고 하는 정책전문가들로 구성되여있었다.

하지는 김포비행장에 나가서 친히 영접하였다.

《워싱톤손님들, 잘 도와주시오.》

하지는 몰밀어 인사하고는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흔들었다.

대체로 나이가 지숙해보였는데 맨 마지막에 서있는 대좌가 일행중에서 제일 어려보였다.

《륙군성 대좌 본스틸입니다.》

그의 손목을 잡던 하지가 《뭐라구? 당신이 본스틸대좌요?》 하고 그를 신기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렇습니다. 륙군성 작전차관보로 있습니다.》

《음, 당신이였구만.》

하지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대좌의 아래우를 훑어보았다. 상대는 키가 껑충하였다. 하지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커보였다. 얼굴은 말상이고 눈확은 곪아빠진것처럼 우묵하게 패여들어 매우 음험한 인상을 주었다.

하지만 무척 젊다. 대좌로 보기보다 대위로 보기가 십상이겠다.
(락하산승진이겠지.)
그러나 하지는 어디선가 귀동냥해들었던 말이 생각나 피씩 웃었다.
(말상은 대체로 수재들이라 했겠다.… 그래 이녀석도 수재인가보군.)
《대좌는 내 차에 오르시오.》
《고맙습니다, 중장각하.》
첫 대면인 중장의 호의와 웃음이 자존심을 건드렸는지 대좌는 거만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사양하지 않고 하지의 차에 올랐다.
지원팀을 태운 승용차들은 서울을 향해 달렸다.
승용차행렬이 비행장구내에서 벗어나자 하지가 슬그머니 말을 뗐다.
《당신이 본스틸대좌라는거지.… 지금 어떤 사람들은 조선반도의 38°선을 가리켜 본스틸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뭐 까닭이 있는 소린가?》
넌지시 지나가는 어조로 묻는 소리에 본스틸이 어깨를 으쓱거리더니 씩 웃었다.
《당신이 정말 30분사이에 반도의 허리를 잘라놓았다는게 사실이요?》
하지가 기어이 상대를 화제거리에 끌어들이려 지꾿게 묻자 본스틸은 또다시 어깨를 으쓱거리였다.
하지가 무슨 의도에서 그 말을 꺼냈는지 갈피를 잡을수 없는듯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하였다.
《중장각하, 그건 실례입니다만 백악관에서도 금기로 되여있는 비밀사항에 속합니다.》
《그래?… 하지만 나는 조선반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진두에서 지휘하고있는 백악관의 대표요.
난 좀 알아야겠소. 내가 당신이 그어놓은 그 본스틸선을 지키느라 얼마나 곤욕을 치르는지 알고나 있소?
이야기해보오. 내가 아는것으로 끝내겠다는걸 약속하지.》

하지는 메마른 얼굴에 다소 온화한 색조를 띄우고 애숭이대좌를 부추겼다.

《하긴 비밀이란 언제나 시한부적이라는 말이 옳습니다. 이야기를 하자면 43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는 고개를 끄덕거리였다.

본스틸은 이 땅의 분렬에 대한 흑막뒤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중장각하께서도 아시겠지만 반도를 분단하여 미국의 지탱점을 확보할데 대한 정책은 태평양전쟁이 종결되기 전부터 제기되였습니다.》

본스틸은 이렇게 말머리를 넓게 시작하였다.

《륙군성은 도이췰란드와 일본, 이딸리아의 패망을 예견하여 전후 여러 지역에 대한 직접통치를 목적으로 1942년부터 버지니아대학과 예일, 하버드, 시카고, 스탠포드대학들에 륙군정보학교를 설립하고 군정예정나라들의 말과 풍습과 정치학을 가르쳤습니다.

45년초까지만 하여도 조선말은 교육하지 않았지요. 사실 그때까지는 조선에 대한 군정통치는 예견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다가 일본의 항복이 급박해오자 백악관이 조선반도에서 군정실시를 목표로 확정하고 부랴부랴 군정장교들을 선발하여 조선말을 속성으로 배워주었습니다. 우리도 그때에야 반도에서 정치, 군사적발판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의회를 벌려놓았습니다.

그때 우리에겐 쏘련군과 함께 반도에서 끝까지 항일기치를 추켜든 조선빨찌산의 노도와 같은 진격은 상상밖이였습니다.

사실 중장각하도 체험하시였겠지만 미국은 태평양전쟁을 힘겹게 치르느라 쏘련에 대도이췰란드전쟁을 마치고 2개월후에 대일전선에 참전해줄것을 간절하게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쏘련군이 대일전쟁포고를 한지 2일만에 백만관동군이 모래성처럼 흩어지고 반도에서는 개성과 춘천계선까지 밀고내려왔습니다. 부산까지 이르면 조선반도는 공산권에 장악될 위태로운 정황이였습니다.

여기저기서 반도에서 미국의 리권을 잃게 되였다고 비명이 터져나왔지요. 그들은 한초가 바쁘게 군사적결단으로 조선반도의 남쪽에 미군정을 실시할수 있는 지정학적기초를 마련할것을 백악관과 군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상황이 너무도 예상밖이여서 백악관도 군부도 콩튀듯 했지요.》

《그래, 그랬지.》

하지는 당시의 일들이 방불하게 재현되여 감회가 깊었다.

《사실 그때 맥아더까지도 일본본토를 다 점령하자면 두해는 더 싸움을 벌릴것으로 타산했소. 그리고 우리 미군이 적어도 백만의 병력을 잃는것으로 타산하고 펜타곤에 유럽전역에 가있던 아이젠하워의 병력을 돌려줄것을 여러차례 요구했소. 그래서?…》

《급해맞은 트루맨대통령이 극동의 전체 지역을 일본이 항복하기 전에 분할하여 쏘련과 미국이 일시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적인 경계를 설정할것을 골자로 한 명령 제1호를 작성할것을 3성조정위원회에 긴급위임하였습니다.

당시 3성조정위원회는 국무성과 륙군성, 해군성의 차관보급으로 조직되여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륙군성의 작전차관보인 레스크의 보좌관으로 이 그루빠에 속해있었습니다.

사실 솔직한 말로 그날에야 저는 조선반도의 생김새가 어떤지 똑똑히 보게 되였습니다. 자막대기로 재여보니 반도의 중심으로 38°선이 알맞춤하였습니다. 그래 38°선에 검은 덧금을 그어서 30분만에 조정위원회에 제출했지요.

론쟁이 벌어졌지요.

해군성을 대표한 카드너제독은 39°선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쏘련이 중시하는 대련항과 료동반도전체가 포함되므로 쏘련측이 접수하지 않을것이라는 말들이 제기되여 철회되였지요.》

《그래, 그건 지나친 욕심이였구만.… 하긴 또 몰라. 그대로 눌러졌다면 우린 압록강에서 다리쉼을 하면서 지금과 같은 고달픈 일을 당하지 않게 되였겠는지 누가 알겠소.》

하지는 생각나는대로 그의 말을 받고는 어서 계속하라고 손을 흔들었다.

《이렇게 되여 45년 8월 12일 우리가 밤을 새우면서 작성한 명령 제1호가 트루맨의 긴급제안으로 모스크바주재 미국대사 해리맨에 의하여 쓰딸린에게 통보되였습니다.

그것이 쏘련측의 별다른 반대가 없이 전승국들의 합의문으로 되였지요. 이 합의문에 따라 쏘련은 서울에 들어왔던 자기 무력을 38°선이북으로 철수시켜 일본의 항복을 받아냈고 38°선이남에서는 중장각하, 당신께서 무혈입성하시여 일본의 항복을 받아낸것이지요.》

본스틸은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였다.

《음, 일은 그렇게 되였군.》

하지는 고개를 주억거리며 생각에 잠겼다.

(무혈입성이라고?)

하지는 슬그머니 화가 났다. 네가 이 땅을 다스릴 사령관자리에 앉아있을 군공은 없노라는 조롱같기도 하다.

그는 이 땅에 첫발을 들이밀 때가 생각났다.

오끼나와를 점령하였던 하지는 군단을 끌고 서울에 들어가기 전에 선발대를 파견하였다. 그것이 미24군단이 인천에 상륙하기 사흘전인 9월 4일이였다. 장교 8명과 그들을 호위할 병사 10명이였다.

그들을 오끼나와에서 비행기를 태워 일본놈들의 비행기지였던 김포공항으로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공항에 내릴 때부터 예상되였던 다소간의 총격전은 고사하고 완전히 호화스러운 대접을 받았다. 비행장에는 일본총독 아베의 특명을 받은 장성급들이 영접을 나와있었고 숙소도 서울에서 일류급이던 조선호텔에 안내되였다. 그들은 며칠동안 일본총독부가 특별히 제공하는 고급료정의 왜년기생들과 술에 빠져 보냈다고 한다.

그들의 임무는 영어를 할수 있는 조선사람들을 확보하는것이였는데 이것도 일본놈들이 나서서 다 해결해주었다. 이것이 미

24군단의 남조선진주에 앞선 작전의 전부였다.

사흘후에 하지는 24군단을 끌고 총독부에서 조직한 환영을 받으며 서울에 들어왔다. …

듣기에는 기분이 잡치는 일이지만 어쨌든 무혈입성이라는 본스틸의 말은 정당하다.

그런데 38°선을 30분새에 그어버린 본스틸의 이야기가 허무하기도 하고 맹랑하기도 하다. 력사에 많은 숙제를 남기게 된 이 나라의 운명적인 경계선이 그렇게도 쉽게 그어질수 있는가. 아무러한 국제적공론도 현지인물들의 자그마한 의견도 고려함이 없이 이 나라의 력사와 지리, 민족적리익은 티끌만치도 알지 못하는 이 애숭이대좌의 손에 의해 자막대기로 그어지다니… 아마 이 나라 사람들이 알면 후손만대로 통탄해마지않을것이다. 백악관이 특급금기사항으로 눌러놓을만 하다. …

승용차가 미군사령부청사에 도착할 때까지 하지는 이런 생각에 잠겨있었다.

《자, 대좌. 여기가 당신이 그어놓은 38°선을 지켜나선 일선참모부요. 지금 우린 수세에 몰려있소. 당신이 만들어놓은 분단선이니 재간껏 지켜봅시다.》

하지는 이렇게 허물없는 동료처럼 본스틸의 잔등을 툭툭 쳐주며 웃었다.

하지는 먼저 조선지도를 걸어놓은 소회의실로 그들을 안내하였다.

거기서는 노불이 그들을 맞아들였다.

노불은 지도앞에 나가서 미국의 대조선정책에 대하여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마샬의 권고로 시작된 사업이였다. 부랴부랴 모아보내는 그루빠이니 현지에서 미국의 정책과 그 집행정형에 대한 료해를 하도록 조직사업을 해놓으라고 했던것이다.

《우린 사실 반도에서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식민지지배의 발톱을 박는데 성공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초기 우리는 24군단의 세 사단장들인 아놀드, 떤, 러스크를 대

리인자격으로 군정장관에 세워놓고 남조선을 대륙침략의 전초기지로 만들기 위한 작전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첫 골치거리는 항일전에 나섰던 국민을 점령군의 자격으로 다스리는자체가 국제법규상 모순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앞에서 사실그대로 통보해주는데 대하여 리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노불은 자기의 이야기가 일부 인물들의 신경을 건드릴수 있다는 우려감때문에 이렇게 구차스러운 해석을 덧붙였다.

《노불, 일없소. 이젠 우리가 동업자들이요. 책임을 같이 나누게 됐단 말이요. 숨김없이 통보하시오.》

하지가 노불의 속생각을 넘겨짚고 이렇게 고무해주었다.

《우리는 일단 지탱점을 확보한 조건에서 분단을 고착시킬 방향에서 한걸음한걸음 조심스럽게 나갔습니다.

분단고착은 불피코 두개 지역에 두개의 지역정부를 세워야 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여론을 대상하여 처음으로 정치적투전장을 던져보았습니다. 나의 선임이였던 구펠로씨가 이러한 각본에 따라 미국으로 소환되기 앞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공산주의는 38°선에서 저지되여야 한다.〉는 당시로서는 이상야릇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다음에는 친미정객인 리승만을 지방도시인 정읍이라는 곳에 보내여 〈남한에서라도 단독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당시로서는 세상을 놀랠만한 발언을 시켜보았습니다.

예상대로 즉시에 비발치는 항의와 규탄에 부닥쳤습니다.

당신들이 이제 부닥쳐보겠지만 미리 말씀드릴것은 이 나라 국민의 지능계수가 낮지 않다는것입니다.

우리는 미군정청 정무담당 장관이였던 아놀드를 내세워 구펠로의 발언이 미국의 의사와 무관계하다는 성명을 내게 하는것으로 미국에로 그 여파가 옮겨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노불국장, 좀더 간단히, 그렇게 하다간 종일 걸려도 끝내지 못

하겠소. 유감스럽지만 우리는 시간이 많지 못하오.》
하지가 너무 세부에 들어가는 노불의 이야기에 짜증이 나서 퉁명스럽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것이 모스크바3상회의결정과 그 집행을 위한 미쏘회담이였습니다. 조선에서의 통일적인 민주주의정부수립을 골자로 한 미쏘협상이 성사되면 우리의 전략적목표가 달성될수 없다는것은 뻔한 일입니다.
이렇게 되여 우리는 세계의 여론에 눌리워 끌리워다니던 미쏘협상을 끝내 파탄시키였습니다. 그러나 미쏘협상은 끝났으나 〈단독정부〉수립의 명분을 세우려 했던 우리의 시도는 다시 좌절되였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유엔을 움직여 만들어낸것이 〈유엔조선림시위원단〉입니다.
우리는 당초에 북조선이 〈유엔조선림시위원단〉을 받아들이지 않으리라는것을 타산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북조선이 통일정부수립을 접수하지 않는다는 여론을 쉽게 만들어낼수 있는것입니다. 일은 뜻대로 되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단이 삐그덕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물건짝으로는 일을 꾸며낼수가 없게 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돌파해놓고보자는 전술을 세웠습니다.》
이상하게도 노불이 이 대목에 와서는 하지를 힐끔 바라보았다.
하지가 그 눈길을 받으며 쓰겁게 웃었다. 《돌파해놓고보자.》는 소리는 자기가 한 소리였다. 위원단까지 제멋대로 움직이자 그의 조폭한 무인적기질이 사태를 역전시켰던것이다.
《우선 돌파하고보자. 그까짓 여론이고 뭐고 볼게 있는가. 돌파하자. 승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하지는 이렇게 수하부하들에게도 미국무성에도 말하며 자기 주장을 내밀었다. 이렇게 되여 국제법규요 뭐요 하는 한갖 치레거리에 불과한 절차와 구속마저 집어던지고 《유엔조선림시위원단》의 이름으로 《단독선거》를 발표해버렸다.
그런데 이 무슨 청천벽력인가.
《남북회담이 제기되였습니다. 남북회담이 열리면 남과 북의 정

치인들의 목소리가 모아질것입니다. 반도의 통일문제가 거론되면 미국의 조선정책은 원점으로 돌아갈것입니다.

사태는 심각해졌습니다.》

노불이 예까지 말하고 손수건을 꺼내 목덜미를 쓱쓱 문지르며 객석에 내려앉았다.

이어 하지가 일어나 남북회담과 관련한 남조선 각 정치세력들의 동향을 개괄하였다.

워싱톤의 손님들은 곧 일에 착수하였다.

하지는 그들과 함께 밤에 낮을 이어가며 《마라손모의》를 벌리였다.

2

김구는 막상 북조선이 남북회담제안을 접수하자 여러가지 복잡한 심회가 잦아들었다.

이제는 남북회담이 하나의 탁상공론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남북회담이란 결국 공산주의자들과 마주앉는다는것이다. 공산주의자들과 민족대의를 협의한다는것이다.

김구는 눈앞에 회담장이 련상될 때마다 때없이 가슴에 천근추를 달아놓은듯 무거워만졌다.

공산주의자들과 마주앉아 무슨 얘기를 나누며 어떻게 하나의 생각으로 곬을 좁혀갈수 있으랴. 정작 만나자고 하니 반공전선에서 수많은 죄를 지어온 지난날의 행적도 큰 골치거리이다. 엎지른 물은 이제 주어담기나 할테냐. 세상천지가 다 아는 그 일들을 이 백범의 본의는 아니였노라고 낯 간지럽게 발뺌을 할수도 없지 않느냐.

물러서자니 이미 모아들인 민심이 배수진이 되여 퇴로를 막아선다.

벌써 북의 결정이 발표된 그날중으로 《한민당》을 제외한 100여

개의 정당들이 회담참가의사를 표명하였다. 남조선의 거의 모든 세력을 포괄하고있다. 게다가 미국놈들이 매일처럼 찾아와 성화를 먹인다.

그의 고민은 정시명에게 낱낱이 통보되고있었다.

정시명은 지휘일군들에게 미국놈들이 새로운 암초를 만들어내리라는것은 명백하므로 놈들의 일거일동을 제때에 장악하여 보고할것을 간곡히 당부하였다.

안지생에게서 들어오는 새로운 자료들은 정시명을 한시도 마음을 놓을수 없게 하였다. 적은 맹렬하게 움직이고있었다.

오늘 오전에 미군정청 정보국장 노불이 김구를 찾아왔다.

그는 김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당신이 북의 공산주의자들과 만나겠다는것을 구태여 막지는 않겠다. 나는 다만 정보국장으로서 하나의 정보를 알려주고저 찾아왔다.

지금 38°선에는 남쪽의 테로단들이 당신을 모해하기 위하여 대기하고있다는 정보가 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책을 세울것이다. 그런데 북에서도 당신이 입북하는 즉시로 처리해버릴 방안을 연구하고있다고 한다. 북의 협상제안에서 남측대상은 북에 동조하는 민족주의세력이지 당신이나 김규식을 상대로 한것은 아니다. 나는 당신에게 경거망동을 삼가할것을 권고한다.

당신의 정치적구호는 그대로 내걸면서도 남북협상제안을 파기할수 있는 방도는 얼마든지 있다. 우리가 연구하여 당신의 정책보좌팀에 넘겨주겠다.》

이에 대하여 김구는 《알려주어 감사하다.》고만 대답하였다.

김구와의 담화, 안우생도 참가.

《미국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글쎄 그 사람들의 말이 거짓이라고 해도 내가 공산주의자들과 손을 잡는건 간단한 일이 아니야.》

《그 리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크게 마음을 먹고 그네들에게 손을 내민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손을 잡아주기가 힘들게 되여있어.》

《어째서요?》

《털어놓고말해서 공산주의자들은 내게 회계를 치를게 많단 말이야. 내 불민했던 탓으로 죄를 많이 졌거든.》

《공산주의자들은 과거를 묻지 않겠다고 약속한답니다. 그리고 회계를 친다면 돌팔매 한번이라도 왜놈에게 더 하셨겠지요.》

《거야 물론.》

《북조선사람들은 백범선생님의 항일기개를 중히 여기고있는것 같습니다.》

《그건 정치하는 사람들의 상투적인 수법이야. 지금은 내가 필요하니깐 그럴수도 있지. 자네도 내 말이라고 다 곧이듣지는 말게.》

《예?》

《허허, 아무튼 나도 정치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래 내 답답해 자네를 불러들인게 아닌가.》

오늘 오전 10시경 하지가 김구를 찾아왔다.

그는 매우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우리의 권고에 침묵을 지키는 당신이 리해되지 않는다. 당신이 평양에 정 가겠다면 보내주기는 하겠지만 돌아올 생각은 하지 말라. 당신은 게도 놓치고 구럭도 잃게 될것이다.》

《무엇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가. 당신도 얼마전에는 우리에게 남북협상을 지지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때는 그때다. 정세는 달라졌다. 내가 특별히 찾아온것은 당신이 미국의 벗이기때문이다. 신변과 정치적운명이 걱정된다.》

《위협인가?》

《좋도록 생각하라. 나는 무관이다. 외교를 하고싶지 않다.》

김구는 그가 돌아간 뒤 매우 침통하고 착잡한 기색이였다.

미군정청 정보국장 노불이 두명의 미국무성관리와 함께 찾아왔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신들은 북에 들어가면 어차피 서로 타협을 하면서 그 무슨 결정도 만들어낼것이다. 그러면 쏘련군도 물러가고 미군도 더 있을 체면이 없어 물러가게 될것이다. 그 얼마후면 전조선이 공산화될것이며 당신들은 무자비하게 숙청될것이다.

쟝지에스는 얼마전에 타이완으로 쫓겨갔다. 당신들은 교훈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한 3년후에 공산화된 서울에 장미 한송이를 들고와서 당신들의 묘지를 찾아가겠다.》

이에 대하여 김구는 결이 나서 맞섰다.

《우리 백성이 나더러 땅속에 들어갈 때가 되였다고 귀띔을 하면 이제라도 들어가는것이다. 그러나 난 쟝지에스처럼 동족에게 밀려 쫓겨다니는 겁쟁이가 아니다.》

측근인물들도 김구, 김규식과 자주 만났다. 일단 굳힌 결심에서 물러서면 력사의 웃음거리로 전해질것이라는것을 력설하였다.

김구, 김규식의 측근속에는 미국놈들과 내통하는 인물도 적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대로 미국의 지령에 따라 바쁘게 돌아치고있었다.

《13정당협의회》에 소속된 정당대표들도 매일처럼 찾아왔다.

《초지를 굽히지 말라. 나라 위한 일에서 남의 눈치 볼것 있느냐.》

그들은 한사람같이 입을 모았다.

…정시명은 초조하였다. 불안스럽기 그지없었다. 그는 자꾸만 달력을 보았다. 예정된 회담날자가 다가온다. 너무도 빨리 달려오는것만 같다. 그런데 김구의 주변소식은 어느 하나 귀가 번쩍 트일게 없다. 쉬임없이 김구의 대문을 두드리는 그 하많은 사람들의 서로 다른 목소리들에 김구인들 견뎌낼수가 있겠는가.

이게 제일 근심이 갔다.

김구가 제아무리 고집이 세고 기질이 강하여도 그도 인간이다. 심장에는 피가 끓지 무쇠가 박혀있는게 아니다. 자료를 보면 어지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벌써 기가 죽고 심장이 파렬될것만 같은 일들이 무시로 김구의 주변에서 벌어지고있는것 같다.

그러니 어쩌면 좋은가. 그와 다시 마주앉고싶은데 만나야 그 수다한 목소리들중의 하나가 될것이니 길게 여운을 남길것 같지 못하다. 그래도 이대로 볼수만 없지 않느냐. …

정시명은 방금전에 안지생이 보내온 보고자료를 손에 든채 책상앞에 굳어져서 불 꺼진 곰방대를 입에 물고 그냥 이 생각만 쫓고있었다.

안지생의 보고는 종합적인 성격을 띠고있었는데 매우 심상치 않은 내용을 담고있었다.

… 백범은 지쳤다. 녹초가 되였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지쳤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접수구에 줄을 서있는 방문객들이 중구난방으로 저마끔 주의주장을 펴고 돌아가니 옆에 있는 우리도 지쳐있다. 듣는 말마다 너무 충격이여서 백범의 마음도 아침저녁으로 바뀌는가싶다.

일체 방문사절이라고 패쪽을 걸어야 소용이 없다. 모두가 그냥 대문을 밀고 들이닥치니 어찌할수 없다. 우리는 미군정청에 경교장 보위경찰을 열배로 증강해줄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어제야 겨우 2명의 경찰이 증원하여왔다. 백범을 정신착란에로 의도적으로 몰아가는 놈들이니 그것만도 큰 선심이라고 할수 있다.

백범은 어제부터는 식음을 전폐하고있다. 밥알이 모래알같다고 한다. 이게 큰 야단이다. 안미생누님이 꿀을 탄 물을 들여가면 어째 꿀물이라는게 이리도 쓰냐고 한다. …

정시명은 안타까움속에서도 보고서의 마지막대목을 보고서는 제풀에 허거프게 소리내여 웃고말았다.

자기도 례영이 보고 똑같은 소리를 했었다.

벌써 여러날째 밤을 밝히며 이 생각, 저 생각에 시달려서 그런지 도무지 밥맛이 없었다. 그래 노상 숟가락을 들었다마는데 바

로 오늘 점심후에 례영이 주인집에 말해서 꿀물을 타가지고왔다. 그런데 한모금 마시니 꿀물이라는게 쓰겁기 그지없었다. 그래 《얘, 꿀물이라는게 어째 이리도 쓰냐.》 하며 웃었던것이다.

그러니 김구의 각박한 정상이 짐작이 되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에게서는 실로 인생의 전환이다. 그게 쉽게 될리는 만무하다. 그것도 말그대로 악전고투속에서 벌어진다. 김구가 이 고비를 넘기면 될것 같다. 그런데 이 고비를 넘길수 없을것만 같은 조바심으로 한시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그를 막아선 벼랑턱이 너무도 험하고 뿌리깊고 집요하다.

8.15전에 김구가 련공합작에로 끝내 이어지지 못하고만것은 손을 내밀어주는 위인이 없었고 그래서 계속 무지와 편견이라는 울타리에 갇혀있었기때문이였다.

오늘은 사정이 다르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그의 손발을 단단히 그러쥐고있다. 그를 반공이라는 진창에서 선뜻 용솟음치지 못하게 누르고있다.

정시명은 안지생의 안타까움이 다 리해가 됐다. 그 보고서에 그려진 김구의 눈물겨운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혀와 그의 속에도 재가 차게 하는것이다. 늙마에 만시름을 끌어안고 한초한초를 초들초들 애간장을 태우게 한 죄가 자기에게 있기라도 한듯 죄스러운 생각까지 들었다.

김구가 나를 얼마나 원망할가? 고요한 수면우에 새바람을 일구어놓고도 얼씬거리지 않고 늙은이가 세간에 쫓겨 허둥거리는 것을 보고만있으니 원망을 들을법도 하게 되였다.

그렇지만 별도리가 없지 않는가. 거기 가서 나는 지금 할 소리가 없다. 이제 찾아가야 나 역시 《미국놈들의 말 믿지 말라. 한번 다진 마음 굽히지 말라.》 이 소리밖에 없는데 안지생이만 해도 그런 소리는 하루에 열백번도 하고있을것이다.

하여튼 인차 가보기는 해야겠다. … 정시명은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는 곰방대에 다시 불을 달고 한모금 길게 빨았다.

담배맛도 좋지 않았다. 창밖은 어둑시그레해졌다. 또 하루가 덧없이 지나간다. 정말 요새는 세월이 너무 빠르다.

발자국소리가 났다. 문이 소리없이 열리더니 례영이 들어왔다.
《아버님, 저녁진지 드십시오.》
《어, 시간이 벌써 이렇게… 어머니보고 저녁생각 없으니 기다리지 말고 저녁을 치르라고 일러라.》
《아버지!》
례영이가 가까이 뛰여와서 엉석을 부리듯 그의 팔을 끌었다.
《어서 내려가시자요. 오늘은 어머니가 특별음식을 마련했답니다.》
《허허, 참… 그럼 어디 가보자.》
정시명이 례영의 살뜰한 청을 마다할수 없어 끝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주간에 내려서니 민순임이 밥상머리에 있다가 얼른 일어나 부엌에 가서 새까만 오지단지를 들고왔다. 상우에 접시를 놓고 그우에 단지를 놓고 뚜껑을 열었다. 그러자 구수하고 향긋한 냄새가 물씬 코를 찔렀다.
《이건 뭐요?》
정시명이 눈이 커져서 물었다.
《닭곰이랍니다. 당신이 벌써 며칠이 되였나요. 아무리 일에 다몰리기로서니 때식을 건네서야 어찌 일을 보시겠나요. 그래 례영이가 아까 시장에 나가서 깜장닭 두마리를 사들고왔군요.》
《그래?…》
정시명이 무등 고마움에 차서 례영에게로 고개를 돌리는데 례영이 얼굴이 새빨개져서 《어머닌…》 하며 민순임을 향해 곱게 눈을 빨았다.
《주인어른도 크게 걱정하셔요. 입맛 돋구는데 닭곰이상 없다며 몇마리 고아드리라고 등을 떠밀더래요.》
《괜한 걱정을 시켰구나. 하여튼 고맙다. 우리 다같이 먹고 기운을 내자.》
정시명이 이렇게 헌헌하게 웃으며 팔소매를 걷어올리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에 단지뚜껑을 덮었다.
《어서 드세요. 식기 전에.》

민순임이 웬일인가싶어 의아스러워하며 다시 뚜껑을 열려고 하였다.
《가만… 이걸 꼭 들어야 할 사람이 따로 있소.》
《예?… 누군데요?》
《자, 난 밥을 갖다주오. 랭수 한그릇도… 이건 가마에 가져다가 그냥 덮어놓소.》
《아버지.》
례영이 또 웃몸을 흔들며 엉석을 부렸다.
《원 당신두. 례영이 성의를 봐서 좀 드시는척이라도 하시라구요.》
민순임도 나무람을 하였다.
《여보, 백범선생이 어제부터 식음전페했다고 하오. 그래 그러오.》
《백범선생이? 그분이 어째서요? 평양 가신다구 하더니만.》
《그것때문에 골머리아픈 일이 많지. 대사를 앞두고 그 어른이 넘어지면 큰 랑패요. 례영아, 네가 갖다드리도록 해라.》
《그랬구만. … 그럼 이건 당신드세요. 사실 한마리는 래일 아침에 드릴려구 준비만 해놨는데 아침일찍 고아서 갖다올리자요.》
《아니, 내 말대로 해주오. 시간이 금쪽 같소. 례영아, 얼른 랭수 한사발 들여오너라.》
하는수없이 례영은 얼른 일어나서 물 한사발을 떠가지고왔다.
《이젠 나도 밥맛이 생겼다. 자, 봐라.》
정시명은 정말 물사발에 밥을 말아가지고 고추장을 곁들어 잠시사이에 밥사발밑굽을 내였다.
민순임이, 례영이 눈이 휑해졌다.
《왜 그러오? 허허…》
정시명이 껄껄 웃었다.
밥상을 치우고 례영이 길차비하는데 민순임이 따라나섰다.
《저도 같이 갔다올랍니다.》
《뭘? 닭 한마리 가지고 생색을 내듯 둘이 가겠소?》
정시명이 만류하였다.

《아니, 저도 좀 그 집 내인들이라도 만나 말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정시명이 웃었다.

《왜 그러세요. 저도 례영이한테서 다 듣고있어요. 그 어른 북쪽 사람들을 무서워한다지요. 어디 나보구 무서워할게 있느냐 하구 좀 말하고올랍니다.》

《당신이 정말 그렇게 하겠소?》

정시명이 놀라서 다시 물었다.

《왜요. 제가 못할것 같습니까? 그전에 송사령관댁도 저의 말을 얼마나 명심해 들었는지 몰라요. 송사령관댁이 절더러 북쪽의 대표라고 부러워했답니다.》

사실 민순임은 언젠가 정시명의 말을 들은 이래 제스스로 세워놓고 애를 쓰며 지켜가는 속기둥이 하나 있었다.

그게 뭔가 하니 북쪽에서 살아온 사람이라는 그 자각이였다. 거기서 한해반 되게 살았지만 어쨌든 서울사람들과는 다르다. 또 달라야 한다.

난 장군님정치하에서 살아본 사람이다. 그것도 리녀맹부위원장까지 했다. 그러니 매사에 북쪽에서 살아온 사람답게 말 한마디 해도 걸음 하나 옮겨도 이고장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 내가 잘못하면 남편망신은 젖혀놓고서라도 북조선망신을 시킨다. 장군님정치하에서 살았다는게 저꼴이냐고 누구라도 손가락질하면 어쩌랴. …

그리고 민순임은 자기를 이길에 세워주신 김정숙녀사의 말씀도 자주 생각하군 했다.

(내가 처신을 잘못하여 남편에게 짐이 된다면 그분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겠는가. 그분의 뜻대로 남편의 일에 보탬이 되고 의지가 되게 살아야 한다.)

민순임은 노상 이렇게 마음을 다잡았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 하루일을 곰곰히 돌아보며 다시 마음에 다져넣었다.

그렇게 사는게 헐치 않았다. 마음 씀씀이 고와야 하고 일손도 부

지런해야 하고 례의범절까지도 흠할데 없어야 했다. 그렇게 속을 써가는게 여간 부담스럽지 않지만 그때마다 그 녀자는 마음속으로 나는 장군님품에서 온 사람이라고 곱씹었다.

점차 이렇게 버릇붙여가니 어렵기만 하던 주변사람들 대하기도 한결 편해졌다. 아무렴, 서울사람들치고 나만큼 밝은 세상살이를 해본 사람이 몇이나 되랴 하는 배심이였다.

지금도 민순임이 그런 심정으로 선뜻 례영이를 따라나선것이다.

북녘사람들의 마음씨가 장군님의 정치하에서 천하없이 고와졌다고 그 집의 안사람들에게라도 말해주고 오고싶었다.

민순임이 당장 일을 낼듯 기세를 올리는 바람에 정시명은 크게 웃고말았다.

(저 사람도 크게 달라지는구나.)

지지리도 무직하던 가슴 한귀퉁이가 열리는것 같았다.

문득 눈앞에 귀중한 모습이 비껴왔다.

그 잊지 못할 평양의 눈내리는 밤에 민순임을 서울로 꼭 데리고 가라고, 부부간의 사랑은 절대로 짐이 되지 않는다고, 힘이 되고 의지가 될것이라고 그리도 살틀하게 마음을 써주시던 김정숙녀사!…

(그분께서는 무고히 지내시는지?…)

뜻하지 않게 가지를 쳐간 추억에 정시명은 그자리에 우뚝 굳어져서 북녘의 하늘에서 오래동안 눈길을 거두지 못하였다.

김구는 불꺼진 방에 홀로 앉아있었다.

방금전에 리승만의 비서가 편지를 가지고왔었다. 북행길을 그만두라, 그러면 난 당신을 내세울 용의가 있다, 이에 대해 언론에 공개해도 좋다는 내용의 편지였다.

김구는 비서를 돌려보내자마자 편지를 초불에 태워버렸다. 그리고 비서실에 지금 와있는 방문객들에게 래일아침 와달라고 이르라고 하고는 일찌기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워버렸다.

네놈이 정말 이 백범을 권력에 환장한 놈으로 기어이 만들어놓으려고 안달복달이구나.

김구는 바깥등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천정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입속말로 중얼거리였다.

권좌를 가지고 북행길을 희롱하는것이 역스럽기 그지없었다. 북행은 민족의 출로를 찾기 위한 길이거늘 네놈이 그따위 수작으로 나를 모함하려들어…

아침부터 지금까지 맞아들인 방문객들과 나눈 이야기를 더듬어보니 도무지 종잡을수 없었다.

오늘도 여라문명 만났다. 이놈이 이 소릴 하고 저놈이 저 소릴 하고 달아났는데 도무지 갈피가 잡히지 않았다. 어째서 이 백범이 평양나들이 한번 갈라는데 이렇게 모두들 법석들이냐.

아무리 공인의 몸이라 하지만 너무 소란스럽다.

련공이라… 내 아직 그런 말을 내비친적 없건만 그걸 코에 걸고 찧고까분다. 하지도 리승만도 그 소리다. 평양행을 련공이라는거다.

하기는 공산주의자들과 마주앉으면 그건 벌써 련공에로의 일보인것만은 사실이겠다. 그러나 정처장의 말대로 북은 공산주의자들이 타고앉았는데 그들과 마주앉지 않고서야 어찌 나라의 흥망성쇠를 론할수 있으며 통일은 어떻게 한다는건가.

평양길만이 나라의 완전독립을 성취하는 길임은 틀림이 없다.

그런데 정말 북조선사람들이 나를 건국대업에 같이 참가시키겠는가.

하지와 미국것들이 날마다 주어섬기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놈들의 수작질이 황당하기 그지없지만 무심코 넘어가지는 않았다.

정말 그네들이 평양에 불러놓고 옛적일을 회계하자고 들면 이 백범은 건국대업은 고사하고 무주고혼으로 사라질수도 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을가?… 설마 그럴수야 있는가. 세상여론이 있는데 그런 무엄한짓이 있을고?… 아니 아직은 기약이 없는 일이다. …

요새 김구는 북쪽 소식이 실린 신문들을 구해들이게 해서 짬짬이 읽어보았다. 위안거리를 제 눈으로 찾아내고싶은 심정에서였

다. 읽을수록 끌려드는데 시간이 없어 파고들지 못하는게 야속했다.
　줄지어 달려드는 방문객들을 치르고나면 하루가 덧없이 지나고 그렇게 보낸 하루끝에 잠자리에 들면 온몸이 천길나락에 떨어지듯 녹초가 되고말았다.
　방문객들을 제한하니 그다음에는 편지공세가 이만저만이 아니였다. 이제는 비서실에서 편지를 다 들여보내지 않았다.
　보고에 의하면 편지들에 별주장이 다 있다고 한다. 애걸, 협박, 고무… 보내오는 사람들의 직업도 주소도 천태만상이다. 어떤때는 담장너머로 편지가 날아들기도 했다.
　지나온 70평생에 인생고초 다 겪어왔는데 지금처럼 자신을 지탱하기 어려웠던적이 없었던것 같았다.
　《에잇!… 살아있다는게 이리도 고달프냐!》
　김구는 저도모르게 화가 나서 부르짖었다.
　그때 딸깍소리가 문밖에서 나더니 불이 켜졌다.
　김구는 방안이 환해진것이 귀찮아서 누운채로 소리쳤다.
　《놔뒀거라.》
　그러자 맏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님!》
　《오냐, 맏이냐?》
　김구의 목소리가 인차 부드러워졌다. 김구는 아무리 노엽거나 화나는 일이 있어도 맏며느리앞에서는 절대로 내색을 내지 않아왔다.
　《내 홀로 있고싶어 그러니 그런줄 알아라.》
　《여기 저녁진지 가지고왔습니다.》
　《원, 먹고싶으면 내 발로 내려가지 않으리. 갖다두어라. 생각이 없으니 너희들끼리 하거라.》
　《그런게 아닙니다, 아버님, 이건 전번에 오셨던 정선생님댁에서 손수 만들어가지고왔습니다.》
　《뭣이?… 정선생님댁에서?!…》
　김구는 자리에서 얼른 일어나 문을 열었다.
　안미생이 하얀 보자기에 싼 단지를 들고 서있었다.

《그건 뭔데?》
《닭곰을 해왔다고 합니다.》
《닭곰?… 원, 이런!…》
안미생이 원탁우에 있는 서류들을 차대우에 옮겨놓고 그우에 들고온것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접시를 놓고 거기에 단지에서 꺼낸 닭을 놓았다. 그러자 방안에는 구수한 닭고기냄새와 함께 삼과 단너삼의 향기롭고 달큰한 냄새가 가득찼다.
김구가 원탁에 와서 닭고기를 우두커니 내려다보는데 안미생이 나직이 아뢰였다.
《정선생님의 말씀이 아버님이 큰 대사를 앞두고 식사를 못하신다니 웬말이냐 하시며 갖다드리라구 했답니다.》
《원, 이런…》
김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신통한 말이 떠오르지 않는듯 이렇게 입속으로 중얼거릴뿐이였다.
한참후에야 김구가 말했다.
《부인께 전해드려라. 내 맛있게 들겠다구.… 그래, 맛있게 먹어야지.》
《어서 드세요. 아버님 드시는걸 보고야 오라고 했답니다.》
《오냐, 오냐! 들어야지.… 내 먹으련다.》
김구는 이렇게 목이 갈리여 중얼거리며 쏘파에 앉아서 안미생이 옆에서 한점한점 뜯어주는 고기를 들기 시작하였다.
김구는 아무말없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 닭 한마리를 앉은자리에서 다 먹었다.
그는 안미생이 내주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일어섰다.
안미생이 요새 좀체로 입맛이 돌아서지 않아 얼굴이 꺼칠해지던 시아버지가 닭 한마리를 다 녹이자 기쁨에 젖어 말했다.
《아버님, 이젠 끼마다 닭곰을 올리겠습니다.》
《허허허!… 뭘 그렇게 하겠느냐. 그래, 내 용렬한 놈이구나. 천가지 일들에 먹는 일이 으뜸이라 했거늘 대사를 앞두고 식음을 버리다니… 허허… 이런 념려까지 끼쳐드리다니…》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시아버지의 웃음소리에 안미생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여올랐다.

안미생이 단지를 도로 보자기에 싸들고나가려 하는데 김구가 손을 내밀었다.

《인다오.》

《예? 제가…》

《자, 앞서거라.》

김구가 단지를 받아들고 계단을 내렸다. 며칠만에 달게 먹으니 팔다리에 기운이 뻗치는것 같다.

그는 사뭇 가벼운 걸음으로 부엌간으로 들어갔다.

그때까지 부엌에서 둘째며느리와 함께 동자질을 해주고있던 민순임과 례영은 김구가 들어서는 바람에 모두 화닥닥 놀랐다.

그들은 얼른 행주수건에 손을 닦고 인사를 했다.

《선생님께 문안드립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러자 김구도 허리를 깊이 숙여 정중히 인사를 차렸다.

《부인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 저 방으로 모두 갑시다.》

김구는 녀인들을 응접실로 안내하였다.

《어서 앉으시우. 체네는 따님이시우?》

《예.》

례영이가 다시 그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였다.

《아, 출가를 했군 그래… 어서 앉으라구. 그래 아버님은 무고하시우?》

《예, 그저 선생님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 그래… 두루 생각이 많아 지내지요. …》

김구가 침울한 어조로 말을 받다가 녀인들앞임을 인식한듯 인차 화제를 돌렸다.

《그래 따님은 뭘하지?》

《다방을 맡아봅니다.》

《다방을?… 다방일이 재미있지. … 사위도 끼고계십니까?》

《사위말입니까?…》

민순임이 그 소리에 대답을 흐리마리하며 고개를 돌리더니 옷고름을 눈에 가져갔다.

김구가 례영에게로 묻는듯한 눈길을 돌리자 례영이도 얼른 고개를 숙이였다.

나란히 앉아있던 둘째며느리가 대신하여 대답했다.

《갈라졌답니다.》

《어째서?》

김구가 대뜸 성이 돋쳐 물었다.

《이 꽃같은걸 버리다니?!》

《아버님, 그런게 아니구… 사위라는분이 피치 못할 일로 멀리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럼?… 녀자란 자고로 삼종지의라 어렸을 때는 부모님 따르고 출가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라서는게 인륜인데 어째 이 꽃같은 젊음을 홀로 보내게 하십니까.》

《글쎄, 그렇게 하느라고는 했는데 저들끼리 의논이 됐다구 합니다. 아버님이 힘에 겨운 일을 맡아하시는데 통일이 되는 날까지 애가 곁에서 시중들기로 했다나요.》

민순임이 말끝에 또 옷고름을 올렸다.

《원, 무슨 소린지?… 통일이 언제 되겠는지 뉘 알고…》

김구가 이렇게 다소 침통한 어조로 웅얼거리였다. 그리고는 례영에게로 고개를 돌리였다.

《우리 늙은것들이 길잡이를 잘못해서 젊은이들이 이런 불행을 당하게 하는구나. 그래, 그래, 통일을 해야지. 암, 해야 하구 말구. 나라를 광복하니 새라새로운 인간불상사가 또 시작되였구나.》

마치 사죄를 하듯 말을 하던 김구가 눈을 스르르 감았다. 한없는 비분이 그의 얼굴에 떠돌았다. 긴 숨을 톺아올리던 김구가 눈을 번쩍 뜨더니 잠시 창밖을 노려보다가 민순임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부인님, 정선생님께 전해주시유. 지금 내 주위에 억만파도 거칠게 춤을 추지만 내 마음 흔들리지 않겠다구 말입니다. 오가는 여

러말을 흘려듣고 날 믿어달라구요.》
김구가 이야기를 마치자 례영이가 자리에서 불쑥 일어났다.
김구의 주름진 얼굴에 비낀 바위같은 기상을 쳐다보는 그의 눈귀에 구슬이 맺혀 불빛에 반짝 빛을 뿌렸다.
례영이는 지금 눈앞에 날이 바뀔수록 더욱 애모쁘게 그리워지는 마동열의 얼굴을 그려놓고있었다.
마동열이 당장에라도 자기를 찾아 되돌아서게 될것 같았다.
그길에 얼기설기 쳐있는 철조망도 패말뚝도 일조에 사라져버리고 눈물겨운 상봉의 날이 성큼 다가온것 같다.
김구가 더는 드틸것 같지 않을 북행결심을 내려 여적 정시명이 못지 않게 빠질빠질 타던 자기 속도 시원하게 열어준것 같다.
그래 례영은 김구앞에 큰절을 곱게 하면서 눈물에 씻긴 또렷한 어조로 인사를 올렸다.
《백범선생님, 고맙습니다!》
례영의 뜻밖의 절에 김구가 크게 당황해서 손을 휘휘 내저었다.
《아서라. 이러지를 말아. 어서 일어나거라. 얘야, 내 아직 따님으로부터 절 받을만한 일을 해놓은게 아무것도 없은즉 어서 일어나거라.》
《선생님, 그애 절을 받으세요. 선생님께서 나서신 평양길이 선생님에겐 백성들을 위한 장하신 걸음이지만 그애에겐 제 서방 만나는 발등에 떨어진 불끄는 일이랍니다.》
민순임이 또한번 옷고름을 눈에 가져갔다.
《뭣이?!… 그래, 그렇지… 부인님 말씀이 과시 옳습니다. 옳습니다. 통일은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얘야, 그럼 내 절도 받아다오. 내 따님인사를 천만마디로 폐부에 새기고 평양에 기어이 가련다. 어허… 어허… 어허… 너희 모녀 끝내 날 울리는구나!》
김구는 이렇게 목이 메여 중얼거리다가 오른다리를 꺾고 례영이앞에 허리를 깊이 숙이였다. 그리고는 손수건을 꺼내 연신 눈지방을 꾹꾹 눌렀다.
민순임도 안미생이도 맞절을 한채 마루바닥에서 쉬이 일어서

지 못하는 두사람을 내려다보며 흐르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였다.

이튿날 새벽에 김구에게로 또하나의 경사스러운 소식이 전해왔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친히 보내주신 초청장과 그이의 친서를 전달하려 정향이 찾아온다는 소식이였다.

안지생을 통하여 이 소식을 전달받은 김구는 감개무량하여 어쩔줄 몰랐다.

그는 정문접수로부터 큰 길가에 이르는 곳에 촘촘히 안지생이 천거한 측근인물들을 배치하여 방문객을 들여놓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두 며느리를 차에 태워 꽃방에 보내여 향기로운 꽃을 가져다가 여러개의 꽃병에 꽂아 응접실을 꽃향기로 넘치게 하였다.

자기로서는 복잡하게만 서려들던 온갖 시름을 다 털어버리고 오래전부터 경모하여마지않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친히 보내주신 초청장을 최대의 성의로 받아들이고싶었던것이다.

정시명은 김구의 정중한 환대를 받으면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회의초청장과 편지를 김구에게 내놓았다.

《3천만 우리 인민이 우러러모시는 **김일성**장군님께서는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비운을 막기 위한 구국방안을 함께 의논하기 위하여 남북련석회의에 선생님을 초청하시였습니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단선단정〉을 배격하고 통일정부수립을 주장하시는 선생의 애국심을 높이 평가하고계십니다.》

《정말 감사하외다. 나는 **김일성**장군님께서 이 불민한 사람도 친히 알아주실줄은 몰랐소이다.

김장군이 몸소 부르셨다면 난 기꺼이 평양으로 가겠소.》

김구는 장군님의 초청장과 편지를 두번세번 읽고 재확인하고나서 숭엄한 감정에 휩싸여 이렇게 자기 의사를 표명하였다.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초청장과 편지는 그의 신변안전을 담보하거나 회의에 참가해달라는 한갖 통지서가 아니라 일생을 《반공》의 치욕속에 살아온 그의 어지러운 가슴에 재생의 희열을 가득 채워준 은혜로운 해발이였고 반동의 길에서 애국의 길에로 이

끌어주시는 사랑의 손길이였다.

김구는 이날저녁에 《한독당》의 비상회의를 소집하였다. 김구가 연탁에 나섰다.

《우리의 북행에 대해 기웃거리는 세력도 있으나 우리의 전도에는 밝은 희망이 보이고있습니다. 우리 〈한독당〉은 민족의 리익에 이바지되는 일이라면 불과 물도 가리지 않고 뛰여들어 건국대업의 선구력량으로 매진할것입니다.

나 백범은 민족통일에 이바지할수만 있다면 38°선을 베고 쓰러져도 한이 없습니다.》

김구는 자기의 북행결심을 이렇게 비장하게 선언하였다.

김구의 선언은 우익과 중간파의 정객들속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이 시기 초청장을 받은 일부 정객들은 우익반동들의 집요한 방해책동과 정치적우유부단성으로 하여 결심을 내리지 못하고 김구가 사는 서대문구의 죽첨동 경교장으로 뻔질나게 나들었다.

남북련석회의에 김구가 어떤 립장을 취하고있는가를 타진하기 위해서였다. 그들도 김구가 비록 《단선단정》반대와 남북회담을 주장하였지만 설마 북의 공산주의자들과 합작이야 하겠는가 하고 생각하였던것이다.

그런데 김구가 비상한 흥분과 열의속에 참가할 용단을 내리고 북행길을 서두르는것을 보자 주저없이 그와 함께 보조를 같이하기로 하였다.

조소앙은 《북에 갔다가 설사 돌아오지 못한다고 해도 기어이 김구를 따라서겠다.》고 하면서 만약 미군정당국이 합법적으로 가는 길을 막으면 비밀리에라도 가겠다고 다짐을 하였다.

이렇게 김구, 김규식세력의 회의참가문제를 일단락짓게 되자 정시명은 홍명희와 리극로, 백남운, 리영 등 《13정당협의회》의 인물들을 내세워 회의참가를 결의해나선 남조선의 100여개 정당, 사회단체들을 《통일독립운동자협의회》라는 하나의 련합체로 묶어세웠다.

3

대표들을 회의장에 보내는 문제를 둘러싸고 적아간에 치렬한 대결이 고조되여갔다.

어느날 김포비행장에 방금 도착한 미군용비행기의 승강대우에 로신사가 나타났다.

훤칠한 키에 멀끔하게 생긴 로신사는 금물을 올린 지팽이에 몸을 의지하고 비행장너머로 병풍처럼 둘러간 산발들을 음험한 눈길로 굽어보고있었다.

그는 미국무장관 마샬이 하지의 보고를 받고 급기야 파견한 미국무성 특사 베닝호프였다. 그는 최근년간 세계정치계의 초점을 모으고있는 조선반도의 땅을 정복자다운 거만하고 차거운 눈으로 굽어보며 워싱톤을 떠나기 전에 마샬이 열이 올라 하던 말들을 생각하고있었다.

마샬은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가 2차대전후 미국의 외교에 그늘을 던지고있다고 하면서 장시간 조선에서의 좌익세력들과의 공방전을 력설하고나서 이런 말로 자기의 외교적실책을 슬쩍 변호하였다.

《이제 서울에 가면 리해가 되겠지만 하지가 안팎으로 곤경에 빠져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말하면 군단장으로나 족한 인물인데 맥아더의 우산밑에 있으니 군정의 옥좌에서 몰아내기도 힘들게 돼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을 특별히 현지에 파견하는건 그 4월남북련석회의라는 공산주의자들의 정치유희나 파탄시키라고 보내는게 아닙니다. 난 당신의 외교실력과 수완으로 하지와 그의 동료들에게 외교학의 총론을 깨우쳐줄것을 희망합니다.》

베닝호프는 입가에 느슨한 미소를 담았다. 영접을 나온 하지와 그의 측근인물들을 그제야 눈아래로 내려다보며 중절모를 벗어 그들에게 도착인사를 보냈다.

이 로신사는 벌써 2차대전시기에 루즈벨트의 특명을 받고 쓰딸린과 쳐칠, 히틀러사이를 전용비행기를 타고 누비면서 빈번히 높은 외교적실적으로 미국의 여우라는 평판을 받은 로회한 외교가였다. 그는 루즈벨트가 급사한 후 백악관을 떠나 미국의 두뇌집단으로 불리우는 헤리티지재단의 수석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여전히 미국의 외교진에 깊이 관여하고있었다.

베닝호프는 승강대에서 자신있게 걸음을 옮겼다.

하지관저의 별채에 려장을 풀어놓은 베닝호프는 하지와 관여인물들로부터 남북정치인들의 회합과 관련한 상황보고를 상세히 청취하였다.

베닝호프는 일이 꼬일대로 꼬여들어 바로잡기가 힘들것이라는 판단이 직감적으로 생겼으나 내색을 하지 않고 일에 달라붙었다.

그는 이미 한발 앞서 서울에 날아든 국무성과 국방성의 모사군들, 주둔군사령관 하지와 미군정장관 그리고 수하인물들과 미중앙정보국 남조선책임자 레코라우스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수뇌들로 특별공작그루빠부터 조직하였다. 이것은 이미 마샬앞에서 제안하였던 일이였다.

특별공작그루빠는 남북회담을 파탄시키는것을 목표로 규정하고 본부는 미군정청안에 두고 정보국장 노불이 매일 베닝호프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집행을 감독하고 총화하도록 하였다.

모략소동은 확실히 수가 달라지고 여러 방면에서 활발히 벌어졌다.

서울에 주재한 모든 미국기관들과 역원들이 베닝호프의 총괄적인 지휘밑에 남북회담을 파탄시키기 위한 적당한 몫을 부과받았다. 작전은 남조선지경을 벗어났고 방법도 필요한것이라면 다 리용되였다.

하지는 처음에는 베닝호프에게 다 밀어붙이고 자신은 그 지긋지긋한 일거리에서 벗어나고싶었으나 생각을 고쳐먹고 여전히 힘

을 넣었다. 그는 그루빠에 거액의 활동자금을 제공하고 4월 중순으로 예견된 회의를 파탄시키도록 진두지휘하였다.

놈들의 악랄하고 교묘한 모략의 기본과녁은 김구와 김규식이였다.

어느날 김구는 평양에 련락원을 먼저 보내야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안지생이 련석회의날자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련락원을 보내면 어찌하겠느냐고 안타까운 어조로 만류했으나 그는 막무가내였다.

이 소식을 전달받은 정시명은 무척 흥분하였다. 마지막계선에 와서 인생전환의 보폭을 크게 떼지 못하고 그냥 바재이는 김구가 미워났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 달려가서 속이 후련하게 욕이라도 해주고싶었다.

(어찌 이럴수 있단 말인가. 장군님께서 불러주시였으면 다지 그 무슨 군소리가 이리도 자꾸 튀여나온단 말이냐. 황차 통일의 길에 올라 38°선을 베고 죽을지언정 물러서지 않겠다던 맹약은 어데 갔는가. 당신이 도대체 우리네 례영이 당하는 인생수난이 앞으로 3천만동포모두의 수난으로 될수 있다는데 대하여 그렇게도 모르고 있단 말이냐.)

정시명은 남북회담이라는 대경사를 두고 요새 자주 례영을 생각한다.

언젠가 김명호가 례영이 안고있는 분렬의 아픔을 두고 피타게 절규하던 말들이 때없이 울려나오군 한다.

례영은 지금 북남회담이 열려 나라의 통일이 토의되고 머지않아 통일정부가 서게 될것으로 굳이 확신하고있다. 그래서 기쁨에 떠있고 감격에 설레이고있다. 민순임의 말이 례영이 달력에 회담예정날자인 4월 14일에 빨간 동그라미를 쳐놓고 손꼽아 기다린다고 했다.

김구가 도대체 이런걸 생각이나 하고있느냐. 아니 례영이앞에서 흘렸다는 그 눈물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분렬의 첫 수난자의 그 애절한 기쁨을 위해 나나 백범 당신이 백번 죽으면 어떻단 말이냐.

그러나 정시명은 울분을 눌렀다. 참아내는수밖에 없었다. 공산주의에 대한 몰리해가 빚어놓은것이라고 자기를 위로하였다.

그래서 정시명은 그의 의사를 굳이 막지 않았다.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있어야 북행길도 확고해질수 있기때문이였다.

이리하여 김구, 김규식은 세사람의 측근인물들을 평양에 먼저 파견하였다.

김구의 련락원은 4월 9일 38°선을 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후날 그때의 일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시였다.

《김구의 비서가 나를 만나겠다기에 내가 만나주었습니다.

그때 그는 〈김구선생이 평양에 들어와서 장군님을 뵈오려 하는데 과거를 백지로 해주실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자기가 과거에 범한 죄를 백지로 할수 있는가 하는것이 김구의 중요한 요구조건이였습니다. 나는 그에게 〈좋다, 백지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김구가 평양에 들어오게 되였습니다.》

서울에 돌아온 련락원들은 장군님께서 하신 은혜로운 재생의 선언을 그대로 전하였다.

그리고는 《김장군님은 매우 도량이 넓으시며 매사에 탁월한 견해를 가지고계시며 친절하신분입니다. 장시간 말씀을 주시였는데 우리와 실무적인 협의를 하실 때는 융통성이 많으시였으며 지극히 겸손한분이십니다.》라고 하면서 평양으로 떠나야 한다고 간곡히 권유하였다.

장군님의 자애에 겨운 말씀까지 접한 김구는 그제야 비로소 안심하고 회의에서 발언할 토론문과 문건작성을 다그칠것을 측근들에게 지시하였다.

하지도 더욱 맹렬히 움직이고있었다.

4월 14일 서울을 떠난다는것을 내탐한 하지와 노불이 김구, 김규식의 집을 연해 방문하였다. 그들은 최종적으로 련석회의참가를 단념할것을 설복하다가 끝내 통하지 않게 되자 그러면 평양에 도착한 다음 북에서 받아들일수 없는 조건을 내걸고 회의를 파탄시킬데 대하여 강박하였다.

노불은 이미 특별공작그루빠에서 작성된 《요구사항》을 렬거한

문서장까지 넘겨주었다.

4월 13일 저녁에는 장지에스의 특사가 서울에 비행기로 황급히 날아왔다. 김구와의 공작에 장지에스까지 끌어들인것이다.

특사는 김구가 상하이에서 두어번 만난 일이 있는 인물이였다.

그놈은 그들을 만나 장지에스의 진언이라고 하면서 공산주의자들과의 회담은 백해무익하다고 요사를 떨었다.

김구를 장차 수립될 조선정부의 수반으로 내세우고싶어 여러가지 통로를 통하여 재정적, 외교적지원을 해온 장지에스의 《충고》가 김구에게는 매우 무게있는것이였다. 그는 내 집에 온 특사를 내 집에 온 나의 손님이라고 하면서 연회를 차리고 잠자리까지 같이하는 특례를 보이였다.

이렇게 되자 하지는 이미 준비시킨 《한독당》과 《민족자주련맹》의 우익반동분자들을 내몰아 비상정치위원회를 열게 하고 남북련석회의참가문제를 최종적으로 토의하도록 하였다.

김구, 김규식은 하는수없이 회의예정일인 4월 14일에 자기 당의 정치위원회의에 참가하는수밖에 없었다. 남북회담은 며칠후로 연기되였다.

정시명은 그들이 다시 눌러앉게 된 그자체가 또다시 결심이 흔들리고있다는 징조라고 판단이 갔다. 정시명은 있을수 있는 정황을 면밀히 예측하면서 필요한 대응책을 세워나갔다.

예견했던대로 회의들에서 당안의 반동들은 여러가지 부당한 구실을 들이대면서 대표들의 참가를 악랄하게 반대해나섰다. 그들은 미군정청이 고안해낸 엉뚱한 시비거리를 한가지씩 들고나와 장광설을 늘어놓으면서 좀처럼 회의를 결속할수 없게 훼방을 놀았다.

련석회의날자까지 회의를 질질 끌어 어떻게 하든지 김구, 김규식을 협상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미국의 지연술책이였다.

정시명은 가슴이 홧홧 달아올랐다. 가슴에 재가 차고 손바닥에 땀줄이 움켜잡히게 하는 일이였다.

회의가 시작될 때부터 회의정형을 수시로 보고받으며 상황을 살피던 정시명은 엄항섭을 비롯한 이 당들에 있는 진보적경향이 있는 상층인물들을 발동하여 악질반동들의 궤변을 사리정연한 론

리로 꺾어버리고 놈들의 책동에 타격을 가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남북련석회의가 열릴 전날인 4월 18일에야 가까스로 회의참가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회의를 끝내게 되였다. 《한독당》과 《민족자주련맹》은 김구, 김규식을 포함한 27명의 우익민족주의거두들을 당의 정식대표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였다.

이날저녁 정시명은 저녁 늦도록 회의가 진행되는 서울녀자고급중학교의 강당옆에서 회의활동을 지휘하다가 회의가 결속된것을 보고서야 지휘부로 돌아왔다.

회의소식을 안타까이 기다리던 전우들이 그를 에워쌌다.

정시명은 말없이 례영에게 회의결정내용이 들어있는 자료를 넘겨주었다. 례영은 자료를 한번 훑어보고는 마음이 금시 밝아져서 동그란 어깨를 춤추듯 흔들며 타자를 치기 시작하였다.

례영이 타자를 끝마치고 돌아보니 정시명은 벽에 비스듬히 기대여 굳잠에 곯아떨어져있었다. 하지를 일방으로 하여 거의 한해토록 계속되여온 긴장한 사업의 승리적인 결속이 온몸에 겹쳐들었던 피로를 일시에 터쳐놓았던것이다.

참으로 정시명은 온몸의 신경과 두뇌와 육체적힘을 깡그리 바쳐 초인간적인 활동으로 순간순간을 이어왔었다. 전우들은 기쁨과 선망이 어린 눈길로 사랑하는 지휘관의 잠든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있었다.

례영이 그의 어깨에 모포를 살그머니 씌워주었다.

《자, 나갑시다. 조용, 조용히…》

김명호가 전우들을 돌아보며 모처럼 잠든 지휘관이 깨여날가 저어하며 나직이 속삭였다.

4

정시명이 깨여난것은 동틀무렵이였다.

서병남이 흥국상회에서 전화가 왔노라며 그를 깨웠다.

안지생이였다. 그의 목소리가 매우 당황하고 불안에 떨고있었다.
《야단이 났습니다.》
《이야기하오.》
정시명도 불안하기 그지없었지만 상대방의 흥분을 가라앉혀주느라고 애써 차분하게 재촉했다.
《집밖을 깡패들이 에워싸고 버티기를 하고있습니다. 사관학교놈들이 많이 온것 같습니다. 이제 새벽바람으로 떠나자고 했는데…》
《사관학교?》
《뭐 대표라고 하는 젊은애들이 대문을 부시고 들어와서는 토방에 엎드려 엉엉 울기까지 하면서 월북의사를 철회하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건 또 무슨 짓거리들이요. 좋소. 30분후에 다시 전화하시오. 백범선생의 기분은 어떻소?》
《노발대발이지요. 출발준비는 다되였는데 밖으로 몸을 뺄수가 있어야지요. 김장군이 기다리시겠는데 이 일을 어찌노 하며 한숨만 쉽니다.》
《비렬한 놈!》
《예?!》
《비렬하다는거요. 하지, 이놈. 이제는 생억지를 쓰는구나. 네놈의 너절한 망동이 이 밝은 세상에 더는 통할상싶은가.》
단말마적인 발악까지 하는 하지의 너절한 행위에 정시명은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여 이렇게 부르짖고는 전화를 끊었다.
정시명은 서병남에게 태릉에 있는 경비대사관학교 교장인 김송일을 전화로 찾아달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권재수에게도 30분후에 승용차를 김구의 집근처에 대기시켜달라고 부탁하도록 하였다.
얼마후 김송일이 아직 잠기가 있는 말투로 전화를 받았다.
정시명은 지금 사관학교 학생들이 김구의 저택에 와서 망동을 벌려 그의 북행길을 막고있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음, 그렇구만. 점심참에 우리 교무처장이 2백명의 생도들을 장

택상서울경찰청장이 보내달란다고 하기에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그 판을 벌려놓았군요.》

《김구선생이 도움을 청하여 나한테 부탁하여왔습니다. 백범이 그 사람 한생에 보람이 있는 일에 나선것 같은데 김송일교장이 길을 막아나서서는 안될줄로 압니다.》

정시명은 정중하게 비난하였다.

《아 정선생, 내 알겠습니다. 인차 조처하겠습니다.》

김송일이 잠기에서 벗어나 무겁게 대답을 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인차 현장에 달려온 김송일은 경교장의 대문간에서 리승만의 심복부하인 장택상과 마주치자 고함을 쳤지만 자기 생도들을 철수시킬수는 없었다. 장택상이 미군정청까지 거들면서 김송일의 철수명령을 단마디로 일축해버렸던것이다.

안지생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다소 밝아진 목소리였다.

그는 현장에 길철이가 여러명의 조직성원들을 데리고 나타났다고 하면서 김구를 감쪽같이 탈출시켜 집에서 빼내겠다고 하였다.

정시명이 이제 집근처에 권재수검사가 승용차를 가지고 나타날것이라 하니 그럼 문제없다고 장담하였다.

온밤을 뜬눈으로 밝힌 김구는 아침이 밝아오자 미칠것만 같았다. 지금도 밖에서는 별의별 고함소리가 다 들려온다. 이 일을 어쩐단 말인가. 흔쾌한 마음으로 길차비를 했는데 막판에 와서 이런 곤경에 처하게 될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던것이다. 숱한 고민과 곡절을 거쳐서 마침내 나선 길이 저 무지막지한 불량도배들에게 막혀버리다니. 이게 다 하지놈의 작간일게다. 그놈이 미친놈이지.

미친놈 아니고야 어찌 서울장안에서 이렇게도 고약하고 치사스러운짓을 벌리는거냐. 내 네놈들이 그런다고 물러설것 같으냐. 백범이 웃는 낯에는 침뱉지 않지만 주먹에는 주먹을 내들고 치면 받는 인간인줄 네 아직 모르는구나. 황차 내 뜻을 따라나선 길을 네 강권으로 막을수 있다더냐. 이 백범은 뜻에 살고 뜻에 죽는다. 나라세우는 일에 네놈들 막아설바도 아니요, 네놈들 막아선다고 뜻을 바꿀 내 아니다. 백범이 어떤 사람인줄 네놈들 똑똑히 알

아라. …

김구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방이 떠나갈듯 소리쳤다.

《펜과 종이를 가져오너라.》

비서가 얼른 펜과 종이를 가지고왔다.

보름전에 안우생이 새로운 임무를 받고 홍콩으로 떠나간 후 안지생의 추천에 의하여 안중근의 막내동생인 안공근이 비서실에 인입되여 김구의 옆에서 그를 보좌하고있다.

그도 정시명의 영향을 받고있는 사람이였다.

김구는 방안을 오락가락하면서 생각을 가다듬다가 펜을 잡더니 단숨에 써내려갔다. 격앙된 감정과 의지를 담은 주먹같이 큰 글발들이 그의 눈앞에서 춤을 추는것만 같았다.

길다란 종이가 빼곡 차자 김구는 《자네 한번 큰소리로 읽어주게.》 하며 비서에게 넘겨주었다.

비서가 다 읽어주자 김구는 《음, 내 하고픈 소리는 대충 들어갔으니 더 어물거리지 말고 나가세나.》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성명문을 들고 2층로대에 나갔다.

그러자 대문안팎에 장사진을 치고 롱성을 벌리고있던 망나니무리들이 벌떼처럼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북행반대!》, 《남북회담 결사반대!》

한패의 무리는 백범이 나타나자 엉엉 곡을 울리기 시작하였다.

김구는 두눈을 무섭게 부릅뜨고 추태를 벌리는 각설이무리들을 노려보다가 고함을 질렀다.

《조용들 하라. 백범이 죽기나 했는가?》

그러자 비서가 옆에서 큰소리로 소리쳤다.

《조용들 하라! 이제부터 상하이림정 주석이며 〈한국독립당〉 위원장 백범선생님께서 성명을 발표하시겠습니다.》

비서가 이렇게 장중하게 선언하자 갈가마귀떼처럼 소란스럽던 놈팽이들이 물뿌린듯 잠잠해졌다.

김구가 돋보기를 꺼내 코등에 걸고 종이장을 눈앞에 가져갔다.

《어험!… 삼천만동포에게 울며 고하노라!…》

그러자 어느 놈이 시작했는지 요란한 박수가 터졌다. 드디여 김구가 항복선언을 하게 되였다고 판단했던것이다.

《나, 백범은 삼천만동포에게 백번 절을 드리면서 다시한번 엄숙히 고한다.

나는 이미 공언했던 그대로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일을 위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데 협력하지 않을것이다.

나는 평양으로 가는 길이 애국의 길이요, 통일의 길임을 굳이 확신하는 마음에는 티끌만한 동요도 없다는것을 다시금 엄숙히 선포하는바이다.

지금 분렬추종무리들이 나의 북행길을 끝끝내 차단하려 하지만 백범은 국민께 다진 약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것이다. 나는 내 생전에 38°선 이북에 기어이 가서 통일국사를 의논하고야말것임을 삼천만동포에게 다시금 맹약한다.》

김구의 뒤말은 또다시 란잡한 목소리들이 삼켜버렸다.

《백범은 국민을 버렸다!》

《백범은 미쳤다!》

《백범은 즉살하라!》

그러나 김구는 종이장에 빼곡이 쓴 성명문을 마저 읽고서야 고개를 들었다. 돋보기를 벗고 부릅뜬 눈으로 악을 쓰는 무리들을 노려보았다.

《들어갑시다, 어서!》

비서가 이자리에 더 지체하다가는 돌벼락이라도 뒤집어쓸것 같아 그를 안으로 억지로 끌고들어갔다.

이때를 기다려 안지생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안지생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꽉 메우고있는 깡패들에게 길을 내라고 욕설을 퍼부어대다가 큰소리로 백범선생님께 미군정에서 손님이 왔노라고 전하라고 하였다. 깡패들때문에 2층으로 올라갈수 없었던것이다.

한놈이 김구가 거처하고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김구는 두루마기까지 걸친채 분을 새기며 망연자실해서 창문밖을 내다보고있었다.

김구가 그놈이 기척도 없이 방에 들어서자 《무슨 놈의 본때냐?》 하고 버럭 고함을 내질렀다.

《저… 군정청에서 손님이 왔다고 비서선생이 전하라고 했습니다.》

《내 비서는 어디 있고?》

《복도에서 기다립니다.》

김구는 분명 안지생이 무슨 수를 쓰고있다는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평양에 함께 갈 비서와 아들을 돌아보며 《따라서게.》 하고 먼저 방을 나섰다.

복도에 웅크리고앉아 웅성거리던 망나니들이 이미 안지생의 소리를 들은지라 두말없이 길을 내주었다.

아래층에서 기다리고있던 안지생은 그들을 뒤문으로 안내하였다.

김구일행을 태운 승용차는 쏜살같이 서울을 빠져나와 38°선으로 달리였다.

대표들의 북행길을 개척하는데는 김명호가 포섭한 연선군경찰서장 리해진이 많은 일을 하였다. 그는 장단북쪽 고랑포방면을 비롯한 여러곳에 목탄제조장을 펴놓고 조직성원들에게 목탄제조업허가증을 내주어 북행통로를 개척하도록 하였다. 물론 미국놈들은 이미 김구, 김규식과 사회여론앞에서 북남대화를 지지하는 립장을 보여주었기때문에 민주인사들의 북행길을 공개적으로는 가로막을수 없었다. 그러나 도중에 테로분자들을 내몰수 있었다.

김구일행은 려현쪽으로 들어오다가 군사대치선으로 규정된 지점에 이르러 사진을 찍었다.

하나로 뻗어간 지맥우에 무겁게 들이박힌,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계선에서 조국의 남과 북을 둘러보는 김구는 감개무량함을 금할수 없었다.

방금전까지도 있었던 일들이 벌써 아득한 옛말처럼 떠오른다.

김구는 어쩐지 정시명이 보고싶어졌다.

《정선생을 회의장에 가면 만나게 되겠지?》
김구는 은근한 어조로 물었다.
《아마 그렇게는 안될겁니다. 서울에 남아있을겁니다.》
《어째서?… 그 사람이야말로 그자리에 있어야 할 어른이 아닌가?》
《우릴 떠나보내면서 미국놈들이 또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있는지 모르겠다고 걱정하더랍니다.》
《그래?… 음… 정선생께 빚만 가득 짊어졌네.》
《선생님, 정말 이렇게 결단을 내린건 훌륭한 일입니다. 타도 김구라고 하던 민심이 애국지사 김구로 돌아서게 되였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장거입니까.》
《그네들이 정말 날 그렇게 받아줄가?》
《정향선생은 오래전부터 간절히 기다려왔습니다. 그것이 **김일성**장군님의 뜻이라고 했답니다.》
《그게 김장군의 뜻이라고?!… 그래, 그랬구만!》
김구는 고개를 끄떡끄떡하고는 다시 깊은 생각에 잠겨들었다. 그는 걸음을 쉬이 옮기지 못한채 그 무슨 미련이 있어서인지 남쪽하늘에서 눈길을 거두지 못한다.
새파란 봄하늘에는 구름송이들이 뭉게뭉게 떠있다. 풀어놓은 솜뭉치처럼 희고 부드럽고 탐스러운 구름송이들은 유유히 떠돌며 조용히 대지를 굽어본다. 그밑에 끝없이 펼쳐진 벌과 그 변두리에 잇닿아있는 차령산줄기의 높고낮은 산발들이 젖빛안개에 싸여 안겨온다. 봄볕에 한껏 무르녹는 산과 벌은 바야흐로 푸른 옷을 떨쳐입었는데 사이사이 붉고 희고 노란 꽃들이 아름답고 선명한 대조를 이루어 새봄의 정취를 한결 이채롭게 해준다.
하지만 지금 김구에겐 펼쳐진 남녘의 하늘밑이 아름답게만 보이지 않았다. 저 산발들이 김구에게는 너무도 눈에 익다. 남으로 북으로 세월없이 뻗어간 구불구불한 오솔길조차 뜬금으로 그려낼수 있다. 얼마나 많은 한숨과 눈물과 피를 날리며 숱한 자욱을 찍어온 길들이랴. 저 하늘과 산발들에 잇닿은 기슭에 한껏 서린 뿌연 구름이 지금 그의 눈앞에는 먼지구름처럼 안겨온다. 그 먼지속

을 헤치며 솟아오르는 기발, 기발들…
김구는 눈을 스르르 감았다. 와! 와! 귀전을 두드리는 함성! 함성!
조정을 들부셔라!
탐관오리들을 몰아내자!
전봉준이 추켜들고 동학당이 추켜들고 자기도 추켜들었던 기치! 기치!
그뒤를 이어 끝간데없이 이어져온 그 무수한 좌절과 피의 몸부림과 눈물의 바다… 고행에 찬 난바다가 저 푸른 하늘밑에서, 저 평화로운 송이구름밑에서 조용히 잠들어버렸는가. 김구는 다시 눈을 뜨고 남쪽을 바라본다.
두툼한 입술새로 가느다란 한숨이 새여나왔다. 그는 돌아섰으나 북쪽하늘가로 련련히 뻗어간 산발들을 망연히 바라본다. 그 눈빛이 착잡하기 이를데 없다. 이제 가야 할 길, 한발 떼면 북쪽 땅이다.
북쪽의 대지에 선뜻 발이 나가지 않는다.
《정말 날 그렇게 받아줄가?》
혼자소리처럼 되뇌이는 김구의 소리다.
그 소리에 비서가 충동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연해졌다. 남과 북의 경계선에 이르니 다시 배속깊은 곳에서 불신과 의혹의 연기가 몰몰 피여오르는 모양이다. 또다시 두터운 입술을 붙인채 굳어진듯싶다. 들었던 한발을 다시 뒤발에 갖다붙이고 북쪽하늘만 얼없이 쳐다본다.
(저 인간은 언제면 다시 살아날려나?)
비서는 속깊이 탄식하면서 《백범선생님, 어서!》 하고 화가 동해서 길을 재촉하였다. 그리고 먼저 크게 걸음을 옮겼다.
《그래, 가야지.》
그제야 시름겹게 북쪽으로 첫자국을 옮겨놓는다.
오래동안 반공의 심연에 휘말려들어 우왕좌왕 방황하면서 모대겨온 김구의 곡절많은 모습을 옆에서 보아온 비서는 북쪽에 들어서는 이 순간의 그 인간의 감정이 리해는 되였다. 그렇지만 자

신도 어쩔수없이 화가 났다.

(저래가지고 회의에 가서 좋은 소리를 하게 될가? 장군님도 뵈와야 되겠는데…)

걱정스럽기만 하다.

(이거 야단이 아닌가. …)

평양에 가서 트집을 걸고 심술을 부리면 들인 공이 의미가 없어진다. 예까지 이른 김구의 행적이 일시에 떠오른다. 그에게 들인 품을 어찌 천으로만으로 헤아리랴. 장군님의 간곡한 뜻과 도량이 없었을진대 정시명도 물러선지 오랬을것이다. 어제 점심무렵에 정시명이 자기의 손목을 잡고 걱정하던 말이 문득 떠올랐다.

《동무가 옆에서 잘해주어야겠소. 백범이 길떠났다고 마음놓을거 못되오. 난 오히려 장군님앞에 나설 백범을 생각하느라면 가슴이 죄여들기만 하오. 그는 지금 미국놈들에게서 떨어져나와 북행길에 오르기는 했으나 한번 가보자는 심리가 다분하오.》

정시명의 걱정도, 이 순간의 비서의 우려도 사실 공연한것이 아니였다.

…

평양에 들어섰어도 김구는 여전히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아름답지 못한 여운을 남기군 하였다. 안내를 맡은 일군들도 무색해지군 하였다. 그러나 체류일정이 하루이틀 지나감에 따라 김구는 완전히 모습을 바꾸었다.

세기의 태양을 받들어올린 만경대의 수수한 초가, 실안개 피여나는 들에서 거름지게를 지고계시는 장군님의 조부모님들과의 뜻깊은 상면, 장군님의 은혜로움을 눈물속에 이야기하는 용해공들, 장군님 은총을 받아 건국대업의 앞장에 나선 옛 련인 안신호…

70년 묵은 고목의 밑뿌리가 흔들거리기 시작했다. 그 해묵은것이 마침내 장군님의 품에 안겼을 때 언제였더냐싶게 그의 몸에서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야말았다.

위대한 태양의 자애와 뜻과 열을 받아안은 김구, 그 넓고도 깊고도 뜨거운 품에 매혹되여 선뜻 여생을 맡긴 김구.

세상에 널리 알려져 후손들에게도 길이 전해갈 그 전설같은 이

야기…

비로소 장군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서야 인생의 봄맞이를 한 김구의 인생전환의 사연들을 금방 38°선을 넘은 이 시각에는 상상할수 없었다.

지금도 비서는 그처럼 그리웁던 북녘의 하늘밑에 들어섰건만 김구에 못지 않게 걸음이 무겁기만 하였다.

5

이 시각 정시명은 마음의 탕개를 풀지 못한채 전우들에게 새로운 과업을 주고있었다.

…방심은 우리 사업에서 금물이다. 밝은 곳에서 패배한 놈들이니 어두운 곳으로 모략의 무대를 옮길수 있다. …

정시명은 이렇게 경종을 울렸다.

정시명의 예견은 맞아떨어졌다. 김구가 서울을 떠났다는 보고를 입수한 하지는 세모진 주걱턱을 부들부들 떨다가 곧 자기 방에서 특별공작그루빠의 긴급회의를 열었다. 그는 관계인물들을 불러들이고 실컷 욕설을 퍼부은 다음에야 베닝호프에게도 알렸다.

어제저녁에 김구의 저택을 경비대사관학교 학생들로 진을 치게 하자는 하지의 주장에 별수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자기는 신사답게 그 좀스러운짓에 관여하지 않는다는듯 일찌기 잠자리에 들었던 베닝호프는 하지의 때아닌 호출에 불길한 예감부터 앞섰다.

하지의 방은 썰렁한 공기가 돌고있었다.

베닝호프는 아직도 피곤이 실린 눈으로 자기를 묵묵히 맞고있는 그루빠성원들을 둘러보다가 노불에게 이르러 굳어졌다.

김구의 집울타리를 망나니들을 동원하여 포위하자는것은 저 노불의 착상이다.

명색이 그래도 정보국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있다는 작자가 겨우 내놓은 방안이 너무 치졸하고 무지막지한것이여서 처음에 베닝호프는 너털웃음을 터뜨리였다.

그런데 그보다 더 기발한 수가 나오지 않자 베닝호프는 저런 정치의 문외한들을 걷어안고 거사를 치르는 자기의 신세를 탄식하듯 이렇게 시들하게 대답을 주고말았다.

《당신 주패목이 이젠 다 거덜이 난것 같구려.》

그것은 그루빠에 망라된 하지를 비롯한 현지모사군들모두를 대상한 그의 야유이기도 하였다.

그래도 돌아앉아 생각하니 복잡한 계교가 통하지 않을 때는 우직한 힘내기로 막판승부를 겨루는것도 어쩌면 고급한 수법일지도 모른다는 자기 위안도 생겨 간밤에 홀로 위스키로 밸을 적시고는 일찍부터 침대에서 딩굴었던것이다.

베닝호프는 하지가 권하는 가운데자리를 흘깃 바라보고는 뒤자리에 있는 푹신한 쏘파에 까치다리를 하고 앉았다.

《노블국장, 그럼 당신의 말부터 들어봅시다.》

노블이 베닝호프의 눈길을 외면하다가 흠칫 놀라 자리에서 튕기듯 일어나 간단하게 보고하였다.

《김구가 한시간전에 서울을 떠났습니다.》

《뭐요? 끝내?!》

《나머지인물들도 김구의 북행소식을 듣고 전부 북상길에 오른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는?…》

베닝호프는 늙은이답지 않게 대뜸 승냥이눈처럼 번뜩이는 눈알을 굴려 하지의 얼굴에 시선을 박으며 비명처럼 내질렀다.

《책임한계를 따질 때가 아니지요. 대책을 세워봅시다.》

하지는 성이 독같이 오른 이 마샬의 거만한 특사를 야릇한 눈길로 마주쏘아보며 비웃듯이 저력있게 그의 말을 받아메쳤다. 그 어조에는 《샴팡에 군턱이 진 양복쟁이들도 용빼는 재주는 없구려.》하는 로골적인 조소와 적의가 풍기였다.

베닝호프는 그 소리에 가까스로 분을 삭이며 앞상에 주런이 앉

아 입을 다물고있는 사람들을 다시한번 모멸에 찬 눈길로 노려보고는 씹어뱉듯이 중얼거리였다.

《당신들은 이제는 그루빠에 더는 쓸모가 없소. 다들 물러가시오. 레코라우스씨만 남고…》

베닝호프의 김빠진 넋두리에 특별공작그루빠성원들은 이 불편스러운 자리를 거두게 된것이 다행스러운듯 얼른 일어나서 도망치듯 방에서 나가버렸다.

휑뎅그레한 방안에 셋만이 남자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레코라우스씨, 유감스럽지만 이제는 당신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는 되지 말아야 되는 일인데. 준비는 되였겠지요?》

베닝호프는 며칠동안 그와 상종하면서 상대방의 인격에 자못 눌리우는바도 있어 정중하게 물었다.

《예, 〈결사대〉를 움직이겠습니다.》

《스무명이라 했던가?》

《스물넷입니다.》

《스물넷이라… 그 절반이라도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베닝호프가 혼자소리로 중얼거리자 레코라우스는 고개를 끄덕이였다. 그는 이미 베닝호프의 방안에 따라 마지막예비안으로 미군첩보대소속의 악질반동들로 《결사대》라는 테로단을 조직하여놓고 파견준비를 완료하였다. 그놈들은 회의직전이나 회의기간에 해주, 평양을 비롯한 북반부지역에서 각각 1명의 대표들을 테로하며 이어 회의장을 비롯한 평양의 공공건물에 대한 방화, 폭발과 소요를 일으킬 임무를 받고있었다.

애초에 하지가 남측대표들을 몇사람이라도 38°선이남지역에서 테로하여 대표들에게 겁을 주어 동요하게 하는것도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레코라우스가 강경하게 반대하였다.

그것은 어느모로 보나 미국의 위상을 어지럽히는것으로 되므로 거사는 북측지역에서 북측반체제인물들의 실력행사로 되게 해야 한다는것이였다. 베닝호프도 지지하여 지금껏 사태발전을 지켜보기만 하였다.

《마지막기대를 걸어봅시다.》

베닝호프는 퍼그나 침통한 어조로 말했다.

《결사대는 자기 임무를 수행할것입니다.》

베닝호프는 쏘파에서 일어나다가 《하지사령관.》 하고 여느때없이 은근하면서도 진중하게 불렀다.

《당신에게 내 한가지 경고할게 있소.》

그 소리에 하지의 눈빛이 차겁게 번뜩거렸다. 자기도 패자가 되여 쫓기워가는 주제에 무슨 당치 않은 훈시질이냐는 일종의 경멸감과 반발이였다.

베닝호프는 그의 눈에서 번쩍거리는 적의를 간파하였으나 년장자답게 벌깃한 얼굴에 느슨한 미소를 지어보이며 띠염띠염 자기의 립장을 표명하였다.

《다른게아니고 당신들은 결코 김구나 김규식세력과 결투를 벌리는게 아닌것 같소. 보이지 않는 커다란 힘이 그들의 그림자에 가리워있단 말이요.》

하지가 베닝호프의 진지한 이야기에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졌다.

《그건 당신께서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판단입니까?》

《아니, 근거는 없소. 륙감이요. 당신은 지금 이 나라에서 력사적인 대결의 상대역으로 되고있소.》

하지의 주걱턱이 부르르 떨리는것이 알렸다.

이 순간 하지는 한달전에 보내온 고등첩자 박헌영의 비밀보고가 생각났다.

박헌영은 하지하고만 련결되여있었다.

그놈은 이렇게 보고하여왔다.

《지금 서울에는 당신들과 맞선 강력한 지하망이 움직이고있다. 그 중심에 정시명이라는 인물이 있다. 그이상은 나도 모른다.》

그때 하지는 보고전문을 재털이에 태워버리며 랭소를 지었다.

(서울에 그런게 한두개라고…)

그런데 지금 베닝호프가 일깨워준다.

우연한 일치인가.

아직은 하늘의 구름잡기다. 좀더 두고보자.

하여튼 베닝호프, 당신의 륙감이 대단하다. 늙으면 지혜로 산다

고 했던가.
정시명이라?
그 어떤 유령이 자기의 목덜미를 끌어쥐고있는것 같다.
하지는 주먹을 으스러지게 틀어잡았다.
베닝호프는 하지가 자기의 충고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생각되자 개화장을 찾아들고 돌아섰다.
베닝호프가 방에서 나가자 모략의 왕초들의 밀회는 끝났다.
레코라우스는 자기의 소굴로 돌아가자 인차 조태준을 앞세우고 인천앞바다에 있는 무인도로 향했다.
그는 조태준의 통역밑에 스물네명의 괴한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임무와 준비정형을 재확인하였다. …
무장악당들은 해주와 평양으로 향한 기차간에서 한놈도 남김없이 일망타진되였다.
베닝호프와 하지, 레코라우스는 비장한 심정으로 이 작전에 마지막기대를 걸고 회의가 끝날 때까지 38°선이북지역을 넘겨다보면서 《폭동군중의 함성》이나 《불타는 도시》를 기다렸으나 한방의 총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남북련석회의가 마침내 평양에서 성대하게 열리고 민족분렬과 《단선단정》을 배격하는 결정이 북남정치인들의 우뢰같은 박수속에 채택된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과 리승만일파는 혁명력량과의 첨예한 대결에서 저들이 대참패하였다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세계여론앞에서 단독선거의 명분은 자취를 감추어버렸고 미국의 추종세력은 보잘것 없는 세력으로 약화되였다.
평양에서 열린 북남정치인들의 공식적인 회합소식이 전해지자 미국무장관 마샬은 노발대발하며 베닝호프에게 당장 워싱톤으로 돌아오라고 호통쳤다.
그리고 하지에게는 전화로 《중장, 당신은 패배자요. 당신은 어깨에 있는 별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있소. 당신은 우리모두를 난처하게 만들었소.》 하고 투덜거리며 특별공작그루빠를 해산해버리라고 지시하였다.

하지는 특별공작그루빠를 제 방에 불러들여 해산해버릴데 대한 국무성의 지시를 전달하고는 이렇게 마샬에게서 받은 모욕에 대한 분풀이를 하였다.

《우리는 대참패하였소. 나는 조선에서 오래동안 일해온 선교사들—당신들의 말만 듣고 정치를 하다가 거듭 실패만 하고 있소.》

하지는 20세기초에 조선에 건너왔던 선교사2세들인 노불과 윌리암 등 이른바 《조선통》으로 자칭하는 제놈의 보좌관들을 노려보다가 문득 본스틸의 음침한 눈과 마주쳤다.

그도 서울에 와서 심리적압박감과 파로에 지쳐서 볼이 훌쭉해지고 낯색이 꺼칠해졌다.

하지는 자기를 쳐다보는 본스틸의 거만한 눈길에 조소와 야유의 빛이 언뜻 어려있는것을 포착하였다.

그걸 보자 애숭이대좌앞에서 그래도 백전로장이라는게 허둥거리는 꼴을 보인게 무안하고 후회가 났다.

(저 애숭이가 돌아가면 소문을 놓겠지. 하지가 서울에 가더니 정신분렬증에 걸린것 같다고… 흥, 네놈이 내 자리에 앉아봐라. 건방진 놈!)

그러나 지금 하지는 이때로부터 수십년이 지나 바로 저 애숭이가 주《한》미군사령관자리에 틀고앉아 수치와 치욕의 쓴 술을 들이키며 분통을 터뜨리는 옛 사령관의 몰골을 그려보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고있었다.

본스틸도 아직은 그 후날을 생각하지 못하고있다. 사람의 일이란 참으로 기기묘묘하다.

하지는 본스틸에게서 눈길을 거두고 억양을 눌러가지고 조용히 이야기를 끝내였다.

《당신들은 나와 백악관앞에서 참패의 책임을 함께 지게 될것이요. 당신들은 나의 군복무를 비참한 종말로 마치게 했소.》

이 정치적패배가 얼마나 크고 치명적이였던지 일리노이주립대학을 졸업한이래 《3성장군》이 될 때까지 승리와 무공만 세워왔다고 자화자찬하여온 하지는 남조선에서 돌아간 후 공식기자회

견에서 다음과 같이 실토하였다.

《미국은 조선사람들과의 대결에서 노카우드되였다. 그것은 일평생 내가 맡았던 일중에서 최대의 임무였고 최대의 실패였다. 조선사람들은 갓쓰고 하늘소 타고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다.》

정시명은 련석회의가 열린 평양의 모란봉극장에서 울려퍼지는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을 시중심으로부터 북쪽으로 멀리 떨어진 백운대의 다박솔밑에서 례영이, 안지생과 함께 라지오로 듣고있었다. 온 세상에 조선민족의 대단결과 통일에 대한 철석의 의지를 장엄하게 선언하시는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의 친근한 음성을 접하는 정시명은 다함없는 흠모와 그리움에 사무쳐있었다.

(아, 장군님께서 얼마나 기쁘시여 대회장에 달려온 이 나라의 애국자들을 굽어보시랴!)

잊을수 없는 그밤, 함박눈이 소담하게 내리던 그밤에 다심한 정을 기울여주시던 그이의 모습이 사무쳐온다.

(장군님! 장군님의 애족애민의 높은 뜻이 드디여 민족대화합의 화원을 마련하였습니다.)

곡절많은 진창길을 용케 헤치고 마침내 장군님의 애국의 뜻에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박수를 보내고있는 행복한 모습들이 한명한명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누구나 할것없이 가슴조이게 하는 사연들이 얽혀있다.

그 가지가지가 마치도 밀려드는 파도처럼 일시에 다가선다. 한숨과 눈물과 분노와 증오가 수없이 교차되면서 오늘의 행복에로 이어진 숨가쁜 낮과 밤들이 이제는 옛날옛적이 되였다. 시대의 가녁에서 헤매던 그네들이 마침내 겨레가 사랑하는 통일의 선각자가 되고 후세들앞에 부끄럼없는 자욱을 남기게 되였다.

력사의 걸림돌로 될번 했던 그네들의 이름이 장군님의 사랑의 빛발을 따라 통일년대기에 자랑스레 새겨지게 되였으니 얼마나 장한가. 얼마나 행복한가.

그대들을 축복하노라.

아름다운 삶의 궤도에서 이제 더는 빛을 잃지 마시라. …

정시명의 얼굴에도 행복의 미소가 넘쳐흐른다. 온갖 시름이 다 가셔진 밝고도 깨끗한 미소였다.

만단사연 비낀 모습들이 물러가자 대회장에서 누구들보다도 감회와 긍지를 안고 승리의 환호성에 자기 목소리를 합치고있을 미더운 전우들의 모습이 그려진다.

전우들은 정시명을 평양으로 등을 떠밀었으나 초소를 떠날수 없었다. 평양에 가서 장군님을 뵈옵고싶은 마음은 불같았으나 놈들의 흉계가 예견되여 한없는 그 행복을 마다하는수밖에 없었던것이다.

김명호와 몇명의 동지들이 지휘부의 결정에 따라 소속된 정당의 대표자격으로 평양으로 떠나갔다.

거기에는 박정인도 끼여있었다.

지휘부모임에서는 박정인은 회의가 끝난 뒤 평양에 눌러앉기로 결정이 되였다. 이 결정을 놓고 박정인이 노여워하기도 하고 나중에 성까지 냈지만 자신이 앞으로 지도부사업에 뜻하지 않게 부담거리로 될수 있다는것을 인식하자 접수하였다.

얼마전부터 검찰청의 부장검사 오성도의 부하들이 박정인의 주변에 촉수를 뻗치기 시작했던것이다. 그들은 박정인을 여러번 찾아와 고려상사의 세무관계와 수입과 지출정형을 따지고들었다. 그게 매우 수상쩍었다.

게다가 개성에서 올라온 보고에 의하면 만월동출장소 책임자가 여러번 호출되여 심문을 받았다고 한다.

정시명은 이것이 박영수의 희생과 관련한 적들의 새로운 움직임이라고 판단하였다.

놈들이 박영수의 죽음과 다이야사건이며 화페사건을 하나의 수사선상에 세워놓고있는것이 분명하였다.

그래 긴급모임에서는 이 문제를 심중히 검토하고 이번 기회에 박정인과 그의 가족을 전부 그의 고향마을에 보내기로 하였던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일단 락착짓자 박정인은 자기의 집과 고려상사를 팔아넘긴 거액의 돈을 고스란히 홍국상회에 들여놓았다.

정시명이 그럴수는 없다고, 강경하게 만류하였으나 박정인은 그게 섭섭하다고 여간 노여워하지 않았다.

박정인일행이 김명호와 함께 떠날 때 민순임이 개성에까지 동행하였다가 눈물속에 헤여졌다.

민순임은 돌아와서 정시명에게 주씨부인이 엉엉 소리내여 통곡을 하고 박정인이 눈물을 쭈룩쭈룩 흘리던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쿨쩍쿨쩍 거리다가 며칠째 가슴이 쓰려서 밥도 드는둥마는둥하였다.

지금쯤은 마동열도 안우생과 함께 회의장에 가있을것이다.

어제 고대하던 마동열의 소식이 왔다. 안우생과 함께 타국에 거점을 꾸리고 국제적판도에서 통일지지세력을 확대하기 위한 투쟁에 착수했다는 소식이였다.

자기들도 련석회의를 취재하기 위하여 간다고 전해왔다.

례영이 이 소식을 듣자 너무 좋아 눈물을 펑펑 쏟았다. 기뻐 어쩔줄 몰라하는 례영이를 더 기쁘게 해주고싶어 백운대에 데리고왔는데 회의장에서 박수소리가 날 때면 선참으로 손벽을 친다.

또 다른 모습들이 다가온다.

려운형이다! 박영수다!

아! 아!… 순간 가슴이 미여지듯 아파온다.

눈부리가 홧홧 따가와온다.

그들이야말로 마땅히 이 남녘의 민심을 대표하여 당당히 저 대회장에 가야 할 사람들이다.

그네들이 지금 살아서 저 영광의 자리에 가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북남이 하나로 합쳐질 때까지 죽지 말자고, 오래오래 살자고 굳이 언약한 몽양…

애오라지 이 나라의 애국자로 사는것을 삶의 좌표로 곧추 세우고 제 한몸을 통일제단에 바친 박영수,

정시명은 부지불식간에 가슴 한복판을 쩡—가르며 치밀어오르는 통분과 아픔을 참아내느라고 주먹에 힘을 주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들은 자기의 붉은피로 이 나라의 애국의 숲을 무성하게 하

고 미국의 란도질로부터 그 숲을 지켜냈다.

그들이 흘린 피도 통일대업의 저 빛나는 승리에 력력히 어려 있다.

그들은 죽지 않았다. 죽지 않을것이다. 영원히 죽지 않을것이다. 이 땅을 진감하는 저 통일찬가속에, 부강번영할 조국의 하나된 미래속에 그들이 흘린 피는 영원히 마르지 않고 맥맥히 흐를것이다.

또다시 라지오에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나온다. 그것은 통일은 이 나라의 생존방식이요 지상의 꿈이라는, 그길에서 이 나라 사람들은 만복을 찾는다는 이 나라의 억척의 의지요 신념이다.

정시명은 박수를 쳤다.

례영이도 안지생도 눈굽에 구슬같은 물방울을 반짝이며 기쁨에 넘쳐, 감격에 넘쳐 박수를 쳤다.

장편소설

력사의 대결

제2부 혈맥

제3판

저 자	허문길	편 집	리도현
그림 및 장정	강상준		
편 성	정향애	교 정	전경숙

낸 곳	금성청년출판사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
1판발행	주체89(2000)년 2월 10일
2판발행	주체95(2006)년 7월 20일
3판인쇄	주체101(2012)년 3월 5일
3판발행	주체101(2012)년 3월 10일

ㄱ－16568 값 220원

ISBN 978－9946－21－316－3